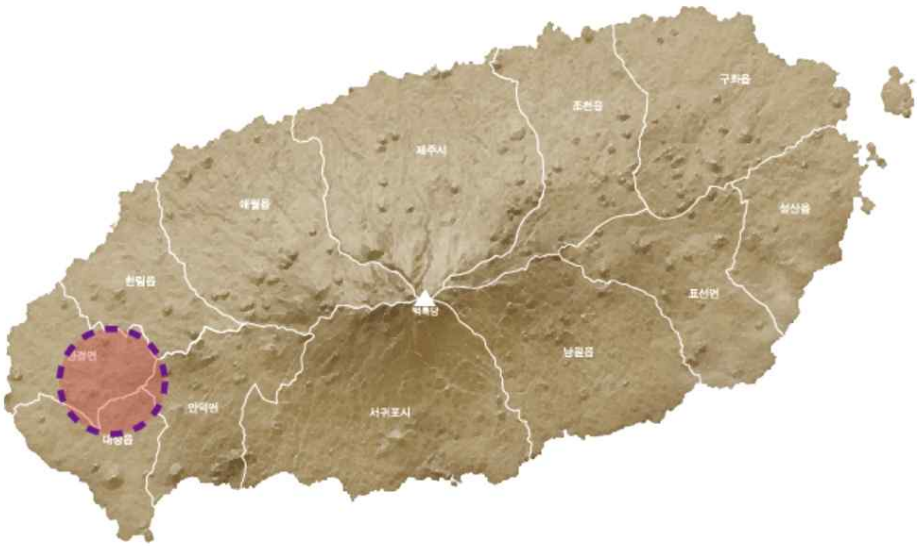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469-01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9

-한경면 청수리

구술: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안민희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11-20)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9

-한경면 청수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65
3. 밭일 ····· 149
4. 들일 ····· 272
5. 의생활 ····· 332
6. 식생활 ····· 361
7. 주생활 ····· 404
8. 신앙 ····· 422
9. 세시풍속 ····· 427
10. 놀이 ····· 447
11. 통과의례 ····· 455
12.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468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8년 3월 20일~2018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그리고 제보자와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 ·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5. 사업 추진 과정

‘2018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기호인 [ ] 속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7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함덕리’ 구술 자료가『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 ) 속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단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안민희 #1: 문창립 #2: 강성현, #3: 강대흥, #4: 이오생, #5: 오옥희, #6: 김춘선, #7: 강영래 #8: 고성이, #9: 박성요, #10: 오행순)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이 마을은 청수리잖아예. 만들어진 역사란 말이지예. 형성. 이 마을은 어떵 헹 만들어졌습니까? 들은 얘기를 골으믄 뒈마씨. 무사 청수리옌 헤신고예?(이 마을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을은 청수리잖아요. 만들어진 역사란 말이지요. 형성. 이 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들은 얘기를 말하면 되요. 왜 청수리라고 했는가요?)

101001 #2 형님부터 말허쿠과?(형님부터 말하겠습니까?)

101001 #1 우리 청수리는 저지 본향 청수라고 허는데 금악 본향 저지 잇고, 저지 본향 청수 잇고, 청수 본향 산양인데, 이게 역ᄉᆞ적으로 대게 기록이 잇엇으면은 어, 옛날 갑자을축이라도 무슨 년도에 청수가 개방이 뒈엇다든지 뭐를 이런 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예. 게서 우리 들은 말로는 이렇게 보면은 어 목장, 목장도 헤변도 목장이 잇고, 우리 산간에도 바다목장이 잇엇다고 헤여. 헌데 필요 없으니까 다 풀아버리니까 어디 저 두모, 신창 어디 용수 그 근처에 배정을 받아낫다고 그런 말을 옛 어른덜안티 들은 것이 잇는데 이게 확실허게 근거가 없어도 엣 어른덜안테 들은 말베끼 없어노니까 게 뭐 순위 잇게 말을 헐 수가 없는데예.(우리 청수리는 저지본향 청수라고 하는데 금악 본향 저지 있고, 저지본 향 청수 있고, 청수본향 산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대개 기록이 있었으면 어, 옛날 갑자을축이라도 무슨 년도에 청수가 개방이 되었다든지 뭐를 이런 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들은 말로는 어 목장, 목장도 해변도 목장이 있고 산간에도 바다목장이 있었다고 해. 그런데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어디 저 두모, 신창 어디 용수 그 근처에 배정을 받았었다고 그런 말을 옛 어른들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근거가 없어도 옛 어른들한테 들은 말밖에 없어버리니까 게 뭐 순위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101001 @ 청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진 않고 오직 청수꽈?(청수를 다른 이름으로 오직 청수입니까?)

101001 #2 다음은 제가 청수, 나가 이제 사투리로 나가 아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쿠다예. 청수옌 헌 마을은 저지가 닥ᄆᆞ룬[1]디.(다음은 제가 청수, 내가 이제 사투

1) '닥ᄆᆞ루'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옛 이름. '당ᄆᆞ를'이라고도 한다.

리로 내가 아는 사투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수라고 한 마을은 저지가 '닥ᄆᆞ루' 인디.)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왜 닥ᄆᆞ루라고 헷느냐허면은 닥형치에 닥대가리 형치라고 헤서 닥ᄆᆞ루에 우리 청수ᄆᆞ을이 같이, 같은 ᄆᆞ을로 뒈엇다가 에, 다음에 그 방에왓[2]이라는 데가 잇엇수다. 그 방에왓디서부터 이제 닥ᄆᆞ루 동네, 그 동네 사람으로서 방에왓디 강 살앗는데 그 동네가 차차차차 커지니까 에, 청수라고 헤서 분리를 헤십주. 건 방에왓은 왜 방에왓이라고 허느냐? 그 처음 사름 살던 앞에 이 물왓이 넓어서 물이 많이 이제 앚입주. 그러니까 크게 이 장마 때 비가 크게 오니까 그때는 생활 그 용품이 집이서 다 이 보리도 찌엉 먹고, 에, 그 저 조도 찌엉 먹고.(왜 '닥ᄆᆞ루'라고 했느냐하면 닭 형체에 닭대가리 형체라고 해서 '닥ᄆᆞ루'에 우리 청수마을이 같이 같은 마을로 되었다가 에, 다음에 그 '방에왓'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왓'디서부터 이제 '닥ᄆᆞ루' 동네, 그 동네 사람으로서 '방에왓'에 가서 살았는데 그 동네가 차차차차 커지니까 에, 청수라고 해서 분리를 했죠. 건 '방에왓'은 왜 '방에왓'이라고 하느냐? 그 처음 사람 살던 앞에 이 물밭이 넓어서 물이 많이 이제 앉죠. 그러니까 크게 이 장마 때 비가 크게 오니까 그때는 생활 그 용품이 집에서 다 이 보리도 찧어 먹고, 에, 그 저 조도 찧어 먹고.)

101001 @ 몰방에?(연자매?)

101001 #2 예. 몰방에가 아니고 그냥 남방엡주. 나무로 멘들앗다 헤서 남방엔디 그 큰 비가 오니까 아, 그 물통밧더레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뒈가지고 방에가 그 물왓디 터갓다헤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엉 이름이 뒈엇엇수다. 그 다음에 으 ᄎᆞᄎᆞᄎᆞᄎᆞ.(예. 연자매가 아니고 그냥 남방아죠. 나무로 만들었다 해서 남방안데 그 큰 비가 오니까 아, 그 물통밭에 흘러나간 그것이 이제 땅이름이 돼가지고 방아가 그 물밭에 떠갔다해서 '방에왓'이라고 이제 지어서 이름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으 차차차차.)

101001 @ 아까 그 방에왓디?(아까 그 '방에왓'디?)

101001 #2 경혜연 방에왓디 처음 청수옌 헌 이름도 뒈기 전에 지워지기 전에 살다가 ᄎᆞᄎᆞᄎᆞᄎᆞ 이제, 이 이제 동네가 많이 사람이 와서 살게 뒈니까 이제 독ᄆᆞ루 저지하고 분리를 헤서 청수라고 마을 이름을 지어십주. 에, 그 청수라고 지은 건 무슨 때문에 청수라고 지엇느냐? 맑을 청 자허고 빼어날 수 자 이렇게 헤서 청수라고 헷는데 요 앞에 보면은 물이 큰 비가 와나면은 으 거기서 물이 쪼금씩 솟아오르고, 또 가뭄 때도 항상 거기가 물이 고이니까 어, 맑은 물이 이제 우수허다 경 혜연.(그렇게 해서 '방에왓'에 처음 청수라고 한 이름도 되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살다가 차차차차 이제, 이 이제 동네가 많이 사람이 와서 살게 되니까 이제 '독ᄆᆞ루', 저지하고 분리를 해서 청수라고 마을 이름을 지었죠. 에, 그 청수라고 지은 건 뭣 때문에 청수라고 지었느냐? 맑을 청 자하고 빼어날 수 자 이렇게 해서 청수라고 했는데 요

2) '방에왓'은 청수리에 있는 옛 지명으로 남방에가 '물통밧'으로 떠가 그것이 땅이름이 된 것이다.

앞에 보면 물이 큰 비가 오고 나면 으 거기서 물이 조금씩 솟아오르고, 또 가뭄 때도 항상 거기가 물이 고이니까 어, 맑은 물이 이제 우수하다 그렇게 해서.)

101001 @ 어디가 아까 어디가 물이 고여마씨? 물통 잇어마씨?(어디가 물이 고여요? 물통 있어요?)

101001 #2 요 앞이 잇엇다가 개인 소유가 뒈가지고 이젠 다 메완 과수원을 멘들아 불어서.(요 앞에 있었다가 개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이젠 다 메워서 과수원을 만들어 버렸지.)

101001 @ 아아. 물통이 잇엇구나예.(아아. 물통이 있었군요.)

101001 #2 경 헤연 그 물을 위주로 헤서 동네가 점점점점 형성이 뒈고 에, 마을 일름도 그렇게 지어지다가, 에, 그거 수년 지내다보니까 이 맑을 청 자, 빼어날 수 자만 허니까 물에 에 그렇게 우수헤서 동네가 뒌 거인디이 글자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헤서 맑을 청 자, 물 수 자로 고쳐십주. 빼어날 수 자를. 그레서 에, 특이허게 맑은 물이 이제 솟아나고 이제 저장뒈곡 물이 맑은 동네라 헤서 맑을 청, 물수 자를 부쪄서 청수리라고 헤서 이제까지 내려온 거입주.(그렇게 해서 그 물을 위주로 해서 동네가 점점점점 형성이 되고 에, 마을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다가, 에, 그거 수년 지내다보니까 이 맑을 청 자, 빼어날 수 자만 하니까 물에 에 그렇게 우수해서 동네가 된 건데 글자가 맞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맑을 청자, 물수 자로 고쳤지요. 빼어날 수자를. 그래서 에, 특이하게 맑은 물이 이제 솟아나고 이제 저장되고 물이 맑은 동네라 해서 맑을 청, 물 수자를 붙여서 청수리라고 해서 이제까지 내려온 거지요.)

101001 @ 마을의 형성예?(마을의 형성이요?)

101001 #2 예. 형성.(예. 형성.)

101001 @ 게난 일제시대에 한자말로 바뀐 건지? 옛날(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한자말로 바뀐 건지?)

101001 #2 일제 전에, 일본시대 전에 이거를.(일제 전에, 일본시대 전에 이거를.)

101001 @ 청수리옌 헷다는 거마씨?(청수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101001 #2 예. 예. 이거를 청수리옌 헷는디 글자만 그렇게 바꽈십주.(예. 이것을 청수리라고 했는데 글자만 그렇게 바꿨지요.)

101001 @ 게난 학자들이나 유배자가 잇이난 한자들은 옛날부터 썻주게.(그러니까 학자들이나 유배자가 있으니까 한자들은 옛날부터 썼죠.)

101001 #2 예. 예.(예. 예.)

101001 #1 우리가 듣기에는 그 옛날은 아마도 그런 그 아는 사람덜이 잇엇던 모냥이라예. 인재가 나면은 단명허겟다.(우리가 듣기에는 그 옛날은 아마도 그런 그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인재가 나면 단명하겠다.)

101001 @ 응.(응.)

101001 #1 단명허니까 빼어날 수 자를 빼고 물 수 자로 바꾸거라.(단명하니까

빼어날 수자를 빼고 물 수자로 바꿔라.)

101001 @ 무슨 수자? 빼어날 수 자에서 물 수 자로 바꿔라.(무슨 수 자? 빼어날 수 자에서 물 수 자로 바꿔라.)

101001 #1 예. 빼어날 수 자를 물 수 자로 바꾸고 이제 우리 청수 마을은 멘 배 형국이라고 헤여.(예. 빼어날 수자를 물 수자로 바꾸고 이제 우리 청수 마을은 맨 배 형국이라고 해.)

101001 @ 예?(예?)

101001 #1 배를 개맛[3]디 매어있는 형태라고 헤서.(배를 '개맛'디 매어있는 형태라고 해서.)

101001 @ 배를 개밧디?(배를 개밧에?)

101001 #1 개맛이라고 허잖아. 바닷가에, 바닷가에 이 저 요즘 조그만헌 이 성창. 배 매는 고깃배 ᄀᆞ튼 거 매는.('개맛'이라고 하잖아. 바닷가에, 바닷가에 이 저 요즘 조그마한 이 성창. 배 매는 고깃배 같은 거 매는.)

101001 @ 성창을 개맛이렌 헙니까?(성창을 '개맛'이라고 합니까?)

101001 #2 예.(예.)

101001 #1 그런 그 에우싸진 디 바람 제고 허는.(그런 그 에워싸인 데 바람 자고 하는.)

101001 #2 부두가 형성되지 안 헤 가지고 그기 작은 배덜 왓다 갓다 허고 으, 해녀덜이 그 물질 나가곡 허는 일을 개맛이라고.(부두가 형성되지 안 해 가지고 거기 작은 배들 왔다 갔다 하고 으, 해녀들이 그 물질 나가고 하는 일을 '개맛'이라고.)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개맛이라고 헙니께. 개맛.('개맛'이라고 합니다. '개맛'.)

101001 #1 예. 그래서 저지.(예. 그래서 저지.)

101001 #2 그래서 개맛띠.(그래서 '개맛'에.)

101001 @ 배를 개맛에.(배를 '개맛'에.)

101001 #2 배를 매어져 잇는, 항해 허는 배가 아니고.(배를 매어져 있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고.)

101001 #1 맨 배 형이라 이거야. 맨 디 활동허는 데가 아니고 가만이 메여 잇는 밴디.(맨 배 형이라 이거야. 맨 데 활동하는 데가 아니고 가만히 매어 있는 밴데.)

101001 @ 매어 잇는 형상.(매어 있는 형상.)

101001 #2 매어져 잇는 배 형치다.(매어져 잇는 배 형체다.)

101001 @ 배 형치.(배 형체.)

101001 #1 그렇게 헤서 저지 학교 잇는 동산이 배 타는 동산이라고 헤요. 판잣동산[4]이라고 널판자.(그렇게 해서 저지 학교 있는 동산이 배 타는 동산이라고 해

3) '개맛'은 어귀에서 떨어져 육지 쪽에 위치한 포구이다.
4) '판잣동산'은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동산으로 지명이다.

요. ‘판잣동산’이라고 널빤지.)

101001 @ 저지 판잣동산.(저지 ‘판잣동산’.)

101001 #1 이 판잣동산 이렇게 허고 이 동네 주위에 뭣을 웃답대, 거욱대, 답대 헤가지고 이것은 배는 옛날은 풍선을 달아서 허니까 요 지금 기계 뭐허지만은 그래서 이제.(이 ‘판잣동산’ 이렇게 하고 동네 주위에 뭣을 ‘웃답대’, ‘거욱대’, ‘답대’ 해가지고 이것은 배는 옛날은 풍선을 달아서 하니까 요즘 기계 뭐하지만 그래서 이제.)

101001 @ 돛, 풍선?(돛, 풍선?)

101001 #1 그래서 이제 그 웃답대, 이제 거욱대, 이제 알답대 헤가지고 이것을 뭘 허고, 배에는 그 자그만헌 물이 잇어야 한다고 헤서 이제 그 물을 만들엇다고 헙니다. 게서 허다가 보니까 저 방에왓 밑에 흑수물이라고 허는 게 잇어. 흑수물이라고 그 물이 막 컸는데 거 옛날에는 거 물이 잘 고이는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깐 그 물이 막 컷는데 막 파가니까 장황 더끄라. 헤가지고 그냥 아마 천신이 얘기헷다는 그 전설이 잇는데 헷는지 말앗는지 흑비가 오람서니까니 장황 더끄라고 헷다고 허여마씨.(그래서 이제 그 ‘웃답대’, 이제 ‘거욱대’, 이제 ‘알답대’ 해가지고 이것을 뭘 하고, 배에는 그 자그마한 물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저 ‘방에왓’ 밑에 ‘흑수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 ‘흑수물’이라고 그 물이 아주 컸는데 그거 옛날에는 그거 물이 잘 고이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물이 아주 컸는데 막 파가니까 장항 덮으라. 해가지고 그냥 아마 천신이 얘기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했는지 말았는지 흙비가 오고 있으니까 장항 덮으라고 했다고 해요.)

101001 @ 무슨 비가 오난마씨?(무슨 비가 오니까요?)

101001 #1 흑비(흙비)

101001 @ 흑비. 흑비가 오난 장황 더끄라.(흙비. 흙비가 오니까 장항 덮으라.)

101001 #1 요 지금은 중국에서 놀아오는 그.(요 지금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101001 @ 황사.(황사.)

101001 #1 황사. 아, 그걸 옛날에는 뭐 흑비라고 헤서 여기서 그 장황에 그 들어가면은 먹음에 나쁘니까 장황 더끄라고 헌다고 헤서 그만 팡덜 집이 강 장황 더끄라. 그리 헷다고 허여.(황사. 아, 그걸 옛날에는 뭐 흙비라고 해서 여기서 그 장항에 그 들어가면 먹음에 나쁘니까 장항 덮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 파서들 집에 가서 장항 덮으라. 그리 했다고 해.)

101001 @ 그만 팡덜, 재밋다예. 그만 팡덜 장황 더끄라. 근데 어떵 웃드리에 배가 매어 잇는 형상인디 물은 엇이난. 물이 잇어야 뭰다.(그만 파서들, 재미있네요. 그만 파서들 장항 덮어라. 그런데 어떻게 중산간에 배가 매어 있는 형상인데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101001 #1 물을 크게 만들어 놔야 사람덜이 먹기 위헤서 그 물을 수축허는데 깊이 파가니까 그만 팡 집이 강 뭐 장황 더끄라. 그리 헷다고 헤여. 허.(물을 크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 물을 수축하는데 깊이 파가니까 그만 파서 집에 가서 뭐 장항 덮어라. 그렇게 했다고 해. 허.)

101001 @ 재밋다예.(재밌네요.)

101001 #2 그게 물통이 어떻게 헤서 흑수물[5]이라고 지엇느냐 하면은.(그게 물통이 어떻게 해서 '흑수물'이라고 지었느냐 하면.)

101001 @ 아이고.(아이고.)

101001 #2 그 흘습이라고 저걸 지어십주. 흘습은 뭐냐? 그 삼수변에 요렇게 저 비끌 헤가지고 높은 지대에 물이 고이는 디를 흘이라고 합니다요.(그 '흘습'이라고 저걸 지었죠. '흘습'은 뭐냐? 그 삼수변에 요렇게 저 삐침 해가지고 높은 지대에 물이 고이는 데를 '흘'이라고 합니다.)

101001 @ 흘?(흘)

101001 #2 예. 흘.(예. 흘.)

101001 @ 흘, 흑이 아니고예?(흘, 흙이 아니고요?)

101001 #2 흘, 흘, 흘. 그 저 그 젖일 흘 자에, 젖일 습 자, 게서 항상 물이 쪼그만 그 높은 지댄디 물이 항상 고이니까 흘습이라고, 그 물통 이름을 지엇는데.(흘, 흘, 흘. 그 저 그 젖을 흘 자에, 젖을 습 자, 그래서 항상 물이 쪼그만 그 높은 지댄데 물이 항상 고이니까 흘습이라고, 그 물통 이름을 지었는데.)

101001 @ 흘숙?(흘숙?)

101001 #2 흘습. 습지, 습지.('흘습'. 습지, 습지.)

101001 @ 흘습. 흘습지. 흘습물?('흘습'. '흘습지'. '흘습물'?)

101001 #2 흘습물. 견디 말이 이제 그 지어진 그 문자를 꼭 말을 안 헤가지고 말하기 좋게 그냥 말하다 보니까 흑수물, 흑수물 이렇게 허는디 원래는 흘습이라고 헤가지고 물이 이젠 그땐 수도가 없으니까 봉천수만 이용헐 때이기 때문에.(흘습물. 그런데 말이 이제 그 지어진 그 문자를 꼭 말을 안 해가지고 말하기 좋게 그냥 말하다보니까 '흑수물', '흑수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흘습'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이젠 그땐 수도가 없으니까 '봉천수'만 이용할 때이기 때문에.)

101001 @ 그믄 멧 살 때까지 이걸 봣수과, 이 물을?(그러면 몇 살 때까지 이걸 봤습니까, 이 물을?)

101001 #1. 예?(예?)

101001 @ 멧 살 때까지 흘습물을 봣수과? 이제 막 메꽈불고예?(몇 살 때까지 '흘습물'을 봤습니까? 이제 막 메꿔 버리고요?)

101001 #1 그거 흔 번은 아주 오랜 세월이니까 모르지.(그거 한 번은 아주 오랜 세월이니까 모르지.)

101001 @ 아아.(아아.)

101001 #1 게난 동네 형성뒈는 게 그런 흘을 봐서 물이 항상 파 잇지 안 헤서도 그 물이 고이는 디 헤서 요쪽 동네에 가민 너버흘이라고 허는 동네가 잇고, 지

5) '흑수물'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곶자왈 지역에 물이 고여 만들어진 옛 지명을 말한다.

버흘이라고 허는 동네가 잇는 디 항시 그디가 축축허니까 그거 조금 파니까 물이 잘 봉천수가 안지니까 그 동네 형성이 뒈엇다고 헷어. 경헤서 요쪽 가면은 지버흘, 너버흘 헤가지고 그 이 새 아진 사람이 새흘헌 거 어떻게 그 작업을 헌디 흘을 물 앚는 그 흘을, 흘을 뗑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동네 형성을 헤서 살다가, 이 큰 동네는 나중에 집결뒌 동네거던.(그러니까 동네 형성되는 게 그런 흘을 봐서 물이 항상 파 있지 않아도 그 물이 고이는 데 해서 요쪽 동네에 가면 '너버흘'이라는 하는 동네가 있고, '지버흘'이라는 하는 동네가 있는데 항상 거기가 축축하니까 그거 조금 파니까 물이 잘 봉천수가 앉으니까 그 동네 형성이 되었다고 했어. 그래서 요쪽 가면 '지버흘', '너버흘' 해가지고 그 새 앉은 사람이 '새흘'한 거 어떻게 그 작업을 했는데 흘을 물 앉는 그 흘을, 흘을 당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동네 형성을 해서 살다가, 이 큰 동네는 나중에 집결된 동네거든.)

101001 @ 아, 말들이 진짜 오리지날 말덜이 나왐수다예? 이 물이 참 중요하긴 헌 거로구나예. 사람 사는데. 물로 이렇게 지버물, 너버물, 흡습물, 게도 이거 잘도 기억덜 헴수다예.(아, 말들이 진짜 오리지널 말들이 나옵니다? 이 물이 참 중요하긴 한 거로군요. 사람 사는데. 물로 이렇게 '지버물', '너버물', '흡습물', 그래도 이거 잘도 기억들 하고 있습니다요.)

101001 #1 겐디 흑수물, 내가 생각하기엔 사람ᄀᆞ라 멍쳉이 닮은 사람보고 저거 속물이라고 헤서 덜 보고 경 허잖아요?(그런데 '흑수물', 내가 생각하기엔 사람보고 멍청이 같은 사람보고 저거 속물이라고 해서 덜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101001 @ 쑥물?(쑥물?)

101001 #1 멍충이 닮은 사람보고 저거 속물이라고 헤서 덜 보고 경 허잖아. 그 지대가 볼 상이 없이 이렇게 게난 내가 생각헐 때는 흑수물이란 게 지세가 자왈로 밀림지대가 뒈서 가운디가 움탕허니까 거기 물 아지니까 메와지니까 여기에 이게 생기처가 못 뒈는디 그 물이 아지니까 그렇게 이름을.(멍청이 닮은 사람보고 저거 속물이라고 해서 덜 보고 그렇게 하잖아. 그 지대가 볼품이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흑수물'이란 게 지세가 덤불로 밀림지대가 돼서 가운데가 움푹하니까 거기 물 앉으니까 메워지니까 여기에 이게 생기처가 못 되는데 그 물이 앉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101001 #2 그때 봉천수가 필요로 허기 때문에 마을에서 파고, 파고, 이제 늘펴 가지고 기프게 아무레도 흔 오십, 에, 음, 이십 메다 정도는 지프게 팝니다.(그때 봉천수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파고, 파고, 이제 넓혀가지고 깊게 아무래도 한 오십, 에, 음, 이십 미터 정도는 깊게 팝니다.)

101001 @ 아.(아.)

101001 #2 파서 그 파다보니까 땅 속에서 에, 말이, 이 말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그만 이제 뭐 귀신덜이 말을 허는 거다. 헤서 그만 팟다. 그런 겁주.(파서 그 파다보니까 땅 속에서 에, 말이, 이 말하는 소리가 나서 이제 그만 이제 뭐 귀신들이 말을 하는 거다 해서 그만 팠다. 그런 거지요.)

101001 @ 아.(아.)

101001 #2 일번 형님이 말하는 게. 음, 땅 속에서 너무 깊이 파가니까 귀신 말이 들려가지고 이젠 그만 파자.(일번 형님이 말하는 게. 음, 땅 속에서 너무 깊이 파가니까 귀신 말이 들려가지고 이젠 그만 파자.)

101001 @ 흐흐.(흐흐.)

101001 #2 그렇게 헤서 그만 팟덴 허니까 파기 싫어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그렇게 헤서 그만 팠다고 하니까 파기 싫어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

101001 #1 그게 우리가 보건 데도 영이 잇어.(그게 우리가 보건 데도 영이 있어.)

101001 @ 물에?(물에?)

101001 #1 어. 우리 동네 거 인심이라고 처녀 때 죽어 부럿는데 그때 허벅을 지고 그디 물을 질레 갓거든. 왕식이 누님이. 물을 질레 갓는데 놋사발이 물에 터 잇어. 놋사발이 물에 터 있으니까이 요렇게 잡으민 잡아질 꺼 같으니까.(어. 우리 동네 거 인심이라고 처녀 때 죽어 버렸는데 그때 허벅을 지고 거기 물을 길러 갔거든. 왕식이 누님이. 물을 길러 갔는데 놋사발이 물에 떠 있어. 놋사발이 물에 떠 있으니까 요렇게 잡으면 잡아질 거 같으니까.)

101001 @ 아.(아.)

101001 #1 사람이 이제 헤서 이제 짚으니까 단계를 가이단 놔가지고 이 지붕 가이단 논 거 모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갓는디 한 단계 내려 가면은 그 사발을, 아주 이쁘니까 잡아질라고 허니까 쏙 나가고, 또 흔쪽 가이단을 내려가서 또 잡을라고 하니까 쏙 또 내려가니까 아, 이자는 가운데 내려갓거던. 허벅 진 대로 동글동글 텃어. 뜨니까 다음에 물 질레 간 사람이 오니까, 그 가이가 우리 외ᄉᆞ춘 뚤인디 게서 그걸로 아파가지고 죽어 부럿어. 게서 물 질레 간 사람이 뚱겨 가지고 너 허믄 안 뒌다고 그렇게 헤가니깐 어느새 없어진 체 그 놋사발이라고 헌 게 없어져 불엇어. 우리가 알건데 우리 읔은 지 후제 그런 사실이 잇엇는디 아메도 물이 아메도 영이 잇는 물 ᄀᆞ타.(사람이 이제 해서 이제 짚으니까 단계를 계단 놔가지고 이 지붕 계단 놓은 거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한 단계 내려 가면은 그 사발을, 아주 예쁘니까 잡아지려고 하니까 쏙 나가버려서, 또 한쪽 계단을 내려가서 또 잡으려고 하니까 쏙 또 내려가니까, 아, 이제는 가운데 내려갔거든. 동이 진 대로 동글동글 떴어. 뜨니까 다음에 물 길러 간 사람이 오니까, 그 걔가 우리 외사촌 딸인데 그래서 그걸로 아파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물 길러 간 사람이 당겨 가지고 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니깐 어느새 없어진 채 놋사발이라고 한 게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큰 후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아마도 물이 아마도 영이 있는 물 같아.)

101001 @ 음.(음.)

101001 #1 왕식이 누님이 것에 헨 간 오난 아파부니까 죽어불엇주게, 신기라

고.(왕식이 누님이 그것에 해서 가서 오니깐 아파버리니까 죽어버렸지, 신기하더라고)

101001 @ 게난 그거를 빠정 죽은 게 아니고 건질.(그러니까 그거를 빠져서 죽은 게 아니고 건질.)

101001 #1 건질라고 물에 떳는데 그게 아메도 영에서 혼을 빠가분 모냥이여. 게니까 다음 물 질레 간 사람이 뗑겨 가지고 이제 그 살려 놧는디 경 안 헤시민 거기서 죽을 뻔 헷는디.(건지려고 물에 떴는데 그게 아무리 해도 영에서 혼을 빼 간 모양이야. 그러니까 다음 물 길러 간 사람이 당겨 가지고 이제 살려 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거기서 죽을 뻔 했는데.)

101001 @ 게믄 사람덜 물도 못 먹을 뻔 헤신디. 어떻든.(그러면 사람들 물도 못 먹을 뻔 했는데. 어떻든.)

101001 #2 경 헤연 형성이 이제 뒈어서 청수마을에 에, 그 지형 이름이 어, 동쪽으로 사농동산[6]이 잇고, 서쪽으로 답대동산[7]이 잇고, 북쪽으로 널판동산[8]이 있고, 아.(그렇게 해서 형성이 이제 되어서 청수마을에 에, 그 지형 이름이 어, 동쪽으로 '사농동산'이 있고, 서쪽으로 '답대동산'이 있고, 북쪽으로 '널판동산'이 있고, 아.)

101001 @ 서쪽으로 무슨 동산마씨?(서쪽으로 무슨 동산이요?)

101001 #2 서쪽으로 답대동산.(서쪽으로 '답대동산'.)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에, 동쪽으로.(에, 동쪽으로.)

101001 @ 사농을 하니까 사농?(사냥을 하니까 사냥?)

101001 #2 사농은.(사냥은.)

101002 @ 사냥, 사냥.(사냥, 사냥.)

101001 #2 사농은 그걸 말헙주. 어떻게 허느냐면 그 옛날에는 이 앞에 가면은 노루도 막 많고.(사냥은 그걸 말하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옛날에는 이 앞에 가면은 노루도 아주 많고.)

101001 @ 예. 지다리?(예. 오소리?)

101001 #2 지다리도 많고 어, 또 이제.(오소리도 많고 어, 또 이제.)

101001 @ 쪽제비? 고니? 사농동산.(족제비? 고니? '사농동산'.)

101001 #2 또 이제 꿩도 많고 헤서 이 사냥을 헤다가 이제 마을 모여서 그 마을 잔치, 에, 그런 것도 허고 그 사냥을 나갈 때는 이 사농동산에 젊은이덜을 다 모입니다. 모여서.(또 이제 꿩도 많고 해서 이 사냥을 해다가 이제 마을 모여서 그 마을 잔치, 에, 그런 것도 하고 그 사냥을 나갈 때는 이 사냥동산에 젊은이들을 다 모입니다. 모여서.)

101001 #1 사냥 가는 사람덜이 집결을 헷지.(사냥 가는 사람들이 집결을 했지.)

---

6) '사농동산'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동쪽에 위치를 말한다.
7) '답대동산'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서쪽에 위치를 말한다.
8) '널판동산'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북쪽에 위치를 말한다.

101001 #2 그렇게 사농허레 저 산으로 갑주. 그렇게 모이는 장소라 헤서 사농동산. 이 사냥헌다는 말이 사농이엔 헙니다.(그렇게 사냥하러 저 산으로 갑주. 그렇게 모이는 장소라 해서 사냥동산. 이 사냥한다는 말이 사냥이라고 합니다.)

101001 @ 예.(예.)

101001 #2 여기서는 무슨 지다리를 잡다던지, 노루를 잡다던지 허는 것을.(여기서는 무슨 오소리를 잡는다든지, 노루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을.)

101002 @ 웃드리난예?(중산간이니까요?)

101001 #1 잡으레 사농 가게.(잡으러 사냥 가게.)

101001 @ 사농 가게.(사냥 가게.)

101001 #2 여기서는 꿩사농 노루사농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농허레 가서 가가지고 많이 잡아지면은 마을에서 사농 가자 허면은 아, 사농동산에 모일 거로구나 헤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농허레 가서 많이 잡아지면은 마을에서 이제 회식도 허고, 그레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 고분뎃밧물[9]이 잇고, 돗죽은물[10]이 잇고, 또 올라가면은 어.(여기서는 꿩사냥 노루사냥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냥하러 가서 가가지고 많이 잡아지면 마을에서 사냥 가자 하면 아, 사냥동산에 모일 거로구나 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사냥하러 가서 많이 잡아지면 마을에서 이제 회식도 하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저 '고분뎃밧물'이 있고, '돗죽은물'이 있고, 또 올라가면 어.)

101001 #1 돗쏜빌레.[11]('돗쏜빌레.')

101001 #2 돗쏜빌레가 잇수다.('돗쏜빌레'가 있습니다.)

101001 @ 돗쑨빌레?('돗쑨빌레'?)

101001 #1 돗쏜빌레라고 허는 거는 무슨 말이냐 허면은 뒈지를 쏘앗다는 거라.('돗쏜빌레'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돼지를 쏘았다는 거야.)

101001 #2 나가 끗나가거들랑 얘기헙서양.(내가 끝나가거든 얘기하세요.)

101001 #1 돗, 돗 쏜.(돼지, 돼지 쏜.)

101001 #2 나가 조끔 끗나가거들랑, 끗나가거들랑 얘기헙서양. 혼 번에 얘기허면은 말이 이제 흐트러지니까 나가 끗난 다음에 또 형님이 얘기허고.(내가 조끔 끝나가거든, 끝나가거든 얘기하세요. 한 번에 얘기하면 말이 이제 흐트러지니까 내가 끝난 다음에 또 형님이 얘기하고.)

101001 #1 예.(예.)

101001 #2 하는 도중에 말 헤불민 무슨 말인지 몰라.(하는 도중에 말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

101001 @ 아까 동쪽, 사농동산. 아까 저 서쪽?(아까 동쪽, '사냥동산'. 아까 저 서쪽?)

101001 #2 서쪽이 답대동산. 남쪽에 널판동산.(서쪽이 '답대동산'. 남쪽에 '널판동산'.)

---

9) '고분뎃밧물'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가 숨은 곳이라 해서 나온 이름을 말한다.
10) '돗죽은물'은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가 죽은 물이라 해서 나온 이름을 말한다.
11) '돗손빌레'는 한경면 청수리 지명으로 산돼지를 쏜 곳이라 해서 나온 이름을 말한다.

101001 @ 남쪽은 뭐마씨?(남쪽은 뭐요?)
101001 #2 아니 저 북쪽.(아니 저 북쪽.)
101002 @ 북쪽은?(북쪽은?)
101001 #2 널판동산.('널판동산'.)
101001 @ 널판동산.('널판동산'.)
101001 #2 남쪽에는 이제 청수물왓.(남쪽에는 이제 '청수물왓'.)
101001 @ 예?(예?)
101001 #2 남쪽에는 이제 청수물왓.(남쪽에는 이제 '청수물왓'.)
101001 @ 청수물왓. 야, 진짜.('청수물왓'. 야, 진짜.)
101001 #2 그 깨끗한 그 물 나는 디가 요 마을 남쪽에 잇어십주. 지금 우리 안진 자리에선 서쪽이지만은 마을이 저 서쪽에서 츠츠 츠츠 이레 올라오니까 그 마을 중간데에 그 지명을 지을 때는 거기가 남쪽이니까 청수물왓 남쪽에. 그래서 사농동산은 그래서 사농동산이고, 고분뎃밧물이나 이제 돗쏜빌레나 돗 죽은 물은 돗쏜빌레엔 헌 저 올라간 고지가 잇수다예.(그 깨끗한 그 물 나는 데가 요 마을 남쪽에 있었지요. 지금 우리 앉은 자리에선 서쪽이지만 마을이 저 서쪽에서 차차 차차 이리 올라오니까 그 마을 중간에 그 지명을 지을 때는 거기가 남쪽이니까 '청수물왓' 남쪽에. 그래서 '사농동산'은 그래서 '사농동산'이고, '고분뎃밧물'이나 이제 '돗쏜빌레'나 돼지 죽은 물은 '돗쏜빌레'라고 한 저 올라간 숲이 있습니다.)
101001 @ 돗쏜빌레꽈? 돗순빌레꽈?('돼지 쏜 빌레'입니까? '돗순빌레'입니까?)
101001 #2 돗 쏜.(돼지 쏜.)
101001 @ 쏜. 그 말이.(쏜. 그 말이.)
101001 #2 예. 돗을 산돗이 보이니까예. 쏘아십주. 뭐 총으로 쏘앗는지 돌로 쏘앗는지 그건 우린 몰릅주. 하도 오렌 일이니까.(예. 돼지를 산돼지가 보이니까예. 쏘았습죠. 뭐 총으로 쏘았는지 돌로 쏘았는지 그건 우린 모르죠. 하도 오랜 일이니까.)
101001 @ 지금도 잇어마씨?(지금도 있어요?)
101001 #2 아, 돗쏜빌레 잇수다.(아, '돗쏜빌레' 있습니다.)
101001 @ 진짜 이렇게 빌레우꽈?(진짜 이렇게 빌레입니까?)
101001 #2 예.(예.)
101001 @ 거 사진 다 찍어야겟다예?(거 사진 찍어야겠네요?)
101001 #2 아, 그디 가젠 허면은 가질 못헙니다.(아, 거기 가려고 하면 가질 못합니다.)
101001 #1 막 멀주게.(막 멀지.)
101001 #2 아주 멉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게믄 그디서 쏘니까 고분뎃밧물이엔 헌디 와서 물을 먹으면서 곱아시니까 도야지가. 도새기옌 헙니다. 산도새기. 곱아시니까 거기 완 또 이젠 돌로 쏘앗는지 뭐 쏘니까 돗 죽은 물로 도망을 가니까 돗 죽은 물 사이는 가까웁니다예. 거기 가서 물 먹는 걸 쏘아서 죽엿다고 헤서 돗 죽은

물. 겐 돗쏜빌레에서 돗을 쏘니까 고분뎃밧물에 와서 고분뎃밧물에서 도새기가 이젠 돗 죽은 물까지 가니까 막 따라 간 쏸 죽여가지고 돗쏜빌레,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이렇게 세군데 잇수다예.(아주 멉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쏘니까 '고분뎃밧물'이라고 한데 와서 물을 먹으면서 숨었으니까 돼지가. 돼지라고 합니다. 산돼지. 숨었으니까 거기 와서 또 이젠 돌로 쏘았는지 뭐 쏘니까 돼지 죽은 물로 도망을 가니까 돼지 죽은 물 사이는 가깝습니다. 거기 가서 물 먹는 걸 쏘아서 죽였다고 해서 돼지 죽은 물. 그래서 '돗쏜빌레'에서 돼지를 쏘니까 '고분뎃밧물'에 와서 '고분뎃밧물'에서 돼지가 이젠 돼지 죽은 물까지 가니까 막 따라 간 쏴서 죽여가지고 겐 '돗쏜빌레',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101001 @ 잘도 만들어놧다예. 어린 때 누구안티 영, 들은 거꽈? 이거는.(잘도 만들어놨네요. 어린 때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겁니까? 이거는.)

101001 #2 아, 그 이 노인들이 안지믄 얘기합니다. 사농동산은 무사 사농동산이엔 헤신고? 그레서 사농동산은 그때 사농을 위주로 그 마을단체 모임이 사농을 허레 가는 것이 제일 중요헌 모임이엇다.(아, 그 이 노인들이 앉으면 얘기합니다. 사냥동산은 무사 사냥동산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사냥동산은 그때 사냥을 위주로 그 마을단체 모임이 사냥을 하러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모임이었다.)

101001 @ 고기를 먹어야 뒈니까예.(고기를 먹어야 되니까요.)

101001 #2 그레서 사농동산이라고. 사농 가자 허민 사농동산에 우선 모이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헤가지고 저기 사기소엔 헌 동네가 잇수다. 사기소는 어떻게 해서 사기소냐 하면은 그 동네 사람덜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그래서 사냥동산이라고. 사냥 가자하면 사냥동산에 우선 모이고 거기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나갑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사기소'라고 한 동네가 있습니다. '사기소'는 어떻게 해서 '사기소'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어.)

101001 @ 지금은 어느 마을이 뒌마씨? 사기소가.(지금은 어느 마을이 되었어요? '사기소'가.)

101001 #2 사기소는 대정읍이우다.('사기소'는 대정읍입니다.)

101001 @ 아.(아.)

101001 #2 대정읍 무릉이린가 뒈는디 거기를 또 우리가 갑니다. 가까웁니다. 우리 경계선. 거기 가서 그 또 그 계획을 혼 번 짭니다. 이 쏠 사, 기록 기, 이제 장소라고 허는 사기소, 어, 거기 가서 일차 다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사냥을 가낫다. 헤서 사기소라고 우린 부르고 잇는데. 또 에 이거 다 말허젠 허믄 너무 만헤가지고 고만 생략을 헤서 이거 딴 걸로 옮겨 가카마씨?(대정읍 무릉이린가 되는데 거기를 또 우리가 갑니다. 가깝습니다. 우리 경계선. 거기 가서 그 또 그 계획을 한 번 짭니다. 이 쏠 사, 기록 기, 이제 장소라고 하는 '사기소', 어, 거기 가서 일차 다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사냥을 갔었다 해서 '사기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또 이거 다 말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생략을 헤서 이거 다른 걸로 옮겨 갈까요?)

101001 @ 아니, 길어도예. 뭐허지 안헤예. 마을의 형성에 대헤서.(아니, 길어도

요. 뭐하지 않아요. 마을의 형성에 대해서.)

101001 #2 형성에 대헤서 너무 기우까?(형성에 대해서 너무 깁니까?)

101001 @ 또 이제 나중에 마을 지명도 나와예.(또 이제 나중에 마을 지명도 나와요.)

101001 #2 아, 지명?(아, 지명?)

101001 @ 지명들이 나오민 이건 잘도 소중한 것덜이난 이렇게 생각나는 건.(지명들이 나오면 이건 잘도 소중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건.)

101001 #2 지명 나왓을 때 얘기하카마씨?(지명 나왔을 때 얘기할까요?)

101001 @ 적엉 놔두민 이건 두고두고 지명 나올 때 아무도 나중에 몰라예.(적어서 놔두면 이건 두고두고 지명 나올 때 아무도 나중에 몰라요.)

101001 #2 예. 뭐 모릅니다. 지명 나올 때 얘기헙니까? 이제 얘기헙니까?(예. 뭐 모릅니다. 지명 나올 때 얘기합니까? 이제 얘기합니까?)

101001 @ 게난 마을 형성에 대헤서만 일단 요약허게예.(그러니까 마을 형성에 대해서만 일단 요약하게요.)

101001 #2 예. 너무 기네. 지명까지 흔꺼번에 다 얘기헤지네예. 게민 마을 형성이랑 요걸로 끗내카마씨? 더 말하카마씨? 너무 길어가지고.(예. 너무 기네. 지명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해지네요. 그러면 마을 형성은 요걸로 끝낼까요? 더 말할까요? 너무 길어가지고.)

101001 @ 게난예. 제가 많이 어렵다예?(글쎄요. 제가 많이 어렵네요?)

101001 #2 어려울 거우다.(어려울 겁니다.)

101001 @ 물에 대헤서 잘 몰라부난, 지금 흡습물이 잇수과?(물에 대해서 잘 몰라버리니까 지금 '흡습물'이 있습니까?)

101001 #2 흡습물은 아, 이제는 수도, 상수도가 이제 형성이 뒈니까 것이 이제 그냥 그 숲이 뒈가지고 아 저 수풀이 뒈가지고 거길 못 다닙니다. 가서 볼 수가 바깥에서베낀 못 볼 거우다. 들어가지 못헨.('흡습물'은 아, 이제는 수도, 상수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것이 이제 그냥 그 숲이 되가지고 아 저 수풀이 되가지고 거길 못 다닙니다. 가서 볼 수가 바깥에서밖에 못 볼 겁니다. 들어가지 못해서.)

101001 @ 이 먹는 물이 오직 옛날에는 흑수물밖엔 없엇수과?(이 먹는 물이 오직 옛날에는 '흑수물'밖엔 없었습니까?)

101001 #2 아, 흑수물 말아도 청수물왓. 청수물 잇고, 흑수물 잇고, 고분뎃밧물 잇고, 돗죽은물 잇고, 요디 ᄒᆞ끔 ᄆᆞ른 건 먹는 물이 아니고.(아, '흑수물' 말고도 '청수물왓'. '청수물' 있고, '흑수물' 있고, '고분뎃밧' 물 있고, '돗죽은물' 있고, 요기 조금 마른 건 먹는 물이 아니고.)

101001 @ 그 돗죽은물도 먹는 물마씨?(그 '돗죽은물'도 먹는 물이요?)

101001 #2 예. 것도 먹는 물.(예. 것도 먹는 물.)

101001 @ 그믄 청수리에는 먹는 물이 네 군데가 잇엇다는 거구나예.(그러면 청수리에는 먹는 물이 네 군데나 있었다는 거군요.)

101001 #1 검복낭칙[12].(‘검복낭칙.’)

101001 @ 예?(예?)

101001 #1 검복낭칙.(‘검복낭칙.’)

101001 #2 아, 검복낭칙도 잇고. 거 뭐 멧 꾼데냐? 흑수물.(아, ‘검복낭칙’도 있고. 거 뭐 몇 군데니? ‘흑수물’.)

101001 @ 검복낭칙?(‘검복낭칙?’)

101001 #2 예.(예.)

101001 #1 검복낭이라는 나무가 믄딱 잇어난 모냥이여. 그래서 검복낭칙물이라고.(‘검복낭’이라는 모든 나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검복낭칙물’이라고.)

101001 @ 아.(아.)

101001 #2 검복낭칙, 이제 흑숫물, 청수물, 고분뎃밧물, 돗 죽은 물.(‘검복낭칙’, 이제 ‘흑숫물’, ‘청수물’, ‘고분뎃밧물’, ‘돼지 죽은 물.’)

101001 @ 검복낭은 어떻게 생긴 건고예? 이런 것들은 정말?(‘검복낭’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런 것들은 정말?)

101001 #2 혼 음료수가 혼 다서ᄋᆞ섯 군데 잇엇네예.(한 음료수가 한 다섯여섯 군데 있었네요.)

101001 @ 지금 있는 물은 뭐 잇수과? 물이.(지금 있는 물은 뭐 있습니까? 물이.)

101001 #2 물이 잇는 물? 어, 먹는 물은 상수도가 보급뒈면서 다 없어져 불엇수다.(물이 있는 물? 어, 먹는 물은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1001 @ 아, 보전뒈어 잇는 게 하나토 엇어마씨?(아, 보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1001 #2 예. 하나토 엇수다.(예. 하나도 없습니다.)

101001 @ 아오게. 마을 이장님을 통헤서.(어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101001 #1 물 그대로 잇는데 흑숫물만이 그냥 거는 요지금 세대 뭐 믄직어 뎅기질 안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잇고.(물 그대로 있는데 ‘흑숫물’만 그냥 거는 요즘 세대 뭐 만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있고.)

101001 @ 그 터를 어떵 깨끄시 정비헹 조끔 그래도.(그 터를 어떻게 깨끗이 정비해서 조금 그래도.)

101001 #2 마을 사람덜이 이거 값어치가 엇다. 그래서 거 정리를 하려는데.(마을 사람들이 이거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거 정리를 하려는데.)

101001 @ 앞으로.(앞으로.)

101001 #2 저 값어치가 아주 중요헌 것덜이 잇어십주.(저 값어치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었지요.)

101001 @ 그니까 얘기 들어보난.(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101001 #2 어, 저 돗죽은물 옆이 지경청라고 하는 데가 잇수다. 지경청라는 데

12) ‘검복낭칙’은 한경면 청수리 옛 지명을 말한다.

그 저 지명 이름이 나와서 건 얘기헤야 뭴 거인디 제주목사가 순력을 나갑니다. 순력을 모관에서 대정을 갈 때에 대정사람덜이 그 돗죽은 아니, 저 저 지경청에 와서 말을 가지고 와서 사또를 목사, 목삽주. 목사를 모셔갈려고 딱 대기를 헙니다. 게민 모관사람은 어, 저 제주시에서 어, 저 중간이 거 뭐옌 허는고?(어, 저 '돗죽은물' 옆이 '지경청'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경청'라는 데 그 저 지명 이름이 나와서 거는 얘기해야 될 건데 제주목사가 순력을 나갑니다. 순력을 모관에서 대정을 갈 때에 대정 사람들이 '돗죽은' 아니, 저 저 '지경청'에 와서 말을 가지고 와서 사또를 목사, 목사죠. 목사를 모셔가려고 딱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관사람은 어, 저 제주시에서 어, 저 중간이 거 뭐라고 하는가?)

101001 @ 모관이 제주시꽈?(모관이 제주십니까?)

101001 #2 예. 모관. 게도 여기도 모관에 속합니다.(예. 모관. 그래도 여기도 모관에 속합니다.)

101001 @ 아아. 여기도.(아아. 여기도.)

101001 #2 에, 저, 저 저 저 저 저.(에, 저, 저 저 저 저 저.)

101001 @ 한림이니까예.(한림이니까요.)

101001 #2 한림 우에 그디 뭐옌헌다마는.(한림 위에 거기 뭐라고 한다마는.)

101001 #1. 모관이 고산까지.(모관이 고산까지.)

101001 @ 고산까지 모관이. 한경면까지.(고산까지 모관이. 한경면까지.)

101001 #2 겐 그 목사가 이제 대정현에서 목사 모시러 말을 테왕 오면은 아, 원이로구나. 제주 성내에 그 모관에서 원까지 오면은 원에서 또 말을 갈아탑니다. 게민 원에서 청수까지 말을 탕 옵니다. 그 목사가. 경허면은 이제 원까지 오면은 말을 갈아타고 또 원에서 청수 오믄 또 말을 갈아 타야하지 안 헙니까? 그믄은 그 대정현 사람덜이 여기 와서 그 말을 멧 필이 필요하다. 타는 말이 멧 필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필수에 딱 대기를 합니다. 경허면은 저 원에서 온 사람덜은 돌아가고 저 제주성내에서 온 사람은 원까지 왕 돌아가고 원에서 또 오면은 청수 지경청까지 와서 돌아가고 대정현 사람이 와서 모셔갑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가 거기서 그냥 말을 갈아타지 않고 지역 유지덜을 불러 모입니다. 이거도 다 들은 말이우다예.(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대정현에서 목사 모시러 말을 태워서 오면 아, 원이로구나. 제주 성내에 그 모관에서 원까지 오면 원에서 또 말을 갈아탑니다. 그러면 원에서 청수까지 말을 타서 옵니다. 그 목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원까지 오면 말을 갈아타고 또 원에서 청수 오면 또 말을 갈아 타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정현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말을 몇 필이 필요하다. 타는 말이 몇 필이 필요하다 하면 그 필수에 딱 대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 원에서 온 사람은 돌아가고 저 제주성내에서 온 사람은 원까지 와서 돌아가고 원에서 또 오면 청수 '지경청'까지 와서 돌아가고 대정현 사람이 와서 모셔갑니다. 그러면 그 목사가 거기서 그냥 말을 갈아타지 않고 지역 유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도 다 들은 말입니다요.)

101001 @ 아.(아.)

101001 #2 모여서 이 지역에 애로사항은 뭐냐? 어, 이제 국정에 바라는 건 뭐냐? 이걸 질문을 헙니다. 이건 소원성취격인 거 같아마씨. 그러면은 우리 청수에 경민장이라고 이십니다예. 경민장은 청수 이장에 에, 급에 속헙니다. 경민장이 이제 오게 뒈면은 청소를 그 주위에 거미줄 하나 엇이 싹 헤놉니다. 딱 안자서 질문을 허면은 에, 우리 지역에는 목장이 평탄허지 않고, 소 기루는 데에, 에, 불편이 많으니까 진상소를 우리 청수랑 면제 헤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헙니다. 진상소는 어떤 소냐허면은 새카만 소, 어, 노랑색이라던지 허연 색이라던지 하나도, 새카만 쉐가. (모여서 이 지역에 애로사항은 뭐냐? 어, 이제 국정에 바라는 건 뭐냐? 이걸 질문을 합니다. 이건 소원성취격인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수에 '경민장'이라고 있습니다요. '경민장'은 청수 이장에 에, 급에 속합니다. '경민장'이 이제 오게 되면 청소를 그 주위에 거미줄 하나 없이 싹 해놓습니다. 딱 앉아서 질문을 하면 에, 우리 지역에는 목장이 평탄하지 않고 소 기르는 데, 에, 불편이 많으니까 진상소를 우리 청수는 면제 해주십시오. 그런 건의를 합니다. 진상소는 어떤 소냐하면 새까만 소, 어, 노란색이라든지 하얀 색이라든지 하나도, 새까만 소가.)

101001 @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틀려.(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

101001 #2 예. 뒈면은 그 소는 이건 진상소다 와서 관리들이, 어떤 관리가 와서 허는진 모르고 이건 진상소다 지정을 헤버리면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예. 되면 그 소는 이건 진상소다 와서 관리들이, 어떤 관리가 와서 하는지는 모르고 이건 진상소다 지정을 해 버리면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101001 @ 바쳐야 뒈?(바쳐야 돼?)

101001 #2 바쳐야 뒈는데, 바치는 과정까지가 그때에 상황 본 거 허고 그 관리덜이 이 진상소를 가지러 왓을 때에 조끔이라도 관리가 소홀이 헤서 쭐엇던가 어떻게 못마땅허믄 건 처벌을 줫다고 합니다.(바쳐야 되는데, 바치는 과정까지가 그때에 상황 본 거 허고 그 관리들이 이 진상소를 가지러 왔을 때에 조금이라도 관리가 소홀히 해서 야위었든가 어떻게 못마땅하면 건 처벌을 줬다고 합니다.)

101001 @ 쯧쯧.(쯧쯧.)

101001 #2 어떤 처벌을 줫는지 건 모릅주. 겐 열심히 자기네 소는 둘째로 허고, 그 진상소를 잘 몰아갈 때까지 보전을 헤야 뒙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경민장이 건의를 허니까 그러냐? 이제 목장이 어디 저 한림, 금악이라던지, 대정목장이라던지, 여기가 이제 박헌 것이 마지냐? 휘하 그 간부들안테 질문을 헙니다. 헨 질문을 막 청수가 목장이 널긴 헤도 그렇게 박헙니다 헤서 진상소 면제를 받앗다고 헙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헤서 이제 사또가 넘어갓는데 거기 비석을 세웁니다. 사또가, 어느 사또가 어떻게 와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면제를 헤줫다. 비석에 쭉 기록을 헤서 세우는데 비석이 엄청나게 멋진 비석을 세웁니다. 갈 때에 그때 비석을 보고 한번 보고 가신다고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겟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으십시오. 겐디 비석이 여러 가지가 잇어십주.(어떤 처벌을 줬는지는 건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자기네 소는 둘째로 하고, 그 진상소를 잘 몰아갈 때까지 보전을

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민장'이 건의를 하니까 그러냐? 이제 목장이 어디저 한림, 금악이라든지 대정목장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박한 것이 맞느냐? 휘하 그 간부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해서 질문을 막 청수가 목장이 넓긴 해도 그렇게 박합니다 해서 진상 소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서 이제 사또가 넘어갔는데 거기 비석을 세웁니다. 사또가 어느 사또가 어떻게 와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들여 면제를 해줬다. 비석에 쭉 기록을 해서 세우는데 비석이 엄청나게 멋진 비석을 세웁니다. 갈 때에 그때 비석을 보고 한번 보고 가신다고 하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으십시오. 그런데 비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101001 @ 아. 지금도 잇어예?(아. 지금도 있어요?)

101001 #2 지금 잇어시면은 아주 필요헌 비석덜이 없어 가지고.(지금 있었으면 아주 필요한 비석들이 없어 가지고.)

101001 @ 아이고.(아이고.)

101001 #2 비석 그 집 돌로 멘든 비석 집 근데 비석은 엇어지고 돌집이 하나 잇수다. 집은 왜 잇느냐? 어, 이제 노인 회장 어머니가 여기 열녑니다예. 그 열녀로 지정뒌 게 어디냐? 나 비석에 간 보니까 그 저저 무슨 이제 훈장허고 허는 디가 이게 무슨?(비석 그 집 돌로 만든 비석 집 그런데 비석은 없어지고 돌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왜 있느냐? 어, 이제 노인 회장 어머니가 여기 열녑니다. 그 열녀로 지정된 게 어디냐? 나 비석에 가서 보니까 그 저저 무슨 이제 훈장하고 하는 데가 이게 무슨?)

101001 @ 서당?(서당?)

101001 #2 서당이 아니고 저저 아, 이젠 아, 이젠 나 말을 허젠 허믄 잊어버려가지고 아, 유림회. 유림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헤서 그 유림회 본부에서 그 열녀어, 그 열녀 증명이 내려왓다고 헤십디다. 여기 비석에 비석 글을 보니까 그 비석은 개인 비석, 열녀 비석이고, 그 사또 비석 그 열녀 비석 세우젠 허니까 노인회장네가 그 사또 기록헌 그 집만 갓당 그거를 멘들안 세와십주. 겐 개인 것이 뒈불엇수다. 겐디 또 거기 저 구리쒜비석이 잇어낫덴 헙주. 구리쒜비석은 완전 그 비석이 구리쒜로만 멘들안 논 것이 아니라 구리쉐 그 색깔사 입쪄신지 완전 구리쒜를 입혀신디 혜연 그 사또 비석이 중요허니까 세왓는데 이것덜은 그 어느 시대엔 몰라도 시대가 내려오단 보니까 그디 지경천 비석거리엔 헙니다. 그 비석은 가져가 불러십주.(서당이 아니고 저저 아, 이젠 아, 이젠 나 말을 하려고 하면 잊어버려가지고 아, 유림회. 유림회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그 유림회 본부에서 그 열녀 어, 그 열녀 증명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기 비석에 비석 글을 보니까 그 비석은 개인 비석, 열녀 비석이고, 그 사또 비석 그 열녀 비석 세우려고 하니까 노인회장네가 그 사또 기록한 그 집만 갔다가 그거를 만들어서 세웠죠. 그래서 개인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저 구리쇠비석이 있었다고 하지요. 구리쇠비석은 완전 그 비석이 구리쇠로만 만들어서 논 것이 아니라 구리쇠 그 색깔을 입혔는지 완전 구리쇠를 입혔는지

해서 사또 비석이 중요하니까 세웠는데 이것들은 그 어느 시대엔지 몰라도 시대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 지경천 비석거리라고 합니다. 그 비석은 가져가 버렸죠.)

101001 @ 쯧쯧.(쯧쯧.)

101001 #2 어떤 사름이 가져가신진 모릅주. 건 가져가불고 나머지.(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는 모르죠. 그건 가져가버리고 나머지.)

101001 #1 나머진 철비석이꿰.(나머진 철비석입니다.)

101001 #2 철비석인디 구리쒜비석이렌 허니까 또 나머지 비석에 그 세와 논 집덜.(철비석인데 구리쇠비석이라고 하니까 또 나머지 비석에 그 세워 놓은 집들.)

101001 @ 돈 뒈니까 가져가 불엇구나.(돈 되니까 가져가버렸구나.)

101001 #2 예.(예.)

101001 @ 아이고 참.(아이고 참.)

101001 #2 돌이 크찡크찡헤가지고 요렇게 세우니까 가정집이 뭐 완 디딜팡도 멘들앗닥 디딜팡이엔 허민 알아지쿠과? 뭐시꽈?(예. 돌이 가지런해가지고 요렇게 세우니까 가정집에 뭐 와서 부춘돌도 만들었다가 부춘돌이라고 하면 알아지겠습니까? 뭡니까?)

101001 @ 물팡도 봐나고예. 디딜팡은.('물팡'도 봤고요. 부춘돌은.)

101001 #2 물팡[13]이 아니고 디딜팡이엔 허면은 이제 뒈지 기루는 데 변소를 보면은 뒈지가 그걸 먹읍니다예. 그 대변 보는.('물팡'이 아니고 부춘돌이라고 하면 이제 돼지 기르는 데 변소를 보면 돼지가 그걸 먹습니다. 그 대변 보는.)

101001 @ 예에.(예에.)

101001 #2 그 대변 보는 디디어서 대변 보는 걸 디딜팡이라고 헙니다.(그 대변 보는 디뎌서 대변 보는 걸 부춘돌이라고 합니다.)

101001 @ 우리 그 시대 살앗수다. 디딜팡.(우리 그 시대 살았습니다. 부춘돌.)

101001 #2 잘 모를 겁니다. 디딜팡 멘들아 분 사람도 잇고, 또 이제 뭐 멘들아.(잘 모를 겁니다. 부춘돌 만들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만들어.)

101001 @ 아휴 너무 심허다예.(아휴 너무 심하네요.)

101001 #2 예. 그거 잇어시면은 문화재라도 아주 고급 제주도 제일호로 갈 겁니다. 그게 관덕정보다도 더 유명헌 어 그 문화재가 뒐 겁니다. 구릿쒜비석도 없어져 불고, 그런 그 집 지어진 사또 비석도 엇어져 불고, 딱 집 ᄒᆞ나, 여기 그 열녀 비석 집만 잇수다예. 혼번 봅서. 겐디.(예. 그거 있었으면 문화재라도 아주 고급 제주도 제일호로 갈 겁니다. 그게 관덕정보다도 더 유명한 어 그 문화재가 될 겁니다. 구리쇠비석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그 집 지어진 사또 비석도 없어져 버리고, 딱 집 하나, 여기 그 열녀 비석 집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101001 @ 고증이나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아예 없구나예? 그런 것만 잇어도 복원헐 수 잇는데.(고증이나 이렇게 뭐 사진이나 이런 게 아예 없군요? 그런 것만 있어도 복원할 수 있는데.)

---

13)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두는 대를 말한다.

101001 #2 거 하나도 그때 사진이 어디 잇엇수과?(거 하나도 그때 사진이 어디 있었습니까?)

101001 @ 게난.(그러니까.)

101001 #2 사진 찍을 줄을 몰르고, 그땐 사진기도 엇고, 겐디 사또.(사진 찍을 줄을 모르고, 그땐 사진기도 없고, 그런데 사또.)

101001 @ 겐디 일제시대에 이런 문화재 막 조사 뎅기는 사람이 아, 그런 거 자료.(그런데 일제시대에 이런 문화재 막 조사 다니는 사람이 아, 그런 거 자료.)

101001 #2 일제시대 뒈기 전이 업어져실 거우다. 아마도. 겐디.(일제시대 되기 전에 없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101001 @ 아아.(아아.)

101001 #1 아니, ᄉᆞ삼 ᄉᆞ건 직후에 엇어졋주게.(아니, 사삼 사건 직후에 없어졌지.)

101001 #2 아, 그 일제시대ᄁᆞ지 내려온 비석은 그 구릿쉐비석 ᄀᆞ튼 중요헌 거는 다 없어지고 필요 엇인 것덜만 비석이 잇엇던 걸 이 형님네나 나나 봣수다. 건 필요 엇인 거.(아, 일제시대까지 내려온 비석은 그 구리쇠비석 같은 중요한 거는 다 없어지고 필요 없는 것들만 비석이 있었던 걸 이 형님네나 나나 봤습니다. 건 필요 없는 거.)

101001 @ 것도 엇어져 불고.(것도 없어져 버리고.)

101001 #2 것도 이젠 엇어져 불고.(것도 이젠 없어져 버리고.)

101001 #1 ᄉᆞ삼ᄉᆞ건 때ᄁᆞ진 잇엇거던.(사삼사건 때까진 있었거든.)

101001 #2 예. 그 집, ᄒᆞ나 이제 잇는 거, 그 열녀 비석에 있는 거 ᄒᆞᆫ 번 봐난.(예. 그 집, 하나 이제 있는 거, 그 열녀 비석에 있는 거 한 번 봤었어.)

101001 @ 구릿쉐는 얘기만 들은 거구나예? 얘기만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허는 거지예?(구리쇠는 얘기만 들은 거군요? 얘기만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101001 #2 구릿쉐비석은 얘기만 듣고 나머지 비석덜은.(구리쇠비석은 얘기만 듣고 나머지 비석들은.)

101001 @ 봣고.(봤고.)

101001 #2 그건 봣고. 이제 비석 집은 현재 여기 잇고.(그건 봤고. 이제 비석 집은 현재 여기 있고.)

101001 @ 잇고.(있고.)

101001 #2 겐디 사또 그 목사 아덜이 어느 목사 아덜인진 모르쿠다. 짝 지나다가 지네 아부지.(그런데 사또 그 목사 아들이 어느 목사 아들인진 모르겠어요. 짝 지나다가 자기네 아버지.)

101001 @ 잘도 들엇수다예, 게도. 어르신덜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헌 거를 이렇게 잘 재밋게 들엇다예.(잘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잘 재미있게 들었네요.)

101001 #2 예. 젊은 사람덜 모릅니다.(예. 젊은 사람들 모릅니다.)

101001 @ 거난.(그러니까.)

101001 #2 딱 지나다가 에, 거기 비석이 세워져 잇으니까 모관 그 이제 모관에서 대정현까지 놀러가는 거입주. 우마를 타고 가다가 자기네 아부지 그 기록이 딱 잇으니까 거기 딱 내려가지고 비석 앞이 절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같이 오던 그 비서 수행원입주. 왜 그 아부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헷는데 기뻐서 하하 웃으면서 절을 헐 건데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허십니까? 허니까 그 목사 아덜이 우리 아부지가 이 비석을 세울 정도로 와서 그 공로를 세울려고 허니까 얼마나 고생을 허고, 얼마나 어려웟겟느냐? 이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비석을 세우도록 어, 공을 세울려고 하면은 보통 힘이 안 들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울면서 절을 허는 겁주. 이렇게 대답헤연 그때 넘어갓덴 그 말도 잇고. 이거 너무 말이 많아 가지고 요거 어느 정도 헨.(딱 지나다가 에, 거기 비석이 세워져 있으니까 모관 그 이제 모관에서 대정현까지 놀러 가는 거였죠. 우마를 타고 가다가 자기네 아버지 그 기록이 딱 있으니까 거기 딱 내려가지고 비석 앞에 절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까 같이 오던 그 비서 수행원이죠. 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기뻐서 하하 웃으면서 절을 할 건데 눈물을 흘리면서 절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 비석을 세울 정도로 와서 그 공로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이 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 비석을 세우도록 어, 공을 세우려고 하면 보통 힘이 안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울면서 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해서 그때 넘어갔다고 그 말도 있고. 이거 너무 말이 많아서 가지고. 요거 어느 정도 해서.)

101001 @ 이거는 다른 쪽으로 연결헤 가지고 또 헤도 뒈겟다예.(이거는 다른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또 해도 되겠네요.)

101001 #2 일번안테 물읍서. 이번이랑. 저만 말헤나니까 말이 허꺼젼 안 뒈커라.(일번한테 물으세요. 이번에는. 저만 말하니까 말이 섞어져서 안 되겠어.)

101001 @ 아, 청수, 무슨 검악 뭐마씨? 아까.(아, 청수, 무슨 금악 뭐예요? 아까.)

101001 #1 검악서 마을이 검악이 믄저 셍겻고, 거기서 저지 본향에서 내려 왓다는 거지. 저지 본향 청수, 청수보다 저지가 믄저 셍겻고, 청수 본향 산양이고 ᄉᆞ삼ᄉᆞ건 때 후에야 이제 산양 셍긴 거거든. 한림 가면은 수원, 요디 월림, 신창 가면은 한월, ᄉᆞ삼ᄉᆞ건 사건 직후에 ᄆᆞ을이 독립뒈 불엇어. 제주도 실질 내가 본 기억으로는 제주 십경인디 십이경에서 십삼경 역사가 잇는 디 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가 책을 본 것에 의하면은 내가 열다섯 술에 본 거주마는 용연야범은 영주십경에 안 들어갓거든.(금악에서 마을이 금악이 먼저 생겼고, 거기서 저지 본향에서 내려왔다는 거지. 저지 본향 청수, 청수보다 저지가 먼저 생겼고, 청수 본향 산양이고 사삼사건 때 후에야 이제 산양 생긴 거거든. 한림 가면은 수원, 요기 월림, 신창 가면은 한월, 사삼사건 사건 직후에 마을이 독립돼 버렸어. 제주도 실질 내가 본 기억으로는 제주 십경인데 십이경에서 십삼경 역사가 있는데 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가 책을 본 것에 의하면 내가 열다섯 살에 본 거지만 용연야범은 영주십경에 안 들어갔거든.)

101001 @ 예. 아, 용연야범은 안 들어가마씨?(예. 아, 용연야범은 안 들어가요?)

101001 #1 우리 청수리는 저지 본향 청수라고 하는데, 금악 본향 저지 잇고 저지 본향 청수, 청수 본향 산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잇어시면은 옛날 갑, 자, 을, 축이라도 무슨 연도에 청수가 개방이 뒛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엇거든예. 게서 우리들은 말로는 이렇게 보면은 목장, 목장도 해변도 목장이 잇고, 우리 산간에도 바다목장이 잇엇다고 헤여.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어디 두모, 신창, 용수, 근처에 배정을 받아 놧다고 그런 말을 옛 어른덜안티 들은 것이 잇는데 이게 확실하게 근거가 엇고, 옛 어른들안티 들은 말벳끼 엇어노니까 뭐 세세허게 말을 헐 수가 엇는디.(우리 청수리는 저지 본향 청수라고 하는데, 금악 본향 저지 있고 저지 본향 청수, 청수 본향 산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있었으면 옛날 갑, 자, 을, 축이라도 무슨 연도에 청수가 개방이 됐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는 이렇게 보면 목장, 목장도 해변도 목장이 있고, 우리 산간에도 바다목장이 있었다고 해.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어디 두모, 신창, 용수, 근처에 배정을 받아놨다고 그런 말을 옛 어른들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근거가 없고, 옛 어른들한테 들은 말밖에 없어버리니까 뭐 세세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102001 @ 노인회장님예? 청수리예?(노인회장님이요? 청수리요?)

102001 #3 예.(예.)

102001 @ 강대흥 삼촌예. 응. 한 번예. 저 청수 마을, 어릴 때부터 이 마을, 마을의 형성에 대헤서 청수리가 어떵 헹은에 셍겻수과?(강대흥 삼촌요. 응. 한 번요. 저 청수 마을, 어릴 때부터 이 마을, 마을의 형성에 대해서 청수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102001 #3 그거는 성현회장님안티 들은 게 그게 전부일 건디. 우린 그런 유래는 잘 몰라마씨.(그거는 성현회장님한테 들은 게 그게 전부일 건데. 우린 그런 유래는 잘 몰라요.)

102001 @ 예.(예.)

101002 @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1002 #1 여기는 그렇게 그 성씨가 잡 성이 많지 않아. 현재도 많지 않아 가지고 잡 성이 김씨, 이씨, 오씨, 강씨허고.(여기는 그렇게 그 성씨가 잡 성이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도 많지 않아 가지고 잡 성이 김씨, 이씨, 오씨, 강씨하고.)

101002 @ 삼촌네 문씨도?(삼촌네 문씨도?)

101002 #1 예. 이제는 멧 사름 엇수다. 시로 다 나가버리니까.(예. 이제는 몇 사람 없습니다. 시로 다 나가버리니까.)

101002 @ 무슨 성씨가 많이 잇덴 들어 봅디가?(무슨 성씨가 많이 있다고 들어

보셨습니까?)

101002 #3 여기는 지금 문씨허곡 박씨.(여기는 지금 문씨하고 박씨.)

101002 @ 문씨허곡 박씨가 많아마씨.(문씨하고 박씨가 많아요.)

101002 #3 예.(예.)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1003 #1 살아온 역ᄉᆞ, 농사 주로 허는 게 직업이니까 잡곡농ᄉᆞ를 다 오곡농사를 짓고 살앗으니.(살아온 역사, 농사 주로 하는 게 직업이니까 잡곡농사를 다 오곡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101003 @ 제주도에서 오곡하면 보통 뭐렌 헙니까?(제주도에서 오곡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101003 #1 보리, 조, 산듸, 콩, 팥.(보리, 조, 밭벼, 콩, 팥.)

101003 @ 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101003 #3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마씨? 주로 농사짓고. 그 전에 농사는 우리 저 어렷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일곱 술에, 일곱 술에 사삼[14]이 일어낫는데.(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요? 주로 농사짓고. 그 전에 농사는 우리 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 일곱 살에, 일곱 살에 사삼이 일어났는데.)

101003 @ 아아.(아아.)

101003 #3 사삼이 일어나가지고 그 저 그전 우리말로는 그 소까이라 그랫지양.(사삼이 일어나가지고 그 저 그전이 우리말로는 그 소개라 그랬지요.)

101003 @ 예.(예.)

101003 #3 소까이. 그 저 재건헤 가지고 그 요즘말로는 그 제건이렌 허는디 그 때는 소까이엔 그레서양. 소까이 간 에, 우리는 저 한원리로 가가지고, 겐 한원리 가가지고.(소개. 그 저 재건해 가지고 그 요즘말로는 그 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소개라고 그랬어요. 소개 간 에, 우리는 저 한원리로 가가지고, 그래서 한원리 가가지고.)

101003 @ 한원리가 어딧꽈?(한원리가 어딥니까?)

101003 #3 요 신창 채 못 가민 잇수다.(요 신창 채 못 가면 있습니다.)

101003 @ 아아, 거기 지명이 한원리마씨? 지금도 한원리옌 헙니까?(아아, 거기 지명이 한원리예요? 지금도 한원리라고 합니까?)

101003 #3 그때는 서리눈이엔 헤서마씨.(그때는 '서리눈'이라고 했어요.)

101003 @ 설.(설.)

101003 #3 서리눈.('서리눈'.)

101003 @ 서리눈.('서리눈'.)

101003 #3 지금은 한원.(지금은 한원.)

14) 여기서 '사삼'은 제주 4·3사건을 말한다.

101003 @ 한원.(한원.)

101003 #3 예. 겐디 글로 가가지고 그 저 일 년, 일 년 만에 또 재건헹 올라와 십주게.(예.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그 저 일 년, 일 년 만에 또 재건해서 올라왔죠.)

101003 @ 예.(예.)

101003 #3 소까이헹 올라왓는데 그 당시에는 춤, 초가집을 짓젠 헤도 나무가 엇언 못 짓엇어마씀. 나무가 엇언 못 짓고, 그 저 이 소낭 가젱이덜 ᄒᆞ쏠 끈어당은에 돌, 요 요 모냥으로 동그롯허게 다아근에 그 우트레 헤근에 뭐 어욱이나 새 비어당덜 더껑덜 우선 살멍 ᄆᆞᆫ딱 불부쪄부니까 뭐 아무것도 엇이니까 경 헤영 살멍, 또 이제 나무덜 비어다가 이제 그 제라ᄒᆞ게 목수들 데려다가 집을 지은 거라예. 경헤연 어떵, 어떵 살아가는 게 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춤, 그 적에는 남자가 엇어가지고 밧덜 갈기가, 밧갈이가 그렇게 힘이 들엇주.(소개해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참, 초가집을 지으려고 해도 나무가 없어서 못 지어서요. 나무가 없어서 못 짓고, 그 저 이 소나무 가지들 조금 잘라다가 돌, 요 요 모양으로 동그랗게 쌓아서 그 위로해서 뭐 억새나 띠 베어다가들 덮어서들 우선 살면서 모두 불붙여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면서, 또 이제 나무들 베어다가 이제 그 온전하게 목수들 데려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게 살다가 그 다음에 그 참, 그 적에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밭들 갈기가, 밭갈이가 그렇게 힘이 들었지.)

101003 @ 남자가 엇언?(남자가 없엇어?)

101003 #3 남자덜마다 그 어떵 ᄆᆞᆫ딱 쏘아 죽여부난 남자덜이 엇어십주.(남자들마다 그 어떻게 모두 쏘아 죽여 버리니까 남자들이 없었죠.)

101003 @ 피해 많앗구나예?(피해 많았군요?)

101003 #3 아이고, 그때 피해라면은 그 뭐 제주도는 춤, 우리 그 일본 그, 그 놈의 새끼 왜정 때 그 시대 모냥으로 그 저 막 뭐 남자덜 ᄆᆞᆫ딱 죽어부난 ᄆᆞᆫ딱 홀어멍덜이고 무싱거 허니까 밧 갈 사람 엇어가지고 나도.(아이고, 그때 피해라면 그 뭐 제주도는 참, 우리 그 일본 그 그 놈의 새끼 왜정 때 그 시대 모양으로 그 저 막 남자들 모두 죽어버리니까 모두 홀어머니들이고 무엇 하니까 밭 갈 사람 없어가지고 나도.)

101003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1003 #3 아홉 술, 아홉 술 때 저 요 질 에염에 밧 갈암시니깐 거 무슨 얘기를 허느냐면은 춤, 우리 어머니보고 그 동네 어른덜이 얘기허는디 저 가마귀 물어 갈 아이 그 밧 갈암다고 그 우리 어머니보고 저 잘 지커영은에 밧 갈렌 허렌ᄁᆞ장 ᄀᆞᆯ아낫수다게.(아홉 살, 아홉 살 때 저 요 길 옆에 밭 갈고 있으니까 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참, 우리 어머니보고 그 동네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까마귀 물어 갈 아이 그 밭 갈고 있다고 그 우리 어머니보고 저 잘 지켜서 밭 갈라고 하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101003 @ 가마귀 물어 갈 아이란 말은? 어디?(까마귀 물어 갈 아이란 말은? 어디?)

101003 #3 가마귀, 가마귀, 요즘 가마귀, 가마귀.(까마귀, 까마귀, 요즘 까마귀, 까마귀.)

101003 @ 깍깍.(깍깍.)

101003 #3 으응. 깍깍허는 그 가마귀.(으응. 깍깍하는 그 까마귀)

101003 @ 가마귀 물?(까마귀 물?)

101003 #3 가마귀 물어간다고.(까마귀 물어간다고.)

101003 @ 아아.(아아.)

101003 #3 엿날에.(옛날에.)

101003 @ 어리다는 말이지예?(어리다는 말이지요?)

101003 #3 어, 응.(어, 응.)

101003 @ 가마귀 물어갈 아이.(까마귀 물어갈 아이.)

101003 #3 아이 밧 갈암수다 저저 밧머리에게 앚아근에 잘 직허라고 우리 어머니보고 그런 얘기까지 허멍 우리 어머니보고, 하하.(아이 밭 갈고 있습니다 저저 밭머리에 앉아서 잘 지키라고 우리 어머니보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 어머니보고, 하하.)

101003 @ 아이고 세상에 경 헤낫구나예.(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했었군요.)

101003 #3 첨, 그런 세상 겨끄다가 어떵, 어떵 헤가지고 살단 붸려보난 거 저 뭐냐 갑오년 숭년인가 그때 우리말로는 제주도 말로는 그 갑오년인디 게비년 숭년, 게비년 숭년헤서양. 게비년 숭년, 게비년 숭년 헷는디 그 숭년이 들어서니까 먹을 것덜이 엇어마씨. 겐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앗는데 나 혼자 살앗거던예.(참, 그런 세상 겪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살다가 봐보니까 거 저 뭐냐 갑오년 흉년인가 그때 우리말로는 제주도 말로는 그 갑오년인데 갑오년 흉년, 갑오년 흉년했어요. 갑오년 흉년, 갑오년 흉년 했는데 그 흉년 들어서니까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팔남매를 낳았는데 나 혼자 살았거든요.)

101003 @ 세상에.(세상에.)

101003 #3 겨니까 뒈나마나 이거는 어떻게 살렷느냐면은 이 최고 고급으로 살리긴 살앗수다 나가. 그 단아덜 죽으카부덴 뭐 어디 강 베라벨 지랄 다 헤다근에 뭐 헤 멕이고 무싱거 하면서 살긴 살아 온디 춤, 그 역ᄉᆞ가 게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못 먹는 게 엇어서양. 풀이민 풀, 무신 춤 이, 심지어는 그 전분주시, 전분주시를 저 어디 화순이엔 헌 디 가가지고 그 전분주시를 사레 가면은 쪼금 그기 그 ᄑᆞ는 사람이 이녁이 아는 사람 ᄀᆞ트면은 쪼금 싱싱한 딜로 그걸 걸영 풀아주고, 경 안허민 그때는 웃뜨리 가면은 아무런 거라도 치직치직 걸영 줘 불면은 그걸 헤당 무르 줴영은에 옛날 그 겨울에 담고망에 헤가지고 영 헹 놔두면은 담고냥으로 그 ᄇᆞ름 솔솔솔솔 들어오면은 그거 부시멍덜 다 먹엇거든예. 그거 부시멍 먹다가 쪼금, 쪼금 잇으니까 거 뭐 등대 ᄀᆞ룰이엔 헌 거 이 밀주시. 그게 어딜로 헤서 거 나완

그거 먹으멍 살아십주. 살다가 혼 멧 년이 흘렷나? 겐 그 천주교, 천주교회가 들어오면서 거 미국에서 원조혜 가지고 그 옥수수ᄀᆞ루, 그 옥수수ᄀᆞ루 그거를 먹을 때는 우리가 살앗구나 헤십주. 거 춤 이제는 그걸 허면은 헌디 그 옥수수ᄀᆞ루 천주교에서 죽 쑤면은 가근에 그거 혼적 얻어먹젠 영 턱 받앙 춤 많이 격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춤 그 적에 그추룩 헹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덜은 이 저 고지 가서 숫도 굽고, 숫 구워가지고 저 어데냐? 이 장에 졍 강 풀고 그때는 이 군부대가 이 모슬포에 잇엇으니까 모슬포에서는 군인덜 들어와가지고 뭐 헐 때 거기가면 주로 이 숫ᄀᆞ튼 거는 상당이 비싸십주. 이 한림덜에는 그런 그 기관덜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뒈고 모슬포 장에는 가면은 장작, 장작이나 이 저 뭐냐 그 숯 요런 거를 헹 가면은 그만큼 잘 팔려서예. 게서 우리 어머니도 거 무슨 장작 져가지고 그 모슬포 풀러 가다가 그 군인차에 군인차에 발 치어 가지고.(그러니까 되나마나 이거는 어떻게 살렸느냐면 이 최고 고급으로 살리긴 살았습니다 내가. 그 외아들 죽을까봐서 뭐 어디 가서 벼라별 지랄 다하다가 뭐 해 먹이고 뭐 하면서 살긴 살아 왔는데 참 그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못 먹는 게 없었어요. 풀이면 풀, 무슨 참이, 심지어는 그 전분찌꺼기, 전분찌꺼기를 저 어디 화순이라고 한 데 가가지고 그 전분찌꺼기를 사러 가면 조금 거기 그 파는 사람이 이녁이 아는 사람 같으면 조금 싱싱한 데로 그걸 퍼서 팔아주고, 그렇게 안하면 중산간 가면 아무런 거라도 치직 치직 그걸 퍼 줘 버리면 그걸 해다가 짓무르게 주물러서 옛날 그 겨울에 담구멍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놔두면 담구멍으로 그 바람 살살살살 들어오면 그거 부수면서들 다 먹었거든요. 그거 부수면서 먹다가 쪼금, 쪼금 있으니까 거 뭐 '등대 가루'라고 한 거 이 밀기울. 그게 어딜로 해서 그거 나와서 그거 먹으면서 살았었죠. 살다가 한 몇 년이 흘렀나? 겐 그 천주교, 천주교회가 들어오면서 거 미국에서 원조해가지고 그 옥수수가루, 그 옥수수가루 그거를 먹을 때는 우리가 살았구나 했죠. 거 참 이제는 그걸 하면 하는데 그 옥수수가루 천주교에서 죽 쑤면 가서 그거 한 숟가락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턱 받아서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적에 그처럼 해서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 저 숲 가서 숯도 굽고, 숯 구워가지고 저 어디냐? 이 장에 져서 가서 팔고 그때는 이 군부대가 이 모슬포에 있었으니까 모슬포에서는 군인들 들어와가지고 뭐 할 때 거기 가면 주로 이 숯 같은 거는 상당히 비쌌죠. 이 한림들에는 그런 그 기관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되고 모슬포 장에는 가면 장작, 장작이나 이 저 뭐냐 그 숯 요런 거를 해서 가면 그만큼 잘 팔려서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거 무슨 장작 져가지고 그 모슬포 팔러 가다가 그 군인차에 군인차에 발 치어 가지고.)

101003 @ 에, 세상에.(에, 세상에.)

101003 #3 발을 치어 가지고 이거 빼껴먹언 빼껴먹어가지고 그디 강 그 군부대 그 의료기관 헨에 거기서 한 한 달, 한 달포 그 잇당 나왓나. 그추룩 잇단도 그 군에서는 더 잇당 가렌 허는 디 나 때문에 온다는 거라 나 때문에. 겐 그 춤, 집이 완 헤도 그때 그 저 군인들이 우리 집에 멧 번 거 무신 거 그것저것 ᄀᆞ졍덜 오긴 와낫

수다. 오긴 와낫는디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춤, 그 후에 드니 쭉 계속 흘르다가 그 멧 년도더냐? 에, 정권이 그 바꽈젼 거 박정희 들어앚앙 헤가니까 그때부터 그자 거 춤 새마을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쪼금씩, 쪼금씩 나아지는 게 지금 이 세상을 만나. 이 그 유래가 춤, 그 만약에 그거를 헤근에 어디 요즘 흔히 말허는 영화나 찍어시면은 춤, 기똥차 불주.(발을 치어 가지고 이거 벗겨져서 벗겨져 가지고 거기 가서 그 군부대 그 의료기관 해서 거기서 한 한 달, 한 달포 그 있다가 나왔나. 그처럼 있다가도 그 군에서는 더 있다가 가라고 하는데 나 때문에 온다는 거라 나 때문에. 그래서 그 참, 집에 와서 해도 그때 그 저 군인들이 우리 집에 몇 번 거 무엇 그것저것 가져서들 오기는 왔었습니다. 오기는 왔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이제 참 그 후에 드니 쭉 계속 흐르다가 그 몇 년도더냐? 에, 정권이 그 바꿔져서 거 박정희 들어앉아서 해가니까 그때부터 그저 거 참, 새마을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게 지금 이 세상을 만나. 이 그 유래가 참, 그 만약에 그거를 해서 어디 요즘 흔히 말하는 영화나 찍었으면 참 기막혔지.)

101003 @ 헤헤헤헤. 게난마씨.(헤헤헤헤. 그러게요.)

101003 #3 에에, 그때 셍각허면은 뭐 우리도 춤.(에에, 그때 생각하면 뭐 우리도 참.)

101003 @ 잘도예. 어쨋튼 그 시대를 사셧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릴 때 외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느낌이예. 이런 거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우다. 월령ᄀᆞ튼 경우는 숫 굽는 걸 아예 모르는데 여긴 암만헤도 웃드리난 모슬포 장에 간다는 이런 말이 처음 나왐서예. 저 처음 들어 보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잘도 중요허고, 이렇게 노인회장님도 완전 말씀을 잘 하시니까.(잘도요. 어쨌든 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릴 때 외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느낌이요. 이런 거는 진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월령 같은 경우는 숯 굽는 걸 아예 모르는데 여긴 아무리 해도 중산간이니까 모슬포 장에 간다는 이런 말이 처음 나오고요. 저 처음 들어 보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잘도 중요하고, 이렇게 노인회장님도 완전 말씀을 잘 하시니까.)

101003 #3 허허허허.(허허허허.)

101003 @ 이거를 한번 쫙 가야뒈쿠다. 이런 거를.(이거를 한번 쫙 가야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101003 @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예. 사투리도 그냥 오리지날로 다 뒈고, 여기 청수리에 사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왐싱게예.(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투리도 그냥 오리지널로 다 되고, 여기 청수리에 사시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나오네요.)

101004 @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이 마을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101004 #1 우리 마을에는 굴이 없는 뭐인데 일본놈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 가마오름이라고 한데.(우리 마을에는 굴이 없는 뭐인데 일본놈 군인들이 와가지고 저 '가마오름'이라고 한데.)

101004 @ 아.(아.)

101004 #1 지금 그 굴을 파가지고 오름이 막 소곱이 막 뭐헤서 그 저,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땅굴진지라고 헤서.(지금 그 굴을 파가지고 오름이 막 속에 막 뭐 해서 그 저, 관광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본땅굴진지라고 해서.)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관광지옌 헌 것베끼 헤서. 청수ᄆᆞ을 주위에는 이 옛날 굴은 흔엇이 엇입주.(관광지라고 한 것밖에 해서. 청수마을 주위에는 이 옛날 굴은 한없이 없죠.)

101004 @ 가마 오름은 삼춘덜 어렷을 때 파는 거 봣수과?(가마 오름은 삼촌들 어렸을 때 파는 거 봤습니까?)

101004 #2 음. 어렷을 때ᄁᆞ지만 헤도.(음.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101004 @ 전라도 사람들 무슨 광부가 완 팟지예?(전라도 사람들 무슨 광부가 와서 팠지요?)

101004 #1 가마오름이 연대본부라낫주기.(가마오름이 연대본부였었지.)

101004 @ 한 번 갓다 완마씨.(한 번 갔다 왔어요.)

101004 #2 아, 갓다 왓수과? 일본 군인덜도 파고, 여기서 출역허는 사름은 안 봐난디 전부가 일본 군인덜이 파나십주. 막 팝데다.(아, 갔다 왔습니까? 일본 군인들도 파고 여기서 출역하는 사름은 안 봤었는데 전부가 일본 군인들이 팠었죠. 막 팝디다.)

101004 @ 아니, 저 낼 모리 저 문예회관서 다섯 시에 공연할건디예. 전라도 사람 광부덜 잇수게? 광부덜 노역자로 끗어단.(아니, 저 낼 모리 저 문예회관서 다섯 시에 공연할건데요. 전라도 사람 광부들 있지요? 광부들 노역자로 끌어다가.)

101004 #1 예.(예.)

101004 @ 산방산, 송악산 다 파렌 시켠 일본놈덜이. 경헨 사십오 년 망하게 뒈난 배 탄 전라도 이젠 고향에 간다고 막 백십 명이 가는 디 불 질러 불언. 일본놈덜이. 겐 지네만 쏙 빠져 나와 부난 사람덜이 그 지금 세월호헌 디.(산방산, 송악산 다 파라고 시켜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해서 사십오 년 망하게 되니까 배 탄 전라도 이젠 고향에 간다고 막 백십 명이 가는 데 불 질러 버렸어. 일본 놈들이. 겐 지네만 쏙 빠져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지금 세월호한 데.)

101004 #2 불칸 죽엇다.(불타서 죽었다.)

101004 @ 다 죽어분 거라예. 그 사건을 가졍 연극을 가졍 와서. 해남사람덜이. 게난 그 다 전라도 사람하고 죽어불언, 다.(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가져서 연극을 가져서 와서. 해남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 전라도 사람하고 죽어버렸어요, 다.)

101004 #1 그런 거는 아니고.(그런 거는 아니고.)

101004 #2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본 군인덜이 막 팝디다.(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본 군인들이 팝디다.)

101004 @ 아.(아.)

101004 #2 그기만 판 게 아니고 저기 저 사겔빌레[15]라는 동산이 잇는데 거기도 와서 군인덜이 파던데 아주 멋지게 그 굴이 뒈가지고 거기를 그 고안한 군인은 상을 타가지고 뭐 진급을 헷다고 합데다. 겐디 거기도 다 메와져 버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외지인들은 안 보이고 군인덜이 전부 팝데다. 거기.(거기만 판 게 아니고 저기 저 '사겔빌레'라는 동산이 있는데 거기도 와서 군인들이 파던데 아주 멋지게 그 굴이 되가지고 거기를 그 고안한 군인은 상을 타가지고 뭐 진급을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거기도 다 메워져 버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외지인들은 안 보이고 군인들이 전부 팝디다. 거기.)

101004 @ 아아, 일본 군인들이예?(아아, 일본 군인들이요?)

101004 #2 네.(네.)

101004 #1 가마오름이 연대본부가 뒈니까 거기는 계급장을 달린 정식 군인들이고 경상도나 이 전라도 군인덜은 무등병으로 헤가지고 우리 저 목장에, 목장에 돌담 쌓아가지고 이게 뭐 허고 허니까 배고프고 뭐 헤서 우리는 요 동네에 살앗는데 오랑 밥도둑질도 헤 먹고 뭐허고, 그디서 소도 그냥 야오덜 잇으니까 여름에 소도 잡아먹어버리고 헤서 개판을 쳐서 건 무등병.(가마오름이 연대본부가 되니까 거기는 계급장을 달린 정식 군인들이고 경상도나 이 전라도 군인들은 무등병으로 해가지고 우리 저 목장에, 목장에 돌담 쌓아가지고 이게 뭐하고 하니까 배고프고 뭐 해서 우리는 요 동네에 살았는데 와서 밥도둑질도 해 먹고 뭐하고 거기서 소도 그냥 야오들 있으니까 여름에 소도 잡아먹어버리고 해서 개판을 쳐서 건 무등병.)

101004 @ 무등병.(무등병.)

101004 #2 노무자구나.(노무자구나.)

101004 #1 예.(예.)

101004 #2 우린 그런 건 모르고.(우린 그런 건 모르고.)

101004 @ 아, 일제 시대에도 역ᄉᆞ덜이 다 나온다예.(아, 일제 시대에도 역사들이 다 나오네요.)

101004 #1 가마오름은 연대장.(가마오름은 연대장.)

101004 @ 그때 삼촌 멧 살쯤 뒈시쿠과?(그때 삼촌 몇 살쯤 되었을까요?)

101004 #1 우리 초등ᄒᆞ교 ᄉᆞᄒᆞ년 때.(우리 초등학교 사학년 때.)

101004 @ 와, 다 봣겟다예?(와, 다 봤겠네요?)

101004 #1 예.(예.)

101004 @ 신기하고.(신기하고.)

101004 #1 게니까 그 다이사라고 허는데 연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이 똑 이 저 청수에도 저 닥물오름 읖에 이계오름이라고 잇는데 걸 이용헤영 시찰을 영 물 타

15) '사게빌레'는 한경면 청수리의 지명이름이다.

다니는데 우리가 ᄒᆞᆨ교 강 오다가 쭉 다 다니는데 일본군인덜이 이 우리 ᄒᆞᆨ생덜 뒤에 따라 다니는 건 절대 싫어 허질 안허고 막 보호해서 절대 구경허라고 영 구경을 헷는데 천연적으로 우리 마을에는 그 굴이 잇지 안허여예.(그러니까 그 '다이사'라고 하는데 연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이 똑 이제 저 청수에도 저 '닭ᄆᆞᆯ오름' 옆에 '이계오름'이라고 있는데 걸 이용해서 시찰을 이렇게 말 타서 다니는데 우리가 학교 가서 오다가 쭉 다 다니는데 일본 군인들이 이 우리 학생들 뒤에 따라다니는 건 절대 싫어하질 않고 막 보호해서 절대 구경하라고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천연적으로 우리 마을에는 그 굴이 있지 않아요.)

101004 @ 그믄 이 저지 오름은 저지마을에 잇이난 저지오름이 뒈 분거꽈?(그러면 이 저지 오름은 저지마을에 있으니까 저지오름이 된 겁니까?)

101004 #1 예. 저지라고 허는 게 닭 계자, ᄆᆞ을 제자, 헤서 저진디 게서 ᄃᆞᆨᄆᆞ르, ᄃᆞᆨᄆᆞ르 허는 건디 그 밑에 가면 이계봉이라고 허는 건 청수도 일부는 에, 청수경인디 이계봉이믄 ᄃᆞᆨ이 둘인디 청수 이계봉 닭이 두 갠디.(예. 저지라고 하는 게 닭 계자, 마을 제자, 해서 저진데 그래서 '닭ᄆᆞ르', '닭ᄆᆞ르' 하는 건데 그 밑에 가면 이계봉이라고 하는 건 일부는 에, 청수 경인데 '이계봉'이면 닭이 둘인데, 청수 '이계봉' 닭이 두 갠데.)

101004 @ 이계봉? 처음 들어봠다예.('이계봉'? 처음 들어보네요.)

101004 #1 이계봉이라는 ᄃᆞᆨ 계자, 두 이자, ᄃᆞᆨ 계자 헤서 ᄃᆞᆨ 두ᄆᆞ리가 새끼 깨운 형이라고 헤가지고.('이계봉'이라는 닭 계자, 두 이자, 닭 계자해서 닭 두 마리가 새끼 깨운 형이라 해가지고.)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영덜 말허단 보난 원 어떵사 헌 것산디 옛 어른 그렇게 헤서 이계봉이라고 앞에 봉데기[16], 봉데기 영 잇으니까 새끼덜이 이제 깨워 가지고 그 두 자리 깨운 형이라고 허는.(이렇게들 말하다가 보니까 원 어떻게 한 건지 옛 어른 그렇게 해서 '이계봉'이라고 앞에 '봉데기', '봉데기' 이렇게 있으니까 새끼들이 이제 깨워 가지고 그 두 자리 깨운 형이라고 하는.)

101004 @ 그믄 저지오름도 잇고, 이계봉도 잇고, 저지오름은 저지마을 꺼고.(그러면 저지오름도 있고, 이계봉도 있고, 저지오름은 저지마을 거고.)

101004 #1 바로 그 밑에 가면은 얼마 없어서 그 이계봉이라는 오름이 싯주기예.(바로 그 밑에 가면은 얼마 없어서 그 '이계봉'이라는 오름이 있지요.)

101004 @ 아아, 이계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엇인디. 그거는 청수하고 저지에 경계, 같이 하는 봉이고.(아아, 이계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청수하고 저지에 경계, 같이 하는 봉이고.)

101004 #1 예.(예.)

101004 @ 저지 오름은 저지리 꺼고.(저지 오름은 저지리 거고.)

101004 #1 예.(예.)

16) '봉데기'는 산봉우리 같이 물건이 솟거나 내민 부분을 말한다.

101004 @ 그것은 아쉽다예. 저지오름.(그것은 아쉽네요. 저지오름.)

101004 #2 겐디 그 이계봉이라는 게 봉오리가 두 개가 잇어 가지고 두 닭이다. 하는 사람도 잇고, 원래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닥ᄆᆞ르가 계질이라고 헙니다. 저지리가 아니고. 그 계지리가 아니고 닭 계, 마을 지헤서 닭 형치에 마을이다. 그래서 그 때는 우리 청수도 거기 같이 포함 뒌 때 이십주. 어, 계지리라고 허니까 말이 좀 천하다.(그런데 그 '이계봉'이라는 게 봉오리가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두 닭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원래 그 옛날 할아버지들은 '닥ᄆᆞ르'가 '계질'이라고 합니다. 저지리가 아니고, 계지리가 아니고, 닭 계, 닭 형체의 마을이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청수도 거기 같이 포함 된 때었죠. 어, 계지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천하다.)

101004 @ 천하다.(천하다.)

101004 #2 조금 아름다운 마을 이름으로 고치자 헤서 닥 계를 이제 닥 저자로 고쳐십주. 저지 사람도 닥나무가 많으니까 닥저자 부쪗지. 뭐 닭 계자를 이제 닥 저자로 고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디 옛날 할아버지덜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지리라 닥ᄆᆞ루라고 허면 닥, 에, 이 모양, 대가리 모양뒈서 닥ᄆᆞ루라고 헤서 계지리라고 문자로는 썻는데 이것이 많이 마을 이름이 천허다. 그렇게 헤서 고친 것이 닥 저자로 바꾸니까 저지라고 뒈엇는데.(조금 아름다운 마을 이름으로 고치자 해서 닭 계를 이제 닭 저자로 고쳤죠. 저지 사람들도 닥나무가 많으니까 닭 저자 붙였지. 뭐 닭 계자를 이제 닭 저자로 고친 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지리라 '닥ᄆᆞ루'라고 하면 닭, 에, 이 모양, 대가리 모양 되어서 '닥ᄆᆞ루'라고 해서 계지리라고 문자로는 썼는데 이것이 많이 마을 이름이 천하다. 그렇게 해서 고친 것이 닭 저자로 바꾸니까 저지라고 되었는데.)

101004 @ 그러면 어쨋든 청수리라는 이름보다는 그 계지.(그러면 어쨌든 청수리라는 이름보다는 그 계지.)

101004 #2 ᄆᆞᆫ저죠.(먼저죠.)

101004 @ 그 저지리 속에 청수가 잇엇다는 거로구나예.(그 저지리 속에 청수가 있었다는 거로군요.)

101004 #2 그 후에 분리헤오고 어, 이름도 이제 형성이 뒈고 모체는 저집니다.(그 후에 분리해 오고 어, 이름도 이제 형성이 되고 모체는 저집니다.)

101004 @ 어떻게 헤서 청수리를 마을로 조사허게 뒌게 그런 근원을 또 따져보기는.(어떻게 해서 청수리를 마을로 조사하게 된 게 그런 근원을 또 따져보기는.)

101004 #1 게니까 말이 흐름에 따라서 달르는 수가 많아예. 우리가 듣기에는 옛 어른덜이 말허기를 남송악이라고 잇어. 남송악. 저 설록차 에염에 오름, 그것이 식충이라고 헤여. 식이라고 허는 옛날에 ᄃᆞᆨ 물어가는.(그러니까 이 말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수가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남송악이라고 있어. 남송악 저 설록차 구석에 오름, 그것이 식충이라고 해여. 삭이라고 하는 옛날에 닭 물어가는.)

101004 #2 일번 형님한테 주로 듣고 나 얼른 막 바빠 가지고 이제 저 누구 기

다린덴 헨 얼른 갓다 오쿠다. 한림에. 뒈쿠과?(일번 형님한테 주로 듣고 나 얼른 막 바빠 가지고 이제 저 누구 기다린다고 해서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한림에. 되겠습니까?)

101004 @ 저는 오늘 또 약속이 잇어부난 오늘은 쪼끔만 더 하고 연락처를 따시난예. 제가 입력헤영 한번 눌르쿠다. 경허난 이십 날 이후는 계속 보게마씨. 예?(저는 오늘 또 약속이 있어버리니까 오늘은 조금만 더 하고 연락처를 땄으니까요? 제가 입력해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십 날 이후는 계속 봐요. 예?)

101004 #2 예. 게믄 오널은 정헌 수 엇고.(예. 그러면 오늘은 정한 수 없고.)

101004 @ 예. 오늘은 같이 쪼끔만 더 하당.(예. 오늘은 같이 조금만 더 하다가.)

101004 #2 예. 쪼꼼 얘기를 나누다가. 헤 줍서. 그러면은.(예.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해 주세요. 그러면.)

101004 @ 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을이.(고맙습니다. 어쨌든 마을이.)

101004 #2 다음은 나가 이 저 시간을 절대 쪼금이라도 어기질 안허쿠다. 바쁘게 기다리고 잇으니까 흔 사람만 기다리지 안 헹 저 서이가 딴 동네 사람덜하고 기달렴수다.(다음은 나가 이 저 시간을 절대 조금이라도 어기질 안하겠습니다. 바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사람만 기다리지 안 해서 저 셋이 딴 동네 사람들하고 기다립니다.)

101004 @ 예.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수건 ᄒᆞ나 가졍 가시고예. 아이고 선생님은 쪼금만 이십서.(예.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수건 하나 가져서 가시고요. 아이고, 선생님은 조금만 계세요.)

101004 #1 아니.(아니.)

101004 #2 여기랑 쪼끔 더 헤뒁 갑서. 쪼금 더 형님 더 얘기헤붑서. 나 저 바빠부난.(여기는 조금 더 해두고 가세요. 조금 더 형님 더 얘기해 보세요. 나 저 바빠버리니까.)

101004 @ 흔 멧 분만예. 차가 제가 모셔다 드리쿠다.(한 몇 분만요. 차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101004 #1 아니, 집이 이디난 나 오도바이 탕 오난.(아니, 집이 여기니까 나 오도바이 타서 오니까.)

101004 #2 성님, 앚앙 흔 삼십분만 영 얘기 헤붑서.(형님, 앉아서 한 삼십분만 이렇게 얘기 해 보세요.)

101004 @ 이십분만.(이십분만.)

101004 #2 이십분만 더 헤붑서.(이십분만 더 해주세요.)

101004 #1 볼 일 션?(볼 일 있어?)

101004 #2 예. 다음은 곱빼기로 흔 육십분 더 헤드리쿠다. 조끔 앚앙 삼십분만 영 얘기 헴십서.(예. 다음은 곱빼기로 한 육십분 더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앉아서 삼십분만 이렇게 얘기 하고 계세요.)

101004 @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101004 #2 형님 좀 수고혜 줍서. 형님이 활씬 더 잘 압니다. 실지로는. 고맙습니다예. 자꾸 전화와가지고. 미안혜 가지고. 미안합니다예.(형님 좀 수고해 주세요. 형님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실지로는. 고맙습니다. 자꾸 전화와가지고. 미안해 가지고. 미안합니다.)

101004 @ 또 뵙겠습니다. 시월 들까지는예. 이렇게 하나 조사하는 것도 지금 멧 시간헤도예. 저 끗이 엇수궤. 게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쿠과?(또 뵙겠습니다. 시월 달까지는요. 이렇게 하나 조사하는 것도 지금 몇 시간해도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101004 #1 나 입장이 그거거든. 말 못 허건 디가 십삼 년 뒈다 보니까 기억허던 것이 많이 상실 뒈부럿어. 수술허다 보니까 성대가 혼짝 죽어 부니까 말이 나오질 안 허니까 견디 우리가 영 들어 보면은 저지라 헌 데가 뭐냐면 저지본향 청수라고 허는 디 옛 어른덜 말이 저지가 앞으로 무한정 발전이 뒌다. 지리 보는 사람도 그레. 남송악이라고 헌 디가 잇어. 요 저 설록차 우에 그 오름이 잇는 디, 거는 뭐 독 계자를 헤서 뭐라고 허는데 난 그런 말을 못 들어 봣는데, 글로 옛날에는 그, 그 늙은 나무가 잇어서 그 오름을 못 봣다고 헤여. 어, 식이라고 허는 것은 어떤 짐셍이냐 허면은 고넹이 ᄀᆞ튼 뭐신디.(나 입장이 그거거든. 말 못한지가 십삼 년 되다보니까 기억하던 것이 많이 상실 돼버렸어. 수술하다 보니까 성대가 한 쪽 죽어버리니까 말이 나오질 안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저지라 한데가 뭐냐면 저지본향청수라고 하는데 옛 어른들 말이 저지가 앞으로 무한정 발전이 된다. 지리 보는 사람도 그래. 남송악이라고 한데가 있어. 요 저 설록차 위에 그 오름이 있는데 아까는 뭐 닭 계자를 해서 뭐라고 하는데 난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그리로 옛날에는 그 늙은 나무가 있어서 그 오름을 못 봤다고 해. 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고양이 같은 뭔데.)

101004 @ 살쾡이?(살쾡이?)

101004 #1 예. 독 잡아먹는 짐셍이라. 식이라고 허는 것은.(예. 닭 잡아먹는 짐승이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101004 @ 아아, 살쾡이를 식이라고 하는구나예.(아아, 살쾡이를 '식'이라고 하는군요.)

101004 #1 똑 고넹이 ᄀᆞ튼디 꼬리가 고넹이는 쪼금 이렇게 나가고 식이라고 허는 건 꼴리가 뭉턱허여.(꼭 고양이 같은데 꼬리가 고양이는 조금 이렇게 나가고 '식'이라고 하는 건 꼬리가 꼬리가 뭉턱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쫄라서 뭉탁헌데 그 막아진 그 수풀을 제거시켜 버리니깐 이 ᄉᆞ삼ᄉᆞ건 직후로. 그니까 식은 숨을 수어야 심톡을 헤서 독을 잡아먹는디 독이 이제는 고개를 들은 다 이거야.(짧아서 뭉턱한데 그 막아진 그 수풀을 제거시켜 버리니까 이 사삼사건 직후로. 그러니까 식은 숨을 쉬어야 '심톡'을 해서 닭을 잡아먹는데 닭이 이제는 고개를 든다 이거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겁난 게 없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을라고 추격허는 게 이젠 활동을 못하니까 느네 나둠서 보라. 둑ᄆᆞ르 많이 발전한다. 둑이 이제는 거들거리고 나상 활동허게 마련이니까 흔이 나둠서 보라헷는데, 우리 한경면 내에서 저지같이 관광지 한 디가 없어. 게서 저지라고 우리는 닭 제자, ᄆᆞ을 제자 헤서 다 클러서 써서 둑ᄆᆞ르, 둑ᄆᆞ르 헌다고 하는데 둑 계자를 헤서 계지라고 허는 말은 난 들어 본 말인데, 나는 올레바끗디 못나가니까 말 ᄀᆞᆯ아가도 나는 빠지고 그자 뭐허는데 겐디 나도 한문 공부를 좀 헷는데 한문이 목을 잘 쓰는 거라. 열다슷까지 헤서 내가 사력초본을 읽어서 춘추전국까지 읽다가 ᄉᆞ삼 사건 때 책을 덮어버리니까 진학을 못헤 노니까 이제는 대가리가 둔하고 거의 녹실어 버리니까 이제는 ᄯᆞ라지게 말을 못 헤. 왜그러냐면 신학을 베워야 말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잇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세차 허는 것만 알믄 뒛다 헤서.(겁난 게 없으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추격하는 게 이젠 활동을 못하니까 너희 나두고서 봐라. ‘닭ᄆᆞ르’ 많이 발전한다. 닭이 이제는 거들거리고 나아서 활동하게 마련이니까 때가 나두고서 보라했는데, 우리 한경면 내에서 저지같이 관광지 한 데가 없어. 게서 저지라고 우리는 닭 제자, 마을 제자 해서 다 풀어서 써서 ‘닭ᄆᆞ르’, ‘닭ᄆᆞ르’ 한다고 하는데 닭 계자를 헤서 계지라고 허는 말은 난 들어 본 말인데, 나는 올레바깥에 못나가니까 말 해가도 나는 빠지고 그저 뭐 하는데 겐디 나도 한문 공부를 좀 했는데 한문이 목을 잘 쓰는 거라. 열다섯까지 해서 내가 사력초본을 읽어서 춘추전국까지 읽다가 사삼 사건 때 책을 덮어버리니까 진학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는 대가리가 둔하고 거의 녹슬어 버리니까 이제는 야무지게 말을 못 해. 왜 그러냐면 신학을 베워야 말이 순조롭게 나갈 수 잇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세차 허는 것만 알면 됐다 해서.)

101004 @ 음.(음.)

101004 #1 진학을 안 시겨 버리니까 이제 멍챙이라.(진학을 안 시켜 버리니까 이제 멍청이야.)

101004 @ 아이고.(아이고.)

101004 #1 게니까 이렇게 오신 분덜이 질문을 헤도 순조롭게 말을 들을 수 잇게 전헤 드리질 못한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그러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해도 순조롭게 말을 들을 수 있게 전해 드리지 못한 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

101004 @ 아이, 제줏말만 잘 허믄 뒈마씨. 한자말 안 나와도.(아이, 제주말만 잘하면 돼요. 한자말 안 나와도.)

101004 #1 게난 모든 말은 상식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다예.(그러니까 모든 말은 상식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문제네요.)

101004 @ 그래도.(그래도.)

101004 #1 촌사람덜은 밧디서 실컷 일베끼 안하니까 말을 헤도.(촌사람들은 밭에서 실컷 일밖에 안하니까 말을 해도.)

101004 @ 총기가 잇으니까.(총기가 있으니까.)

101004 #1 일 허는 말베끠 못허니까 상식적인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춤 아쉬운 점이 많지예.(일 하는 말밖에 못하니까 상식적인 시대가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점이 많지요.)

101004 @ 경헤도 그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서 재밋게 들은 거를 다시 얘기할 수 잇다는 게 어디꽈?(그렇게 해도 그 옛날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서 재밌게 들은 거를 다시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101004 #1 우리가 듣기에는 기록에는 맙서만은예. 지경천이라고 쒜 비석 세운 디가 잇엇거든. 옛날에 검은 소가 나면은 진상을 바쪄서.(우리가 듣기에는 기록에는 마세요. 지경천이라고 쇠 비석 세운 데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검은 소가 나면 진상을 바쳐서.)

101004 @ 검은 소.(검은 소.)

101004 #1 국가에서 가버리는 거라. 우리가 듣기로는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제주시까지 중심지라 이거여. 그래서 도에서 원 본부에서 비석을 출비석도 허고 비석을 뭐 헤서 쫙 세웟는디 ᄉᆞ삼ᄉᆞ건 잇을 때까지 잇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이니 뭐니 이제 수집을 헐 때는 어느새 모르게 그냥 다 날라가 버렷어. 날라가 버려서 돌로 이렇게 기와집 모냥으로 영 만들어 논 거이 잇는 디 그거는 무겁고 흔엇이 볼 쌍이 없으니깐 네버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그 분 비석이 여기 잇어. 아까도 비석을 뭐라고 헷는고 허니까 효열부, 유림에 허는 사람덜이 효열부 임필진 행적비라 헷거든. 이거 뭐 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수투룸헌[17] 동네라.(국가에서 가버리는 거야. 우리가 듣기로는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제주시까지 중심지라 이거여. 그래서 도에서 원 본부에서 비석을 찰비석도 하고 비석을 뭐 해서 쫙 세웠는데 사삼사건 있을 때까지 잇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동품이니 뭐니 이제 수집을 할 때는 어느새 모르게 그냥 다 날라 가버렸어. 날아가 버려서 돌로 이렇게 기와집 모양으로 영 만들어 논 게 있는 데 그거는 무겁고 한없이 볼 상 없으니깐 내버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그 분 비석이 여기 있어. 아까도 비석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효열 부, 유림에 하는 사람들이 '효열 부 임필 진' 행적 비라 했거든. 이거 뭐 참 우리 동네가 이렇게 '수투룸헌' 동네라.)

101004 @ 아닌 건 아닌디예. 거 억지로 막 만들 필요는 엇주게.(아닌 건 아닌데요. 거 억지로 막 만들 필요는 없지요.)

101004 #1 검은 소는 나면은 옛날엔 나라에 진상을 바찌니까 서귀포에서 이까지 오면은 저기는 이제 대정 모관이거든. 이 옛날에는 이 고산 우리 한경면이 한림면이랏거든. 한림면인데 ᄉᆞ삼사건 직후에 한경면이 셍겨서 게서 한 자를 하나 놔가지고 한경면이라고 이렇게 헷거든예. 게서 월림 저쪽에 월림리란 동네가 잇거든.(검은 소는 나면 옛날엔 나라에 진상을 바치니까 서귀포에서 이까지 오면 저기는 이제 대정 모관이거든. 이 옛날에는 이 고산 우리 한경면이 한림면이었거든. 한림면인데 사삼사건 직후에 한경면이 생겨서 그래서 한 자를 하나 놔가지고 한경면이라고 이

17) '수투룸ᄒᆞ다'는 사람이 약지 못하고 어수룩하다는 뜻이다.

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월림 저쪽에 월림리란 동네가 있거든.)

101004 @ 예.(예.)

101004 #1 이것이 반쪽은 상명이고 반쪽은 저지라. 저지 북동이였거든, 그랬는데 월림이라고 글씨후제 헤놓고 신창가면은 이제 요것도 신창 우이 한원리라고 잇어. 한원리가 그거 두모 이구랏거든. 두모 이군디 한원으로 그거 분면을 셍기면서 한원리라고 ᄆᆞ을을 분면 시겨놓고 산양리를 ᄉᆞ삼ᄉᆞ건 직후에 사람덜이 ᄃᆞᆯ메기 싫다고 헤서 일름 불러서 그 당시 김창흡 회장 당시 이제 제주에 와서 나가면서 그렇게 헤 놓고 한림 가면 한수리라고 잇어.(이것이 반쪽은 상명이고 반쪽은 저지야. 저지 북동이었거든. 그랬는데 월림이라고 금시 후에 해놓고 신창가면 이제 요것도 신창 위에 한원리라고 있어. 한원리가 그거 두모 이구였거든. 두모 이군데 한원으로 분면을 생기면서 한원리라고 마을을 분면 시켜놓고 산양리를 사삼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들메기 싫다고 해서 이름 불러서 김창흡 회장 당시 이제 제주에 와서 나가면서 그렇게 해 놓고 한림 가면 한수리라고 있어.)

101004 @ 예.(예.)

101004 #1 한수리가 수원리랏거든. 수원리랏는디 것도 한림제 한을 놔가지고 한수리라고 헤서 이제 마을 분리와 논 거라.(한수리가 수원리였거든. 수원리였는데 것도 한림제 한을 놔가지고 한수리라고 해서 이제 마을 분리 해 놓은 거야.)

101004 @ 분리시겨 버렷다는 거지예.(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지요.)

101004 #1 예. 이러니까 이 저 요지금 말이 좋고 말이 둥근 사람 얘기허는 거는 듣기 좋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들은 거 허고는 좀 차이가 나.(예. 이러니까 이 저 요즘 말이 좋고 말이 둥근 사람 얘기하는 거는 듣기 좋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들은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나.)

101004 @ 맞아마씨.(맞아요.)

101004 #1 예. 게난 지금 저 오신 분께서도 이런 거는 상 좋게 게고 의견 엇갈린 것을 바르게 헤서.(예. 그러니까 지금 저 오신 분께서도 이런 거는 상 좋게 그리고 의견 엇갈린 것을 바르게 해서.)

101004 @ 예.(예.)

101004 #1 이렇게, 이렇게 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1004 @ 예. 어쨋든 진실이 중요헌 거니까.(예. 어쨌든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101004 #1 예.(예.)

101004 @ 그거는 일부러 막 만들어 놩예 포장할려고 헌 그런 것들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헤버려예.(그거는 일부러 막 만들어 놔서 포장하려고 한 그런 것들이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버려요.)

101004 #1 청수물왓이라고 허는 것은 물이 조금 빠지질 안앗다고 헤여.('청수물왓'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조금 빠지질 않았다고 해.)

101004 @ 누군가.(누군가.)

101004 #1 게니까 배에도 물이 잇어야 선원이 먹고 산다고 헤서 가운데 물을 만들어가지고 청수물왓이라고 헤서 이제 배에 그 큰물은 아니고 조그만헌 물이 잇어야 뭰다고 헤서 그 이명을 지와낫다고 헤여.(그러니까 배에도 물이 있어야 선원이 먹고 산다고 헤서 가운데 물을 만들어가지고 '청수물왓'이라고 해서 이제 배에 그 큰물은 아니고 조그마한 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이명을 지웠었다고 해.)

101004 @ 게난 이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한 사람이 누군가 유식헌 사람이 잇긴 잇엇나 보다예?(그러니까 이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판단한 사람이 누군가 유식한 사람이 있긴 있었나 보네요?)

101004 #1 옛날은 지명 마련헌 거를 이렇게 보면은 천재들이라. 하늘에서 네운 사람덜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셍기처 ᄉᆞ기처, 예? 겐디 저 애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애월지경이 전부가 생기처라고 헤여.(옛날은 지명 마련한 거를 보면 천재들이야. 하늘에서 내운 사람들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생기처' 사기처, 예? 그런데 저 애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애월지경이 전부가 '생기처'라고 해.)

101004 @ 셍기처란 말이 뭐우까?('생기처'란 말이 뭡니까?)

101004 #1 땅이 살아 잇다 이거여.(땅이 살아 있다 이거야.)

101004 @ 아아, 애월?(아아, 애월?)

101004 #1 ᄉᆞ기, 죽은 이딘.(사기, 죽은 여긴.)

101004 @ 아아, 살아 잇다.(아아, 살아 있다.)

101004 #1 ᄉᆞ기라고 헤여. ᄉᆞ긴 말하자면 죽은 땅이라 이거여. 힘이 없는 땅이고, 힘이 잇는 땅은 셍기처라. 게난 옛날 목사가 ᄆᆞᆯ을 타고 고산으로 이렇게 헹차를 하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보더니 야! 저기 산자리가 마니 잇다. 묘 자리가 마니 잇다. 헨 허니까 고산우론 저기 공동묘지같이 셍겻단 말이여. 그때 목사 말끗에 그렇게 들어갓다 헤여. 형저탄환이 잇고 오름 황사천하가 잇고, 그 용새 그 힘찬 뭣이 현저탄환이라고 하면 현저가 오름 새끼 나는 형이라고 허는 거여. 거 모든 발복이 심하다고 허는데, 겐디 고산을 이렇게 ᄀᆞ만이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역은 울퉁불퉁 헤야 그 살아 잇는 것이지. 펜펜헌 데는 죽은 땅이라고 헤여. 땅은 ᄋᆞ물아서 처음 볼 때는 좋지만은 고산에는 인재가 안나.(사기라고 해. 사긴 말하자면 죽은 땅이라 이거야. 힘이 없는 땅이고, 힘이 있는 땅은 '생기처'야. 그러니까 옛날 목사가 말을 타고 고산으로 이렇게 행차를 하다가 이 밑으로 이렇게 보더니 야! 저기 산자리가 많이 있다. 묘 자리가 많이 있다. 해서 하니까 고산위론 저기 공동묘지같이 생겼다는 말이야. 목사 말끝에 그렇게 들어갔다 해. 현저탄환이 있고 오름 황사천하가 있고, 그 용새 그 힘찬 뭣이 현저탄환이라고 하면 현저가 오름 새끼 나는 형이라는 하는 거야. 거 모든 발복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산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지역은 울퉁불퉁 해야 그 살아 있는 것이지. 편편한 데는 죽은 땅이라고 해. 땅은 여물어서 처음 볼 때는 좋지만 고산에는 인재가 안나.)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오름이 잇어가지고 버쳐서 주먹을 쥐고 힘을 팔을 꾸부려야 울룩불

룩헤서 힘이 나지, 뻗은 풀은 힘이 없다 이거야.(오름이 있어가지고 뻗어서 주먹을 쥐고 힘을 팔을 꾸부려야 울룩불룩해서 힘이 나지 뻗은 팔은 힘이 없다 이거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그렇게 헤서 그 신창허고 고산허고 인재싸움을 허면은 고산이 당허질 못한다는 거야.(그렇게 해서 그 신창하고 고산하고 인재싸움을 하면 고산이 당하지 못한다는 거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신창은 여기 얼칵들칵헤서 돌트멍으로 네려간 디라. 그러니 악차고 그냥 그 행정기관에서도 신창에서 많이 버쳐 잇고 고산에서는 인재가 못 나서 못 버치니까 성장허면 발로 진다는 거여.(신창은 여기 '얼칵들칵'해서 돌틈으로 내려간 데야. 그러니 악차고 그냥 그 행정기관에서도 신창에서 많이 뻗어 있고 고산에서는 인재가 못 나서 못 뻗으니까 성장하면 발로 진다는 거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신창 발로 진다는 거야. 고산이 일만 잘하고 농사꾼만 살 디다. 이 지역은 절대 이 무시를 못헤여.(신창 발로 진다는 거야. 고산이 일만 잘하고 농사꾼만 살 데다. 지역은 절대 이 무시를 못해.)

101004 @ 못헤예.(못해요.)

101004 #1 게니까 요디도 가면은 개맛, 개맛허는 것이 뭐냐허면은 개맛이 개왓, 개왓 이디선 말허는디 개왓이 아니고 바닷가에 개맛, 글자도예 개맛 포 자가 잇잖아요. 그레서 그 개맛이라고 헤서 그 이름을 다 지어 놓고 이렇게 헷는데 배에는 돗대가 잇어야 돗, 초석을 달아가지고 바람타고 그냥 고기 잡으레도 다닌다고 헤서 그 거욱대 동산이라고 헤서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잇으니까, 나무가 부러지면은 아, 이 동네서 누게 사람 아까운 사람이 죽겟다. 이렇게 헷는디 요지금은 또 그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그냥 전주가 그냥 막 카고 잇으니까 이거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배 뭐 모냥으로 전주대가 많이 삿다고. 이 큰 나무가 우리 청수에는 쓰러지면은, 대풍에 쓰러지면은 허, 누가 갈라고 허느냐? 이렇게 헤서 배가 활동을 못 허니까 선장이 말하자면 죽어버리는 형태로 말하자면 죽어 부는 형태라 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에예.(그러니까 요기도 가면 '개맛', '개맛'하는 것이 뭐냐하면 '개맛', '개왓', '개왓' 여기선 말하는데 '개왓'이 아니고 바닷가에 '개맛', 글자도요 '개맛' 포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맛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다 지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배에는 돛대가 있어야 돛, 초석을 달아가지고 바람타고 그냥 고기 잡으러도 다닌다고 해서 그 거욱대 동산이라고 해서 그 동산에 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부러지면 아, 이 동네서 누구 사람 아까운 사람이 죽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지금은 또 그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그냥 전수가 그냥 막 타고 있으니까 이거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배 뭐 모양으로 전주대가 많이 섰다고. 이 큰 나무가 우리 청수에는 쓰러지면, 대풍에 쓰러지면 허, 누가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배가 활동을 못 하니까 선장이 말하자면 죽어버리는 형태로 말하자면 죽어 버리는 형태라 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요.)

101004 @ 아아, 재밋다예? 그런 것들이예. 생각을예. 자연에 모든 지경과 이런 걸 생각허고 또 모든 사람도 그 속에 잇으니까 사는 것이니까예. 여기 냇창도 잇수과?(아아, 재미있네요? 그런 것들이요. 생각을요. 자연에 모든 지경과 이런 걸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도 그 속에 있으니까 사는 것이니까요 여기 내창도 있습니까?)

101004 #1 예?(예?)

101004 @ 냇창, 내, 내, 물 흐르는 내?(내창, 내, 내, 물 흐르는 내?)

101004 #1 그런 것이 없어. 요지금은 어데 물 나는 데도 그런 이 보람 잇는 관광지가 없거든. 땅이 죽엇어. 이 서촌은 큰 내가 전혀 없단 말이야. 생수가 엇고.(그런 것이 없어. 요지금은 어디 물 나는 데도 그런 이 보람 있는 관광지가 없거든. 땅이 죽었어. 이 서촌은 큰 내가 전혀 없단 말이야. 생수가 없고.)

101004 @ 어.(어.)

101004 #1 그러니까 생수가 많이 흐르는 끗에 관광객도 그냥 와서 구경도 허고 발 듕강 시원도 허고, 낭그늘에서 뭐 먹기도 허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인공으로만 만들엇는디 설록차라던지 유리공원이라던지 뭐 이렇게 인공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이 구경거리 만들어.(그러니까 생수가 많이 흐르는 끝에 관광객도 그냥 와서 구경도 하고 발 담가서 시원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인공으로만 만들었는데 설록차라든지 유리공원이라든지 인공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이 구경거리 만들어.)

101004 @ 저지마을 발달헤 가민 청수마을도 이제 같이 발달뒈가는 거 아니꽈?(저지마을 발달해 가면 청수마을도 이제 같이 발달되가는 거 아닙니까?)

101004 #1 아, 여기는 이 알로 조수나 이제 한원더레 가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 관광버스 아니 뎅기는 이디가 땅값만 아니 올라가.(아, 여기는 이 아래로 조수나 이제 한원에 가면 그런 말을 하거든. 관광버스 안 다니는 여기가 땅값이 안 올라가.)

101004 @ 청수가?(청수가?)

101004 #1 청수도 여기에 뭐 헤서 이 윗질로만 이렇게 관광버스가 좀 다니긴 허지만은 여기에 뭐 옴탕하고[18] 뭐헤서 발전이 없어.(청수도 여기에 뭐 해서 이 윗길로만 이렇게 관광버스가 좀 다니긴 하지만 여기에 뭐 '옴탕하고' 뭐해서 발전이 없어.)

101004 @ 저지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헤 지면서.(저지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해 지면서.)

101004 #1 아, 저지는 인구도 많고 에, 저지는 호수도 삼백호가 넘거든. 삼백호가 넘고 이딘 상 동네, 우리 동네 백오십 호 달랑달랑허거든. 허니까 젊은 사람덜 나가버리니까 잇덴 헤도 늙은이덜만 잇어.(아, 저지는 인구도 많고 에, 저지는 호수도 삼백호가 넘거든. 삼백호가 넘고 여긴 상 동네, 우리 동네 백오십 호 달랑달랑하거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나가버리니까 있다고 해도 늙은이만 있어.)

18) '옴탕ᄒᆞ다'는 가운데가 둥글게 파여 깊숙이 오목하다는 뜻이다.

101004 @ 경헤도.(그래도.)

101004 #1 지금 청수에는 빈집이 많아요.(지금 청수에는 빈집이 많아요.)

101004 @ 아우 정말로?(정말로?)

101004 #1 빈집이 많아.(빈집이 많아.)

101004 @ 아우 정말로?(아우 정말로?)

101004 #1 앞으로도 빈집이 계속, 드러세 나오기 마련이라.(앞으로도 빈집이 계속, 계속 나오기 마련이야.)

101004 @ 육지에서 계속 왐수게. 게난.(육지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1004 #1 저지는 젊은이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그냥 식당도 많고 허지. 우리 동네는 식당 하나 없지. 점빵, 편의점 헐 사람이 없어. 서귀포 사람이 허고 잇어요. 여기. 이 동네 헐 사람이 없어. 식당이 ᄒᆞ나 잇는가. 저 편의점 ᄒᆞ나 헐 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문저 헌 사람은 우리 처남아덜 하나 허당 그만 뭘 허고 그 뭐 허젠 저 집지어 놔가지고 저짓아이가 와서 벌어 갓어.(저지는 젊은이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그냥 식당도 많고 하지. 우리 동네는 식당 하나 없지. 상점, 편의점할 사람이 없어. 서귀포 사람이 하고 있어요. 여기. 이 동네 할 사람 없어. 식당이 하나 있는가. 저 편의점 하나 할 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먼저 한 사람은 우리 처남아들 하나 하다가 그만 뭘 하고 그 뭐 하려고 저 집지어 놔가지고 저지아이가 와서 벌어 갔어.)

101004 @ 근디 이 앞으로 나빠지진 안 헙니다.(그런데 이 앞으로 나빠지진 않습니다.)

101004 #1 아, 우리 동네는 발전이 없어.(아, 우리 동네는 발전이 없어.)

101004 @ 지금.(지금)

101004 #1 저쪽, 저 이제 이장도 저쪽 동넨디 거기엔 젊은이도 많고 이 멘 배 바끗디 사는 사람은 정신을 출리는데 이 안에는 안 뒈어. 나는 안 뒌다고 봐져. 용새를 보는 데는. 정시, 그 저 지리 보는 사람덜이 난 그걸 읽는데 청수는 쌍용이 많이 들어 갓어. 왜 쌍용이 많이 들어 삿냐면 이 여기 옛날 집을 지성 ᄒᆞᆫ 사람썩 살아왓어. ᄒᆞ낌 살다가 떠나버리고 이거 사람 안 부뜨는 디. 예. 손손형이 쌍용이고, 계춘형이 쌍용이고, 인감용이 쌍용인데 이걸로 딱 헤노니까 지나가는 사람 뭐 허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하! 이 동네서 좀 난 사람은 단명하겟다. 이런 말을 헤두고 갓다고 헤여.(저쪽, 저 이제 이장도 저쪽 동넨데 거기엔 젊은이도 많고 이 멘 배 바깥에 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데 이 안에는 안 돼. 나는 안 된다고 보여. 용새를 품은 데는. 정시, 그 저 지리 보는 사람들이 난 그걸 읽는데 청수는 쌍용이 많이 들어갔어. 왜 쌍용이 많이 들어서냐면 이 여기 옛날 집을 지어서 한 사람씩 살아왔어. 조금 살다가 떠나버리고 여기 사람 안 붙는데. 예. 손손형이 쌍용이고, 계춘형이 쌍용이고, 인감용이 쌍용인데 이걸로 딱 해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하! 이 동네서 좀 난 사람은 단명하겠다. 이런 말을 해두고 갔다고 해.)

101004 @ 아.(아.)

101004 #1 거 왜 그러냐면 여기 예배당이 잇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예배당이 있어.)

101004 @ 아.(아.)

101004 #1 예배당이 이거 높은 딘디다가 또 이렇게 헤노니까 자리 여기서 대가리 탁 씌와노니까 이디 사람이 몰려. 천주교가 이 저 개축명인디 산돗 개축산하면 절제 손 헌다고 헷어. 씨가 끊어진다 헤서 산돗이 그런 디 잇으민. 높으니까 딱 헤노니까 이디도 일로 용새가 좋지 안은디 고층건물에 딱 헤노니까 콱 눌루니까 사람 ᄀᆞ트민은 영 일어사젠 허면은 센 놈이 딱 어디 일어사느냐고 데겡이 꽉 누르떠 불어서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 동네에도 쓸 만헌 많이 죽겟다. 겐디 근래에도 쓸만헌 놈이 여러 개 죽어불엇어.(예배당이 이거 높은 곳인 데다가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리 여기서 대가리 탁 씌워 버리니까 여기 사람이 몰려. 천주교가 이 저 개축명인데 산돼지 개축산하면 절대 손 한다고 했어. 씨가 끊어진다 해서 산돼지가 그런 데 있으면. 높으니까 딱 해버리니까 여기도 일로 용새가 좋지 않은데 고층건물에 딱 해버리니까 콱 누르니까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센 놈이 딱 어디 일어서냐고 머리 꽉 눌러 버려서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아! 이 동네에도 쓸 만한 많이 죽겠다. 그런데 근래에도 쓸 만한 놈이 여러 개 죽어버렸어.)

101004 @ 젊은 사람이요. 아우 어떡해?(젊은 사람이요. 아우 어떻게 해?)

101004 #1 예. 우리 아들도 죽어버렷어.(예. 우리 아들도 죽어버렸어.)

101004 @ 아.(아.)

101004 #1 이장, 요번에 이번 이장, 믄저 이장, 그 믄저에 이장 지냇어. 우리집 아들도.(이장, 요번에 이번 이장, 먼저 이장, 그 먼저에 이장 지냈어. 우리집 아들도.)

101004 @ 아팡마씨? 어떵?(아팠어요? 어떻게?)

101004 #1 시청에도 근무헤나고 군청에도 근무허당 시에서 살단 이디 오란에 이장헤 가지고 황황 뎅기다가 춤 이름나게 다녓어. 다니다가 거 저 우○○, 죽으니까 우○○ 지사가 조문까지 와갓어. 제주시장도 와가고, 뭐 아는 디가 많아서 그냥 황황 다녀낫는데.(시청에도 근무했었고 군청에도 근무하다가 시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장해 가지고 황황 다니다가 참 이름나게 다녔어. 다니다가 거 저 우○○, 죽으니까 우○○ 지사가 조문까지 와갔어. 제주시장도 와갔고, 뭐 아는 데가 많아서 그냥 황황 다녔었는데.)

101004 @ 큰 아덜마씨?(큰 아들이요?)

101004 #1 예.(예.)

101004 @ 어떵허단?(어떻게 하다가?)

101004 #1 살아시민 예순 둘인데 나머지 아덜덜은 아덜이 다섯 형젠디 으 뭐 말젯아덜은 암으로 금년 ᄉᆞ월 ᄉᆞ일 날 죽어버리고, 아덜 형젠 죽어 불고, 이제 아덜

싯 잇는데 두 번째 아덜은 관광버스 헨 뭘 허고 네 번째 아덜은 멩문대 나와 가지고 삼성전자연구실에 잇당 지금 미국 발령 나가지고.(살았으면 예순 둘인데 나머지 아들들은 아들이 다섯 형제인데 으 뭐 셋째아들은 암으로 금년 사월 사일 날 죽어 버리고, 아들 형젠 죽어 버리고 이제 아들 셋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은 관광버스 해서 뭘 하고 네 번째 아들은 명문대 나와 가지고 삼성전자연구실에 있다가 지금 미국 발령 나가지고.)

101004 @ 아이고야.(아이고야.)

101004 #1 미국 가가지고. 흔 삼년 이제 근무를 허는디 가족ᄁᆞ장 다 가가지고 강남에 집 산 네불고 미국도 에, 이디서 미국 강 집 사불엇수다.(미국 가가지고. 한 삼년 이제 근무를 하는데 가족까지 다 가가지고 강남에 집 사서 내버리고 미국도 에, 여기서 미국 가서 집 사버렸습니다.)

101004 @ 아이고, 인물 나와신게. 청수도.(아이고, 인물 나왔네요. 청수도.)

101004 #1 나도 한참은 아덜덜 죽기 전에는 남부러워 헐 것도 읏고, 뭐 아이덜 어느 정도 잘 사니까 멩절 때 같은 때 이런 때에는 손자덜토 공무원이 으러 개 잇고 허니까 팍팍 들어와 가지고 봉투 주면은 에 나는 너네안티 봉투 받아서 뭘 허느냐고 허, 우리 봉급 탐수게. 허멍덜 아, 사기가 죽지 안 허더니, 이 자식덜이 팡팡 죽어가니까. 사기가 없어. 예. 나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나가 죽어서 절 받을 놈이 으숫이 죽어 버렷어.(나도 한참은 아들들 죽기 전에는 남부러워 할 것도 없고, 뭐 아이들 어느 정도 잘 사니까 명절 때 같은 때 이런 때에는 손자들도 공무원이 여러 개 있고 하니까 팍팍 들어와 가지고 봉투 주면 에 나는 너네한테 봉투 받아서 뭘 하느냐고 허, 우리 봉급 탑니다. 하면서들 아, 사기가 죽지 안하더니, 이 자식들이 팡팡 죽어가니까. 사기가 없어. 예.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서 절 받을 놈이 여섯이 죽어 버렸어.)

101004 @ 그건 아니.(그건 아니.)

101004 #1 우리 아시도 일흔 싯에 죽어불고 죽건 디가 이거 흔 이제 살아시민 여든 둘인데.(우리 아우도 일흔 셋에 죽어버리고 죽은 지가 이거 한 이제 살았으면 여든 둘인데.)

101004 @ 의지가 뒈는데예.(의지가 되는데요.)

101004 #1 아, 강원도 원주 사는데 그 놈도 황황허는 놈인데 한문은 그놈 천재랏서. 그놈 말젯아덜은 뚤이 싀성제, 그 뚤 덕분에 그 놈 살카부덴 허니까 문 죽어불엇어. 국가영제시험에 합격헤 가지고 중흑교 문 헤서 대학, 예술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외국 강 일등 먹엉 오대. 독일 강 일등 먹엉 오고, 유럽 강 일등 먹엉 오고, 이번에 또 방송 나오렌 허던데 문지영이라고 야이가 여수서 난 아인데.(아, 강원도 원주 사는데 그 놈도 황황하는 놈인데 한문은 그놈 천재였어. 그놈 셋째아들은 딸이 삼형제, 그 딸 덕분에 그 놈 살까보다 하니까 모두 죽어버렸어. 국가영제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중학교 모두 해서 대학, 예술대학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어디 외국 가서 일등 먹어서 오대. 독일 가서 일등 먹어서 오고, 유럽 가서

일등 먹어서 오고, 이번에 또 방송 나오라고 하던데 문지영이라고 얘가 여수서 난 아인데.)

101004 @ 참, 게도 인물도 나고 근데 인명은 재천이라부난 어떵헙니까?(참, 그래도 인물도 나고 근데 인명은 재천이라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101004 #1 아이고.(아이고.)

101004 @ 얘기 듣단 보믄 젊은 때도 또.(얘기 듣다가 보면 젊은 때도 또.)

101004 #1 내가 초년을 고생허니까 좀 괜찮을까 헤서 막 고개를 들르단 보니까 팍 까지는 거라. 아이고. 나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낫는데.(내가 초년을 고생하니까 좀 괜찮을까 해서 막 고개를 들다가 보니까 팍 까지는 거야. 에이고. 나도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었었는데.)

101004 @ 열심히 사니까 또.(열심히 사니까 또.)

101004 #1 예. 그러더니 이자 기가 탁 죽고 말을 못 허고, 귀 막고, 이빨 다 헐고 너무 오레 살앗서.(예. 그러더니 이제 기가 탁 죽고 말을 못 하고, 귀 막고, 이빨 다 헐고 너무 오래 살았어.)

101004 @ 에, 아니우다게. 요즘은 백세시대렌 헴수게.(에, 아닙니다. 요즘은 백세시대라고 합니다.)

101004 #1 그래. 그런 게 잇거든. 다남자직다구허곡 부직다수허고 수직다육이니라. 옛날 글법에 그렇게 뒈 잇어. 다남자직다구헌 건 뭐냐 허면 아덜이 만헌 집은 옛날에는 농사니까 흔 사람 관리허단 거를.(그래. 그런 게 있거든. 다남자직다구하고 부직다수하고 수직다육이니라. 옛날 글법에 그렇게 돼 있어. 다남자직다구한 건 뭐냐 하면 아들이 많은 집이 옛날에는 농사니까 한 사람 관리하던 거를.)

101004 @ 같이 하니까.(같이 하니까.)

101004 #1 여러 명이 갈아지면은 놈의 밧 벵작을 헤야 뒈.(여러 명 갈아지면 남의 밭 병작을 해야 돼.)

101004 @ 응.(응.)

101004 #1 그러니 이놈은 저놈만 도와주는 거 닮고 저놈은 이놈만 도와주는 걸 닮고 허다가 봐도 몸은 들어아지고 고생만 허다가 아덜 많은 게 걱정이라. 부직다수 허여. 부제 헌 집은 일이 많아. 수직 다육 그런 게 잇어. 오레 살단보니 아덜도 죽고 메누리도 죽고 요 산양가면은 그런 말 허는 이가 잇더라고. 우리 동네 식게 흔번 안 헤본 하르방이 셔. 거 어떵멩키로 증손ᄁᆞ장 죽어불엇어. 고손이 상젤드니까 옛날이니까 고손은 식게를 아니 허는 ᄌᆞ손이거든. 제ᄉᆞ를 안모시는 뭐신데 옛날은 삼년상 허니까 그걸로 끗헤서 그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라. 오레 살아서. 나이 든 사람안티 오래오래 건강헤 줍서. 아, 우리 육촌아시 문창래, 농축산국장 허단 저 퉤직헤서, 뭐 형님 오래 삽서! 오래 삽서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오레 살아선 안뒈어. 우리 동네도 할망덜 구십 넘으니까 늙은이 사는 디 ᄌᆞ식 오레 사는 거 그게 욕이라 하이고.(그러니 이놈은 저놈만 도와주는 걸 닮고 저놈은 이놈만 도와주는 거 닮고 하다가 봐도 몸은 들어앉고 고생만 하다가 아들 많은 게 걱정이야. 부직다수 해. 부

자 한 집은 일이 많아. 수직 다육 그런 게 있어. 오래 살다보니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요 산양가면 그런 말 하는 이가 있더라고. 우리 동네 제사 한번 안 해본 할아버지가 있어. 거 어떻게 된 건지 증손까지 죽어버렸어. 고손이 상제를 드니까 옛날이니까 고손은 제사를 아니 하는 자손이거든. 제사를 안 모시는 뭐인데 옛날은 삼년상 하니까 그걸로 끝 해서 그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라. 오래 살아서. 나이 든 사람한테 오래오래 건강해 줍서. 아, 우리 육촌아우 문창래, 농축산국장 하다가 저 퇴직해서, 뭐 형님 오래 사세요! 오래사세요!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오래 살아선 안 돼. 우리 동네도 할머니들 구십 넘으니까 늙은이 사는 데 자식 오래 사는 거 그게 욕이라. 하이고.)

101004 @ 아니우다게. 그레도.(아닙니다. 그래도.)

101004 #1 빨리 죽어야 뒈. 빨리 가는 사람은 복이 좋고, 우리 조카벌 우리 육촌 형님 아덜, 일등 복 좋아. 큰 아덜은.(빨리 죽어야 돼. 빨리 가는 사람은 복이 좋고, 우리 조카뻘 우리 육촌 형님 아들, 일등 복 좋아. 큰 아들은.)

101004 @ 좋은 것만 보고 가니까.(좋은 것만 보고 가니까.)

101004 #1 큰 아덜은 으든셋에 죽엇는디 큰 아덜은 혜군 대령으로 회사 나와가지고 잇고, 샛아덜은 고등흑교 선생허고.(큰 아들은 여든셋에 죽었는데 큰 아들은 해군 대령으로 회사 나와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하고.)

101004 @ 자식이 중요하다예.(자식이 중요하네요.)

101004 #1 뭐 헤서 육남맨디 부모 귀히 헤서 자기 대는 공부 잘헤서 직장 나오고 돈 팍팍 부모 주고 허다가 여든 싯에 돌아가니까 궂인 꼴을 전혀 안 보고 돌아갓는데 부인도 동갑이라. 동갑인데 아흔 둘인데 몽뚱이 지프고 여기선 자식이 뭐 필요 잇나? 죽는 시간도 모르게 뒈 잇어. 오레 살앙, 재게 간 사람은 복 좋고, 나도 이거 오래 살다보니까 이거 아이고, 아이고.(뭐 해서 육남맨데 부모 귀히 해서 자기 대는 공부 잘해서 직장 나오고 돈 팍팍 부모 주고 하다가 여든셋에 돌아가니까 궂은 꼴을 전혀 안 보고 돌아갔는데 부인도 동갑이야. 동갑인데 아흔 둘인데 몽둥이 짚고 여기서 자식이 뭐 필요 있나? 죽는 시간도 모르게 돼 있어. 오래 살아서 재우 간 사람은 복 좋고, 나도 이거 오래 살다보니까 이거 아이고, 아이고.)

101004 @ 게도 건강하게 좋은 사람덜하고 아프지만 말앙게.(그래도 건강하게 좋은 사람들하고 아프지만 말아서.)

101004 #1 밝은 세상 나는데 고셍바가지라고. 옛 할망덜이 불 담으레 온 시상이라고.(밝은 세상 나는데 고생바가지라고. 옛 할머니들이 불 담으러 온 세상이라고.)

101004 @ 불 담으레 온 세상이라고예.(불 담으러 온 세상이라고요.)

101004 #1 예. 옛날에는 이 저 불이.(예. 옛날에는 이 저 불이.)

101004 @ 불씨.(불씨.)

101004 #1 불이 어려우니까.(불이 어려우니까.)

101004 @ 어려우니까.(어려우니까.)

101004 #1 항 벌러진 거 장테 벌러진 거.(항아리 깨진 거 장태 깨진 거.)

101004 @ 끄지 말렌.(끄지 말라고.)

101004 #1 읖이서 불 솜는 것 닮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불, 그것에 담아 가지고 와서 허민 불어서 밥 헹 먹엇거든. 게서 옛 어른 말이 불 담으레 온 인셍이라고.(옆에서 불 때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불, 그것에 담아 가지고 와서 하면 불어서 밥해서 먹었거든. 게서 옛 어른 말이 불 담으러 온 인생이라고.)

101004 #1 밥을 헤 먹거든. 불 담으레 온 인셍.(밥을 해 먹거든. 불 담으러 온 인생.)

101004 @ 불 담으레? 불 솜으레?(불 담으러? 불 때러?)

101004 #1 예?(예?)

101004 @ 불 솜으레? 불 담으레?(불 때러? 불 담으러?)

101004 #1 불 담으레.(불 담으러.)

101004 @ 담으레.(담으러.)

101004 #1 담앙 저 집이 강 불을 담앙 가사 집이 강 불 살랑 밥을 헤 먹엇거든. 불 담으레 온 인셍.(담아서 저 집에 가서 불을 담아서 가야 집에 가서 불 때서 밥을 해 먹었거든. 불 담으러 온 인생.)

101004 @ 카.(카.)

101004 #1 사금파리 가지고.(사금파리 가지고.)

101004 @ 아.(아.)

101004 @ 게난 어쨋튼 여기에 오름 내 바위, 굴 이런 거 들어봣수과? 오름, 내창, 바위, 굴?(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오름 내 바위, 굴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오름, 내창, 바위, 굴?)

101004 #3 으, 그 우리, 우리가 그때 그 이 저 국민혹교 시절입주. 국민학교시절이 넘어가지고 중학교시절. 이 바로 이 가마오름이라고 가마오름.(응, 그 우리, 우리가 그때 그 이 저 국민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시절이 넘어가지고 중학교시절. 이 바로 이 가마오름이라고. 가마오름.)

101004 @ 예에. 청수리 꺼로구나.(예. 청수리 거로구나.)

101004 #3 그게 일본군 그 무슨 중대본분가 연대본분가 아주 크게 헤놧수다. 겐디 이 가마오름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그게 일본군 그 무슨 중대본분가 연대본분가 아주 크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오름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

101004 @ 예.(예.)

101004 #3 가마오름에 그 굴이 가마오름이 저거 완전히 쑥 구린[19] 딥니다. 저거. 굴로 헤가지고 굴을 어떻게 헤서 파들어 갓는지 모르주만은 우리가 그 굴을 여러 번 들어가십주.(가마오름에 그 굴이 가마오름이 저거 완전히 속 구린 뎁니다. 저거. 굴로 해가지고 굴을 어떻게 헤서 파들어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굴을 여러 번 들어갔었죠.)

19) '구리다'는 속이 들떠서 비어 있다는 뜻이다.

101004 @ 쑥 구린 굴이란 거는 곶자왈이란 거꽈?(속 구린 굴이란 거는 곶자왈이란 겁니까?)

101004 #3 아니, 아니. 속이 구렷다는 거라마씨.(아니, 아니. 속이 구렸다는 거예요.)

101004 @ 아아, 속이.(아아, 속이.)

101004 #3 굴 파부니까. 일로 뚤르고, 절로 뚤르고, 완전 다 파부니까.(굴 파버리니까. 이리로 뚫고 저리로 뚫고, 완전 다 파버리니까.)

101004 @ 쏙이 비어잇다는 말이꽈?(속이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101004 #3 응, 비어잇다는.(응, 비어있다는.)

101004 @ 쏙이 굴엇다?(속이 굴었다?)

101004 #3 쏙 구린 오롬.(속 '구린' 오름.)

101004 @ 속이 구렷다.(속이 '구렸다.')

101004 #3 응. 가마 오름이 쏙이 구린 오롬이라마씨.(응. 가마 오름이 속이 '구린' 오름이에요.)

101004 @ 속이 구린 오름.(속이 '구린' 오름.)

101004 #3 보니까 완전히 그 굴 파부니까 공중에 떠 잇는.(보니까 완전히 그 굴 파버리니까 공중에 떠 있는.)

101004 @ 아아.(아아.)

101004 #3 예. 오름입주. 저게 저 오름에 우리가 굴 탐험허레 들어 가가지고 춤 저 굴 소곱이는 박쥐란게 잇어양.(예. 오름이지요. 저게 저 오름에 우리가 굴 탐험하러 들어가 가지고 참 저 굴 속에는 박쥐란 게 있어요.)

101004 @ 예.(예.)

101004 #3 박쥐를 그 저 밤눈 어두운 사람이 그걸 먹넨 헤가지고.(박쥐를 그 저 밤눈 어두운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101004 @ 응.(응.)

101004 #3 그것도 우리 심어다가 츰, 누게 그 주문헌 사람 주기로 허고 저 무싱 걸 헷는디 흔번은 거기 들어갓다가 그거 필요헌 사람 심으레 들어 갓는디 우리랑 맞딱뜨려서예. 게니까 그 사람은 우리 봔 놀레고 우리는 그 사람 봔 놀레고.(그것도 우리 잡았다가 참, 누가 그 주문한 사람 주기로 하고 저 무엇 했는데 한번은 거기 들어갔다가 그거 필요한 사람 잡으러 들어갔는데 우리랑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봔 놀래고 우리는 그 사람 봔 놀래고.)

101004 @ 아아, 허허.(아아, 허허.)

101004 #3 이거는 게니까 저 굴에는 만약에 일로 이 길로 들어갓으면 이 길로 나오지를 못허여.(이거는 그러니까 저 굴에는 만약에 일로 이 길로 들어갔으면 이 길로 나오지를 못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3 절대로 이 들어간 길로 나오질 못허여. 아무리 이녁이 뭐 표시허멍

가고 무싱 거 헤도 그 길로 나오질 못헤여. 어디 저 뒤틀로 강 저 수정동짝으로 나오던가 경 안허민 이짝 지버흘, 너버흘짝으로 나오던가. 저 그 길로 영 나오질 못허는 굴이라 저디가. 엄청난 굴이라.(절대로 이 들어간 길로 나오질 못해. 아무리 이녁이 뭐 표시하면서 가고 뭐 해도 그 길로 나오질 못해. 어디 저 뒤로 가서 저 수정동쪽으로 나오든가 그렇게 안하면 이짝 '지버흘', '너버흘'쪽으로 나오든가. 저 그 길로 영 나오질 못하는 굴이라 저기가. 엄청난 굴이라.)

101004 @ 몇 번 들어가봅데가? 어릴 때 많이?(몇 번 들어 가봤습니까? 어릴 때 많이?)

101004 #3 저기 우리 혼 너뎃 번.(저기 우리 한 네, 다섯 번.)

101004 @ 막 겁나기도 헷겟다예? 끗이 없으면.(막 겁나기도 했겠네요? 끝이 없으면.)

101004 #3 저기가 우리 소 길루면서 저 소도 저기 올라강 멕입주게. 겐디 저기 소도 으라 개 잡아먹은 오름이우다 저.(저기가 우리 소 기르면서 저 소도 저기 올라가서 먹이지. 그런데 저기 소도 여러 개 잡아먹은 오름입니다 저.)

101004 @ 아아, 잡아먹엇다는 건 떨어젼마씨? 낭떠러지에.(아, 잡아먹었다는 건 떨어졌어요? 낭떠러지에.)

101004 #3 군인덜이 거기 숨으면서 보초사레 나오면은 요렇게 똥그락, 똥그락ᄒᆞ게 사람 하나 들어 강 앚앙 그디 쉐가 들어가게 뒈면은 소가 톡 빠지게 뒈면은.(군인덜이 거기 숨으면서 보초사레 나오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사람 하나 들어가서 앉아서 거기 소가 들어가게 되면 소가 톡 빠지게 되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3 ᄐᆞ가리 톡 빠졍 나오지 못허게.(턱 톡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101004 @ 아아.(아아.)

101004 #3 동글레기여서마씨.(동그라미였어요.)

101004 @ 그게 덫이꽈? 똥그락 똥그락헌 건 영 보초 사는 거?(그게 덫입니까? 동글, 동그란 건 영 보초 사는 거?)

101004 #3 예. 사람 보초 사레 들어가는 거. 응. 겐디 그 놈의 굴에 우리가 그거는 뭐 저 바낏디서 그자 그 사람들광 영 앚앙 허는디 소는 들어갓다허게 뒈면은 나오지 못헹 죽어. 게난 그딘 소먹이 풀이 나기 때문에, 풀이 나기 때문에 풀 뜯어먹젠허당 나오지 못헹 죽고 그 풀 뜯어먹젠허당 자뿌라지는 거마씨. 소도 으라개 죽엇수다. 저디서 그믄 여러 개 죽으민 그거 그냥 추렴 헹 먹어 불엇겟다예?(예. 사람 보초 사러 들어가는 거. 응. 그런데 그 놈의 굴에 우리가 그거는 뭐 저 바깥에서 그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소는 들어갔다 하게 되면 나오지 못해서 죽어. 그러니까 거긴 소먹이 풀이 나기 때문에, 풀이 나기 때문에 풀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나오지 못해서 죽고 그 풀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소도 여러 개 죽었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여러 개 죽으면 그거 그냥 '추렴' 해서 먹어버렸겠네요?)

101004 #3 그디서 추렴 츰 그디서 송아기 죽으민 강 덜 추렴헹 아이고 옛날에사 고기옌 허민예 아, 요세는 쪼금 우려ᄒᆞ는 게 고긴디 경 옛날 어른덜 산 셍각허면은.(거기서 추렴, 참 거기서 송애기 죽으면 가서 덜 추렴해서 아이고 옛날에야 고기라고 하면요 아, 요새는 쪼금 우려하는 게 고긴데 경 옛날 어른들 산 생각하면.)

101004 @ 겐 박쥐 잡으믄 아이들이 멧 살 때마씨? 거 무섭지 안헤마씨? 눈도 자기가 빼고? 그냥 풀아?(그래서 박쥐 잡으면 아이들이 몇 살 때요? 거 무섭지 않아요? 눈도 자기가 빼고? 그냥 팔아?)

101004 #3 물어마씨. 물어.(물어요. 물어.)

101004 @ 아, 박쥐가 이빨 잇어마씨?(아, 박쥐가 이빨 있어요?)

101004 #3 예. 이빨이 잇어. 물어. 사람을 무는데 그거를 헹 왕은에 허게 뒈면은 밤눈 어두운 그 사람덜 헤가지고 그걸 솔앙 멕이민 존넨 헤가지고 그때 사람덜이 그걸 구허고 주문허레 뎅겨낫주.(예. 이빨이 있어. 물어. 사람을 무는데 그거를 해서 와서 하게 되면 밤눈 어두운 그 사람들 해가지고 그걸 태워서 먹이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걸 구하고 주문하러 다녔었지.)

101004 @ 먹어봣수과? 본인이.(먹어봤습니까? 본인이.)

101004 #3 아이 직접 먹어보진 안헷수다.(아니 직접 먹어보진 안했습니다.)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은 이런 저 이런?(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은 이런?)

101005 #1 마을이 즉아노니까 기관이 잇을 수 엇주기게. ᄉᆞ삼ᄉᆞ건 끗에 재건헤 올라오라서는 에, 전부 신창, 두모, 고산, 용수로 전부 이 낙천, 조수 청수, 저지 이 잔동 문딱 네려갓주기. 문딱 네려갓을 때 처음 정착허기를 우리 동네로 정착을 헷어.(마을이 작아버리니까 기관이 있을 수 없지. 사삼사건 끝에 재건해 올라와서는 전부 신창, 두모, 고산, 용수로 전부 이 낙천, 조수 청수, 저지 이 잔동 모두 내려갔지. 모두 내려갔을 때 처음 정착하기를 우리 동네로 정착을 했어.)

101005 @ 정착.(정착.)

101005 #1 예. 네모반득허게 성을 ᄉᆞ메다 높이.(네모반듯하게 성을 사 미터 높이.)

101005 @ 성 쌓앗구나예 ᄉᆞ삼 때.(성 쌓았군요 사삼 때.)

101005 #1 이렇게 헤서 열두 자 높이를 다아가지고 우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더라. 우에가 일 메다 너버기 뒈게 돌이 엄청나게 들어 가지고.(이렇게 해서 열두 자 높이를 쌓아가지고 위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다니더라. 위에가 일 미터 넓이 되게. 돌이 엄청나게 들어 가지고.)

101005 @ 흔적이 잇수과 어디? 흔적?(흔적이 있습니까? 흔적?)

101005 #1 예?(예?)

101005 @ 흔적 좀? 성터?(흔적, 성터?)

101005 #1 그 터가 거의 없어져 불어서.(그 터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

101005 @ 거의 없어져 불언? 쪼금도 안 남앗수과?(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도 안 남았습니까?)

101005 #1 예.(예.)

101007 @ 이 마을에 풍습, 어떤 풍습, 어떤 당? 뭐 여기 당 잇수과? 청수리 당 할머니들 비는 디?(이 마을에 풍습, 어떤 풍습, 어떤 당? 뭐 여기 당 있습니까? 청수리 당 할머니들 비는 데?)

101007 #1 당이라고 허는데는 저지, 할망당이라고 헤서 저지오름 저 북쪽에 할망당이라고 헤서 저 축일 당이라고 헤서.(당이라고 하는 데는 저지, '할망당'이라고 해서 저지오름 저 북쪽에 '할망당'이라고 해서 저 축일 당이라고 해서.)

101007 @ 축일당. 게믄 청수리 분도 거기 갓수과?(축일당. 그러면 청수리 분도 거기 갔습니까?)

101007 #1 청수, 저지 조수, 뭐 이 근처에 일본서도 그거 막 온다니까.(청수, 저지 조수, 뭐 이 근처에 일본에서도 그거 막 온다니까.)

101007 @ 아아, 그믄 청수 마을만에 당은 엇수과?(아아, 그러면 청수 마을에만은 당은 없습니까?)

101007 #1 마을만에는 당은 엇고.(마을에만은 당은 없고.)

101007 @ 저지 그 할망당으로 갑니까?(저지 그 '할망당'으로 갑니까?)

101007 #1 예.(예.)

101007 @ 다?(다?)

101007 #1 글로 여기서 뭐, 우리가 영 듣기에는 이 근처에서 조금 다녀난 사람은 여기에서 시집 가가지고 저 동에 강 사나 뭐허나 돈 벌어서 일본 가서도 그냥 온다고 헤. 이제는 무당이 없어지는데 저지 같은 데는 무당이 많이 잇엇는데, 조수 같은 데 잇엇는데.(거기로 여기서 뭐,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 근처에서 조금 다녔던 사람은 여기에서 시집 가가지고 저 동에 강 살거나 뭐하거나 돈 벌어서 일본 가서도 그냥 온다고 해. 이제는 무당이 없어지는데 저지 같은 데는 무당이 많이 있었는데, 조수 같은 데 있었는데.)

101007 @ 심방.(무당.)

101007 #1 응. 심방.(응. 무당.)

101007 @ 한 명도 엇수과?(한 명도 없습니까?)

101007 #1 심방이 이젠 늙어서 다 죽어 버리니까 허던 사람 고셍헤서 헐 걸로 하질 안 헤. 천헌 직업이라고 헤서 옛날도 소사허고 상놈 허던 뭣이라고 헤서 그런 후셍이.(무당이 이젠 늙어서 다 죽어 버리니까 하던 사람 고생해서 할 걸로 하질 않아.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옛날도 소사하고 상놈 하던 뭣이라고 해서 그런 후생이.)

101007 @ 저지에도 엇고마씨?(저지에도 없고요?)

101007 #1 응. 저지에도.(응. 저지에도.)

101007 @ 귀양풀이헐 때는 먼 데서 데려왐구나예?(귀양풀이할 때는 먼 데서 데려오는군요?)

101007 #1 귀양풀이 헐 때는 지금.(귀양풀이할 때는 지금.)

101007 @ 저저, 월령에 젊은 심방 잇수게.(저저, 월령에 젊은 무당 있습니다.)

101007 #1 아, 그게 아니고 이제는 불교, 이제 중.(아, 그게 아니고 이제는 불교, 이제 중.)

101007 @ 불교로, 사십구제?(불교로, 사십 구제?)

101007 #1 사십 구제 말고 구양풀이라 헤서 중이 헤여.(사십 구제 말고 구양풀이라 헤서 스님이 해.)

101007 @ 하.(하.)

101007 #1 중이 무엇을 허는데 나가 이렇게 보면은 나도 절에는 나도 불교를 다녓어. 불교를 다니다가 큰아덜이 청수 성당을 지어놓고 뭐 허길레 어떤 집에는 흔 집에 기운 파가 사 파 뭔 데가 잇어. 형제간이 많은데, 예수교, 천주교 불교, 무슨 저 무슨 교, 이렇게 헤노니까 다 그 화합이 잘 안뒈어.(스님이 무엇을 하는데 나가 이렇게 보면 나도 절에는 나도 불교를 다녔어. 불교를 다니다가 큰 아들이 청수 성당을 지어놓고 뭐 하길래 어떤 집에는 한 집에 기운 파가 사 파 된 데가 있어. 형제간이 많은데, 예수교, 천주교 불교, 무슨 저 무슨 교,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 그 화합이 잘 안 돼.)

101007 @ 동쪽에도.(동쪽에도.)

101007 #1 경사 때 다 모다지는데 불 경사 때에는 유세차 허는 거 ᄀᆞ튼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허니까 이제.(경사 때 다 모이는데 불 경사 때에는 유세차 하는 거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이제.)

101007 @ 맞수다. 동복에도.(맞수다. 동복에도.)

101007 #1 요 지금 영 보면은 불교 중덜이 그걸 뭐허니까 심방덜은 오면은 주로 인정 겁서. 허면서 허는디.(요 지금 이렇게 보면 불교 스님들이 뭐 하니까 무당들은 오며는 주로 인정 겁서. 하면서 하는데.)

101007 @ 맞아마씨.(맞아요.)

101007 #1 중이 인정 겁서 허는 말은 신도가 모르고 잇어. 내가 보니까. 나가 그 불교에서 뭐 헐 때는 좀 한문을 좀 안다고 헤서 총무 겸, 재무 겸 헤서 이걸 다 봐서 헤 보면은 집이서 굴을 때 인정 걸렌 심방덜 허는 디, 중도 허는 디 이건 도무지 이건 아니여. 게서 물으면은 모르고 잇어. 인정, 중이 심방추룩 인정 겁서 인정 겁서를 안하니까 중이 허는 소리를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잇어. 게서 자기는 열정헤서 불교에 다닌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게난 모든 게 상식 문제라.(스님이 인정 거세요 하는 말은 신도가 모르고 있어. 내가 보니까. 나가 그 불교에서 뭐 할 때는 좀 한문을 좀 안다고 해서 총무 겸, 재무 겸 해서 이걸 다 봐서 해보면 집에서 말할 때 인정 걸라고 무당들 하는 데, 스님도 하는 데 이건 도무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물으면 모르고 있어. 인정, 스님이 무당처럼 인정 거세요, 인정 거세요를 안 하니까 스님이 하는 소리를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어. 그래서 자기는 열정해서 불교에 다닌다 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게 상식 문제라.)

101007 @ 상식. 다 연관이 뒈어 이신디예. 게난 다음 번에 올 땐 삼촌 뭐 낳고

자란 과정에서부터. 청수, 어머니도 청수, 아버지도 청수였수과?.(상식.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 땐 삼촌 낳고 자란 과정에서부터. 청수, 어머니도 청수, 아버지도 청수였습니까?)

101007 #1 예. 우리 할망 이제 오래 살다보니까 뇌졸중 걸려가지고 나 사는 게 골치라.(예. 우리 할머니 이제 오래 살다보니까 뇌졸중 걸려가지고 내 사는 게 골치라.)

101007 @ 뇌출혈로 누워 잇어마씨?(뇌출혈로 누워 있어요?)

101007 #1 아니, 이제 쪼꼼 움직여 뎅기기는 허는데 잇다가 팍 쓰러지면은 뭐 또 ᄋᆞᆼ 못허고 뭘허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다가 쓰러지카봐 걱정이주. 멧 번 쓰러져나니까 뇌졸중 걸린 후에.(아니, 이제 조금 움직여 다니기는 하는데 있다가 팍 쓰러지면 뭐 또 움직이지 못하고 뭘 하니까 다니기는 다니는데 다니다가 쓰러질까봐 걱정이지. 몇 번 쓰러져나니까 뇌졸중 걸린 후에.)

101007 @ 손도 비뜰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막.(손도 비틀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막.)

101007 #1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담당교수안테 뭐 헤가지고 퉤원 당헤서 뭐 장애인증도 헤서 뭐 허곡 헷는데 요 지금은 쪼금 뭐 자기대로 밥도 먹고 영 허는디 괜찬은데.(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담당교수한테 뭐 해가지고 퇴원 당해서 뭐 장애인증도 해서 뭐 하고 했는데 요 지금은 조금 뭐 자기대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데 괜찮은데.)

101007 @ 고생헴수다예. 게난 요양원에 맡겨도 돈이 많이 들고.(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맡겨도 돈이 많이 들고.)

101007 #1 게난 뭐.(그러니까 뭐.)

101007 @ 요즘은 막 잘나가는 교수님덜도예. 며느리덜이 다 바빠 노난 다 요양원에.(요즘은 막 잘나가는 교수님들도요. 며느리들이 다 바빠 놓으니까 다 요양원에.)

101007 #1 예.(예.)

101007 @ 쪼금 뭐허믄 영 왓다갓다 출퇴근 식으로 허고.(조금 뭐하면 이렇게 왔다갔다 출퇴근 식으로 하고.)

101007 #1 게난 시상은 흘러가는 데로 사는 거지. 요지금 옛날 말하면 멍청이라. 어느 정도 허니까.(그러니까 세상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요즘 옛날 말하면 멍청이야. 어느 정도 허니까.)

101007 @ 겐디. 삼촌이 밥도 허는 거 아니지예?(그런데 삼촌이 밥도 하는 거 아니지요?)

101007 #1 나가 밥도 허고 그릇도 싯고 모든 거 허다가 요지금은 쪼금 나가 없어도 다 자기대로 어느 정도 허니까 영 나왕 놀아도 걱정이 없어.(나가 밥도 하고 그릇도 씻고 모든 거 하다가 요즘은 조금 나가 없어도 다 자기대로 어느 정도 하니까 이렇게 나와서 놀아도 걱정이 없어.)

101007 @ 언제 그 쓰러져난마씨?(언제 쓰러졌었어요?)

101007 #1 이제 여든 다숫이난 나보다 우이주게. 여든 다숫이난 이거 흔 삼 ᄉᆞ년 뒈는디.(이제 여든 다섯이니까 나보다 위지. 여든 다섯이니까 이거 한 삼, 사년 되는데.)

101007 @ 아이고야.(아이고야.)

101007 #1 너무 오래 산 탓이라.(너무 오래 산 탓이라.)

101007 @ 그건 아니라.(그건 아니라.)

101007 #1 어멍도 일흔 아홉에 가고, 웨할망도 일흔 다숫에 가곡, 우리어머니도 일흔 다숫에 가고 헷는디 여든 다숫ᄁᆞ지 뒌 게 너무 오래 살앗다는 거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병 걸리고 아들, 뚤도 죽는 거라.(어머니도 일흔아홉에 가고, 외할머니도 일흔다섯에 가고, 우리어머니도 일흔다섯에 가고 했는데 여든다섯까지 된 게 너무 오래 살았다는 거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병 걸리고 아들, 딸도 죽는 거라.)

101007 @ 집으로 찾아 가야뒈겟다예. 나와 불민 좀 불안한 거우꽈?(집으로 찾아가야 되겠네요. 나와 버리면 좀 불안한 겁니까?)

101007 #1 아니, 그것도 아니. 집이ᄁᆞ장은 알앙 뭣헤게. 그것도 상식이 잇어야.(아니, 그것도 아니. 집에까지는 알아서 뭣해. 그것도 상식이 있어야.)

101007 @ 아직 들어가지도 안헤신디. 어째튼 좋은 때도 잇고 사람 사는 게예? 경헤도 살아 잇는 게 좋은 거주마씨.(아직 들어가지도 안했는데. 어쨌든 좋은 때도 잇고 사람 사는 게요? 그렇게 해도 살아 있는 게 좋은 거지요.)

101007 #1 어후 게난 그거 인사는 경 허는 게 올은 일이라.(그거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

101007 @ 맞수다.(맞습니다.)

101007 #1 나도 우리 형수가 나이 많이 들기에 아주머니 오레 살아진 거 닮수과? 나 오레사니까 배 아픈가? 아아, 내가 말을 잘못헷구나. 하하하하하.(나도 우리 형수가 나이 많이 들기에 아주머니 나 오래 사니까 배 아픈가?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101007 @ 말이 험한 사람덜도 잇고예.(말이 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101007 #1 응.(응.)

101007 @ 다 이해 헹 넘어가사주.(다 이해해서 넘어가야지.)

101007 #1 게난 대답이 수준이라.(그러니까 대답이 수준이라.)

101007 @ 예. 대답이 수준이우다.(예. 대답이 수준입니다.)

101007 #1 아는 게 힘이라는 게 맞는 말이라.(아는 게 힘이라는 게 맞는 말이라.)

101007 @ 아, 이런 사람 사겨버리면 뒈고게. 어떵헙니까? 에유. 게믄 이런 건예. 좋은 시절 셍각허멍 살아사주예.(아, 이런 사람 사겨버리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에유. 그러면 이런 건요. 좋은 시절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101008 @ 게난 이 마을에 특산물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잇수과? 잘 나오는 거.(그러니까 이 마을에 특산물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잘 나오는 거.)

101008 #1 축산물?(축산물?)

101008 @ 특산물, 특산물? 이 마을에서 잘 나오는 거.(이 마을에서 잘 나오는 거.)

101008 #1 특산물?(특산물?)

101008 @ 예.(예.)

101008 @ 젊은 사람이 많아야 요지금 그 책도 보고 모든 거 이제 그 지도소 같은 데 거 연구헤서 발명허는 것도 보고, 뭐 헤서 뭘 허지 젊은이가 없고 이 큰 동네 앞으로 이장 헐 사람이 없어. ᄒᆞ쏠 눈 튼 건 다 나가부니까. 게서 특산물이라는 거 여기에는 제우 제일 많이 하는 게 마늘 심으는 거.(젊은 사람이 많아야 요즘 그 책도 보고 모든 거 이제 그 지도소 같은 데 거 연구해서 발명하는 것도 보고, 뭐 해서 뭘 하지 젊은이가 없고 이 큰 동네 앞으로 이장 할 사람이 없어. 조금 눈 뜬 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특산물이라는 거 여기에는 겨우 제일 많이 하는 게 마늘 심는 거.)

101008 @ 아, 저기 옛날부터 마늘이꽈? 마늘은 저기 용수 아니?(아, 저기 옛날부터 마늘입니까? 마늘은 저기 용수 아니?)

101008 #1 마늘은 옛날에는 여기에는 이 저 판매가 아니고, 이녁 먹을 것만 심엇거든 주로.(마늘은 옛날에는 여기에는 이 저 판매가 아니고, 이녁 먹을 것만 심었거든 주로.)

101008 @ 응.(응.)

101008 #1 심엇는데 근데 요 지금 시상이 밝은 세상이 뒈고.(심었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고.)

101008 @ 요즘은 마늘.(요즘은 마늘.)

101008 #1 붉은 시상이 뒈고 많이 뭐 허다가 보니까 광작들을 헤서 풀젠 허는데 마늘도 여기는 그렇게 대체로는 안허주. 이젠. 많이 시들어 불엇어서. 이제 허던 사람덜이 가버리니까 우리 이제 사람덜이 지금 보면은 우리 갑장에서 우리 밑에 사람이 팔십 멩 이상 죽엇어. 응.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특작, 연구적으로 금년에는 뭣 헤나니까 뭣 허레 예산을 짜질 못헤여. 예. 모든 이 농약같은 것덜도 어떤 뭐 세 뭐 헤영 그자 농약 ᄑᆞ는 사람안티 강 영 어떤 거 풀민 좋코? 허민 그 사람이 이런 데 강 영 봐가지고 요거헹 뿌려봅서. 요런 정도니까 이게 특작이라고 허는 건 과이 없다고 헤도 과언이 아니주. 예? 요즘 젊은 사람덜 쪼금 꽤나 허는 사람도 잇주만은 여기에는 특작으로 돈 벌어서 뭐 헌다고 허는 건 쪼금 거리가 멀고 뭐 이젠 보리 안 갈고 옛날은 감저, 고구마, 유채, 이런 거 허다가 다 설러 버리고, 보리도 설러 버리고 허니깐 이따가 요지금 콩 농사 그렇지 않으면 이제 꿰, 참꿰같은 거나 이런 거나 쪼끔 뭘 허주, 뭐 이제 감자 ᄀᆞ튼 것도 이젠 뭐 흔엇이 쪼금 허는 사람 허주만은 감자도 흔엇이 헤서 네치는 사람 얼마 안뒈고 여기 특작이라고 허는 것은

첨, 밀감베끼는, 밀감은 이건 뭐 멍청이라도 웬만허면은 헤다가 허니까 이거 뭐.(밝은 세상이 되고 많이 뭐 하다가 보니까 광작들을 헤서 팔려고 하는데 마늘도 여기는 그렇게 대체로는 안하지. 이젠. 많이 시들어 버려서. 이제 하던 사람덜이 가버리니까 우리 이제 사람덜이 지금 보면 우리 갑장에서 우리 밑에 사람이 팔십 명 이상 죽었어. 응.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특작, 연구적으로 금년에는 뭣 하니까 뭣 하라고 예산을 짜질 못해. 예. 모든 이 농약 같은 것들도 어떤 뭐에 뭐 해서 그저 농약 파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어떤 거 팔면 좋을까? 하면 사람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요거해서 뿌려보세요. 요런 정도니까 이게 특작이라고 하는 건 과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조금 깨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는 특작으로 돈 벌어서 뭐 한다고 하는 건 쪼금 거리가 멀고 뭐 이젠 보리 안 갈고 옛날은 감자, 고구마, 유채, 이런 거 하다가 다 그만 둬 버리고, 보리도 그만 둬 버리고 하니깐 이따가 요즘 콩 농사 그렇지 않으면 이제 깨, 참깨 같은 거나 이런 거나 좀 뭘 하지, 뭐 이제 감자 같은 것도 이젠 뭐 한없이 조금 하는 사람 하지만 감자도 한없이 해서 내치는 사람 얼마 안 되고 여기 특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밀감밖에는 밀감은 이건 뭐 멍청이라도 웬만하면 해다가 하니까 이거 뭐.)

101008 @ 밀감 헌다는 거지예? 쪼꼼예 여기는.(밀감 한다는 거지요? 조금요 여기는.)

101008 #1 예.(예.)

101008 @ 옛날에는 특산물 하면은 소라든가 이런 뭐 소 키운다던가.(옛날에는 특산물 하면 소라든가 이런 뭐 소 키운다든가)

101008 #1 옛날은 이 하간 게 발전이 안뒈고 고인 물 먹을 때는 그 저 쉐, 뒈야지, 돍 이거는 계란도 안 상 먹고 독도 안 상 먹고 집에서 키왕 유월 스무날은 독 잡아 먹는 날이라고 허거든. 유월 스무날 독 잡아 먹는 날이고 이제 초복 때 뒈면은 어디 뭐 개를 잡아먹으나 이제 뭐 헤서 초복 때 뭐 저 모다들엉 뒈질 잡아 먹으나 독을 잡아 먹으나 뭐헷주. 이렇게 헤서 뭐 헷주게. 무슨 옛날이사 굶엉 살앗주게.(옛날은 여러 가지가 발전이 안 되고 고인 물 먹을 때는 그 저 소, 돼지, 닭 이거는 계란도 안 사서 먹고 닭도 안 사서 먹고 집에서 키워서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이라고 하거든. 유월 스무날 닭 잡아먹는 날이고 이제 초복 때 되면 어디 개를 잡아먹나 이제 뭐 헤서 초복 때 뭐 저 모여 들어서 돼질 잡아먹나 닭을 잡아먹나 뭐 했지. 이렇게 헤서 뭐 했지. 무슨 옛날이야 굶어서 살았지.)

101008 @ 여기 특산물은 뭐라고 셍각헴수과?(여기 특산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101008 #3 여기 특산.(여기 특산.)

101008 @ 잘 나는 거.(잘 나는 거.)

101008 #3 그 옛날에는 여기 조, 보리 콩, 산듸 약간, 산듸라는 건 볍주예.(그 옛날에는 여기 조, 보리 콩, 밭벼 약간, 밭벼라는 건 벼지요.)

101008 @ 예.(예.)

101008 #3 밭벼. 그거는 약간, 요렇게 주로 그게 무신 거에다가 이 어 이 나무를 하기 시작하건 디는 하기 시작, 흔 ᄉᆞ십년.(밭벼. 그거는 약간, 요렇게 주로 그게 무엇에다가 이 어 이 나무를 하기 시작하기는 하기 시작 한 사십년.)

101008 @ 나무라는 건 건 감귤?(나무라는 건 건 감귤?)

101008 #3 감귤. 감귤 시작은 그자 한 ᄉᆞ십년부터 시작하기 시작 헨 지금 이제 막 이제 성목덜 뒈곡 그추룩 헤노니깐 그게 성목이 뒈가지고 살기 시작 하니깐 이 청수도 옛말 ᄀᆞᆯ으멍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가 뒈십주.(감귤. 감귤 시작은 그저 한 사십년부터 시작하기 시작 헨 지금 이제 막 이제 성목들 되고 그처럼 하니깐 그게 성목이 되가지고 살기 시작 하니깐 이 청수도 옛말 말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가 됐었죠.)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 하면?(이 마을의 자랑거리 하면?)

101009 #1 자랑거리 할 만한 게 없어.(자랑거리 할 만한 게 없어.)

101009 @ 게도 자랑거리가 잇지 않을 건가예?(그래도 자랑거리가 있지 않을 건가요?)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잇으면 말씀혜 주십시오?(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9 #3 이 마을의 자랑거리라면은 보통 아무것도 아닙주. 그자 순하고 이 청수사람덜이 이 뭐 한경 사람덜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뎅기면서 나도 저 동촌으로 저 조천이다 어디 저펜더레 가봣는디 거기 사람덜허고 이 서촌사람들이 그 마음이 틀리고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헷습니다. 그 이 서촌은 워낙 곡식이 찰지고 이 밥맛이 좋아마씨예. 여기 보리나 조나 하드레도 이거를 헤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서귀포 가나 경 안 허면은 저 동더레는 이 밥을 먹어보지 못허고 서귀포러레는 거 뭐냐 거 저 감귤, 요 농사덜을 아주 미릇부터 허기 시작하니깐 거기는 가게 뒈면 그 이디 보릴 사먹엇는데 이 서촌사람덜이 저 동촌에 강 오면은 무슨 말을 허느냐면은 조천관이라고 조천, 저 조천 그 근방이 뭡주예. 거기 가면은 끅입도 맛이 좋다. 풀도 맛이, 거기는.(이 마을의 자랑거리라면 보통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순하고 이 청수사람들이 이 뭐 한경 사람들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다니면서 나도 저 동촌으로 저 조천이다 어디 저편에 가봤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이 서촌사람들이 그 마음이 틀리고 우리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서촌은 워낙 곡식이 차지고 이 밥맛이 좋아요. 여기 보리나 조나 하더라도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서귀포 가나 그렇지 안하면 저 동쪽에는 이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서귀포에는 거 뭐냐 거 저 감귤, 요 농사들을 아주 미리부터 하기 시작하니깐 거기는 가게 되면 그 여기 보릴 사먹었는데 이 서촌사람들이 저 동촌에 가서 오면 무슨 말을 하느냐며는 조천관이라고 조천, 저 조천 그 근방이 되죠. 거기 가면 칡잎도 맛이 좋다. 풀도 맛이, 거기는.)

101009 @ 끅입?(칡잎?)

101009 #3 응. 칙, 칙.(응. 칡, 칡.)

101009 @ 칙을 뭐렌 헤마씨?(칡을 뭐라고 해요?)

101009 #3 끅, 끅.('끅', '끅'.)

101009 @ 아, 끅입도 맛이 좋다. 하하하.(아, 칡잎도 맛이 좋다. 하하하.)

101009 #3 헤헤헤헤.(헤헤헤헤.)

101009 @ 거기 가면.(거기 가면.)

101009 #3 게난 거기 사람들이 이 서촌에 와서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는 거 보면은, 아아, 동촌이구나.(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 서촌에 와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거 보면, 아아, 동촌이구나.)

101009 @ 응.(응.)

101009 #3 이거를 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동촌 사람덜은 수까락 떠가지고 이리 올라 가젠 허민 꼭 이 손을 받거든예.(이거를 안다는 게 왜 그러냐면 동촌 사람들은 숟가락 떠가지고 이리 올라 가려고하면 꼭 이 손을 받거든요.)

101009 @ 예.(예.)

101009 #3 거기 밥은 풀이 없어가지고 흘리니까 수까락으로 걸영 오당 받앙 오당 뚝뚝뚝뚝 문드리니까 이 바닥에 먹다가 흘린 거 영 그대로 먹, 요추룩하니까 뭐가 뭰 거고, 여기 사람덜은 그게 없거든마씨. 그렇게 헤가지고 그 이 겐 지금도 동촌더레 가면은 춤 원 이 요즘말로 써비스, 이 무싱게 엇어예. 겐디 이 근방은 그거는 아주 좋읍주. 왜 그러냐면은 이 청수리나 이 한경 근방, 한경 근방도 이 혜변허고 이 웃드리가 틀려예. 웃드르는 그 인심, 인심 ᄒᆞ나를 믿고 사는 겁주 지금도.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쪼금 먹게 뒈니까 지나가던 사람덜 이 거지덜 오더라도 그대로 보내버리질 안 하거든마씨. 그 저 왜 그러냐면은 하다 못혜영 쏠이라도 혼줌 거려주면서 쪼금 잇는 집덜은게 그 인심을 춤 보고 사는 디가 이 한 가족의 청수립니다. 이 뭐, 청수리 자랑이라면은 뭐 하나의 인심이 자랑거리가 뭽주.(거기 밥은 풀기가 없어가지고 흘리니까 숟가락으로 떠 오다가 받아서 오다가 뚝뚝뚝뚝 떨어뜨리니까 이 바닥에 먹다가 흘린 거 이렇게 그대로 먹, 요처럼 하니까 뭐가 된 거고, 여기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그래서 지금도 동촌에 가면 참 원 이 요즘 말로 서비스, 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방은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수리나 이 한경 근방, 한경 근방도 이 해변하고 이 중산간이 달라요. 중산간은 그 인심, 인심 하나를 믿고 사는 거지요, 지금도.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조금 먹게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 이 거지들 오더라도 그대로 보내버리질 안하거든요. 그 저 왜 그러냐면 하다 못해서 쌀이라도 한 줌 거려주면서 조금 있는 집들은 그 인심을 참 보고 사는 데가 이 한 가족의 청수립니다. 이 뭐 청수리 자랑이라면 뭐 하나의 인심이 자랑거리가 되죠.)

101009 @ 말씀 잘하셤신게예. 뭐 이 마을에 데헤서 더 덧붙일 말씀이 잇으시면.(말씀 잘하시네요. 뭐 이 마을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101009 #3 마을에 대헤 가지고서는 더, 더부칠 말이라면 뭐.(마을에 대해 가지고서는 더, 덧붙일 말이라면 뭐.)

101009 @ 내가 청수리에 이렇게 나고 자라면서.(내가 청수리에 이렇게 나고 자라면서.)

101009 #3 지금 이제 춤 본토가 바꽈진다는 게 쪼금 무신 거헌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래 잇는 사람은 도시레 나가고 이제는 도시에 사람덜이 이레 들어오는 중이라예. 왜 그러냐 하면 도시하고 이 공기가, 촌 공기가 그러니깐 이 우리 청수리에도 지금 거진 한 반반쯤 웨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반반쯤 뒙주. 많아마씨예. 이 사람덜이 들어와 가지고 춤 서로 간에 그 옛날 그렛습니다. 이 저 청수리 그 뭐 우리도 들은 말입니다만은 조수, 조수는 바당에 뜬 배 형치고, 청수는 축항에 멘 배 형치라 그렛거든예. 멘 베. 게난 조수 사람덜은 나가면은 잘뒈고 청수에는 들어온 사람이 잘 뒌다는 거라예.(지금 이제 참 본토가 바뀌진다는 게 조금 뭐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래 있는 사람은 도시에 나가고 이제는 도시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중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하고 이 공기가, 촌 공기가 그러니깐 이 우리 청수리에도 지금 거의 한 반반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반반쯤 되죠. 많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 와가지고 참 서로 간에 그 옛날 그랬습니다. 이 저 청수리 그 뭐 우리도 들은 말입니다만 조수, 조수는 바다에 뜬 배 형체고, 청수는 축항에 맨 배 형체라 그랬거든요. 맨 베. 그러니까 조수 사람들은 나가며는 잘되고 청수에는 들어온 사람이 잘 된다는 거지요.)

101009 @ 아아.(아아.)

101009 #3 나가면은 별론디 들어온 사람덜이 잘 뒌다. 조수에는 나가는 사람이 잘 뒈고, 요렇게 그런 유래를 우리 춤 들은 말도 있긴 잇는데 지금 원래 여기 들어온 사람덜 다 잘 살고 잇어요. 뭐 춤 남 못지않게 더 도시에 사람들 부럽지 않게 다 살고 잇죠. 예.(나가면 별론데 들어온 사람들이 잘 된다. 조수에는 나가는 사람이 잘되고, 요렇게 그런 유래를 우리 참 들은 말도 있긴 있는데 지금 원래 여기 들어온 사람들 다 다 살고 있어요. 뭐 참 남 못지않게 더 도시에 사람들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죠. 예.)

101009 @ 예.(예.)

101010 @ 이 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헤 주십시오. 청수리에는 지명처럼 물이 멧 군데 잇수과?(이 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청수리에는 지명처럼 물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1010 #2 청수리 물은 흑수물, 검부낭칙[20], 고분뎃밧물, 돗죽은 물, 청수물 다서 여섯 군데 잇엇는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다 엇어졋수다. 흑수물만 그대로 방치뒈언 잇어.(청수리 물은 '흑수물', '검부낭칙', '고분뎃밧물', '돗죽은물', 청수물 다섯, 여섯 군데 있었는데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흑수물'만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어.)

20) '검부낭칙'은 한경면 청수리 옛 지명을 말한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헤 주십시오. 태어나서 청수리에서 자라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헤 주십시오.(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청수리에서 자라고 그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아, 나가 태어나기에는 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 청수리에서 큰 동네에서 살앗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덜을 일곱 성제를 낳는데, 다 죽어 불엇어.(아, 내가 태어나기에는 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 청수리에서 큰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에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일곱 형제를 낳는데, 다 죽어버렸어.)

102001 @ 아 세상에.(아 세상에.)

102001 #1 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집터 탓이라고 헤서 강성현이 사는 동네 요쪽저 조그만 오륙 가구 옛날부터도 이 저 왜정 때부터도 반반, 흔 반이 안 돼서 십호로 헨, 흔 반을 조직을 헷는디, 다섯 호, 여섯 호벳끼 안 돼니까 반반 그거 헹 허는데 일로 이사를 왓어. 이사를 와서 요 동네서 나서 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살다가, 우리가 열 늬살 때에는 일본놈이 손을 들러 가지고 그 해방이 뒛는데, 일본 군인덜 왓을 때는 일본 군인이 전부 어린 학생덜을 애껴주드라고. 그 다이사라고 가마오름 여기가 연대 본부랏거든. 연대 본분디 그 양반이 시찰을 영 다니는데 쭉 따라다녀도 너희들 따라와서는 안 뒌다. 소릴 안 허고 잘 봐라! 헤서 이게 말을 설러 버리니까, 일본말 다 잊어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조수국민학교 사학년 때 그 해방이 뒈엇는데, 글씨 후로는 우리 오촌이 한문선생을 헷어. 선생을 헷는데 그 분의 말을 영 들어 보며는 춤 뭐 허고 그 분이 열여섯 술에 우리 오촌이 한문을 통달헷다고 헤여. 통달헤서 글을 딱 읽으면은 해석 못허는 글이 없더라고. 게서 그 말을 나가 기억을 헷는디 하늘 천, 따 지, 가물 현, 누룰 황, 뜻을 말하는 거여. 겐디 내가 흔 ᄉᆞ십 년 전에 방송에 그 뜻을 허드라고. 뜻을 발표허는 걸 내가 들으니까 우리 오촌이 상당히 학자엿구나. 하늘 천 자, 자시에 셍천하니 호호탕탕 하늘천제, 축시에 개지허니 만물장성 따 지 제라고. 에, 그 다음에는 금옥이 비보허니 현저낭낭 감을 현재, 누룰 황재는 금, 목, 수, 화, 토후 헹 중국을 받았으니 토지 장성 누룰 황제, 한문책이란 건 천자 글인데 전부 끝엣줄이 읽게 운문 읽게 헌 건데, 전부 뜻이 담겨 있다 이거라. 게서 그거 우선 한 줄만 너도 기억을 해둬라. 헌 것이 우리가 오촌에 전설이고 글씨 후에 허다가 보니까 이어 ᄉᆞ삼 ᄉᆞ건이 셍겻거던. ᄉᆞ삼ᄉᆞ건이 셍기다가 보니까 우리 가문에도 그 당시 폭도라고 헷거든. 폭도대장이 하나 잇엇어. 아, 게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타격을 안 받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타격을 안 받았는디, 우리 친족덜도 많이 피헤를 봣어. 겐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똑똑은 헷던 가봐요. 그 부락에 습격을 허고 뭐 헷는디 여기에는 그런 피해는 산에서 오란 피해는 우리 동네는 안 주엇어. 겐디 그 사람이 죽은 자리도 없어. 어디로 가서 엇어졋는지.(다

죽어버리니까 이걸 집터 탓이라고 해서 강성현이 사는 동네 요쪽 저 조그만 오육 가구 옛날부터도 이 저 왜정 때부터도 반반, 한 반이 안 되서 십호로 했어, 한 반을 조직을 했는데, 다섯 호 여섯 호밖에 안 되니까 반반 그거 해서 하는데 여기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와서 요 동네에 나서 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네는 쓰라린 고통을 겪고 살다가, 우리가 열네 살 때에는 일본놈이 손을 들어 가지고 그 해방이 됐는데, 일본 군인덜 왔을 때는 일본 군인이 전부 어린 학생들을 아껴주드라고 그 '다이사'라고 가마오름 여기가 연대본부였었거든. 연대본분데 그 양반이 시찰을 이렇게 다니는데 쭉 따라다녀도 너희들 따라와서는 안 된다. 하지 안하고 잘 봐라! 해서 이게 말을 그만둬 버리니까, 일본말 다 잊어버리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말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조수국민학교 사학년 때 그 해방이 되었는데, 그 후로는 우리 오촌이 한문선생을 했어. 선생을 했는데 그 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뭐하고 그 분이 열여섯 살에 우리 오촌이 한문을 통달했다고 해. 통달해서 글을 딱 읽으면 해석 못하는 글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나가 기억을 했는데 하늘 천, 따 지, 가물 현, 누르 황. 뜻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사십 년 전에 방송에 그 뜻을 하더라고. 뜻을 발표하는 걸 내가 들으니까 우리 오촌이 상당히 학자였구나. 하늘 천 자, 자시에 생천하니 호호탕탕 하늘 천 자, 축시에 개지하니 만물장성 따 지 제라고. 그 다음엔 금옥이 비보하니 현저낭낭 검을 현 자, 누르 황자는 금, 목, 수, 화, 토가 토후해서 중국을 받았으니 토지장성 누르 황자, 한문책이란 건 천자글인데 전부 끝에 줄이 읽게 운문 읽게 한 건데, 전부 뜻이 담겨 있다 이거라. 그래서 그거 우선 한 줄만 너도 기억을 해둬라. 한 것이 우리가 오촌의 전설이고 그 후에 하다가 보니까 이어 사삼사건이 생겼거든. 사삼사건 생기다가 보니까 우리 가문에도 그 당시 폭도라고 했거든. 폭도대장이 하나 있었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타격을 안 받고, 우리 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타격을 안 받았는데, 우리 친족들도 많이 피해를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똑똑은 했던가 봐요. 그 부락에 습격을 하고 뭐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피해는 산에서 와서 피해는 우리 동네는 안 주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자리도 없어. 어디로 가서 없어졌는지.)

102001 @ 아고, 세상에.(아고, 세상에.)

102001 #1 그래서 이제 그 무자년 소개랏는데, 무자년 소개로 저 신창 우리는 내려가서 살다가, 다음 해에 기축년에 올라와가지고 살젠 허니까, 먹고 사는 게 츰기가 막혀. 숯을 구워가지고 모슬포 가서 풀고, 한림 시장에 가서 풀고, 그래서 이제 구명도사를 해서 살아 나갓는데, 게서 그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이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에 소집혜 가지고 군대에 가 가지고, 흔 우리도 군대생활을 ᄉᆞ십이 개월을 헷거든. 겐디 우리 선배는 육십이 개월이 고통이랏는데 차차 제대 방법이 나니까 그렇게 헤서 오라서 농사를 지을라고 허니까, 아버지도 얼마어서 제대혜난 다음 해 돌아가 버리니까 멕도 줄아야지, 베도 헤서 뭐 혜야지, 이제 농사지을라니까 농사방식은 남 허는 거 보면서 헐라니까 츰 고통을 많이 겪었지.(그래서 이제 그 무자년 소개였는데, 무자년 소개로 저 신창 우리는 내려가서 살다가, 다음해

에 기축년에 올라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참 기가 막혀. 숯을 구워가지고 모슬포 가서 팔고, 한림 시장에 가서 팔고, 그래서 이제 구명도사를 해서 살아나갔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군대에 소집해가지고 군대에 가 가지고, 한 우리도 군대생활을 사십이 개월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 선배는 육십이 개월이 고통이었는데 차차 제대 방법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버지도 얼마 없어서 제대한 다음해 돌아가 버리니까 멱서리도 짜야지, 베도 해서 뭐 해야지, 이제 농사지으려니까 농사 방식은 남하는 거 보면서 하려니까 참 고통을 많이 겪었지.)

102001 @ 겐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완 결혼허고 경 헹 살앗구나예.(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군요.)

102001 #1 예. 결혼 허다가 보니까 그때는 중매결혼이라 가지고 뭐 허다가 보니까 나가 눈이 다른 사람 보는 시각허고 좀 다른 모냥이여. 이거 어거지 공사로 결혼을 시겻는데 부인을 못 보겟어. 부인을 탁 보면은 울 때에, 사람이 울 때에 눈물이 잘잘 흐를 때에, 불을 보면은 불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탁 보면은 비추우니까 도저히 접근을 못 허고 일로 마주 저 넘어가서도 고개를 돌려서 넘어가지. 이렇게 보고 싶지를 안 허여.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혼 뒈버려. 재가헤서 이제 살다보니까 애덜이 오남매를 두어 가지고, 살려니까 참 비참하게 살앗고, 말젯아덜이 하체 마비 뒈어가지고 저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그냥 뭐 재산이 다 들어서 이젠 집이 애 어멍보고 동녕질을 헤 먹을라 헤도 자루가 없어서 못헐테니 이제랑 이 병 조름에 그만 따라다니자. 그러다가 이제 가이가 스무 살 나는 해는 여수재활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헤 가지고 작대기 짚어서 걸을 수는 있다 헤서 거기 가서 잇다가 여러 나라에서 보조하는 병원이니까 얼마들 엇어 헨 나완 여수 살다가 금년 스월 스일 날은 그만 죽어 버렷는데.(예. 결혼하다 보니까 그때는 중매결혼이라 가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눈이 다른 사람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모양이야. 이거 억지 공사로 결혼을 시켰는데 부인을 못 보겠어. 부인을 딱 보면 울 때에 사람이 울 때에 눈물이 잘잘 흐를 때에, 불을 보면 불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보면 비추니까 도저히 접근을 못 하고 이리로 마주 저 넘어가서도 고개를 돌려서 넘어가지. 이렇게 보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혼 돼 버려. 개가해서 이제 살다보니까 애들이 오남매를 두어 가지고, 살려니까 참 비참하게 살았고, 셋째아들이 하체 마비 되어가지고 저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로 소아마비를 걸려가지고 그냥 뭐 재산이 다 들어서 이젠 집에 우리 애기엄마도 이젠 구걸을 해 먹을라 해도 자루가 없어 못하겠으니 이제랑 이 병 뒤로 그만 따라다니자. 그러다가 이제 걔가 스무 살 나는 해는 여수재활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작대기 짚어서 걸을 수 있다 해서 거기 가서 있다가 여러 나라에서 보조하는 병원이니까 얼마 없어서 해서는 나와서 여수 살다가 금년 사월 사일 날은 그만 죽어버렸는데.)

102001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1 #1 살까 헷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뚤 덕분에 살까 헷는데, 뚤이 어쨋냐 하면 국가 영재시험에 합격을 헤가지고, 어, 흔 3년 전에 독일 가서 1등 먹언 오고, 그 저 어디 뉴질랜드 강 1등 먹어오고, 일본 강 1등 먹어오고, 흔 네 나라에서 1등 먹어서 오니까 국가에서 알아주고, 저 모든 거를 다 경비 당헤주고, 그 저 대학도 중학교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를 안 하고, 바로 대학 들어 가가지고, 예술대 들어가서 이제 수석, 1등 수석으로 들어가서 뭐 저 총장, 그 총장 그 뭐 상 받고 헤가지고 표창 받고 헤서 자꾸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는 안 허고도 넘어갓어. 그래서 살까보단 하다 보니까 그놈의 자식은 아버지 이렇게 헷습니다, 저렇게 헷습니다, 하면서 하다가 그만 암 걸려서 돌아가 불엇어. 돌아가 버리고 거보단 먼저는 큰 아들 죽어버리고 그게 오래 살다보니까 비참한 내가 초년에 고생 헷으니까 말년은 괜찬을까? 헤서 말년이 한 불과 한 십여 년쯤 좋았지. 십여 년쯤 이제 좋게 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돈이 아쉬울 것도 없고 세력에 아쉬울 것도 없고 손자들이 뭐 공직에도 있고, 회사 직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봉급쟁이가 여러 명 뒈다 보니까 십여 명 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 봉투 들어오고 명일 때도 봉투 들어오고, 생일 때도 봉투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는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툭툭 발이 차. 참 비참헤서 오래 살아지는 게 원망이여.(살까 했더니 그냥 죽어 버리더라고. 딸 덕분에 살까 했는데, 딸이 어쨌냐하면 국가 영재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독일 가서 1등 먹어서 오고, 그 저 어디 뉴질랜드 강 1등 먹어서 오고, 일본 가서 1등 먹어오고, 한 네 나라에서 1등 먹어서 오니까 국가에서 알아주고, 저 모든 거를 다 경비 당해주고, 그 저 대학도 중학교 나와 가지고, 고등학교를 안 하고, 바로 대학 들어 가 가지고, 예술대 들어가서 이제 수석, 1등 수석으로 들어가서 뭐 저 총장, 그 총장 그 뭐 상 받고 해가지고 표창 받고 해서 자꾸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는데 고등학교는 안하고도 넘어갔어. 그래서 살까 하다 보니까 그놈의 자식은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다가 그만 암 걸려서 돌아가 버렸어. 돌아가 버리고 그거보다 먼저는 큰 아들 죽어버리고 그게 오래 살다보니까 비참한 내가 초년에 고생했으니까 말년은 괜찮을까? 해서 말년이 한 불과 한 십여 년쯤 좋았지. 십여 년쯤 이제 좋게 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돈이 아쉬울 것도 없고 세력에 아쉬울 것도 없고 손자들이 뭐 공직에도 있고, 회사 직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봉급쟁이가 여러 명 되다보니까 십여 명 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 봉투 들어오고 명일 때도 봉투 들어오고, 생일 때도 봉투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는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툭툭 발이 차. 참 비참해서 오래 살아지는 게 원망이야.)

102001 @ 그래도 좋은 것도 봣수게. 사람 명이라는 건,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예. 경 헤도 이런 소아마비도 이렇게 살아서 딸을 낳고, 딸 한 명마씨?(그래도 좋은 것도 봤잖습니까. 사람 명이라는 건, 그게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도 이런 소아마비로도 이렇게 살아서 딸을 낳고, 딸 한 명이예요?)

102001 #1 가이 딸이 삼형젠데 아이덜이 다 머리가 좋아.(걔 딸이 삼형젠데 아

이들이 다 머리가 좋아.)

102001 @예. 아이고야. 거 봅서게. 자기 그 뭐는 다 헷수게 어쩻든. 경 생각헤 사주마씨게.(예. 아이고 거 보세요. 자기 그 뭐는 다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102001 @ 이제부터 노인회장님이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헤 주십시오.(이제부터 노인회장님이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3 내가 낳고 자란 과정, 나 이제 우리 부모네 낳고 자란 과정은 모르시고, 내가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안티 내가 들은 말인디 춤 자기가 칠남매 낳아가지고 그 나 혼차 살리면서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저 해방 전에 일본 북해도로 그 갓다가 일본 북해도에 그 노무자로, 노무자로 끌려 갓다가.(내가 낳고 자란 과정 나 이제 우리 부모네 낳고 자란 과정은 모르시고 내가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들은 말인데 참 자기가 칠남매 낳아가지고 그 나 혼자 살리면서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저 해방 전에 일본 북해도로 그 갔다가 일본 북해도에 그 노무자로, 노무자로 끌려갔다가.)

102001 @ 쯧쯧쯧쯧.(쯧쯧쯧쯧.)

102001 #3 이제 여기 사삼이 터진다, 그러니깐 그때 와가지고 육일, 일주일 만에 그 재건, 이 저 소까이 통한이 뒈가지고 그 내려가서 뭘 헷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떠케 헤서 돌아갓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가 불고, 그 저 우리 작은 아버지는 연세가 밑에라노니까 여기 잇으면서 그 청년회장을 헷거든예. 그러니까 청년회장을 허면서 이 폭도덜, 폭도덜하고 이제 그 저 한서기라고 이제 그 소까이 내려가자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 날 저녁 심어다가 저 두모.(이제 여기 사삼이 터진다, 그러니깐 그때 와가지고 육일, 일주일 만에 그 재건, 이 저 소개 통한이 돼가지고 그 내려가서 뭘 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갔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노무자로 일본에 끌려가 버리고, 그 저 우리 작은 아버지는 연세가 밑이니까 여기 있으면서 그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회장을 하면서 이 폭도들, 폭도들하고 이제 그 저 한서기라고 이제 그 소개 내려가자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 날 저녁 잡아다가 저 두모.)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3 지서에 심어다가 그 두모 알 그 바닷가에서 총살 시겨 버리고.(두모 지서에 잡아다가 그 두모 아래 그 바닷가에서 총살 시켜 버리고.)

102001 @ 아.(아)

102001 #3 우리 아버지는 에, 심어다 열흘, 지서에서 지서에 갇혀가지고 살단 열흘 만에 내일 출소뒐 거다, 내일 출소뒐 걸 열 흐루 만에 이젠 그 한원리 이장허곡 뭐, 무싱 거하고 그 지서에 간 뭐 다 헤노니까 낼 출소뒌덴 허는 디 우리 아버지가 멩이 즈르젠허니까 그날 저녁 한원리에다 습격이 들어불어서마씨. 이 폭도놈의 새끼덜이.(우리 아버지는 에, 잡아다 열흘, 지서에서 지서에 갇혀가지고 살다가

열흘 만에 내일 출소될 거다, 내일 출소될 걸 열하루 만에 이젠 그 한원리 이장하고 뭐, 무엇하고 그 지서에 간 뭐 다 해 놓으니까 낼 출소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명이 짧으려고 하니까 그날 저녁 한원리에다 습격이 들어버렸어요. 이 폭도 놈의 새끼들이.)

102001 @ 에. 에고. 쯧쯧쯧쯧(에. 쯧쯧쯧쯧).

102001 #3 아, 게니까 뭐 그날 그 뒷날 출소뒌다는 헌 사람덜 저 협지, 지금 헤수욕장. 거기 심어 단 그자 세와 놘 그냥 총으로 드러 갈겨 불엇거든예. 게난 그 우리 아버지 시체도 자세히 춧지를 못 헐 건디도.(아, 그러니까 뭐 그날 그 뒷날 출소된다는 헌 사람들 저 협재, 지금 해수욕장. 거기 잡아다가 그저 세워 놔서 그냥 총으로 계속 갈겨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버지 시체도 자세히 찾지를 못 할 건데도.)

102001 @ 누가 총으로 쏘아불언마씨?(누가 총으로 쏘아버렸어요?)

102001 #3 그 순경덜이.(그 순경들이.)

102001 @ 아이고, 세상에. 쯧쯧쯧쯧.(아이고, 세상에. 쯧쯧쯧쯧.)

102001 #3 게니까 그때 그 내가 어려가지고 여기서 춤 일곱 술에 그 소까이 네려갓지만은 그때 그 쒜소리 하면서 그 향사에 심어다 놩 두드리는 게 어떻게 뒈느냐면은 그 장작이 ᄉᆞ 벵작이라고 잇습니다예. 장작을 탁 찍언 반 벵작 헤놩 그거는 벵작이고.(그러니까 그때 그 내가 어려가지고 여기서 참, 일곱 살에 그 소개 내려갔지만 그때 그 쇠 소리 하면서 그 향사에 잡아다 놔서 두드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장작이 사 병작이라고 있습니다. 장작을 탁 찍어서 반 병작 해놔서 그거는 병작이고.)

102001 @ 아아, 벵작.(아아, 병작.)

102001 #3 ᄉᆞ 벵작이라고 더 찍은 건데 그걸 혼 번 더 찍은 건데 게문 삼각이 나예.(사 병작이라고 더 찍은 건데 그걸 한 번 더 찍은 건데 그러면 삼각이 나요.)

102001 @ 아아.(아아.)

102001 #3 삼각형 난 장작은 그 장작을 이렇게 꿀려 안쳐가지고 사람이 이 동ᄆᆞ릅을 페면 뒈. 정말로 그걸 넘어가면서 보지 못하면 담에 올라상은에 어린 것들이니까 그걸 봣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 동ᄆᆞ릅을 이거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 일곱 술 때 눈앞에 쌩쌩하게 그건 알아지거든예. 그 쒜소리 허면서 뒈와지는데 이디 두드려 페민 뱅뱅 뒈와지는 게 춤 말할 수 엇이 그 머헌 아아, 그거는 지금도 그거는 부디 얘기허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아아, 정말 그 사람덜이 그렇게 총으로 땅 쏘앙 가는 건 간단하게 가는 거주만은 그 고통이라면은 춤, 참을 수 엇어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헌 겁주. 그레 이제 그때 나는 그 일곱 술 때 우리 육촌 형하고 서이가 바당에 가가지고 바당 가가지고 이제 바당에 강 그 건인가 무신 보말인가 심어근에 무싱 거 장난허단 바레보니까 해 지는 줄을 몰란 해 지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들어오랏는데 들어오당 붸려 보니까 성문이 닫아불언마씨.(삼각형 난 장작은 그 장작을 이렇게 꿇려 앉혀가지고 사람이 이 무릎을 때리면 돼. 정말로

그걸 넘어가면서 보지 못하면 담에 올라서서 어린 것들이니까 그걸 봤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 무릎을 이거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 일곱 살 때 눈앞에 생생하게 그건 알아지거든요. 그 쇠 소리 하면서 뒤틀려지는데 여기 두드려 패면 뱅뱅 뒤틀려지는 게 참 말할 수 없이 그 뭐한 아아, 그거는 지금도 그거는 부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아아, 정말 그 사람덜이 그렇게 총으로 땅 쏘아서 가는 건 간단하게 가는 거주만 그 고통이라면 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죠. 거기 이제 그때 나는 그 일곱 살 때 우리 육촌 형하고 셋이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이제 바다에 가서 '건'인가 무신 고동인가 심어서 뭐 장난하다가 바라보니까 해 지는 줄을 몰라서 해 지는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다가 봐 보니까 성문이 닫아 버렸어요.)

102001 @ 아아.(아아.)

102001 #3 게니까 우리 육촌 형님이 그 미릇 안 그 옛날 말로 개고망이라고 잇어요.(그러니까 우리 육촌 형님이 그 미리 안 옛날 말로 개구멍이라고 있어요.)

102001 @ 아아.(아아.)

102001 #3 그건 어떵 뒈엇느냐면은 성담을 영 다면서 요만큼하게 그 사름 ᄒᆞ나 기어 뎅기게끔 그 고망 헌 거 그거를 발견혜 놔뒁 성문 더꺼부니깐 밧담 넘으면서, 넘으면서 그 고망을 촛안 완 촛안 완 그 고망으로 들어 완 베려보니까 그때 우리 동생이 ᄒᆞ나 잇엇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일러불엇다고 이젠 그 밤중 들도록 안 들어오니까 ᄉᆞ뭇 동네가 다 뒤어퍼지고 성문은 닫아불고 동넨 다 뒤어퍼지고 그 당시에 그 한 일주일 잇으니까 내 동셍도 가버리고 그 저 백일, 그때는 홍역이지. 이제 그 벡일혜, 그때 우리말로 벡일혜 하다가 그 헹 가버리고 경 헨 나 혼차 살아가지고. 그레 이제 올라와가지고 춤 어머니는 쟁기 졍 밧디 가면은 난 뚜라가근에 쉐 메와근에 쉐 멥고 밧 가는 건 알주만은 쟁기는 무거워가지고 지지를 못허니까 헤끄만 헤부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그자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아오게 뒛는데 나의 살던 유래는 그자 그거.(그건 어떻게 되었느냐면 성담을 영 쌓으면서 요만큼하게 그 사름 하나나 기어 다니게끔 그 구멍 한 거 그거를 발견해 놔둬서 성문 닫아버리니까 밭담 넘으면서, 넘으면서 그 구멍을 찾아 와서 찾아 와서 그 구멍으로 들어 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 잃어버렸다고 이젠 그 밤중 들도록 안 들어오니까 사뭇 동네가 다 뒤엎어지고 성문은 닫아버리고 동넨 다 뒤엎어지고 그 당시에 그 한 일주일 있으니까 내 동생도 가버리고 그 저 백일, 그때는 홍역이지. 이제 그 백일해, 그때 우리말로 백일해 하다가 그 해서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참 어머니는 쟁기 져서 밭에 가면 난 따라가서 소 메워 가지고 소 메워서 밭가는 건 알지만 쟁기는 무거워가지고 지지를 못하니까 조그만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그저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는데 나의 살던 유래는 그저 그거.)

102001 @ 하, 눈물 남수다예. 그믄 아버지는 일곱 살에 돌아가션마씨?(하, 눈물 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일곱 살에 돌아가셨어요?)

102001 #3 예에.(예에.)

102001 @ 그믄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셧겟다예?(그러면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102001 #3 어머니 고생이 뭐 말헐 수 엇어십주. 씨부모, 씨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거 무슨 거 헤근에 헤. 이거여 저거여 춤 베라벨 말 다 들으멍 아이고, 아이고 쯧.(어머니 고생이 뭐 말할 수 없었죠. 시부모, 시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거 무슨 거 해서 해. 이거다 저거다 참 벼라별 말 다 들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쯧.)

102001 @ 그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씨어머니도 모셧구나예? 할머니 그난 성할머니.(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모셨군요? 할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

102001 #3 성할머니 모시고 성할아버지ᄁᆞ장 다 모시다가 그 할머니 입에서 뭐 그 말 저 말헤 가니까 성할아버지가 이젠.(친할머니 모시고 친할아버지까지 다 모시다가 그 할머니 입에서 뭐 그 말 저 말해 가니까 친할아버지가 이젠.)

102001 @ 분가?(분가?)

102001 #3 협재로, 협재로 나가 버리고 분가헤 불엇주. 그 저 할망하고 도저히 살지 못 헤가지고 그 입살에 미완 살지 못헤영 분가헤 부난 우리 어머니는 씨어머니 모셩 살젠 허다보니까 베라벨 말 다 들으면서 나 혼차, 나 하나 잘못뒈 버리카 부덴 뱅뱅허멍 살다가 가셧수다. 우리 어머니도 아.(협재로, 협재로 나가 버리고 분가해 버렸지. 그 저 할머니하고 도저히 살지 못 해가지고 그 '입살'에 미워서 살지 못해서 분가해 버리니까 우리 어머닌 시어머니 모셔서 살려고 하다보니까 별별 말 다 들으면서 나 혼자, 나 하나 잘못돼 버릴까봐 뱅뱅하면서 살다가 참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아.)

102001 @ 겐 어머니고향은 청수예.(겐 어머니고향은 청수요.)

102001 #3 예. 아버지도 청수고 청수 어머니, 아버지ᄁᆞ장 다 청수. 할아버지도 청수. 우리가 들어오지는 안허고, 이 저 우리 할머니는 조수에서 살다가 일로 결혼헤 가지고 올라오셧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멀리허젠 헤도 멀리헐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요새ᄀᆞ치 차로 뭐 조록조록[21] 헤근에 뭐 뎅길 때가 아니고 걸어가지고 뎅길 때라 노니 이 춤. 결혼식이라는 게 물 타가지고 뎅길 때고 것도 혼쏠 무싱 거 혼 집이 물 탕 뎅기고 경 안허민 걸엉 뎅기멍 걸엉 강 모셔다 놩 무싱 거 허고 중간 뒈 가니까 뭐 그 가마, 가마 헤가지고 가마 타고 물 타고 그 결혼도, 결혼식도 그게 아주 큰 결혼식이라.(예. 아버지도 청수고 청수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청수. 할아버지도 청수. 우리가 들어오지는 않고, 이 저 우리 할머니는 조수에서 살다가 이리로 결혼해 가지고 올라오셨고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멀리하려고 해도 멀리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요새같이 차로 뭐 '조록조록' 해서 뭐 다닐 때가 아니고 걸어가지고 다닐 때라 버리니까 이 참. 결혼식이라는 게 말 타가지고 다닐 때고 것도 조금 무슨 거한 집에 말 타서 다니고 그렇게 안하면 걸어서 다니면서 걸어서 가서 모셔다 놔서 무슨 거 하고 중간 돼 가니까 뭐 그 가마, 가마 해가지고 가마 타고

21) '조록조록'은 가는 물줄기가 좁은 구멍으로 빨리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 또는 모습이다.

말 타고 그 결혼도, 결혼식도 그게 아주 큰 결혼식이야.)

102001 @ 겐 삼촌 어떤 결혼식을 헷수과?(그래서 삼촌 어떤 결혼식을 했습니까?)

102001 #3 나도, 나는 그런 결혼식은 안 헤서마씨. 그 믈 타고 결혼하는 게.(나도 나는 그런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 말 타고 결혼하는 게.)

102001 @ 봐봣수과?(봤었습니까?)

102001 #3 우리, 우리 대에꺼장 그걸로 끗이라. 끗나고 그 다음 해 나는 차 타지고 조수, 우리 처가 이 조순데 차 그때는 무신 요즘 택시주. 추럭, 추럭, 추럭 헤근에 탕 그자 그것에 우시 태우곡 아이고. 아이고.(우리, 우리 대에까지 그걸로 끝이야. 끝나고 그 다음 해 나는 차 타고 조수, 우리 처가 이 조순데 차 그때는 요즘 무슨 택시지. 트럭, 트럭, 트럭해서 타서 그저 그것에 위요 태우고 아이고. 아이고.)

102001 @ 게도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결혼 말 타고 하는 거는 들은 거꽈? 어머니안테.(그래도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결혼 말 타고 하는 거는 들은 겁니까? 어머니한테.)

102001 #3 아뇨. 우리가 직접 봣죠.(아뇨. 우리가 직접 봤죠.)

102001 @ 다 어릴 때 봔?(다 어릴 때 봤어요?)

102001 #3 우리 대에 갈라지기 시작헤 가지고 한 얼마 뒈 가니깐 쫙 갈라젼 그 다음부턴 그자.(우리 대에 갈라지기 시작해 가지고 한 얼마 돼 가니깐 쫙 갈라져서 그 다음부턴 그저.)

102001 @ 게난 어머니는 협재로 가도 물질 이런 거 안 하고 농사만 지엇고예?(그러니까 어머니는 협재로 가도 물질 이런 거 안 하고 농사만 지었고요?)

102001 #3 어머닌 협재 안 가봣죠. 할아버지. 할아버지.(어머닌 협재 안 가봤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102001 @ 할아버지네가 분가를 협재로 가.(할아버지네가 분가를 협재로 가.)

102001 #3 할아버지가 분가헷주. 어머니는.(할아버지네가 분가했지. 어머니는.)

102001 @ 청수에서만 살고.(청수에서만 살고.)

102001 #3 예예. 쭉 청수만 살고.(예예. 쭉 청수만 살고.)

102001 @ 그믄 여기서 그자 밧농사나 이런 거 다 헷겟다예?(그러면 여기서 그저 밭농사나 이런 거 다 했겠네요?)

102001 #3 예예. 게니까 요즘은 뭐 이 부수데기는 걸 기계로 헷주만은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게 뒈믄 요런 농사쯤은 좁씨 삐여 놓고 밧을 골라야 뒈기 때문에 쉐, 믈테, 쉐테 헤가지고 거 불려십주게.(예예. 그러니까 요즘은 부수는 걸 기계로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게 되면 요런 농사쯤은 좁씨 뿌려 놓고 밭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소, ‘믈테’, ‘쉐테’ 해가지고 거 밟았죠.)

102001 @ 예.(예.)

102001 #3 불려근에 밧을 골랏고 또 이제 그 보리, 겨울 농사 보리 지을 적에는 통지 알지양?(밟아서 밭을 골랐고 또 이제 그 보리, 겨울 농사 보리 지을 적에는 돼

지우리 알지요?)

102001 @ 예.(예.)

102001 #3 통지. 벤소 그 저 도새기 질루는 거.(돼지우리. 변소, 그 저 돼지 기르는 거.)

102001 @ 예.(예.)

102001 #3 그디 쉐걸름헹 겨울에 쉐 메면서 쉐촐헤당은에 쉐 주고 쉐 매멍 쉐똥 싼 거 쉐 헤당 그레 담앙 도새기 발로 불롸 거 쒝영 그거 이제 가을 들면은 그걸 바깟더레 꺼내영, 바깟더레 꺼내영 그것에 보리씨 허데경 거 사람 손으로 가근에 그 밧디 강 뿌려가지고 거름을 뿌려. 거름을 뿌려근에 갈앙 내불민 그게 제라헌 보리여십주. 그것을 주로 춤 그것도 오래 헷십주. 그 허다가 그 다음에 헤변 룰에 똘라가지고 그 가는 거를 뭐라고 그렛냐면 쉡씨 간다고 그레예. 쉡씨에. 그 저 쉡씨, 쉡씨 간덴 허는 건 거름에 무쳐서 갈다가 거름은 거름대로 뭐 헤불고 그 저 씨만 밧디 강 씨 데껑 갈앙 네부는 거. 것ᄀᆞ라 쉡씨옌 헙주. 이젠 그 그런 보리 갈면서 허당 헌 게 그게 끗. 그걸 쭉 허게 허당 그 다음부터는 특작도 이제 나오고 감귤도 나오고 이 뭐 그것저것 곡식이 갈라졍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대에는 뭐 감귤, 이제 청수리에서도 감귤, 콩, 이제 보리는 요근래에 하다가 중단 뒛다가 요거 작년부터 이제 보리가 또 시작이 뒈엇는데.(거기 쇠두엄해서 겨울에 소 매면서 소꼴해다가 소 주고 소 매면서 소똥 싼 거 소 해다가 그리 담아서 돼지 발로 밟아서 거 썩여서 그거 이제 가을 들면 그걸 바깥에 꺼내서, 바깥에 꺼내서 그것에 보리씨 섞어서 거 사람 손으로 가서 에, 그 밭에 가서 뿌려가지고 거름을 뿌려. 거름을 뿌려서 갈아 내버리면 그게 진짜 보리였죠. 그것을 주로 참 그것도 오래 했죠. 그 하다가 그 다음에 해변 룰에 따라가지고 그 가는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쉡씨' 간다고 그래요. '쉡씨'에. 그 저 '쉡씨', '쉡씨' 간다고 하는 건 거름에 묻혀서 갈다가 거름은 거름대로 뭐 해버리고 그 저 씨만 밭에 가서 씨 던져서 갈아서 내버리는 거. 것보고 '쉡씨'라고 하죠. 이젠 그 그런 보리 갈면서 하다가 한 게 그게 끝. 그걸 쭉 하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특작도 이제 나오고 감귤도 나오고 이 뭐 그것저것 곡식이 갈라져서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 대에는 뭐 감귤, 이제 청수리에서도 감귤, 콩, 이제 보리는 요근래에 하다가 중단 됐다가 요거 작년부터 이제 보리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

102002 @ 음.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음.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1 농사, 농사. 소 길루고 집에서는 독 질루고, 경허면서 뒈지 질루고 옛날에는 똥뒈지라고 허지 안읍니까이? 통지에서 소 먹어난 그 퉤비, 퉤비는 돗통에다가 담아 놔가지고 쉐돗발로 붋아 놩 그게 그 거름뒈면은 마당에다 내놔가지고, 보리씨를 이렇게 서꺼서 쉐스랑으로 서꺼서, 이젠 쉐로 막 불려서, 그걸 데멋다가 담으면서 밧디 가서 이자 부인네덜은 굴체, 굴체헤서 허리에 차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밧디 허데경 뿌리더라고. 옛날이야 그 농사가 주로 요지금은 부업이 많지만

은, 보리, 조, 콩, 풋, 꿰는 쪼금씩 헤 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밧에염에 쪼금씩 놔서 헤먹고 헷어. 그런 걸로만 헐라니까 여자덜이고 웬만헌 사름은 다 굴갱이 줴가지고 밧듸서 여름내낭 검질을 메거든. 밥은 차롱착에 걸영 강은에 잣우이 놩 포따리 더껑 돌 딱 지둘롸 둠서 뭐 허고 가마귀가, 안 지둘리면 가마귀가 가서 파헤치니까. (농사, 농사, 소 기르고 집에서는 닭 기르고, 그렇게 하면서 돼지 기르고 옛날에는 똥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소 먹었던 그 퇴비, 퇴비는 돼지우리에다가 담아 놔가지고 소돼지 발로 밟아놔서 그게 그 거름되면 마당에다 내놔가지고, 보리씨를 이렇게 섞어서 쇠스랑으로 섞어서, 이젠 소로 막 밟아서, 그걸 쟁였다가 담으면서 밭에 가서 이제 부인네들은 삼태기, 삼태기해서 허리에 차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밭에 흐트려서 뿌리더라고. 옛날이야 그 농사가 주로 요지금은 부업이 많지만, 보리, 조, 콩, 팥, 깨는 조금씩 해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밭가에 조금씩 놔서 해먹고 했어. 그런 걸로만 하려니까 여자들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호미 쥐어가지고 밭에서 여름내내 김을 매거든. 밥은 채롱에 떠 가서는 담위에 놔서 보따리 덮어서 돌 딱 지질러 두고 뭐 하고 까마귀가, 안 지지르면 까마귀가 가서 파헤치니까.)

102002 @ 아, 까마귀가.(아 까마귀가.)

102002 #4 아판 젊을 때에 흔 환갑 ᄀᆞ리에 다 돌아가 불언. 우리 부모네는.(아파서 젊을 때에 한 환갑 무렵에 다 돌아가 버렸어. 우리 부모네는.)

102002 @ 예. 농사헷지예?(예. 농사했지요?)

102002 #4 농사헷지. 계속 농사헷지.(농사했지. 계속 농사했지.)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1 에, 본동, 본동 임씨.(에, 본동, 본동 임씨.)

102003 @ 청수리 본동?(청수리 본동?)

102003 #1 예. 청수리 본동, 임씨는 분처님씨거든 본이. 우리는 남평 문씨고.(예. 임씨는 청수리 본동, 임씨는 '분처님'씨거든 본이. 우리는 남평 문씨고.)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청수리, 아버지도 청수리?(어머님의 고향은 청수리, 아버지도 청수리?)

102003 #1 예.(예.)

102003 @ 예.(예.)

102003 #1 우리 고조부님 때에 저지에서 내려왓다고 허는데.(예. 우리 고조부님 때에 저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102003 @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션마씨?(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셨어요?)

102003 #1 예?(예?)

102003 @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 계시고? 같이 살안마씨?(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살아 계시고? 같이 살았어요?)

102003 #1 할머니는 아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탄생허기 전에 돌아가 불엇어.(할머니는 아는데 할아버지는 우리 탄생하기 전에 돌아가 버렸어.)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게니까 나 아버지보단도 우리 동생보단도 우리 할아버지보단도 더 살앗어. 우리 할아버지는 육십팔 세에 돌아가고.(그러니까 나 아버지보다도 우리 동생보다도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더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는 육십팔 세에 돌아가고.)

102003 @ 예.(예.)

102003 #1 우리 아버지는 오십팔 세에 돌아가고, 우리 동생은 일흔셋에 돌아가고, 이렇게 헤부니까 아덜은 쉰일곱에 죽어 불고, 큰아덜은 쉰일곱에 죽고 또 세 번째 놈은 쉰넷에 죽어 불고.(우리 아버지는 오십팔 세에 돌아가고, 우리 동생은 일흔셋에 돌아가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들은 쉰일곱에 죽어 버리고, 큰아들은 쉰일곱에 죽고 또 세 번째 놈은 쉰넷에 죽어 버리고.)

102003 @ 예.(예.)

102003 #1 어이구, 에고, 에고.(어이구, 에고, 에고.)

102003 @ 육십 넘기기가예. 또 어렵고 육십 넘기믄 오래오래 사신다고 합디다게.(육십 넘기기가요. 또 어렵고 육십 넘기면 오래오래 사신다고 합디다.)

102003 #1 겐디 병원이 지금 원수라. 죽을 코를 다섯 번이나 넘엇거든.(그런데 병원이 지금 원수야. 죽을 고비를 다섯 번이나 넘었거든.)

102003 @ 죽을 고비를.(죽을 고비를.)

102003 #1 예. 나 마흔둘에도 교통사고 걸려가 가지고(예. 나 마흔둘에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102003 @ 큰아들로 태어난마씨?(큰아들로 태어났나요?)

102003 #1 막내로, 막내로 여기서 아부지가 즈식덜을 하도 도망가 버리니까 죽어 없어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간 나서 막넹이로 난 것이.(막내로, 막내로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들이 하도 도망가 버리니까 죽어 없어져버리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가서 나서 막내로 낳은 것이.)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나 하나가 살앗지.(나 하나가 살았지.)

102003 @ 그믄 일곱 남매 중에 그렇게 아파가지고들 그렇게?(그러면 일곱 남매 중에 그렇게 아파가지고들 그렇게?)

102003 #1 옛날은 쪼금 감기 걸리나 뭐허믄 무당헤서 설기통으로 숫가락으로 두드리면서 허다가 그냥 약이 약이 없으니까 또 약이라고 허는 것은 뭐허느냐면 이 고지에 가면은 주축이라고 헌 게 잇어. 주축, 주축이라고 허는 것이 이제 무우같이 허는데.(옛날은 조금 감기를 걸리나 뭐하면 무당해서 '설기통'으로 숟가락으로 두드리면서 하다가, 그냥 약이 약이 없으니까 또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느냐면 이 숲에 가면은 '주축'이라고 한 게 있어. '주축', '주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같이 하는데.)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이거를 물에 놔서 끓이면은 빨갛게 나와.(이것을 물에다가 끓이면 빨

갛게 나와.)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물이 빨갛게 나오면은 그 빨강헌 물에다가 쪽파.(물이 빨갛게 나오면 그 빨강한 물에다가 쪽파.)

102003 @ 예.(예.)

102003 #1 쪽파, 콩나물 이런 것을 헤서 이제 막 삶아가지고 헤서 먹고 그렇지 안허면은 꿀에다가 저 콩나물을 집에서 놔가지고 그거에 구들바닥에서 쪄서 구들을 뜨뜻허게 헹 알로 불 때면은 이불 더꺼가지고 뜨뜻허면은 거기에서 그 온도에서 허면은 잘 익지도 않거든. 게서 그거를 헤다가 멕이면은 거 좋다고 헤서 그런 정도 허다가 버치면은 가버리는 거.(쪽파, 콩나물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막 삶아가지고 해서 먹고 그렇지 않으면 꿀에다가 저 콩나물을 집에서 놔가지고 그거에 구들바닥에서 쪄서 구들을 따뜻하게 해서 아래로 불 때면 이불 덮어가지고 따뜻하면 거기에서 그 온도에서 하면 잘 익지도 않거든. 그래서 그거를 해다가 먹이면 거 좋다고 해서 그런 정도 하다가 부치면 가버리는 거.)

102003 @ 감기나 홍역이나 뭐 이런 거 아까.(감기나 홍역이나 뭐 이런 거 아까.)

102003 #1 그때는 이 우리 목장에 주축라고 허는 것이 만이 있었는데.(그때는 이 우리 목장에 '주축'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102003 @ 주추예?('주추'요.)

102003 #1 그 일부러 가가지고 잇는 바둑 잇는 데 가서 거 주축을 캐다가 놔두고 경허거든. 게고 어렷을 때 홍역헐 때에 홍역헐 때는 뭘 허는고 허니까 그 생이족박이라고 허는 게 잇어.(그 일부가 가가지고 있는 바닥 있는 데 가서 거 '주축'을 캐다가 놔두고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어렸을 때 홍역할 때에 홍역할 때는 뭘 하는가 하니까 그 박주가리이라고 하는 게 있어.)

102003 @ 생이족박? 족박?('생이족박'? '족박'?)

102003 #1 응.(응.)

102003 @ 풀마씨?(풀요?)

102003 #1 예. 풀인디 줄 벋어가지고 이 고구마같이 열매를 올아.(예. 풀인데 줄 뻗어가지고 이 고구마같이 열매를 열어.)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다슷 개까지, 없는가 부덴 허민 다슷 개까지 이렇게 나오는디 그거이 열매가 부드러우민 이렇게 나오는디 그거 열매가 요렇게 질겨서 속에 그 털같이 에, 어욱, 저 억새꽃같이 담아진 것이 잇는디, 그거를 헤다가 애기 홍역 할 때는 머리에 비고 자면은 홍역이 약해진다 헤여. 그래서 쪼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열매를 익기 전에는 가만이 봉헤져 있거든.(다섯 개까지, 없는가 보다 하면 다섯 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열매가 부드러우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열매가 요렇게 질겨서 속에 그 털같이 에, 억새, 저 억새꽃같이 담아진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해다

가 아기 홍역 할 때는 머리에 베고 자면 홍역이 약해진다 해. 그래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열매를 익기 전에는 가만히 봉해져 있거든.)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봉헤져 있는데 베게 밑에다 아이 자는데 홍역이 걸렷다 허면 아무 소리도 말고 톡 갖다가 멧 개 놔서 허면은 홍역이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새 사람덜은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헷지.(봉해져 있는데 베개 밑에다 아이 자는데 홍역이 걸렸다 하면 아무 소리도 말고 톡 갖다가 몇 개 놔서 하면 홍역이 가벼워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새 사람들은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지.)

102003 @ 재밋다예. 약초 닮은 건데 생이족박.(재미있네요. 약초 같은 건데 박주가리.)

102003 #1 예. 생이족박 거 약으로도 쓰고 지금 막 캐러도 다니거든.(예. 박주가리 그거 약으로도 쓰고 지금 막 캐러도 다니거든.)

102003 @ 아아, 봐봐시믄 좋겟다. 족박마씨? 족박?(아아, 봐봤으면 좋겠다. 족박요? 족박?)

102003 #1 그게 생이족박, 족박하니까 뭐 우린 무신 글자로 뭔 자로 쓰는지는 몰라. 근데 그거 일름은 여기 제주도 말로는 생이족박이라고 허는 게 그게 막 한참은 막 파러 다녓어.(그게 박주가리, '족박'하니까 뭐 우린 무슨 글자로 뭔 자로 쓰는지는 몰라. 그런데 그거 이름은 여기 제주도말로 '생이족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막 한참은 막 파러 다녔어.)

102003 @ 예예.(예예.)

102003 #1 술이 나젠 뭘 헐 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기고 다섯 번까지는 업는가부덴 허면은 줄거리 나가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그게 보신 약으로 먹는 그.(살이 나려고 뭘 할 때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기고 다섯 번까지는 없는가보다고 하면 줄기 나면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데 그게 보신 약으로 먹는 그.)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한약재로도 좋은 약재로도 쓰는 겁주.(한약재로도 좋은 약재로도 쓰는 겁지요.)

102003 @ 아이구, 그믄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아까와헷겟다예?(아이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귀여워했겠네요?)

102003 #1 아까와허면서도 엄허게 허니까 내 의견을 부모한테는 반항을 못 헤. 허허 헤서 탁 허면 엄격헤서 반항을 못 헤.(귀여워하면서도 엄하게 하니까 내 의견을 부모한테는 반항을 못 해. 허허 해서 탁 하면 엄격해서 반항을 못 해.)

102003 @ 아버지가 무서웁데가?(아버지가 무서웠습니까?)

102003 #1 예.(예.)

102003 @ 그때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닌 같이 살안마씨?(그때 할아버지는 안계시고 할머닌 같이 살았나요?)

102003 #1 예.(예.)

102003 @ 할머니도 아까와하고?(할머니도 귀여워하고?)

102003 #1 우리 할머니는 구십셋에 돌아가셧거든.(우리 할머니는 아흔셋에 돌아가셨거든.)

102003 @ 아아.(아아.)

102003 #1 게니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안아주고 헌 거는 기억에 나지.(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고 안아주고 한 거는 기억에 나지.)

102003 @ 아.(아.)

102003 #1 에, 우리가 흔 스물, 스물 흔 두어 개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셧어.(우리가 한 스물 스물 한 두어 개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102003 @ 할머니도 아까와 헤주고, 삼촌 멧 살 때 형제덜은 다 돌아가셔 불고, 애기 때 다?(할머니도 귀여워 해주고, 삼촌 몇 살 때 형제들은 다 돌아가셔 버리고, 애기 때 다?)

102003 #1 낳기 전에 나 탄생허기 전에 다 돌아가셔 불고, 나가 나오기 전에 다 돌아가버리니까.(낳기 전에 나 탄생하기 전에 다 돌아가셔 버리고, 내가 나오기 전에 다 돌아가버리니까.)

102003 @ 아이고 세상에. 잘도 아까와헷겟다예? 요전에 어제 노인회장님도 단아덜이렌 허멍.(아이고 세상에. 잘도 귀여워했겠네요? 요전에 어제 노인회장님도 외아들이라고 하면서.)

102003 #1 에?(에?)

102003 @ 노인회장님도 아덜 하나뿐이난 막 그냥 막 나무에만 올라가도 동네 사람덜이 걱정헤주고 막 경 헷덴 헹게.(노인회장님 아들 하나뿐이니까 막 그냥 마구 나무에만 올라가도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102003 #1 강성현씨 아덜 농축수산국장하다가 행정관으로 허다가 지금 퇴직헷는가 몰라. 이제 육십둘인데 그분의 아들이.(강성현씨 아들 농축수산국장하다가 행정관으로 하다가 지금 퇴직했는지 몰라. 이제 육십둘인데 그분의 아들이.)

102003 @ 성현 씨 말고 노인회장님.(성현 씨 말고 노인회장님.)

102003 #1 아, 노인 회장. 아, 노인 회장 아덜 둘.(아, 노인 회장. 아, 노인 회장 아들 둘.)

102003 @ 본인이 웨아덜이렌.(본인이 외아들이라고.)

102003 #1 동기간 없는 사람이야.(동기간 없는 사람이야.)

102003 @ 예.(예.)

102003 #1 누이도 엇고, 동기간 없고.(누이도 없고, 동기간 없고.)

102003 @ 단아덜, 단아덜.(외아들, 외아들.)

102003 #1 단아들.(외아들.)

102003 @ 선생님하고 똑같네요. 삼촌하고.(선생님하고 똑같네요. 삼촌하고.)

102003 #1 나는 누님 둘이 잇엇어.(나는 누님 둘이 있었어.)

102003 @ 아아, 누님 둘은 잇엇구나예.(아아, 누님 둘은 있었군요.)

102003 #1 예.(예.)

102003 @ 그게 어디라예? 외롭지.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마씨?(그게 어딘가요? 외롭지.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102003 #1 아 아니, 우리 큰 누님은 팔십둘에 돌아가고, 작은 누님은 쉰일곱에 돌아가니까 돌아간 지가 이거 멧 십 년 됏는데.(아 아니, 우리 큰 누님은 여든둘에 돌아가고, 작은 누님은 쉰일곱에 돌아가니까 돌아가신 지가 이거 몇 십 년 됐는데.)

102003 @ 그래도 누님이 청수 살안마씨?(그래도 누님이 청수 살았어요?)

102003 #1 우리 큰 누님은 살아시면은다가 구십팔 세거든.(우리 큰 누님은 살았으면 구십팔 세거든.)

102003 @ 그믄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누님 사랑 많이 받아신게마씨게?(그러면 할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누님 사랑, 많이 받았겠네요?)

102003 #1 예. 만이 귀여움은 받앗주.(예. 많이 귀여움은 받았지.)

102003 @ 어렸을 때 잘도예. 자그마하시고 아낍게예. 막 아ᄀᆞ와실 거 닮수다게. 자그마하시니까.(어렸을 때 정말로요. 자그마하시고 귀엽고요. 아주 귀여웠을 거 같습니다. 자그마하시니까.)

102003 #1 예. 게난 우리 큰누님쯤은 친자식 모냥으로 생각허거든. 열ᄋᆞ섯 살 우에니까.(예. 그러니까 우리 큰누님쯤은 친자식 모양으로 생각하거든. 열여섯 살 위니까.)

102003 #4 음. 청수, 청수.(음. 청수, 청수.)

102004 @ 삼촌은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랏습니까? 노는 거.(삼촌은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노는 거.)

102004 #1 노는 거는 빌레왓이니까니 흔어시 벗이 없어. 딱 저 강성현씨 형, 형허고 같이 동창이고 한문도 동창이고, 조수국민혹교도 동창이었고 이렇게 헷는데 노는 게 엇고 그 당시에는 그 왜정 때 조수국민학교, 이 산간에는 조수국민학교허고 검악국민학교베끼 없엇거던.(노는 거는 '빌레'밭이니까 한없이 벗이 없어. 딱 그 저 강성현씨 형, 형하고 같이 동창이고 한문도 동창이고, 조수초등학교도 동창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노는 게 없고 그 당시 그 왜정 때 조수초등학교, 이 산간에는 조수초등학교하고 금악초등학교밖에 없었거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겐디 거기가 간이셍이라고 헤가지고 요렇게 헤가지고 요걸 들어가는디 요디 들어가는디 신구스라이라고 헤가지고 모자를 하나는 요렇게 쓰고, 쓰고. 요거는 신고, 이제 스라이는 요렇게 쓴 게 스라이, 대장은 이렇게 쓰는 게 대장허면은.(그런데 거기가 '간이셍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들어가는데 요기 들어가는데 '신구스라이'라고 해가지고 모자를 하나는 요렇게 쓰고, 쓰고. 요거는 '신고', 이제 '스라이'는 요렇게 쓴 게 '스라이', 대장은 이렇게 쓰는 게 대장하면.)

102004 @ 한 번만 다시 헤줍서. 무싱 것이마씨? 어떵 쓰면?(한 번만 다시 해주

세요. 무슨 거요? 어떻게 쓰면?)

102004 #1 신구스라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대장은 요렇게 쓰고.('신구스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장은 요렇게 쓰고.)

102004 @ 대장은 그렇게 쓰고.(대장은 그렇게 쓰고.)

102004 #1 이제 신구는 요렇게 쓰고,(이제 '신구'는 요렇게 쓰고.)

102004 @ 거는 밑에 계급이 밑에라? 신구?(그거는 밑에 계급이 밑에야? '신구?')

102004 #1 밑에면 쓰고 요거는 이제 스라이, 요걸 잡는 놈이고 요걸 잡는 놈은 대장을 잡는 놈이고.(밑이면 쓰고 요거는 이제 '스라이', 요걸 잡는 놈이고 요걸 잡는 놈은 대장을 잡는 놈이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그니까 요 옆으로 쓴 놈이 대장을 보호할라고 허면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그니까 요 옆으로 쓴 놈이 대장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제 막 돌아 다니면서.)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그냥 막 그 뭐 허주기. 허허허허.(그냥 막 그 뭐 하지. 허허허허.)

102004 @ 모자를 세 가지 방법?(모자를 세 가지 방법?)

102004 #1 모자를 세 가지 써가지고 경 헤서 이제 서로 손 심으면서 그냥 보호할라고 헤서 이게 말허자면 요새 ᄀᆞ트민 아이덜이 전투허는 식이주게.(모자를 세 가지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손 잡으면서 그냥 보호하려고 해서 이게 말하자면 요새 같으면 아이들이 전투하는 식이지.)

102004 @ 그 놀이 이름이 뭐마씨?(그 놀이 이름이 뭐예요?)

102004 #1 신구스라이라고 헤여.('신구스라이'라고 해.)

102004 @ 신구스라이.('신구스라이'.)

102004 #1 게니까 그것도 일본말일거여. 이 일절 왜정 때에는 우리말을 못 쓰게 헷거든.(그러니까 그것도 일본말일거야. 이 일절 왜정 때에는 우리말을 못 쓰게 했거든.)

102004 @ 예. 다마치기, 빠치치기 뭐 이런 거 안 헤낫수과? 삥이치기, 자치기.(예.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이런 거 안 했었습니까? 삘기치기, 자치기.)

102004 #1 빠치치기 ᄀᆞ튼 거는 헷는디 주로 어렷을 적에. 제일 어렸을 때는 땅따먹을락이라고 헤여.(딱지치기 같은 거는 했는데 주로 어렸을 적에. 제일 어렸을 때는 '땅 따먹을락'이라고 해서.)

102004 @ 아아, 어렸을 때는예.(아아, 어렸을 때는요.)

102004 #1 땅 따먹을락은 뭐냐면은 네모반뜻허게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 사금파리 벌러진 놈 요렇게 놔서 저거 허고 마칠레기 헤가지고 마치면은 거기서 이렇게 손 영 놩 그렁 요것이 따먹는 거. 이게 말허자면 전정허는 식이고, 또 ᄒᆞ썰 학교 뎅기당 ᄋᆞᆨ으면은 소나무, 소나무가 아주 미렵게 올라간 거 있으면은, 요 ᄆᆞ작 올로 헤

서 요거 진 놈 헤서 올로 ᄆᆞ작을 반으로 쫄라 불고, 올로 요렇게 헤서 허면은 욜로 칼로 영 돌뢍 돌로 독독 두드리민은 쫙 벗어져. 경 허면은 일본놈 그 저 니뽄도, 일본도 모냥으로 짝허게 벗어지면은 이제 칼싸움허는 거.('땅 따먹을락'은 뭐냐면 네모반듯하게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 사금파리 쪼개진 놈 요렇게 놔서 저거 하고 맞히기 해 가지고 맞히면 거기서 이렇게 손 이렇게 놔서 그려서 요것이 따먹는 거. 이게 말하자면 전쟁하는 식이고, 또 조금 학교 다니다가 철들면 소나무, 소나무가 아주 미끈하게 올라간 거 있으면, 요 마디 요리로 해서 요거 긴 놈 해서 여기로 마디를 반으로 잘라 버리고, 요리로 요렇게 해서 하면 요리로 칼로 이렇게 도려내어 돌로 톡톡 두드리면 쫙 벗겨져. 그러면 일본놈 그 저 '니뽄'도, 일본도 모양으로 짝하게 벗겨지면 이제 칼싸움하는 거.)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소나무 헤가지고 껍데기.(소나무 해가지고 껍데기.)

102004 @ 소나무 작은 애기 소나무?(소나무 작은 아기 소나무?)

102004 #1 예. 애기 소나문디 그냥 우리 키 정도 쪼금 더 뭰 나무허면 우에가 요만큼 길거든. 길면은 이제 짤라 가지고 게난 이건 도둑질로 헤야지. 밧 임자가 보면은 혼이 나거든. 그렇게 헤서 이제는 마주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 게 학교에서도 기본이 나오거든. 보껭이라고 헤가지고 일본시대는 초등학교에 칼이 잇어. 일본도, 그 니뽄도 모냥으로 그거 헤가지고 육학년이 뒈면은 칼싸움을 시키거든.(예. 아기 소나문데 그냥 우리 키 정도 조금 더 된 나무하면 위가 요만큼 길거든. 길면 이제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도둑질로 해야지. 밭 임자가 보면 혼이 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마주 잡아서 이렇게 하거든. 그게 학교에서도 기본이 나오거든. '보껭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시대는 초등학교에 칼이 있어. 일본도, 그 '니뽄'도 모양으로 그거 해가지고 육학년이 되면 칼싸움을 시키거든.)

102004 @ 음.(음.)

102004 #1 이제 그걸 본봐 가지고 소나무를 쫄라 가지고 그 대신 친구들끼리 이제는 쌉는 식을 허는 거라. 그런 놀이.(이제 그걸 본떠 가지고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그 대신 친구들끼리 이제는 싸우는 식을 하는 거야. 그런 놀이.)

102004 @ 칼싸움예? 칼싸움도 하고.(칼싸움요? 칼싸움도 하고.)

102004 #1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건데는 전쟁이 끈어지질 안 헌 거라. 그러니 이 시변이 시변을 옛 어른덜이 말허는 걸 보면은, 시변이 분명이 잇어. 자꾸 세대가 흘르는 만썩 싸움도 나고, 이제 몰릴 사람도 잇고 영 허는데, 그 당시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우리 키 정도 뒈면은 그 우에 흔 ᄆᆞ작만 죽어 불어. 아무 이유 없이. 소나무가 죽는 나무가 아닌데, 대동아전쟁 해서 막 뭐 헐 때는 그렇게 허고, 죽실이라고 헤서 대가 열매를 올아.(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이 끊어지질 않은 거야. 그러니 이 사변이 사변을 옛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면, 사변이 분명히 있어. 자꾸 세대가 흐르는 만큼씩 싸움도 나고, 이제 말릴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우리 키 정도 되면

그 위에 한 마디만 죽어 버려. 아무 이유 없이. 소나무가 죽는 나무가 아닌데, 대동아전쟁 해서 막 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죽실이라고 해서 대가 열매를 열어.)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옛 어른덜이 말이 이렇게 허면은 어, 죽실이라고 허는 것은, 옛날도 신선이나 신선은 죽실을 먹고 산다고 헤.(옛 어른덜이 말이 이렇게 하면 어, 죽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도 신선이나 신선은 '죽실'을 먹고 산다고 해.)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그러는데 죽실이 이렇게 뒈고, 소나무가 이렇게 뒈면 국변이 셍긴다. 국변이 셍긴다. 왜정 때에 정치나 ᄆᆞ을 구장만 뒈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저런 말을 허지를 못 헤여. 겐 우린 즉은 동네에 사니까 학자덜은 전부 우리 집으로 모여, 우리 아버지가 한문 쫌 베웟으니까 그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문만 가르치자는 가야. 신학을 몰라. 게니까 요지금 시상은 신학을 몰르는 건 멍청이라. 지금 저 누구나 나나 지금 학교 졸업을 못 헷거든. 게니까 싸인을 헐라고 하면 누구도 이룰 성 자를 쓴단 말이여. 꼬부랑 글을 영 못 헌단 말이여게. 요즘 중학교 이런 데라도 가서도 싸인을 허는데.(그런데 죽실이 이렇게 되고, 소나무가 이렇게 되면 국변이 생긴다. 국변이 생긴다. 왜정 때에 정치나 마을 구장만 되는 사람 앞에서도 그런 저런 말을 하지를 못 해. 그래서 우린 작은 동네에 사니까 학자들은 전부 우리 집으로 모여, 우리 아버지가 한문 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한문만 가르치자는 거야. 신학을 몰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신학을 모르는 건 멍청이야. 지금 저 누구나 나나 지금 학교 졸업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사인을 하려고 하면 누구도 이룰 성 자를 쓴단 말이야. 꼬부랑 글을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요즘 중학교 이런 데라도 가서 가서도 사인을 하는데.)

102004 @ 싸인 여러 가지로 헤도 뒈요(사인 여러 가지로 해도 돼요.)

102004 #1 신학을 못 베와서 한문을 배울려고 허다가 보니까 한문 글짜베끼 손이 안 돌아가. 나나 지금 그러거든. 지금, 요지금 고등학교나 어느 정도 대학 뎅기는 아이덜이 붓으로 글을, 한문을 쓰라고 허면 우리만 못헤. 우리도 써 가민 ᄂᆞᆷ이 나무레진 안 헤여. ᄂᆞᆷ덜이 잘 썻젠은 안 허는데 못 썻젠은 말은 피헤져. 예.(신학을 못 배워서 한문을 배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한문 글자밖에 손이 안 돌아가. 나나 지금 그러거든. 지금, 요즘 고등학교나 어느 정도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붓으로 글을, 한문을 쓰라고 하면 우리만 못해. 우리도 써 가면 남이 나무라진 안 해. 남들이 잘 썼다고는 안하는데 못 썼다는 말은 피해져. 예.)

102004 @ 게믄 조수국민학교가 검악국민학교보다 가까왓수과? 여기선.(그러면 조수국민학교가 금악국민학교보다 가까웠습니까? 여기서는.)

102004 #1 검악은 상명허곡 거기만 헷고.(금악은 상명하고 거기만 했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그때는 이시돌도 엇엇고.(그때는 이시돌도 없었고.)

102004 @ 이시돌도 엇엇고.(이시돌도 없었고.)

102004 #1 여기에서는 청수, 저지, 낙천.(여기에서는 청수, 저지, 낙천.)

102004 @ 아아, 다.(아아, 다.)

102004 #1 저 신창 우에 저 한원 우에 저 그 무싱 거고 보쿠문이엔 허니까, 그 동네는 명이동, 저 월광동, 저 산양 여기가 전부 조수국민학교로 갓거든.(저 신창 위에 저 한원 위에 저 그 무엇이고 '보쿠문'이라고 하니까, 그 동네는 명이동, 저 월광동, 저 산양, 여기가 전부 조수국민학교로 갔거든.)

102004 @ 조수예? 지금 조수국민학교 잇수과?(조수요? 지금 조수국민학교 있습니까?)

102004 #1 폐교뒈 불엇거든.(폐교돼 버렸거든.)

102004 @ 아오야.(아오야.)

102004 #1 낙천, 저청이 셍겨나 부니까 이제 지금도 원순디 조수허고 이제 저청허고 혹교가 분리가 뒈다보니까 중학교나 낙천리나 넘어와야 당연이 단체가 뒈어서 좋을 건디 신창더레 빠진단 말이라, 신창이 더 멀거든.(낙천, 저청이 생겨 버리니까 이제 지금도 원순데 조수하고 이제 저청하고 학교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중학교나 낙천리나 넘어와야 당연히 단체가 돼서 좋을 건데 신창으로 빠진단 말이야, 신창이 더 멀거든.)

102004 @ 아이고 아깝다예. 어쨋든 역사는 제일 오래된 데가 조수국민학곤데.(아이고 아깝네요. 어쨌든 역사는 제일 오래된 데가 조수초등학교인데.)

102004 #1 예. 조수 양촌이라고 허거든.(조수 양촌이라고 하거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게난 옛날에는 우리 조상덜이 뭔가 나라에서 그래도 흔번 잡을라고 허는 사람덜이 째서 나오라 노니까 우리가 알게 뒈고, 수삼수건 나건 디가 흔 육십 흔 칠팔년 뒈엇나? 헌데 한문 선생님이 없는 동네가 없어. 엇는 마을이 없고, 게서 나가 보건데 경 허거든. 신구간이라고 허는 것은 제주도베낀 없다. 문법이 제주도에서 만들어 논 문법은 난 아니라고 생각허여. 모든 예절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헤서 그냥 아는 사람덜이 보니까 신구간을 나가 비결을 찾아서 허다가 보니까 신구간 문제가 나왔더라고. 나온 것이 그게 제주도에서 나온 책이 아니라. 에, 비결로 나온 책인디, 신후간이더라고.(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뭔가 나라에서 그래도 한번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째서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알게 되고, 사삼사건 난 지가 한 육십 한 칠팔년 되었나? 그런데 한문 선생님이 없는 동네가 없어. 없는 마을이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렇거든. '신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밖엔 없다. 문법이 제주도에서 만들어 놓은 문법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 모든 예절이 넘어오고, 넘어오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이 보니까 '신구간'을 내가 비결을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신구간' 문제가 나왔더라고. 나온 것이 그게 제주도에서 나온 책이 아니야. 비결로 나온 책인데, '신후간'이더라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1 신구간이 아니고 우리 방송에도 신구간으로 허는데 신구간이 아니고

신후간이라고 이 비 후 자인디, 이 요렇게 헤가지고 영헌 제, 이 가문에서 아무 후인이엔 쓰는 비 후 자, 비 후 제가 둘 아니과예? 이 성씨에 대해서 아무 후인 누구라고 허는 데, 그 후제를 써가지고 어, 논설을 보니까 신이 승천헤 버리니까 그때는 사람덜 ᄀᆞ트면 주인 엇인 집이 누게 뒤젼 가부리니까 허물이 없다는 거여. 육지에는 우리가 모슬포에 훈련받을 때 강 보면은 육지 사람덜은 팔십 프로는 핫바지여. 게 글을 잘 몰라. 그 가운데 공부를 헌 아이덜이 멧 개 잇어서 고향더레 편지를 허라고 허면은 십여 명이 포위를 허여. 나, 나, 나혜서. 가지고 입으로 자기가 어디 전라도민 전라도 어느 마을ᄁᆞ장베끼 아방 일름, 어멍 일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수준이 펭균적으로 얕아진 거라. 우리 제주도는 나가 볼 때는 어느 마을이던지 한문선생이 두세 사람 잇는 딘 보통이랏거든. ᄉᆞ삼ᄉᆞ건 때ᄁᆞ진. 그레노니까 모든 그런 예절이 앞서 잇지 않느냐? 육지 사람이 나 흔번 병원에 간 나무레더라고 왜 감자보고 지실이라고 허느냐? 이거야. 뭔 소릴 허고 있느냐고 지실이 따지자 열매 실 자지. 땅 속에 열매지. 뭐 거 무식헌 말이냐? 허니까 헐 말이 없나? 헐 말이 답변 헐 재료가 잇어.(‘신구간’이 아니고 우리 방송에도 ‘신구간’으로 하는데 ‘신구간’이 아니고 ‘신후간’이라고 이 비 후 잔데, 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자, 이 가문에서 아무 후인이라고 쓰는 비 후 자, 비 후 자가 둘 아닌가요? 성씨에 대해서 아무 후인 누구라고 하는 데, 그 후제를 써가지고 논설을 보니까 신이 승천해버리니까 그때는 사람 같으면 주인 없는 집에 누가 뒤져서 가버리면 없다고 허물이 없다는 거야. 육지에는 우리가 모슬포에 훈련받을 때 가서 보면 육지 사람들은 팔십 프로는 핫바지야. 그것이 글을 잘 몰라. 그 가운데 공부를 한 아이들이 몇 개 있어서 고향으로 편지를 하라고 하면은 십여 명이 포위를 해. 나, 나, 나 해가지고 입으로 자기가 어디 전라도면 전라도 어느 마을까지밖에 아버지이름, 어머니이름만 알고 쓸 줄을 모르니까 그렇게 수준이 평균적으로 얕아진 거야. 우리 제주도는 나가 볼 때는 어느 마을이든지 한문선생이 두 세 사람 있는 데 보통이었거든. 사삼사건 때까진 그래 버리니까 모든 그런 예절이 앞서 있지 않느냐? 육지 사람이 나 한번 병원에 간 나무라더라고 왜 감자보고 ‘지실’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뭔 소릴 하고 있느냐고 ‘지실’이 따 지 자 열매 실 자지. 땅 속에 열매지. 뭐 거 무식한 말이냐? 하니까 할 말이 없나? 할 말이 답변할 재료가 있어.)

102004 @ 허허허허.(허허허허.)

102004 #1 허허, 게니까 배운 사람이.(허허,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

102004 @ 아아, 지실도 영 헤 보난 또 지실도 한자말이다예?(아아, 감자도 이렇게 해 보니까 또 감자도 한자말이네요?)

102004 #1 예?(예?)

102004 @ 지실, 한자말 뒈불어서?(‘지실’, 한자말 되 버렸네요?)

102004 #1 그렇지. 우리 허는 말이 전부 한자풀이 말이거든.(그렇지. 우리 하는 말이 전부 한자풀이 말이거든.)

102004 @ 아아, 난 제주도 말이 지실인줄 알아신디.(아아, 난 제주도 말이 ‘지

실’인줄 알았는데.)

102004 #1 알 지 제, 심을 식 자 아니여. 알 지 제, 심을 식 자. 아 변호사라고 말 잘할 변 자 아니라게?(알 지 자, 심을 식 자 아니야. 알 지 자, 심을 식 자. 아 변호사라고 말 잘할 변 자 아니라게?)

102004 @ 게난.(그러니까.)

102004 #1 서로 호 제, 선비 사 자 헤가지고.(서로 호 자, 선비 사 자 해가지고.)

102004 @ 지실은 게도 제줏말인 줄 알아신디.(‘지실’은 그래도 제주 말인 줄 알았는데.)

102004 #1 지실은. 모든 게, 겐디 이 시상이 흘러가면은 교과서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일본놈 말이나 우리말이나 똑같아.(‘지실’은. 모든 게, 그런데 이 세상이 흘러가면 교과서를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일본놈 말이나 우리말이나 똑같아.)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거의 같아. 거의 같아.(거의 같아. 거의 같아.)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겐디 이게 내가 보건데는 국민학교라고 헷는데 왜정 때에는 우리가 조수 데닐 때는 쇼세이고리스 고꾸민가꼬 라고 헷는데.(그런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왜정 때에는 우리가 조수 다닐 때는 ‘쇼세이고리스 고꾸민가꼬’ 라고 했는데.)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요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거든.(요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거든.)

102004 @ 예예.(예예.)

102004 #1 공립국민학교라고 이레 우리말로는 헷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일본놈의 시류가 뒈다보니까 바꿔치기로 이제 그리 허지 말자.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공립국민학교라고 우리말로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일본놈의 시류가 되다보니까 바꿔치기로 이제 그리 하지 말자.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102004 @ 예.(예.)

102004 #1 왜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 국민이다 자격을 헤서 보넷는데 왜 초등학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여.(왜 초등학교? 국민학교. 우리 국민이다 자격을 헤서 보냈는데 왜 초등학교?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야.)

102004 @ 일본에서 써 불고 자기네 국민이라는 뜻으로 우리 식으로 하자.(일본에서 써버리고 자기네 국민이라는 뜻으로 우리 식으로 하자.)

102004 #1 이 학자덜이 난 그렇게 변화를 가진 것 같아.(이 학자들이 난 그렇게 변화를 가진 것 같아.)

102004 @ 예.(예.)

102004 #1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모든 게 따라 나가는 게.(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게 따라 나가는 게.)

102004 @ 게난 다 우리가 썻던 말덜은 알앙 놔두민 좋은 거 닮아마씨.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잇엇고.(그러니까 다 우리가 썼던 말들은 알아서 놔두면 좋은 거 같아요.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102004 @ 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랏습니까?(어릴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02004 #3 아아, 그 우리 놀이겟ᄀᆞ심은 아무것도 엇어서양. 제기차기허고.(아아, 그 우리 장난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기차기하고.)

102004 @ 제기차기.(제기차기.)

102004 #3 아, 우리 국민ᄒᆞ교 뎅길 때는 아이 그짓말이 아니라 제기차는 건 나도 두 번째가렌 허믄.(아,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제기차는 건 나도 둘째가라 하면.)

102004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4 #3 지금도 제기는 잘 차예.(지금도 제기는 잘 차요.)

102004 @ 예.(예.)

102004 #3 응. 제기는 잘 차는데 제기차기 잘 허는 건 그 제기차고 백 개 가서, 백 개 차근에 데겡이에 올리고.(응. 제기는 잘 차는데 제기차기 잘 하는 건 그 제기차고 백 개 가서, 백 개 차서 머리에 올리고.)

102004 @ 오.(오.)

102004 #3 제기 차. 데겡이에 올리고 네리고, 올리고 네리고.(제기 차. 머리에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102004 @ 오.(오.)

102004 #3 허는 것도 이게 ᄒᆞᆫ 사람이 멧 개를 헤사. 겐디 그 제기찰 적에 춤 종에가 어린 때 그 종에가 아프지 않으민 뭐 삼ᄉᆞ백 개, 오백 개 그냥 뭐 ᄒᆞᆫ짱 엇이 그 뭐 ᄒᆞ루 종일이라도 들어앉지 않으민 차게 뒈는 거.(하는 것도 이게 한 사람이 몇 개를 해야. 그런데 그 제기찰 적에 참 종아리가 어릴 때 그 종아리가 아프지 않으면 뭐 삼사백 개, 오백 개 그냥 뭐 한정 없이 그 뭐 하루 종일이라도 들어앉지 않으면 차게 되는 거.)

102004 @ 정말 삼백 개, 사백 개마씨?(정말 삼백 개, 사백 개요?)

102004 #3 예.(예.)

102004 @ 어유.(어유.)

102004 #3 그리고 다마치기.(그리고 구슬치기.)

102004 @ 예.(예.)

102004 #3 구슬.(구슬.)

102004 @ 예.(예.)

102004 #3 그 다마치기허곡, 빠짱치기허곡, 빠짱치기허면서 손콥 일러분 것도 춤.(그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딱지치기하면서 손톱 잃어버린 것도 참.)

102004 @ 하, 골아봅서.(하, 말해 보세요.)

102004 #3 칵 그거 먹젠 두드리당은에 이놈의 새끼가 그 빠짱 알러레 놓멍 이 땅에 강 탁 두드려불민.(칵 그거 먹으려고 두드리다가 이놈의 새끼가 그 딱지 아래에 놓으면서 이 땅에 가서 딱 두드려버리면.)

102004 @ 아, 아이고.(아, 아이고.)

102004 #3 손콥이 들러지고 손콥도 멧 번사 뭐 갈아치왓는지 뭐 모르고.(손톱이 들뜨고 손톱도 몇 번에야 뭐 갈아치웠는지 뭐 모르고.)

102004 @ 그것 때문에마씨?(그것 때문에요?)

102004 #3 아이고. 응.(아이고. 응.)

102004 @ 아이고, 그믄 그 동네 또래 아이덜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꽈?(아이고, 그러면 그 동네 또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까?)

102004 #3 그거 뭐.(그거 뭐.)

102004 @ 하하, 가운데 손콥마씨?(하하, 가운데 손톱이요?)

102004 #3 가운데 손콥. 이 탁 두드리민 제일 진 거라 노니까.(가운데 손톱. 이 탁 두드리면 제일 긴 거라 버리니까.)

102004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4 #3 파지지. 게난 그디 허곡 못치기.(파지지. 그러니까 거기 하고 못치기.)

102004 @ 못치기예. 거 돌이꽈? 못치기가?(못치기요. 거 돌입니까? 못치기가?)

102004 #3 못. 못. 왜못.(못. 못. 왜못.)

102004 @ 아아. 못치기.(아아. 못치기.)

102004 #3 못을 땅에다가 꼿아 놓곡.(못을 땅에다가 꽂아 놓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그 옆으로 확 후려근에 이거 막안 떨어지게 뒈민 이녁 건 이디 박아지고 이디 박아진 놈이 것이 나강 떨어지민 나강 이녁이 줏어 오고.(그 옆으로 확 후려서 이거 막아서 떨어지게 되면 이녁 건 여기 박히고 여기 박힌 남의 것이 나가서 떨어지면 나가서 이녁이 주워 오고.)

102004 @ 손으로 아니고 나무로마씨?(손으로 아니고 나무로요?)

102004 #3 못, 못. 못으로.(못, 못. 못으로.)

102004 @ 아니면 못으로 꽂아진 걸로 뭘로? 손으로? 아니면 또 못으로?(아니면 못으로 꽂아진 걸로 무엇으로? 손으로? 아니면 또 못으로?)

102004 #3 못을 꼬질 거 아니? 상대방이 영 못을 꽂이면은 또 내가 손으로. 두드리멍 나 못이 박아져야 뒈어.(못을 꽂을 거 아니? 상대방이 이렇게 못을 꽂으면 또 내가 손으로. 두드리면서 내 못이 박혀야 돼.)

102004 @ 것이 못치기예?(것이 못치기요?)

102004 #3 응. 못치기.(응. 못치기.)

102004 @ 처음 들어봄수다. 경헨 하면 뭘 줘마씨? 이기민.(처음 들어봅니다. 그

렇게 해서 하면 뭘 줘요? 이기면.)

102004 #3 이기민 못만 따오는 거지.(이기면 못만 따오는 거지.)

102004 @ 못을 따가는 거예 하하.(못을 따가는 거요 하하.)

102004 #3 주는 게 없었지.(주는 게 없었지.)

102004 @ 그 못은 어디 강 살 거 아니예?(그 못은 어디 가서 살 거 아닌가요?)

102004 #3 겨난 집이 공장에 못이엔 헌 건 다 빠당 다 써 불곡 하하.(그러니까 집에 공장에 못이라고 한 건 다 빼다가 다 써 버리고 하하.)

102004 @ 쯧쯧쯧.(쯧쯧쯧.)

102004 #3 게난 아방 잇는 사람덜은 아덜애기 못 빠단 일러불민 그자락 헹 일러불만 ᄉᆞ믓 이웃집이서 셍야단이 낫지. 이놈의 새끼! 못 받안 어디 강 쳐 뽑아 불어시. 아이고, 나도 히히히, 나도 그 저 뭐냐 거ᄀᆞ라 뭐셍 ᄒᆞ느냐 우리 헐 때는 거 클이엔 ᄀᆞᆯ앗는데. 이 클이엔 헌 건 뭐냐 허민 보리 홀트고.(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아들애기 못 빼다가 잃어버리면 그처럼 해서 잃어버리면 사뭇 이웃집에서 생야단이 났지. 이놈의 새끼! 못 받아서 어디 가서 쳐 뽑아 버렸니. 아이고, 나도 히히히, 나도 그 저 뭐냐 그거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할 때는 거 틀이라고 말했는데. 이 틀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 보리 훑고.)

102004 @ 예. 보리클.(예. 보리그네.)

102004 #3 보리 홀트고 산듸 홀트고 허는 거. 요런 알멩이엔 헌 거 콕콕 그거 믄딱 빠당 박앙 헤난 거 그거 믄딱 빠다네 그 못치기헹 다 일러불고 히히, 어머니안테 또 졸음페기 맞이멍 아이고.(보리 훑고, 밭벼 훑고 하는 거. 요런 알맹이라고 한 거 콕콕 그거 모두 빼다가 박아서 했었던 거 그거 모두 빼다가 그 못치기해서 다 잃어버리고 히히, 어머니한테 또 엉덩이 맞으면서 아이고.)

102004 @ 조름페기마씨?(엉덩이요?)

102004 #3 조름페기옌 헌 건.(엉덩이라고 헌 건.)

102004 @ 엉덩일 조름페기옌 헙니까?(엉덩일 '조름페기'라고 합니까?)

102004 #3 조름페긴 이 엉덩이 맞으멍.('조름페기'는 이 엉덩이 맞으면서.)

102004 @ 아아, 엉덩일 조름페기옌 헙니까?(아아, 엉덩일 '조름페기'라고 합니까?)

102004 #3 몰라. 뚠 디선 어떵사 허는지 몰라도.(몰라. 딴 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02004 @ 이런 말들이예. 중요헌 말이고예. 완전 잘헴싱게마씨. 이런 거. 칠십대 놀이허곡, 팔십대 놀이허곡.(이런 말들이요. 중요한 말이고요. 완전 잘하네요. 이런 거. 칠십대 놀이하고, 팔십대 놀이하고.)

102004 #9 멧 시까지 헐 꺼? 멧 시까지 헐 꺼? 나 집이 갓다 오크메.(몇 시까지 할 거? 몇 시까지 할 거? 나 집에 갔다 올 테니.)

102004 @ 문 닫아야 뒈마씨?(문 닫아야 돼요?)

102004 #9 아니, 사무실은?(아니, 사무실은?)

102004 @ 혼 시까지.(한 시까지.)

102004 #9 혼 시까지.(한 시까지.)

102004 @ 예.(예.)

102004 #3 아니, 아니. 그 저 우리 경로당에 강 허주 뭐.(아니, 아니. 그 저 우리 경로당에 가서 하지 뭐.)

102004 #9 경 헙서. 걸랑 경로당에 강. 나 집이 얼른 갓다 오크메.(그렇게 하세요. 걸랑 경로당에 가서. 나 집에 얼른 갔다 올 테니.)

102004 @ 경로당 가가와마씨?(경로당 가까워요?)

102004 #9 바로 여기.(바로 여기.)

102004 @ 이장님 멧 시에 오실 거마씨?(이장님 몇 시에 오실 거예요?)

102004 #9 여기 이십서게. 나 집이 얼른 갓다 오크메.(여기 있으세요. 나 집에 얼른 갔다 올 테니.)

102004 #3 경 헙서게.(그렇게 하세요.)

102004 @ 예. 왓다갓다. 조름페기 맞이멍 허곡, 자치기? 또 이 펭이치기 이런 것도 헷수과? 연날리기?(예. 왔다갔다. 엉덩이기 맞으면서 하고, 자치기? 또 이 팽이치기 이런 것도 했습니까? 연날리기?)

102004 #3 펭이는 나가 잘 만들앗어요.(팽이는 내가 잘 만들었어요.)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견디 펭이치기를 허는디 그 뭐 우리 여기 말로 신사라옌 헌 거. 신사라옌 헌 거는 풀이 쭉쭉 뻗어 가는 건데, 그 우리가 그걸 헤가지고 뚜뜨려근에 배 멘들곡 옛날 하르방덜 배 멘들아근에 뭐 이 쓰곡 무싱 걸 허는 건디 그걸 팽이채 멘들앙 뚜드리게 뒈면은 웽 허멍 바로 저 고동소리가 나요, 그거. 그게 이 너무 솔찐 거는 고동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거 ᄒᆞ쏠 끈시롱허게 헌 거 멘들아 가지고 넷다 골기게 뒈믄 춤 하하하하.(그런데 팽이치기를 하는데 그 뭐 우리 여기 말로 '신사라'라고 한 거. 신서란이라고 한 거는 풀이 쭉쭉 뻗어 가는 건데, 그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두드려서 배 만들고 옛날 할아버지들 배 만들어서 뭐 쓰고 무슨 걸 하는 건데 그걸 팽이채 만들어서 두드리게 되면 웽 하면서 바로 저 고동소리가 나요, 그거. 그게 이 너무 살찐 거는 고동소리가 잘 안 나는데 이제 그거 조금 가늘게 한 거 만들어 가지고 냅다 갈기게 되면 참 하하하하.)

102004 @ 고동소리라 하는 거는.(고동소리라 하는 거는.)

102004 #3 웽 허는 소리주. 웽. 놀아가는 소리.(웽 하는 소리지. 웽. 날아가는 소리.)

102004 @ 아아. 지금도 무슨 나무로 만들어마씨?(아아. 지금도 무슨 나무로 만들어요?)

102004 #3 그거는 참나무.(그거는 참나무.)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그거 제일 그 나무가 젤 존 게 무슨 나무냐면 감나무.(그거 제일 그

나무가 제일 좋은 게 무슨 나무냐면 감나무.)

102004 @ 아.(아.)

102004 #3 감나무가 제일.(감나무가 제일.)

102004 @ 땡감나무예?(땡감나무요?)

102004 #3 응.(응.)

102004 @ 참나문 도토리나무가 참나무지예?(참나문 도토리나무가 참나무지요?)

102004 #3 참나문 도토리나문디 그걸로도 허기는 허는 디 그거보다 소리 낭 놀아 나는 건 감나무. 감나무가 최고예요.(참나문 도토리나문데 그걸로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보다 소리 나서 날아 나는 건 감나무. 감나무가 최고예요.)

102004 @ 누가 가르쳐줜마씨? 어떵 헹 걸 잘 알아마씨?(누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해서 걸 잘 알아요?)

102004 #3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재건헹 내려완에 탁 와근에 만든 게 연을 만들엇어예. 연을 만들안 정연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도 띄우니까 저레 떠가는디 연술을 실, 연술을 헤가지고 나 몸뚱이에 졸마멩 무꺼서 네부니까 이놈의 연이 날 창 돌아가멍 게난 어머니, 아버지네는 난간이라고 그 마루.(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재건해서 내려와서 탁 와서 만든 게 연을 만들었어요. 연을 만들어서 정연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 앞에도 띄우니까 저기 떠가는데 연술을 실, 연술을 해가지고 내 몸뚱이에 졸라매서 묶어서 내버리니까 이놈의 연이 날 채어서 달려가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네는 난간이라고 그 마루.)

102004 @ 마루 앞에.(마루 앞에.)

102004 #3 앞에. 그 저 마루에 들어가는 문 베낏디 요디 요렇게 걸.(앞에. 그 저 마루에 들어가는 문 바깥에 요기 요렇게 걸.)

102004 @ 터 앉는 디가 잇어예.(터 앉는 데가 있어요.)

102004 #3 나는 그디 앚아둠서 그디 앚아둠서 우시기만허곡 나는 연을 찬 저레 걸어가는데 나는 앞 담에 걸어졍 앵앵 우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또 이제 날 심으레 우리 아부지는 날 날 심지 못허게 내불라 거 즈들려야 뒌다. 헹 모두 웃음 차제기 허멍 나중에 막 울어가니까 이넉네만 들구 우시멍허단 연날리기, 무슨 펭이치기, 구슬치기. 이거 뭐 빠장치기, 못치기, 이게 뭐 나는 그러니까 데겡이는 멍텅허연 공부도 못허고 무싱 거 헷는데 그런 놈의 장난은 얼마나 잘헷는지 몰라.(나는 거기 앉아서 거기 앉아서 웃기만하고 나는 연을 차서 저리 걸어가는데 나는 앞 담에 걸려서 앵앵 우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또 이제 날 잡으러 우리 아버지는 날 날 잡지 못하게 내버리라 거 '즈들려야' 된다. 해서 모두 웃음 '차제기' 하면서 나중에 막 울어가니까 이넉네만 계속 웃으면서 하다가 연날리기, 무슨 팽이치기, 구슬치기. 이거 뭐 딱지치기, 못치기, 이게 뭐 나는 그러니까 머리는 멍청해서 공부도 못하고 무슨 거 했는데 그런 놈의 장난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102004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4 #3 뭐 장난에는 춤 최고라. 우리 국민학교 시절 요즘 그 평헹봉이엔 허

주 거. 그때는 그거 보고 세꼬보라 그랫어. 세꼬보.(뭐 장난에는 참 최고야. 우리 국민학교 시절 요즘 그 평행봉이라고 하지 거. 그때는 그거 보고 '세꼬보'라 그랬어. '세꼬보'.)

102004 @ 평헹봉을 세꼬보?(평행봉을 '세꼬보'?)

102004 #3 응. 평헹봉을 세꼬보라 그랫는데 그. 그거 우티서 나가 놀아십주.(응. 평행봉을 '세꼬보'라 그랬는데 그. 그거 위에서 내가 놀았죠.)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뚠 사람덜은 무서와근에 그디서 뱅뱅 돌멍 이레 돌아각 저레 돌아각 그거.(딴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기서 뱅뱅 돌면서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그거.)

102004 @ 운동신경이 좋앗나부다예. 뭐 줄넘기나 고무줄 여자덜 헙디가?(운동신경이 좋았나 보네요. 뭐 줄넘기나 고무줄 여자들 합디까?)

102004 #3 그렇죠. 여자덜은 그 고무줄 헤가면은 우리는 가근에 그거 빼가멍 혹교 시절에 그 장난. 에그, 참 경 정 허멍 살단 뭬려 보난 이젠.(그렇죠. 여자들은 그 고무줄 해가면 우리는 가서 그거 빼가면서 학교시절에 그 장난. 에그, 참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다가 봐 보니까 이젠.)

102004 @ 게믄 저 학교는 이 청수, 저청 초등학교가 그때 잇엇수과? 삼촌.(그러면 저 학교는 이 청수, 저청 초등학교가 그때 있었습니까? 삼촌.)

102004 #3 예.(예.)

102004 @ 초등학교가?(초등학교가?)

102004 #3 국민학교가.(국민학교가.)

102004 @ 멧 회 졸업셍 뒈는 거꽈? 그믄.(몇 회 졸업생 되는 겁니까? 그러면.)

102004 #3 우리 오훼요.(우리 오회요.)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오휀디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우리 졸업헐 때ᄁᆞ장만 헤도 그 우리 졸업헤 가지고 우리 후배덜ᄁᆞ장만 헤도 흔 십훼ᄁᆞ장인가? 십이훼ᄁᆞ장은 저청도 조수도 가고 운동회 때마다 영 돌아뎅기는데, 운동회 때만은 신창도 가고, 조수 가고 돌아뎅기는데 그 저청, 우리 횟수 우리보다 흔 삼 여하튼 십훼 미만은 한경에서 최고라서마씨. 그 저 그 릴레이라고 헤가지고 그 ᄃᆞᆯ음박질, ᄃᆞᆯ음박질 거 허는 거 헤근에 각 혹교마다 거 무슨 거옌 허는데 그게 왜 최고엿느냐허면은 우리 헐 때는 나이 차이가 우리허고 나이 차이가 멧 술 난 사람덜이 ᄀᆞ치 동창이엔 허느냐 하면 동창 나중에 알안덜 보니까 ᄋᆞ듭 술, 아홉 술.(오휀데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우리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 우리 졸업해 가지고 우리 후배들까지만 해도 한 십회까지인가? 십이회까지는 저청도 조수도 가고 운동회 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운동회 때만은 신창도 가고, 조수 가고 돌아다니는데 그 저청, 우리 횟수 우리보다 한 삼 여하튼 십회 미만은 한경에서 최고였어요. 그 저 그 릴레이라고 해가지고 그 달음박질, 달음박질 거 하는 거 해서 각 학교마다 무엇라고 하는데 그게 왜 최고였느냐

하면 우리 할 때는 나이 차이가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난 사람들이 같이 동창이라고 하느냐 하면 동창 나중에 알아서들 보니까 여덟 살, 아홉 살.)

102004 @ 사삼 때문에.(사삼 때문에.)

102004 #3 사삼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거 무슨 거 헨 그래 노니까 겐 신창이나 고산이나 무싱 거 쭉 연세 차이로 쭉 하게 헤노민 그놈의 새끼 뭐 됀나 그게 도저이 안 됀지.(사삼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끔 거 뭐 해서 그래 놓으니까 그래서 신창이나 고산이나 무엇 쭉 연세 차이로 쭉 하게 해 놓으면 그놈의 새끼 뭐 되나 그게 도저히 안 되지.)

102004 @ 아아. 경 헨 거기 졸업헹 여기 중흑교 그때 잇엇수과?(아아. 그렇게 해서 거기 졸업해서 여기 중학교 그때 있었습니까?)

102004 #3 중흑교? 우리 졸업할 때는 엇엇어예.(중학교? 우리 졸업할 때는 없었어요.)

102004 @ 어디 다녓수과?(어디 다녔습니까?)

102004 #3 우린 신창중학교 여기서 통학.(우린 신창중학교 여기서 통학.)

102004 @ 걸언예?(걸어서요?)

102004 #3 몇 분 걸렷수과?(몇 분 걸렸습니까?)

102004 #3 그때 우리가 막 빨리 걸으민 혼 시간 십오 분.(그때 우리가 막 빨리 걸으면 한 시간 십오 분.)

102004 @ 아아. 그축 헹 학교 다녓수과?(아아. 그렇게 해서 학교 다녔습니까?)

102004 #3 흑교.(학교.)

102004 #3 그거는 반 둘음질헤야 뒈어.(그거는 반달음박질해야 돼.)

102004 @ 반 둘음질. 게믄 아침에 보리밥 먹고.(반달음박질. 그러면 아침에 보리밥 먹고.)

102004 #3 보리밥 먹고, 점심 싸고.(보리밥 먹고, 점심 싸고.)

102004 @ 점심 싸고, 여기서 멧 명 학교 다녓수과? 삼춘 또래 가난헌 사람 못 다닐 수도 잇엇수게?(점심 싸고, 여기서 몇 명 학교 다녔습니까? 삼촌 또래 가난한 사람 못 다닐 수도 있었습니까?)

102004 #3 못 다닌 사람도 잇고.(못 다닌 사람도 있고.)

102004 @ 응.(응.)

102004 #3 우리영 같이 뎅길 적에는 우리 같은 동창덜이 세 사람.(우리랑 같이 다닐 적에는 우리 같은 동창들이 세 사람.)

102004 @ 다 살아계시꽈?(다 살아계십니까?)

102004 #3 예.(예.)

102004 @ 예. 친하게 지내잖아예. 지금도예?(예. 친하게 지내잖아요. 지금도요?)

102004 #3 친하게 지내멍 말멍 이 사람덜이 성질이라는 게 그레마씨. 겨난 더러 돌아가기도 헷수다만 성질덜이 그자 이녁 살젠 허당 보믄 다 그러는 줄 아는디 이 춤 내가 이 늠 닮지 안 허게 노인 훼장을 맡앙 붸려보니까 사람덜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바뀌졋다. 이거를 얘기를 헤줘도 믿지덜을 안허여. 그 이제 이디 사람덜은 우선 돈이다. 셍각허주만은 내가 얘기를 협주. 이젠 돈을 벌지 말라. 세상이 모든 게.(친하게 지내면서 말면서 이 사람들이 성질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 돌아가기도 했습니다만 성질들이 그저 이녁 살려고 하면 보면 다 그러는 줄 아는데 이 참 내가 이 남 같지 않게 노인 회장을 맡아서 봐보니까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거 세상 바뀌졌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도 믿지들을 않아. 그 이제 여기 사람들은 우선 돈이다. 생각하지만 내가 얘기를 합지요. 이젠 돈을 벌지 말라. 세상이 모든 게.)

102004 @ 우리가 다 썼던 말덜은예. 알앙 놔두민 좋은 거 닮아마씨. 일본에 어쩻튼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잇엇고.(우리가 다 썼던 말들은요. 알아서 놔두면 좋은 거 같아요. 일본에 어쨌든 우리가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

102004 #3 겐디 그것도 첨, 나 하나, 우리 어렸을 적에요. 저 뭐냐 나무, 이 낭칠을 잘헷어요. 낭칠이란 건 나무에 올라가길 잘 헷다는 거여. 원숭이 모냥으로.(그런데 그것도 참, 나 하나, 우리 어렸을 적에요. 저 뭐냐 나무, 이 '낭칠'을 잘했어요. '낭칠'이란 건 나무에 올라가길 잘 했다는 거야. 원숭이 모양으로.)

102004 @ 낭칠? 아아.('낭칠?' 아아.)

102004 #3 예. 우리 집 앞에다가 그 닻배 폭낭이라고 잇엇어예.(예. 우리 집 앞에다가 그 닻배 팽나무라고 있었어요.)

102004 @ 닻배는 뭣꽈?(닻배는 뭡니까?)

102004 #3 배.(배.)

102004 @ 아, 닻.(아, 닻.)

102004 #3 응. 멘 배 형치라서 그 닻이 네려진 상태로 그 나무에 올라간 거. 그 폭낭이 사라호 태풍에 메어졋습니다.(응. 맨 배 형체라서 그 닻이 내려진 상태로 그 나무에 올라간 거. 그 팽나무가 사라호 태풍에 뽑혔습니다.)

102004 @ 아아.(아아.)

102004 #3 그 폭낭에 폭 타 먹으레 올라가예. 경 헤연 그 폭낭 가지 꺼거근에 내려오고 헷는디 이제 그 ᄀᆞ레ᄆᆞ들 지금 그 말을 들엇는지 안 들엇는지 모르주만 ᄀᆞ레ᄆᆞ들 수덕에 그 거기에 폭낭이 상당이 여러 가지가 잇어마씨. 그 폭낭에 강 폭낭 탕 견디 춤 원숭이새끼 모냥으로 참 나무에는 잘 올라갓어마씨. 어느 꼭대기라도 올라가거든. 동네 사람 넘어가당 아이고 저 단바농 거꺼진다. 단바농 거꺼진다. 허는 건.(그 팽나무에 팽 따 먹으러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팽나무 가지 꺾어서 내려오고 했는데 이제 그 'ᄀᆞ래ᄆᆞ들' 지금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ᄀᆞ래ᄆᆞ들' 수덕에 그 거기에 팽나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팽나무에 가서 팽나무 타서 그런데 참 원숭이새끼 모양으로 참 나무에는 잘 올라갔지요. 어느 꼭대기라도 올라가거든. 동네 사람 넘어가다가 아이고 저 외바늘 꺾어진다. 외바늘 꺾어진다. 하는 건.)

102004 @ 단바농?(외바늘?)

102004 #3 단바농, 단 바농.(외바늘, 단 외바늘.)

102004 @ 단바농.(외바늘.)

102004 #3 단바농, 바늘 하나, 하나를 단 바늘이렌 해.(외바늘, 바늘 하나, 하나를 외바늘이라고 해.)

102004 @ 예.(예.)

102004 #3 단바늘, 게난 나는 왜 혼차니까 단 바농 거꺼진다고.(외바늘, 그러니까 나는 왜 혼자니까 외바늘 꺾어진다고.)

102004 @ 아아, 외동아들이난.(아아, 외동아들이니까.)

102004 #3 응. 거꺼진다고 털어져불엉 죽는다는 거여 하하.(응. 꺾어진다고 떨어져버려서 죽는다는 거야. 하하.)

102004 @ 위험헤부난 막 걱정헹은에 하하하.(위험해버리니까 막 걱정해서 하하하.)

102004 #3 우리 어머닌 즘즘헹 내불고 헌디 동네 사람덜이 그렇게 ᄌᆞ들앙.(우리 어머닌 잠잠해서 내버리고 한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102004 @ 단바농 거꺼진다. 경 헤연.(외바늘 꺾어진다. 그렇게 해서.)

102004 #3 그추룩 허영은에 거 춤, 낭칠허멍 견디 할망덜 어른들도 넘어가당은에 폭 ᄒᆞᆫ 가젱이랑 이레 털어치라. 그걸 털어주면은 손주를 ᄀᆞ져다 주던 아덜을 ᄀᆞ져다 주던 경허게 뒈믄 춤, 낭가젱이 이파리 ᄃᆞᆫ은 거 거짐 꺾다시피 헤영 털어치멍 헤낫는데 이제 멧 년 안 뒛주만은 십이삼 년 뒛나 일본 다대포 ᄂᆞ련 돈 벌레 일본 가 가지고 그 할망덜 거기 사는 할무니덜 은행열매 잇어. 게 은행열매 거 타ᄃᆞ렌 헹은에 거 오사카 공원에 허, 강 은행열매를 털어주는디 할망덜 춤, 그 ᄒᆞ루 강 타 난 ᄉᆞ믓 푸지게 타노난 거 할망덜이 나신디 춤 베라벨 거 술 다 사오고 베라벨 질을 다허여. 아, 춤.(그처럼 해서 거 참, '낭칠'하면서 그런데 할머니들 어른들도 넘어가다가 팽 한 가지는 여기에 떨어뜨려라. 그걸 떨어뜨리면 손주를 가져다 주든 아들을 가져다 주든 그렇게 하게 되면 참, 나뭇가지 이파리 돋은 거 거의 꺾다시피 해서 떨어뜨리면서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십이삼 년 됐나? 일본 다대포 내려서 돈 벌러 일본 가 가지고 그 할머니들 거기 사는 할머니들 은행열매 있어. 그게 은행열매 거 따 달라고 해서 거 오사카 공원에 허, 가서 은행열매를 떨어뜨리는데 할머니들 참, 그 하루 가서 따니까 사뭇 푸지게 따니까 거 할머니들이 나에게 참 벼라별 거 술 다 사오고 벼라별 짓을 다 해. 아, 참.)

102004 @ 재미있다예.(재미있네요.)

102004 #3 옛날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폭, 폭.(옛날엔 그때는 왜 그러냐면 팽, 팽.)

102004 @ 지금 나잖아예. 외동아덜이 그추룩 잘 허멍도예. 아이구, 게믄 저 학교 갈 때 어머니가 산듸쏠이라도 이시믄 밥도 영 헹.(지금 나잖아요. 외동아들이 그처럼 잘 하면서도요. 아이구, 그러면 저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밭벼쌀이라도 있으면 밥도 이렇게 해서.)

102004 #3 벤또는 벤또 싸는 건 꼭 쏠방울이라도 서껑 헷어. 하도 겨곡 계란 반

찬도 계속 헤노니까.(도시락은 도시락 싸는 건 꼭 쌀방울이라도 섞어서 했어. 하도 그리고 계란 반찬도 계속 해 놓으니까.)

102004 @ 다른 아이영 비교뒛겟다예?(다른 아이하고 비교됐겠네요?)

102004 #3 비교가 안 뭽주. 비교가 안 뒈. 겨난 그 나는 계란에 질령 안 먹는디, 아이구, 참.(비교가 안 됐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는 계란에 질려서 안 먹는데. 아이고, 참.)

102004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4 #3 게난 걸 어떵 헐 거라, 아이고 츰.(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참.)

102004 @ 다른 아이덜은 그런 거 귀헹허고예?(다른 아이들은 그런 거 귀해서 하고요?)

102004 #3 다른 아이덜은 그 저 이 뭰장 쌍 가는 애도 있고.(다른 아이들은 그 저 이 된장 싸서 가는 애도 있고.)

102004 @ 마농지.(마늘장아찌.)

102004 #3 응. 마농지. 김치 뭐 이 무싱 거 헹 그런 거 무말랭이 ᄀᆞ튼 거 그거 ᄒᆞ쏠 절영도 ᄀᆞ졍가는 쳑은 허긴 헷는디.(응. 마늘장아찌. 김치 뭐 이 뭐 해서 그런 거 무말랭이 같은 거 그거 조금 절여도 가져가는 척은 하긴 했는데.)

102004 @ 어린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랏습니까?(어린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02004 #4 어린 때는?(어린 때는?)

102004 @ 예.

102004 #4 그냥 막 들럭퀴멍 요즘ᄀᆞ치 학교 엇고, 공부 안 헐 때난 막 놀멍 들럭퀴멍.(어린 때는 그냥 막 뛰면서 요즘같이 학교 없고, 공부 안 할 때니까 막 놀면서 날뛰면서.)

102004 @ 공기?(공기?)

102004 #4 그렇지.(그렇지.)

102004 @ 또 어떤 놀이?(공기? 또 어떤 놀이?)

102004 #4 오재미도 영 오재미도 허고.(오재미도 이렇게 오재미도 하고.)

102004 @ 오재미도허고예.(오재미도하고요.)

102004 #4 이제 실거리 낭썹 영 훌텅 영, 영 허영 와가집 짓이라 초집 짓이라허멍. 이제 허허허허.(이제 실거리 나뭇잎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와집 지어라 초가집 지어라하면서. 이제 허허허허.)

102004 @ 무신 거 짓이라. 와가집?(무엇 지어라. 기와집?)

102004 #4 응. 와가집 짓이라. 초집 짓이라. 기와집, 기와집, 기와집.(응. 기와집 지어라. 초가집 지어라. 기와집, 기와집, 기와집.)

102004 @ 기와집 짓이라. 초집 지시라.(기와집 지어라. 초가집 지어라.)

102004 #4 그래, 그래, 그래.(그래, 그래, 그래.)

102004 @ 뭘로 허멍 놀안마씨?(뭘로 하면서 놀았어요?)

102004 #4 경 헨 거 저 무싱 거 씰거리낭.(그렇게 해서 거 저 무슨 거 실거리나무.)

102004 @ 예.(예.)

102004 #4 씰거리낭 요즘은 뭐 헹 이제 없어. 씰거리낭 영 훌터 당은에 이디 놩 은에 영, 영 허멍 와가집 짓이라. 초집 짓이라 헹 영 허믄 그것이 ᄒᆞ꼼 영 세와져. 세와져.(실거리나무 요즘은 뭐 해서 이제 없어. 실거리나무 이렇게 훑어서 여기 놔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와집 지어라. 초가집 지어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조금 이렇게 세워져. 세워져.)

102004 @ 아아, 세왓져예?(아아, 세웠어요?)

102004 #4 음. 경 헌디 요즘은 그런 낭도 엇어. 바로 가시 이렇게 벋어지는 거. 벋어지는 거.(음. 그렇게 한데 요즘은 그런 나무도 없어. 바로 가시 이렇게 벋어지는 거. 벋어지는 거.)

102004 @ 그런 낭도 엇어. 그때가 열 술 어릴 때예?(그런 나무도 없어. 그때가 열 살 어릴 때요?)

102004 #4 그래. 열 술 문 안 날 때, 아홉 술, 으닯 술 경 뒐 땔 거라.(그래. 열 살 다 안 날 때, 아홉 살, 여덟 살 쯤 그렇게 될 땔 거야.)

102004 @ 배뜰락이라던가 공기 또?(줄넘기라든가 공기 또?)

102004 #4 겨곡 배뜰락, 배뜰락, 겡 하나 둘 백ᄁᆡ장, 하나 둘.(그리고 줄넘기, 줄넘기, 그래서 하나 둘 백까지, 하나 둘.)

102004 @ 경허곡 배뜰락도 허고, 곱음재기?(그렇게 하고 줄넘기도 하고, 숨바꼭질?)

102004 #4 아, 곱음재기, 음. 곱음재기. 날 춧이라. 하하 날 춧이라. 헤헤헤. 곱음재기 있지.(아, 숨바꼭질, 음. 숨바꼭질. 날 찾아라. 하하 날 찾아라. 헤헤헤. 숨바꼭질 있지.)

102004 @ 꼭꼭 숨으라. 방 독닥. 엇고?(꼭꼭 숨어라. '방 독닥'. 없고?)

102004 #4 아 그런 건 엇고, 날 춧이라. 경 막 춧아근에 요거다, 요거다. 하하 요거다!(아 그런 건 없고, 날 찾아라. 그렇게 막 찾아서는 요거다, 요거다. 하하 요거다!)

102004 @ 팡[22]에 강 방 독딱! 이런 건 엇고?('팡'에 가서 '방 독딱!' 이런 건 없고?)

102004 #4 음?(음?)

102004 @ 팡, 팡, 나 춧으민 방 독딱 이런 거 없고예?('팡', '팡', 나 찾으면 '방 독딱' 이런 거 없고요?)

102004 #4 아, 그런 거 없고.(아, 그런 거 없고.)

102004 @ 요거다! 어디 강 요거다 허여?(요거다! 어디 가서 요거다 해?)

22)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가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이다.

102004 #4 춪아보민게 춪아, 춪아, 춪앗다. 춪앗다. 요거다!(찾아보면 찾아. 찾아. 찾았다. 찾았다. 요거다!)

102004 @ 삼동 타 먹기.(상동 따 먹기.)

102004 #4 그렇지.(그렇지.)

102004 @ 삥이치기.(삘기치기.)

102004 #4 그렇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102004 @ 말축 잡앙 노는 거, 그런 것도 헤나실 거라예?(메뚜기 잡아서 노는 거, 그런 것도 했었을 거예요?)

102004 #4 어, 응, 허당도 남앗주게. 요즘은 어디 유치원에나 간다. 그땐 통 없으니까, 들러퀴멍 노는 게 목적이라 이거.(어, 응, 하다가도 남았지. 요즘은 어디 유치원에나 간다. 그땐 통 없으니까, 날뛰면서 노는 게 목적이야 이거.)

102004 @ 음. 뭐가 제일 재미지게 놀앗수과?(음. 뭐가 제일 재미있게 놀았습니까?)

102004 #4 막 하영, 하영 놀아부난 뭐 다 죽어 불언.(막 많이, 많이 놀아버리니까 뭐 다 죽어 버렸어.)

102004 @ 바당에는 안 가고예, 여기서 거의?(바다에는 안 가고요, 여기서 거의?)

102004 #4 안 간. 안 가봔.(안 갔어. 안 가봤어.)

102004 @ 헤엄은 못 쳐마씨?(헤엄은 못 쳐요?)

102004 #4 안 가. 안 가. 난 못 헤.(안 가. 안 가. 난 못 해.)

102004 @ 웃드리난예?(중산간이니까요?)

102004 #4 응.(응.)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헤서 아는 바를 말씀헤 주십시오. 어린 시절 일제시대가 사실 열네 살까지 일본 놈들의 세상이었잖아예. 그때 조수초등학교 다닐 때에 일본.(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 일제시대가 사실 열네 살까지 일본 놈들의 세상이었잖아요. 그때 조수초등학교 다닐 때에 일본.)

102005 #1 그거는 알지예. 그때는 면사무소에서 그때는 한경면이 아니고 한림면이랏거든. 한림면 서기 세력이 쟁쟁헤여. 이 마을에 들어오면은 말을 안 들으면은 방멩이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도 맞아.(그거는 알지요. 그때는 면사무소에서 그때는 한경면이 아니고 한림면이었거든. 한림면 서기 세력이 쟁쟁해. 이 마을에 들어오면 말을 안 들으면 방망이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매도 맞아.)

102005 @ 어.(어.)

102005 #1 면 직원안테.(면 직원한테.)

102005 @ 어.(어.)

102005 #1 그러는데 밧 멘적을 파악헤 가지고 당신네 밧은 멘적이 얼마니까 보

리를 멧 가마니를 바쪄라. 불응을 허면은 이거는 매 맞는 거라. 매 맞아놓고 허겠습니다 이거여.(그러는데 밭 면적을 파악해 가지고 당신네 밭은 면적이 얼마니까 보리를 몇 가마니를 바쳐라. 불응을 하면 이거는 매 맞는 거야. 매 맞아놓고 하겠습니다. 이거야.)

102005 @ 응.(응.)

102005 #1 보리를 이젠 그렇게 해서 호미로 비어다가 클로 손으로 훌트거든.(보리를 이젠 그렇게 해서 호미로 베다가 틀로 손으로 홅거든.)

102005 @ 응.(응.)

102005 #1 훌터가지고 기계가 없는 때니까 이디선 도깨. 육지말로는 호로깨.(훑어가지고 기계가 없는 때니까 여기선 도리깨. 육지말로는 '호로깨.')

102005 @ 예.(예.)

102005 @ 호로깨라도 헤마씨?('호로깨'라도 해요?)

102005 #1 예. 이디서는 도깨옌 허주게, 도깨.(예. 여기서는 도리깨라고 하지, 도깨.)

102005 @ 예.(예.)

102005 #1 아덜, 그거는 도깨아덜.('아들', 그거는 도리깻열.)

102005 @ 도깨아덜.(도리깻열.)

102005 #1 예. 술진 낭으론 도깨어시.(예. 살찐 나무론 도리깻장부.)

102005 @ 아아, 도깨어시.(아아, 도리깻장부.)

102005 #1 그렇게 헤가지고 그놈으로 내외간이 때리는 거라. 경 안 헤서 너미 쪼금 양이 많으면은 앞집의 사람, 뒷집의 사람 수눌어 가지고 이렇게 헤서 도깨로 두드려서 좀팍으로 거렁 바람에 불려. 불려서 멘적에 의헤서 허면은 그때는 비료도 없는 때고 허니까 벅차거든. 주인 직시가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걸 가마니에 무꺼 가지고 구루마 잇는 사람덜 빌엉 고산 창고에 가져 당 데며.(그렇게 해가지고 그놈으로 내외간이 때리는 거야. 그렇게 안 해서 너무 조금 양이 많으면 앞집의 사람, 뒷집의 사람 품앗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좀팍'으로 담아서 바람에 드려. 드려서 면적에 의해서 하면 그때는 비료도 없는 때고 하니까 벅차거든. 주인 몫이 별로 없어. 그러면 그걸 가마니에 묶어가지고 달구지 있는 사람들 빌어서 고산 창고에 가져다가 쟁여.)

102005 @ 고산에 강 데며마씨?(고산에 가서 쟁여요?)

102005 #1 예. 여기서는 고산에 창고가 고산이 큰 디라.(예. 여기서는 고산에 창고가 고산이 큰 데야.)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고산에 가서 창고에 데미거든. 요지금은 한경면이 셍기다가 보니까 요즘은 고산은 왜정 때에도 파추소가 잇엇어.(고산에 가서 창고에 쟁이거든. 요즘은 한경면이 생기다가 보니까 요즘은 고산은 왜정 때에도 파출소가 있었어.)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파추소가 잇엇고 이제 두모에는 그런 경찰관사가 없엇는데, ᄉᆞ삼ᄉᆞ건 때에 두모 보니까 게서 고산 가서 이제 데며두고 오면은 먹을 것들도 뒈지 먹을 게 없으니까 거 신창 가면은 뒈지, 이것도 잡아먹어 불자 그래서 참 기가 멕혀 가지고 그 뒈지도 잡아먹는 수가 잇어. 오늘은 이디서 잡아먹고 또 다음에는 저디 돈 받고 돈이 어디 요새같이 잇엇어?(파출소가 있었고 이제 두모에는 그런 경찰관사가 없었는데, 사삼사건 때에 두모 보니까 그래서 고산 가서 이제 쟁여두고 오면 먹을 것들도 돼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 신창 가면 돼지, 이것도 잡아먹어 버리자 그래서 참 기가 막혀 가지고 그 돼지도 잡아먹는 수가 있어. 오늘은 여기서 잡아먹고 또 다음에는 저기 돈 받고 돈이 어디 요새같이 있었어?)

102005 @ 경 헨 그렇게 공출을 하면 어머니한티 얼마 바치라 이렇게 온다는 거지예?(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출을 하면 어머니한테 얼마 바치라 이렇게 온다는 거지요?)

102005 #1 멘적에 의해서 할당을 딱 시기거든.(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딱 시키거든.)

102005 @ 아아, 멘적에.(아아, 면적에)

102005 #1 너는 멘적이 얼마 잇으니까 얼마를 보리를 바쳐라 허면은 이거를 거역을 못 헤여. 거역을 허면 매 맞아야 뒈니까. 매 맞아 놓고 허겟습니다.(너는 면적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를 보리를 바쳐라 하면 이거를 거역을 못 해. 거역을 허면 매 맞아야 되니까. 매 맞아 놓고 하겠습니다.)

102005 @ 순사가 때립니까? 누가 때려?(순사가 때립니까? 누가 때려?)

102005 #1 멘서기가.(면서기가.)

102005 @ 아.(아.)

102005 #1 아이고.(아이고.)

102005 @ 어떵 때려?(어떻게 때려?)

102005 #1 동네 구장만 헤도 팰 권리는 잇엇어.(동네 구장만 해도 팰 권리는 있었어.)

102005 @ 몽둥이 때려마씨? 뭘로 때려?(몽둥이 때려요? 뭐로 때려?)

102005 #1 어?(어.)

102005 @ 뭘로 때려마씨?(뭐로 때려요?)

102005 #1 몽둥이로도 때리고 뭐 막 탁 발로도 두루 차불고 뭐, 거 뭐 권한대로.(몽둥이로도 때리고 뭐 막 탁 발로도 자꾸 차버리고 뭐, 거 뭐 권한대로.)

102005 @ 하, 어떻게 그렇게?(하, 어떻게 그렇게?)

102005 #1 아이고 우리 동네도 이 강 구장이렌 헌 사람 그 당시에 저 왜정 때 구장 헷는데, 청년덜 딱 집합시켜서 늦이 오면은 요디 이제 그 물이 잇어. 그때는 동네 마을 물이 이젠 개인 못으로 그 못을, 공동 못으로 안 헤노니까 개인 번지 들어가난 이젠 도 막아젼 헷는데, 옛날에는 와라지라고 일본말로 와라지, 초신. 찝으로 만든 거 그거 헌 거 입에 물언 가가지고 그 물건 적젼 오라고.(아이고 우리 동네

도 이 강 구장이라고 한 사람 그 당시에 저 왜정 때 구장 했는데, 청년들 딱 집합시켜서 늦게 오면 요기 이제 그 물이 있어. 그때는 동네 마을 물이 이젠 개인 못으로 그 못을, 공동 못으로 안 해버리니까 개인 번지 들어가니까 이젠 입구 막아져서 했는데, 옛날에는 '와라지'라고 일본말로 '와라지', 초신. 짚으로 만든 거 그거 한 거 입에 물고 가가지고 그 물건 적셔 오라고.)

102005 @ 아, 아이고.(아, 아이고.)

102005 #1 그렇게까지 압력이 세거든. 뭐 말 안 들민 뚜드려 몽둥이로 맞앗는데 발로도 차고.(그렇게까지 압력이 세거든. 뭐 말 안 들면 뚜드려 몽둥이로 맞았는데 발로도 차고.)

102005 @ 아우, 그믄 젊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때리고?(아우, 그러면 젊은 사람은 시키는 대로 때리고?)

102005 #1 아이, 말, 그때 구장 말 안 들어서도 그때 뭐 이건 뭐.(아이, 말, 그때 구장 말 안 들어서도 그때 뭐 이건 뭐.)

102005 @ 구장이예.(구장이요.)

102005 #1 츰, 엄허게 허지. 그니까 왜놈의 정치하에 뭐 헷다고 츰, 설움을 받앗다고 헨디, 겐디 농사는 많이 계몽은 시킨 걸로 알고 있어. 고구마를 심는 디 밧 한고지에다가 한 석줄, 넉줄을 이렇게 싱그거든. 싱그면은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직원들이나 와서 흔 줄만 싱그라고. 흔 줄만 싱그라고 헤서 다 뽑아버려.(참, 엄하게 하지. 그러니까 왜놈의 정치하에 뭐 했다고 참, 설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농사는 많이 계몽은 시킨 걸로 알고 있어. 고구마를 심는데 밭 한고지에다가 한 석줄 넉 줄을 이렇게 심거든. 심으면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한 줄만 심으라고 한 줄만 심으라고. 한 줄만 심으라고 해서 다 뽑아버려.)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그믄 그걸 원수로 생각을 헷거든. 겐디 이제 오히려 두 줄이나 석 줄 싱경은 멍청이라고 허지. 그렇게 싱그는 법이 없어. 흔 줄 싱그는 그거 다 일본놈이 다 계몽을 시켜 논 거라.(그러면 그걸 원수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두 줄이나 석 줄 심어서는 멍청이라고 하지. 그렇게 심는 법이 없어. 한 줄 심는 그거 다 일본놈이 다 계몽을 시켜 놓은 거야.)

102005 @ 뻗은다는 뜻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양을.(뻗는다는 뜻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양을.)

102005 #1 농법을 많이 쪼금 계량을 시겨 줫지. 지도를 헤서 헷는데.(농법을 많이 조금 계량을 시켜 줬지. 지도를 해서 했는데.)

102005 @ 음. 그런 면은 있는데 무섭거나 일본 선생님이 일본말만 쓰라라던가 뭐 기억나는 것덜 엇수과? 매를 맞아봣거나 순사 칼 찬 거 어떻게 생각 헷다던가?(음. 그런 면은 있는데 무섭거나 일본 선생님이 일본말만 쓰라던가 뭐 기억나는 것들 없습니까? 매를 맞아봤거나 순사 칼 찬 거 보고 어떻게 생각 했다던가?)

102005 #1 초등학교 뎅길 때는 뭐 그렇게 뭐 학생을 못살게 군 거 아니고 무릎

밑에 겨울에 ᄀᆞ튼 때라도 무릎 밑에 바지가 내려오면은 가위 가져다가 이거 집에 가서 짤라 오지 않으면 짤라 버린다.(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그렇게 뭐 학생을 못살게 군 건 아니고 무릎 밑에 겨울에 같은 때라도 무릎 밑에 바지가 내려오면 가위 가져다가 이거 집에 가서 잘라 오지 않으면 잘라 버린다.)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살까지 가위를 대면은 살ᄁᆞ지 끊어진다. 헤서 압력을 줘가지고.(살까지 가위를 대면 살까지 끊어진다. 해서 압력을 줘가지고.)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무릎 우에 가게꾸리 아래 쓰붕을 헤서 입고, 머리가 길루면은 우리말로 성냥까지 가져와서 머리 안 까까서 오면은 불내서 그냥 머리 태와버리겟다고.(무릎 위에 가게끔 아래 바지를 해서 입고, 머리가 길면 우리말로 성냥 가져와서 머리 안 깎아서 오면 불내서 그냥 태워버리겠다고.)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게니까 옛날엔 압력을 그렇게 많이 주엇지예.(그러니까 옛날엔 압력을 그렇게 많이 주었지요.)

102005 @ 무섭다예?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반바지를 입엇다는 거다예.(무섭네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반바지를 입었다는 거네요.)

102005 #1 그난 선생님덜도 좀 무섭게 봐야지. 요지금은 잘못허면은 이건 뭐 선생님덜 고발대상이라서 선생님덜도 맥을 못 씨는 세상인디.(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무섭게 봐야지. 요즘은 잘못하면 이건 뭐 선생님들 고발대상이라서 선생님들도 맥을 못 쓰는 세상인데.)

102005 @ 선생님덜 일본 사람도 많앗수과? 일본사람.(선생님들 일본 사람도 많았습니까? 일본사람.)

102005 #1 일본사람은 그 일본 황제가 그 손들으니까 일본사람이 싹 가버리니까 일본사람이 별로 없엇주게.(일본사람은 그 일본 황제가 그 손드니까 일본사람이 싹 가버리니 일본사람이 별로 없었지.)

102005 @ 그 전에는 잇엇수과?(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102005 #1 아니, 전에도 일본사람이 여기 와서 살 수는 없어.(아니, 전에도 일본사람이 여기 와서 살 수는 없어.)

102005 @ 일본사람 봐 본적은 엇수과? 순사라도.(일본사람 봐 본적은 없습니까? 순사라도.)

102005 #1 그런 뭣이 이.(그런 뭣이 이.)

102005 @ 군대에서는 봐봇지예?(군대에서는 봐봤지요?)

102005 #1 우리 지역에서는 일본사람 와서 뭐 허지. 이 제주도에는 우리지역에는 일본사람이 와서 뭐허진 안 하주.(우리 지역에서는 일본사람 와서 뭐 하지. 이 제주도에는 우리지역에는 일본사람이 와서 뭐하진 안 하지.)

102005 @ 가마오름 군대들도 일본.(가마오름 군대들도 일본.)

102005 #1 건 전부 일본군.(건 전부 일본군.)

102005 @ 그잖아예. 건 봐낫지예?(그렇잖아요. 그건 봤었지요?)

102005 #1 가마오름 오라서 주둔 전부 일본 군인인디 계급이 다 일등병에서부터 그 대령까지 뭐 헷고.(가마오름 와서 주둔 전부 일본 군인인데 계급이 다 일등병에서부터 그 대령까지 뭐 했고.)

102005 @ 지나가는 거는 봐낫겟다예?(지나가는 건 봤었겠네요?)

102005 #1 우리나라 사람덜은 어, 무등병이라고 헤가지고 와서 뭐 개판이고, 저 우리 마진흘 목장에 와가지고 돌담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자 뭐 초가집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여기 우리 사람 사는 디 오라근에 저 막 사람 엇인 디 오라근에 밥 먹엉 돌아나고 어떤 지어가지고 요 동네 살 때 큰 동네는 못 들어오는 디 작은 동네는 나무레서 들어오랑 허면은 한 하르방이 일본 놈인 줄 알고 조선말로 그냥 쳐 욕을 헷거든. 욕을 헨 보니까 다 육지 놈덜이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라. 경산도 놈덜, 전라도 놈덜이 오라가지고 허니까 아, 그땐 일본놈인 줄 자기네 말 못 알암시카부덴 헷다고 그냥 막 행패를 막 부리지.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나게.(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무등병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뭐 개판이고, 저 우리 '마진흘' 목장에 와가지고 돌담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저 뭐 초가집으로 이렇게 지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여기 우리 사람들 사는 데 와서는 저 막 사람 없는 데 와서 밥 먹어서 달아나고 어떤 지어가지고 요 동네 살 때 큰 동네는 못 들어오는데 작은 동네는 나무라서 들어오고 하면 한 할아버지가 일본 놈인 줄 알고 조선말로 그냥 쳐 욕을 했거든. 욕을 해서 보니까 다 육지 놈들이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야. 경상도 놈들, 전라도 놈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아, 그땐 일본놈인 줄 자기네 말 못 알고 있을까봐 했다고 그냥 막 행패를 막 부리지. 겁이 나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나.)

102005 @ 아이고, 참.(아이고, 참.)

102005 #1 게. 나도 그 동네 살면은 집이 영 와가지고 막 집 뒤지고 뭐 헤 가면은 요디 지경청이라고 헌 디가 있는디 옛날 비석 세운 디, 거기 이제 즛또헹이라고 계급 조금 뭐, 중간에 있는 사람신디 골으면은, 잡으레 바짝 잡으레 오라 가지고 고노야로! 헤가지고 허면은 저레 그냥 막 다 돋고.(그럼. 나도 그 동네 살면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집 뒤지고 뭐 해 가면 요기 '지경청'이라고 한 데가 있는데 옛날 비석 세운 데, 거기 이제 조금 해서라고 계급 조금 뭐, 중간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면, 잡으러 바짝 잡으러 와 가지고 이놈! 해가지고 하면 저리로 그냥 막 다 달리고.)

102005 @ 다 어디로 가신고예? 일본으로 가고.(다 어디로 갔는가요? 일본으로 가고.)

102005 #1 경헌디 나 지경천이라고 헌 디가 의심스러와. 우리가 듣기엔 옛 어른신디 듣기에는 그거라. 거기가 쒜비석도 세왓고, 돌비석도 이제 집 헤서 이제 세왓고, 우리가 보건디도 세 개가 잇엇거든. 비석이 세 개가 잇엇는데 그게 어떵헌 비석이냐? 옛날은 검은 소가 나면은 진상 바쪄서 나라에서 이자 ᄀᆞ져당 무조건 돈도 안

주고 이거 헷다고 허는데, 서귀포에서 거기가 중심, 제주시에서 거기가 중심이라서에, 나라에서 세운 비석이라 이거여. 내가 가만이 생각헹 보드래도 ᄉᆞ또가 넘어가다가 ᄆᆞᆯ을 ᄀᆞᆯ아 타서 간다고 헤서 큰 비석을 세웟겟느냐? 이렇게 생각헤여. 저 남군에서 예. 남군, 북군이 이제 없어져 버렷지만은 저 남군에서 서귀포를 중심 잡아가지고 이까지 옛날 중간으로 재어가지고 허곡 제주시에서 재어서 딱 공정허게 헤서 이디 비석을 세우고, 누구든지 알 수 잇게 그렇게 헤서 이제 돌비석도 세우고, 쒜비석도 헤서 세와가지고 우리까지도 아는데, 이 사건 이후로 어느 놈이 도둑놈이 쒜비석 ᄀᆞ튼 거 ᄆᆞᆫ 헤치와 불엇단 말이야.(그런데 나 '지경천'이라고 한 데가 의심스러워. 우리가 듣기엔 옛 어른한테 듣기에는 그거야. 거기가 쇠비석도 세웠고 돌비석도 이제 집 해서 세웠고, 우리가 보건대도 세 개가 있었거든. 비석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떠한 비석이냐? 옛날은 검은 소가 나면 진상 바쳐서 나라에서 이제 가져다가 무조건 돈도 안 주고 이거 했다고 하는데, 서귀포에서 거기가 중심, 제주시에서 거기가 중심이라서 나라에서 세운 비석이라 이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사또가 넘어가다가 말을 갈아 타서 간다고 해서 큰 비석을 세웠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저 남군에서 예. 남군, 북군이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저 남군에서 서귀포를 중심 삼아가지고 여기까지 옛날 중간으로 재어가지고 하고 제주시에서 재어서 딱 공정하게 해서 비석을 세우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돌비석도 세우고, 쇠비석도 해서 세워가지고 우리까지도 아는데, 이 사건 이후로 어느 도둑놈이 쇠 비석 같은 거 모두 해치워 버렸단 말이야.)

102005 @ 쯧쯧.(쯧쯧.)

102005 #1 그렇게 말을 들엇는데 게난 지경청이라고 헤가지고 허는 거 옛 어른들 말을 나는 그렇게 들엇다고, 이 경계 경제를 쓰지 안 허고, 말 바꿀 경제를 썻다고. 에, 이게 교환 허는 디니까. 저기서 여기서 잇다가 이게 모관지역인데 이따가 모관에서 이제 온다고 허면은 연락이 뒈가지고 제주시에서 오라가지고 인수 맡아가는 그러헌 경계선이라는 거여, 겐디 어느 말이 맞일런지 나도 주장은 할 수가 엇어. 옛 어른신디 들은 말이 잇어서 허는데 옛 어른 상대는 나가 가만히 서 볼 때는 나가 더 접촉을 헤진 거 가테.(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게 '지경청'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옛 어른들 말을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이 견제, 견제를 쓰지 안 하고, 말 바꿀 경제를 썼다고. 에, 이게 교환하는 데니까 저기서 여기서 있다가 모관지역인데 있다가 모관에서 이제 온다고 하면 연락이 되가지고 제주시에서 와가지고 그러한 경계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말이 맞을는지 나도 주장은 할 수가 없어. 옛 어른에게 들은 말이 있어서 하는데 옛 어른 상대는 내가 가만히 서 볼 때는 내가 더 접촉을 해진 거 같아.)

102005 @ 응. 게난예. 증거물이 다 사라져 불엇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증명헤 줘야 뒈는디예. 안타까운 일이고.(응. 그러니까요. 증거물이 다 사라져 버렸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고.)

102005 #1 겐디 무사산디 그러더라고 우리 우에도 우리보단 우에 사람덜이 많

이 잇는데, 우에 지식인덜이 가만 서 보면 나를 어떻게 봣는지 영 정 헌거여. 영 정 헌 거여. 헤 가지고 거 뭐를 잘 일러 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게서 이제 그 분들이 다 돌아가 분 다음에는 동네 무신, 무신 뭣이나 뭐에 대헤서도 어떠헌 일은 거 어떵 헤시믄 좋고? 의논허는 사람이 잇더라고. 좀 지식 잇는 사람은 의논헤 오는 사람이 잇더라고.(그런데 왜인지 그러더라고 우리 위에도 우리보단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 지식인들이 가만 있어 보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한 거야. 해 가지고 거 뭐를 잘 일러 줬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다 돌아가 버린 다음에는 동네 무슨, 무슨 뭣이나 뭐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좀 지식 있는 사람은 의논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102005 @ 예.(예.)

102005 #1 게고 옛 어른덜안티 이런, 저런 말을 쓰고 글로는 어떻게, 어떻게 헌다 헙디다. 이렇게 헤가지고 이런 거를 영 들은 것이 잇는디, 지금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나이 우에 사람덜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그리고 옛 어른들한테 이런, 저런 말을 쓰고 글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합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들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나이 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니까.)

102005 @ 그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2005 #1 나보단 나이 우에 사람이 없어 노니까 지금 뚤아지게 이 사람안티 듣고 저 사람안티 듣고 헤서 거 비교헤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나보다 나이 위에 사람이 없어버리니까 지금 뚜렷하게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해서 거 비교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

102005 @ 게난마씨. 잘못허당 덧붙영 뭐 헷당은에 말덜이 다 이렇게.(그러니까요. 잘못하다가 덧붙여서 뭐 했다가 말들이 다 이렇게.)

102005 #1 우리 동네 춤 이 이상헌 동네라. 역ᄉᆞ가 묻어지는 거라. 어, 우리 동네 노인회장이 십년을 헷어. 저 옹포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부인을 따라가지고 우리 외ᄉᆞ촌 사위가 뒈어. 나보다 열 살 더 먹은 분인데, 십년을 헷어. 십년을 헤서 돌아가 부럿는데, 그 다음에는 노인회 사람이 잇는데 벌하르방이라 육지 하르방이 오란 사는데 그 하르방을 싫어허길레 흔 사람이 그 설움 받아난 사람이 흔번 왜 지방 사람은 아니 헤가지고 왜 객지사람을 헤야 뒈느냐? 헤서 허길레 나가 딱 우겨가지고, 지방 사람을 헷거든. 헤서 허니까 그 사람을 허젠 나가 허니까 이제 누구허고, 따른 때 이장도 헤난 분허고 그 사람은 ᄌᆞ격이 없는데 왜 허느냐? 그 사람 축지방도 허고, 뭐 허고, 좀 틀거리도 잇고, 한문도 좀 알고 허니까 뭐 벨 사람 잇느냐? 노인회장 뭐 벨 거 아니니까 경허커건 날보고 형님이 헙서! 에이 난 안 허켜. 게서 누구가 허는 말이 그 사람 그럼 노인회장 허건 형님이 허건 총무 헙서! 음 뭐 경허주 뭐. 총무허는 거 뭐 벨 거라! 뭐 허렌 허민 허주. 아, 경 헹 허니까 형님 허켄 허시난 그 사람 시기니까 형님허켄 헤시난 형님 헙서! 그 사람 헐 때 총무를 헷

거든. 그러니까 십년 헌 장부를 그대로 큼직헌 노트에다가 쭉 헤놧길레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그 사람 3년 허곡, 강성현도 또 시겨가지고 강성현이도 3년 허고, 보건소 지리를 아니까 또 아덜이 저 그때 국장으로 잇은 때니까 뭐 도엘 가나 어딜 가서도 조금 알아주고 그 사람이 도청에도 근무를 헤낫어. 경찰에도 근무를 헤나 헌 사람이거든.(우리 동네 참 이 이상한 동네야. 역사가 묻어지는 거라. 어, 우리 동네 노인회장이 십년을 했어. 저 옹포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부인을 따라가지고 우리 외사촌 사위가 돼. 나보다 열 살 더 먹은 분인데, 십년을 했어. 십년을 해서 돌아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노인회 사람이 있는데 벌 할아버지라고 육지 할아버지가 와서 사는데 그 할아버지를 싫어 하길래 한 사람이 그 설움 받아난 사람이 한번 왜 지방 사람은 안 해가지고 왜 객지 사람을 해야 되느냐?해서 하길래 나가 딱 우겨가지고, 지방 사람을 했거든. 그래서 하니까 그 사람을 하려고 나가 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다른 때 이장도 했던 분하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왜 하느냐? 그 사람 축지방도 하고 뭐허고 좀 틀거리도 있고 한문도 좀 알고 하니까 뭐 별 사람 있느냐? 노인회장 뭐 별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거든 날보고 형님이 하세요! 에이, 난 안 하겠다. 그래서 누구가 하는 말이 그 사람 그럼 노인회장 하면, 형님이 하면 총무 하세요! 음, 뭐 그렇게 하지 뭐. 총무하는 거 뭐 별 거라! 뭐 하라고 하면 하지. 아, 그렇게 해서 하니까 형님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사람 시키니까 형님하겠다고 했으니까 형님, 형님 하세요! 그 사람 할 때 총무를 했거든. 그러니까 십년 한 장부를 그대로 큼직한 노트에다가 쭉 해놨길래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그 사람 3년 하고, 강성현도 또 시켜가지고 강성현도 3년하고, 보건소 지리를 아니까 또 아들이 그때 국장으로 있을 때니까 뭐 도엘 가나 어딜 가서도 조금 알아주고 그 사람이 도청에서 근무를 했었고. 경찰에도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거든.)

102005 @ 예. 겋읍디다.(예. 말합디다.)

102005 #1 게서 뭐 절제도 알고, 비위도 차고 당신이 허는 게 허는 것이 좋다. 겐 허겠다고 헤서 나가 칠년을 헷어. 그러면은 칠년 반을 나가 헷는데 8년을 나가 말을 못 겋아. 아파근에 성대가 이게 경 울려야 뒈는데 서울 가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이게 ᄒᆞ나 움직이지 안 허니까.(그래서 뭐 절제도 알고, 비위도 차고 당신이 하는 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내가 칠년을 했어. 그러면 칠년 반을 내가 했는데 팔년을 나가 말을 못 말해. 아파서 성대가 이게 그렇게 울려야 되는데 서울 가니까 큰 병원에 가니까 이게 하나 움직이지 안 하니까.)

102005 @ 아이고.(아이고.)

102005 #1 말이 표현을 못 헌다.(말이 표현을 못 한다.)

102005 @ 쯧쯧쯧.(쯧쯧쯧.)

102005 #1 게서 기다립서. 기다립서. 헤도 육 개월 뒈도 지금 말이 막 잘 나오는 편인데.(그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해도 육 개월 되도 지금 말이 막 잘 나오는 편인데.)

102005 @ 에이고.(에이고.)

102005 #1 그때 말이 안 나왓어.(그때 말이 안 나왔어.)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게서 우리가 젊은 땐 노래도 잘 부르고.(그래서 우리가 젊은 땐 노래도 잘 부르고.)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막 노는 걸 좋아헷는데 이제는 영 막 허는데 다음 회장헨 보니까 그 놈의 책이 없어져버려. 그 놈이 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누가 허는 말이 누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거 사무실에 어느제 뒈신고? 거 면사무소에 가면은 알아질 거라! 나 츰 비참헤여. 동네 부끄러운 노릇이라. 어! 왜 원짱을 없애?(막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막 하는데 다음 회장해서 보니까 그 놈의 책이 없어져버려. 그 놈이 책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누가 하는 말이 누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거 사무실에 언제 됐는가? 거 면사무소에 가면 알아질 거야! 나 참 비참해. 동네 부끄러운 노릇이야. 어! 왜 원장부를 없애?)

102005 @ 지금 ᄀᆞ트면 복사를 헤야 뒈는데.(지금 같으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102005 #1 그게 역사가 다 잇고, 원장 그 당시에는 지원금이 언마 뒈곡 무슨, 무슨, 뭣이 어떵허고 어떵허고 헌 것이 다 잇고 수입, 지출, 내력 그 모든 게 다 잇는 건디 흐름에 따라서 자꾸 벤동이 뒈엇는디 하, 십년 전에는 어떻고 이십년 전에는 어떻고 다 헷는데 이걸 팽게쳐 불어. 게도 사진은, 나 아이고 츰, 우리 동네 참 챙피헌 동네라. 왜 그러냐면 지금 저디 저 편의점 잇지예? 청수ᄆᆞ을 향사터라. ᄆᆞ을 회관턴데 이게 군유지란 말이야. 이 시상은 나니까 시기상조 뒈니까니 ᄆᆞ음대로 딱 집이 잇엇는데, 이층집 잇어낫는데 확 뜯어 제끼고 뭐 또 그레 집을 지을라고 하니까 군에서 이것을 군 땅이니까 느네 ᄆᆞ음대로 못헌다. 사가란 말이야. 군에 강 사 강도 그 트멍에 집 짓어서. 이제 회관 지을 띠가 없으니까 이거 이젠 조용헌 딜로 헹 땅 사가지고 이디 임시로. ᄆᆞ을 회관이 동네 바깟디 지신 디가 청수베끼 엇어.(그것이 역사가 다 있고, 원장 그 당시에는 지원금이 얼마 되고 무슨, 무슨, 뭣이 어떻고, 어떻고 한 것이 다 있고 수입, 지출, 내력 그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동이 되었는데 하, 십년 전에는 어떻고 이십년 전에는 어떻고 다 했는데 이걸 팽개쳐 버려. 그래도 사진은 아이고 참, 우리 동네 참 창피한 동네야.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저 편의점 있지요? 청수마을 향사터야. 마을 회관턴데 이게 군유지란 말이야. 이 세상은 나니까 시기상조 되니까 마음대로 딱 집이 있었는데, 이층집 있었었는데 확 뜯어 제치고 뭐 또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군에서 이것이 군 땅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못한다. 사가란 말이야. 군에 가서 사 가서도 그 틈에 집 지었어. 이제 회관 지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이젠 조용한 데로 해서 땅 사가지고 여기 임시로. 마을 회관이 동네 바깥에 지은 데가 청수밖에 없어.)

102005 @ 게난 너무 떨어졍 잇언.(그러니까 너무 떨어져 있어서.)

102005 #1 내가 거리에 잇당 보민 게난 여기 마을 회관 어디 잇수과?(내가 거리에 있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 마을 회관 어디 있습니까?)

102005 @ 게난 이거 촛젠 허민 이거 찍엉 와사 뒈곡.(그러니까 이거 찾으려고 하면 이거 찍어서 와야 되고.)

102005 #1 동네가 어두와.(동네가 어두워.)

102005 @ 앞으로 이쪽에도 집 짓고, 또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헤야주. 어떵 헙니까? 에고.(앞으로 이쪽에도 집 짓고, 또 이런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에고.)

102005 #1 이디 사람이 부트지 안 허는 디라. 우리 알건데도 여러 사람이 오라 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앗어. 사는데 그 사람 생전을 못 살고 떠나 버리고, 떠나 버리고 이 자리에서도 사람 혼, 우리 육촌도 이디 살다가 그냥 떠나 버리고 또 딴 사람도 요기서 잇엇는데 한 사람이 자기 셍전을 못 살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안 보는 디로. 예. 이거 옛 어른덜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어, 지경을 명허는 것도 천재덜이 지경을 지어 논거라. 마을마다 보면은 이름이 또 다 틀리는데 이디가 이거 소원ᄉᆞ령이라 산을 써도 골총 뒈는 디라. 이디가 왕허여. 동네는 처지고, 계춘 형이라고 헤서 저 이계오름 저쪽에 헤서 탁 동네에 이신 더레 인감용이라고 헤서 이것이 쌍용이라 가지고 이런 데 잘못 산 쓰면 절제 손 헌다고 헷거든.(여기 사람이 붙지 않는 데야. 우리 알 건대도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집을 지어서 살았어. 사는데 그 사람 생전을 못 살고 떠나 버리고, 떠나 버리고 이 자리에서도 사람 한, 우리 육촌도 여기 살다가 그냥 떠나 버리고 또 딴 사람도 여기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생전을 못 살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안 보는 데로. 예. 이거 옛 어른들이 말이 틀림이 없어요. 어, 지경을 명하는 것도 천재들이 지경을 지어 놓은 거야. 마을마다 보면 이름이 또 다 틀리는데 여기가 이거 소원사령이라 산을 써도 고총 되는 데야. 여기가 왕해. 동네는 처지고, 계춘 형이라고 해서 저 '이계오름' 저쪽에 해서 탁 동네에 있는 데에 인감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쌍용이라 가지고 이런 데 잘못 산소 쓰면 절제 손 한다고 했거든.)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분이 혼번 그런 얘길 허드라고. 그런데 몃 년 전에. 여기 예배당 잇지예. 예배당이 인감용이라고 헤가지고 동네 우트레 탁 씨꺼져 노니 이디 사는 사람이 힘을 못 쓰겟다 이거야. 저 북쪽으로 계축용이 쌍용인디 저 가마오름, 저 ᄃᆞᆨᄆᆞᆯ오름, 이계오름이 잇지. 천주교가 그냥 거창하게 탁 씌완 아,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도 들은 말인데 영, 이렇게 돌아봐서 아, 이 동네 사람 쓸 만헌 사람은 재게 죽을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동네에서 황황하는 놈을 한 너댓 놈이 다 죽어버렷어. 불써 그 사람 말이 맞는다고 이게.(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길 하드라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여기 예배당 있지요. 예배당이 인감용이라고 해가지고 동네 위에 딱 씌워져버리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힘을 못 쓰겠다 이거야. 저 북쪽으로 계축용이 쌍용인데 저 가마오름, 저 'ᄃᆞᆨᄆᆞᆯ오름', '이계오름'이 있지. 천주교가 그냥 거창하게 딱 씌워서 아,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도 들은 말인데 이렇게, 이렇게 돌아봐서 아, 이 동네 사람 쓸 만한 사람은 재우 죽으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동네에서 황황하는 놈을 한 네다섯 놈이 다 죽어버렸어. 벌써 그 사람 말이 맞는다고 이게.)

102005 @ 게도 어떵 헙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헹 살아사주.(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살아야지.)

102005 #1 경허곡 나가 생각허건대 그거라. 우리 제주도 땅은 숨골이 잇어.(그리고 내가 생각하건대 그거야. 우리 제주도 땅은 숨골이 있어.)

102005 @ 예. 곶자왈[23].(예. '곶자왈')

102005 #1 푹푹 들어가는디. 배에는 자그마한 물이 잇다고 허는데 여기 거리 가운데 여기 숨골을 파 불엇어. 밧 하나. 군에서 사가지고 파버리니까. 엄청나게 그 물이 앚아야 뭘 건디 엄청나게 들어 배가 말허자면 파손뭔데 타서 누가 성공허겟느냐? 이거야. 겐 이제 앞으로 저 동네에서 이제 책임자가 헤야 뒈어. 이 지금 이장도 저쪽 동네에서도 객지에서 오랑 사는 사람, 몃 헤 안 뭔 사람이 오랑 이장 허곡 잇는데 저 저 동네에서는 사람이 많이 잇어.(푹푹 들어가는데. 배에는 자그마한 물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거리 가운데 여기 숨골을 파버렸어. 밭 하나. 군에서 사가지고 파버리니까. 엄청나게 그 물이 앉아야 될 건데 엄청나게 들어 배가 말하자면 파손된데 타서 누가 성공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동네에서 이제 책임자가 해야 돼. 이 지금 이장도 저쪽 동네에서도 객지에서 와서 사는 사람, 몇 해 안 된 사람이 와서 이장 하고 있는데 저 저 동네에서는 사람이 많이 있어.)

102005 @ 저지도.(저지도.)

102005 #1 예. 아니,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 저 평화동.(예. 아니, 아니. 우리 동네에서 이 저 평화동.)

102005 @ 아아. 같은 청수라도 평화동쪽은 잘 뭔다는 거마씨?(아아. 같은 청수라도 평화동쪽은 잘 된다는 거예요?)

102005 #1 예. 거기 사람이 여기 사람보다 세력이 낫다 이거여. 게난 이 동네에서.(예. 거기 사람이 여기 사람보다 세력이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102005 @ 이 동네는 어디꽈? 평화동이 아니고?(이 동네는 어딥니까? 평화동이 아니고?)

102005 #1 에?(에?)

102005 @ 여긴 무슨 동?(여긴 무슨 동?)

102005 #1 여긴 청수리.(여긴 청수리.)

102005 @ 청수리.(청수리.)

102005 #1 청수리. 이거 잔동이거든. 일로 영 이 버스도 일로 이제 돌리니까 뎅이는데.(청수리. 이거 잔동이거든. 이리로 이렇게 이 버스도 이리로 이제 돌리니까 다니는데.)

102005 @ 예.(예.)

102005 #1 멩이동은 저지 멩이동이고.(명이동은 저지 명이동이고.)

---

23)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말한다.

102005 @ 저지 멩이동.(저지 명이동.)

102005 #1 이쪽에는 잔동이 너버흘, 지버흘, 이딘 가민 빌레왓이 잇어. 신현동, 저펜이 허믄 광흘동 옛날말로 저기 지게흘 헤서 잇는데 이제는 객지 사람도 많이 오라서 살고 허니까 사람이 만헌데, 여기에는 떡 나서서 발언을 허나? 뭘 허나? 헐 놈이 없어. 게니까 이제 약헤져. 시대가 조금 눈이 뜬 사람은 다 나가 버리니까 우리 집이도 뭐 아덜이 다섯 성제 헷단 큰아덜은 시청에도 근무 헤나고, 군청에도 근무허단 들어 와가지고 살단 그만 가버리고 헷지. 혼때 황황헷는데 이제는 뭐 난 사람은 떠낫다허면은 고향으로 찾아오랑 살젠 안허거든. 이디 오민 일만 헤야 뒈니까 요즘은 일만 허고 사는 시상이 아니라.(이쪽에는 잔동이 '너버흘', '지버흘', 여기는 가면 '빌레왓'이 있어. 신현동, 저편에 하면 '광흘동' 옛날말로 저기 '지게흘' 해서 있는데 이제 객지 사람도 많이 와서 살고 하니까 사람 많은데, 여기에는 딱 나서서 발언을 하나? 뭘 하나? 할 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약해져. 시대가 조금 눈이 뜬 사람은 다 나가 버리니까 우리 집에도 뭐 아들이 다섯 형제 했다가 큰아들은 시청에도 근무 했었고, 군청에도 근무하다가 들어 와가지고 살다가 그만 가버리고 했지. 한때 황황했는데 이제는 뭐 난 사람은 떠났다하면 고향으로 찾아와서 살려고 안 하거든. 여기 오면 일만 해야 되니까 요즘은 일만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102005 @ 게도 저지리 예술마을로 바뀌고 또 땅값도 올라가고 또 여기도 농사짓는 사람은 저지리보다 땅이 더 좋앗덴 헙디다.(그래도 저지리 예술마을로 바뀌고 또 땅값도 올라가고 또 여기도 농사짓는 사람은 저지리보다 땅이 더 좋았다고 합디다.)

102005 #1 땅은 좋아봐야 요지금은 땅 좋앙 뭐 필요가 없어. 자왈이건 돌 동산이건 펭당으로 값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땅값이 쪼금 올르는 거. 올르는데 왜 올르느냐? 지방 사람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방 사람은. 이디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도 땅 살라는 욕심이 없어. 벌이도 엇고.(땅은 좋아봐야 요지금은 땅 좋아서 뭐 필요가 없어. 덤불이건 돌 동산이건 평당으로 값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땅값이 조금 오르는 거. 오르는데 왜 오르느냐? 지방 사람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방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도 땅 사려는 욕심이 없어. 벌이도 없고.)

102005 @ 벌이도 엇고.(벌이도 없고.)

102005 #1 예. 원예업을 흔엇이 허는 사람도 없고, 땅값을 올르는 건 지금 객지 사람덜 육지에서 돈 한 사람. 예. 멧 억쯤 쓴 거는 하자가 없는 사람덜, 돌담을 다아도 아주 부로끄 다은 것보다도 더 깨끗허게 그냥 착 허게 다아서 허는 그런 그 갑부덜이 오라가지고 사다가 보니까 이 땅값이 올랏지. 그 사람들이 아니 오면 청수 땅값은 만날 이 책상 밑에 이제, 밑터레 올라앚일 수가 없어.(예. 원예업을 한없이 하는 사람도 없고, 땅값을 오르는 건 지금 객지 사람들 육지에서 돈 많은 사람. 예. 몇 억쯤 쓴 거는 흠이 없는 사람들, 돌담을 쌓아도 아주 블럭 쌓은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그냥 척 하게 쌓아서 하는 그런 그 갑부들이 와서 사다가 보니까 이 땅값이 올랐지.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청수 땅값은 만날 이 책상 밑에 이제, 밑으로 올라

앉을 수가 없어.)

102005 @ 육지 사람덜이 다 아사불면 청수리라는 마을이 역사가 진짜 그런 게 아쉬운 거주게.(육지 사람들이 다 가져버리면 청수리라는 마을이 역사가 진짜 그런 게 아쉬운 거지.)

102005 #1 게니까 나는 어떻게 보느냐? 피난지로 오는 것 ᄀᆞ타. 전쟁이 나면은 살아남기 위헤서. 파짝허민 여기 와서 붙을 띠가 잇어야, 집이 잇어야. 겐디 나는 그거를 가만이 생각헤 봐. 요 동네 살 때에 아버님도 좀 그 학문이 좀 잇엇거든. 글이 좀 많이 담아졋다허는 사람은 촌으로, 여기도 촌이주만 이건 관중이고 여기 다슷 가구 사는 디는 진짜 촌이거든. 우리 집으로 집합을 헤여. 정감록이라고 허는 책이 잇어. 심이 왈 감이 대답허곡, 감히 왈 심이 대답허고, 두 양반이 세상일을 제낄 거라. 제낀 것이 정감록 비결이라는 책이라. 그 책을 나가 어릴 때지만 열다슷 미만이지만은 그 말을 가만이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잇어. 한강이 적탕삼일 하고 흑운이 파천칠일헌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강이 적탕삼일은 한강이 피로 사흘을 흐를 것이고 새 시상이 날라오면은 흑운이 파천칠일을 헌다 이거야. 흑구름이 밤낮 일뤠를 캄캄헌다는 거야. 왁왁허여. 게서 나가 지금 가만이 생각헤 보면은 서울에 폭탄이 맞앗다고 허면은.(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느냐? 피난지로 오는 것 같아. 전쟁이 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팔짝하면 여기 와서 붙을 데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봐. 요 동네 살 때에 아버님도 좀 그 학문이 좀 있었거든. 글이 좀 많이 들어갔다 하는 사람은 촌으로, 여기도 촌이지만 이건 관중이고 여기 다섯 가구 사는 데는 진짜 촌이거든. 우리 집으로 집합을 해. 정감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 심이 왈 감이 대답하고 감히 왈 심이 대답하고, 두 양반이 세상일을 제칠 거야. 제친 것이 정감록 비결이라는 책이야. 그 책을 내가 어릴 때지만 열다섯 미만이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 한강이 적탄삼일 하고 흑운이 파천칠일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한강이 적탄삼일은 한강이 피로 사흘을 흐를 것이고 새 세상이 오면 흑운이 파천칠일을 한다 이거야. 흙구름이 밤낮 이레를 깜깜하다는 거야. 깜깜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 폭탄이 맞았다고 하면.)

102005 @ 아아.(아아.)

102005 #1 이건 자동 폭팔이라. 폭팔물 읏인 집이 읏거든.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전부 그러지. 뭐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라 뭐 그냥 또 폭팔물 하간 뭣이 장치뒈 잇는 게 한이 없을 거란 말이여. 그러니 지금 이북놈덜이 지금 헤서 테레비에 나오는 거 보민 거 뭣허젠 멘들아 놔서? 웬지 언제 혼번 성나면은 때려부시젠 허는 거란 말이여. 그게 그렇게 뒈고 새 세상이 나게 뒈면은 계룡산 도읍이 뭔다는 거여. 계룡산 서울이 뭔다는 거여. 정씨가 검은 구름을 타고 입국헌다는 거라. 이디 잇인 사람이 잡지 못하고, 나라정제 정씨가 검은 구름을 타고 입국헌다는 거야. 농사가 농사를 지을려고 헤도 곡석 씨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게 핵무기가 생길 줄은 몰라. 그 양반덜은 핵무기 말은 없으니까 곡석 씨 엇일 정도면은 문제가 큰 거

아니냐? 곡석 씨는 어디서 전허느냐 하면 삼척 지구에서 곡석 씨가 잇을 것이다. 삼척 지구옌 헌 거 가만이 이서 보면은 강원도 삼척에 잇어. 가만이 서 보니까.(이건 자동 폭발이라. 폭발물 없는 집이 없거든.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전부 그렇지. 뭐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라 뭐 그냥 또 폭발물 여러 가지 뭣이 장치되어 있는 게 한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이북 놈들이 지금 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면 거 뭐하려고 만들어 놨어? 왠지 언제 한번 성나면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되고 새 세상이 나게 되면 계룡산 도읍이 된다는 거야. 계룡산 서울이 된다는 거야. 정씨가 검은 구름을 타고 입국한다는 거라. 여기 있는 사람이 잡지 못하고, 나라정자 정씨가 검은 구름을 타고 입국한다는 거야. 농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곡식 씨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게 꼭 핵무기가 생길 줄은 그 양반들은 몰라. 핵무기 말은 없으니까 곡식 씨 없을 정도면 문제가 큰 거 아니냐? 곡식 씨는 어디서 전하느냐? 하면 삼척 지구에서 곡식 씨가 있을 것이다. 삼척 지구라고 한 거 가만히 있어 보면 강원도 삼척에 있어. 가만히 있어 보니까.)

102005 @ 예.(예.)

102005 #1 게난 육지 사람덜 돈 한 사람덜 집 짓는 것이 피난지로 난 오는 걸로 봐져.(그러니까 육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집 짓는 것이 피난지로 난 오는 걸로 보여.)

102005 @ 아.(아.)

102005 #1 마을 가운데 오라서 벗헤서 살라고 안하고 독립 가옥으로 딱 오라서 점령을 허거든.(마을 가운데 와서 벗해서 살려고 안하고 마을 독립 가옥으로 딱 와서 점령을 하거든.)

102005 @ 참예. 역스가 새로 써져버리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왓던 그 청수와 이거는 어디로 갓느냐?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지금예. 게난 이런 거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옛날 옛날에는 이런 고향을 지킨 사람이 잇엇고. 육지 사람이라도 그런 책이 나오면 게도 이런 말을 거닐어지긴 헐 거 아니꽈예?(참요. 역사가 새로 써져 버리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왔던 그 청수와 이거는 어디로 갔느냐? 다 사라져 버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옛날 옛날에도 고향을 지킨 사람이 있었고. 육지 사람이라도 그런 책이 나오면 그래도 이런 말을 거닐어지기는 할 거 아닙니까?)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헤서 공출 그런 거 보긴 봐낫수과? 기억남수과? 일본 놈들.(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공출 그런 거 보긴 봤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일본 놈들.)

102005 #3 공출, 공출이엔 허는 건 선물세, 선물세라고 그랫는데 거 공출을.(공출, 공출이라고 하는 건 선물세 '선물세'라고 그랬는데 거 공출을.)

102005 @ 공출을 뭐렌 헨마씨?(공출 뭐라고 했다고요?)

102005 #3 선물세라고이, 우리.('선물세'라고, 우리.)

102005 @ 선물세?('선물세'?)

102005 #3 이 땅 버는 세금, 세금. 겐 그게 선물세라는 건 그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걸 뭐 선불로 받아다가 선불로 받아간다고 헤가지고 저 선물세라고 헷는지 몰라. 것도 나도 그 뜻은 지세히 모르겟는디 그 헤근에 그거 바쪄나서마씀.(그 땅 내는 세금, 세금. 겐 그게 '선물세'라는 건 우리도 자세히 모르지만 저걸 뭐 선불로 받아다가 선불로 받아간다고 해가지고 저 '선물세'라고 했는지 몰라. 것도 나도 그 뜻은 지세히 모르겠는데 그 해서 그거 바쳤었어요.)

102005 @ 어머니가예 어떤 거 영 가져가고 허는지 모르쿠과?(어머니가요? 어떤 거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102005 #3 선물세, 그전인 보리, 보리나 조 ᄀᆞ튼 걸로 헤근에 거 받으레 뎅겨 반장이.('선물세' 그전엔 보리, 보리나 조 같은 걸로 해서 거 받으러 다녀. 반장이.)

102005 @ 반장이?(반장이?)

102005 #3 예. 반장이 받아당은에 그 저 부락에 내노민, 이 부락에서 영 왕 면에서 왕 ᄀᆞ져가는지 어떵사 헷는지 건 자세힌 몰라예. 겐데.(예. 반장이 받아다가 그 저 부락에 내 놓으면, 부락에서 이렇게 와서 면에서 와서 가져가는지 어떻게 했는지 건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헤서 아는 바를 말씀헤 주십시오. 일본시대에 삼촌은 멧 살쯤 뒈엇수과? 일본 놈 들어왕 공출허는 거 생각남수과?(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시대에 삼촌은 몇 살쯤 되었습니까?)

102005 #4 에, 스물, 스무 술. 흔, 스무 술. 공출, 공출 우리가 헷지.(에, 스물, 스무 살. 한, 스무 살. 공출, 공출 우리가 했지.)

102005 @ 음.(음.)

102005 #4 보리 바쪄라.(보리 바치라.)

102005 @ 음.(음.)

102005 #4 감제 바찌라.(고구마 바치라.)

102005 @ 음.(음.)

102005 #4 저 절간 헌 거 바찌라.(저 절간 한 거 바치라.)

102005 @ 음.(음.)

102005 #4 뭐 이거 일본 놈의 시대는 아니, 공출 안 헌 게 없어.(뭐 이거 일본 놈의 시대는 아니, 공출 안 한 게 없어.)

102005 @ 음.(음.)

102005 #4 전부 그냥 헤 부난 먹을 게 없어. 바쳐 불면은 하영 ᄀᆞᆯ지 못 헐 땐.(전부 그냥 해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 바쳐 버리면 많이 갈지 못 할 땐.)

102005 @ 그믄 공출은 누가 바치렌 헙니까?(그러면 공출은 누가 바치라고 합니까?)

102005 #4 동네에 반장, 저 이장칩으로 반장칩으로 허민 그 반장덜은 흔 번에 이제 멧 석을 내노라 허면 이젠, 그거 멧 번 댕기멍 허민 그거 총채 채울 수가 없

어. 그땐 숭년 지난. 채울 수가 엇이면은 아이고 츰 잘도 곱곱헤낫주게. 겨난 이녁 먹을 것덜 다 글겅 바쪄나서. 일본시대에.(동네에 반장, 저 이장 집으로 반장 집으로 하면 그 반장들은 한 번에 이제 몇 석을 내노라 하면 이젠, 그거 몇 번 다니면서 하면 그거 총채 채울 수가 없어. 흉년 지니까. 채울 수가 없으면 아이고 참, 잘도 갑갑했었지. 그러니까 이녁 먹을 것들 다 긁어 바쳤었어. 일본시대에.)

102005 @ 주로 보리를 많이 뭐 헷겟다예?(주로 보리를 많이 뭐 했겠네요?)

102005 #4 그땐 비료도 없언. 비료도 없어.(그땐 비료도 없었어. 비료도 없어.)

102005 @ 음. 뭐 보리 조, 콩, 다?(음. 뭐 보리 조, 콩, 다?)

102005 #4 보리, 에 좁쏠, 콩, 뭐, 뭐 절간 감저, 저 드르에 강은에 솔똥을 다 주시멍 바쳐서.(보리, 에 좁쌀, 콩, 뭐, 뭐 좁쌀 절간 고구마, 저 들에 가서 솔방울을 다 주우면서 바쳤어.)

102005 @ 하.(하.)

102005 #4 솔 ᄋᆞ름을.(솔 열매를.)

102005 @ 솔똥까지마씨?(솔방울까지요?)

102005 #4 응. 솔똥이엔 헌 거 그거 헹 바치믄 이거 뭐 헐 꺼난 군대에서 벵정덜 불 솔뢍 출꺼라고. 그런 것도 잇어나고.(응. 솔방울이라고 한 거 그거 해서 바치면 이거 뭐 할 거라서 군대에서 병정들 불 피워서 쮈 거라고. 그런 것도 있었었고.)

102006 @ 아아, 세상에! 그러면 ᄉᆞ삼 ᄉᆞ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헤 주십시오. ᄉᆞ삼 ᄉᆞ건 때는 삼촌이 멧 살쯤 됏수과?(아아, 세상에!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삼 사건 때는 삼촌이 몇 살쯤 됐습니까?)

102006 #1 우리가 열ᄋᆞ섯에 신창 내려 갓주게.(우리가 열여섯에 신창 내려갔지.)

102006 @ 아아. 아우.(아아. 아우.)

102006 #1 여기를 전부 산간에는 일시에 불을 그때 초가집이거든. 일시에 불을 콱 질러서 태와 버렷어. 부틀 수가 없거든.(여기를 전부 산간에는 일시에 불을 그때 초가집이거든. 일시에 불을 콱 질러서 태워 버렸어. 붙을 수가 없거든.)

102006 @ 다 태와 불언?(다 태워 버렸어요?)

102006 #1 다 내려가야 산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애기 헷거든.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그 당시에 그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말이 귀에 셍셍허여.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 게니까 전부 해변으로 이장을 헷다고. 전부 내려갓는데, 내려갓는데 그 당시엔 청년덜을 전부 그 군복 같이 옷을 ᄐᆞ로허고.(다 내려가야 산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런 애기 했거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 말이 귀에 생생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해변으로 이장을 했다고, 전부 내려갔는데, 그 당시엔 청년들을 전부 그 군복 같이 옷을 따로 하고.)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ᄐᆞ로 입히고 이제 죽창, 창을 해서 그냥 내가 둑지에 탁 메게 허고, 이제 그 화이바 이젯말로 군대에서 쓰는 그 화이바, 그런 화이바를 해서 데겡이에 탁 써서 그냥 빈찍빈찍허게 그냥 그 파랑 뼁끼 메겨가지고 짝 허게 매겨서 탁 사니까 산에 공비를 잡아 온 사람이 잇엇거든. 자기네가 망원경으로 못 볼 때에는 우리는 틀렷다. 그렇게 헷다고 헤여. 그런데 전부 현역군인으로 놔가지고 지금 지방마다 청년을 전부 그렇게 단체로 헤가지고 헤서 딱 허게 헤여. 죽창 매고 있는 걸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 봣을 때는 무장헌 군인으로 봣다고 허여. 게서 산 놈덜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엇다 헤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찰이 피헤로 승리를 헤가지고 공비가 다 없어져 버렸지. 경 헤연 그렇게 허다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순전 지 밧디 일만 헐 줄 아는 사람덜은 애무허게 확 훙이면은 겁이 나가지고 ᄆᆞ음이 달달 떨리면은 이게 이상이 있는 거라고 헤서, 심어다가 죽여 버렷단 말이여. 그니까 춤 비참허게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따로 입히고 이제 죽창 창을 해서 그냥 내가 어깨에 탁 메게 하고, 이제 그 헬멧 이젯말로 군대에서 쓰는 그 헬멧, 그런 헬멧을 해서 머리에 탁 써서 그냥 번쩍번쩍하게 그냥 그 파랑 페인트 칠해 가지고 짝 하게 칠해서 탁 사니까 산에 공비를 잡아 온 사람이 있었거든. 자기네가 망원경으로 못 볼 때에는 우리는 틀렸다. 그렇게 했다고 해. 그런데 전부 현역군인으로 놔가지고 지방마다 지금 청년들 전부 그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해서 딱 하게 해. 죽창 매고 있는 걸 멀리서 그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무장한 군인으로 봤다고 해. 그래서 산 놈들이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찰이 피해로 승리를 해가지고 공비가 다 없어져 버렸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 순전 자기 밭에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애무하게 확 큰소리로 야단치면 겁이 나가지고 마음이 달달 떨리면 이게 이상이 있는 거라고 해서, 잡아다가 죽여 버렸단 말이여. 그러니까 참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102006 @ 게도 삼촌 열여섯 살인데 어째든 그때도 위험허긴 위험헤서 그때도 잘, 그레도 벨일 어선 다행이다예.(그래도 삼촌 열여섯 살인데 어쨌든 그때도 잘, 그래도 위험허긴 위험해서 그때도 별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102006 #1 예.(예.)

102006 @ 청년들이 갑자기 억울허게 죽거나 이런 일이.(청년들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거나 이런 일이.)

102006 #1 우리는 그 당시만 헤도 열ᄋᆞ섯 솔인데도 작앗거든.(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열여섯 살인데도 작았거든.)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즉앗는데 신체가 좋은 사람은 걸려들어 갓어.(작았는데 신체가 좋은 사람은 걸려들어 갔어.)

102006 @ 신체가 큰 사람덜은?(신체가 큰 사람들은?)

102006 #1 예. 한두 솔 우에 사람은 피헤 본 사람이 만헤. 걸려 든 사람이 만아. 일반인이 많앗는데.(예. 한두 살 위에 사람은 피해 본 사람이 많아. 걸려 든 사람이

많아. 일반인이 많았는데.)

102006 @ 게난마씨. 게난 친척이 가족 중에 그렇게 하면 막 무서운 것들은 봐낫수과? 영 불타는 건 봣엇고, 사람 죽이는 것도 봐난마씨?(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척이 가족 중에 그렇게 하면 막 무서운 것들은 봤었어요? 이렇게 불타는 건 봤었고, 사람 죽이는 것도 봐.)

102006 #1 아니,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는 안 보고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저 해변 간 사람덜, 여기서 저 아레 내려간 사람덜 허민 누구, 누구 나오라고 헤서 데리고 밧디 간다고 허여. 밧디 사형 헐 걸로 데려 가 가지고 다르륵허게 쏘아버리고.(아니, 우리는 사람 죽이는 거는 안 보고 사람 죽이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저 해변 간 사람덜, 여기서 저 아래 내려간 사람들하면 누구, 누구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밭에 간다고 해. 밭에 사형 할 걸로 데려 가 가지고 '다르륵'하게 쏘아버리고.)

102006 @ 봐나진 안허고예?(보진 않고요?)

102006 #1 예. 일반사람은 보게 허는 게 아니주게. 막 취조허고 뭐 허고 막 뭐 헤서 막 못젼디게 굴어 놔가지고 계엄령 시절이니까 일개 순경이 사형 헐 권리가 잇엇어.(예. 일반사람은 보게 하는 게 아니지. 막 취조하고 뭐하고 막 뭐해서 막 못견디게 굴어 놔가지고 계엄령 시절이니까 일개 순경이 사형할 권리가 있었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일개 순경이 사람 뭐 자기 죽이고 싶은 사람 감정 있는 사람 좀 너 이리 와. 데리고 와가지고 쏘아 죽여불어도, 이거는 호소헐 길이 없어.(일개 순경이 사람 뭐 자기 죽이고 싶은 사람 감정 있는 사람 좀 너 이리 와. 데리고 와가지고 쏘아 죽여 버려도, 이건 호소할 길이 없어.)

102006 @ 뭐 저 서북청년단이다 이런 검은 개여 노랑 개여 이런 말 써낫수과? 봐낫수과?(뭐 저 서북청년단이다 이런 '검은 개'여, '노랑 개'여 이런 말 썼습니까? 봤었습니까?)

102006 #1 그런 거는 그 산 놈덜이 허는 말이주.(그런 거는 그 산 놈들이 하는 말이지.)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산에 올라간 공비가 순경은 검은 모자 쓰니까 검은 개.(산에 올라간 공비가 순경은 그 검은 모자 쓰니까 '검은 개.')

102006 @ 검은 개.(검은 개.)

102006 #1 이제 군인은 그 검은 모자를 안 쓰니까 노랑 개.(이제 군인은 검은 모자를 안 쓰니까 '노랑 개.')

102006 @ 잠깐 쉬게예.(잠깐 쉬어요.)

102006 #1 게난 점쟁이도 아는 거라. 우리 집 사람이 하도 굽굽허난 들으레 가난에 간 죽은 사람도 간섭도 안 헤오랏젠 확 훙이더라고 확 훙연 죽지 안헤도 하도 답답허난 들으레 오랏덴 이제 안 죽엇으니 살아나켄. 경 골아둰 점쟁이도 아는 모

양이라. 그 완전히 죽을 거주게.(그러니까 점쟁이도 아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갑갑하니까 들으러 가니까 가서 죽은 사람도 간섭도 안 해 왔다고 확 야단치더라고 확 야단쳔 죽지 안 해도 너무 답답하니까 들으러 왔다고 이제 안 죽었으니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말해두고 점쟁이도 아는 모양이라. 그 완전히 죽을 거지.)

102006 @ ᄉᆞ삼 때 뭐 할아버지 때에나 이런 때, 누구 뭐 일본으로 갓다거나 뭐 이런 건 엇수과? 피혜 막 옆에서.(사삼 때 뭐 할아버지 때에나 이런 때, 누구 뭐 일본으로 갔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피해 막 옆에서.)

102006 #1 우리 집에는 그렇게 활동성이 있는 분이 없어. 일본 출입 허는 사람도 없고.(우리 집에는 그렇게 활동성이 있는 분이 없어. 일본 출입 하는 사람도 없고.)

102006 @ 게도 ᄉᆞ삼 때 무서워가지고 신창에서 살 때엔 무싱 거 먹으멍 지넷수과? ᄉᆞ삼 때.(그래도 사삼 때 무서워가지고 신창에서 살 때엔 무엇 먹으면서 지냈습니까? 사삼 때.)

102006 #1 그때는 그 저 보리밥 먹고.(그때는 그 저 보리밥 먹고.)

102006 @ 놈이 집 강?(남의 집 가서?)

102006 #1 고구마 고구마 허니까, 그 저 갈 때에 그 보리쏠 실르고 가곡, 또 그 우리는 영 좀 호강허게 살앗주게. 우리 고모가 신창이고.(고구마, 고구마 하니까, 그 저 갈 때에 그 보리쌀 실어가고, 또 그 우리는 이렇게 좀 호강하게 살았지. 우리 고모가 신창이고.)

102006 @ 아.(아.)

102006 #1 그 순굴왓동네엔 헌 디 가니까, 그디 우리 고모 낳지 않은 아덜덜이 삼형제가 잘 살앗다고, 쉐구루마 이시니까 뭐 멍석 ᄀᆞ튼 거 이런 거 뭐 하간 농기구에 뭐 쏠 같은 거나 하나 버리지 안허고 전부 실어다 주니까.(그 '순굴왓' 동네라고 한 데 가니까, 거기 우리 고모 낳지 않은 아들들이 삼형제가 잘 살았다고, 소달구지 있으니까 뭐 멍석 같은 거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농기구에 뭐 쌀 같은 거 하나 버리지 않고 전부 실어다 주니까.)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가고 그디 가서 이제 임자네 집 바꺼리 같은데 이제 그디서 밥 헹 먹으멍 삽센허니까, 그추룩 눕곡, 그디 큰 사촌이 그때 구장이라서.(가고 거기 가서 이제 임자네 집 바깥채 같은데 이제 거기서 밥해서 먹으면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눕고, 거기 큰 사촌이 그때 구장이라서.)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구장이고 뭐허곡 허니까니 우리 사촌이랑 거찌지 말렌 헤신ᄀᆞ라 경찰안티도 우리 아버지 흔엇이 피헤를 안 받앗주기.(구장이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 사촌이랑 건들지 말라고 했는지 경찰한테도 우리 아버지 한없이 피해를 안 받았지.)

102006 @ 아아. 구장이면 어디 구장마씨? 신창? 아니 한경면?(구장이면 어디 구장이요? 신창? 아니 한경면?)

102006 #1 한경면이게 신창 이구라고 헷어.(한경면이게 신창 이구라고 했어.)

102006 @ 겐 거기서 일 년간을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엇어진 거지예? 다 새로 지언마씨?(그래서 거기서 일 년간을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니까 집이 없어진 거지요? 다 새로 지었어요?)

102006 #1 동짓달에 중순에 음력으로 동짓달에 중순에 내려가니까 다음해 ᄉᆞ월 달에 올라 왓거든. 올라오니까 내려갈 때에 그때 보리가 이제 파종이 끗낫어. 끗난 때 내려가니까 올라와가지고 허니까 그때 보리가 누릿누릿허게 익으니까, 갈아 둰 간 보리를 비어다가 또 장만헤서 먹고 살앗거든.(동짓달에 중순에 음력으로 동짓달에 중순에 내려가니까 다음 해에 사월 달에 올라왔거든. 올라오니까 내려 갈 때에 그때 보리가 이제 파종이 끝났어. 끝난 때 내려가니까 올라와가지고 하니까 그때 보리가 누릇누릇하게 익으니까, 갈아두고 간 보리를 베어다가 또 장만해서 먹고 살았거든.)

102006 @ 아이고. 세상에 쯧쯧쯧.(아이고. 세상에 쯧쯧쯧.)

102006 #1 일 년 산 것이 아니. 잠깐 동안이지. 한 오륙 개월 ᄃᆞᆯ수로 오륙 개월 살고, 아래 나간 사람은 전부 올라 오랏는디, 청수로 집중이 되엇어. 저지고 산양이고 조수, 낙천은 아니고. 이디 와가지고 성담을 다왓어. 네모반듯허게. 응, 네모반듯헌데 담 구비 구비 이 메다, 높이 ᄉᆞ 메다, 담꼭대기가 일 메다, 게 담우로 사람이 팔팔 놀아다닐 수 잇어.(일 년 산 것이 아니. 잠깐 동안이지. 한 오륙 개월 달수로 오륙 개월 살고, 아래 나간 사람은 전부 올라왔는데, 청수로 집중이 되었어. 저지고 산양이고 조수, 낙천은 아니고. 이디 와가지고 성담을 쌓았어. 네모반듯하게 네모반듯한데 담 구비 구비 이 미터, 높이 사 미터, 담 꼭대기가 일 미터, 그게 담 위로 사람이 팔팔 날아다닐 수 있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그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거기에 보초막을 중간에 요렇게 담 준등이에 덜 쌓아가지고 사람 ᄒᆞ나 안지게 헹 바깥으로 볼 수 있게 헤서 이제 근무를 취헷주게. 그때는 공비가 꿰 이실 때니까.(그렇게 해서 쌓아가지고 거기에 보초막을 중간에 요렇게 담 허리에 덜 쌓아가지고 사람 하나 앉게 해서 바깥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이제 근무를 취했지. 그때는 공비가 꽤 있을 때니까.)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그렇게 허다가 자꾸 토벌가고 뭐 허곡헤서 이제는 공비가 진화되니까 이 성담을 헤제헤 버리고.(그렇게 하다가 자꾸 토벌가고 뭐하고 해서 이제는 공비가 진화되니까 성담을 해제해 버리고.)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그때는 이제 나도 ᄒᆞ쏠 ᄋᆞᆨ고, 한문을 조끔 헐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뭘 허는 고 허니까, 출장소근무를 시기는 거라.(그때는 이제 나도 조금 철들고, 한문을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마을에서 뭐를 하는가 하니까, 출장소 근무를 시키는 거라.)

102006 @ 예.(예.)

102006 #1 시기는 디 뭐냐허면은 나무로다 큰 네 군데 뭐를 헤서. 청수거리에 절로 저지로 내려 오는디 이디허고 저 고산더레 가는데 허곡 낙천더레 가는디 근무를 헤가지고 허면은, 요만헌 널짝을 만들아. 요만헌 널짝을 만들아서, 절로 들어오는 사람은 들 입 제 쓴 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나가 그 헹적을 봣는데, 들어오면은 내 출 제 쓴 거를 그 사람 주소, 성명, 헹선지를 쓰고, 그거는 들 입 자 쓴 거는 받고, 에, 저 하꼬짝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 놔가지고, 내 출 자 쓴 거를 그 사람을 줘. 내 출 자 쓴 거를 ᄀᆞ져다가 정문지기신디 주면은 문을 올어주고, 그걸 안 주면은 아명 뭐헌 사람도 다른 동네사람은 문을 딱 ᄌᆞᆼ가서 안 올아 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명령복종을 안 허면은 안 뒈게 뒈엇주. 그런 시절이 잇엇주. 게서 그 당시만 헤도 그렇게 헐라니까 마을에서 밥헤 주니까 먹고, 집이 밥은 안 먹고 인자 그걸 근무헌다고 헤가지고 허니까, 한 ᄃᆞᆯ에 모슬포에는 경찰서라고 삼부경찰서, 흔 달에 ᄊᆞᆯ 한 말, 석 달에 흔 번을 주거든. 석 달에 흔 번을 주는데, 가면은 석 달치 ᄊᆞᆯ 서 말을 알량미 ᄀᆞᆫᄊᆞᆯ을 주면은 타다가, 이젠 집에 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놔가지고 죽을 쒕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네는 고급으로 먹언 살앗주.(시키는 데 뭐냐면 나무가 큰 네 군데 뭐를 해서. 청수거리에 절로 저지에서 내려오는데 여기하고 저 고산으로 가는데 하고 낙천으로 가는데 큰 뭐를 해가지고 하면은, 요만한 널짝을 만들어, 요만한 널짝을 만들어서, 저리로 들어오는 사람은 들 입 자 쓴 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 나가 그 행적을 봤는데, 들어오면은 날 출 자 쓴 거를 그 사람 주소, 성명, 행선지를 쓰고, 그거는 들 입 자 쓴 거는 받고, 저 상자짝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 놔가지고, 날 출 자 쓴 거를 그 사람을 줘. 날 출 자 쓴 거를 가져다가 정문지기에게 주면 문을 열어주고, 그걸 안 주면은 아무리 뭐한 사람도 다른 동네사람은 문을 딱 잠궈서 안 열어주거든. 그러니까 이건 명령복종을 안하면 안되게 되었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려니까 마을에서 밥해주니까 먹고, 집이 밥은 안 먹고 인제 그걸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한달에 모슬포에는 경찰서라고 삼부경찰서, 한 달에 쌀 한 말, 석 달에 한 번은 주거든. 석 달에 한 번을 주는데, 가면은 석 달치 쌀 서 말을 안남미 흰쌀을 주면은 타다가,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걸 놔가지고 죽을 쒀서 먹으니까 우리 아버지네는 고급으로 먹어서 살았지.)

102006 @ 음(음.)

102006 #1 겐 나는 마을에서 헤 준 밥을 얻어먹엉 살고 그런 역사가 잇어.(그리고 나는 마을에서 해 준 밥을 얻어먹어서 살고 그런 역사가 있어.)

102006 @ 예. 아구, 세상에, 게믄 담 쌓을 때도 어머니도 가고 삼촌도 갑디가?(예. 아구, 세상에, 그러면 담 쌓을 때도 어머니도 가고 삼촌도 갔습니까?)

102006 #1 담 쌓을 때는 노동력이 잇는 사람은 노소를 막론허고 다 가야 뒈.(담 쌓을 때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노소를 막론하고 다 가야 돼.)

102006 @ 음.(음.)

102006 #1 큰 돌이라도 영 으라이 너이 들엉 지어도 나 버쳉 못 지켄 소릴 안 허여.(큰 돌이라도 이렇게 여럿이 넷이 들어 져도 나 힘들어서 못 지겠다고 소릴 안 해.)

102006 @ 음.(음.)

102006 #1 음. 아, 경찰이 탁 들어사민 사용권이 잇어노니까.(아, 경찰이 탁 들어서면 사용권이 있으니까.)

102006 @ 음.(음.)

102006 #1 얼마나 무서운지.(얼마나 무서운지.)

102006 @ 그믄 저지도 쌓고 청수도 쌓고, 마을마다 다 쌓앗수과? 성담은?(그러면 저지도 쌓고 청수도 쌓고, 마을마다 다 쌓았습니까? 성담은?)

102006 #1 예. 들어오면서는 다 쌓앗거든. 그렇게 헤가지고 쪼금 진압이 뒈어서 공비가 이제 얼마 없다 허니까, 저지도 올라가고, 산양도 올라가고, 이제 처음에 올라오기는 청수 안에 와가지고, 빈틈읏이 조그만씩 집 지어 가지고, 어, 임시 비만 발게해서 조그만썩 헤가지고, 잇다가.(예. 들어오면서는 다 쌓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진압이 되어서 공비가 이제 얼마 없다 하니까, 저지도 올라가고, 산양도 올라가고, 처음에 올라오긴 청수 안에 와가지고, 빈틈없이 조그맣게 집 지어 가지고, 임시로 비만 받히게 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있다가.)

102006 @ 어만큼 큰, 백 평, 이백 평 그런 성담이꽈? 어마큼 커마씨?(얼마만큼 큰, 백 평, 이백 평 그런 성담입니까? 얼마만큼 커요?)

102006 #1 게니까 이 마을 절반 정도만 쌓은 거라.(그러니까 이 마을 절반 정도만 쌓은 거라.)

102006 @ 아아 절반. 터가 뭐 단이 ᄒᆞ낌 남아 이신가예? 헷던 거?(아아 절반. 터가 뭐 단이 조금 남아 있는가요? 했던 거?)

102006 #1 다 치와버렷지. 경제정리라던지 뭐니 허면서 그냥 막 돌이 없어서 씰어가는 판인데 게 세상변화라고 허는 게, 춤 그짓말 닮은 노릇이주기.(다 치워버렸지. 경제정리라든지 뭐니 하면서 그냥 막 돌이 없어서 쓸어가는 판인데 그게 세상변화라고 하는 게, 참 거짓말 닮은 노릇이지.)

102006 @ 어느 쪽에 성담을 쌓앗수과? 지금 만약에?(어느 쪽에 성담을 쌓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102006 #1 이 요디 카센타 잇는 일로 흔 오십메다 안으로 헤가지고 요 길로 저이 저레 쭉 허게 나가가지고.(이 여기 차 센터 있는 일로 한 오십 미터 안으로 해가지고 요 길로 저이 저쪽에 쭉 하게 나가가지고.)

102006 @ 게도 어디 영 돌담 잇인 디가 게도 한 구석이라도 이실거라예?(어디 이렇게 돌담 있는 데가 그래도 한 구석이라도 있을 거예요?)

102006 #1 다 치와 가지고, 이제는 그레 집도 짓고, 성담 이제 그 얼매고? 이메타 널비민 즉은 거라게? 담이 어마어마 돌이 들어갓거든, 게서 자로 말허자면 열두 자 높이로 쌓은 거라. 열두자 높이를 쌓으면은 우에가 가서도 일메다 너베기가 뒈

니까 딱 올라사서 ᄉᆞ방 경계도 헐 수 잇고, 게. 담이 너브니까 이제 요렇게 돌라가지고 뒈면은 이디 사람 앉아가지고 바깟더레 보게 요렇게 구멍 내가지고 볼 수 잇게, 영 볼 수 있게, 중간으로 가이단 놔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딱 혼 사람만 올라가고 내려 올수 있게, 그렇게 헤가지고 보초사고.(다 치워 가지고, 이제는 거기 집도 짓고, 성담 이제 그 얼만가? 성담 이제 그 이미터 넓이면 작은 거니?. 담이 어마어마 돌이 들어갔거든. 그래서 자로 말하자면 열두 자 높이로 쌓은 거라. 열두 자 높이를 쌓으면 위에 가서도 일 미터 넓이가 되니까 딱 올라서서 사방 경계도 할 수 있고, 그래. 담이 넓으니까 이제 요렇게 남겨 가지고 되면 여기 사람 앉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보게 요렇게 구멍 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중간으로 계단 놔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딱 한 사람만 올라가고 내려 올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초 서고.)

102006 @ 겐 마을 사람덜은 그?(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102006 #1 겐 사무실에서 자꾸 순찰 돌고, 유지들이 순찰 꼭 돌앗주게.(그래서 사무실에서 자꾸 순찰 돌고, 유지들이 순찰 꼭 돌았지.)

102006 @ 순찰 돌고, 이 마을에는 ᄉᆞ삼 때 피해는 많인 엇엇수과?(순찰 돌고, 이 마을에는 사삼 때 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102006 #1 공비 피헤는 엇고, 공비 피헤는 없는데, 이제 그 공비덜 그때 막 한참 막 성헐 때라노니까 내려가니까 그 안 죽을 사람도 많이 죽어부럿주게. 왜 그러냐면은.(공비 피해는 없고, 공비 피해는 없는데, 이제 그 공비들 그때 막 한참 막 성할 때였으니까 내려가니까 그 안 죽을 사람도 많이 죽어 버렸지. 왜 그러냐면.)

102006 @ 친척?(친척?)

102006 #1 이 사람허고 이 사람허고 ᄒᆞ쏠.(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조금.)

102006 @ 친ᄒᆞ다.(친하다.)

102006 #1 좀 사이가 좋지 안 허다 허면은.(좀 사이가 좋지 않다. 사이가 좋지 않다 하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사상의 문제가 저거 미운 거라고 손가락질 헤불면 경찰안티 손가락질 헷다고 너 이레와. 가면 없어져 부는 거라.(사상의 문제가 저거 미운 거라고 손가락질 해버리면 경찰한테 손가락질 했다고 너 이리와. 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라.)

102006 @ 무섭다예.(무섭네요.)

102006 #1 게니까 제라허게 경찰허고 맞대어서 이제 정치싸움을 헐라고 헤서 헌 사람덜이 아니고, 왜 이 엉뚱허게 좀 유감 잇는 사람은 다 죽어 버렷어.(그러니까 올바르게 경찰하고 맞대어서 이제 정치싸움을 하려고 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고, 왜 이 엉뚱하게 좀 유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버렸어.)

102006 @ 쯧쯧쯧쯧. 에구, 사람 참예. 무섭다예?(쯧쯧쯧쯧. 에구, 사람 참요. 무섭네요?)

102006 #1 놈 앞이서 큰 소리 혼 번 칠 수 없는 그런 선량헌 사람덜, 경찰이 이

레와 봐 혜영 허면은 발발 떠는 뭐가 시민 이거 틀리니까 영 헴구나. 헤서 기냥 헤버리니까.(남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칠 수 없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 경찰이 이레와 봐. 해서 하면은 발발 떠는 뭐가 있으면 이거 틀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냥 해버리니까.)

102006 @ 너무너무, 진짜 잇을 수 없는.(너무너무, 진짜 있을 수 없는.)

102006 @ ᄉᆞ삼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 아까 말씀하셧잖아예. 겁나난 일이라던가 아버지 겅 돌아가시난 또 뭐 보복이라던가 이런 거, 주위에 이런 거,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거 유족으로 지금 뭐 뒛수과?(사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겁났던 일이라든가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또 뭐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 주위에 이런 거 아이고 진짜 뭐 이런 거 유족으로 지금 뭐 됐습니까?)

102006 #3 거 무싱 거 헌 거 유족헹은에 감젠 헹게 난 그 날 시에 교육 받으레 갈 거라부난.(거 무엇 한 거 유족해서 간다고 하던데 난 그 날 시에 교육 받으러 갈 거라서.)

102006 @ 막 나중에야 유족으로 이렇게 된 거지예?(막 나중에야 유족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102006 #3 ᄉᆞ삼 난 이제야 덜 유족.(사삼 난 이제야 덜 유족.)

102006 @ 에고. 게난마씨. 어머니는 언제 삼촌 멧 살 때 돌아가신 거마씨? 정말로?(에고,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언제 삼촌 몇 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로?)

102006 #3 우리 어머니가 서른, 서른에 헷던가?(우리 어머니가 서른, 서른에 했던가?)

102006 @ 삼촌 서른쯤? 아, 애기 낳고 다 좋은 거 다 보고.(삼촌 서른쯤? 아, 애기 낳고 다 좋은 거 다 보고.)

102006 #3 응. 게난 스물아홉인가 서른 때, 저 홀로 들어서예. 우리 어머니가,(응. 그러니까 스물아홉인가 서른 때, 저 홀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102006 @ 여든 넘게 사시긴 사셨구나.(여든 넘게 사시긴 사셨구나.)

102006 #3 일흔 아홉에 돌아갔나? 여든까지 못 체와십주.(일흔아홉에 돌아갔나? 여든까지 못 채웠지요.)

102006 @ 응.(응.)

102006 #4 아이고, ᄉᆞ삼사건 때는 뭐옌 ᄀᆞᆯ으코?(아이고, 사삼사건 때는 뭐라고 말할까?)

102006 @ 멧 살 때 쯤이꽈? 삼춘.(몇 살 때 쯤이예요? 삼촌.)

102006 #4 음. 흔 스무 술.(음. 한 스무 살.)

102006 @ 예. 결혼하기 전이다예.(음, 결혼하기 전이네요.)

102006 #4 아니, 아니. 결혼, 엿날은 열다섯만 넘으믄 열일곱 술, 열ᄋᆞ답 술, 열아홉 술, 스무 술ᄁᆞ장 결혼 헷지.(아니, 아니. 결혼, 옛날은 열다섯만 넘으면 열일곱 살, 열여덟 살, 열아홉 살, 스무 살까지 결혼 했지.)

102006 @ 아아.(아아.)

102006 #4 게난 흔 열일곱이라고 헤여.(아니, 아니. 결혼, 옛날은 열다섯만 넘으면 열일곱 살, 열여덟 살, 열아홉 살, 스무 살까지 결혼했지. 그러니까 한 열일곱이라고 해.)

102006 @ 겐 시집 어른덜허고 같이 살앗겟다예?(그래서 시집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겠네요?)

102006 #4 응.(응.)

102006 @ 경 헹 사삼 터지난?(그렇게 해서 사삼 터지니까?)

102006 #4 게. 터지난 이젠 이 산간에는 다 그냥 저 불 부쳐부니까, 해각으로 다 내려간, 해각으로 ᄂᆞ려간 어디 안 사람 잇이민 허고, 안 사람 엇이민은 놈의 집 방, 무싱거 쉐막 ᄀᆞ튼 것도 ᄒᆞ나 빌엉 그디 살고. 춤, 경허단에 이젠 흔 멧 둘 살아지난에 말째엔 이디 올라오난 담만 벌겅헷어. 집 하나도 없언 다 불 캐와부난. 겨난 이제 그거 헹 멜랑 두루 두루 두루 담 다아근에 도에 무싱 거 영 쳔 그디서 밥 헤영 먹고 그디, 그디 그냥 눵 자고, 흐흐흐흐. 기가 막히지. 먹을 건 셔? 숭년이 지난 먹을 건 엇이난 저 화순ᄁᆡ장 강 감제똥 사다근에, 그것 헨 이젠 뭣 허멍 먹고,(그래. 터지니까 이젠 이 산간에는 다 그냥 저 불 부쳐버리니까, 해변으로 다 내려가서, 해변으로 내려가서 어디 아는 사람 있으면 하고, 아는 사람 없으면 남의 집 방 무엇 외양간 같은 것도 하나 빌어서 거기 살고 참, 그렇게 하다가 이젠 한 몇 달 살아지니까 말째엔 여기 올라오니까 담만 빨갰어. 집 하나도 없었어. 다 불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서 허물어서 두루 두루 두루 담 쌓아서 도에 무엇 이렇게 쳐서 거기서 밥해서 먹고 거기, 거기 그냥 누워 자고, 흐흐흐흐. 기가 막히지. 먹을 건 있어? 흉년이 져서 먹을 건 없으니까 저 화순까지 가서 고구마찌꺼기 사다가, 그것 해서 이젠 뭣 하면서 먹고,)

102006 @ 감제똥?(고구마찌꺼기?)

102006 #4 허, 감제똥이라는 거, 지금은 없으니까 못 ᄀᆞᆯ아. 그 뭐옌 ᄀᆞᆯ으코?(허, 고구마찌꺼기라는 거, 지금은 없으니까 못 말해. 그 뭐라고 말할까?)

102006 @ 감제뻿데기 아니고예?(절간고구마 아니고요?)

102006 #4 뻿데기가 아니고 전분 빼어난 주셍이. 감제똥.(절간고구마가 아니고 전분 빼었던 찌꺼기. 고구마찌꺼기.)

102006 @ 아아, 감제똥, 전분 주셍이. 세상에, 걸 어떵 헹 먹어마씨?.(아아, 고구마찌꺼기, 전분 찌꺼기. 세상에, 걸 어떻게 해서 먹어요?)

102006 #4 영영 줴영, 음, 그 벨 춤, 개똥 벨게 들어 간 그 이러잖아? 그때는 그거 헤영은에 막 이제 저 무싱 거 멩탱이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엇언 그냥 멩탱이 베낀. 멩탱이엔 헌 거 알아?(이렇게,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그 별 참, 개똥 별거 들어 간 그 이러잖아? 그때는 그거 해서 막 이제 저 무엇 망태기에,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망태기밖에. 망태기라 한 거 알아?)

102006 @ 예.(예.)

102006 #4 그것에 헤영 시끄나, 지나 헷당 이젠 이레 차작 비와노민, 그거 이제

ᄒᆞᆷ씩, ᄒᆞᆷ씩 끓으멍 영영 쉐영 담꼬망에 찔렁, 담꼬망에 찔럿당, 바싹 ᄆᆞᆯ류면은 이제 그걸 닥닥닥닥 이젠 ᄲᅡ상, 막 ᄲᆺ아은에 영 허민 저 어디 바당ᄀᆞ디 기계에 사람 허는디 강 ᄀᆞᆯ앙 ᄀᆞᆯ아다근에 체로 쳥, ᄌᆞ베기도 헹 먹고, 범벅도 헹 먹고, 허허허허 게난 지금도 막 형편엇인 말, ᄀᆞᆮ젠 허민 그 감제똥도 먹었져. 감제똥 먹으멍도 살앗쪄. 아이덜ᄀᆞ라 경허민 요새 아이덜은 경 먹을 꺼 엇이민 라면이라도 사당 먹주. 라면이 셔게? 라면도 게난 죽지 안으난 살아서. 죽지 않앙 그때 살안. 게난 외국서 어디 저 어디서 원조를 헤 줬어. 원조.(그것에 해서 실으나, 지거나 했다가 이젠 이쪽으로 자락 비우면, 그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끊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담구멍에 찔러서, 담구멍에 찔렀다가, 바싹 말리면 이제 그걸 닥닥닥닥 이제 빻아서, 막 빻아서 이렇게 하면 저 어디 바닷가에 기계에 사람 하는데 가서 갈아서 갈아다가 체로 쳐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범벅도 해서 먹고, 허허허허 그러니까 지금도 막 형편없는 말, 하려고 하면 그 고구마 찌꺼기도 먹었지. 고구마 찌꺼기 먹으면서 살았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먹을 꺼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다가 먹지. 라면이 있어? 라면도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살았어. 죽지 않아서 그때 살았어. 그러니까 외국서 어디 저 어디서 원조를 해 줬어. 원조.)

102006 @ 예.(예.)

102006 #4 원조헤 주니까 살앗주. 경 안허믄 사람도 하영 죽어실거라. 먹을 꺼 엇언. 어데 대만 ᄀᆞ튼 디, 대만서도 원조헤 주고, 미국서도 원조헤 주니까 쪼금씩, 쪼금씩 그때 왜 밀ᄀᆞ루, 춤, 밀ᄀᆞ루, 강냉이ᄀᆞ루, 강냉이 쏠, 그런 거 원조헤주니까 쪼금씩 먹으멍 살아서.(원조해 주니까 살았지. 그렇게 안하면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라. 먹을 꺼 없어서. 어디 대만 같은 데, 대만서도 원조해 주고, 미국서도 원조해 주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때 왜 밀가루, 참, 밀가루, 강냉이가루, 강냉이 쌀, 그런 거 원조해 주니까 조금씩 먹으면서 살았어.)

102006 @ 어디서 누가 줍데가?(어디서 누가 줬습니까?)

102006 #4 이 ᄆᆞ을러레, ᄆᆞ을러레 멘더레 바치면은 멘더레 바치면은 멘에서 불러. 누게, 누게 헹 불르민, 이제 그릇 ᄀᆞ정 가면은 주주게. 거 주면은 쪼금, 하영도 안 줘. 조끔씩, 조끔씩 줜, 겡 원조 받으난 살앗주. 원조 엇어시민 다 죽어실 거라 그때에.(이 마을로, 마을로 면에 바치면, 면에 바치면 면에서 불러. 누구, 누구 해서 부르면, 이제 그릇 가져서 가면 주지. 그거 주면은 조금, 많이도 안 줘. 조금씩, 조금씩 줘서, 그래서 원조 받으니까 살았지. 원조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라 그때에.)

102006 @ 그때 삼춘은 애기 난 때꽈?(그때 삼촌은 애기 난 때입니까?)

102006 #4 ᄉᆞ삼사건 때? ᄉᆞ삼사건 때 스물 둘? 싯? 아. 스물 싯에, 싯에, 스물 싯에.(사삼사건 때? 사삼사건 때 스물 둘? 셋? 아, 스물 셋에, 셋에, 스물 셋에.)

102006 @ 애긴 안 낳고, 결혼은 핸?(애긴 안 낳고, 결혼은 했어요?)

102006 #4 응, 아이고게. 그때 지금도 그때 살아난 생각허면은 춤, 기가 막혀.(응, 아이고. 그때 지금도 그때 살았던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102006 @ 씨어머니, 씨아버지 다 같이 살았고예?(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이

살았고요?)

102006 #4 씨어머니는 돌아가 불고.(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102006 @ 음.(음.)

102006 #4 이제 씨아바님은 잇고.(이제 시아버님은 있고.)

102006 @ 예.(예.)

102006 #4 시아지방 두 개, 이디서 저 '설이눈'이엔 헌 디 지금 한원리, 한원리 그디 소까이를 가난 씨아지방 두 개 들고 씨아방허고, 세 살 난 지집아이 ᄒᆞ나 나가 ᄃᆞ난, 그건 거기 간 죽어 불고.(시아주버니 두 개, 여기서 저 '설이눈'이라고 한데 지금 한원리, 한원리 거기 소개를 가니까 시아주버니 두 개, 데리고 시아버지하고, 세 살 난 계집아이 하나 내가 보살피니까, 그건 거기 가서 죽어버리고.)

102006 @ 아이고, 뚤 잇엇수과?(아이고, 딸 있었습니까?)

102006 #4 아니, 그 지집아이 하나 들안 가난 건 거기 강 죽으난 묻어 불고.(아니, 그 계집아이 하나 데리고 가니까 건 거기 가서 죽으니까 묻어 버리고)

102006 @ 아이고, 세상에 ᄉᆞ삼 때예?(아이고, 세상에 사삼 때요?)

102006 #4 응. 경헨 이디 올라오난 그 담ᄀᆞ망 뒤에 벌경, 담만 벌경허난 그거 두루두루 다와근에 그 소곱이서 이디서 헤영 먹고 이디 눵 자고, 경 허멍 살앗지.(응. 그렇게 해서 여기 올라오니까 그 담 구멍 뒤에 뻘경, 담만 뻘거니까 그거 두루두루 쌓아서 그 속에서 여기서 해서 먹고 여기 누워 자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102006 @ 씨동생도 어렷겟다예? 씨동생도 열 멧 술?(시동생도 어렸겠네요? 시동생도 열 몇 살?)

102006 #4 응, 씨아지방 하나은 응 저 ᄉᆞ삼사건에 그냥 곧 죽어 불고, '설이눈'이엔 헌 디가 습격 들어부난 습격, 습격들언 허난 이제 거기서 산더레 놈이라고 불러 냉 그냥 총살 헹 죽여 부난, 죽여 부난 이젠 열ᄋᆞ숫 술난 씨아지방 ᄒᆞ나 들안 씨아바님허고,(응, 시아주버니 하나는 응. 저 사삼사건에 그냥 곧 죽어 버리고, '설이눈'이라고 한 데가 습격 들어버리니까 습격, 습격 들어서 하니까 이제 거기서 산으로 놈이라고 불러내서 그냥 총살해서 죽여 버리니까, 죽여 버리니까 이젠 열여섯 살 되어서 시아주버니 하나 데리고 시아버님하고.)

102006 @ ᄉᆞ삼 때 다 돌아가불언마씨? ᄒᆞᆫ 사람 돌아가셔부니까?(사삼 때 다 돌아가 버렸나요? 한 사람 돌아가셔버리니까?)

102006 #4 그 씨아지방 죽었단 겐 이거 산간에 놈이라고 그 저 ᄉᆞ무실로 불러내언 너 산간 놈이지? 너 산간 놈이지? 허멍 막 두드리테작허멍 죽여불언.(그 시아주버니 죽었다가 그래서 이거 산간에 놈이라고 그 저 사무실로 불러내어서 너 산간 놈이지? 너 산간 놈이지? 하멍 막 '두드리테작'하면서 죽여 버렸어.)

102006 @ 그때 씨동생이 열 멧 살?(그때 시동생이 열 몇 살?)

102006 #4 아니, 그 말젯 씨아지방은 스물 싯이고 나영 갑장, 근디 즉은 거는 열여숫 술 난.(아니 그 셋째 시아주버니는 스물셋이고 나랑 갑장, 그런데 작은 거는 열여섯 살 났어.)

102006 @ 즉은 것이 돌아갓어.(작은 것이 돌아갔어.)

102006 #4 아니, 아니 그.(아니, 아니 그.)

102006 @ 갑장이 돌아가셨구나예? 아이고, 세상에.(갑장이 돌아가셨군요? 아이고, 세상에)

102006 #4 응.(응.)

102006 @ 산 사람덜이영 내통헷덴 헤가지고 겐 시체는 춧아젼마씨? 유족이라고 유족으로 등록뒈엇겟다예? ᄉᆞ삼유족.(산 사람들이랑 내통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체는 찾았나요? 유족이라고 유족으로 등록되었겠네요? 사삼유족.)

102006 #4 어떵? ᄉᆞ삼 유족이라고? 아니 유족.(어떻게? 사삼 유족이라고? 아니 유족.)

102006 @ ᄉᆞ삼 유족 ᄉᆞ삼 평화공연에 ᄉᆞ삼 유족 신청허면 뒐 건데.(사삼 유족 사삼 평화공원에 사삼 유족 신청하면 될 건데.)

102006 #4 몰라. 이제 저 우리 그때 우리 큰 씨아지방이 있거든. 그 씨아지방이 우린 건 몰르고 음 건 몰라.(몰라. 이제 저 우리 그때 우리 큰 시아주버니가 있거든. 그 시아주버니가 우린 건 모르고 음. 건 몰라.)

102006 @ 올렷겟다예?(올렸겠네요?)

102006 #4 음. 올려실 꺼라게, 음.(음. 올렸을 거라. 음.)

102006 @ 아이고, 세상에. 씨아지방이 세 명이나 잇엇구나. 아들이 네 명이지예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시아주버니가 세 명이나 있었구나. 아들이 네 명이지요? 세상에.)

102006 #4 음.(음.)

102006 @ 큰 씨아지방허고 즉은 씨아지방은 지금 컹 잘 살암수과?(큰 시아주버니하고 작은 시아주버니는 지금 커서 잘 살고 있습니까?)

102006 #4 죽어 불언.(죽어 버렸어.)

102006 @ 다?(다?)

102006 #4 다 죽어 불언. 다 죽어부난 큰 씨아지방 아덜 두 갠 잇어 이제. 음.(다 죽어 버렸어. 다 죽어버리니까 큰 시아주버니 아들 두 갠 있어 이제. 음.)

102006 @ 청수에 사는 사람은 엇고?(청수에 사는 사람은 없고?)

102006 #4 엇어. 엇어. 다 그냥 저 어디 대정면에 간 사람도 잇고, 저 서울 어디 저 경기도 간 사람도 있고,(없어. 없어. 다 그냥 저 어디 대정면에 간 사람도 있고, 저 서울 어디 저 경기도 간 사람도 있고.)

102006 @ 게도 영 전화도 오곡 아는 척은 헙니까?(그래도 이렇게 전화도 오고 아는 척은 합니까?)

102006 #4 예예. 가끔 허지. 음.(예예. 가끔 하지. 음.)

102006 @ ᄉᆞ삼 때 겐 누구? 삼춘은 결혼헌 저 아부지는 어떵 남편은 어떵?(사삼 때 그래서 누구? 삼춘은 결혼한 저 아버지는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102006 #4 그때는 어디? 시에 가불언. 시에, 시에, 시에 살레 가부난 여기서는

필요 엇고, 성네 집이 강 살멍 거기야 성덜이영 일보난, 형수는 필요 엇고, 애기아빠는 음 형수는 필요 엇고, 겨난 씨아지방만 그 스태에 하나 죽엇지. 뚠 건 엇고.(그때는 어디? 시에 가버렸어. 시에, 시에, 시에 살러 가버리니까 여기서는 필요 없고, 형네 집에 가서 살면서 거기야 형들이랑 일보니까, 형수는 필요 없고, 형수는 필요 없고, 애기아빠는 형수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만 그 사태에 하나 죽었고. 딴 건 없고.)

102006 @ 남편도 같이 살앗지예? 어쨋든.(남편도 같이 살았지요? 어쨌든.)

102006 #4 나 살아보지 안 핸. 나 살아보지 안 허연. 허허(나 살아보지 않았어. 나 살아보지 않았어. 허허)

102006 @ 사이가 안 좋안?(사이가 안 좋아서?)

102006 #4 응? 좋앗던 말앗던 막 그 저 사태가 위험허니까.(응? 좋았든 말았든 막 그 저 사태가 위험하니까.)

102006 @ 도망 간 거? 피신?(도망간 거? 피신?)

102006 #4 응. 사태가 위험허니까 저 성이 시에 사니까 이젠 그디로 오꼿 가분 거라. 하간 일허고 뭣허곡 살젠 가부난.(응. 사태가 위험하니까 저 성이 시에 사니까 이제 거기로 그만 가버린 거라. 여러 가지 일하고 뭣하고 살려고 가버리니까.)

102006 @ 삼춘은 씨아지방이영 씨아방이영 모셩 살고 세상에.(삼춘은 시아주버니랑 시아버지랑 모셔서 살고 세상에.)

102006 #4 그렇지. 음. 그렇지. 음. 나추룩 산 사람도 베랑 엇지.(그렇지. 음. 그렇지. 음. 나처럼 산 사람도 별로 없지.)

102006 @ 에이고, 게난 결혼은 중매결혼을 하엿수과 연애결혼을 하엿수과?(에이고, 그러니까 결혼은 중매결혼을 하였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였습니까?)

102006 #4 아이고, 그때사 연애 셔서게?(아이고, 그때야 연애 있었어?)

102006 @ 사주 그런 건 봅데가? 부모님이.(사주 그런 건 봤나요? 부모님이.)

102006 #4 봣지.(봤지.)

102006 @ 혼수품이나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헷습니까?(혼수품이나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했습니까?)

102006 #4 결혼헐 때?(결혼할 때?)

102006 @ 예.(예.)

102006 #4 뭣 허느니? 결혼헐 때사 그쪽에사 이불 우알 채, 이불허곡 요허곡 헹 강 가민 뒛지. 뭐 살림 무싱 거 그런 거 안 출리고.(결혼할 때? 뭐 하느니? 결혼할 때야 이불 위 아래채, 이불하고 요하고 해서 가서 가면 됐지. 뭐 살림 무엇 그런 거 안 차리고.)

102006 @ 이불 우알채.(이불 위 아래채.)

102006 #4 응. 이불 우알채허민 뒈서.(응. 이불 위 아래채 하면 됐어.)

102006 @ 궤나 요강 그런 건 안 가져갓수과?(궤나 요강 그런 건 안 가져갔습니까?)

102006 #4 응?(응?)

102006 @ 궤, 요강?(궤, 요강?)

102006 #4 아니, 당추 그런 것도 엇고,(아니, 당최 그런 것도 없고,)

102006 @ 결혼식은 어디서 하셧습니까?(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02006 #4 누게?(누구?)

102006 @ 결혼식?(결혼식?)

102006 #4 결혼식? 식 없어.(결혼식? 식 없어.)

102006 @ 옛날?(옛날?)

102006 #4 식 없어.(식 없어.)

102006 @ 그 물타고 가매타고?(옛날 그 말 타고 가마타고?)

102006 #4 응. 가매는 탄. 그 저 무싱 거 하인덜 영 들러ᄀᆞ졍 갔지, 거기 강 그냥 안에 들어 강 밥상 받앙은에 그냥.(응. 가마는 탔어. 그 저 무엇 하인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갔지, 거기 가서 그냥 안에 들어가서 밥상 받아서 그냥.)

102006 @ 상 페와 놓고 절허고, 닭 날리고, 이런 건 안 허고?(상 펴 놓고 절하고, 닭 날리고, 이런 건 안 하고?)

102006 #4 아이 그런 것도 읏고, 서로가 맞대혜영 얼굴이 어떵헌지 잘 몰라. 하하 게난 부모 명령으로 가라 허면 갓다가 실프면은 다 도망가 불고, 그땐 경 헤서.(아이 그런 것도 없고, 서로가 맞대해서 얼굴이 어떤지 잘 몰라. 하하 그러니까 부모 명령으로 가라 하면 갔다가 싫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땐 그렇게 했어.)

102006 @ 신랑도 말 탕 집에 오고 경허지 않고예?(신랑도 말 타서 집에 오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102006 #4 응. 아니 당추 그런 법도 읏엇고, 그런 법도 읏엇어.(응. 아니 당최 그런 법도 없었고, 그런 법도 없었어.)

102006 @ 그냥 남편 집으로 그냥 바로 갓수과?(그냥 남편 집으로 그냥 바로 갔습니까?)

102006 #4 아, 바로 가실테지. 바로 갓주게. 바로 물탄, 물 탕.(아, 바로 갔을 테지. 바로 갔지. 바로 말 탄, 말 타서.)

102006 @ 음.(음.)

102006 #4 물 탕 강은에 거기 가면 밥상 받앙 밥 먹으면은 뚜로 이젠 새각시 머리에 쓰고, 가매에 들어 아쩡 가민은 또 그 즈음에는 신랑 물 탕 그냥 갓어. 겐디 우리는 물도 안 탓어. 동네니까 걸언 간.(말 타서 가서 거기 가면 밥상 받아서 밥 먹으면 따로 이젠 각시 머리에 쓰고, 가마에 들어앉혀서 가면 또 그 즈음에는 신랑 말 타서 그냥 갔어.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탔어. 동네니까 걸어서 갔어.)

102006 @ 걸언 간.(걸어서 갔어요.)

102006 #4 동네니까 외방이민 허주만은 물도 어려운 때나네.(동네니까 외방이면 하지만 말도 어려운 때니까.)

102006 @ 겐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셧습니까?(그래서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

니까?)

102006 #4 응?(응?)

102006 @ 신혼살림?(신혼살림?)

102006 #4 음? 건 뭐라?(음? 건 뭐라?)

102006 @ 시집이 어딧과? 지금도 집이 잇수과? 사는 디가?(시집이 어디예요? 지금도 집이 있습니까? 사는 데가?)

102006 #4 다 죽어 부난, 죽어 부난 헤도 일육이사 번지가 거기 시집이 번지라. 음.(다 죽어 버리니까 죽어 버리니까 해도 일육이사 번지가 거기 시집의 번지라. 음.)

102006 @ 지금 사는 디가?(지금 사는 데가?)

102006 #4 응?(응?)

102006 @ 지금 삼춘 사는 디가?(지금 사는 데가? 지금 삼촌 사는 데가?)

102006 #4 아니, 나는 나는 뚠 디 강 살고, 집 상 강 뚠 디 강 살고.(아니,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집 사서 가서 딴 데 가서 살고.)

102006 @ 이, 사 번지는 엇어져 부럿수과?(이, 사 번지는 없어져 버렸습니까?)

102006 #4 거긴.(거긴.)

102006 @ 따른 사람이 산 살멘?(다른 사람이 산 살아요?)

102006 #4 난 그건 필요 엇고, 경 헤도 그 번지로 쓰는 거난에. 나는 필요 없엇는디 경 헤도 그 번지는 쓰는 거.(난 그건 필요 없고, 그렇게 해도 그 번지로 쓰는 거니까. 나는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해도 그 번지는 쓰는 거.)

102006 @ 결혼 헹 그 번지에서 살고?(결혼해서 그 번지에서 살고.)

102006 #4 음.(음.)

102006 @ 강 보난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십디가?(가서 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셨나요?)

102006 #4 응응.(응응.)

102006 @ 멧 살에 결혼하신 거마씨?(몇 살에 결혼하신 거예요?)

102006 #4 나? 열일곱에, 열일곱에.(나 열일곱에, 열일곱에.)

102006 @ 열일곱에, 게믄 태어낭 열일곱 살까지 어머니 아버지영 같이 살앗겟다예.(열일곱에, 그러면 태어나서 열일곱 살까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았겠네요.)

102006 #4 응.(응.)

102006 @ 게믄 어머니, 아버지는 어떵 멧 형제로 태어낫수과? 삼촌은 태어날 때 청수리에서?(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몇 형제로 태어났습니까? 삼촌은 태어날 때 청수리에서?)

102006 #4 망넹이로 허난 흔 사십, 어머니가 흔 사십 뒈언 나 태아낫주게.(막내로 하니까 사십, 어머니가 한 사십 되어서 나 태어났지.)

102006 @ 형제도 어떵 뒘수과?(형제도 어떻게 됩니까?)

102006 #4 형제도 나도 죽어불언. 나도 죽어불언. 난.(형제도 나도 죽어버렸어.

나도 죽어버렸어. 난.)

102006 @ 오빠도 잇수과? 언니?(오빠도 있습니까? 언니?)

102006 #4 그때는 약도 엇고 병원도 엇인 때난 아프민 침이나 마치고, 저 심방 빌어당 강 굿이나 허고, 허당 오꼿 죽으민 강 묻어 불고, 묻어 불고 게난 내가.(그때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때니까 아프면 침이나 맞고, 저 심방 빌어다가 가서 굿이나 하고, 하다가 아쉽게도 죽으면 가서 묻어 버리고, 묻어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102006 @ 형제도 엇어?(형제도 없어?)

102006 #4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2006 @ 언니도 엇고 오빠도 엇고.(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102006 #4 언니 하나 잇는디 그때 일본 간 어디 간 철이 몰라. 일본 가 불언.(언니 하나 있는데 그때 일본 간 어디 간 지 몰라. 일본 가 버렸어.)

102006 @ 멧 살에 일본 가불언마씨?(몇 살에 일본 가버렸나요?)

102006 #4 혼 스무 술 뭴 때 갓지.(한 스무 살 될 때 갔지.)

102006 @ 싀삼에?(사삼에?)

102006 #4 싀삼 전에 갓지.(사삼 전에 갔지.)

102006 @ 엇어져불언. 어디 끌려 간 것꽈?(없어져버렸어. 어디 끌려 간 겁니까?)

102006 #4 아니, 아니, 끌려간 게 아니라 엇어져 불언. 엇어져 불언. 끊어져불언.(끌려간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끊어져 버렸어.)

102006 @ 게민 아들도 엇어마씨? 어머니에 자식 형제들?(그러면 아들도 없어요? 어머니에 자식 형제들?)

102006 #4 나 어린 때 나민 죽어불고, 나민 죽어불고, 엇엇어.(나 어린 때 나면 죽어버리고, 나면 죽어버리고, 없었어.)

102006 @ 혼자만 외뚤로 컷수과?(혼자만 외딸로 컸습니까?)

102006 #4 그래. 그래.(그래. 그래.)

102006 @ 아버지영 어머니영 사랑 많이 받앗수과?(아버지랑 어머니랑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102006 #4 경 살아보지도 안허고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안허고, 그럭저럭 살안 보난 이거 스물닛에 이 혼자 생활허는 게 지금이라.(그렇게 살아보지도 안하고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안하고, 그럭저럭 살아서 보니까 이거 스물넷에 이 혼자 생활하는 게 지금이라.)

102006 @ 열일곱 술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앗을 꺼 아니예?(열일곱 살에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2006 #4 그래. 그래. 싀삼 사건 끄지 살안 저 소까이 갓당 올라오란 죽어불언.(그래. 그래. 사삼사건까지 살아서 저 소개 갔다가 올라와서 죽어 버렸어.)

102006 @ 누구 아버지, 어머니?(누구 아버지, 어머니?)

102006 #4 음.(음.)
102006 @ ᄉᆞ삼때 다 돌아가셧수과?(사삼 때 다 돌아가셨습니까?)
102006 #4 그루후제 끝난.(그 후에 끝나서.)
102006 @ 아퐌?(아파서?)
102006 #4 아퐌.(아팠어.)
102006 @ 어머니는 멧 살 때 돌아가셧수과?(어머니는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06 #4 환갑.(환갑.)
102006 @ 삼춘 멧 살 때?(삼촌 몇 살 때?)
102006 #4 나 스물넷에.(나 스물넷에.)
102006 @ 아우 결혼허는 거 다 봣겟다예?(아우 결혼하는 거 다 봤겠네요?)
102006 #4 다 출려주니까 그건 어머니고 어머니가 스물.(다 차려주니까 그건 어머니고 어머니가 스물.)
102006 @ 아버지는 멧 살 때 돌아가셧수과?(아버지는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06 #4 환갑 ᄒᆞᆷ 넘을 때 ᄒᆞᆫ 육십 두어 개.(환갑 조금 넘을 때 한 육십 두어 개.)
102006 @ 삼춘 멧 살 때?(삼춘 몇 살 때?)
102006 #4 나 스물넷에.(나 스물넷에.)
102006 @ 건 어머니고? 아부지?(건 어머니고? 아버지?)
102006 #4 게난 금년 돌아가고 내년 돌아가고 해서.(그러니까 금년 돌아가고 내년 돌아가고 해서.)
102006 @ 아, 어머니가 스물네 살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스물다섯 살에 돌아가신 거. 아 일년 만에 돌아가셔붑데가?(아, 어머니가 스물네 살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스물다섯 살에 돌아가신 거. 아 일년 만에 돌아가셔버렸습니까?)
102006 # 4 예.(예.)
102006 @ 와, 삼촌 많이 슬펏겟다예. 그때 애기 하나 잇엇수과?(와, 삼촌 많이 슬펐겠네요. 그때 애기 하나 있었습니까?)
102006 #4 아덜 ᄒᆞ나가 그거.(아들 하나가 그거.)
102006 @ 아덜 ᄒᆞ나가 멧솔 그때가?(아들 하나가 몇 살 그때가?)
102006 #4 ᄒᆞᆫ 솔게.(한 살.)
102006 @ 스물세 살에 낳구나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잇수과? 뭐 생각남수과? 어머니가 아껴줫수과? 아버지가 아껴줫수과? 어릴 때 생각해봅서.(스물세 살에 낳았군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뭐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아껴줬습니까? 아버지가 아껴줬습니까?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102006 #4 다 헷지. 뭐 다 헷지.(다 했지. 뭐 다 했지.)
102006 @ 어머니가 뭐 가르쳐줍데가? 베클이영, 삼촌안테?(어머니가 뭐 가르쳐

쳤습니까? 베틀이랑, 삼촌한테?)

102006 #4 저 무싱거 미녕이라고 미녕, 멘네, 목화 걸로 허영은에 허는 거, 걸로 헤영 영 베클이라고 영 걸어지민 영, 영 차는 거, 거 베와줫주. 영허고 영허민 영, 영 차는 거.(저 무엇 무명이라고 무명, 목화, 목화 걸로 해서 하는 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베틀이라고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 거 배워줬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짜는 거.)

102006 @ 멧 살 때부터 배왓수과? 어머니안테.(몇 살 때부터 배웠습니까? 어머니한테.)

102006 #4 혼 열다섯 뭰 때 배왓주. 열다섯 살 때.(한 열다섯 된 때 배웠지. 열다섯 살 때.)

102006 @ 멩주도 허고?(명주도 하고?)

102006 #4 멩진 안 허고.(명준 안 하고.)

102006 @ 미녕차는 거 배왓고, 거 베클이나 기계덜은 집에 엇고예.(무명 짜는 거 배웠고, 거 베틀이나 기계들은 집에 없고요.)

102006 #4 다 불케와 부럿젠 허난.(불 태워 버렸다고 하니까.)

102006 @ 어머니 예뻣수과?(어머니 예뻤습니까?)

102006 #4 응. 궨찮앗지. 날보다는 나삿지.(응. 괜찮았지. 날보다는 나았지.)

102006 @ 아버지는 막 엄허진 안 헷수과?(아버지는 막 엄하진 않았습니까?)

102006 #4 안 헤연. 경은 안 허고.(않았어요. 그렇게는 않고.)

102006 @ 어머니 아버지는 그자 일어나민 밧디 가고?(어머니 아버지는 그저 일어나면 밭에 가고?)

102006 #4 그래. 그래. 그래. 음.(그래. 그래. 그래. 음.)

102006 @ 삼춘도 검질도 메레 가고 모든 일을 다 도웻구나예? 허벅 졍 물 질렌 어디 갓수과?(삼촌도 김도 매러 가고 모든 일을 다 도왔군요? 허벅 져서 물 길러 어디 갔습니까?)

102006 #4 물 질레는 여기는 막 물이 멀어. 저 흑숫물이라고 저 한참 간디 흑숫물 여기서 거기 강은에 아척이 강 그거 질어 오면은 이때 뒈어. 길어당 빨래도 허고, 걸로 먹음도 허고 그 전부 흑숫물 강 한 허벅 질어 오면은 걸로 살아서.(물 길러는 여기는 막 물이 멀어. 저 '흑숫물'이라고 저 한참 간데 '흑숫물' 여기서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그거 길어 오면 이때 돼. 길어다가 빨래도 하고, 걸로 먹음도 하고 그 전부 '흑숫물' 가서 한 허벅 길어 오면 걸로 살았어.)

102006 @ 흑숫물은 청수에 있는 물이꽈? 저지리까지 안 가고예?('흑숫물'은 청수에 있는 물입니까? 저지리까지 안 가고요?)

102006 #4 아니, 청수물.(아니, '청수물.')

102006 @ 어머니가 당[24], 저지당[25]에 댕기는 거 봣수과?(어머니가 '당', '저지

24) '당'은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수호해 주는 신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이다.
25) '저지당'은 저지에 있는 본향당이다.

당’에 다니는 거 봤습니까?)

102006 #4 봣지.(봤지.)

102006 @ 삼촌도 다녕수과?(삼촌도 다녔습니까?)

102006 #4 응.(응.)

102006 @ 지금도 다녕수과?(삼촌도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도 다닙니까?)

102006 #4 지금은 끈어불언. 끈어불언.(지금은 끊어 버렸어. 끊어 버렸어.)

102006 @ 게난 어머니가 무신 정성을 헙데가? 무슨 걸 쌍 갑디가? 당에 갈 때 정월, 메칠 날 갑디가?(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정성을 하던가요? 무슨 걸 싸서 가던가요? ‘당’에 갈 때 정월, 며칠 날 가던가요?)

102006 #4 뭣이?(뭣이?)

102006 @ 당에 갈 때?(당에 갈 때?)

102006 #4 장에 갈 때?(장에 갈 때?)

102006 @ 할망당. 예.(‘할망당’. 예.)

102006 #4 장에 갈 때 뭐, 뭐, 돈 ᄀᆞ정가고, 경 안허믄.(장에 갈 때 뭐, 뭐, 돈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102006 @ 아니, 그 오일장이 아니고 당, 당. 저지 할망당.(아니, 그 오일장이 아니고 당, 당. 저지 ‘할망당’.)

102006 #4 아아, 할망당에. 할망당[26]엔 밥헤근에 보시 두 개에 걸이고, 보시 두 개 영 걸어놓고.(아아, ‘할망당’에. ‘할망당’에는 밥해서 보시기 두 개에 뜨고, 보시 두 개 이렇게 떠 놓고.)

102006 @ 보시 두 개?(보시 두 개?)

102006 #4 궤기 궝 그레 놓고, 술 흔 병, 이홉드리 술 흔 병 놓고 경 헹 갓지.(고기 구워서 그리 놓고, 술 한 병, 이홉들이 술 한 병 놓고 그렇게 해서 갔지.)

102006 @ 돌레떡은 안허고예?(도래떡은 안하고요?)

102006 #4 무사? 안여. 허여.(왜? 안 해? 해.)

102006 @ 멧 개정도?(몇 개정도?)

102006 #4 일곱 개.(왜 해? 일곱 개.)

102006 @ 일곱 개예. 무신 돌래떡[27] ᄆᆞ멀?(일곱 개요. 무슨 도래떡 메밀?)

102006 #4 ᄆᆞ멀이나 좁쏠이나.(메밀이나 좁쌀이나.)

102006 @ 뭘 많이 헷수과?(뭘 많이 했습니까?)

102006 #4 보리쏠이나 아무거라도게.(보리쌀이나 아무 거라도.)

102006 @ 삼촌도 다녓수과? 멧 솔ᄁᆞ지 다녓수과?(삼촌도 다녔습니까? 몇 살까지 다녔습니까?)

102006 #4 아, 뎅겻지. 뎅겻지. 거기를 안 가면은.(아, 다녔지. 다녔지. 거기를 안 가면.)

---

26) ‘할망당’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을 모신 곳. ‘할망듸’라고도 한다.

27) ‘돌래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둥그렇게 만든 떡을 말한다.

102006 @ 음.(음.)

102006 #4 할망이 아프게 헌다고.(할머니가 아프게 한다고.)

102006 @ 음음.(음음.)

102006 #4 음. 아프게 허면은 거기 강 잘못헷수덴 허멍 잘 갓당 바찌고 거기 강 돈 갖다가 올리고, 바찌고 허민 ᄒᆞ꼼 좋는 수가 잇어.(음. 아프게 하면 거기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잘 갔다가 바치고 거기 가서 돈 갖다가 올리고, 바치고 하면 조금 좋은 수가 있어.)

102006 @ 음.(음.)

102006 #4 ᄒᆞ꼼 좋는 수가 잇어. 할망듸[28] 가사 컬. 아이고 할망디 가사 컬. 당이엔 안 헹 할망듸라고, 할망듸 가살 걸.(조금 좋을 수가 있어. '할망듸' 가야 할 걸. 아이고 '할망듸' 가야 할 걸 '당'이라고 않고 '할망듸'라고 '할망듸' 가야 할 걸.)

102006 @ 옛날에는 큰 굿도 헷수과? 심방[29], 메인 심방[30] 잇엇수과?(옛날에는 큰 굿도 했습니까? 심방 '메인 심방' 있었습니까?)

102006 #4 당에서 헤났지. 우린 안 허곡.('당'에서 했었지. 우린 안하고.)

102006 @ 그 심방 돌아가셧지예?(그 '심방' 돌아가셨지요?)

102006 #4 응. 다 옛날 가불언, 죽건 디 오렌.(응. 다 옛날 가버렸어, 죽은 지 오랬어.)

102006 @ 심방 이름 모르지예?(무당 이름 모르지요?)

102006 #4 그 심방 일름? 사만셍이.(그 무당 이름 '사만생이'.)

102006 @ 사만셍이? 여자 분이엇수과?(사만생이? 여자 분이었습니까?)

102006 #4 여자도 두갓이 헷지만은, 할망 이름은 모르고. 하르방 사만셍이라고.(여자도 두 내외간이 했지만, 할머니 이름은 모르고. 할아버지 '사만생이'라고.)

102006 @ 사만셍이[31]가 하르방 이름이꽈? 큰 심방이엇구나예?('사만생이'가 할아버지 이름입니까? 큰 심방이었군요?)

102006 #4 음.(음.)

102006 @ 그 사람 저지리 분?(그 사람 저지리 분?)

102006 #4 음.(음.)

102006 @ 지금은 또 저지리나 청수에 심방은 엇고예?(지금은 또 저지리나 청수에 심방은 없고요?)

102006 #4 없어. 이젠 없어.(엇어. 이젠 엇어.)

102006 @ 거기 '당맨' 사람이 엇구나예.(거기 '당맨' 사람이 없군요.)

102006 #4 엇어. 엇어. 지금은 벵원 잇고 약 좋으니까 아파가민 병원에 가고 음, 약 먹고 허지 심방 춪지 안허여.(없어. 지금은 병원 있고 약 좋으니까 아파가면 병원에 가고 음, 약 먹고 하지. 무당 찾지 않아.)

---

28) '할망듸'은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을 모신 곳으로 '할망당'이라고도 한다.
29) '심방'은 신(神)의 성방으로 무당을 말한다.
30) '당맨 심방'은 당의 관리를 담당하는 심방이다.
31) '사만셍이'은 옛날 저지리 당맨 심방이다.

102006 @ 예. 거기 물색 그런 것도 가져가 본적 잇수과?(예. 거기 물색 그런 것도 가져가 본적 있습니까?)

102006 #4 응. 가져갓지. 뭣 헹 뭐 옷가지 뭣 헹 허민 쪼금 뭐 우에 꺼 쪼가리 이건 '할망듸' 갈 때 ᄀᆞ졍갈 거 허멍 톡 걸엉 놔둬져. 겡 모영 놧당 갈 때는 ᄀᆞ졍가곡.(응. 가져갔지. 뭣해서 뭐 옷가지 뭣해서 하면 조금 뭐 위에 거 조각 이건 '할망듸' 갈 때 가져 갈 거 하면서 톡 걸어서 놔뒀어. 그렇게 모여 놨다가 갈 때는 가져가고.)

102006 @ 할머니가 예쁜 옷 입으렌 헌 거 아니예? 그런 정성이예.(할머니가 예쁜 옷 입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정성이요.)

102006 #4 예.(예.)

102006 @ 아이구, 게난 4, 3때도 경허곡 삼춘은 게난 어렷을 때 친구들이 많이 잇엇수과?(아이구, 그러니까 4, 3때도 그렇게 하고 삼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02006 #4 어린 땐 친구 뭐 학교도 안 뎅기고 그냥 집이만 아쟝 ᄀᆞ만이 일 뎅기고 친구도 엇고.(어린 땐 친구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만 앉아 가만히 일 다니고 친구도 없고.)

102006 @ 무사 어머니 아버지는 단뚤애긴디 학교도 안 보내줘신고예?(왜 어머니 아버지는 외딸애긴데 학교도 안 보내줬을까요?)

102006 #4 학교가 엇엇지. 여자는 학교가 엇엇지. 그때는.(학교가 없었지. 여자는 학교가 없었지. 그때는.)

102006 @ 야학 그런 것도 안 헤보고예?(야학 그런 것도 안 해보고요?)

102006 #4 야학은 쪼금 헷지, 흔 열 술, 열흔 멧술 난 때에 야학은 쪼금 허당 일본시대 나난 설러 불엇어, 일본시대 나난 또 일본글을 쪼금 무싱거 허단 ᄉᆞ태 터지난 막 설러 불언.(야학은 조금 했지, 한 열 살, 열한 몇 살 난 때에 야학은 조금 하다가 일본시대 나니까 그만둬 버렸어. 일본시대 나니까 또 일본글을 조금 무엇 하다가 사태 터지니까 막 그만 둬 버렸어.)

102006 @ ᄉᆞ태 터졋을 때에 노랑 개여 검은 개여 무서운 것들도 봣수과? 뭐 그런 거(사태 터졌을 때에 노랑 개여, 검은 개여 무서운 것들도 봤습니까?)

102006 #4 아니, 그런 건 엇고, ᄉᆞ태 터졋을 때 봣주게.(아니 그런 건 없고, 사태 터졌을 때 봤지.)

102006 @ 서청이엔 안 들어봣수과?.(서청이라고 안 들어봤습니까?)

102006 #4 음.(음.)

102006 @ 순경이 무서왓수과? 순사?(순경이 무서웠습니까? 순사?)

102006 #4 아, 순서 순서. 왐저. 아이고 아, 순서 왐저 허민 무서와근에.(아, 순사, 순사. 온다. 아이고 아, 순사 온다. 하면 무서워서.)

102006 @ 칼 차고.(칼 차고.)

102006 #4 칼 차고, 음, 칼 차고, 보통은 안 댕기지. 뭐 큰 죄가 이서야 오지.

큰 죄가 이시면은 그 사람 잡으레만 오는 거라.(칼 차고, 보통은 안 다니지. 뭐 큰 죄가 있어야 오지. 큰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잡으러 오는 거라.)

102006 @ 으응. ᄉᆞ삼 때 군인덜도 봐봣수과? 안 봐봣수과?(으응. 사삼 때 군인들도 봐봤습니까? 안 봐봤습니까?)

102006 #4 무사 안 봐낫고? 막 무서왔지 뭐.(무사 안 봤었니? 아주 무서웠지 뭐.)

102006 @ 불케우는 건 봐봣수과? 불케와 버리는 거.(불태우는 건 봐봤습니까? 불 태워 버리는 거.)

102006 #4 불케와 부는 거야 봐낫지.(불태워 버리는 거야 봤었지.)

102006 @ 게난 아들 낳고 멧 년 뒤에 남편이 돌아가신 것과?(그러니까 아들 낳고 몇 년 뒤에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까?)

102006 #4 돌아가지 안허고 그냥 군대에 가부난 그냥 행방불명이야.(돌아가지 않고 그냥 군대에 가버리니까 그냥 행방불명이야.)

102006 @ 6.25전쟁?(6.25전쟁?)

102006 #4 6.25, 6.25때에.(6.25, 6.25때에.)

102006 @ 6.25때에 돌아가신 거 닮수과?(6.25때에 돌아가신 거 같습니까?)

102006 #4 돌아야 갓는지 저쪽에야 갓는지 행방불명이야. 게난 원.(돌아야 갔는지 저쪽에야 갔는지 행방불명이야. 그러니까 원.)

102006 @ 세상에 애기는 봣수과? 애기 난 건 알아?(세상에 애기는 봤습니까? 애기 난 건 알아?)

102006 #4 몰라. 몰라. 유월들에는, 유월들에는 군대에 나가 불고, 시월들에는 아기 나서.(몰라. 몰라. 유월에는, 유월에는 군대에 나가 버리고, 시월에는 아기 낳았어.)

102006 @ 아, 어떵 그럴 수가 잇수과? 아이고 세상에. 게난 소식이 끈겨불언? 가자마자 소식이 안 와 불언?(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가자마자 소식이 안 와 버렸어요?)

102006 #4 아니, 간 때에 ᄒᆞᆫ 멧 ᄃᆞᆯ, ᄒᆞᆫ 서넉 ᄃᆞᆯ은 뭐 쭉 편지도 오고 뭣 허당 그냥 말자에 막 6.25때 6.25때가 그렇게 위험허니까 그때는 몰라. 그때는 죽었는지 저쪽에 그냥 저 납치당했는지 통 몰라.(아니, 간 때에 한 몇 달, 한 서넉 달은 뭐 쭉 편지도 오고 뭣하다 그냥 나중에 막 6.25때 6.25때가 그렇게 위험하니까 그때는 몰라. 그때는 죽었는지 저쪽에 그냥 저 납치당했는지 통 몰라.)

102006 @ 그믄 씨아버지는 멧 살까지 모셧수과? 남편도 엇고 세상에.(그러면 시아버지는 몇 살까지 모셨습니까? 남편도 없고 세상에.)

102006 #4 일흔다섯ᄁᆞ지.(일흔다섯까지.)

102006 @ 헤, 그믄 삼촌 멧 살까지?(헤, 그러면 삼촌 몇 살까지?)

102006 #4 나? 아, 나 ᄒᆞᆫ ᄒᆞᆫ 오십 얼마ᄁᆞ지 했주.(나? 아, 나 한 한 오십 얼마까지 했지.)

102006 @ 아이구, 씨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가까이 살아신게게. 어떤 운명이꽈게? 도대체 아이고.(아이구,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가까이 살았네. 어떤 운명입니까? 도대체 아이고.)

102006 #4 그래, 허허, 남편 겐디 그 아덜 ᄒᆞ나, 아덜 ᄒᆞ나 이시니까 그것이 크면은 이것도 씨아방이 씨아방은 환자주게. 하르방은 씨아방은 환자로 이제 천징, 으흥, 으흥 영 허는거 요거를 씨아방안티 맡기면은 죽을지 살디 모르고 나는 어디가 잘 살앙 뭣허리, 요거 커야지 요거 커야지. 경헨 살아가난 그레 저레 살아젼.(그래, 허허, 남편 그런데 그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것이 크면 이것도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는 환자지. 할아버지는 시아버지는 환자로 이제 천식, 으흥, 으흥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시아버지한테 맡기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나는 어디가 잘 살아서 뭣 하리, 요거 커야지 요거 커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니까 그리 저리 살아졌어.)

102006 #@ 경 헹 살 펜안허게덜 앚입서.(그렇게 해서 살 편안하게 앉으세요.)

102006 #4 속앗수다. 벗헤 주젠.(수고 했습니다. 벗해 주려고.)

102007 @ 응. 게믄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응. 그러면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1 예. 중매결혼.(예. 중매결혼.)

102007 #3 우리 할 땐 연애가 어디 잇엇수과? 우리 할 때는 주로 중매마씨.(우리 할 땐 연애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할 때는 주로 중매예요.)

102007 @ 게. 어머닌 외동아들이난 메누리 잘 ᄀᆞᆯ랏겟다예? 게도. 에헤헤. 조수에서 소문 들엉은에?(그래. 어머닌 외동아들이니까 며느리 잘 골랐겠네요? 그래도 조수에서 소문 들어서?)

102007 #3 그때는 그자 그때도 뭐 그 옛날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게 예펜이라고 나도 그때 그렇게 빨리 결혼을 안 헐 건디, 내가 그 군대를 지원 허젠허니까 어머니가 벗 부쳐 뒁 가렌 하도 무싱거렌 ᄒᆞ는 바람에, 겨믄 벗을 부치젠 헷자 이거 여하튼 군대 갔다 왕 나는 결혼허켄 헷거든마씨.(그때는 그저 그때도 뭐 그 옛날이나 마찬가지니까, 누구 여자라고 나도 그때 그렇게 빨리 결혼을 안 헐 건데, 내가 그 군대를 지원 하려고하니까 어머니가 벗 붙여 두고 가라고 너무 뭐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 벗을 붙이려고 해도 이거 여하튼 군대 갔다 와서 나는 결혼하겠다고 했거든요.)

102007 @ 예.(예.)

102007 #3 군대 갔다 왕 결혼을 허켄 허니까, 그때도 그 전쟁이 그 후맞이가 그 전쟁후기가 가시질 안 헤가지고 어머니는 아, 군대가민 사람이 죽는 거로구나 아이 벗 부쳐뒁 가라 벗 부쳐뒁 가라. 경 헤연 궨히 그 ᄀᆞ리에 결혼을 허단 바려보난 어떵헤연 요새 ᄀᆞᆮ으민 쏙앙이나 헷젠 헌다 어디 여자 잇젠 허난 나보다 세 살우에. 게난 밑에는 허젠 헷자 어려네 주켄 안허고 어떵 허여.(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그 전쟁이 그 후맞이가 그 전쟁후기가 가시질 안 해가지고 어

머니는 군대 가면 사람이 죽는 거로구나 아이 벗 부쳐두고 가라 벗 붙여두고 가라. 그렇게 해서 그쯤에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새 같으면 속아서나 했다고 헌다 어디 여자 있다고 하니까 나보다 세 살 위에. 그러니까 밑에는 하려고 했지만 어려서 주려고 안하고 어떻게 해.)

102007 @ 멧 살 때 결혼허신 거마씨?(몇 살 때 결혼하신 거예요?)

102007 #3 스물하나.(스물하나.)

102008 @ 스물하나에. 경 헨 군대를 갓구나예? 그때 사주는 어머니가 보셧겟다예?(스물하나에.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군요? 그때 사주는 어머니가 보셨겠네요?)

102009 #3 응.(응.)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

102009 #3 그런 건 우리 헐 때는 뭐 결혼 예물이엔 헌 건 거 반지하나 영 헷는디 허는 사람이나 허고 난 그런 걸 안 허주게. 결혼헐 때, 게난 그 결혼도 헤져신지 말아신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허민 그 저 한림 사진관에 들어 강 결혼사진을 찍엉 갓는디, 그놈의 짓. 거 도둑맞는 통에.(그런 건 우리 할 때는 뭐 결혼 예물이라고 한 건 거 반지하나 이렇게 했는데 하는 사람이나 하고 난 그런 걸 안하지. 결혼할 때, 그러니까 그 결혼도 해졌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하면 그 저 한림 사진관에 들어 가서 결혼사진을 찍어서 갔는데, 그놈의 짓. 거 도둑맞는 통에.)

102009 @ 아이고야.(아이고야.)

102009 #3 게. 무신 돈 나둬시카부덴 헤불어신디 아, 겨난 우리 둘이 오면은 또 결혼사진을 찍어주켄 허길레 아 미친놈이 새끼 지랄허고 있네. 아 그때 그 저 사진 찍은 건 헤뒁은에 어떵 헹은에 그 궨당덜 다 모두왕 사진을 찍을 거냐고? 아 우리 둘이만 허믄 뭴 거냐고? 그 모듬 사진도 잇고, 무싱 걸 헤야 뒈는디 그걸 어떵 찍젠 헴시니? 허난 아이구, 미안허우다. 어떵, 어떵. 사진조차 엇어져 불언마씨. 게난 우리영 결혼헌 사람덜은 사진도 하나 엇어.(그래. 무슨 돈 나뒀을까봐 해버렸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오면 또 결혼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길래 아 미친놈이 새끼 지랄하고 있네. 아 그때 그 저 사진 찍은 건 해두고 어떻게 해서 그 권당들 다 모아서 해서 사진을 찍을 거냐고? 아 우리 둘이만 하면 될 거냐고? 그 모둠 사진도 있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찍으려고 하니? 하니까 아이구, 미안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사진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랑 결혼한 사람들은 사진도 하나 없어.)

102009 @ 메께라. 한림사진관 지금은 엇잖아예? 세상에.(아이고. 한림사진관 지금은 없잖아요? 세상에.)

102009 #3 응. 아무것도 엇어마씨. 게난 이거 뭐 결혼은 헤졋나? 말앗나?(응.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결혼은 했나? 말았나?)

102009 @ 하하하, 도둑 들어불언, 뭐 훔쳐갈 거가 엇어근에, 말이 안 뒈는.(하하하, 도둑 들어버려서, 뭐 훔쳐갈 거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102009 #3 차 게난.(차 그러니까.)

102010 @ 세상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세상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102010 #3 청수서. 이 동네서.(청수서. 이 동네에서.)

102010 @ 예? 집에서예?(예? 집에서요?)

102010 #3 어. 집에서.(어. 집에서.)

102010 @ 가문잔치[32].('가문잔치')

102010 #3 그때는 동네 일뤠잔치 뭐 가문잔치니 무신 잔치니 뭐, 뭐.(그때는 동네 '일뤠잔치' 뭐 '가문잔치'니 무슨 잔치니 뭐, 뭐.)

102010 @ '가문잔치' 크게 헷구나예?('가문잔치' 크게 했군요?)

102010 #3 아, 단아덜이난게.(아, 외아들이니까.)

102010 @ 응. 뒈지도 멧 마리 잡고예?(응. 돼지도 몇 마리 잡고요?)

102010 #3 뒈지, 그때 멧 마리 잡젠 헷쟈 뒈지가 엇어십주. 뒈지 흔 ᄆᆞ리헤도 그 우리 어머니가 우렁 질룬 도세기라.(돼지, 그때 몇 마리 잡으려고 해도 돼지가 있어야지. 돼지 한 마리해도 그 우리 어머니가 위해서 기룬 돼지라.)

102010 @ 우렁?(위해서?)

102010 #3 우렁 질룬, 게난 지금 단아덜 풀젠 허니까 도세기.(위해서 기른, 그러니까 지금 외아들 팔려고 하니까 돼지.)

102010 @ 그거 우렁, 잔치 우렁.(그거 위해서, 잔치 위해서.)

102010 #3 잔치 우런에 그 히히히.(잔치 위해서 그 히히히.)

102010 @ 우렁 질룬 도세기.(위해서 기른 돼지.)

102010 #3 그 도세기 게난 그 사람 먹는 흐린 좁쏠 다 숣앙 멕이고, 그추룩헌에 키왕노니까 뒈지가 워낙 컷수다. 그때 춤, 동네사람덜 다 놀레십주. 돼지 큰 거 잡앗덴 젤 큰 디 아쪄 놩 그것도 동네 사람덜 그때는 고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 단 아덜칩이 강 먹젠덜허당 베려보니까 뒈지고긴 그추룩 큰 거 잡아도 모자라니까, 이제 또 성할망네 집이 꺼 강 걸려당 잡으라. 헨에 또 성할망네 집이 꺼 걸려다 뒁, 그때 도세기 두 ᄆᆞ리 잡아서.(그 돼지 그러니까 그 사람 먹는 흐린 좁쌀 다 삶아서 먹이고, 그렇게 하니까 키워 노니까 돼지가 워낙 컸습니다. 그때 참, 동네사람들 다 놀랐지요. 돼지 큰 거 잡았다고 제일 큰데 앉혀 놔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 그때는 고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 외아들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다가 봐보니까 돼지고긴 그처럼 큰 거 잡아도 모자라니까, 이제 또 성 할머니네 집에 그거 가서 걸려다가 잡아라. 해서 또 성 할머니네 집에 거 걸려다 두고, 그때 돼지 두 마리 잡아서.)

102011 @ 기억은 좋은 때 기억은.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셧지예?(기억은 좋은 때 기억은.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어머니랑 같이 사셨지요?)

102011 #3 응.(응.)

32)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102011 @ 그냥 그 집? 지금 사는 집? 태어나도 그 집이고?(그냥 그 집? 지금 사는 집? 태어나도 그 집이고?)

102011 #3 응. 태어난은 우리가 옆집이 살다가 어머니가 그 집터가 워낙 좋덴 허니까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가 싯주게. 그 집 임재가 우리 사는 집인디 작은 아버진디 느네랑 이디 살고, 우리랑 느네 사는 집이 강 살고 헹은에 거기서 돈 ᄒᆞ쏠만 응과ᄃᆞ라.(태어나서 우리가 옆집에 살다가 어머니가 그 집터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가 있지. 그 집임자가 우리 사는 집인데 작은 아버진데 너네랑 여기 살고, 우리랑 너희들 사는 집에 가서 살고 해서 거기서 돈 조금만 '응과' 달라.)

102011 @ 아아.(아아.)

102011 #3 허난 돈 ᄒᆞ쏠 응가 줭 집을 바꽌. 경 헤연 우리가 거기 들어 강 이거 뭐 그자.(응하니까 돈 조금 응과 줘서 집을 바꿨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거 뭐 그저.)

102011 @ 작은 아버지에 식구들도 친척도 그 옆이 살고?(작은 아버지에 식구들도 친척도 그 옆에 살고?)

102011 #3 응.(응.)

102011 @ 어디 풀지 안 헹예? 그 작은 아버지는 ᄉᆞ삼 때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어디 팔지 안 해서요? 그 작은 아버지는 사삼 때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 말고 또 다른 작은 아버지?)

102011 #3 아니,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 우리 외갑주.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아니,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 우리 외가지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102011 @ 외할아버지. 아아, 돈이 필요허니까 경도 허는구나예?(외할아버지. 아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하는군요?)

102011 #3 응. 그땐 그자 돈 필요허믄 밧도 ᄒᆞ쏠 나신 거 줭은에 ᄒᆞ쏠 나쁜 거 받으민 돈 우수리 거두는 식.(응. 그땐 그저 돈 필요하면 밭도 조금 나은 거 줘서 조금 나쁜 거 받으면 돈 우수리 거두는 식.)

102011 @ 우수리 거두는 식, 신혼살림은 거기서 헷고예? 어머니랑 안거리 바꺼리 짓어낫수과?(우수리 거두는 식, 신혼살림은 거기서 했고요? 어머니랑 안채 바깥채 지었었습니까?)

102011 #3 아니, 그냥 안거리에 ᄒᆞᆫ디 살앗주.(아니, 그냥 안채에 같이 살았지.)

102012 @ 아, 같이예?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어떵 두셧수과?(아, 같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어떻게 두셨습니까?)

102012 #1 육남매, 둘 죽어부니까 이제 늿.(육남매, 둘 죽어버리니까 이제 넷.)

102012 #3 오남매 작은 아덜.(오남매 작은 아들.)

102012 @ 오남매? 지금 다 잘 컷다예.(오남매 지금 다 잘 컸네요.)

102012 #3 지금 큰아덜은 외국에 나가 있고, 작은 아덜은 이제 여기 완에 그냥 같이 이제 무싱 거 허멍 살고 잇고, 뚤덜은 또 뚤덜대로 그자 제 나름대로 각기 지

네.(지금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여기 와서 그냥 같이 이제 무슨 거 하면서 살고 있고 딸들은 또 딸들대로 그저 제 나름대로 각기 자기네.)

102012 @ 뚤 셋예?(딸 셋요?)

102012 #3 아, 뚤 ᄒᆞ나 작년에 지금 저 어디 육지에 나강은에 저 무싱 거니 절간에 시님으로.(아, 딸 하나 작년에 지금 저 어디 육지에 나가서 저 무슨 거니 절간에 스님으로.)

102012 @ 오우, 정말마씨?(오우, 정말요?)

102012 #3 그 작년 재작년에 돌아갔나? 큰 스님은.(그 작년 재작년에 돌아갔나? 큰 스님.)

102012 @ 돌아가션마씨? 딸?(돌아가셨어요? 딸?)

102012 #3 아니. 아니. 아니. 큰 스님.(아니. 아니. 아니. 큰 스님.)

102012 @ 큰 스님 돌아가셧고, 비구니 스님?(큰 스님 돌아가셨고요, 비구니 스님?)

102012 #3 어.(어.)

102012 @ 어느 절에 이신 건 모르고예?(어느 절에 있는 건 모르고요?)

102012 #3 울산.(울산.)

102012 @ 울산.(울산.)

102012 #3 울산 절에.(울산 절에.)

102012 @ 울산 뭐 통도사나 이런 부산에도 큰 절 잇고.(울산. 울산 뭐 통도사나 이런 부산에도 큰 절 있고.)

102012 #3 응.(응.)

102012 @ 게난 이런 두 닦는 분도 계시구나예?(그러니까. 이런 도 닦는 분도 계시군요?)

102012 #3 게난.(그러니까.)

102012 @ 결혼도 안 하고?(결혼도 안 하고?)

102012 #3 으응. 그 저 제주상고 나완에 그 이제 그 자기가 그 거기서 나왕은에 부기니 주판 무싱 거 무싱 거이니 네 가진가 자격증 딴에 나신디 골아시민 어떵 헹 은엥 계통에 집어놔실 건디 나신디 얘기도 안 하고 무싱 거옌 허단 이젠 어디 들어가지 못허켄 허길레 아, 겨믄 임직으로라도 어디 알아보켄 헨 도청에 집어 놔서. 도청에 집어 놩.(으응. 그 저 제주상고 나와서 그 이제 그 자기가 그 거기서 나와서 부기니 주판 무슨 거, 무슨 거니 네 가진가 자격증 따서 나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서 은행 계통에 집어놨을 건데 나에게 얘기도 안 하고 무슨 거라고 하다가 이젠 어디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임직으로라도 어디 알아보겠다고 해서 도청에 집어 놨어. 도청에 집어 놔서.)

102012 @ 맞지가 안헷구나?(맞지가 않았군요?)

102012 #3 이년, 이년 근무헷나? 이년 근무혀연에 나안테 간다 온다는 말도 읏이 사라젼.(이년, 이년 근무했나? 이년 근무해서 나한테 간다 온다는 말도 없이 사

라졌어.)

102012 @ 어. 걱정 많이 헷겟다예?(어. 걱정 많이 했겠네요?)

102012 #3 혼 사라진 일주일 만엔가 열흘 만엔가? 그 친구 아피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만저만 헤가지고 선이 가면서 이 퉤직금 집더레 보내렌 헷젠.(한 사라진 일주일 만엔가 열흘 만엔가? 그 친구 앞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만저만 해가지고 선이 가면서 이 퇴직금 집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102012 @ 아.(아.)

102012 #3 겐 그 퉤직금 ᄀᆞ졍 완에 아, 주멍 그런 말 하길레 아이고 이거 어떵헹 영 뒈시넨 헨 자기안티도 애기 안허고 갑자기 경 헨 어드레 가시넨? 자기도 어드레 간 처리 모르겟다고. 겐 혼 오 육년, 오 육년 동안 일절 소식이 없어서.(그래서 퇴직금 가져 와서 아, 주면서 그런 말 하길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니 해서 자기한테도 애기 않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어디 갔나고? 자기도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오 육년, 오 육년 동안 일절 소식이 없었어.)

102012 @ 아이고, 소설이우다. 드라마라.(아이고, 소설입니다. 드라마야.)

102012 #3 자기가 완전 스님으로 뒈언에 그 저 불교대학 들어간에.(자기가 완전 스님으로 되어서 그 저 불교대학 들어가서.)

102012 @ 똑똑허긴 헤싱게.(똑똑하긴 했네요.)

102012 #3 아, 머린 좋아서. 머린 좋앗는데 오레비덜안티 연락헹 하니까 그 자기가 그 거기서 거 완전 시님으로 교육받앙 끗난 다음에 이 울산 지원 받앙 나완.(아, 머린 좋아서. 머린 좋았는데 오라비들한테 연락해서 하니까 그 자기가 그 거기서 거 완전 스님으로 교육받아서 끝나서 다음에 이 울산 지원 받아서 나와서.)

102012 @ 그때야.(그때야.)

102012 #3 불교대학 들어간에 이레 연락을 헌 거라.(불교대학 들어가서 이리 연락을 한 거야.)

102012 @ 예.(예.)

102012 #3 완전 그 무싱 거 뒈난 이젠 뭐 허지 말렌 헤도 그렇고. 허지 말렌 헤도 시간은 늦어 불어서.(완전 그 무엇 거 되니까 이젠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해도 시간은 늦어 버렸어.)

102012 @ 자기 인셍이우다게.(자기 인생입니다.)

102012 #3 이제 족은 오레비쯤은 제일 우리보단 복 좋은 게 큰 누님이우다, 그자 아무 걱정 엇이 무기탄허게 영 헤근에 살아가는 거. 뭐 그거.(이제 작은 오라비쯤은 제일 우리보단 복 좋은 게 큰 누님입니다, 그저 아무 걱정 없이 무기탄하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뭐 그거.)

102012 @ 봐 본 적 잇수과? 얼굴 봐 보고 영.(봐 본 적 있습니까? 얼굴 봐 보고 이렇게.)

102012 #3 우리 혼번 거기 간에 혼 며틀 밤 자멍 구경도 ᄒᆞ쏠 허고 울산 근방간에 쭉 경주로 어딜로 구경헹 삼일 밤 장 들어왓나?(우리 한번 거기 간에 한 며칠

밤 자면서 구경도 조금 하고 울산 근방 가서 쭉 경주로 어디로 구경해서 삼일 밤 자서 들어왔나?)

102012 @ 게도 어디꽈게? 영 다 잘 오남매가예. 다 게도 다 잘 크난 아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예. 월령리에 조사하단 보난 다 일본 강은에 행방불명 뒈 불고, 막 가슴이 아픈 일덜도 이십디다게.(그래도 어딥니까? 이렇게 다 잘 오남매가요. 다 게도 다 잘 크니까 아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요. 월령리에 조사하다가 보니까 다 일본 가서 행방불명 돼 버리고, 막 가슴이 아픈 일들도 있습디다.)

102012 #3 그렇죠, 게난 거 우리 큰 아덜도 여기서 헨에 거 나안테는 좋은 소리 못 들언에 그자 와 가믄 예수교 텍헹 허단에 아 거, 혹교나 ᄆᆞ차 놔근에 예수꼴 허던가? 무싱 걸 허던가? 이 느네 아방 이디 살다근에 예수교에 무시거 십일존가 무싱 거 네는 거하고 혹교 돈 나 네지 못허켄 허난 이넉냥으로 어떵사 헹 데혹교 졸업허고 또 제주대혹원ᄁᆞ장 끗난 나완 결혼허켄 허길레 그 씨발, 그 예수교 가근에 결혼시켜 ᄃᆞ렌 허라. 나 무싱거고? 경 헨에 그 웨단 붸려 보난 거기서 결혼헨에 그 큰아덜도 예수교에 결혼허연 갑자기 외국 가옵네 허연 이젠 한번 강 구경허연 오켄 헤연 한번 갓다 오니까 그자 또 기여난 이거 일년에 흔번씩 와마씨.(그렇죠, 그러니까 거 우리 큰 아들도 여기서 해서 거 나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들어서 그저 와 가면 예수교 택해서 하다가 아 거, 학교나 마쳐 두고 예수꼴 허던가? 무슨 걸 하든가? 이 너희 아버지 여기 살다가 예수교에 뭐 십일존가 무슨 거 내는 거하고 학교 돈 나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녁대로 어떻게 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또 제주대학원까지 끝나서 나와서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그 씨발, 그 예수교 가서 결혼시켜 달라고 해라. 나 무슨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외치다가 봐 보니까 거기서 결혼해서 그 큰아들도 예수교에 결혼해서 갑자기 외국 가온다고 해서 이젠 한번 가서 구경해서 오겠다고 해서 한번 갔다 오니까 그저 또 나가서 이거 일년에 한 번씩 와요.)

102012 @ 게도 공부하고게.(그래도 공부하고.)

102012 #3 파키스탄 가가지고 무역, 그 저 무싱 거 무역, 무싱 거 때문에 이 한국에 물품, 물품하고 거 무슨 거 교류허레 여기 일 년에 흔번 이 으름 나민 꼭 왓다 가.(파키스탄 가가지고 무역, 그 저 무슨 거 무역, 무슨 거 때문에 이 한국에 물품, 물품하고 거 무슨 거 교류하러 여기 일 년에 한번 이 여름 나면 꼭 왔다 가.)

102012 @ 예. 어디꽈게. 게난예. 답답허믄 종교도 믿는 거 닮아예?(예.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하면 종교도 믿는 거 같아요?)

102012 #3 아이, 이놈이 아니, 그거 믿는 것도 좋긴 좋은디. 왜 그러냐 허면은.(아이, 이놈이 아니, 그거 믿는 것도 좋긴 좋은데. 왜 그러냐 하면.)

102012 @ 너무 빠졍.(너무 빠져서.)

102012 #3 그 거기 들어가노면은 이놈이 이 십일조, 십일조. 아, 이게 아니 네영은 안 뭰다 헤여마씨.(그 거기 들어가면 이놈의 이 십일조, 십일조. 아, 이게 아니 내서는 안 된다 해요.)

102012 @ 참.(참.)

102012 #3 완전이 짤라십주. 너 나신디 수업료고 뭐고 어떵사 ᄒᆞᆨ교 졸업을 헷는지 나도 걸 몰라마씨. 참. 게 나도 느안티 재산을 주젠 헤도. 요 ᄃᆞᆯ겡이 ᄒᆞ나 주젠 헤도 그 반은 예수교로 ᄀᆞ져당 바쳐 불 거 아니.(완전히 잘랐죠. 너 나한테 수업료고 뭐고 어떻게 학교 졸업을 했는지 나도 그걸 몰라요. 참. 그게 나도 너한테 재산을 주려고 해도. 요 작은 밭 하나 주려고 해도 그 반은 예수교로 가져다가 바쳐 버릴 거 아니.)

102012 @ 음.(음.)

102012 #3 나가 어떵 헹 번 건디 그걸 헹은에 세계 놈한티 멕이렌.(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걸 해서 세계 놈한테 먹이려고.)

102013 @ 아이고, 게메예.(아이고, 글쎄요.)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혜 주십시오. 어머니가 막 시집살이 허고 막 이런 건 엇어낫수과? 할머니가 좋으셔 가지고 막 구박허고 그런 건 엇엇지예?(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마구 시집살이 하고 마구 이런 건 없었습니까? 할머니가 좋으셔 가지고 마구 구박하고 그런 건 없었지요?)

102013 #1 우리 어머닌 뭐 아버지 명예만 허니까 임제 고집을 부리지 않아. 순수허게, 법 어시도 살 어른이주.(우리 어머닌 뭐 아버지 명예만 하니까 임자 고집을 부리지 않아. 순수하게, 법 없이도 살 어른이지.)

102013 @ 사모님도 막 시집살이 당허고 이러진 안 헷겟다예?(사모님도 막 시집살이 당하고 이러진 안했겠네요?)

102013 #1 우리 집이 할망[33]은 자기가 주권을 잡고 싶어. 걸 나가 가만이 전수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세대도 보면은, 딸은 어머니 같혜. 다른 집이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가 잘 모르는데도 그 동네 사람안티도 물어 보면은, 남자를 구박허는 사람은, 자기 친정엄마가 아빠를 오늘 어디 가지 말고 꼭 집을 지켜라 허면은 집을 지키멍 견디엇다고 헤여. 그러니 그 뚤도 아방 닮앙, 어멍 닮앙 그거라. 그 사람 아직도 동네에 살아 잇는데, 그 동네 사람이 딴 동네에서 오랏는데, 어떻게 말을 허다가 보니까 그런 말을 허드라. 아, 어멍 닮앙 정 독허구나.(우리 집에 할머니는 자기가 주권을 잡고 싶어. 걸 내가 가만히 전수를 보면 우리가 아는 세대도 보면, 딸은 어머니 같아. 다른 집에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잘 모르는데도 그 동네 사람한테도 물어 보면, 남자를 구박하는 사람은, 자기 친정엄마가 아빠를 오늘 어디 가지 말고 꼭 집을 지켜라 하면은 집을 지키며 견디었다고 해. 그러니 그 딸도 아버지 닮아서, 어머니 닮아서 그거야. 그 사람 아직도 동네에 살아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딴 동네에서 왔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 아, 어머니 닮아서 저렇게 독하구나.)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그믄 어머님은 메누리한티 잘 헌 거 닮수과?(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을 그러면 어머님은 며느리한테 잘 한 거 닮습니까?)

102013 #3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자랑이 아니라 누구한티 이 굴른 말을

33) '할망'은 표준어 '할머니'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아내를 일컫는다.

헐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 좋고 궂임이 엇어. 아무도. 그래서 츰 상당이 무싱 거 헌 어른이엇수다게. 이 츰, 누가 무싱 거옌 욕도 그거 아녀도 그거 거니까 츰, 궂임, 좋음 엇이 아무라도 무싱 걸 헤십주.(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자랑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 싫은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좋고 궂음이 없어. 아무도. 그래서 참 상당이 무슨 거 한 어른이었습니다. 이 참, 누가 무슨 거라고 욕도 그거 안 해도 그거 거니까 참, 궂음, 좋음 없이 아무라도 무슨 걸 했죠.)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2014 #1 자식들 결혼은 자기 뜻에 맞추완.(자식들 결혼은 자기 뜻에 맞춰서.)

102014 @ 응.(응.)

102014 #1 나가 겅 왜 경 허느냐면은 부모가 어거지로 부모 마음에 든다고 허는 것이 잘못뭔 것이다. 아 텔레비에도 보면은 장가는 나가 가는 겁니다.(내가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 부모가 억지로 부모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아 텔레비전에도 보면 장가는 내가 가는 겁니다.)

102014 @ 히히.(히히.)

102014 #1 그러더라고 그런 프로가 나오던데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본인이 가는 것이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헐 필요가 없다. 게서 뭣든 말앗든 멧경 내버리자 난 그거 주장을 헙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ᄉᆞ주 볼 줄을 알아. 둘이 마주 헤가지고 ᄉᆞ주 평론헐 줄을 압니다. 나 정도로 그런 거 평론헐 줄 아는 사람도 우리 동네엔 없는디, 이 손ᄀᆞ락 이레 돌력 저레 돌력 허는 것ᄁᆞ지도 아는데, 이렇게 헤보니까 ᄌᆞ은 아덜 만난 아이가 아 등치도 커. 키가 흔 일 메다 칠십 좀 넘고, 등치가 큰 아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자로 살질 못허겟어, 사람을 안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알게 뭽니다. 평론을 허게 뒈면은 안 좋은데 겐디 영 보면은 돈을 안 애껴. 팍팍 써. 팍팍 쓰고, 우리안티도 츰 애정시럽게 잘해주고, 착하구나. 이렇게 헤서 산 지가 오래뭣는데, 영 보니까 어떤 때는 나안티 의논을 흔 번 허드라고, 부산 아덜이 사는데 회사에 다니멍 영 정 헌 아이허고 허는데 어머니 흔 번 들어봅서. 좋다. 우선은, 나쁘다고 허면은 안 뒈지요. 좋다. 좋지만은 한 가지 결점이 잇다. 어떵헌 결점이꽈? 아가씨가 남자보고 오늘은 뭣 허고 뭣 허고, 뭣 허고 뭐 허여서 나 말을 들어야 뭔다. 허면은 씨발 거 내가 남잔데 각시한티 막 명령 들엉 살겟냐? 헤서 마주치면은 불헹이 온다. 각시 허는 것이 옳다. 허는 것이 순응헤서 허겟다. 허면은 좋곡 그렇지 않으면 불헹이 온다. 각시 고집이 너무 좀 강하겟다 허니까 강한 것이 결점인디 그걸 좋게 생각허면은 좋고, 나쁘면은 싸와지면은 불행이 오는 거 아니넨 경허니까 그럴꺼 같다. 여자가 셀 것 같다. 허니까 알앗수다. 경헌디 전화허니까 이제도 나 우이서 놀젠 허는디 (전화) 그래서 안허드라고.(그렇더라고 그런 프로가 나오던데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본인이 가는 것이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되었든 말았든 맡겨

내버리자 난 그거 주장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나도 사주 볼줄을 알아. 둘이 마주해 가지고 사주 평론할 줄을 압니다. 나 정도로 그런 거 평론할 줄 아는 사람도 우리 동네엔 없는데, 이 손가락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것까지도 아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작은 아들 만난 아이가 아 덩치도 커. 키가 한 일 미터 칠십 좀 넘고, 덩치가 큰 아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자로 살질 못하겠어, 사람을 안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알게 됩니다. 평론을 하게 되면 안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돈을 안 아껴. 팍팍 써. 팍팍 쓰고, 우리한테도 참 애정스럽게 잘해주고, 착하구나. 이렇게 해서 산 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나한테 의논을 한 번 하더라고, 부산 아들이 사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아이하고 하는데 어머니 한 번 들어보세요. 좋다. 우선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좋다. 좋지만은 한 가지 결점이 있다. 어떠한 결점입니까? 아가씨가 남자보고 오늘은 뭣 하고 뭣 하고 뭣 하고, 뭐 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 씨발 거 내가 남잔데 각시한테 마구 명령 들어서 살겠니? 해서 마주치면 불행이 온다. 각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순응해서 하겠다. 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온다. 각시 고집이 너무 좀 강하겠다 하니까 강한 것이 결점인데 그걸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는 싸워지면 불행이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럴 거 같다. 여자가 셀 것 같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니까 이제도 나 위에서 놀려고 하는데 (전화) 그래서 안하더라고.)

102015 @ 며느리와 사위에 대헤 이야기헤 주십시오. 잘 다 같이 살진 않지예? (며느리와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잘 다 같이 살진 않지요?)

102015 #1 예?(예?)

102015 @ 사위? 사위.(사위? 사위.)

102015 #1 사위는 죽어 버렷어.(사위는 죽어 버렸어.)

102015 @ 아, 딸이 둘?(아, 딸이 둘?)

102015 #1 하나.(하나.)

102015 @ 하나. 그믄 딸도 외롭게 아이덜 키왐구나예?(하나. 그러면 딸도 외롭게 아이들 키우는군요?)

102015 #1 아, 서른 싯에 홀어멍 들어서.(아, 서른셋에 홀어머니 들어서)

102015 @ 아아.(아아.)

102015 #1 홀어멍 들엇는디 그 시집이 뚤덜이 많헌 집이라. 아, 기니까 자꾸 뚤덜이 혼자 어떻게 살겟느냐. 얘덜이 남매라. 남매라 가지고 허길레 이제 성당을 믿거든. 성당을 믿어서 이렇게 허는데 아이가 꼭 흔들릴 것 같아. 경 헨에 나가 강력허게 멩령을 헤서. 아빠 말 잘 들어라. 너 성당에 다니니까 성당 의지를 헤가지고 헛뭔 뭐를 허지 말아라. 누가 뭐옌 허던 흔들리기 시작허면은 이놈도 나를 나무레고 저놈도 나를 나무라고 나무렘 받지 말고 살아라. 게서 성당에 쭉 다니니까 그 성당에 뭐 합창단에 저 지도도 허고.(홀어머니 들었는데 그 시집이 딸들이 많은 집이야. 아, 그러니까 자꾸 딸들이 혼자 어떻게 살겠니. 얘들이 남매야. 남매여 가지고 하길래 이제 성당을 믿거든. 성당을 믿어서 이렇게 허는데 아이가 꼭 흔들릴 것 같

아. 그렇게 해서 내가 강력하게 명령을 해서. 아빠 말 잘 들어라. 너 성당에 다니니까 성당 의지를 해가지고 헛된 뭐를 하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놈도 나를 나무라고 저놈도 나를 나무라고 나무람 받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성당에 쭉 다니니까 그 성당에 뭐 합창단에 저 지도도 하고.)

102015 @ 아아.(아아.)

102015 #1 처음에는 뭐 저.(처음에는 뭐 저.)

102015 @ 좋은 사람 만낭 다시 살면 뒈는데.(전화)(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면 되는데.)

102015 #1 경 헤서 꾸준이 살고 잇어. (전화) 겨난 딸이, 딸이 지금 금년 교대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잘허는 모냥이여.(그렇게 해서 꾸준히 살고 있어. (전화) 그러니까 딸이, 딸이 지금 금년 교대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야.)

102015 @ 아.(아)

102015 #1 아덜은 군대 가고.(아들은 군대 가고.)

102015 @ 세상에, 아오야. 재혼을 안 헷구나예?(세상에, 아오야. 재혼을 안 했군요?)

102015 #1 예. 재혼을 안 허고 헛뒌 생각허지 말아라.(예. 재혼을 안 하고 헛된 생각하지 마라.)

102015 @ 아이구.(아이구.)

102015 #1 사람이 혼자 다니다가 누가 뭔 말을 하면은 아 그럴까? 뭐 허게 뒈면은 설움을 받고 퉤적 받으니까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안헤서 딱 이렇게 허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뭐 허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아이덜 어린이집 헤가지고 아이덜 지도허는 모냥이라. 엄마보다 잘 살암다고 아이덜이.(사람이 혼자 다니다가 누가 뭔 말을 하면 아 그럴까? 뭐 하게 되면 설움을 받고 퇴적 받으니까 그런 것이 흔들리지 않고 딱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뭐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아이들 어린이집 해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는 모양이야. 엄마보다 잘 살고 있다고 아이들이.)

102015 @ 며느리와 사위?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헤 이야기헤 주십시오. 뭐 괜찮아마씨?(며느리와 사위? 며느리하고 사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뭐 괜찮습니까?)

102015 #3 그거 메누리허고 사위, 아니, 요즘 사람덜은 무신 다 그렇지 안음니까? 게난 거, 거 저 무싱 거 헌디 춤 우리, 우리는 옛날 시대가 뒈노난 그자 집이 와근에 싯젠이나 허민 어찌어찌 아 이거 고맙구나. 영 생각허는디, 겐디 요즘 사람덜 뭐 생각하고 우리 생각허곤 아주 틀리니까 거 뭐 헌데 뭐 씨아방 욕만 안헤면 아 이거 좋은가 헤얍주 게믄 어떵 헐 거라?(그거 며느리하고 사위, 요즘 사람들은 무슨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 거 저 무슨 거 한데 참 우리, 우리는 옛날 시대가 되니까 그저 집에 와서 있다고 하면 어찌어찌 아 이거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 뭐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곤 아주 틀리니까 거 뭐 한다고 뭐 시아버지 욕만 안하면 아 이거 좋은가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02015 @ 막내메누린 여기 살암구나예. 애기덜은 저청초등학교에 다니고?(막내 며느리는 여기 살고 있군요. 애기들은 저청초등학교에 다니고?)

102015 #3 아니, 아니, 메누리는 여기 없고 시에.(아니, 아니. 며느리는 여기 없고 시에.)

102015 @ 아아.(아아.)

102015 #3 시에 살멍, 이제 족은메누리, 큰메누리는 지금 이제 전부 중학교 이상 뒈엇고, 거기는 아덜ᄒᆞ나에 뚤 성제 헤가지고 큰 뚤애기는 미국에 강 공부허곡 있고 아덜은 저 파키스탄 대학도 금년 지금 들어가나 뭐 헤실 건디.(시에 살면서, 이제 작은며느리, 큰며느리는 지금 이제 전부 중학교 이상 되었고, 거기는 아들하나에 딸 형제 해가지고 큰 딸애기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아들은 저 파키스탄 대학도 금년 지금 들어가나 뭐 했을 건데.)

102016 @ 파키스탄마씨. 아이고, 특이허다예.(파키스탄이요. 아이고, 특이하네요.)

102016 #3 예. 무역회사에 들어강.(예.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102016 @ 게도 막내아덜이 가까이 이시난예.(그래도 막내아들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102016 #3 그디는 결혼허건디 멧 년 안 뒛는데 거기도 삼남매주.(거기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거기도 삼남매지.)

102016 @ 삼남매예? 딸덜은 뭐 살갑게 아버지 아버지 허멍 오곡 헙니까?(삼남매요? 딸들은 뭐 살갑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오고합니까?)

102016 #3 아, 그렇죠. 족은사위는 지금 저 거 어디고 거 육지 나간 이시난 거기는 뭐 그자 간혹 왓는디, 요즘 그 모친 병원에 거기에 입원허난에 ᄒᆞᆫ번은 왓다가고 그 뚤은 지금 씨어멍 때문에 못 가난 이거 내일이나 가보카? 할 예정이우다. 영허길레 알앗저, 헨. 샛뚤은 시에 살고 조석으로 뭐 짐치 ᄀᆞ튼 거 무싱거 헤연 ᄀᆞ졍 오곡.(아, 그렇죠. 작은사위는 지금 저 거 어디고 육지 나가서 있으니까 거기는 뭐 그저 간혹 왔는데, 요즘 그 모친 병원에 거기에 입원하니까 한번은 왔다가고 그 딸은 지금 시어머님 때문에 못 가니까 이거 내일이나 가볼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길래 알았어, 했어. 둘째 딸은 시내에 살고 조석으로 뭐 김치 같은 거 뭐 해서 가져오고.)

102016 @ 가까운데 게도 있다예.(가까운데 그래도 있네요.)

102016 #3 예.(예.)

102016 @ 샛뚤이예. 겐 뭐 결혼 헹 후회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앗겟지만 뭐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건 아까 교회 때문에 허고 그런 거 저런 거 잇엇다예?(둘째 딸이요. 그래서 뭐 결혼해서 후회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뭐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프고 이런 건 아까 교회 때문에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있었네요?)

102016 #3 단지 교회 때문에.(단지 교회 때문에.)

102016 @ 큰아덜이라 부난예.(큰아들이라 버리니까요.)

102016 #3 예.(예.)

102016 @ 뭐 아픈 거나 뭐 이런 건 엇이 잘예?(아픈 거나 뭐 이런 건 없이 잘요?)

102016 #3 나마씨?(나요?)

102016 @ 예. 사모님이나.(예. 사모님이나.)

102016 #3 우리 처는 지금 몸이 좀 불펜혜근에.(우리 처는 지금 몸이 좀 불편해서.)

102016 @ 아아.(아아.)

102016 #3 저 무싱 거 헴수다만은 그자 뭐 우리 처도 흔번 그자 저 세상 가단.(저 무슨 거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우리 처도 한번 그저 저 세상 가다가.)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이젠 밧일로 감수다예. 보리농사를 지을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이젠 밭일로 갑니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나 이제는 농사 설러불엇는디.(나 이제는 농사 그만 둬 버렸는데.)

103002 @ 옛날 거, 그대로 말허믄 뒈여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옛날 거, 그대로 말하면 돼요.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나는 전에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밧을 통계 잡아 와 보면은 삼년계획을 헙니다. 이 밧에 무엇을 헤나면은 다음에는 무엇을 허는 게 유리허다. 또 다음에는 무엇을 유리허다 허는 거를 헤가지고, 그 달력을 보고, 그 청력을 백종력을 봐서 절기 참고를 딱 허면은 금년은 비가 많이 오겟다, 날이 오래 ᄀᆞ물겟다. 이러한 그 기상조건을 쪼금 그 나가 농사, 보리농사만 헐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참작허는 것에서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더니 근래에는 이 기계화가 뒈다가 보니까, 기후변화가 잇어서 안 맞아. 내가 지내보니까 안 맞는데.(나는 전에 보리농사를 지을 때는 밭을 통계 잡아 와 보면 삼년계획을 합니다. 이 밭에 무엇을 했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게 유리하다. 또 다음에는 무엇을 유리하다 하는 거를 해가지고, 그 달력을 보고, 그 청력을 백종력을 봐서 절기 참고를 딱 하면은 금년은 비가 많이 오겠다, 날이 오래 가물겠다. 이러한 그 기상조건을 조금 그 내가 농사, 보리농사만 할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참작하는 것에서 맞아 들어가. 맞아 들어가더니 근래에는 이 기계화가 되다가 보니까, 기후변화가 있어서 안 맞아. 내가 지내보니까 안 맞는데.)

103002 @ 아주 옛날?(아주 옛날?)

103002 #1 이것에 이제는 세상흐름에 따라서 그 ᄃᆞ수가 좀 틀렷다는 걸 알 수가 잇어예.(이것에 이제는 세상흐름에 따라서 그 도수가 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3002 @ 보리농사?(보리농사?)

103002 #1 우리 흔 십년 후배 사람이 나보고 형님은 농사짓는 게 남보다 앞섯수다. 이렇게 허거든. 게난 농사는 상강 전에 메칠 전에 익으면은 꼭대기까지 잘 결실이 염고, 메칠 안에 들면은 중간베끠 읍지를 안헤서 수확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허는 거. 이것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지금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어, 비료 털세, 농약털세, 물은 지하수가 있으니까 ᄀᆞ무는 거 걱정 안 헹 물주면 뒌다. 이 농사 허는 방법은 이제는 나가 처음에 농사지을 때 지하수 해서 이 물이 읏어서 물이 먹는 물도 봉천수 고인 물 길어다 먹을 때하고 모든 게 하늘과 땅같이 헤근에 사이가 멀게 변헤 노니까 게니까 요지금 농사짓는 젊은 사람덜 허는 건 우린 몰라.(우리 한 십년 후배 사람이 나보고 형님은 농사짓는 게 남보다 앞섯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농사는 상강 전에 며칠 전에 익으면 꼭대기까지 잘 결실이 여물고, 메칠 안에 들면 중간밖에 여물지를 않아서 수확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것이 딱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즘 사람은 그게 아니고, 비료 털세, 농약털세, 물은 지하수가 있으니까 가뭄 걱정 않고 물주면 된다. 농사하는 방법이 내가 처음에 농사지을 때 지하수 해서 이 물이 없어서 물이 먹는 물도 '봉천수' 고인 물 길어다 먹을 때하고 모든 게 하늘과 땅같이 해서 사이가 멀게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요즘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 하는 건 우린 몰라.)

103002 @ 아주 옛날예. 이번엔 보리농사만 허는 거라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씩예?(아주 옛날이요. 이번엔 보리농사만 하는 거예요.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나씩요?)

103002 #1 예.(예.)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보리농사를 지을라고 허면 돗걸름이 가장 필요헙니다. 돗걸름이 가장 필요허는데 돗통에다가는 뒈지 길루는디에는 깊이 우물을 파거든. 땅속에. 아멩 못해도 일 메터 이상은 땅 짚이 파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돗도고리[34]를 놓고, 뒈지를 노게 거기에 뒈지 집을 이렇게 짓고 헤서 딱 놔서, 소를 매면은 소똥, 소 먹다 남은 그 풀을 전부 돗통에 가져다가 담아. 담아서 뒈지발로 드러 밟으거든.(보리농사를 지으라고 하면은 돼지거름이 가장 필요합니다. 돼지거름이 가장 필요한데 돼지우리에다가는 돼지 기르는 데에는 깊이 우물을 파거든 땅속에. 아무리 못해도 일 미터 이상은 땅 깊이 파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돗도고리'를 놓고, 돼지를 거기에 돼지 집을 이렇게 짓고 해서 하고, 딱 놔서 소를 매면 소똥, 소 먹다 남은 그 풀을 전부 돼지우리에 가져다가 담아. 담아서 돼지발로 계속 밟거든.)

34) '돗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말한다.

103002 @ 아아.(아아.)

103002 #1 그래서 디딜랑[35]이라고 헤가지고 변보는 데를 만들고. 게서 그 변을 뒈지가 먹고. 그레서 제주도 똥 뒈지라고 허는데 그렇게 헤서 이제는 어, 입동 시월 절.(그래서 부춘돌이라고 해가지고 변보는 데를 만들고. 게서 그 변을 돼지가 먹고. 그래서 제주도 똥 돼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 입동 시월 절.)

103002 @ 입동 시월.(입동 시월.)

103002 #1 입동 시 월절이 뒈면은 보리를 갑니다. 보리를 갈라고 허면은 그때 막 그 통지를 ᄀᆞ득여 논 거름을 이제 힘이 잇는 사람은 자기대로 허고 힘이 약헌 사람은 힘 씬 사람을 빌어가지고 그놈을 내어가지고 마당에 착 허대겨 놔. 허데겨 노면은 주인이 보리씨를 네노민은 보리를 그 걸름더레 막 뿌려.(입동 시월 절이 되면 보리를 갑니다. 보리를 갈라고 하면은 그때 막 그 돼지우리를 가득하게 해 논 거름을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대로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힘 센 사람을 빌어가지고 그놈을 내어가지고 마당에 쫙 허적여 놔. 허적여놓으면 주인이 보리씨를 내놓으면 보리를 그 거름에 막 뿌려.)

103002 @ 아아.(아아.)

103002 #1 걸름더레 막 뿌리면은 이제 소시랑으로 그 걸름을 이렇게, 이렇게 막 서꺼. 막 서끄는디 검질이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왕상허[36]거든. 그러면은 쉐를 두 ᄆᆞ리나 이제 ᄒᆞᆫ ᄆᆞ리나 웃인 사람은 ᄒᆞᆫ ᄆᆞ리 경 안허면은 두 ᄆᆞ리정도 헤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냥 막 밟어. 돌면서. 밟으면은 이 소 그 뒷다리가 어떻게 멀어도 앞다리 디뎌난디 거기만 들이지 다른데 안허거든. 그러면은 쉐석을 심어서 ᄃᆞᆼ기면서 쉐 엉덩이를 잡아밀려서 따른 데도 ᄇᆞᆯ르라고 꼭 ᄇᆞᆯ라난 디만 ᄇᆞᆯ르믄 안뒈니까 그디 저디 ᄇᆞᆯ라야 헐 건디 잡아 밀리멍 이렇게 헤가지고 막 ᄇᆞᆱ린 다음에는 이제 또 모두와서 오름ᄀᆞ치 쌓여 놓아. 그러면은 맥을 가을 들면은 그 나룩찍, 저 벳짚을 헤가지고 맥을 줄아. 해마다 맥을 ᄌᆞ라야 돼. 맥을 줄앙 그거세덜 담아가지고 쉐 질메를 지와가지고 쉐에 시끄곡, 지곡, 헤서 밧디 가서 이제는 그디 저디 이제 쏟아놓으면은 부인덜은 ᄀᆞᆯ채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ᄀᆞᆯ채레 막 담아 놩, 이걸 이렇게 막 허대겨. 막, 막 허대겨 놔가지고, 쉐로 이젠 갈아. 쉐로 밧을 갈면은, 벙뎅이가 나면은, 낭토막 이런 것에 ᄌᆞ룩 헤가지고, 벙뎅이 다 두드려. 게서 문짝허게. 문짝허게 ᄀᆞᆯ렁 그렇게 헤서 이제는 헤서 보리가 나. 게 걸름에 씨가 묻으니까 그게 나서 그게 뭐허지. 경허면은 보리가 한걸이 뭘 허고, 봄나면은 부인덜이 이제 그 검질이 요지금처럼 그리 하질 안헤서. 살살 뎅기면서 그자 검질을 매고 그렇게 헤서 이제 보리가 케곡, 익으면은 그렇게 헤서 호미로 비엉 그 보리로 무끄거든. 딴 무셍이로 무끄질 안 허고 그 보리로 무꺼가지고 쉐에 시꺼당 쉐에 시끄는 건 ᄒᆞᆫ 짝에 열뭇씩 조그만썩 무끄는 거 스무뭇이 ᄒᆞᆫ 발이라. 쉐에 시껑 집이 오랑 눌엇당은에 클, 쉐 영 헌거 ᄒᆞᆯ탕, 옛날에사 도깨로 두드렁, 경헤근에 왜정 때는 바치고, 왜정 때

35) '디딜랑'은 '디딜팡' 또는 '드들팡', 부춘돌. 통시에서 볼 일을 볼 때 발을 딛는 돌을 말한다.
36) '왕상허다'는 물기 없이 잘 마른 모양을 나타난 말이다.

가 끗난 다음에는 그저 ᄆᆞᆯ방에에 이제 물적져근에 둥글이면은, 일년 먹을 양석을 팔월절이 들면은, 벵로 팔월절이 들면은, 전부 느나어시 그거를 정미허거든. 정미헤 가지고 광에 담앙 안방에 놔두니까 게서 그것이 일년 먹을 농사라. 요지금은 그때 그때 사먹주만은 그렇게 헤서 일년 먹을 농사를 그렇게 저장헤여.(거름에 막 뿌리면 이제 쇠스랑으로 그 거름을 이렇게 이렇게 막 섞어. 막 섞는데 김이 풀이 많이 들어가니까 '왕상'하거든. 그러면은 소를 두 마리나 이제 마리나 없는 사람은 한 마리 그렇게 안하면 두 마리정도 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막 밟어. 돌면서 밟으면은 이 소 그 뒷다리가 어떻게 멀어도 앞다리 들여난데 거기만 들이지 다른데 안하거든. 그러면은 소석을 심어서 당기면서 소엉덩이를 잡아밀려서 따른 데도 밟으라고 꼭 밟았던 데만 밟으면 안되니까 거기저기 밟아야 될 건데 잡아 밀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밟은 다음에는 이제 또 모여서 오름같이 쌓아 놓아. 그러면 거기저기 밟아야 할 건데 잡아밀려서 모여서 가을들면 볏짚 볏짚을 해가지고 멱서리를 짜. 해마다 멱서를 짜야 돼. 멱서리를 짜서 그거 짚들 담아가지고 소길마를 지워가지고 소에 실고 지고, 해서 밭에가서 이제는 거기저기 이제 쏟아놓으면 부인들은 삼태기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삼태기에 담아 놔서 이걸 이렇게 막 흐트려뜨려. 막 허적여 놔가지고, 소로 이젠 갈아. 소로 밭을 갈면, 덩어리가 나면은, 나무토막 이런 것에 자루해가지고, 덩어리 다 두드려, 매끈하게, 매끈하게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보리가 나. 거름에 씨가 붙어서 그게 나서 그렇게 하면 보리가 여유롭게 마르고, 봄나면 부인들이 이제 그 김이 요즘처럼 많이 안 해서. 살살 다니면서 그저 김을 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가 틔고, 익으면 그렇게 해서 호미로 비어서 그 보리로 비어서 그 보리로 묶어. 그 보리로 묶어가지고 소에 실어다가 소에 싣는 건 한 짝에 열뭇씩 조그만씩 묶으는 거 스무뭇이 한 발이라. 소에 실어서 집에 와서 가리었다가 클, 소 이렇게 한 걸 홅어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왜정때는 바치고, 왜정때가 끝난 다음에는 그저 연자매에 이제 물 적져서 둥글이면, 일년 먹을 양석을 팔월절이 들면, 병로 팔월절이 들면 전부 너나없이 그거를 정미하거든. 정미해 가지고 방에 담아서 안방에 놔두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년 먹을 양식을 농사라. 요즘은 그때그때 사먹지만 그렇게 해서 일년 먹을 농사를 그렇게 저장해.)

103002 #5 비료, 씨.(비료, 씨.)

103002 #4 그때 비료 셔시냐?(그때 비료 있었나?)

103002 #6 아니, 옛날엔 비료 엇엇수다.(아니, 옛날엔 비료 없었습니다.)

103002 #5 걸름, 돗걸름.(거름, 돼지거름.)

103002 @ 돗걸름.(돼지거름.)

103002 #6 아니, 나 ᄀᆞᆫ건 들읍서. 쉐걸름은 돗통더레 담앙 도새기 똥 막 싸고 ᄒᆞᆨᆷ 도새기 물 ᄀᆞᆯ르믄 그 물 적졍 바까터레 내청 이젠 씨 삐영 쉐로 사람으로 헤영 막 ᄇᆞᆯ황.(아니, 나 말하면 들으십시오. 소거름은 돼지우리에 담아서 돼지 똥 막 싸고 조금 돼지 물 고이면 그 물 적셔서 바깥으로 내쳐서 이젠 씨 뿌려서 소로 사람으로 해서 막 밟아서.)

103002 #5 다시 그걸 이젠 뒈쌍 다시 이제.(다시 그걸 이젠 뒤집어서 다시 이제.)

103002 #6 뒈쌍 불롸 다시 걸름착[37]에 담으민 지고 시끄곡 헹 밧디 강 놩 그거 영, 영 뿌렁 감네다.(뒤집어서 밟아서 다시 '거름착'에 담으면 지고 싣고 해서 밭에 가서 놔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갑니다.)

103002 #4 오줌 져당 오줌 져당은에 저 무싱 거레 박세기에 비왕, 혼 푸게 혼 번, 혼 푸기에 혼 번 매 푸대에 졸락졸락 졸락허게 주어야.(오줌 져다가 오줌 져다가 저 무슨 거에 바가지에 부어서, 한 부대에 한 번, 한 부대 한 번, 매 부대에 졸딱졸딱, 졸딱하게 주어야.)

103002 #5 비료가 엇이니까.(비료가 없으니까.)

103002 #4 그 먹은 보리푸기는 까무룽허게 올라오고 안 먹은 부기는.(그 먹은 보리 포기 까맣게 올라오고 안 포기는.)

103002 #5 노랑허고 크지도 못허고 사람이나.(노랑하고 크지도 못하고 사람이나.)

103002 #6 그건 걸름은 오줌마씨. 오줌.(그건 거름은 오줌이요. 오줌.)

103003 @ 보리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보리걸름?(보리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보리거름?)

103003 #1 응. 게서 막 밟으면은 그게 그 막 검질, 그 또 오래 담가서 먹으니까 막 검질 쉐발에 찢어지주게. 찢어지곡 허민 풀이 뒈가지고 씨를 거기에 탁 달라부트는 거라 걸름에. 딱 달라부트민은 요렇게 헷다가 데며뒷다가 이제는 걸름 담는 걸로 걸름착이라고 허거든. 걸름착더레 쉐시랑으로 영 헤서 이제는 양쪽 두 개를 헤서 이제 영 들러봐서 짐작으로 양쪽 ᄀᆞ르게 헤영 톡톡허게 더껑 불랑 탁 덩어리지게 헹 걸 쉐를 딱허게 시껑 밧디 강 불라.(응. 그래서 막 밟으면 그게 그 막 김, 그 또 오래 담가서 먹으니까 막 김 소발에 찢어지지. 찢어지고 하면 풀이 되가지고 씨를 거기에 탁 달라붙는 거야 거름에. 딱 달라붙으면 요렇게 했다가 쟁여뒀다가 이제는 거름 담는 걸로 거름착이라고 하거든. 거름착에 쇠스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양쪽 두 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봐서 짐작으로 양쪽 고르게 해서 톡톡하게 덮어서 밟아서 탁 덩어리지게 해서 그걸 소를 딱하게 실어서 밭에 가서 밟아.)

103003 #5 마련은게 ᄀᆞᆺ세 ᄀᆞᆫ듯이 오줌 헤영 보리 나민 주고 ᄀᆞᆯ체에 담앙 이추룩 뿌렁 착착 그냥 이제ᄀᆞ치 그 ᄃᆞ신 때믄 좋추만은 그 걸름 져당 얼렁 혼덩어리 뭔 생전 벌르지 못허민 ᄀᆞᆯ체에 ᄀᆞᆯ르멍 부비멍 담앙 그걸 하나하나 허리에 찻수다. 걸 다 뿌렁 경허멍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시카부덴.(마련은 금방 말했듯이 오줌 해서 보리 나면 주고 삼태기에 담아서 이처럼 뿌려서 착착 그냥 이제같이 그 따뜻한 때면 좋지만 그 거름 져다가 얼려서 한 덩어리 된 생전 쪼개지 못하면 삼태기에 고르면서 비비면서 담아서 그걸 하나하나 허리에 찼습니다. 걸 다 뿌려서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 왔을까 봐.)

37) '걸름착'은 퇴비 따위의 거름을 담고서 나르는 멱둥구미를 말한다.

103003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가?(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3 #5 걸름에, 걸름에 닥닥 보리가 뒈는 거라.(거름에, 거름에 닥닥 보리가 되는 거야.)

103003 #4 걸름더레 잘락잘락헤영.(거름에 자락자락해서.)

103004 @ 보통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소로 밧을 갈지예?(보통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소로 밭을 갈지요?)

103004 #1 예.(예.)

103004 @ 밧을 갈고 거기에다가 아까 여자덜이 골채에?(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아까 여자들이 삼태기에?)

103004 #1 아니, 아니 이렇게 그 걸름을 갖다가 밧에 노면은.(아니, 아니 이렇게 그 거름을 갖다가 밭에 놓으면.)

103004 @ 아아.(아아.)

103004 #1 여디도 뿌리고 이디도 뿌리고 영 허면은 이걸 밭에다가 다 뿌려. 뿌려 난 다음에 밭을 갈아야 이걸 밧디 다 뿌려. 뿌려 논 난 다음에 밧을 갈아야.(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밭에다가 다 뿌려. 뿌려 난 다음에 밭을 갈아야. 이걸 밭에 다 뿌려. 뿌려 놓은 다음에 밭을 갈아야.)

103004 @ 갈아.(갈아.)

103004 #1 무뎌지거든.(무뎌지거든.)

103004 @ 예.(예.)

103004 #1 무뎌지곡 무뎌진 다음에는 이따가 그 때는 보리는 ᄌᆞ늘[38] 때 아니 갈고 밧을 ᄆᆞ른 때 갈아.(무뎌지거든 무뎌지고 무뎌진 다음에는 이따가 그때는 보리는 'ᄌᆞ늘' 때 아니 갈고 밭을 마른 때 갈아.)

103004 @ 아아. 비 온 다음 가는 게 아니고, ᄌᆞ는 때 갈아?(아아. 비 온 다음 가는 게 아니고, 무를 때 갈아?)

103004 #1 아아, 비 온 때 가는 건 안 뒈어. 게난 보리는 ᄆᆞ른 때 갈아. 에, 힘이 들지. 이제는 벙뎅이가 이렇게 일로절로 나오거든. 나와 그놈의 벙뎅이는 곰베라고 헤서 이제 두드려서 밧을 펜펜허게 멘들아 가지고.(아아, 비 온 때 가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보리는 마른 때 갈아. 에, 힘이 들지. 이제는 볏밥이 이렇게 일로절로 나오거든. 나와 그놈의 볏밥은 곰방메라고 해서 이제 두드려서 밭을 편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103004 @ 아아, 보리농사 지을 때는 곰베로 두드리는 게 중요허구나예?(아아, 보리농사 지을 때는 곰방메로 두드리는 게 중요허군요?)

103004 #1 예. 보리 간 다음에는 야튼 어떤 집이던지 남녀간에 밧 간 다음에는 쫙허게 다 두드려야 뒈. 이따가 좁쏠, ᄒᆞ쏠 벙뎅이가 아니라도 ᄒᆞ쏠 놓은 디는 툭툭 두드려서 영 멜라가지고 어느 정도 영 펜펜허게. 집마다 곰베라고 허는 거, 벙뎅이 두드리는 거는 읎는 집이 엇엇주.(예. 보리 간 다음에는 어떻든 어떤 집이든지 남녀

38) 'ᄌᆞ늘다'는 땅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딴딴하지 않고 갈기에 알맞을 정도로 무르다는 의미다.

간에 밭 간 다음에는 딱하게 다 두드려야 돼. 이따가 좁쌀, 조금 덩어리가 아니라도 조금 높은 데는 툭툭 두드려서 눌러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편편하게. 집마다 곰방메라고 하는 거 볏밥 두드리는 거는 없는 집이 없었지.)

103004 @ 예. 겐 그추룩 헤난 다음 곰베로 두드리고 갈고, 그 다음 곰베허고 그 다음 여기 섬피도 헷수과?(예. 그처럼 한 다음 곰방메로 두드리고 갈고, 그 다음 곰방메하고 그 다음 여기 섬피도 했습니까?)

103004 #1 아니, 섬피는 안 허고.(아니, 끙게는 안 하고.)

103004 @ 섬피는 안하고.(끙게는 안하고.)

103004 #1 섬피는 안하고, 섬피로 끗는 거는 모멀 갈 때.(아니 끙게는 안 허고, 끙게로 끄는 거는 메밀 갈 때.)

103004 @ 아아, 보리는 섬피 안 허고.(아아, 보리는 끙게 안 하고.)

103004 #1 예.(예.)

103004 @ ᄆᆞ멀 갈 때는 섬피를 허고?(메밀 갈 때는 끙게를 하고?)

103004 #1 예.(예.)

103004 @ 아까 불치 때문인가예?(아까 재 때문인가요?)

103004 #1 그렇게 끗어야 묻어지거든. 부각헌 밧이난 여러 번 갈아 노니까.(그렇게 끌어야 묻어지거든. 부각한 밭이니까 여러 번 갈아 노니까.)

103004 @ 아아.(아아.)

103004 #1 게니까 옛 어른덜 말이 그러거든. ᄆᆞ멀은 ᄆᆞ멀씨 ᄒᆞᆫ 말지기에다가 아홉 번 갈고, 불채를 아홉 바리 놩 갈면은 아홉 섬이 난다. 이런 전설이 잇주기.(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이 그러거든. 메밀은 메밀씨 한 말지기에다가 아홉 번 갈고, 재를 아홉 바리 놔서 갈면 아홉 섬이 난다. 이런 전설이 있지.)

103004 @ 불채를 아홉 번, 아홉 섬.(재를 아홉 번, 아홉 섬)

103004 #1 밧을 여러 번 갈아서 부각부각허게 허닥지 좋은 거라. 게면은 그거 한기도 덜허곡, ᄆᆞᆯ라야 한기를 덜허여. 밧이 ᄌᆞ늘앙 진 때에 비 오라 난 때에 농사는 어떤 농사던지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면은 한기를 더 타.(밭을 여러 번 갈아서 '부각부각'하게 할수록 좋은 거라. 그러면 그거 한기도 덜하고, 말라야 한기를 덜해. 밭이 물러서 진 때에 비 오고 난 때에 농사는 어떤 농사든지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하면은 한기를 더 타.)

103004 @ 아이고.(아이고.)

103004 #1 한기 덜 타는 것은 밧을 ᄆᆞ르게 갈아사 한기를 덜 타곡.(한기 덜 타는 것은 밭을 마르게 갈아야 한기를 덜 타고.)

103004 @ 겐 어쨋든 그 서꺼서 보리씨는 다 뿌린 거다예? 걸름은 여자들이 헌 거, 그 다음 밧을 갈고 그 다음.(그래서 어쨌든 그 섞어서 보리씨는 다 뿌린 거네요? 거름은 여자들이 한 거, 그 다음 밭을 갈고 그 다음.)

103004 #1 곰베 두드리고.(곰방메 두드리고.)

103004 @ 그 다음 곰베 두드리고.(그 다음 밭을 갈고 그 다음 곰방메 두드리

고.)

103004 #1 게믄 끗이라.(그러면 끝이야.)

103004 @ 끗예. 아아.(끝이요. 아아.)

103004 #5 술오리도 잇고.(쌀보리도 있고.)

103004 #6 술오리는 냉중이고 겉보리허고 맥주 맥.(쌀보리는 나중이고 겉보리하고 맥주 맥.)

103004 #4 술오리? 겉보리, 겉보리.(쌀보리? 겉보리, 겉보리.)

103004 #5 겉보리, 맥주보리 말째라가난 고주메기여 무싱거여 드러 나오라도 우리 헐 때는 겉 보리광 맥주보리, 술오리 그거.(겉보리, 맥주보리 말째 돼 가니까 고주메기여 무슨 거야 계속 나와도 우리 할 때는 겉보리와 맥주보리, 쌀보리 그거.)

103004 @ 세 개예?(세 개요?)

103004 #5 음. 세가지 헨 허고 이제 막 오래 살아가난 호주애기[39]여 무싱거여 막 드르 나완.(음. 세 가지 해서. 하고 이제 막 오래 살아가니까 '호주애기'여 무슨 거야 막 계속 나왔어.)

103004 #6 술오리는 냉중사 낫수다.(쌀보리는 나중에야 나왔습니다.)

103004 #4 술오리 난 지도 오래지 않허고, 맥주보리 난 지도 오래지 안허고.(쌀보리 난 지도 오래지 않고, 맥주보리 난 지도 오래지 않고.)

103004 #5 우린 옛날엔양. 술오린 친정에선 술오리 갈앙 먹어신디, 시집은 오란 보난양 맥주보리만 갈고 겉보리만 가는 거라.(우린 옛날엔요. 쌀보린 친정에선 쌀보리 갈아서 먹었는데, 시집은 와서 보니까 맥주보리만 갈고 겉보리만 가는 거야.)

103004 #6 밧이 그거베끠 안 뒈니까 그거주.(밭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지.)

103004 #5 나 허는 말은 시어머님네ᄀᆞ라 ᄀᆞᆫ는 말이 무사 이거 겉보리 맥주보리 갈암수과? 허난 밧이 나빠 부난 경 헴젠. 게도 이젠 술오리를 ᄒᆞᆫ번 갈아 본 거라. 나 이디 온 후제 술오리를.(나 하는 말은 시어머님네보고 말하는 말이 왜 이거 겉보리, 맥주보리 갈고 있습니까? 하니까 밭이 나빠 버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젠 쌀보리를 한번 갈아 본 거야. 나 여기 온 후에 쌀보리를.)

103004 #4 아. 술오린 밧 벌린덴 헤낫저게.(아. 쌀보린 밭 벌린다고 했었지.)

103004 #5 게도 술오리를 이제 갈아 봣수다. 가난 여점 뒈는 거라. 게난 그루후제 우리 씨어머니네도 술오리 하영 갈고, 츰 맥주보리도 갈고 허멍 헷주만은 아이고 세상에.(그래도 쌀보리를 이제 갈아 봤습니다. 가니까 여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 시어머니네도 쌀보리 많이 갈고, 참 맥주보리도 갈고 하면서 했지만 아이고 세상에.)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술보리여, 맥주보리여.(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쌀보리다, 맥주보리다.)

103006 #1 그 뭐냐 허면은 술보리보다는 처음에는 맥주보리를 허다가 쌀보리가 나오니까 쌀보리 주장을 헤서 허주게. 게니까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맥주보리는 단

39) '호주애기'는 보리종류의 한 가지이다.

점이 뭐냐면 이 그 저 ᄆᆞᆯ방아라고 이 그 저 큰 돌로 둥글이는데 그 저 껍데길 벗기는데 맥주보리는 훨씬 힘이 들어.(그 뭐냐 하면 쌀보리보다는 처음에는 맥주보리를 하다가 쌀보리가 나오니까 쌀보리 주장을 해서 하지.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 뭐냐면 맥주보리는 단점이 뭐냐면 그저 연자매라고 이 그 저 큰 돌로 굴리는데 그 저 껍데길 벗기는데 맥주보리는 훨씬 힘이 들어.)

103006 @ 어려와.(어려워.)

103006 #1 힘이 들어. 힘이 들고.(힘이 들어. 힘이 들고.)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솔보리는 힘이 들고 솔보리는 이제 껍데기가 얄루니까 이제 정미헹 돌방에서[40] 둥글이는데 아주.(쌀보리는 힘이 들고 쌀보리는 이제 껍데기가 얇으니까 정미해서 '돌방아' 굴리는데 아주.)

103006 @ 쉽게.(쉽게.)

103006 #1 좀 쉽게 뒈니까 게곡 쏠이 더 많고.(좀 쉽게 되니까 그리고 쌀이 더 많고.)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겐디 잘 헤노면은 맥주보리밥이 더 맛이 좋아.(그런데 잘 해놓으면 맥주보리 밥이 맛이 더 좋아.)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풀이 좋고.(풀이 좋고.)

103006 @ 맥주보리는 맥주 만드는 보린 줄 알아신디 맥주보리 밥을 헤 먹엇구나예?(맥주보리는 맥주 만드는 보린 줄 알았는데 맥주보리 밥을 해 먹었군요?)

103006 #1 예.(예.)

103006 @ 풀이 좋고예?(풀이 좋고요?)

103006 #1 게서 헤 놓으민 쏠은 ᄀᆞ레에 놔서 반 벌러.(그래서 해 놓으면 쌀은 맷돌에 놔서 반 깨어.)

103006 @ 아. ᄀᆞ레에 놔서 반 벌러.(아. 맷돌에 놔서 반 쪼개.)

103006 #1 ᄀᆞ레에 놔서 반 벌러.(맷돌에 놔서 반 쪼개.)

103006 @ 그민 밥이 양이 만읍니까?(그러면 밥이 양이 많습니까?)

103006 #1 쏠이 빨리 익으니까.(쌀이 빨리 익으니까.)

103006 @ 빨리 익으니까. 밥헹 먹기에, 양도 많고예?(빨리 익으니까. 밥해서 먹기에, 양도 많고요?)

103006 #1 결혼헐 때는 어떻게 허는고 다시 그 방애에 가서 또 헤여. 그렇게 헤서 결혼할 때는 그 밥을 통보리밥이라고 헤여.(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는고 다시 그 방아에 가서 또 해. 그렇게 해서 결혼할 때는 그 밥을 통보리 이라고 해.)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통보리밥을 허민 뭉글뭉글헤[41] 가지고 팥 좀 놓고 허면은 결혼헐 때

40) '돌방에'는 돌절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연자매의 의미로 쓰였다.

주는 그 통보리밥이 어떻게 맛이 좋은지.(통보리밥이라 하면 '뭉글뭉글'해 가지고 팥 좀 놓고 하면 결혼할 때 주는 그 통보리밥이 어떻게 맛이 좋은지.)

103006 @ 아아.(아아.)

103006 #1 예. 어떤 사람이던지 그 통보리밥을 좋아헷지예.(예. 어떤 사람이든지 그 통보리 밥을 좋아했지요.)

103006 @ 아아, 겐디 집에서는 통보리밥을 오레 걸리니까.(아아, 그런데 집에서는 통보리밥을 오래 걸리니까.)

103006 #1 통보리밥은 그 잔치 때.(통보리밥은 그 잔치 때.)

103006 @ 잔치 때, 맛 좋으민 집이서도 헹 먹으민 좋은디 시간도 많이 걸리고?(잔치 때, 맛 좋으면 집에서도 해서 먹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3006 #1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위가 약헌 사람은 소화가 쪼금 힘들어. 쌀이 크니까.(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위가 약한 사람은 소화가 조금 힘들어. 쌀이 크니까.)

103007 @ 예. 그믄 이제는 보리밭 밟기, 이제 겨울에 이렇게 ᄑᆞ릇ᄑᆞ릇허민 붋잖아예?(예. 그러면 이제는 보리밭 밟기, 이제 겨울에 이렇게 파릇파릇하면 밟잖아요?)

103007 #1 예. 그것은 왜 붋냐면 겨울에는 요지금은 이 땅이 흔어시 얼지 안 허는데 이 기후가 변화뒈다 보니까 땅이 그냥 얼려. 얼리민 앙상이 흙이 들러져예. 소금 싸가지고 들러지면은 그레서 그거를 밟아주는 것이지. 뚠 게 아니라. 겨울에 그 우에 잇는 땅이 바짝 얼려서 이렇게 들러지는데 얼려난 땅을 붋아주는 것이지. 얼리지만 안으민 붋을 필요가 엇주기. 게난 요지금은 그렇게 땅이 얼려서 그냥 착 허질 안허니까 봄이 나가지고 보리 불르는 법이 없어. 게 모든 농사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ᄒᆞ는 거.(예. 그것은 왜 밟느냐면 겨울에는 요즘은 이 땅이 한없이 얼지 않는데 이 기후가 변화되다 보니까 땅이 그냥 얼어. 얼리면 앙상하게 흙이 들떠요. 소금 싸가지고 들뜨면 그래서 그걸 밟아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 겨울에 그 위에 있는 땅이 바짝 얼려서 이렇게 들리는데 얼렸던 땅을 밟아주는 것이지. 얼리지만 않으면 밟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요지금은 그렇게 땅이 얼려서 그냥 착 하질 않으니까 봄이 되가지고 보리 밟는 법이 없어. 게 모든 농사가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

103007 #5 이딘 보리 불리지는 안허여예. 옛날부터도 이디는 땅이 뒈니까 보리 불리는 거 엇고, 뜬밧[42]디 간 사람은 보리 하나하나 다 ᄌᆞ근ᄌᆞ근, ᄌᆞ근ᄌᆞ근 그 댕기멍 불리주만은 저 이 헉밧, 뒌밧은 안 불려도 어떵 안허여.(여긴 보리 밟지는 않아요. 옛날부터도 여기는 땅이 되니까 보리 밟는 거 없고, '뜬밧'에 간 사람은 보리 하나하나 다 자근자근, 자근자근 그 다니면서 밟지만 저 이 흙밭, '뒌밧'은 안 밟아도 어떻지 않아.)

---

41) '뭉글뭉글ᄒᆞ다'는 '뭉갈뭉갈ᄒᆞ다'. 살쪄서 통통한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다는 뜻이다.
42) '뜬밧'은 흙이 푸석푸석한 밭을 말한다.

103008 #1 보리 볼리지는 안, 헉밧 뭰 디는 안 볼려도.(보리 밟지는 안, 흙밭 된 데는 안 밟아도.)

103008 @ 검질매는 거 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김매는 거 보리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1 그거는 그 농사짓는 사람마다 틀려.(그거는 그 농사짓는 사람마다 달라.)

103008 @ 음.(음.)

103008 #1 부자 허는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고 허니깐이 그 경 ᄀᆞ라. 다 ᄃᆞ려, 다 ᄃᆞ려.(부자 하는 사람은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니까 그 그렇게 말해. 다 달라, 다 달라.)

103008 @ 다.(다.)

103008 #1 메는 둥 마는 둥 헤가지고 빨리 이 밧 전체를 일시에 빨리 헤 불라 이거여.(매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빨리 이 밭 전체를 일시에 빨리 해 버려라 이거야.)

103008 @ 아.(아.)

103008 #1 빨리 헤불어야 이제 잘 똑같이 자라라.(빨리 해버려야 이제 잘 똑같이 자라라.)

103008 @ 아.(아.)

103008 #1 겐디 야속헤서 허는 사람은 이디는 하나 엇이 메가다가 보면은.(그런데 야속해서 하는 사람은 여기는 하나 없이 매가다가 보면.)

103008 @ ᄏᆞᆯ리, 하하.(깨끗이, 하하.)

103008 #1 여기에는 검질안티 쩰여 가지고 잰잰허니까 ᄀᆞ르지를 못헤여. 아이고 거 야속도 저 ᄀᆞᆸᄀᆞᆸ허게시리 헴저. 이 휘휘 두르는 사람은 너미 야속헌 사람이옌 나무레여. 겐디 사람 성질에 따라서 그 보고는 내불지 못 헤영 허당 보면은 여기 ᄆᆞ녀 멘 디는 곡석이 아주 잘 자라는데, 나중에 메는 디는 곡석이 뭐 죽지 안은 뿐 허영 그 일 허는 방법이 ᄆᆞ녀 저만씩, 자기 주장만씩.(여기에는 김한테 져가지고 자잘하니까 고르지를 못해. 아이고 거 야속도 저 갑갑하게 하고 있어. 이 휘휘 두르는 사람은 너무 야속한 사람이라고 나무래. 그런데 사람 성질에 따라서 그 보고는 내버리지 못 해서 하다가 보면 여기 먼저 맨 데는 곡식이 아주 잘 자라는데, 나중에 매는 데는 곡식이 뭐 죽지 않을 뿐 해서 그 일 하는 방법이 먼저 저만큼씩, 자기주장만큼씩.)

103008 #5 혼번 메믄 될 거고 보리 검질은.(한번 매면 될 거고 보리 김은.)

103008 @ 보리 김매기는 혼 번, 세불검질은 안 메도 되어예?(보리 김매기는 한 번, 세벌김은 안 매도 돼요?)

103008 #5 예. 즉헌 보리나 싀불 멧수다.(예. 아까운 보리나 세벌 맸습니다.)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보리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09 #5 진풀이고 사시레기고 저실 검질은 그거라.(별꽃이고 '사시레기'고 겨울 김은 그거야.)

103010 @ 보리는 베기, 묶기, 가리, 베어서 무끄는 거는 뭇이 커마씨? 그냥 그렇게 안을 수 있을 만큼?(보리는 베기, 묶기, 가리, 베어서 묶는 거는 뭇이 커요? 그냥 그렇게 안을 수 있을 만큼?)

103010 #1 그 보리를 무끄는 것은 무엇으로 무끄느냐 허믄 그 보리로 무꺼.(그 보리를 묶는 것은 무엇으로 묶느냐 하면 그 보리로 묶어.)

103010 @ 아아.(아아.)

103010 #1 맥주 보리, 맥주맥 ᄀᆞ치 보릿대가 진 놈은.(맥주 보리, 맥주맥 같이 보릿대가 긴 놈은.)

103010 @ 아아.(아아.)

103010 #1 좀 크게 무꺼도 뒈는디, 쌀보리는 그렇게 키가 크질 못허여.(좀 크게 묶어도 되는데, 쌀보리는 그렇게 키가 크지를 못해.)

103010 @ 예에.(예에.)

103010 #1 그러면은 그 그걸로 좀 긴 놈으로 헤서 무끄도록 그렇지 안허면은 벳짚을 사다가, 벳짚을 사다가 또 무끄기도 허고.(그러면 그 그걸로 좀 긴 놈으로 해서 묶도록 그렇지 않으면 볏짚을 사다가, 볏짚을 사다가 또 묶기도 하고.)

103010 @ 겐 무끈 거를 집으로 날라 와예. 구루마 빌령?(그래서 묶은 거를 집으로 날라 와요. 수레 빌려서?)

103010 #1 게면은 그거는 집이 오랑 눌어도 쌀보리는 뭇이 크면 눌지를 못허여.(그러면 그거는 집에 와서 가려도 쌀보리는 뭇이 크면 가리지를 못해.)

103010 @ 아아.(아아.)

103010 #1 이 ᄋᆞ물이 커 노니까 자쳐지거든.(이 여물이 커 놓으니까 젖혀지거든.)

103010 @ 음.(음.)

103010 #1 바깟더레.(바깥으로.)

103010 @ 아아.(아아.)

103010 #1 맥주보리는 등치는 솔지고 끗이 ᄀᆞ느니까 마음대로 눌어지는디 쏠보리는 누는데 많이를 못 눌어.(맥주보리는 등치는 살찌고 끝이 가느니까 마음대로 가려지는데 쌀보리는 가리는데 많이를 못 가려.)

103010 @ 고고리가 이신 체 눌어마씨?(이삭이 있는 채 가리어요?)

103010 #1 예.(예.)

103010 @ 아, 그냥 클로 와근에 영 헤근에 뭐허지 안허고?(아, 그냥 그네로 와서 이렇게 해서 뭐하지 않고?)

103010 #1 아, 이렇게 데며지면은 널리 ᄎᆞ지허니까.(아, 이렇게 쟁여지면 널리 차지하니까.)

103010 @ 아아.(아아.)

103010 #1 동긋허게 요렇게 눌어서 돌아가멍 속속 빠면서 헤야지. 이걸 쌓아야지 빠가지고 이걸 눌지 안허민은 마당 즉앙 뒈어게?(동긋하게 요렇게 가리어서 돌아가면서 속속 빼면서 해야지. 이걸 쌓아야지 빼가지고 이걸 가리지 않으면 마당 작아서 돼?)

103010 @ 아아, 하나씩 빠멍 클에다가 클, 틀에다가 이렇게 고고리허곡.(아아, 하나씩 빼면서 그네에다가 그네, 그네에다가 이렇게 이삭하고.)

103010 #1 이건 홀트는 거.(이건 홅는 거.)

103010 @ 홀트는 거예? 홀트는 것도 헤봣구나예?(홅는 거요? 홅는 것도 해봤군요?)

103010 #1 아이구, 난 다리 아파 못허니까 난 놉 빌엉만 홀타.(아이구, 난 다리 아파 못하니까 난 일꾼 빌어서만 홅었어.)

103010 @ 다리 아판.(다리 아파서.)

103010 #1 아이고, 어떤 사람은 ᄒᆞ루 종일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허는데, 난 그걸 못헤.(아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난 그걸 못해.)

103010 @ 응. 다리 아팡은에. 사고나난 다음예. 사고나난 다음?(응. 다리 아파서. 사고 났던 다음이요. 사고 났던 다음?)

103010 #1 아니, 사고 당하기 전에도. 보리 경 헐 때는 사고 당하기 전에거든.(아니, 사고 당하기 전에도. 보리 그렇게 할 때는 사고 당하기 전이거든.)

103010 @ 힘이 좋아야주. 허리영.(힘이 좋아야지. 허리랑.)

103010 #1 겐디 나이 만헌 분이 이 동네 저지서 온 사람이 잘 허는 분이 잇엇는디 나 그 사람 빌어가지고 예향 홀탓주. 난 못헤여. 다리가 뭐 뻣뻣헤 버리는데.(그런데 나이 많은 분이 이 동네 저지서 온 사람이 잘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빌어가지고 늘 홅었지. 난 못해. 다리가 뻣뻣해 버리는데.)

103010 @ 음.(음.)

103010 #5 수확게. 비는 건 하나하나 호미로 다 베어서. 하나하나 호미로 다 비어근에 미끈 ᄀᆞᆯ앙 저 우리 즉은 아덜ᄀᆞ라 ᄒᆞᆫ 일곱 술 된 때라. ᄒᆞᆫ 고지 비영 허데기지 말라. 무사 허데겸시니게. 즉아부니까 어린 생각에도 너무 그거헌 셍이라. 허데견 경 허멍 헤나서 아이고 우리 츰, 사는 게 감저 갈앙 줍고, 감재 절간해영 그거 다 뿌리고.(수확. 베는 건 하나하나 호미로 다 베어서. 하나하나 호미로 다 베어서 미끈 갈아서 저 우리 작은 아들보고 한 일곱 살 된 때야. 한 고지 베어서 허적이지 말라. 왜 허적이고 있니. 작으니까 어린 생각에도 너무 그거한 모양이야. 허적여서 그렇게 하면서 해서 아이고, 우리 참, 사는 게 고구마 갈아서 줍고, 고구마 절간해서 그거 다 뿌리고.)

103010 #4 일본시대엔 다 공출헷저.(일본시대엔 다 공출했지.)

103010 @ 보리 무끄는 거는?(보리 묶는 거는?)

103010 #5 무끄는 거는 하나하나 새도 허영 깨허영 무끄고 그냥 보리도 확 오

그렁은에 허영 무끄고 경 헤연. 옛날엔.(묶는 거는 하나하나 띠도 해서 깨하고 묶고 그냥 보리도 확 오그려서 해서 묶고 그렇게 했어. 옛날엔.)

103010 #6 보린, 진 보린 보리로 무꺼져도 쫄른 보린 보리로 못 무껏수다. 새 허영 영, 영 틀렁 무껏주.(보린, 긴 보린 보리로 묶어져도 짧은 보린 보리로 못 묶었습니다. 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묶었지.)

103010 #4 이젠 비료 주니까 보리가 미끈허주만은 그땐 비료 없으니까 하올하올하고 하나하나.(이젠 비료 주니까 보리가 미끈하지만 그땐 비료 없으니까 하올하올하고 하나하나.)

103010 #5 츰, 멘적은 너르게 갈아도 얼매 되지 안헹 게난 첨, 입에 풀칠허기가 부지런헷수다.(참, 면적은 넓게 갈아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참, 입에 풀칠하기가 부지런했습니다.)

103010 #4 게난 지둥 트멍에 젭쪄낫어.(그러니까 기둥 틈에 끼었었어.)

103010 #5 개윗 트멍에 좁진 보리로 살암저. 어떵헴저. 얼마나 힘들게 살아시카 부덴.(툇기둥 틈에 낀 보리로 살았다. 어떻게 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봐.)

103010 @ 지둥 트멍에.(기둥 틈에)

103010 #5 지둥 요디 영헌 개윗트멍에 세운 보리가 얼마나 하게.(기둥 여기 이런 툇기둥에 세운 보리가 얼마나 많게.)

103010 @ 개윗은 뭐꽈?(툇기둥은 뭡니까?)

103010 #6 무뚱에 지둥, 그 지둥 트멍에 보리를 데명.(문 앞에 기둥, 그 기둥 틈에 보리를 쟁여.)

103010 #5 이제는 저 지둥 세우듯, 저 지둥 세우듯 요 첨, 무싱 거 이 에어콘ᄁᆞ진 안 헷주기. 그 트멍에 세왕 얼마나 하게.(이제는 저 기둥 세우듯, 저 기둥 세우듯 요 참, 무슨 거 이 에어컨까진 안 했지. 그 틈에 세워서 얼마나 많이.)

103010 #6 저 짚 뒤에 얼마나 너릅네까? 그 트멍에 젭젼 우리 먹엉 살안?(저 짚 뒤에 얼마나 넓습니까? 그 틈에 끼어서 우리 먹어서 살았어?)

103010 #5 그냥 데명 낭 차 데명.(그냥 쟁여서 나무 채 쟁여서.)

103011 @ 홀트민 도깨질을 헙니까?(홅으면 타작을 합니까?)

103011 #1 예.(예.)

103011 @ 그 다음은 보리가 털어져마씨? 보리타작은 어떻게 합니까?(그 다음은 보리가 떨어져요? 보리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103011 #1 경허민 영 마당에 널언 막 ᄆᆞᆯ라. ᄆᆞᆯ라사 바삭바삭 부서지주. 추근짐허민 ᄀᆞ시락이옌 헌게 안떨어져.(그러면 이렇게 마당에 널어서 막 말려. 말려야 바삭바삭 부서져. '추근짐허민' 이삭이라고 한 게 안 떨어져.)

103011 @ 예. 바삭바삭.(예. 바삭바삭.)

103011 #1 아이고 게니까 그 유월절 전이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이 헤야지. 유월절이 넘으민 더워서.(아이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전에 유월절, 소서 유월절 전에 해야지. 유월절이 넘으면 더워서.)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모가지가 그냥 막 헤싸질 정도로.(모가지가 그냥 막 흐트러질 정도로.)

103011 @ 음.(음.)

103011 #1 까락까락. 게난 처음에 헐 때는 도깨로 두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기계가 나니까 홀타노면은 그거 기계 ᄀᆞ정 강 신광기 걸어가지고 영 저 글겡이로 올려노으면은, 기계로 두드리니까, 그게 더 펜안허다고 허다가 그게 허젠 이젠 지나니까 바인다로 비어가지고 이제 요만씩 바인다로 비면 무꺼지면은 그걸로 헤서 뚜로 탈곡기로 헤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때가 이젠 지나니까 이제는 바로 비면서 두드리는 시상이 나노니 이 보리 장만허는 것도 ᄋᆞ라 번 변허주게.(‘까락까락’.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리다가 그 다음엔 기계가 나니까 홅으면 그거 기계 가져 가서 신광기 걸어가지고 이렇게 저 갈퀴로 올려 놓으면, 기계로 두드리니까, 그게 더 편안하다고 하다가 그게 하려고 이젠 지나니까 ‘바인다’로 베어가지고 이제 요만큼씩 ‘바인다’로 베면 묶어지면 그걸로 해서 따로 탈곡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때가 이젠 지나니까 이제는 바로 베면서 두드리는 세상에 나니까 이 보리 장만하는 것도 여러 번 변하지.)

103011 @ 음. 겐 도깨질도 헤봣수과? 무사 도깨아덜이옌 헷수과? 이거는.(음. 그럼 도리깨질도 해봤습니까? 왜 도리깻열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103011 #1 도깨아덜, 그 나무헤서 영 오그린 건 도깨톨레.(도리깻열, 그 나무해서 이렇게 오그린 건 도리깨꼭지.)

103011 @ 톨레.(꼭지.)

103011 #1 도깨어시, 도깨톨레, 도깨아덜.(도리깻장부, 도리깨꼭지, 도리깻열.)

103011 @ 아이구.(아이구.)

103011 #1 게난 요지금 사람덜은 거 멜 줄도 몰라.(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거 맬 줄도 몰라.)

103011 @ 예. 거 만들어져마씨?(예. 거 만들어져요?)

103011 #1 우리세대에도 우리동네에 멜 줄 아는 사람이 흔 서너 늬 사람정도 베낀 읏어.(우리 세대에도 우리 동네에 맬 줄 아는 사람이 한 세 네 사람 밖에 없어.)

103011 @ 아아.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이런 거 멧 개 만들어주민 그걸 삼수다게. 멧 개. 조그마하게게. 공연용으로.(아아.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이런 거 몇 개 만들어 주면 그걸 사고 있습니다. 몇 개. 조그맣게. 공연용으로.)

103011 #1 게난 그게 그.(그러니까 그게 그.)

103011 @ 무사 도깨아덜이옌 헤신고예?(왜 도리깻열이라고 했는가요?)

103011 #1 게메. 거 어떵사한디 옛날어른이 뭐 도깨아덜, 아덜이 말허자면 맞주게. 이거허는 건 어시, 어시, 말하자면 부모.(글쎄. 거 어떻게 했는지 옛날어른이 뭐 도리깻열, 아들이 말하자면 맞지. 이거 거하는 건 도리깨장부, 도리깨장부, 말하자면

부모.)

103011 @ 부모, 어시?(부모, 장부?)

103011 #1 부모ᄀᆞ라 어시옌 허지 안허여게. 왜 사람도(부모보고 장부라고 하지 안하냐? 왜 사람도?)

103011 @ 아, 기꽈? 부모가 어시렌 헙니까?(아, 그렇습니까? 부모가 장부라고 합니까?)

103011 #1 예. 부모가 우리말로 따주면은 부모가 어시라.(예. 부모가 우리말로 따주면 부모가 장부라.)

103011 @ 아아. 어시.(아아. '어시'.)

103011 #1 어신디 어시에 부모에 아덜이니까 그것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아덜이라고 허는 게 아닌가? 그게 조그만ᄒᆞ게 이렇게 오그려가지고 허는 게 그게 그.(장부인데 장부에 부모에 아들이니까 그것에 따른 거니까 그것에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조그맣게 이렇게 오그려가지고 하는 게 그게 그.)

103011 @ 윤누리 낭?(윤노리 나무?)

103011 #1 ᄌᆞ룩은 소낭 종낭 같은 거 게볍고 그자 미러운 걸로 허곡, 도깨어시광 도깨아덜은 저 윤누리.(자루는 소나무 때죽나무 같은 거 가볍고 그저 미끈한 걸로 하고, 도리깨장부랑 도리깻열은 저 윤노리.)

103011 @ 도깨어시하고 도깨아덜은예.(도리깨장부하고 도리깻열은요.)

103011 #1 윤누리가 그게 나무가 흘씬흘씬허면서도 ᄋᆞ물친 낭이라.(윤노리가 그게 나무가 '흘씬흘씬'하면서도 여문 나무야.)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예. 어데 탁 부쳐도 ᄇᆞ짝 ᄆᆞᆯ라도 허여도 탁 거꺼지는 성질이 없어가지고.(예. 어디 탁 부쳐도 바짝 말라도 해도 탁 꺾어지는 성질이 없어가지고.)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흘씬흘씬허니까 그게 그런 걸로 허주, 다른 낭 미려운 낭으로 그걸 만들면은 기운 줭 탁 허면은 끗뎅이로 벌러라도지주게. 겐디 연필 까끄듯이 끗뎅이를 요렇게 까끄면은 글로 경 좀체로 벌러지는 것이 엇이니까.('흘씬흘씬'하니까 그게 그런 걸로 하지, 다른 나무 매끄러운 나무로 그걸 만들면 기운 줘서 탁 하면 끄트머리로 깨지지. 그런데 연필 깎듯이 끄트머리를 요렇게 깎으면 거기로 그렇게 좀처럼 깨지는 것이 없으니까.)

103011 @ 그믄 옛날에 누가 만들엉 이걸 헷수과? 그냥 동네사람 중에?(그러면 옛날에 누가 만들어서 이걸 했습니까? 그냥 동네사람 중에?)

103011 #1 예?(예?)

103011 @ 삼촌도 만들고 이거?(삼춘도 만들고 이거?)

103011 #1 아니, 나도 멘들 줄 잘 알주게.(아니, 나도 만들 줄 잘 알지.)

103011 @ 아아, 겐 윤누리 낭으로예. 윤누리 낭은? 집에 이런 거 잇수과? 쟁기여 뭐?(아아, 그래서 윤노리 나무로요? 윤노리 나무는? 집에 이런 거 있습니까? 쟁

기여 뭐?)

103011 #1 아니, 그전에는 야숙헌 사람은 윤누리 풀이 바꼇디 가가지고 나강 우영 너른 사람은 잇당 싱그는 수도 잇엇는데.(아니,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윤노리 풀이 밖에 가가지고 나가서 텃밭 넓은 사람은 있다가 심는 수도 있었는데.)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이제는 그게 엇어지고 뭐허고 이제 개간허고 뭐허고, 목장도 지금 막 자왈로 더꺼지고 헤노니까 윤누리 낭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뭐하고 이제 개간하고 뭐하고, 목장도 지금 막 '자왈'로 덮어지고 해버리니까 윤노리 나무 지금은 보기가 힘들어.)

103011 @ 음.(음.)

103011 #5 옛날은 도깨로 두드렸어. 도깨로 뒈나마나 두드렷어.(옛날은 도리깨로 두드렸어. 도리깨로 되나마나 두드렸어.)

103011 #4 아, 낭 채, 낭 채.(아, 나무 채로, 나무 채로.)

103011 #5 예. 도깨로 두드령은에 뒈삭 가르쳑 뒈쌍 허멍 뒈쌍 허고, 작대기로 뒈삿닥 가르쳣닥 허멍.(예. 도리깨로 두드려서 뒤집든 가르쳤든 뒤집으면서 하면서 뒤집어서 하고, 작대기로 뒤집었다가 가르쳤다가 하면서.)

103011 #6 넹중에는 홀트기로 홀탄.(나중에는 홅기로 홅아서)

103011 #4 아니, 오래지 않햇수다게.(아니, 오래지 않았습니다.)

103011 #5 클 나게 되난 오래지 안해신디 클도 동그락헌 거 나오고 말젠 판장쌀 영 나오란 그것도양, 놔두난 문딱 가져 간 게. 그것도 고물로 ᄀᆞ져간 셍이라.(그네 나게 되니까 오래지 않았는데 그네도 둥그런 거 나오고 나중엔 판장쌀 이렇게 나온 그것도요, 놔두니까 모두 가져 간 게. 그것도 고물로 가져간 모양이야.)

103012 @ 경헤난 다음 도깨질하민 멕에다 담고 고팡에 놓고 연자매, 맷돌, 여자덜이 ᄀᆞ레는 골앗지예?(그렇게 하니까 다음 도리깨질하면 멱서리에다 담고 고방에 놓고 연자매, 맷돌, 여자들이 맷돌은 갈았지요?)

103012 #1 예.(예.)

103012 @ 연자매, 물방에는 여자덜이 식구덜이 강은에 청수에는 물방에가 멧 개 잇엇수과?(연자매, '물방에'는 여자들이 식구들이 가서 청수에는 연자매가 몇 개 있었습니까?)

103012 #1 물방에?(연자매?)

103012 @ 줄 서멍?(줄 서면서?)

103012 #1 주로 반당 ᄒᆞ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게난 요 동네에선 요 동네에서 ᄒᆞ나 만들고 요 동네에선 요 동네에서 ᄒᆞ나 만들고, 요 동네에서 허고.(주로 반당 하나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 동네에선 요 동네에서 하나 만들고 요 동네에선 요 동네에서 하나 만들고, 요 동네에서 하고.)

103012 @ 멧 개가 잇어시코예? 무슨 동 무슨 동 청수리에?(몇 개가 있었을까요? 무슨 동, 무슨 동 청수리에?)

103012 #1 아, 여기도.(아, 여기도.)

103012 @ 지금은 다 엇어졋지예?(지금은 다 없어졌지요?)

103012 #1 예. 주로 그 동네 고분데기 이런 데 헤가지고 집도 짓고 헤서 이렇게 헷는데 질 확장허면서 헤 들어버리고 그거를 이용을 안 헤서 기계화가 뒈다가 보니 없어져 버리니, 이놈의 돌을 어느새에도 남모르게 또 확 가져가 부는 수도 잇고, 주위에서 또 어디 풀아부는 수도 있고, 이용이 안 뒈니까 게니까 그 위치가 다 없어져 불엇어.(예. 주로 그 동네 '고분데기' 이런 데 해가지고 집도 짓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길 확장하면서 휘 들어버리고 그것을 이용을 안 해서 기계화가 되다가 보니 없어져 버리니, 이놈의 돌을 어느새에도 남모르게 또 확 가져가 버리는 수도 있고 주위에서 또 어디 팔아버리는 수도 있고, 이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가 다 없어져 버렸어.)

103012 @ 참 쯧쯧. 겐 ᄆᆞᆯ방에가 어머니영 강은에 소가 이끕니까? ᄆᆞᆯ이 헙니까?(참 쯧쯧. 그래서 연자매가 어머니랑 가서 소가 이끕니까? 말이 합니까?)

103012 #1 보통은 소가 허는디, ᄆᆞᆯ을 가져 있는 사람은 ᄆᆞᆯ로 허고 ᄆᆞᆯ이 더 빠르니까.(보통은 소가 하는데, 말을 가져 있는 사람은 말로 하고 말이 더 빠르니까.)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예. ᄆᆞᆯ이 더, ᄆᆞᆯ이 없는 사람은 집이 밧갈쉐로 헤가지고.(예. 말이 더, 말이 없는 사람은 집에 황소로 해가지고.)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그 사람 손에서 훈련뒈서 헌 거니까.(그 사람 손에서 훈련되서 한 거니까.)

103012 @ 아.(아.)

103012 #1 그 쉐로 허고.(그 소로 하고.)

103012 @ 쉐로 허고. 다음 ᄀᆞ레는 안 갈아보고예? 어머니 멧 시간 갈읍니까? 그거 하루 종일.(소로 하고. 다음 맷돌은 안 갈아보고요? 어머니 몇 시간 갑니까? 그거 하루 종일.)

103012 #1 ᄀᆞ레 ᄀᆞ는 거?(맷돌 가는 거?)

103012 @ 예.(예.)

103012 #1 아이고, 하루 종일 어떵허여? 그거 뭐 흔,(아이고, 하루 종일 어떡해? 그거 뭐 한.)

103012 @ 먹을 만큼씩.(먹을 만큼씩.)

103012 #1 두서너 말, 서너 말 정도 헤가지고 어, 이제 그 ᄀᆞᆯ아서 대체로 치거든.(두서너 말 서너 말 정도 해가지고 어, 이제 거 갈아서 대체로 치거든.)

103012 @ 대체로예?(대체로요?)

103012 #1 대체로 쳐. 게서 ᄒᆞ쏠 거기서 홁은 거는 아주 홁은 거는 또 두불 치고, 두불 갈고.(대체로 쳐. 그래서 조금 거기서 굵은 거는 아주 굵은 거는 또 두벌 치고 두벌 갈고.)

103012 @ 예.(예.)

103012 #1 두불 골고, 그렇게 헤서 어느 정도 이제 반 벌러진 다음에는.(두벌 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 깨진 다음에는.)

103012 @ 반 벌러진 다음.(반 깨진 다음.)

103012 #1 홁은 쏠은 홁은 쏠데로.(굵은 쌀은 굵은 쌀대로.)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중간에 쏠은 중간 쏠데로, 또 거기에서 ᄀᆞ루 나온 거는 ᄀᆞ루데로.(중간에 쌀은 중간 쌀대로, 또 거기에서 가루 나온 거는 가루대로.)

103012 @ ᄀᆞ루데로.(가루대로.)

103012 #1 가루 그 ᄀᆞ루 뭰 거는 건 또 ᄌᆞ베기 헹 먹고.(그 가루 된 거는 건 또 수제비 해서 먹고.)

103012 @ ᄌᆞ베기.(수제비.)

103012 #1 제주도말로 ᄌᆞ베기.(제주도말로 수제비.)

103012 @ 쯧쯧쯧쯧.(쯧쯧쯧쯧.)

103012 #1 육지 사람은 ᄌᆞ베기옌 안 허여 허허.(육지 사람은 수제비라고 안 해 하하.)

103012 @ 예. 수제비, 수제비.(예. 수제비, 수제비.)

103012 #1 수제비라고 ᄀᆞᆫ던가.(수제비라고 말해.)

103012 @ 조베기 헹 먹고, 아우 세상에.(수제비 해서 먹고, 아우 세상에.)

103012 #5 보리쏠은.(보리쌀은.)

103012 #6 연자방에에 졍.(연자방아에 찧어서.)

103012 #5 방애, 뱅뱅 도는 방애에 쉐 메왕 물 놩, 물 놓고.(방아, 뱅뱅 도는 방아에 소 매서 물 놔서, 물 놓고.)

103012 #4 에이구, 저 옛날엔 남방에 졍 먹었쪄.(에이구, 저 옛날엔 남방아 찧어서 먹었어.)

103012 #5 남방에도 졍 먹었주만은 게도 ᄒᆞ쏠 경 헤가난 방에에 졍, 잘 사는 사람은 부제 사람은 두불 지고, 겡 안 헌 사람은 초불 졍 꺼글꺼글헌 보리 그냥 ᄀᆞ레에, 맷돌에 ᄀᆞᆯ앙.('남방아'도 찧어서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해가니까 방아에서 찧어서, 잘 사는 사람은 부자 사람은 두벌 지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초벌 찧어서 까끌까끌한 보리 그냥 맷돌에, 맷돌에 갈아서.)

103012 #4 맷돌에.(맷돌에.)

103012 #5 ᄀᆞᆯ앙은에 이제 체로 헹 대체로 쳥 그 아랫 건 이제 먹는 걸로 허고, 우에 건 다시 ᄀᆞᆯ고, 불리가 이만씩 ᄃᆞᆫ는 거 ᄃᆞᆫ는 거 ᄀᆞ시락 닮은 뿌리 ᄃᆞᆫ는 거 허영 먹고, 경 허멍 살앗어. 옛날은.(갈아서 이제 체로 해서 대체로 쳐서 그 아래 건 이제 먹는 걸로 하고, 위에 건 다시 갈고, 뿌리가 이만큼씩 달리는 거 달리는 거 까끄라기 닮은 뿌리 달리는 거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옛날은.)

103012 @ 게난 쉐 매영 막 연자방에 돌리는 건 조지예?(그러니까 소 매여서 막

연자매 돌리는 거는 조지요?)

103012 #5 조도 허고 보리도 젼. 옛날엔 보리도 젼.(조도 하고 보리도 찧었어. 옛날엔 보리도 찧었어.)

103012 #6 보리도 집니다게.(보리도 찧습니다.)

103012 @ 거 차지허젠허민 막 청수리엔 멧 개가 잇어신고예? 연자방아, 물방아?(거 차지하려고 하면 막 청수리엔 몇 개가 있었을까요? 연자방아, 연자방아?)

103012 #5 ᄋᆞ라 개 션. 방애. 조코고리 둥글이젠 허민 미릇덜 문 져당 놔둰 좀팍[43]에 헤당 문 방에에 엎으민 ᄎᆞ례로 둥글일거난 경허멍 ᄃᆞ투멍덜 헨, 옛날 헨 살아완.(여러 개 있었어. 방아. 조 이삭 굴릴려고 하면 미리들 모두 져다가 놔뒀어 '좀팍'에 해다가 모두 방아에 엎으면 차례로 굴릴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투면서들 했어. 옛날 해서 살아왔어.)

103012 #6 조코고리도 둥그리곡게. ᄎᆞ지허지 못헹.(조이삭도 찧고요. 차지하지 못해서.)

103013 @ 겐 밥헹 먹고 밥도 헤봣수과? 보리밥?(그래서 밥해서 먹고 밥도 했었습니까? 보리밥?)

103013 #1 나 아이그, 난 허여준 밥 얻어먹엇주게. 게난 그때는 보리만 허지 안허고 조는 필수로 헷주게.(나 아이그, 난 해준 밥 얻어 먹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보리만 하지 않고 조는 필수로 했지.)

103013 @예.(예.)

103013 #1 좁쏠을 서끄면은 어떤 사람은 그 좁쏠만 봉그멍 먹젠 헤여.(좁쌀을 섞으면 어떤 사람은 그 좁쌀만 주우면서 먹으려고 해.)

103013 @ 어. 좋아허는, 조밥도 맛 좋은.(어. 좋아하는, 조밥도 맛 좋은.)

103013 #1 좁쏠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풀풀허고.(좁쌀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풀풀하고.)

103013 @ 예. 풀풀허고.(예. 풀풀하고.)

103013 #1 술 먹는 사람은 그걸 헤 가지고 막걸리 헹 먹거든.(술 먹는 사람은 그걸 해 가지고 막걸리 해서 먹거든.)

103013 @ 예. 조로예.(예. 조로요.)

103013 #1 잔치 때도 헤서.(잔치 때도 해서.)

103013 @ 예.(예.)

103013 #1 그거 오메기, 조 헹. 그거 오메기, 조 헹.(그거 오메기, 조 해서. 그거 오메기, 조 해서.)

103013 @ 조는 나중에예. 조는 이제 조금 잇당 들어갈 거고.(조는 나중에요. 조는 이제 있다가 들어갈 거고.)

103013 #1 조 헤서(조 해서.)

---

43) '좀팍'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솔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103013 @ 조는 이제 나중에예. 그믄 보리 게믄 미숫가루 솟뚜껑에 엎엉 봐낫수과? 어머니 뭐?(조는 이제 나중에요. 그러면 보리 그러면 미숫가루 솥뚜껑에 엎어서 봤었습니까? 어머니 뭐?)

103013 #1 저 보깡.(저 볶아서.)

103013 @ 예. 개역.(예. 미숫가루.)

103013 #1 개역은 보리 보깡은에 집이서 옛날은 뭐 헤난 솟디서 이제 보깡, 이젠 소금 ᄒᆞ쏠 놓곡 헤근에 ᄀᆞ레에서 ᄀᆞᆯ주게.(미숫가루는 보리 볶아서 집에서 옛날은 뭐 해서 솥에서 이제 보까서, 이젠 소금 조금 놓고 헤서 맷돌에서 갈지.)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소금 ᄒᆞ쏠 놓는 사람은 놔. 경 헨 ᄀᆞ레에서 ᄀᆞᆯ앙은에 이젠 그놈을 또 즘진체로 쳐.(소금 조금 놓는 사람은 놔. 그렇게 해서 맷돌에서 갈아서 이젠 그놈을 또 가는체로 쳐.)

103013 @ 예.(예.)

103013 #1 즘진체로 이제는 쳐가지고 홁은 거는 또 ᄀᆞᆯ아.(가는체로 이제는 쳐가지고 굵은 거는 또 갈아.)

103013 @ 예.(예.)

103013 #1 홁은 거는 또 ᄀᆞᆯ앙 거기서 또 홁은 거는 이제 그릇에 놔둠서, 수꾸락헤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헹 허면은 솔강솔강 헤서 또 젊은 때엔 그게 또 사까린.(굵은 거는 또 갈아서 거기서 또 굵은 거는 이제 그릇에 놔두고서, 숟가락해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해서 하면 '살강살강' 해서 또 젊은 때엔 그게 또 '사까린'.)

103013 @ 사까린.('사까린.')

103013 #1 옛날은 사까린 ᄒᆞ쏠 놓고 헤연 저 ᄀᆞᆯ거든. ᄀᆞᆯ앙 허면은 이제 먹어도 ᄃᆞᆯ미롱허고. 그 개역에 이젠 또 사까린 놔가지고 그땐 설탕이 어려완.(옛날엔 '사까린' 조금 놓고 해서 저 갈거든. 갈아서 하면 이제 먹어도 달콤하고. 그 미숫가루에 이젠 또 '사까린' 놔가지고 그땐 설탕이 어려워서.)

103013 @ 예.(예.)

103013 #1 사까린 유행됀니까 놔근에 허면은 ᄃᆞᆯ코롬허영 물 놩 확 칸 먹는 사람도 싯고, 게난 우리 동네도 ᄆᆞ른 개역 닷 뒈 먹는 하르방이 셧젠허여. 하하.('사까린' 유행되니까 놔서 하면 달콤해서 물 놔서 확 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마른 미숫가루 닷 되 먹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 하하.)

103013 @ 하하, 하루에 아니면?(하하, 하루에 아니면?)

103013 #1 하하, 그게 ᄌᆞ근 분량이 아니주게. 데싱 두 뒈가 닷 뒈난에.(하하, 그게 작은 분량이 아니지. 데싱 두 되가 다섯 되니까.)

103013 @ 그 하르부지는 정말 개역을 좋아헷다예?(그 할아버지는 정말 미숫가루를 좋아했네요?)

103013 #1 식량이 좋앗주기게.(식량이 좋았지.)

103013 @ 체격이?(체격이?)

103013 #1 체격이 물론 좋아야 통이 크게 마련이란게.(체격이 물론 좋아야 통이 크게 마련이니까.)

103013 @ 그 하르부지는 뭘 잘 헨마씨? 농사도 잘 짓고? 몸이 좋앗나부다예.(그 할아버지는 뭘 잘 했어요? 농사도 잘 짓고? 몸이 좋았었나 봐요.)

103013 #1 우리 그 하르방을 엇뜻엇뜻 기억은 나는디 어린 때 돌아가 불엇어.(우리 그 할아버지는 언뜻언뜻 기억은 나는데 어린 때 돌아가 버렸어.)

103013 @ 얼마나 먹엇으면 닷 뒈 먹는 하르방이옌 헤시코예? 재미잇는 이야기다예? 하하하하.(얼마나 먹었으면 닷 되 먹는 할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하하하하.)

103013 #1 이제 닷 뒈 먹는 하르방 잇엇젠 허여.(이제 닷 되 먹는 할아버지 있었다고 해.)

103014 @ 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릿짚? 보리?(보릿겨, 보릿짚, 보리 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릿짚? 보리?)

103014 #1 보릿짚은 불도 솜고.(보릿짚은 불도 때고.)

103014 @ 불도 솜고(불도 때고.)

103014 #1 그 다음에는 쉐 걸름 내나면은 쉐막에다가 그 걸름내난데 밑에 깔아주고, 깔아주면은 다음 걸름을 낼 때에 이게 땅에다가 그 쉐똥이 부뜨질 안 헤가지고 살살 그 짐 돌아가지고 나오게 허곡.(그 다음에는 소 거름 꺼내면 외양간에다가 그 거름 꺼낸 밑에 깔아주고, 깔아놓으면 다음 거름을 낼 때에 이게 땅에다가 그 소똥이 붙질 않아 가지고 살살 그 짐 돌아가지고 나오게 하고.)

103014 @ 도세기통에도 놓고.(돼지우리에도 놓고.)

103014 # 예. 도세기통 화장실, 그.(예. 돼지우리 화장실, 그.)

103014 @ 굴묵도 짇고, 그믄 눌 눕니까?('굴묵'도 때고, 그러면 가리 가립니까?)

103014 #1 예. 무껑 눌어야주.(예. 묶어서 가리어야지.)

103014 @ 아아, 보리 무껑예?(아아, 보리 묶어요?)

103014 #1 무꺼서 돗집 우이 주로 눌 눌거든.(묶어서 돼지우리 위에 주로 가리 가리거든.)

103014 @ 예?(예?)

103014 #1 뒈지집 우이 눌굽[44]을 멘들아서 눌어.(돼지우리 위에 '눌굽'을 만들어서 가리어.)

103014 @ 아아 무사마씨?(아아, 왜요?)

103014 #1 그기 허면은 빠다가 쓰기도 허곡 뒈지걸름 내노면은 그거 바로 빠서.(거기 하면 빼다가 쓰기도 하고 돼지거름 내놓으면 그거 바로 빼서.)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집더레 뒈지 집더레 노면은 겨울 뜻시고 이제 더퍼지니까 이제 뒈지 집이 뒈니까 듯시거든. 뒈지도 겨울에 듯시고 허니까.(집에 돼지 집에 놓으면 겨울

44)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따뜻하고 이제 덮어지니까 이제 돼지 집이 되니까 따뜻하거든. 돼지도 겨울에 따뜻하고 하니까.)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크게는 아니 헤도 돗집 우에 쓸 만큼은 이제 눌거든예.(크게는 아니해도 돼지우리 위에 쓸 만큼은 이제 가리거든요.)

103014 @ 다른 데 다른 그건 콩ᄁᆡ질 안 허는 디 보리짚은 도세기집 우이 눈다고예?(다른 데 다른 그건 콩깍지 안 하는데 보리짚은 돼지집 위에 가린다고요?)

103014 #1 예. 콩깍은 콩깍이라던지 이 콩대 때려난 거는 도깨로 때려난 거는 전부 헤다가 집에 갓다가 눌어가지고 건 소 양석.(예. 콩깍지는 콩깍지라든지 이 콩대 때려난 거는 도리깨로 때려난 거는 전부 해다가 집에 갔다가 가리어가지고 건 소 양식.)

103014 @ 소 양석으로예.(소 양식으로요.)

103014 #1 소 멕이고, 또 팔월이 뒈면은 이 풀 비어다가 ᄆᆞᆯ리민 눌엇다가 눌왓이라고 허거든. 눌 누는 장소가. 눌왓이라고 헤서 거기에다가 감자땡구리도 ᄆᆞ른 거 헤다가 눌고, 좃대도 눌고, 콩ᄁᆡ질도 눌고, 그 고구마줄거리도 눌고 헤가지고 곡식 헤난 거는 이 요지금은 밧벼라고 허는디 옛날에는 산듸, 산듸찍도 눌고 헤가지고, 이건 전부 쉐 겨울양식으로 이것저것 이제 주거든. 감젯줄 ᄒᆞᆫ번 줘나면은 꽁ᄁᆡ질도 주고, 새꼴도 주고. 이 풀 비어난 것보고 새꼴이라고 허는데.(소 먹이고, 또 팔월이 되면 이 풀 베어다가 말리면 가리었다가 '눌왓'이라고 하거든, 가리 가리는 장소가. '눌왓'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고구마'땡구리'도 마른 거 해다가 가리고, 조대도 가리고, 콩깍지도 가리고, 그 고구마줄거리도 가리고 해가지고 곡식했던 거는 이 요즘은 밭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밭벼, 밭벼짚도 가리고 해가지고, 이건 전부 소 겨울양식으로 이것저것 이제 주거든. 고구마줄기 한번 줘나면 꽁깍지도 주고 '새꼴'도 주고. 이 풀 베어난 것보고 꼴이라고 하는데.)

103014 @ 아아, 어,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 뭐 보릿ᄀᆞ시락 들어근에 뭐 헌 거라든가 미숫가루 만들엉은에 비올 때 뭐 헌 거라든가.(아아, 어, 보리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보리까끄라기 들어서 뭐 한 거라든가 미숫가루 만들어서 비올 때 뭐 한 거라든가.)

103014 #1 보릿ᄀᆞ시락은 뭘로 쓰는고 허니까니 굴묵[45]에 놔서 당그네로 그 굴묵밑에 이렇게 헤서 허면은 불을 통헤 부치면은 안트로 들어가면서 구들이 따뜻허게 에, 그렇게 허곡, 일부는 질삼, 미녕 그 헐 때에 마당에다가 불을 요렇게 헤가지고 ᄁᆞ찡케 놔서 가지고 불을 부쳐가지고 그 우에 그 옷 만들 때, 미녕옷 만들 때에 그 풀 멕여 가지고 손으로 쓸면서 허는데 그거 ᄆᆞᆯ리는데 놔뒀다가 그것도 쓰고, 주로 굴묵 쓰곡 겐 무녕 그 질삼허는 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ᄒᆞᆫ 번씩은 다 허주만은 거는 양이 많이 안 들어가고 겨울 내낭 저 방 때는 거, ᄀᆞ시락, ᄀᆞ시락막이라고 헤서 집을 지어서 그걸 보관헤 놔둬야 헤. 비 안 맞게.(보리까끄라기는 뭘로 쓰는가

4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바깥 공간을 말한다.

하니까 ‘굴묵’에 놔서 고무래로 그 ‘굴묵’밑에 이렇게 해서 하면 불을 통해 붙이면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이 따뜻하게 에, 그렇게 하고, 일부는 길쌈, 무명 그 할 때에 마당에다가 불을 요렇게 해가지고 가지런히 놔서 가지고 불을 부쳐가지고 그 위에 그 옷 만들 때 무명옷 만들 때에 그 풀 먹여 가지고 손으로 쓸면서 하는데 그거 말리는데 놔뒀다가 그것도 쓰고, 주로 ‘굴묵’ 쓰고 그래서 무명 그 길쌈하는 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 하지만 거는 양이 많이 안 들어가고 겨울 내내 저 방 때는 거 까끄라기, 까끄라기막이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그걸 보관해 놔둬야 해. 비안 맞게.)

103014 @ 아아, 어디 굴묵 속에마씨 옆에?(아아, 어디 ‘굴묵’ 속에요? 옆에.)

103014 #1 바껏디.(밖에.)

103014 @ 아님 따로, 바껏디. ᄀᆞ시락막.(아님 따로, 밖에 까끄라기막.)

103014 #1 응. ᄀᆞ시락막이라고 헤서 이제 담 다아가지고 우에 영 새로 비 안 들어가게 담앗다가 그거 인제는 굴묵에 솜빡 놔도 남거든.(응. 까끄라기막이라고 해서 이제 담 쌓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새로 비 안 들어가게 담았다가 그거 인제는 ‘굴묵’에 가득 놔도 남거든.)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남으니까 그디 헷다가 허면은 그거 건즘 때면은 불채 저레 불채통이라고 헤서 거 또 잎이는 불채만 내크는 디가 잇고, 혼쪽에는 ᄀᆞ시락 놓곡 그렇게 헤서 허면은 오줌단지 무뚱에 놔서 오줌을 싸노민은 그 오줌을 불채드레 강 비우거든. 불채에 강 비와야 걸거든. 오줌이 질소 오줌오자 요소거든예. 요소나 만찬가지라. 그러면 그 불채는 주로 어디다 잘 쓰는고 허니까 메멀농사 헐 때 메멀농사를 잘 써.(남으니까 거기 했다가 하면 그거 거의 때면 재 저기 재통이라고 해서 거 또 옆에는 재만 내치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까끄라기 놓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오줌단지 문앞에 놔서 오줌을 싸놓으면 그 오줌을 재에 가서 비우거든. 재에 가서 비워야 걸거든. 오줌이 질소 오줌오자 요소거든요. 요소나 만찬가지야. 그러면 그 재는 주로 어디다 잘 쓰는가 하니까 메밀농사 헐 때 메밀농사를 잘 써.)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메멀농사를 잘 허는 사람은 메멀 씨에다가 그 불체에 이제 버무려.(메밀농사를 잘 하는 사람은 메밀 씨에다가 그 재에 이제 버무려.)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옛날은 비료가 어시니까. 그렇게 헤서 좁놈이라고 헤가지고 밧을 ᄆᆞ멀밧은 아홉 불을 간다고 허는 거라.(옛날은 비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좁놈’이라고 해가지고 밭을 메밀밭은 아홉 벌을 간다고 하는 거야.)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갈았다가 밧이 부각허게 그렇게 허면은 이제 축축허거든. 축축허게 오줌이 자꾸 들어가니까 ᄆᆞ르지 안 헤서 집안에서 허면은 집안에서 그걸 바깟더레 퍼내가지고 ᄆᆞ멀씨를 버물려가지고 이제는 ᄀᆞᆯ채에 촘 밧을 갈아 노면은 집어 놔.

불채 씨에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부인덜이 사가지고 밧디 쭉 헤 놓으면은 섬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쉐로 헤영 쫙 끄시면은 ᄆᆞ멀이 그렇게 잘 뒈거든. 옛날은 비료가 엇인 때니까 불채를 큰 비료로 사용을 헤서. 게니까 ᄆᆞ멀이 그렇게 잘뒈거든.(갈았다가 밭이 부각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축축하거든. 축축하게 오줌이 자꾸 들어가니까 마르지 안 해서 집안에서 하면 집안에서 그걸 바깥에 퍼내가지고 메밀씨를 버무려가지고 이제는 삼태기에 참 밭을 갈아 놓으면 집어 놔. 재 씨에 이렇게 툭툭툭툭 부인들이 서가지고 밭에 쭉 해 놓으면 끙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소로 해서 쫙 끌면 메밀이 그렇게 잘 되거든. 옛날은 비료가 없을 때니까 재를 큰 비료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메밀이 그렇게 잘 되거든.)

103014 @ 모멀도 헤 봣구나예, 꽃도 예쁘게 피고예.(메밀도 해 봤군요. 꽃도 예쁘게 피고요.)

103014 #1 예.(예.)

103014 @ 금악쪽에 보난?(금악쪽에 보니까?)

103014 #1 요지금은 비료가 잇어부니까 불채는 뭐고 요즘은 그저 이제는 화학시대라노니까.(요즘은 비료가 있어버리니까 재는 뭐고 요즘은 그저 이제는 화학시대라 버리니까.)

103014 @ 아이구.(아이구.)

103014 #1 옛날 헤난 역ᄉᆞ. 젊은 사람덜은 몰르주게.(옛날 했었던 역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103014 @ 게난마씨. 아이구야.(그러니까요. 아이구야.)

103014 #5 불 ᄉᆞᆷ앗주기게. 그 검질은 거 다 불 ᄉᆞᆷ안 살안.(불 땠지. 그 김은 거 다 불 때서 살았어.)

103014 #6 조낭은 소 멕이고.(조짚은 소 먹이고.)

103014 #5 조는 쉐 멕이고 보리찍은 불 ᄉᆞᆷ안. 엿날은.(조는 소 먹이고 보리짚은 불 때었어. 옛날은.)

103014 @ 또 다른 거는마씨?(또 다른 건요?)

103014 #5 뭐?(뭐?)

103014 @ 눌엇당?(가리었다가?)

103014 #5 눌엇당게 보리찍 눌어둠서 빠멍 좁아뎅경 빠고, 좁아뎅경 빠고 하면서 헨.(가리었다가 보리짚 가리면서 빼면서 잡아 다니면서 빼고, 잡아 다녀서 빼고 하면서 했어.)

103014 @ 보리찍은 불 날 때 와닥와닥 별로 좋지 않지 안헙니까?(보리짚은 불 날 때 '와닥와닥'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103014 #5 빠닥빠닥 헹 허민 불체가 파릉파릉만 놀고, 헤도 헤 볼 내기가 엇주. 그거 말째라가난 저 유채도 헹 두드리민 유챗낭도 져당 불 ᄉᆞᆷ으민 헤양케 재가 ᄉᆞ뭇 헤양케 집이 헤도.('빠닥빠닥' 해서 하면 재가 '파릉파릉'만 날고, 해도 해 볼 도리가 없지. 그거 말째 되어가니까 저 유채도 해서 두드리면 유채낭도 져다가 불 때

면 하얗게 재가 사뭇 하얗게 집에 해도.)

103014 @ 보리까그라기는 뭐 썻수과?(보리까끄라기는 뭐 썼습니까?)

103014 #5 보리까그레기가 뭐여?(보리까끄라기가 뭐야?)

103014 #6 뒈야지 멕엿주게.(돼지 먹였지.)

103014 #5 아, 보리채. 도새기 멕영 질롯주기게.(아, 보릿겨. 돼지 먹여서 길렀지.)

103014 #4 아이고, 도새기도 굶음만 헤영 아이고 불쌍허여.(아이고, 돼지도 굶음만 해서 아이고 불쌍해.)

103014 @ 보리낭껭이옌 헙니까? 보릿낭.(보릿대라고 합니까? 보릿대.)

103014 #5 보리찍.(보릿짚.)

103014 @ 보리찍이옌 헙니까? 보리 찍을 불 솜고 다른 거는 또 통시에도 이렇게 놓고?(보릿짚이라고 합니까? 보리 짚을 불 때고 다른 거는 또 돼지우리에도 이렇게 놓고?)

103014 #5 도새기집 지고 걸로 그 걸름으로 갈랑갈랑 물에 댕기당 돗집에 가민 져지니까, 돗집 소곱더레 보리낭 아졍 담아주민, 그디 강 눵 살고 돼지도.(돼지우리 지고 걸로 그 거름으로 갈랑갈랑 물에 다니다가 돼지우리에 가면 젖으니까, 돼지우리 속에 보릿대 가져서 담아주면, 거기 가서 누워서 살고 돼지도.)

103014 @ 집집마다 이건 헷겟다예?(집집마다 이건 했겠네요?)

103014 #5 예. 집집마다 이건 도새긴 질롯주기게.(예. 집집마다 이건 돼지 길렀지.)

103014 #4 쳇, 돈 나올 거 엇이난게.(쳇, 돈 나올 거 없으니까.)

103014 #5 통제도 이젠 화장실헴주만은 옛날엔 영 담 다왕은에 통지에 도새기 길루고 돗집 헹 이레 ᄐᆞ로 돗집 헤영 그레 강은에 허곡 이레 나오민 걸름 흔 밧디 뎅기멍 이젠 갈랑갈랑 뎅기고, 새끼 나놓고 허민.(돼지우리도 이젠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옛날엔 이렇게 담 쌓아서 돼지우리에 돼지 기르고 돼지우리 해서 여기 따로 돼지우리 해서 거기 가서 하고 여기 나오면 거름 한 곳에 다니면서 이젠 갈랑갈랑 다니고, 새끼 나놓고 하면.)

103014 #4 매 집이 새끼 내와져시냐? 부젯집이만 내왓주.(각 집에 새끼 내워졌니? 부잣집에만 내웠지.)

103014 #5 경 허민 옛날은 경 헨 세상을 살아완.(그러면 옛날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 왔어.)

103014 @ 그 보리짚은 도새기집허고 가까운디 눌엇수과?(그 보릿짚은 돼지우리하고 가까운데 가리었습니까?)

103014 #5 흔어시 멀진 안허고, 마당 안에난.(한없이 멀진 않고, 마당 안에니까.)

103014 #6 예. 가까운디 눌언. 문딱.(예. 가까운데 가리었어. 모두.)

103014 @ 도대체 눌이 멧 개라? 보릿눌?(도대체 가리가 몇 개야? 보릿가리?)

103014 #6 보릿눌, 촐눌, 샛골, 조찍, 감젓줄, 콩꼬질, 다 눌곡 다시 이제 보릿낭 헹 눌고.(보릿가리, 꼴가리, 띠골, 조짚, 고구마줄기, 콩깍지, 다 가리고 다시 이제 보릿대 해서 가리고.)

103014 @ 마당이 좁으쿠다게.(마당이 좁겠네요.)

103014 #4 게난 막 널르게 헷지.(그러니까 막 넓게 했지.)

103014 #5 이제 저 봉춘이아방 사는 디 살 때에 보리 홀탄에 장만허단에 이맹이 빌엉 허당 불난에 보릿낭 불부터 간 ᄉᆞ믓 오줌허벅이 다 올라가고 벨 전상 다 헤낫어. 헤 볼내기가 엇이난.(이제 저 봉춘이 아버지 사는 데 살 때에 보리 훑어서 장만하다가 이마 빌어서 하다가 불나서 보릿대 불붙어 가면서 사뭇 오줌허벅이 다 올라가고 별 전상 다 했었어. 해볼 수가 없으니까.)

103014 #6 무사 불이 낫어? 불 솜당 내분 거라?(왜 불이 났어? 불 때다가 내버린 거야?)

103014 #5 그 아니 아이 그 메태기 영 헤가난 저레 불이 펄록펄록허게 무신 저 그냥 불 솜아가민 불께미 ᄂᆞ리듯 풍풍허게 거 무신 내통으로 나갑디다게. 그게 어떵헤영 보리낭 간디에 가난 그게 일어나기 시작허난 양 와랑와랑 부트난.(그 아니 아이 그 메타기 이렇게 해가니까 저기 불이 펄록펄록하게 무슨 저 그냥 불 때가면 불똥 내리듯 풍풍하게 거 무슨 내통으로 나갑디다. 그게 어떻게 해서 보릿대 간데 가니까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와랑와랑' 붙으니까)

103014 #6 메타끼 난 땐 요적에사 난 거 아니?('메타기' 난 땐 요즘에야 난 거 아니?)

103014 #5 이맹이레 게매. 경 헹은 ᄒᆞᆫ 번은 촘 잘도 얼먹어나고.(이마에 글쎄.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참 잘도 얼먹어나고.)

103014 #4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3015 @ ᄀᆞ시락 들엉 뭐허거나, 보리농사 뭐허거나 어머니가 시키는 거 셍각나는 거 이시민 나중에라도?(까끄라기 들어서 뭐하거나, 보리농사 뭐하거나 어머니가 시키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나중에라도?)

103015 #1 게난 어떤 사람은 그 ᄀᆞ시락을 그냥 ᄒᆞᆫ 바띠 놩 불 케왕 불채로 문 만들고, 도 저 가을 들면은 쉐똥, 물똥 이걸 주워다가, 그 ᄀᆞ시락막[46]에 ᄀᆞᆯ채에 담아당, 굴묵에 놩은에 방 때는 거, 조끔 거 활동력이 좋은 사람은 목장에 가 가지고 쉐똥, 물똥 그걸 ᄆᆞ르면은 줏어다가 가을에 들엉 줏어다가 그냥 걸 집에 데멋당 참 요지금은 보일러나 헌다. 그때는 순전 그런 걸로 방 때어서 겨울 살앗주.(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까끄라기를 그냥 한 곳에 놔서 불 태워서 재로 모두 만들고, 도 저 가을 들면 소똥, 말똥 이걸 주워서, 그 'ᄀᆞ시락막'에 삼태기에 담아다가, '굴묵'에 놔서 방 때는 거, 조금 거 활동력이 좋은 사람은 목장에 가 가지고 소똥, 말똥 그걸 마르면 주워다가 가을에 들어서 주워다가 그냥 걸 집에 쟁였다가 참 요지금은 보일러나 한다. 그때는 순전 그런 걸로 방 때서 겨울 살았지.)

46) 'ᄀᆞ시락막'은 까끄라기를 보관하는 작은 막이다.

103015 @ 쉐똥 물똥 다 허는 줄 알아신디 물똥은 게벼왕 좋고, 쉐똥은 굴묵에 별로 안 썻덴 헌 말도 이십디다만은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안허영?(소똥 말똥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말똥은 가벼워서 좋고, 소똥은 '굴묵'에 별로 안 썼다고 한 말도 있습디다만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안하고?)

103015 #1 아, 가리지 안 허고말고, 우리가 듣기로는 가파도는 가면은.(아, 가리지 안 하고말고, 우리가 듣기로는 가파도는 가면.)

103015 @ 예.(예.)

103015 #1 가파도.(가파도.)

103015 @ 예. 마라도 옆이.(예. 마라도 옆에.)

103015 #1 가파도는 가면은, 쉐똥 줏어다가 말우이서 밥헤 먹엇다고 헤여.(가파도는 가면, 소똥 주워서 말위에서 밥해 먹었다고 해.)

103015 @ 응. 가파도 가민,(응, 가파도 가면.)

103015 #1 예. 우린 들은 말인데.(예. 우리는 들은 말인데.)

103015 @ 응.(응.)

103015 #1 거긴 족은 섬이라가지고 땔 게 뭐허니까.(거긴 작은 섬이라가지고 땔게 뭐하니까.)

103015 @ 지들커가 엇어부난.(땔감이 없어버리니까.)

103015 #1 소똥은 헤가지고 허면은 소똥은 불이 강하여.(소똥은 해서 하면 소똥은 불이 강해.)

103015 @ 음. 그 대신 빨리 안 말른다고 허드라고예. 거난 말똥은 빨리 말리니까?(음. 그 대신 빨리 안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똥은 빨리 말리니까?)

103015 #1 힘이 약허여. 물똥은 비삭비삭허[47]거든.(힘이 약해. 말똥은 '비삭비삭'하거든.)

103015 @ 비삭비삭허고.('비삭비삭'하고.)

103015 #1 힘이 약허여. 쉐똥은 그거 잘 물리면 딱딱허거든.(힘이 약해. 소똥은 잘 말리면 딱딱하거든.)

103015 @ 딱딱헤영.(딱딱해서.)

103015 #1 숫 모냥으로 딱딱허니까.(숯 모양으로 딱딱하니까.)

103015 @ 아아.(아아.)

103015 #1 불도 오레가고 불이 오레가니까 또 방도 뜨시고.(불도 오래가고 불에 오래가니까 또 방도 따뜻하고.)

103015 @ 으음. 게믄 삼춘도 이런 거 줏어봣수과?(으음. 그러면 삼촌도 이런 거 주워봤습니까?)

103015 #1 하이고, 줍곡말곡.(하이고, 줍고말고.)

103015 @ 푸대 가졍 강 그믄 줏어당. ᄀᆞ시락 그거 서껑.(부대 가져 가서 그러면 주워 다가. 까끄라기 그거 섞어서.)

47) '비삭비삭하다'는 물건이 부피가 앙상하여 옹골차지 못하다는 뜻이다.

103015 #1 그때는 푸대가 아니고 가마니.(그때는 부대가 아니고 가마니.)

103015 @ 가마니.(가마니.)

103015 #1 그 옛날에는 가마니. 고구마 절간 할 때도 처음에 헐 때는 전부 가마니.(그 옛날에는 가마니. 고구마 절간 할 때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가마니.)

103015 @ 가마니.(가마니.)

103015 #1 푸대는 뭐 신식 푸대주게.(부대는 뭐 신식 부대지.)

103015 @ 몸은 막 크거나 허지는 안헤시쿠다예? 삼촌예? 몸이. 지금 몸 쪼끔, 삼촌 몸은 쯧금. 겐디 일은 잘허션마씨?(몸은 막 크거나 하지는 안했겠네요? 삼촌이요? 몸이. 지금 몸 조금, 삼촌 몸은 조금. 그런데 일은 잘하셨어요?)

103015 #1 원래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고 우리 할머니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어머닌 키가 컷는데 나는 작아. 그게 시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 같아. 겐디 나보다 우리 아덜덜은 크고, 우리 아덜덜보다 우리 집 손지는 더 크고 우리 손지 제일 키 큰 놈이 일메다 팔십구 센치라.(원래가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고 우리 할머니가 키가 작으니깐 우리 어머닌 키가 컸는데 나느 작아. 그게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 같아. 그런데 나보다 우리 아들들은 크고, 우리 아들들보다 우리 집 손자는 더 크고 우리 손자 제일 키 큰 놈이 일 미터 팔십구 센티야.)

103015 @ 아이구게.(아이구.)

103015 #1 우리 노인회장보다 십 센치가 더 커.(우리 노인회장보다 십 센티가 더 커.)

103015 @ 그렇구나. 노인회장님도 큽디다예.(그렇구나. 노인회장님도 큽디다요.)

103015 #1 이 노인회장, 일 메다 칠십구 센치니렌.(이 노인회장, 일 미터 칠십구 센티라고.)

103015 @ 게난.(그러니까.)

103015 #1 칠십구 센친디 우리 집이 손지는 막넹이아들 손진디 엄마가 커서 그러는디 일메다 팔십구 센치니까 군대 가젠헤도 보통 가는 사람안테 못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키 큰 놈으로만 뽑앙 가는 디 가 가지고. 하하하하(칠십구 센틴데 우리 집에 손자는 막내아들 손잔데 엄마가 커서 그러는데 일 미터 팔십구 센치니까 군대 가려고 해도 보통 가는 사람한테 못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키 큰 놈으로만 뽑아서 가는 데 가 가지고. 하하하하.)

103015 @ 재밋다예. 하하. 팔십구민 진짜 큰 거주게.(재밌네요. 하하. 팔십구면 진짜 큰 거지.)

103015 #1 뽑는 걸을 ᄀᆞ튼 찔로만.(뽑는 거를 같은 질로만.)

103015 @ 아아.(아아.)

103015 #1 예, 중대편성을 헤가지고 소집을 헹 갓다 왓는데.(예, 중대편성을 해가지고 소집을 해서 갔다 왔는데.)

103015 @ 아아.(아아.)

103015 #5 보리 져 나믄 ᄀᆞ시락 담아당은에 ᄀᆞ시락집 맨들앙 막 맨들앙 담 다

왕 이제 그레 놩. 이 저 ᄂᆞ람지[48] 더껑 헹 놧당 거 파당 굴묵 짇고.(보리 찌고 나면 까끄라기 담아다가 까끄라기집 만들어서 막 만들어서 담 쌓아서 이제 거기 놨어. 이 저 'ᄂᆞ람지' 덮어서 해서 놨다가 거 파다가 '굴묵' 때고.)

103015 #4 ᄀᆞ시락 막 헷주게. ᄀᆞ시락 막.(까끄라기 막 했지. 까끄라기 막.)

103015 #5 예. ᄀᆞ시락 막 헷수다게.(예. 까끄라기 막 했습니다.)

103015 @ 꿩듹세기 봉그고 뱀보고 생각나는 거나?(꿩알 줍고 뱀보고 생각나는 거나?)

103015 #5 옛날엔 처음엔 두릴 땐 거 봉가와신디 읔은 후제 어이구 저 늙은 어른덜 ᄀᆞᆫ는 거 꿩의 가슴 매의 가심 허난 아이고 얼마나 저 새끼 일르민 을큰헴꾸나. 허난 새끼.(옛날엔 처음엔 어릴 땐 거 주워왔는데 철든 후에 어이구 저 늙은 어른들 말하는 거 꿩의 가슴 매의 가슴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저 새끼 잃으면 애석하겠구나. 하니까 새끼.)

103015 #4 우리 메누리도 그 꿩알 줍지 맙서예. 꿩알 줍지맙서.(우리 며느리도 그 꿩알 줍지 마세요. 꿩알 줍지 마세요.)

103015 #5 경혜여. 꿩의 가슴 매의 가심 아픈덴, 매의 가슴 헌댄허난 사람도 애기 잃으민 가슴 아프는 걸.(그래. 꿩의 가슴 매의 가슴 아프다고, 매의 가슴 한다고 하니까 사람도 아기 잃으면 가슴 아픈 걸.)

103015 #4 꿩알 줍지맙서. 경헌디 꿩듹새기 봉가지민 잘도 지꺼져.(꿩알 줍지 마세요. 그런데 꿩알 주우면 잘도 기뻐.)

103015 #5 경헌디 두린 때 봉가와신디 읔은 후젠 그 말을 들으난 아 저.(그런데 어린 때 주워왔는데 철든 후에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저.)

103015 #6 꿩마농 케레 뎅기고.(달래 캐러 다니고.)

103015 #4 경혜도 영 이녁은 경 헨 슬짝 물러사근에 네부럿당 가보민 나중에 강 보민 읏더라.(그렇게 해도 이렇게 이녁은 그렇게 해서 슬쩍 물러서서 두고 내버렸다가 가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없더라.)

103015 #5 날라 가고게. 문딱 주서.(날라 가고. 모두 주워.)

103015 #4 아니, 사람 문직아 나면은 날라가고, ᄀᆞ만이 들으민 어떵 안허고.(아니, 사람 만져 버리면 날아가고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안 하고.)

103015 #5 예. 나 하영 듹새기 네비어서. 봐지민 아이고 임시 지꺼졍 줏이민 가심 아프덴 허는 걸.(예. 나 많이 달걀 내버렸어. 봐지면 아이고 임시 기뻐서 주우면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걸.)

103015 #4 고사리 거그레 강 보민 엇어. 엇어.(고사리 꺾으러 가서 보면 없어. 없어.)

103015 #5 겐 다시양. 꿩듹새기, 우리 저예. 하우스 한 밧디양. 꿩듹새길 경 잘 나게.(그래서 다시요. 꿩알, 우리 저요. 하우스 한 군데요. 꿩알 그렇게 잘나.)

---

48)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레', '놀래'라고도 한다.

103015 #4 아, 그게 ᄉᆞ방, 막 그 ᄉᆞ방은.(아, 그게 사방, 막 그 사방은.)

103015 #5 막 새끼 잘 납니다게. 강 보민 새낄 나둰 아이고 네불주기, 네불주기. 그 사람 봐나난 ᄀᆞ딱 안 뎅기는 거게. 그 ᄃᆞᆨ세기가 다 ᄀᆞ려도양 그대로.(막 새끼 잘 납니다. 가서 보면 새낄 나두고 아이고 내버리지, 내버리지. 그 사람 봤었으니까 까딱 안 다니는 거. 그 알이 다 썩어도요 그대로.)

103015 #4 겁나민 안 되는 건 다시 안 오고, 겁 안 나나민 다시 오라근 물어가고.(겁나면 안 되는 건 다시 안 오고, 겁 안 났으면 다시 와서 물어가고.)

103015 #5 경 헙디다게.(그렇게 합디다.)

조 농사

103016 @ 조 농사를 할려면, 어떤 똑같아예. 아까 보리하고 ᄎᆞ근ᄎᆞ근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똑같아요. 아까 보리하고 차근차근 조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 농사를 헐라면은 미리 밧을 갈앙 놔둬야 뒈어.(조 농사를 하려면 미리 밭을 갈아서 놔둬야 돼.)

103016 @ 아아. 갈앙.(아아. 갈아서.)

103016 #1 저 그것보고 번홈[49]이라고 허여.(저 그것보고 애벌갈이라고 해.)

103016 @ 번.(번.)

103016 #1 밧을 번홈이라고. 갈앙 놔두는 거 보고 번허는 거라고 허여.(밭을 애벌갈이라고. 갈아서 놔두는 거 보고 애벌갈이하는 거라고 해.)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파종을 허지 안허고 빈 밧을 갈앙 놔드는 거ᄀᆞ라 거 밧 번한다고 허는디.(파종을 하지 안하고 빈 밭을 갈아서 놔두는 거보고 밭 애벌갈이한다고 하는데.)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밧 번헤사 헐 컬.(밭 애벌갈이해야 할 걸.)

103016 @ 아아. 파종을 안 허고.(아아. 파종을 안 허고.)

103016 #1 게서 날이 좋암직헌 때 밧을 가는 거라.(그래서 날이 좋을 것 같을 때 밭을 가는 거야.)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그 왜냐허민 밧은 갈아 가지고 햇빛을 많이 맞아야 그 밧이 걸어. 농사가 잘 뒈니까 비료 준 것 모냥으로 거니까 밧이 힘이 찬다고 헤서 이렇게 봐서 날씨가 농사꾼도 사흘천기는 봐야 뒌다고 헤여. 파종허는 것도 비 오람직 헐 때는 파종을 안 허고, 날이 메칠 좋암직헤야 파종을 허는 거.(그 왜냐하면 밭은 갈아 가지고 햇빛을 많이 맞아야 그 밭이 걸어. 농사가 잘 되니까 비료 준 것 모양으로 거니까 밭에 힘이 찬다고 해서 이렇게 봐서 날씨가 농사꾼도 사흘천기는 봐야 된다고

49) '번ᄒᆞ다'는 밭의 곡식을 거둔 후 애벌갈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 파종하는 것도 비 올 것 같을 때는 파종을 안 하고, 날이 며칠 좋을 것 같아야 파종을 하는 거.)

103016 @ 요즘은 일기예보 잇이난 그거 보멍 헤도 옛날에는 하늘 보멍 다 헤실 거라예?(요즘은 일기예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해도 옛날에는 하늘 보면서 다 했을 거예요?)

103016 #1 파종헤서 비가 마 지면은 종자가 움직이질 안아.(파종해서 비가 장마 지면 종자가 움직이질 않아.)

103016 @ 아아, 눅눅헤져 불고 또 그렇게 곰팡이 슬어 불고 경 헌다는 거지예? 그믄 이거는 또 보리허고 다르다예?(아아, 눅눅해져 버리고 또 그렇게 곰팡이 슬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또 보리하고 다르네요?)

103016 @ 예.(예.)

103016 #5 건, 조는 그냥 좁씨 ᄋᆞ정 강은에 밧 갈아 놩 좁씨 뿌령.(건, 조는 그냥 좁씨 가져 가서 밭 갈아 놔서 좁씨 뿌려서.)

103016 #4 아이고 거 볼리젠 허민.(아이고 거 밟으려 하면.)

103016 #5 볼리져, 다시 이제 섬비질허져, 섬비는 낭허여근에 에껴근에 그 왕상헌 거 헤영 애끼영 영 헤영 이디 베 걸엉은에 둑지에 두러매영 끗엉.(밟으려, 다시 이제 끙게질하려, 끙게는 나무해서 아껴서 그 왕상한 거 해서 아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베 걸어서 어깨에 둘러 매여서 끌어서.)

103016 #4 끗어서 아니 볼르민 녹아불어.(끌어서 안 밟으면 녹아버려.)

103016 #5 돌을 막 헤영 밧을 논나. 이추룩 담 막 하영 줏어당은에 그 섬비 이마니 이거민 이마니 크게 널둥 섬비레 돌을 막 시껑 끗이민 죽을락 살락 끗이민 거시기도 멘딱허여. 멘딱허민 그추룩도 허곡 다시 거줌 밧을 드르 볼려도 녹고, ᄒᆞ쏠 가까이 잇인 사람은.(돌을 막 해서 밭을 논나. 이처럼 담 막 많이 주워다가 그 끙게 이만큼 이거면 이만큼 크게 널둥 끙게에 돌을 막 실어서 끌면 죽을 둥 살 둥 끌면 거시기도 반드러워. 반드러우면 그처럼 하고 다시 거의 밭을 계속 밟아도 녹고, 조금 가까이 있는 사람은.)

103016 #6 쉐 볼려야주. 볼려야 존.(소 밟아야지. 밟아야 존.)

103016 #4 두루 볼르민 녹아 불어. 좀 나가민 문딱 녹아 불어.(대충 밟으면 녹아 버려. 좀 나가면 모두 녹아 버려.)

103016 #5 요즘은 비료 시난 확허게 허난 녹지 안 헤도, 옛날은 비료 엇어부니까 경 허민 녹아서.(요즘은 비료 있으니까 확하게 하니까 녹지 않아도, 옛날은 비료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녹아서.)

103016 #4 이젠 비료 노난 볼를 어이어시 커 불어.(이젠 비료 놓으니까 밟을 틈 없이 커 버려.)

103017 @ 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보리하고 다르구나예? 걸름, 걸름, 조밭 걸름?(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보리하고 다르군요? 거름, 거름, 조밭 거름?)

103017 #1 조밭 걸름은 ᄆᆞ른 때 가는 거.(조밭 거름은 마른 때 가는 거.)

103017 @ 아아, 이거는 걸름 안 헤마씨?(아아, 이거는 거름 안 해요?)

103017 #1 걸름셔게? 어디?(거름 있나? 어디?)

103017 @ 아까추룩 도새기 그거 허는 거 엇이.(아까처럼 돼지 그거 하는 거 없이.)

103017 #1 아, 그건 도새기걸름은.(아, 그건 돼지거름은.)

103017 @ 보리만?(보리만?)

103017 #1 보리 갈 때만.(보리 갈 때만.)

103017 @ 보리 갈 때만. 그믄 때만 조팟 걸름은 안 허여마씨?(보리 갈 때만. 그러면 때만 조밭 거름은 안 해요?)

103017 #1 조팟 걸름은 안허고.(조밭 거름은 안하고.)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경허니까 조팟은 헐라고 허면은 나는 그렇게 헷어. 어, 미리 밧을 갈앙 놔둔 거. 날이 어느 날 좋아서 막 카. 밧 갈앙 놔둔 게 막 햇빛 맞아서 허면은 검질이 예방뒈어.(그렇게 하니까 조밭은 하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했어. 어, 미리 밭을 갈아서 놔둔 거. 날이 어느 날 좋아서 막 타. 밭 갈아서 놔둔 게 막 햇빛 맞아서 하면은 김이 예방돼.)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풀이.(풀이.)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풀이 제대로 발휘를 못허거든.(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거든.)

103017 @ 아아. 밧을 갈아놓고.(아아. 밭을 갈아놓고.)

103017 #1 게서 밧이 숨이 차는 거라.(그렇게 해서 밭이 숨이 차는 거라.)

103017 @ 햇빛을 받고.(햇빛을 받고.)

103017 #1 밧도 토양성분을 막 이 헷빗 성분을.(밭도 토양성분을 막 이 햇빛 성분을.)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일광을 많이 받아야 그 좋아지니까 어, 요지금은 기계로 두드려 부리난 너미 산성화뒈는데.(일광을 많이 받아야 그 좋아지니까 어, 요지금은 기계로만 두드려 버리니까 너무 산성화되는데.)

103017 @ 예.(예.)

103017 #1 그렇게 헤가지고 허고, 어, 이제 비가 오라가지고.(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어, 이제 비가 와가지고.)

103017 @ 예.(예.)

103017 #1 씨 파종을 헐 때는.(씨 파종을 할 때는.)

103017 @ 예.(예.)

103017 #1 비가 오라가지고 날이 ᄒᆞ쏠 부실부실허게 좀 좋아야.(비가 와가지고

날이 조금 부슬부슬하게 좀 좋아야.)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너미 진 때 조는 때 안 허고.(너무 진 때 조는 때 안 하고.)

103017 @ 아아.(아아.)

103017 #1 그렇게 헤서 씨 날을 봐서 날이 좋암직허다 헷을 때에 파종허곡, 파종을 이제 밧을 갈아놩 씨를 뿌리면은 소나 말로 말 ᄀᆞ튼 거 가진 사람은 전문적으로 밧 불리렐 뎅여. 밧을 공구리 바닥 모냥으로 잘 불려.(그렇게 해서 씨 날을 봐서 날이 좋을 것 같다 했을 때에 파종하고, 파종을 이제 밭을 갈아놔서 씨를 뿌리면 소나 말로 말 같은 거 가진 사람은 전문적으로 밭 밟으러 다녀. 밭을 공구리 바닥 모양으로 잘 밟아.)

103017 @ 예.(예.)

103017 #1 그렇게 헤서 날이 오레 좋으며는 마같이 뒈엇다고 헤서 검질이 일절 안 나고 조만 나거든.(그렇게 해서 날이 오래 좋으면 장마가 지었다고 해서 김이 일절 안 나고 조만 나거든.)

103017 @ 마가 지엇다?(마가 지었다?)

103017 #1 예. 마같이[50]?(예. '마같이'?)

103017 @ 마같이.('마같이.')

103017 #1 응. 마같이, 마같이 조팟은 빗주제[51]만 걸쳣다고 허며는 물 부끄듯 부끈다 허는 거거던. 그렇게 ᄒᆞ룻밤 자나며는 팍팍 올라오라.(응. '마같이', '마같이' 조밭은 '빗주제'만 걸쳤다고 하면 물 넘치듯 넘친다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룻밤 자나면 팍팍 올라와.)

103017 @ 빗주제만?('빗주제'만?)

103017 #1 예. 비가 ᄒᆞ쏠만 오라주면은 팍팍 올라와.(예. 비가 조금만 와주면 팍팍 올라와.)

103017 @ 팍팍 올라오라와예.(팍팍 올라와요.)

103017 #1 검질은 안 나고 그거 성장허니까 이제는 밧 임제는 쪼금 크면은 초불검질이라고 헤서 허는 데는.(김은 안 나고 그게 성장하니까 이제는 밭 임자는 조금 크면 애벌김이라고 해서 하는 데는.)

103017 @ 아직 검질 안 들어갓수다예.(아직 김 안 들어갔습니다.)

103017 #1 응.(응.)

103017 @ 팍팍 올라와예.(팍팍 올라와요.)

103017 #5 그냥 걸름은 그자 원 이제는 어떵사 헴신지 몰라도 이제 비료 삐엄실거라. 전인 비료도 안 삐영 그냥 풋 놓고 대죽 놓고 헤영 그거 갈앙은에 경헨 끅곡 불리고 허문 그거 헤영 검질 메영 ᄉᆡ불검질ᄁᆞ장 메영 비영.(그냥 거름은 그저 원 이제는 어떻게야 하는지 몰라도 이제 비료 뿌리고 있을 거야. 전엔 비료도 안 뿌려

50) '마같이'는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 농사 따위를 말한다.
51) '빗주제'는 비가 잠깐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서 그냥 팥 놓고 수수 놓고 해서 그거 갈아서 그렇게 해서 끌고 밟고 하면 그거 해서 김 매여서 세벌길까지 매여서 베여서.)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조는 어, 절기상으로 봣을 때, 소서유월절 중심을 헤서 파종을 헙니다.(조는 어, 절기상으로 봤을 때, 소서유월절 중심을 해서 파종을 합니다.)

103018 @ 소서 유월절이민 양력이꽈? 음력이꽈?(소서 유월절이면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103018 #1 양력으로는 칠월 칠, 팔일 뒐 거라.(양력으로는 칠월 칠, 팔일 될 거야.)

103018 @ 아, 세상에 조는 저는 봄에 파종허는 줄 알앗수다.(아, 세상에 조는 저는 봄에 파종하는 줄 알았습니다.)

103018 #1 그 봄에도 파종을 허기는 허는데 거 봄갈이라고 허여. 것보고.(그 봄에도 파종을 하기는 하는데 거 봄갈이라고 해. 것보고.)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우리말로. 봄갈이로 파종을 해야 뒈는디 검질은, 풀은 실컷 메야 뒈어.(우리말로. 봄갈이로 파종을 헤야 되는데 김은, 풀은 실컷 매야 되어.)

103018 @ 아.(아.)

103018 #1 봄에는 강수량이 많허니까 풀이 계속 자라나는 시기라. 그러기 때문에.(봄에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풀이 계속 자라나는 시기야. 그러기 때문에.)

103018 @ 조는 두 번, 칠월 달에도 갈고?(조는 두 번, 칠월 달에도 갈고?)

103018 #1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쪼금.(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금.)

103018 @ 조는 봄에도 갈고 칠월 달에도 갈아신디.(조는 봄에도 갈고 칠월 달에도 갈았는데.)

103018 #1 예. 겐디 그 봄에 가는 사람은 멧 사람 안 뒈여.(예. 그런데 그 봄에 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멧 사람 안뒈는데 노는 시기에 좀 일을 헐라고 조금 허여서 허기는 허는데, 조는 뜨게 크고 검질은 빨리 성장을 허니까 쪼금 뭐 일력을 줄이는 사람은 봄에 조는 절대 원.(몇 사람 안 되는데 노는 시기에 좀 일을 할라고 조금 하여서 하기는 하는데, 조는 뜨게 크고 김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조금 뭐 일력을 줄이는 사람은 봄에 조는 절대 원.)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구십 프로는 봄에 조를 안 갈아.(구십 프로는 봄에 조를 안 갈아.)

103018 @ 아아. 그믄 유월절 지나면.(아아. 그러면 유월절 지나면.)

103018 #1 유월절 전후를 중심 잡아 가지고 허는데.(유월절 전후를 중심 잡아 가지고 하는데.)

103018 @ 그믄 음력으로 하면은 오월 달 뒈켜예? 고사리 나는 철.(그러면 음력

으로 하면은 오월 달 되겠네요? 고사리 나는 철.)

103018 #1 소서 유월절이면 말하자면 에, 소서가 저 양력으론 정헤져 잇지만은 음력으론 들락날락 허거든.(소서 유월절이면 말하자면 에, 소서가 저 양력으론 정해져 있지만 음력으론 들락날락 허거든.)

103018 @ 예.(예.)

103018 #1 경허니까 소서라 허는 게 따지고 보면 유월 초ᄒᆞ룰이라고 헤도 과언이 아니라.(그렇게 하니까 소서라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유월 초하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게난 양력으로는 칠월 칠일, 칠월 칠일인가 규정되어 잇어. 양력으로는 절기가 규정되어 잇어. 경허기 때문에 거 요지금 사람은 그걸 몰라. 우리는 이십ᄉᆞ절기를 흔 공중에 쫙 알아지거든.(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칠월 칠일, 칠월 칠일인가 규정되어 있어. 양력으로는 절기가 규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거 요즘 사람은 그걸 몰라. 우리는 이십사절기를 한 공중에 쫙 알아지거든.)

103018 @ 예.(예.)

103018 #1 응. 동지로부터 허면 동지 소한, 대한, 소서, 대서, 입하 소서, 대서, 백로, 처서, 한로, 상강 다시 상강허면은 바로 동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십사절긴데 소서는 유월절이니까 말허자면은 유월ᄎᆞᄒᆞ루라고 생각을 해도 뭴 철이라. 게민 칠월을 나민 칠일인가? 칠월 칠일인가? 어느 정도 뭴 거라. 겐디 나는 그거를 떠나서 파종허는데 이제 음력은 들고나고 허는 따문에 윤ᄃᆞᆯ이 잇기 따문에 나는 날짜를 세어. 나는 마갇이를 주로 기본을 허젠 허주게. 마갇이를 기본으로 허는디 언제든지 마갇이를 기본으로 허는디.(응. 동지로부터 하면 동지, 소한, 대한, 소서, 대서, 입하, 소서, 대서, 백로, 처서, 한로, 상강 다시 상강하면 바로 동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십사절긴데 소서는 유월절이니까 말하자면 유월초하루라고 생각을 해도 될 철이야. 그러면 칠월을 나면 칠일인가? 칠월 칠일인가? 어느 정도 될 거야. 그런데 나는 그거를 떠나서 파종하는데 이제 음력은 들고나고 하는 때문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짜를 세어. 나는 '마갇이'를 주로 기본을 하려고 하지. '마갇이'를 기본으로 하는데 언제든지 '마갇이'를 기본으로 하는데.)

103018 @ 마갇이가 무슨 뜻이꽈?('마갇이'가 무슨 뜻입니까?)

103018 #1 파종을 헤서 날이 계속 좋는 거.(파종을 해서 날이 계속 좋은 거.)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비가 오지 안헤서.(비가 오지 않아서.)

103018 @ 아아, 마가 짐직허다.(아아, 장마가 질 듯하다.)

103018 #1 마갇이 뭼직허다는 거는 비가 아니오라가지고 좋다 허는 말이라.('마갇이' 됨직하다는 거는 비가 안와가지고 좋다 하는 말이라.)

103018 @ 아아. 근데.(아아. 근데.)

103018 #1 게서 비가 탁 오라노면은 물마갇이 라고 허여.(그래서 비가 탁 오면

물‘마갇이’라고 해.)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물이 오면은 파종헤서 얼마엇이 재게 파종허는 뒷날이라도 여차헤서 삼일 전에 비가 오라부리면은 검질은 성허고 조는 늦게 허니까 그거 못 헤도 일주일 이상 날 좋을 거를 천기를 봐가지고 나는 씨를 뿌려.(물이 오면 파종해서 얼마 없이 재우 파종하는 뒷날이라도 여차해서 삼일 전에 비가 와버리면 김은 성하고 조는 늦게 하니까 그거 못 해도 일주일 이상 날 좋을 거를 천기를 봐가지고 나는 씨를 뿌려.)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씨를 뿌리는데 상강까지 씨 뿌리는 날로 메칠이냐? 씨 뿌리는 날로 상강까지 구십일일 이상 구십이일, 삼 일만 뒈면은 조가 끗떼까지 결실이 아주 잘 뒈어.(씨를 뿌리는데 상강까지 씨 뿌리는 날로 며칠이냐? 씨 뿌리는 날로 상강까지 구십일일 이상 구십이일, 삼일만 되면 조가 끝에까지 결실이 아주 잘 돼.)

103018 @ 응.(응.)

103018 #1 잘 뒈곡 구십일일이 하루라도 안 뒈면은 중간까지는 가는디 끗까지 옴아주지를 안 허는 거.(잘 되고 구십일일이 하루라도 안 되면 중간까지는 가는데 끝까지 여물지 안 하는 거.)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이 농사라 허는 거는 절기를 절대 무시하지 못 헤. 게서 나는 그렇게 허니까 놈이 봐가지고 어이고 그 밧디 조 좋아라.(이 농사라 하는 거는 절기를 절대 무시하지 못 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니까 남이 봐가지고 아이고 그 밭에 조 좋아라.)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조 멧 섬 나시니?(조 몇 섬 났니?)

103018 @ 아아.(아아.)

103018 #1 이렇게 헤서 남보다 나는 수확을 더 내와.(이렇게 해서 남보다 나는 수확을 더 내 와.)

103018 @ 아아, 노하우가 확실히 잇네예. 하하.(아아, 노하우가 확실히 있네요. 하하.)

103018 #1 예. 나는 파종헐 때 딱 상강까지, 상강이 금년이 이제.(예. 나는 파종할 때 딱 상강까지, 상강이 금년에 이제.)

103018 @ 상강이 뭐꽈?(상강이 뭡니까?)

103018 #1 절기 돌아가는 거. 한로는 구월절이고 상강은 구월 주기라.(절기 돌아가는 거. 한로는 구월절이고 상강은 구월 주기야.)

103018 @ 상강.(상강.)

103018 #1 상강. 상강이라고 허민 서리 상 제, 내릴 강 제.(상강. 상강이라고 하면 서리 상 자, 내릴 강 자.)

103018 @ 예.(예.)

103018 #1 이제 지금 이제 뒈면은 저 대관령은 서리 내렷젠 허지 안 허여.(이제 지금 이제 되면 저 대관령은 서리 내렸다고 하지 안 해.)

103018 @ 예.(예.)

103018 #1 그것이 상강이주게.(그것이 상강이지.)

103018 @ 예.(예.)

103018 #1 상강이 구십 ᄒᆞ룬가 안 들면은 읍아주질 끝ᄁᆞ지 읍아주질 안허여. 등치만 읍앙. 구십이일, 삼일, ᄒᆞ루 이틀차이가 어마 어마어마허게 크는 거.(상강이 구십 하룬가 안 들면 여물지를, 끝까지 여물질 않아. 등치만 여물어. 구십이일, 삼일, 하루 이틀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는 거.)

103018 @ 으응.(으응.)

103018 #5 조가 이제 저 무싱 거헹은에 유월 나민, 유월 돌 나민 존 갈아야주게.(조가 이제 저 무슨 거해서 유월 나면, 유월 달 나면 존 갈아야지.)

103018 @ 음력 유월예?(음력 유월요?)

103018 #5 예. 겡 갈곡, 콩도 그때 뒈민 콩도 갈고, 그 여름농ᄉᆞᆫ 그때 되민 다 허는 거.(예. 그래서 갈고, 콩도 그때 되면 콩도 갈고, 그 여름농산 그때 되면 다 하는 거.)

103018 #4 막 끝나사. 유월장마 끝나사.(막 끝나야. 유월장마 끝나야.)

103018 #5 게난 유월 나가.(그러니까 유월 나가야.)

103018 @ 유월장마 끝나사예.(유월장마 끝나서요.)

103019 @ 경 헹 삐영, 좁씨를 삘 땐 어떵 뿌립니까? 여자덜이 남자덜도 뿌리고.(그렇게 해서 뿌려서, 좁씨를 뿌릴 땐 어떻게 뿌립니까? 여자들이 남자도 뿌리고.)

103019 #1 하, 남자덜이 뿌려야지.(하, 남자들이 뿌려야지.)

103019 @ 남자덜이마씨?(남자들이요?)

103019 #1 남자덜이 뿌리는데 좁씨 뿌리는 게 사람마다 뿌리는 방법이 ᄃᆞ나. ᄒᆞᆫ줌을 딱 짜면은 이렇게 열다섯 번까지 손으로 허는 사람이 잇어.(남자들이 뿌리는데 좁씨 뿌리는 게 사람마다 뿌리는 방법이 달라. 한줌을 딱 짜면 이렇게 열다섯 번까지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너다섯 번이면 ᄒᆞᆫ줌을 다 뿌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네다섯 번이면 한줌을 다 뿌려.)

103019 @ 아아. 여자덜도 허긴 허지예?(아아. 여자들도 하긴 하지요?)

103019 #1 아, 힘이 모자라.(아, 힘이 모자라.)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게 남자가 없어서 놉 빌어 가지고 밧을 갈 경우에는 여자대로 뿌리면은, 여자대로 뿌리면은, 두 고지나 세 고지 쉐로 간 거 고지를 영 뿌리는데 뿌리

다가 어떤 디는 요렇게 돌라 정 아니 뿌려 진 디도 잇는데, 우리 남자덜은 우리는 천상씨라고 헤서 머리 위에서 손을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은 이 뭉텅뭉텅 떨어지질 안 허고 싹 뿌려져.(그게 남자가 없어서 놉 빌어 가지고 밭을 갈 경우에는 여자대로 뿌리면, 여자가 뿌리면, 두 고지나 세 고지를 소로 간 거 고지를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다가 어떤 데는 이렇게 빠트려 져서 안 뿌려 진 데도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우리는 천상씨라 해서 머리 위에서 손을 이렇게 던져.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이 뭉텅뭉텅 떨어지지 안하고 싹 뿌려져.)

103019 @ 싹, 싹 삐여져예.(싹, 싹 뿌려져요.)

103019 #1 나가거든. 조로로 물 주는 식으로 싹 골루루 나게. 많이 나는 데 적게 나는 디 아니허여.(나가거든. 조르르 물 주는 식으로 싹 골고루 나게. 많이 가는 데 적게 나는 데 안 해.)

103019 @ 어떠케마씨? 헤봅서?(어떻게요? 해보세요?)

103019 #1 이렇게 착 뿌리면은.(이렇게 착 뿌리면.)

103019 @ 나 머리 우로마씨? 머리 우로 이렇게 쫙.(나 머리 위로요? 머리 위로 이렇게 쫙.)

103019 #1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허면은.(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하면.)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ᄉᆞ드라기 가는디, 뿌리는 게 다 자기만씩 좀 틀리는디.('ᄉᆞ드라기' 가는데, 뿌리는 게 다 자기만큼씩 좀 다른데.)

103019 @ 노하우가 잇다예. 아아.(노하우가 있네요. 아아.)

103019 #1 예. 광작헤서 많이 부자 사람덜은 요렇게 헤서 널리 뿌리거든. 일로 이레 일로 한 삼십 메다 쫙 허게 나가게 헷는데. 이렇게.(예. 광작해서 많이 부자 사람들은 요렇게 해서 널리 뿌리거든. 일리 이리 일로 한 삼십 미터 쫙 하게 나가게 했는데. 이렇게.)

103019 @ 삼십 메타. 아이고, 멧 천 평 진짜 사람이 힘으로 허젠허믄 엄청 허겟다예? 그믄.(삼십 미터. 아이고, 몇 천 평 진짜 사람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 하겠네요? 그러면.)

103019 #1 게난 밧을 다 농사허는 게 아니주게. 일부는 밧을 번헌다고 헤. 갈앙 놔두는 걸 번헌다고, 번허영 놔뒷다가.(그러니까 밭을 다 농사하는 게 아니지. 일부는 밭을 애벌갈이한다고 해. 갈아서 놔두는 걸 애벌갈이한다고, 애벌갈이해서 놔뒀다가.)

103019 @ 며칠 정도 잇당.(며칠 정도 있다가.)

103019 #1 또 풀이 나가지고 풀이 덤방헤[52]가면 또 갈앙 놔두어.(또 풀이 나가지고 풀이 '덤방해'가면 또 갈아서 놔둬.)

103019 @ 아아, 그믄 한 달 잇당 좁씨를 뿌려마씨?(아아,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조씨를 뿌려요?)

52) '덤방ᄒᆞ다'는 풀 따위가 무성하다는 뜻이다.

103019 #1 갈앙 놔두고 밧디 농사허는 방법이 보리 가는 밧은 여름에 그렇게 쉬와. 밧을.(갈아서 놔두고 밭에 농사하는 방법이 보리 가는 밭은 여름에 그렇게 쉬워. 밭을.)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보릿그르에 다, 보릿그르에 또 농사허는 사람도 잇고, 밧이 많은 사람은 밧을 번헌다고 헤서 놀고, 마 진더렌 가면은 목장 도에 바량밧이라고 잇어. 바량밧은 혼 해에 소가 목장에서 나와서 물 먹고 들어가면서 똥, 오줌 싸고 헤서 쉬고 이렇게 허니까 그 밧이 걸다고 헤서 이제 삼년에 혼 번은 농사를 안 헤서 으름엔 놀려.(보리그루에 다, 보리그루에 또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밭이 많은 사람은 밭을 애벌갈이한다고 해서 놀고, 장마 진 곳에 가면 목장 입구에 '바량밧'이라고 있어. '바량밧'은 한 해에 소가 목장에서 나와서 물 먹고 들어가면서 똥, 오줌 싸고 해서 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밭이 걸다고 해서 이제 삼년에 한 번은 농사를 안 헤서 여름엔 놀려.)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겨울에는 허곡 으름엔 놀려서 쉐똥 싸고 쉐 오줌 싸고 허면 밧이 거니까 그렇게 헤서 밧을 게서 비가 푹 오면은 족족 온 땐 밧을 못 갈아. 막 땅이 지니까. 비가 팍 왓을 때는 푹허게 갈아가지고 담 딱 다아서 들어가지 못허게 헤영, 그냥 밧을 부각이 케와.(겨울에는 하고 여름엔 놀려서 소똥 싸고 소 오줌 싸고 하면 밭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밭을 그래서 비가 푹 오면 족족 온 땐 밭을 못 갈아. 막 땅이 지니까. 비가 팍 왔을 때는 푹하게 갈아가지고 담 딱 쌓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냥 밭을 '부각이' 태워.)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케운 다음에는 담을 올아서 이제랑 너는 넘어가다가 쉬고 가라헤서 소가 그디 들어 강 이제는 놀다가 가면은 그 저 쉐똥, 쉐 오줌 막 발로 불르고 뭐헌 거, 누게가 담아가지도 못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리가 잘 뒈어. 비료 없는 시상엔 밧을 번허여. 농사허민 지미진다고 허는 건 잘 안 뒈는 거. 농사허민 지미진다고 허는 게 잘 안뒈는 거. 것보고 지미진다고 허는데 지미진 밧은 자꾸 또 놀려줘야 뒈여. 밧을 쉬어 줘야 흑끔 낫지.(태운 다음엔 담을 열어서 이제는 너는 넘어가다가 쉬고 가라해서 소가 거기 들어 가서 이제는 놀다가 가면 그 저 소똥, 소 오줌 막 발로 밟고 뭐 한 거, 누가 담아가지도 못해.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리가 잘 돼. 비료 없는 세상엔 밭을 애벌갈이해. 농사하면 지미진다고 하는 건 잘 안 되는 거. 농사하면 '지미진다'고 하는 건 잘 안 되는 거. 것보고 '지미진다'고 하는데 '지미진' 밭은 자꾸 또 놀려줘야 돼. 밭을 쉬어 줘야 조금 낫지.)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게서 갈앙 놔두는 건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토양을, 햇빛을 잘 맞아야 거는 모냥이라.(그래서 갈아서 놔두는 건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토양을, 햇빛을 잘 맞아야 거는 모양이야.)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게서 쉬고 또 좋은 밧은 좋은 밧은 또 연작을 계속헤도 뒈고. 보통 바께 나간, 이 거리 바깟디 나가는 밧은 헤 쉬어 줘.(그래서 쉬고 또 좋은 밭은 좋은 밭은 또 연작을 계속해도 되고. 보통 밖에 나가서, 이 거리 바깥에 나가는 밭은 해 쉬어 줘.)

103019 @ 아아. 여름에예.(아아. 여름에요.)

103019 #1 요세ᄀᆞ치 그냥 이거 끝나면은 다른 농사허고 다른 농사허고 그런 게 아니고.(요새같이 그냥 이거 끝나면 다른 농사하고 다른 농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103019 @ 야, 겐 조팟은 씨를 그렇게 뿌리고 그믄 좁씨 뿌릴 때는 아까처럼 금방 갈앙 메칠 잇당도 허고?(야, 그럼 조밭은 씨를 그렇게 뿌리고 그러면 좁씨 뿌릴 때는 아까처럼 금방 갈아서 며칠 있다가도 하고?)

103019 #1 아니, 좁씨는 갈 때에 갈멍사라 씨 뿌리고.(아니, 좁씨는 갈 때에 갈면서 씨 뿌리고.)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씨 뿌리고 뒤에서 밟아야 뒈어.(씨 뿌리고 뒤에도 뒤에서 밟아야 되어.)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좀 ᄎᆞ근헌 때.(좀 '추근헌' 때.)

103019 @ 그러면 갈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마씨? 아까처럼?(그러면 갈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처럼?)

103019 #1 다 갈아놩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갈고.(다 갈아놔서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갈고.)

103019 @ 또 혼 번 갈아줘마씨?(또 한 번 갈아줘요?)

103019 #1 갈면은 씨 뿌리는 거야. 소서 유월절 그 전후시기에는 갈면은 무조건 씨를 뿌려야 뒈어.(갈면 씨 뿌리는 거야. 소서 유월절 그 전후시기에는 갈면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되어.)

103019 @ 일단 한 번 갈앙 놧당?(일단 한 번 갈아서 놨다가?)

103019 #1 그 전에.(그 전에.)

103019 @ 전에.(전에.)

103019 #1 그 전에 보리가 갈아 가지고 보리 비어본 다음에는 보릿그루가 나면은 우선 갈앙 놔둬.(그 전에 보리가 갈아 가지고 보리 베어본 다음에는 보리그루가 나면 우선 갈아서 놔둬.)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풀 때문에.(풀 때문에.)

103019 @ 놧당 쉬웡 놧당.(놨다가 쉬워서 놨다가.)

103019 #1 놧다가 다음에는.(놨다가 다음에는.)

103019 @ 이제 좁쏠.(이제 좁쌀.)

103019 #1 시기가 뒈며는.(시기가 되면.)

103019 @ 또 갈앙.(또 갈아서.)

103019 #1 갈면은 날 좋암직 헌 때 날이 여러 날 좋암직허다. 헷을 때 그런데 여기는 일기 창으로 어떻게 허느냐 산방산이 잇어.(갈면 날 좋을 것 같을 때 날이 여러 날 좋을 것 같다. 했을 때 그런데 여기는 일기 창으로 어떻게 하느냐 산방산이 있어.)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산방산이 잇는데, 산방산에, 산방산 갓을 씌어.(산방산이 있는데, 산방산에, 산방산 갓을 씌워.)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모자 쓰듯이. 하얀 구름으로. 이것이 마에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요렇게 ᄂᆞ리면은 비가 오고, 이제 농사 씨 뿌릴 시기에 한라산 짝으로 요렇게 가면은 날이 좋다는 이거여.(모자 쓰듯이. 하얀 구름으로. 이것이 마에 바다 쪽으로 서쪽으로 요렇게 내리면 비가 오고, 이제 농사 씨 뿌릴 시기에 한라산 쪽으로 요렇게 가면 날이 좋다는 이거야.)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그렇게 헤서 산방산 갓 쓰는 거를 기준 삼고.(그렇게 해서 산방산 갓 쓰는 거를 기준 삼고.)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말 들어 보면은 두모 신창, 한경면 바닷가에 잇는 사람은 아래서는 저지악에 안개가 푹 이렇게 찌면은 저지악에 삼일은 날이 좋나고 헤여. 게서 신창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해서 천기를 그렇게 봐. 그렇게 보고 여기서는 한라산이 하르방 형치라.(말 들어보면 두모, 신창, 한경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아래서는 저지악에 안개가 푹 이렇게 끼면 저지악에 삼일은 날이 좋다고 해. 그래서 신창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해서 천기를 그렇게 봐. 그렇게 보고 여기서는 한라산이 할아버지 형상이야.)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하르방 형치데 그 농사시기에 까망헌 구름이 이렇게 걸쳐서 대가리만 요렇게 나오면은.(할아버지 형상인데 그 농사시기에 까만 구름이 이렇게 갓 쓰고 머리만 이렇게 나오면.)

103019 @ 아아.(아아.)

103019 #1 아이고 하르방 야개기 줄마매영 비오켜. 흐흐흐.(아이고 할아버지 목 졸라 매여서 비 오겠어. 흐흐흐.)

103019 @ 하르방 야개기.(할아버지 목.)

103019 #1 야개기 줄마 메영 비오켜. 여기서는 농사꾼이 보는 게 많아요. 저 한라산 준둥이 밑으로 저 검악 오름쪽으로 거멍헌 구름이 탁 찌면은 바람첫 쌓다고 헤서.(목 졸라 매여서 비오겠어. 여기서는 농사꾼이 보는 게 많아요. 저 한라산 허

리 밑으로 저 금악 오름 쪽으로 꺼먼 구름이 탁 끼면 '바람첫' 쌓다고 해서.)

103019 @ 바람, 바람 뭐 쌓앗다고마씨?(바람, 바람 뭐 쌓았다고요?)

103019 #1 바람첫 쌓다고 헤서 대풍이 불젠허는 셍이여. 게서 이게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그 이건 순전이 경험상식이거든.('바람첫' 쌓다고 해서 대풍이 불려고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그 이건 순전이 경험상식이거든.)

103019 @ 게난마씨.(그러니깐요.)

103019 #1 경험상식이라고 헤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걸 슬피고, 해 져갈 때에 해 져갈 때에 벌겅헌 구름으로 영 찌고, 영 검은 구름도 더러 싯고 헤서 그 구름사이로 헤서 구름사이로 해가 빠지면은 해지기가 안 좋으민 날 우침직 헐 셍이여.(경험상식이라고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은 그걸 살피고, 해 져갈 때에 해 져갈 때에 뻘건 구름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검은 구름도 더러 있고 해서 그 구름사이로 해서 구름사이로 해가 빠지면 해지기가 안 좋으면 날 비 올 모양이야.)

103019 @ 해지기가.(해지기가.)

103019 #1 해가 떨어지는 지기가 안 좋으니까 일기가.(해가 떨어지는 지기가 안 좋으니까 일기가.)

103019 @ 안 좋으니까 날 우첨직허다?(안 좋으니까 날 비 올 것 같다?)

103019 #1 게난 이레 보는 게 삼 ᄉᆞ방으로 보는 게 다 그.(그러니까 여기에 보는 게 삼 사방으로 보는 게 다 그.)

103019 @ 예.(예.)

103019 #1 이게 과학적으론 이론 닮지 않은 말인디.(이게 과학적으론 이론 닮지 않은 말인데.)

103019 @ 예.(예.)

103019 #1 이런 거를 경험헤사 웃어른덜이 저거 봐라. 해지기가 정허연 날 우첨직ᄒᆞ다.(이런 거를 경험헤야 웃어른들이 저거 봐라. 해지기가 정해서 날 비 올 것 같다.)

103019 @ 예.(예.)

103019 #1 한라산 야개기 줄르민 날 우첨직허다. 산방산에 갓이 우트레 올란 날 좋암직ᄒᆞ다. 알러레 ᄂᆞ련 비오람직허다.(한라산 목 짧으면 날 비 올 것 같다. 산방산에 갓이 위에 올라서 날 좋을 것 같다. 아래에 내려서 비올 것 같다.)

103019 @ 아이고 진짜예.(아이고 진짜요.)

103019 #1 요새 젊은 사람 거 하나토 몰라.(요새 젊은 사람 거 하나도 몰라.)

103019 @ 이런 말 때문에 이거가 중요헌 거마씨. 이런 말들이.(이런 말 때문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103019 #5 좁씨는 그냥 줴영 그자 ᄒᆞᆫ 번 영 ᄒᆞ쏠 줴민 열두 번썩 삐여. 열두 번썩 삐는 사람은.(좁씨는 그냥 쥐어서 그저 한 번 이렇게 조금 쥐면 열두 번씩 뿌려. 열두 번씩 뿌리는 사람은.)

103019 #4 경 하영 안 헌다. 흔읏이.(그렇게 많이 안 한다. 한없이.)

103019 #5 우리 아버진 허는 거 보민 열두 번썩 뻽디다. 흔번 줴민.(우리 아버진 하는 거 보면 열두 번씩 뿌립디다. 한 번 쥐면.)

103019 #4 건 손으로 허난.(건 손으로 하니까.)

103019 #5 줄끈 줴영 그자 드르 삐여. 열두 번썩 뿌려고. 열두 번썩.(잘끈 쥐어서 그저 계속 뿌려. 열두 번씩 뿌리고. 열두 번씩.)

103019 @ 남자가 주로 뿌립니까?(남자가 주로 뿌립니까?)

103019 #5 예. 주로 남자가.(예. 주로 남자가.)

103019 #6 여자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여자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뿌리는 사람도 있고.)

103019 #5 남자 읏인 사람은 남저, 여자가 뿌리주만은 여자 할 일이 더 하거든. 밧 불리저, 징심 출리저, 무싱 거 해 오져 ᄒᆞ당 보민, 게난 남자가 하영 뿌리곡.(남자 없는 사람은 남자, 여자가 뿌리지만 여자 할 일이 더 많거든. 밭 밟으려, 점심 차리려, 무슨 거 해 오려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남자가 많이 뿌리고.)

103019 @ 게민 한쪽에서는 밧 갈고, 한쪽에서는 붙영 걸 뿌립니까? 갈멍 뿌려?(그러면 한쪽에서는 밭 갈고, 한쪽에서는 붙여서 걸 뿌립니까? 갈면서 뿌려?)

103019 #5 문딱 갈아 놩도 뿌리고 게난 하영 허는 사람은.(모두 갈아 놔도 뿌리고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103019 #4 갈아 놩, 갈아 놩 뿌려.(갈아 놔서, 갈아 놔서 뿌려.)

103019 #5 갈아 놩 뿌려사 씨도 골ᄅᆞ루 다 흔들음 다 삐어근에 다시 그추룩 불리고.(갈아 놔서 뿌려야 씨도 골고루 다 한달음 다 뿌려서 다시 그처럼 밟고.)

103019 #4 씨가 하노민 알러레 녹아불카부덴.(씨가 많으면 아래쪽으로 녹아 버릴까 봐.)

103019 #5 굽에 뿌리는 건 녹으카부덴 지프게 들어가렌 저 초불 뿌령 갈아 놩 다시 두불 뿌령 이제 불령 경허는 거. 경 해연 그 후제 초불 메역 두불 메역 싀불 메역허민 마지막으로 허영 놔두민은 이젠 익을 거 아니라? 익으민 존 조대로 비어오고, 폿은 폿대로.(밑에 뿌리는 건 녹을까봐 깊게 들어가라고 저 초벌 뿌려서 갈아 놔서 다시 두벌 뿌려서 이제 밟아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후로 초벌 매여서 두벌 매여서 세벌 매여서 하면 마지막으로 해서 놔두면 이젠 익을 거 아니라? 익으면 존 조대로 베어오고, 팥은 팥대로.)

103020 @ 음, 경헤연 조팟을 뿌리고 말테, 남테, 돌테, 끙게, 밟는 게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예.(음, 그렇게 해서 조밭을 뿌리고 말테, 남테, 돌테, 끙게, 밟는 게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네요.)

103020 #1 예?(예?)

103020 @ 뿌리면서 밟는 거.(뿌리면서 밟는 거.)

103020 #1 예.(예.)

103020 @ 그믄 놉 빌엉은에 말이나 소를 빌엉 붋아주어야 뒈잖아예? 사람?(그

렴너 놉 빌어서 말이나 소를 빌어서 밟아줘야 되잖아요? 사람?)

103020 #1 집이 여유가 신 사람은 남자는 밧을 갈고.(집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남자는 밭을 갈고.)

103020 @ 예.(예.)

103020 #1 밧을 어느 정도 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잇을 정도로 갈면은 씨를 뿌려가지고 부인이 쉐를 몰고 붋으고, 또 부자덜은 사람 둘이나 서이나 밧을 갈아.(밭을 어느 정도 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갈면 씨를 뿌려가지고 부인이 소를 몰고 밟고, 또 부자들은 사람 둘이나 셋이나 밭을 갈아.)

103020 @ 응.(응.)

103020 #1 또 밧을 갈은 다음에는 ᄆᆞᆯ테우리[53]라고 ᄆᆞᆯ 많이 가져 잇는 사람안테 청헤서.(또 밭을 간 다음에는 'ᄆᆞᆯ테우리'라고 말 많이 가져 있는 사람한테 청해서.)

103020 @ 예.(예.)

103020 #1 청헤서 밧을 어느 때 뒈민 건즘 가니까 그때 오랑 ᄇᆞᆯ려 달라하면은 ᄆᆞᆯ 혼 수십 ᄆᆞ리 ᄆᆞᆯ고 와가지고.(청해서 밭을 어느 때 되면 거의 가니까 그때 와서 밟아 달라하면 말 한 수십 마리 몰고 와가지고.)

103020 @ 아.(아.)

103020 #1 이삼십 ᄆᆞ리 ᄆᆞᆯ고 와가지고 밧디 그냥 ᄆᆞᆯ은. 다리가 빠르거든.(이삼십 마리 몰고 와가지고 밭에 그냥 말은. 다리가 빠르거든.)

103020 @ 예.(예.)

103020 #1 그러니까 높은 건 발로 차면서 허곡 그자 드러 다니니까. 짝 마당같이 붋으거든.(그러니까 높은 건 발로 차면서 하고 그저 계속 다니니까. 쫙 마당같이 밟거든.)

103020 @ 예.(예.)

103020 #1 그렇게, 그렇게 조는 그렇게 밟아야만이 흔들리질 안 허여서 둔둔허게 잘 뒈어.(그렇게, 그렇게 조는 그렇게 밟아야만 흔들리질 않아서 단단하게 잘 돼.)

103020 @ 아아, 게믄 노래 불르는 것도 잇겟다예? 월러러 월월?(아아, 그러면 노래 부르는 것도 있겠네요? '월러러 월월'?)

103020 #1 워러러 돌돌 어러 헤헤헤헤.('워러러 돌돌 어러' 헤헤헤헤.)

103020 @ 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래 부를 땐 요 ᄆᆞ쉬덜아, 저 ᄆᆞ쉬덜아.(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노래 부를 땐 요 마소들아, 저 마소들아.)

103020 #1 에, 혼저덜 ᄇᆞᆯ리라. 뭐 어떵허고 저쩡허고 그냥 경헤서 거 밧 ᄇᆞᆯ리는 사람은 가면은 거 막걸리 얻어먹곡 그자 트멍에 어떤 땐 일이라도 ᄒᆞ루 빌엉 허곡, 목찬 거 허면은 경허거든.(에, 어서들 밟아라. 뭐 어떻고 저렇고 그냥 그렇게 해서 거 밭 밟는 사람은 가면 거 막걸리 얻어먹고 그저 틈에 어떤 땐 일이라도 하루 빌어서 하고, 목찬 거 하면 그렇게 하거든.)

53) 'ᄆᆞᆯ테우리'는 말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을 뜻한다.

103020 @ 이렇게 노래 잘 허는 어른들도 청수리에 잇어지예? 옛날에예. 할아버지덜예?(이렇게 노래 잘하는 어른들도 청수리에 있었지요? 옛날에요. 할아버지들이요?)

103020 #1 예. 다 돌아가 버련.(예. 다 돌아가 버렸어.)

103020 @ 기지예. 밧 불리는 소리, 그냥 막?(그렇지요. 이젠 밭 밟는 소리, 그냥 막?)

103020 #1 이젠 그 밧 불리는 소리 모르는 사람이 천지주게.(이젠 밭 밟는 소리 모르는 사람이 천지지.)

103020 @ 할아버지 중에 누구 이거 잘 불르는 사람 엇이카예?(할아버지 중에 누구 이거 잘 부르는 사람 없을까요?)

103020 #1 어떵?(어떻게?)

103020 @ 노래 잘 불르는 분, 아직 살아 계신 분 엇이카예?(노래 잘 부르는 분 아직 살아 계신 분 없을까요?)

103020 #1 우리 우에가 엇어노난게.(우리 위가 없어버리니까.)

103020 @ 게난, 참.(그러니까, 참.)

103020 #1 아이, 게난게. 소리 허는 사람이 읏주게. 읏고 장사 지낼 때만 헤도 그.(아이, 그러니까. 소리 하는 사람이 없지. 없고 장사 지낼 때만 해도 그.)

103020 @ 상여소리.(상여소리.)

103020 #1 그 흙 파다가 그냥 그 허는 소리 부르는 사람덜 쪼차 오는 사람 잇엇는디.(그 흙 파다가 그냥 그 하는 소리 부르는 사람들 쫓아 오는 사람 있었는데.)

103020 @ 진토굿 파는 소리?(진토굿 파는 소리?)

103020 #1 다 요지금 사람은 그 소리 허는 사람 허지 안헤서 장의사덜 오랑 그자 확확 헤부난.(다 요즘 사람들은 그 소리 하는 사람 많지 않아서 장의사들 와서 그저 확확 해버리니까.)

103020 @ 게난 테이프 틀어놓고예.(그러니깐 테이프 틀어놓고요.)

103020 #1 그 저 뭐 하간 뭐 헐 때 옛날모양으로 축 고허는 사름덜도 읏고.(그저 뭐 여러 가지 뭐 할 때 옛날모양으로 축 고하는 사람들도 없고.)

103020 @ 에그.(에그.)

103020 #5 물로게. 물이영 쉐로영.(말로. 말이랑 소로.)

103020 #4 아이고, 게난 이녁 무쉬 시민 허고 엇이민 아이고, 밧디 불리젠 허민 어디 강 쉐 ᄒᆞ나 빌어당 뚤매영.(아이고, 그러니까 이녁 마소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아이고, 밭에 밟으려고 하면 어디 가서 소 하나 빌어다가 따로 매여서.)

103020 #5 밧 불리는 게 경 힘들언. 경 힘들언.(밭 밟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힘들었어.)

103020 #4 중싱이 엇어시네게. 엇언.(짐승이 없었네. 없었어.)

103020 #5 아니, 물조름에 조치나 쉐조름에 쪼창 계속 불려나도 잘도 못 젼뎌.(아니, 말꽁무니에 쫓으나 소꽁무니에 쫓아서 계속 밟아도 잘도 못 견뎌.)

103020 #6 그렇게 힘들 수가 엇어. 하루 종일 그 쉐.(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그 소.)

103020 #5 진짜 못 젼뎌. 멧 천평사 걷는 건지 계속.(진짜 못 견뎌. 몇 천평이야 걷는 건지 계속.)

103020 #4 ᄒᆞ루 헤원 걷주기.(하루 종일 걷지.)

103020 #5 어량하량허멍 드러 따ᄃᆞᆯ겨 댕기멍.(‘어량하량’ 하면서 계속 달려 다니면서.)

103020 #6 두루 ᄆᆞᆯ암젠 욕 듣고.(대충 몬다고 욕 듣고.)

103020 @ 노래는 기억, 남자들이 불럿수과?(노래는 기억, 남자들이 불렀습니까?)

103020 #5 아니, 여자덜도 불럿주. 어러러러러 허멍 그자.(아니, 여자들도 불렀지. 어러러러러 하면서 그저.)1

103020 @ 불러봅서?(불러보세요?)

103020 #5 어러러러러 어러러러 허멍 그자.(‘어러러러러 어러러러’ 하면서 그저.)

103020 #4 어량하량 어량하량.(‘어량하량 어량하량’.)

103020 #5 경 허멍 그자 죽짱 ᄇᆞᆯ렷주게.(그렇게 하면서 그저 계속해서 밟았지.)

103020 @ 남테나 돌테, 끙게 이런 건 안 들어봣수과?(남테나 돌테, 끙게 이런 건 안 들어 봤습니까?)

103020 #5 그런 건 안 들어보고.(그런 건 안 들어보고.)

103020 @ 섬피 만예?(끙게 만요?)

103020 #5 섬피허고 그자 ᄇᆞᆯ리는 건만 우린 헤봣주. 다른 건 몰라.(끙게하고 그저 밟는 건만 우린 해봤지. 다른 건 몰라.)

103021 @ 게민 이번은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그러면 이번은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21 #1 싀불도 메곡, 싀불도 메곡, 네 번도 메고.(세벌도 매곡, 세벌도 매곡, 네 번도 매고.)

103021 @ 저 보리보다 검질메는 게 어렵수과?(저 보리보다 김매는 게 어렵습니까?)

103021 #1 예.(예.)

103021 @ 예.(예.)

103021 #1 게난 마갇이가 잘 뒈면은 혼 싀 번 정도 매도 간단간단허게 그 너무 줓인 거.(그러니까 ‘마갇이’가 잘 되면한 한 세 번 정도 매도 간단간단하게 그 너무 잦은 거.)

103021 @ 음.(음.)

103021 #1 너무 줓인 거나 중간에 빼고, 준 거나 빼불어서 일정허게만 살리는 거헤서 뭐 검질은 별로 가끔 잇주만은 검질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뒈고, 검질, 비나

맞인 거는 검질도 많이 나고 뭐 허니까 일력이 더 들어가고.(너무 잦은 거나 중간에 빼고, 잔 거나 빼버려서 일정하게만 살리는 거해서 뭐 김은 별로 가끔 있지만 김에 큰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김, 비나 맞은 거는 김도 많이 나고 뭐 하니까 인력이 더 들어가고.)

103021 @ 검질멜 때 막 검질이 짓이믄 막 힘들어마씨? 보리하고 조하고.(김 맬 때 막 김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보리하고 조하고.)

103021 #1 아이고 뭐 그 비나 맞앙 헌 건 검질 나노민은다가 검질 열 개민 조도 열 개민 그거 뭐 살리젠 허민 조도 메져 불고.(아이고 뭐 그 비나 맞아서 한 건 김 나면 김 열 개면 조도 열 개면 그거 뭐 살리려고 하면 조도 매져 버리고.)

103022 @ 응. 검질이 조허고 비슷헌 검질이 뭐렌 헙니까? 보리는 대오리가 비슷하고.(응. 김이 조하고 비슷한 김이 뭐라고 헙니까? 보리는 대오리가 비슷하고.)

103022 #1 이디선 조밭에 나는 거 제완지라고.(여기선 조밭에 나는 거 바랭이라고.)

103022 @ 제완지. 여름에는 제완지가 무섭구나예?(바랭이. 여름에는 바랭이가 무섭군요?)

103022 #1 예. 겐디 요지금은 외국 뭐 허다가 보니까 세상 본 디 읏인 검질이 풀이 막 나와.(예. 그런데 요즘은 외국 뭐 하다가 보니까 세상 본 데 없는 김이 풀이 막 나와.)

103022 @ 하하하하. 조밧에는 제완지허곡 또 무슨 검질들이 잇습니까?(하하하하. 조밭에는 바랭이하고 또 무슨 김들이 있습니까?)

103022 #1 주로 제완지주게.(주로 바랭이지.)

103022 @ ᄀᆞ라지?(가라지?)

103022 #1 에에, 제완지 검질이라고. 그게 워낙 씨가 많은 거라 노니까.(에에, 바랭이 김이라고. 그게 워낙 씨가 많은 거라 버리니까.)

103022 @ 조하고 비슷헤마씨? 제완지가.(조하고 비슷해요? 바랭이가.)

103022 #1 에?(에?)

103022 @ 조하고 비슷한 검질도 잇덴 헙디다.(조하고 비슷한 김도 있다고 합디다.)

103022 #1 처음 날 때는 요거 이파리 하나 나고 둘 날 때는 비슷비슷허여.(처음 날 때는 요거 이파리 하나 나고 둘 날 때는 비슷비슷해.)

103022 @ 아아.(아아.)

103022 #1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줄 벋는 종자고.(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줄 뻗는 종자고.)

103022 @ 아아.(아아.)

103022 #1 줄 벋는 종자가 우터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제완지엔 헌 건 줄 벋는 검질이주.(줄 뻗는 종자고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랭이라고 한 건 줄 뻗는 김이지.)

103022 @ 줄 벋는 검질예.(줄 벋는 김요.)

103022 #5 조밧딘게 여름 검질 그자.(조밭엔 여름 김 그저.)

103022 #6 제완지.(바랭이.)

103022 #4 제완지도 나고 안 나는 게 엇어.(바랭이도 나고 안 나는 게 없어.)

103022 #5 겨곡 이젠 비료 써가난양, 더 검질이 더 잘 남신게.(그리고 이젠 비료 써가니까요, 더 김이 더 잘 나고 있네.)

103023 @ 그믄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기, 무끼. 조를 벨 때는 보리하고 벨 때하고 틀려마씨?(그러면 조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기, 묶기. 조를 벨 때는 보리하고 조를 벨 때하고 달라요?)

103023 #1 조는 뭐 그자 여하튼 호미로 비어사주.(조는 뭐 그저 여하튼 낫으로 베어야지.)

103023 @ 호미로 베고.(낫으로 베고)

103023 #1 응. 호미로 비고, 이제 호미로 톧고.(응. 낫으로 베고, 이제 낫으로 뜯어.)

103023 @ 아아, 고고리를마씨? 틀로 허는 게 아니고?(아아, 이삭을요? 그네로 하는 게 아니고?)

103023 #1 고고리를 호미로 톧아. 호미로 톧으면은 메타기라고 헌 게 잇어. 그 중간에는 메타기 이제는 올려서 기계로 두드려서 체는 체대로 나가고 쏠은 쏠대로 나오면은 그 쏠 나온 것에 헤가지고 얼마 기계 가진 사람이 쿰을 받아가거든.(이삭을 낫으로 뜯어. 호미로 뜯으면 메타기라고 한 게 있어. 그 중간에 메타기 이제는 올려서 기계로 두드려서 겨는 겨대로 나가고 쌀은 쌀 대로 나오면 그 쌀 나온 거에 해가지고 얼마 기계 가진 사람이 품을 받아가거든.)

103023 @ 그믄 이거 메타가 엇일 때는 보리, 조 클은 엇수과? 조 클.(그러면 이거 메타가 없을 때는 보리, 조 그네는 없습니까? 조 그네.)

103023 #1 그 그거는 물방에에 놔가지고.(그거는 연자방아에 놔가지고.)

103023 @ 고고리채?(이삭째?)

103023 #1 고고리채.(이삭째.)

103023 @ 고고리채. 타작은 안하고?(이삭째. 타작은 안하고?)

103023 #1 고고리채 놔가지고 거기서 둥그리거든.(이삭째 놔가지고 거기서 굴리거든.)

103023 @ 예? 타작은 안 허고? 도리깨는 안하고마씨, 조는?(예? 타작은 안 하고 도리깨로 않고요, 조는?)

103023 #1 아, 조는 도리깨로 뚜려 드리지 안허고.(조는 도리깨로 때려 들이지 않고.)

103023 @ 아아, 그냥 물방에 둥그리는구나. 고고리채예?(아아, 그냥 연자매 굴리는구나. 이삭째요?)

103023 #1 고고리채 그디서 둥그리고 거기서 허면은 그 껍데기가 궤양 쏠만 빠

져.(이삭째 거기서 굴리고 거기서 하면 그 껍데기가 고이 쌀만 빠져.)

103023 @ 아아.(아아.)

103023 #1 쏠만 빠지면은 그 껍데기가 소 양석으로 들어가는 거라 또. 그거 다 뜨로 헤영 헤가지고 집이서 큰 맥에 헤서 흔쪽에 딱 담앙 놔둠서 쉐막 흔쪽에 담앙 놔둠서 그거를 또 쉐를 주면은 쉐가 그렇게 잘 먹어.(쌀만 빠지면 그 껍데기가 소 양식으로 거야 또. 그거 다 따로 해서 해가지고 집에서 큰 멱에 해서 한쪽에 딱 담아 놔두고서 외양간 한쪽에 담아 놔두면서 그걸 또 소를 주면 소가 그렇게 잘 먹어.)

103023 @ 그건 또 저 가마니에 이렇게 놧당, 헛간에라도 놧당, 쉐 주는 거구나예 그냥.(그건 또 저 가마니에 이렇게 놨다가, 헛간에라도 놨다가, 소 주는 거군요 그냥.)

103023 #1 예. 게서 거기서 나오는 거. 붕당채라고 잇어. 조가 안 뒈어서 그냥 채.(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 '붕당채'라고 있어. 조가 안 되어서 그냥 채.)

103023 @ 예. 붕당채.(예. '붕당채'.)

103023 #1 체는 뒈지 양석으로 또 들어가거든.(겨는 돼지 양식으로 또 들어가거든.)

103023 @ 아아, 소만 주는 게 아니고.(소만 주는 게 아니고.)

103023 #1 예.(예.)

103023 @ 또 도새기도 줘예?(또 돼지도 줘요?)

103023 #1 응. 도새기는 조 ᄀᆞ튼 것이 잇주기게.(응. 돼지는 조 같은 것이 있지.)

103023 @ 예.(예.)

103023 #1 조 ᄀᆞ튼 것이 이렇게 조 ᄀᆞ치 소곱에 알멩이가 딴딴헤서 좋은 뭐가 아니고.(조 같은 것이 이렇게 조 같이 속에 알맹이가 단단해서 좋은 뭐가 아니고.)

103023 @ 예.(예.)

103023 #1 껍데기 바람에 잘 날려 가는 건디 똑 조 ᄀᆞ튼 것이 잇어. 붕당채라고 헤서.(껍데기 바람에 잘 날려 가는 건데 꼭 조 같은 것이 있어. '붕당채'라고 해서.)

103023 @ 예예. 조는 아니고?(예예. 조는 아니고?)

103023 #1 예.(예.)

103023 #1 붕당채라고 헤서. 그거는 또 담앙 뜨로 가마니에 놩 트멍에 담앙 놔둠서 뒈지 것 줄 때는 그거 ᄒᆞ쏠 거려놔근에 서껑 주면은 뒈지가 물 하영 주고 헹영, 영 헤나면은 그 겨가 입 주둥이 털에 막 부트고.('붕당채'라고 해서. 그거는 또 담아서 따로 가마니에 놔서 구석에 담아서 놔두고 돼지 밥 줄 때는 그거 조금 떠 놔서 섞어서 주면 돼지가 물 많이 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겨가 입 주둥이 털에 막 붙고.)

103023 @ 하하하. 그 누까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이 누까꽈?(하하하. 그 겨는 또 어디서 나온 것이 겨입니까?)

103023 #1 예?(예?)

103023 @ 건 누까?(건 겨?)

103023 #1 누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겨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103023 @ 보리?(보리?)

103023 #1 옛날에는 방에헌 디 체.(옛날에는 방아한 데 겨.)

103023 @ 예.(예.)

103023 #1 그 물방에 물 버무려가지고 물방애서 돌리면은 그거 이젠 벳디 물리와서 이렇게 불리면은 체는 체대로 나오고, 쌀은 쌀대로 나오면은 그건 또 놧다가 그거 흑쌀 놓고 물 놓곡 헤서 솟 싯인 물, 솟 싯인 물을 버리지를 안허여. 밥 헤난 물. 솟 싯인 물을 헤가지고 그.(그 연자매 물 버무려가지고 연자매서 돌리면 그거 이젠 볕에 말려서 이렇게 불리면 겨는 겨대로 나오고, 쌀은 쌀대로 나오면 그건 또 놨다가 그거 조금 놓고 물 놓고 해서 솥 씻은 물, 솥 씻은 물을 버리지를 않아. 밥 했던 물. 솥 씻은 물을 해가지고 그.)

103023 @ 솟 싯인 물은 뭐 허질 안 허여마씨?(솥 씻은 물은 뭐 하질 않아요?)

103023 #1 뒈지 멕이주게.(돼지 먹이지.)

103023 @ 아, 그난 뭐 허질 안허여. 솟 싯인 물은?(아, 그러니까 뭐 하질 않아. 솥 씻은 물은?)

103023 #1 밥 헤난 솟디 물은 구수허주기게.(밥 했던 솥에 물은 구수하지.)

103023 @ 예예. 거난.(예예. 그러니까.)

103023 #1 구수하니까.(구수하니까.)

103023 @ 숭늉.(숭늉.)

103023 #1 그렇게 잘 먹주게.(그렇게 잘 먹지.)

103023 @ 누까는 이거 보리에서 나온 거꽈?(겨는 이거 보리에서 나온 겁니까?)

103023 #1 예. 허곡 누까옌 이름 지은 거는 그전인 보리 체라고 허거든.(예. 하고 겨라고 이름 지은 거는 그전엔 보리 겨라고 하거든.)

103023 @ 예.(예.)

103023 #1 보리 첸디 누까옌 허민 무수끼에서 돌린 거.(보리 견데 겨라고 하면 '무수끼'에서 돌린 거.)

103023 @ ᄀᆞ레?(맷돌?)

103023 #1 무수끼에서 보리를 놔가지고 물을 적지지 안허고 저 기계에.('무수끼'에서 보리를 놔가지고 물을 묻히지 안하고 저 기계에.)

103023 @ 아아.(아아.)

103023 #1 무수끼에서 돌려가지고 차마 멧 번 돌려서 허면은 그게 ᄆᆞ른 채 가루로 나오거든.('무수끼'에서 돌려가지고 차마 몇 번 돌려서 하면 그게 마른 채 가루로 나오거든.)

103023 @ 예에.(예에.)

103023 #1 껍데기가 벗어져 나온 거. 예. 그것이 누까주기.(껍데기가 벗어져 나

온 거. 예. 그것이 겨지.)

103023 @ 아아. 건 보리하고 관계뒌 거고.(아아. 건 보리하고 관계된 거고.)

103023 #1 그거는 열 받아가지고 헌 거니까 보까지듯 헤서 구수하니까.(그거는 열 받아가지고 한 거니까 볶이듯 해서 구수하니까.)

103023 @ 아아.(아아.)

103023 #1 그건 ᄒᆞ꼼만 놩 물을 흔 바게스 놔도 그 물을 뒈지가 다 먹어.(그건 조금만 놔서 물을 한 '바게스' 놔도 그 물을 돼지가 다 먹어.)

103023 @ 아아.(아아.)

103023 #5 비영 무껑.(베서 묶어서.)

103023 @ 보리허고 똑같아마씨?(보리하고 똑같아요?)

103023 #5 예. 그거 무껑은에 집이 지어올 땐 너 뭇도 지고 닷 뭇도 지고허멍 계속 져다 놩.(예. 그거 묶어서 집에 지어올 땐 네 뭇도 지고 다섯 뭇도 지고하면서 계속 져다 놔서.)

103024 @ 음, 경허민 그 다음은 덩드렁마께[54] 몰방에 ᄎᆞ지하젠 허민 전쟁이겟다예? 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덩드렁마께' 연자매 차지하려고 하면 전쟁이겠네요? 조 타작은 어떻게 합니까?)

103024 #1 딱 지켜 사서 순번을 메겨야 뒈어. 지키당 보믄 너도나도 그 수확을 허젠 허믄 다 이용을 허젠.(딱 지켜 서서 순번을 메겨야 돼. 지키다가 보면 너도나도 그 수확을 하려고 하면 다 이용을 하려고.)

103024 @ ᄀᆞ릅서. 경 헹은에 그렇게 이용헤서 하고 자기 집의 소를 가져서도 허곡, 몰 가져서 허곡.(말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용해서 하고 자기 집의 소를 가져서도 하고, 말 가져서 하고.)

103024 #5 이젠 하나하나 이젠 ᄀᆞᆯ리멍 호미로 ᄐᆞᆫ앙 이젠 담앙 이젠 담앙은에 몰ᄀᆞ래에 강은에 이젠 촘 ᄎᆞ례 ᄆᆞ녀 간 어떤 사람은 강 어떤 사람은 ᄎᆞ례 보기로 헹 그거 허영.(이젠 하나하나 이젠 가리면서 낫으로 뜯어서 이젠 담아서 이젠 담아서는 연자방아에 가서 이젠 참, 차례 먼저 간 어떤 사람은 가서 어떤 사람은 차례 보기로 해서 그거 해서.)

103024 #6 쉐 이신 사람은 연자방에로 돌리고 경 안 헌 사람은 도깨로 두드립니다.(소 있는 사람은 연자방아로 돌리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도리깨로 두드립니다.)

103024 #5 도깨론 경 하영 허젠 허믄 아이고 도깨로 두드리는 것도.(도리깨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 아이고 도리깨로 두드리는 것도.)

103024 #4 아이고, 헤끄만헌 거는 마께로도 뭇고게.(아이고, 자그마한 거는 방망이로도 마고.)

103024 @ 덩더렁마께로 뭇으고? 몰방에로 ᄎᆞ례ᄎᆞ례예? 소 엇인 사람은 소 빌렁이라도? 뭘 줍니까? 소 빌리민.('덩더렁마께'로 마고? 연자매로 차례차례요? 소 없

54) '덩드렁마께'는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를 말한다.

는 사람은 소 빌려서라도? 뭘 줍니까? 소 빌리면.)

103024 #5 출 헤당 멕이고, ᄉᆞ뭇 저.(꼴 해다가 먹이고, 사뭇 저.)

103024 #6 일력 대신 해주곡.(인력 대신 해주고.)

103024 #5 쉐 ᄒᆞ나 빌리민 ᄒᆞ루 강 일 헤내고.(소 하나 빌리면 하루 가서 일 해내고.)

103024 #4 아이고, 쉐 장남 빌어나민 사흘, 쉐, 장남 빌어근에.(아이고 소 장정 빌려나면 사흘, 소, 장정 빌려서.)

103024 #6 장남 빌린 역시, 사흘 헤 주난 어떤 사람은 도깨로 두드려. 마께로 두드리고.(장정 빌린 역시, 사흘 해 주니까 어떤 사람은 도리깨로 두드려. 방망이로 두드리고.)

103024 #4 마께로 두드리는 게 즘네다. 이녁 자유라. 마께로 닥닥닥닥.(방망이로 두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녁 자유야. 방망이로 닥닥닥닥.)

103024 #6 사흘 간 일 해주는 거믄 집이서 한걸이 이녁냥으로 허니까.(사흘 간 일 해주는 거면 집에서 여유롭게 이녁대로 하니까.)

103026 @ 좁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헤줫던 거 기억남수과?(좁쌀로 어머니가 이렇게 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103026 #1 좁쏠은 주로 펭소에는 밥에 서껑 먹고 보리밥에 서끄면은 그렇게 밥맛이 좋아. 풀풀헤영.(좁쌀은 주로 평소에는 밥에 섞어서 먹고 보리밥에 섞으면 그렇게 밥맛이 좋아. 풀풀해서.)

103026 @ 보리밥에.(보리밥에.)

103026 #1 예.(예.)

103026 @ 그 다음 떡은?(그 다음 떡은?)

103026 #1 경허곡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메기 그 저 ᄀᆞ레에 문짝 ᄀᆞᆯ앙, 저 떡을 멩글앙 그냥 영 동글락허게 영 가운디 고망 똫라지게 헹은에 떡을 멩글앙 무큰 솖앙 그거 이제 식으면은 누룩 놔근에 막 젓어근에 허영 술을 ᄃᆞᆼ그거든. 술을 담으면은 ᄒᆞ꼼 오래뒈며는 막 독헤영 우에 뜬 거는 청주라고 헤서 아주 지름 등갈등갈헌[55] 거 그건 뚜로 걸렁 놔두고 잔치 때도 그렇게 헷어. 아쟁이는 막걸리로 헤서 틉틉허게 헤영 먹엉 좋고.(그렇게 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메기' 그 저 맷돌에 푹 갈아서, 저 떡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어지게 해서 떡을 만들어서 푹 삶아서 그거 이제 식으면 누룩 놔서 막 저어서 해서 술을 담그거든. 술을 담으면 조금 오래되면 막 독해서 위에 뜬 거는 청주라고 해서 아주 기름 '등갈등갈한' 거 그건 따로 걸려서 놔두고 잔치 때도 그렇게 했어. 찌꺼기는 막걸리로 해서 톱톱하게 해서 먹어서 좋고.)

103026 @ 아쟁이는예. 막걸리로예. 텁텁헹 좋고 고소리?(찌꺼기는요. 막걸리로요. 톱톱해서 좋고 소줏고리?)

103026 #1 옛날은 우린 그걸 보고 청주라고 헷는디 요즘 그런 걸 보고 동동주

55) '등갈등갈ᄒᆞ다'는 기름기가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렌 안 허여? 우에 껀 똟르민 아주 곱고 지름이 등갈등갈 트고.(옛날은 우린 그걸 보고 청주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걸 보고 동동주라고 안 해? 위에 건 거르면 아주 곱고 기름이 둥둥 뜨고.)

103026 @ 예. 거 고소리 다끈덴 허지 안헙니까?(예. 거 소줏고리 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03026 #1 아니, 그거는 고소리 따끄질 안허고, 오메기떡 헤서는 고소리 다끄지 안허고 어, 고소리에 다끄는 술은 보리.(아니, 그거는 소줏고리 닦지 않고, 오메기떡 해서는 소줏고리 닦지 않고 어, 소줏고리에 닦는 술은 보리.)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보리를 헤가지고 삶앙, 보리를 삶아 가지고 그 시장통에 가면은 그 약이 잇어.(보리를 해가지고 삶아서 보리를 삶아 가지고 그 시장통에 가면 그 약이 있어.)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약을 사다가 허꺼가지고 이제 그 ᄀᆞ렛방석 헌 거 ᄀᆞ튼 거 헤서 탁 더프면은 거기서 곰팡이 피어서 열 받으면은 그걸로 헤 가지고 이제는 물 놩, 저 누룩 놓고 헤가지고 이젠 헤서 항에 담아. 항에 담아 가지고 이제는 그 막 독기가 올라오거든. 누룩은 막 그 알콜 성질로 막 성질 내우는 거니까 독헤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영 헹 먹어 보면은 독기가 막 올라 오랏으면은 그때는 솟디다가 이제 그걸 걸여 놔가지고 솟디 걸여놔서 이제는 고소리를 아쪙 그 솟광 그 고소리 새에 가로무친 거 헤가지고 딱 막앙 저 막아가지고 우에 물 놓고 받는 것이 받이펭[56]이라고 헤서 이제 고소리 줏더레 ᄀᆞ져 강 찔르면은 그레 그 수증기라 헤서 펭더레 소주가 빠지거든. 그렇게 헤서 소주를 헤 먹는 거고. 오메기떡 헤서 허는 거는 그 다끄질 안 허는 거.(약을 사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그 맷돌방석 한 거 같은 그거 해서 탁 덮으면 거기서 곰팡이 피어서 열 받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는 물 놔서, 저 누룩 놓고 해가지고 이젠 해서 항에 담아. 항에 담아 가지고 이제는 막 독기가 올라오거든. 누룩은 막 그 알코올 성질로 막 성질 내우는 거니까 독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독기가 막 올라왔으면 그때는 솥에다가 이제 그걸 떠 놔가지고 솥에 떠 놔서 이제는 소줏고리를 걸어 그 솥과 그 소줏고리 사이에 가로 붙인 거 해가지고 딱 막아서 저 막아가지고 위에 물 놓고 받는 것이 '받이펭' 이라고 해서 이제 소줏고리 귀때에 가져 가서 찌르면 거기 그 수증기라 해서 병에 소주가 빠지거든. 그렇게 해서 소주를 해 먹는 거고. 오메기떡 해서 하는 거는 그 빚지를 안 하는 거.)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막걸리로 먹고 우에 거는 청주로 헤서 고급손님이나 집이 제사 때에는 웃뽕[57]으로 헤서 이제 제주로 쓰고.(막걸리로 먹고 위에 거는 청주로 해서 고급

56) '받이펭'은 '바주펭'이라고도 하며 술을 고아 낼 적에 소줏고리 귓대에 대는 병을 말한다.
57) '웃봉'은 손대기 전에 맨 처음 뜨거나 덜어내는 것을 말한다.

손님이나 집에 제사 때에는 '웃봉'으로 해서 이제 제주로 쓰고.)

103026 @ 아아, 웃봉으로는 제주로 쓰고예? 밑엣 건 아젱이가 막걸리로 텁텁헤 가지고.(아아, '웃봉'으로는 제주로 쓰고요? 밑엣 건 찌꺼기가 막걸리로 텁텁해가지고.)

103026 #1 예.(예.)

103026 @ 그것이 오메기떡 헤가지고 그믄 영 잘 알암수과? 어머니가 영 헤 줜마씨? 아니면?(그것이 오메기떡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해 줬어요? 아니면?)

103026 #1 어머니가 그걸 쭉 헷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헷고.(어머니가 그걸 쭉 했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고.)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우리 아버지네 그룹이 너인디, 저쪽 동네사람 혼 사름, 요쪽 동네사람 혼 사름, 우리는 요기 살 때 혼 사름, 이 동네사름 혼 사름, 너이 헤가지고 그 한걸헌 절리에는 돌아가면서 먹어. 이 집이서 먹으면 이 집이서 먹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먹으면은 집이 오고 허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 허니까 잘 알주기.(우리 아버지네 그룹이 넷인데, 저쪽 동네사람 한 사람, 요쪽 동네사람 한 사람, 우리는 요기 살 때 한 사람, 이 동네사람 한 사람, 넷 해서 그 한가한 절기에는 돌아가면서 먹어. 이 집에서 먹으면 이 집에서 먹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먹으면 집에 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 하니까 잘 알지.)

103026 @ 아우게.(아우.)

103026 #1 고소리가 우리 집에 잇어.(소줏고리가 우리 집에 있어.)

103026 @ 아, 고소리가마씨?(아, 소줏고리가요?)

103026 #1 예.(예.)

103026 @ 사진 한 장 찍어야 뒈쿠다.(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습니다.)

103026 #1 우리 집 고소리가 있는디 나는 필요가 없거든. 술을 안 먹으니까.(우리 집 소줏고리가 있는데 나는 필요가 없거든. 술을 안 먹으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술을 안 먹고, 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술을 안 먹고, 나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술 담배가 필요 엇이난, 우리 집이 셋아덜이 제주시에 사는디 아버지 이거 나 ᄀᆞ져가쿠다. ᄀᆞ져 가라게.(술 담배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에 둘째아들이 제주시에 사는데 아버지 이거 나 가져가겠습니다. 가져 가라.)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게난 이제 제주시에 강 잇어.(그러니까 이제 제주시에 가서 있어.)

103026 @ 아아. 거 나중에 박물관에라도게 기증허면?(아아. 거 나중에 박물관에라도 기증하면?)

103026 #1 게난 그 유리로 뭰 장태.(그러니까 유리로 된 장태.)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물 놔가지고 허는 거 잇는데 그 장태가 딱 부텃주게. 고소리에. 딱 부뜨난 그거 이제 유리 두둑허게 이런 거 헤다 놘 동글락허게 헤다 놩 딱 놩 이제 집에 잇어.(물 놔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장태가 딱 붙었지. 고소리에. 딱 붙으니까 그거 이제 유리 두둑하게 이런 거 해다 놔서 동그랗게 해다 놔서 딱 놔서 이제 집에 있어.)

103026 @ 이제 그런 것들이 장식품으로 이제는 뭐 허긴 허는데.(이제 그런 것들이 장식품으로 이제는 뭐 하긴 하는데.)

103026 #1 지금 고소리 잇인 집도 멧 엇일 걸?(지금 소줏고리 있는 집도 몇 없을 걸?)

103026 @ 엇수다게. 아무도게 박물관에나 강 보믄.(없습니다. 아무도 박물관에나 가서 보면.)

103026 #1 그 고소리를 어디서 만든 거고? 허니까 허면은 구억리에서 만든 거라.(그 소줏고리를 어디서 만든 거니? 하니까 하면 구억리에서 만든 거야.)

103026 @ 아아, 거 기록헹 놔 둬야켜예. 이렇게.(아아, 기록해서 놔 둬야겠네요. 이렇게.)

103026 #1 고소리 그릇 멘드는게 전문이랏주게.(소줏고리 그릇 만드는 게 전문이었지.)

103026 @ 예. 그 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헤도 전통을 이으니까 그분들은.(예. 그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해도 전통을 이으니까. 그분들은.)

103026 #1 고소리 드물 거라.(소줏고리 드물 거야.)

103026 @ 구억리 것이 있구나게. 세상에! 음. 경 헤근에 오메기떡은 예펜삼춘이 잘 허진 못 헷고?(구억리 것이 있구나. 세상에! 음 그렇게 해서 오메기떡은 여자삼촌이 잘 하진 못했고?)

103026 #1 우리 어머니가 허여.(우리 어머니가 해.)

103026 @ 게난 메누리는?(그러니까 며느리는?)

103026 #1 우리 어머니가 허여. 아 메누리는 못허지게. 우리 어머니가 살아 이시민 백 열 일곱이라.(우리 어머니가 해. 아 며느리는 못하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백 열 일곱이야.)

103026 @ 그거를 살아 이실 때 전수 받아시믄 문화재 뭴 건디 성읍에도 그런 거 하나 잇어예.(그거를 살아 있을 때 전수 받았으면 문화재 될 건데 성읍에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103026 #1 우리 집 사람이 온 때는 그런 막걸리를 설러 부린 때, 아버지 돌아가셔 불고 나니까 나는 술이 필요 업서.(우리 집 사람이 온 때는 그런 막걸리를 그만둬 버린 때, 아버지 돌아가셔 버리고 나니깐 나는 술이 필요 없어.)

103026 @ 봐난 거렌 얘기 할 수 잇는 거로구나예. 많이 봐나난.(봤었던 거라고

애기 할 수 있는 거로군요. 많이 봤었으니까.)

103026 #1 아, 집이서 헤난 거 자꾸 봐나니까 게서 우리 어머니 혼자고 누님덜은 엇이니까 나가버리니까 저디 강 저 그릇 ᄀᆞ져오라. 저 그릇 ᄀᆞ져오라. 허니까 주위에서 나가 집 지길 허니까 그거를 사실을 잘 보니까 그건 서툴지 안허주게.(아, 집에서 했었던 거 자꾸 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혼자고 누님들은 없으니까 나가버리니까 저기 가서 저 그릇 가져와라. 저 그릇 가져와라. 하니까 주위에서 내가 집지킴일 하니까 그거를 사실을 잘 보니까 그건 서툴지 않지.)

103026 @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감주도 어머니가 잘 헤줘낫수과?(아이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감주도 어머니가 잘 해줬었습니까?)

103026 #1 예.(예.)

103026 @ 감주, 감주, 감주는 어떵 허는지 알아져마씨?(감주, 감주, 감주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3026 #1 알아지주게. 감주를 헐라하면은 ᄀᆞᆯ이 좋아야 뒈어.(알지. 감주를 하려면 골이 좋아야 돼.)

103026 @ 보리골예?(‘보리골’이요?)

103026 #1 보리 잘 만들어서 잘 말리면은 그냥 골을 우리가 씹어 먹어도 ᄃᆞᆯᄏᆞᄅᆞᆷᄒᆞ거든. 예. 게민 그걸 ᄀᆞᆯ아. ᄆᆞ레에 ᄀᆞᆯ아.(보리 잘 만들어서 잘 말리면 그냥 골을 우리가 씹어 먹어도 달콤하거든. 예. 그러면 그걸 갈아. 맷돌에 갈아.)

103026 @ ᄆᆞ레에?(맷돌에?)

103026 #1 갈아. ᄆᆞ레에 ᄀᆞᆯ아가지고 이제는 오메기떡, 오메기떡.(갈아. 맷돌에 갈아가지고 이제 오메기떡, 오메기떡.)

103026 @ 아아, 걸로 오메기떡을 만들어마씨?(아아, 걸로 오메기떡을 만들어요?)

103026 #1 오메기떡을 삶아 노면은 그게 식어. 식영.(오메기떡을 삶아 놓으면 그게 식어. 식혀서.)

103026 @ 이거 보리쌀이 아니고 좁쌀이꽈?(이거 보리쌀이 아니고 좁쌀입니까?)

103026 #1 좁ᄊᆞᆯ로 허는 거주게. 오메기떡.(좁쌀로 하는 거지. 오메기떡.)

103026 @ 아아, 좁ᄊᆞᆯ로 물 영 노믄, 싹이 나는 것꽈?(아아, 좁쌀로 물 이렇게 놓으면, 싹이 나는 겁니까?)

103026 #1 그 좁ᄊᆞᆯ로 허면은, 오메기떡을 허면은 가운데 요영 동글락허게 요렇게 만들아.(그 좁쌀로 하면, 오메기떡을 하면, 가운데 요렇게 동글락하게 요렇게 만들어.)

103026 @ 예. 영 네 손가락 꼭 찔르지 안읍니까?(예. 이렇게 네 손가락 꼭 찌르지 안 합니까?)

103026 #1 손ᄭᆞ락만 헐 게 아니라 손ᄀᆞ락이 두 개 돌아갈 정도로 만들아. 구멍을 크게.(손가락만 할 게 아니라 손가락이 두 개 돌아갈 정도로 만들어. 구멍을 크게.)

103026 @ 구멍이 보여마씨?(구멍이 보여요?)

103026 #1 으.(응.)

103026 @ 아아, 담 고망처럼.(아아, 담 구멍처럼.)

103026 #1 구멍을 이 정도는 맨들아.(구멍을 이 정도는 만들어.)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이 정도는 맨들아 가지고 요렇게 헤서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솟데다가 삶아. 솟데다 삶으면은 솖아난 물도 풀풀허여.(이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제 솥에다가 삶아. 솥에다 삶으면 삶았던 물도 풀풀해.)

103026 @ 예.(예.)

103026 #1 그러면 장태에 다락에, 요즘.(그러면 장태에 다락에, 요즘.)

103026 @ 아아 장태가 나무꽈? 장태가, 나무?(나무입니까? 장태가, 나무?)

103026 #1 옛날은 장태주게.(옛날은 장태지.)

103026 @ 나무, 나무로 뭰 것꽈?(나무로 된 겁니까?)

103026 #1 장태는 이 흙으로 만드렁 구운 거.(장태는 이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항 만드는 것 같이.(항 만드는 것 같이.)

103026 @ 사기.(사기.)

103026 #1 요지금 곹으민 다라, 다라같이 만든 거. 춤 더운 때는 안 섞어. 시그면은 골도 서끄고 누룩도 그 누룩이 또 좋아야 뒈어. 누룩이 밀 누룩이 좋다고 헤여.(요즘 같으면 다라, 다라같이 만든 거 더운 때는 안 섞어. 식으면 골도 섞고 누룩도 그 누룩이 또 좋아야 되어. 누룩이 밀 누룩이 좋다고 해.)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보리누룩보단 보리누룩은 약허고.(보리누룩보다 보리누룩은 약하고.)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밀 누룩이 좋다고 헤서 주로 여기서 밀재배를 허거든. 토종 밀.(밀 누룩이 좋다고 해서 주로 여기서 밀재배를 하거든. 토종 밀.)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옛날은 토종밀 헤가지고 그거 골아가지고 물 젹져서 이제는 콱허게 저 요런 그릇에 헤다 꽉 붋아가지고 다다 떠내면은 그 놈을 이제는 뜩신디 검질 소곱 같은디 팍 묻엉 놔 두면은 곰팡이 피어서 이제 물르고 썩고 허거든. 곰팡이가 피어. 게서 잘 뒈면은 소곱에 잘 뭰 거는 빨강케 꽃이 피어. 누룩에도.(옛날은 토종밀 해가지고 그거 갈아가지고 물 축여서 이제는 콱하게 저 요런 그릇에 해다가 콱 밟아가지고 그대로 떠 내면 그 놈을 이제는 따뜻한데 김 속 같은데 팍 묻어. 거 놔 두면 곰팡이 피어서 이제 마르고 썩고 하거든. 곰팡이가 피어 그래서 잘 되면 속에 잘 된 거는 빨갛게 꽃이 피어. 누룩에도.)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누룩에도. 꽃이 피엉 ᄆᆞ르면은 그놈을 이제는 마께로 막 ᄲᅡ사. 마께로 막 ᄲᅡ사가지고 누룩 서끄고 골 서끄고 헤가지고 이제는 그 솖아난 물 도ᄀᆞ리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는 또 물을 더 놔가지고 문닥허게 이제는 막 풀롸. 그 떡을. 막 어느 정도 풀롸서 알맞은만헌 항망데기, 망데기[58]레 이젠 다 놔두민 바글바글 막 독기 올랑 뭘 허거든. 막 올른 다음에는 성질이 난 다음에는 가만이 가라안자.(누룩에도. 꽃이 피어서 마르면 그놈을 이제는 방망이로 막 빻아. 방망이로 막 빻아서 누룩 섞고 골 섞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삶았던 물 함지박에 놓고 그래서 이제는 또 물을 더 놔가지고 문닥허게 막 이제는 막 풀려. 그 떡을. 막 어느 정도 풀려서 알맞을 만한 항'망데기' '망데기'에 이젠 다 놔두면 바글바글 막 독기 올라서 뭘 하거든. 막 오른 다음에는 성질이 난 다음에는 가만히 가라앉아.)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게서 우에는 보따리, 보따리 고운 거헤서 항 우에 이렇게 탁 묶어가지고 딱 놔두거든. 게서 공기는 흡수뒈게.(그래서 위에는 보따리, 보따리 고운 거해서 항 위에 딱 묶어가지고 딱 놔두거든. 그래서 공기는 흡수되게.)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남은 ᄆᆞᆫ지나 뭣은 못 들어가게 그렇게 헤서, 이젠 또 항아리 단지채로 더펑 놔뒷다가.(남은 먼지나 뭣은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이젠 또 항아리 단지채로 덮어서 놔뒀다가.)

103026 @ 단지에.(단지에.)

103026 #1 한 참 오레시민, 자꾸 올아보면은 영 손으로 먹어보면은 독기도 좋고, 우에 뜬 거는 거려가지고 따로 놔둬. 그거는 아주 뭐 일류 고급주거든.(한참 오래있으면, 자꾸 열어보면 이렇게 손으로 먹어보면 독기도 좋고, 위에 뜬 거는 떠가지고 따로 놔둬. 그거는 아주 뭐 일류 고급주거든.)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일류 고급주라. 게서 밑에 거는 그냥 막걸리로 먹는데, 너무 뒈면은 그걸 혼잔 그레 놔서 영 둘렁은 술 먹는 사람은 먹으민 하 좋다. 수염이 돋은 늙은 하르방 많이 이실 때라. 수염이 이렇게 덤방허[59]면은 그 이 바농상지에 가위헤다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 거 요렇게 거울 봥, 경 안한 사람은 걸쳐져. 탁배기 먹어나민 입에 부트거든. 부트면은 요렇게 헤서 흘긋 뿔 아먹어.(일류 고급주라.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막걸리로 먹는데, 너무 되면 그걸 한잔 거기 놔서 이렇게 둘러서 술 먹는 사람은 먹으면 하 좋다. 수염이 돋은 늙은 할아버지 많이 있을 때라. 수염이 이렇게 '덤방하'면 그 바늘상자에 가위해다 두둑한 가위로 튀어난 거 요렇게 거울 봐서, 그렇게 안한 사람은 묻어. 탁배기 먹고 나면 입에 붙거든. 붙으면 요렇게 해서 흘긋 빨아먹어.)

58) '망데기'는 항아리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59) '덤방하다'는 풀 따위가 무성함을 뜻한다.

103026 @ 하하.(하하.)

103026 #1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같애. 요렇게 뿔아먹어.(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같아. 요렇게 빨아 먹어.)

103026 @ 아아, 감주는 그냥 달콤허난 술이 아닌 줄 알아신디.(아아, 감주는 그냥 달콤하니까 술이 아닌 줄 알았는데.)

103026 #1 아, 그거는 감주는 뚜로 좁쏠허면은 그거 허면은.(아, 그거는 감주는 따로 좁쌀하면은 그거 하면.)

103026 @ 이건 탁베기 얘기 허는 거고.(이건 '탁베기' 얘기 하는 거고.)

103026 #1 골 놓고 헹 허면은 막 딸려.(골 놓고 해서 하면은 막 딸려.)

103026 @ 예.(예.)

103026 #1 딸려서 그디 쪼끔 건더기는 뭐 헤 두고 양이 많아. 물 놔서 허면 잘 딸리면 감주를 먹으면 돌미용헤서 좋고, 덜 딸린 감주는 먹으면은 설사허여.(딸려서 거기 조금 건더기는 뭐 해 두고 양이 많아. 물 놔서 하면 잘 딸리면 감주를 먹으면 달콤해서 좋고, 덜 딸린 감주는 먹으면 설사해.)

103026 @ 아아.(아아.)

103026 #1 게난 감주는 딸리닥이 더 맛이 좋고, 그거 ᄒᆞ썰 덜 딸려졋다 허면은 배탈 난다고 허거든.(그러니까 감주는 딸릴수록 더 맛이 좋고, 그거 조금 덜 딸려졌다 하면은 배탈 난다고 하거든.)

103026 @ 이것도 좁쌀로 딸리는 것꽈?(이것도 좁쌀로 딸리는 겁니까?)

103026 #1 예. 감주 좁쌀로 딸리주.(예. 감주 좁쌀로 달이지.)

103026 @ 좁쌀로 그냥 보리 골 놩? 골 놔가지고?(좁쌀로 그냥 보리 골 놔가지고?)

103026 #1 응. 골 그것밖에 아니고 골허고 좁쏠 숢아 가지고 그거 헹 막 무르쒜영.(응. 골 그것밖에 아니고 골하고 좁쌀 삶아 가지고 그거 해서 막 주물러서.)

103026 @ 좁쏠 숢앙은에예?(좁쌀 삶아서요?)

103026 #1 응. 그걸 막 드르 무르 쒜여가지고 잔데에 담으면은 건더기는 빠지고 물로 막 나올 거 아니라. 그럼 그걸 그냥 막 딸리는 거라.(응. 그걸 막 계속 짓무르게 주물러 가지고 잔대에 담으면 건더기는 빠지고 물로 막 나올 거 아니라. 그럼 그걸 그냥 막 딸리는 거라.)

103026 @ 막 딸려.(막 딸려.)

103026 #1 게난 요지금 사람덜은 곤쏠로 해가지고 허니까 식혜, 그 쌀 그냥 막 들어가는디 옛날 감주에는 그런 쌀이 들어가지 못허게 자루 멘들아 가지고 담아가지고 짜버리거든.(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흰쌀로 해가지고 하니까 식혜, 그 쌀 그냥 막 들어가는데 옛날 감주에는 그런 쌀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루를 만들아 가지고 담아가지고 짜버리거든.)

103026 @ 짜고.(짜고.)

103026 #1 짜서 그러니까 그거 ᄃᆞ는 거는 골이 좋아야.(짜서 그러니까 그거 단

거는 골이 좋아야.)

103026 @ 골이 좋아야. 달다예. 골이 좋아야 달콤하다는 말이지예?(골이 좋아야. 달군요. 골이 좋아야 달콤하다는 말이지요?)

103026 #1 게난 우리 집이 할망이, 우리집이 샛아덜이 관광버스 몰거든 관광버스 하나 사가지고 회사에 들어 가가지고 관광버스 다니는데.(그러니까 우리 집에 할머니, 우리집에 둘째아들이 관광버스 몰거든. 관광버스 하나 사가지고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관광버스 다니는데.)

103026 @ 아덜이 네명이과? 아덜이 넷?(아들이 네 명입니까? 아들이 넷?)

103026 #1 응? 아니 다섯인디 둘은 죽어부난 셋인디, 둘째아덜이 관광버스 허는데 어머니 감주 같은 거라던지 그 소주 만드는 술, 뭣을, 걸 아니까 가이도 아니까 헙센 허니까 헙서. 허면은 장사가 뭴 거우다. 헤서 헤도 에에 아니 나 안 허켜.(응? 아니 다섯인데 둘은 죽어버리니까 셋인데, 둘째아들이 관광버스 하는데 어머니 감주 같은 거라든지 그 소주 만드는 술, 뭣을, 걸 아니까 걔도 아니까 하자고 하니까 하십시오. 하면 장사는 될 겁니다. 에에 아니 나 안 한다.)

103026 @ 어머니가?(어머니가?)

103026 #1 이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부난 춤, 나도 골친디 모든 걸 우리 집 사람도 술허고 감주허는 거는 잘 알주게.(이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버리니까 참, 나도 골친데 모든 걸 우리 집 사람도 술하고 감주하는 거는 잘 알지.)

103026 @ 아오야.(아오.)

103026 #1 잘 아는 디 이젠 오락가락 헤노니까.(잘 아는데 이젠 오락가락해버리니까.)

103026 @ 그렇구나. 아유, 세상에.(그렇구나. 아유, 세상에.)

103026 #1 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 술 그런 걸 좋아해나니까 항상 뭘 허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항상 메누리를 칭찬허고, 는 손맛이 좋아. 너는 손맛이 좋아. 영 헤낫주게.(우리 아버지가 워낙 그 술 그런 걸 좋아했었으니까 항상 뭘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항상 며느리를 칭찬하고, 넌 손맛이 좋아. 너는 손맛이 좋아. 이렇게 했었지.)

103026 @ 아깝다예.(아깝네요.)

103026 #1 놉 빌엉 일을 허젠 허면은 내불라 나허켜. 이런 든 술을 누게 주느니? 이렇게 허면서 이제 살아왓주게.(일꾼 빌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버려라. 나 하겠다. 이런 단 술을 누구 주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왔지.)

103026 #5 술, 저 감재 썰어 놩 밥도 헹 먹고, 다시 이제 그거 물 컹 골아당은에 방애 강 골아당, 뻐심잉가 골민가 헤당 이젠 걸로 오매길 헤영 궤기도 허고, 식게도 허영 침떡허영 식게도 허고, 그걸로 다 아니 헌 게 어서 다 그걸로만 헹 살안.(술, 저 고구마 썰어놔서 밥도 해서 먹고, 다시 이제 그거 물 커서 갈아다가 방아 가서 갈아다가, 빻든가 갈든가 해다가 이젠 걸로 오매길 해서 고기도 하고, 제사도 해서 시루떡해서 제사도 하고, 그걸로 다 안 한 게 없어. 다 그거로만 해서 살았

어.)

103026 @ 좁팝, 떡, 감주, 술?(조밥, 떡, 감주, 술?)

103026 #5 감준 다시 조팝 헤영 놧당, 그레 콩 섞엉, 물 놩 젓엉 놧당, 혼 혼 내놔두민 ᄒᆞ쏠 ᄇᆞ그레기 궤어가민 먹어보민 둘ᄏᆞᆷ허민 이젠 걸러, 이젠 채로 받앙 ᄆᆞᆫ딱 하나하나 다 거 좁쏠에 꺼 ᄆᆞᆫ딱 빠지게 거죽만 넹경 ᄆᆞᆫ딱 쫍찔아 ᄋᆞ경, 이젠 그걸 이제 솟디 담앙 이젠 더 딸리는 거라 알로 불솜앙 계속 젓고, 경 허멍 허는 거.(감준 다시 조밥해서 놨다가, 거기에 콩 섞어서, 물 놔서 저어서 놨다가, 한동안 놔두면 조금 'ᄇᆞ그레기' 궤어가면 먹어보면 달콤하면 이젠 걸러, 이젠 채로 받아서 모두 하나하나 다 거 좁쌀에 거 모두 빠지게 거죽만 남겨서 모두 짜서, 이젠 그걸 이제 솥에 담아서 이젠 더 딸리는 거라, 아래로 불 때서 계속 젓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103026 @ 떡은 뭐 침떡?(떡은 뭐 시루떡?)

103026 #5 침떡도 헹 먹고, 좁쏠론 침떡도 헹 먹고, 영장밧디 가젠허민 돌래도 해서 가고, 침떡도 헤사 가고, 경 허연 엿날엔 그걸로만.(시루떡도 해서 먹고, 좁쌀론 시루떡도 해서 먹고, 장지에 가려고하면 '돌래'도 해서 가고, 시루떡도 해서 가곡, 그렇게 해서 옛날엔 그거로만.)

103026 @ 조팝만 헹도 먹어낫지예?(조밥만 해도 먹었었지요?)

103026 #5 조팝만 헹, 살락살락, 우리 이 청수는 저 땅이 뒈니까, 경 허지 안허는디 땅 식은디 조팝은 모여. 너미.(조밥만 해서, '사락사락', 우리 이 청수는 저 땅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땅 식은데 조밥은 메져. 너무.)

103026 #6 요 웃동네렌 모녀 ᄲᅥᆨ상 먹어야 뒈여. 맛시리같은 건.(요 윗동네라고 먼저 빻아서 먹어야 돼. '맛시리'같은 건.)

103026 #5 살락살락 우린 경은 안해봐신디 그추룩 뜬 밧디 밥이고 보리밥이고 안해신디.('사락사락' 우린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뜬 밭에 밥이고 보리밥이고 안했는데.)

103026 #6 조로 가. 조로 맛시린 완전 저.(조로 가. 조로 '맛시린' 완전 저.)

103026 #5 조시린 막 흐리고, 조시린 막 흐려.('조시린' 막 흐리고, '조시린' 막 흐려.)

103026 #6 조시리도 흐리고, 마께시리도 흐리고, 벙데기도 흐리고.('조시리'도 흐리고, '마께시리'도 흐리고, '벙데기'도 흐리고.)

103026 @ 조시리, 마께시리.('조시리', '마께시리'.)

103026 #5 검은 조, 노랑 조.(검은 조, 노랑 조.)

103026 #4 아이고, 검은 조 나건 디가 언제라? 게난 건 찍도 잘나고, 맛도 좋고, 옛날은 맛시리[60] 모힌 조.(아이고, 검은 조 날 때가 언제라? 그러니까 건 짚도 잘나고, 맛도 좋고, 옛날은 '맛시리' 메조.)

103026 #5 강돌와리, 모살시리, 게도 강돌와리가 제일 맛좋아. 제일 맛좋아.('강

60) '맛시리'는 쌀알이 잘고 메진 조의 한가지로 조의 종류를 말한다.

돌와리', '모살시리' 그래도 '강돌와가' 제일 맛좋아. 제일 맛좋아.)

103026 #6 덩데기, 덩데기는 막 흐린 거.('덩데기', '덩데기'는 막 흐린 거.)

103026 @ 덩데기는 막 흐린 거. 아홉 가지가 있덴 헨게 정말?('덩데기'는 막 흐린 거 아홉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정말?)

103027 @ 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찍?(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짚?)

103027 #1 조찍도 농사에 해난 껍데기는 전부 소양석이라.(조짚도 농사에 했었던 껍데기는 전부 소양석이라.)

103027 @ 소 양석? 조찍도예? 눌 헤놧당.(소 양석? 조짚도요? 가리 해놨다가.)

103027 #1 다 눌어놧당. 고고리 ᄐᆞ다 놓으민 그거 일일이 깨끗허게 잘 ᄆᆞᆯ령가지고 잘 눌엉, ᄂᆞ람지 더껑 딱 허게 보관헷다가, 그 밧디서 풀 베어 ᄆᆞᆯ린 것도 주고, 트멍에 그것도 주고, 콩꼬질, 콩겁데기도 주고, 감자넝쿨도 ᄆᆞᆯ렷다가 주고, 이렇게 헤야지. 소가 골고루 먹는다고 한 가지만 멕이질 안 헤. 사람도 이것도 트멍에 먹고, 식당에도 흔 번 먹고 집이서도 먹고 돈 아까운 사람은 집이서만 허여 먹는 사람도 잇주만은, 이제 직금 우리가 다니다가 영 식당에 가보면은 가족단위로도 먹고, 못 젼디게 일 허다가도 회식도 허고, 이렇게 허는데 못 허는 사람이 많주게.(다 기리어 놨다가. 이삭 따다 놓으면 그거 일일이 깨끗하게 잘 말려가지고 잘 가리어서, 이엉 덮어서 딱 하게 보관했다가, 그 밭에서 풀 베어 말린 것도 주고, 틈에 그것도 주고, 콩짚, 콩 껍데기도 주고, 고구마넝쿨도 말렸다가 주고, 이렇게 해야지. 소가 골고루 먹는다고 한 가지만 먹이질 않아. 사람도 이것도 사이에 먹고, 식당에도 한 번 먹고 집에서도 먹고 돈 아까운 사람은 집에서만 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직금 우리가 다니다가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가족단위로도 먹고, 못 견디게 일 하다가도 회식도 허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많지.)

103028 #5 건 걸름허영 지근지근 보리갈앙.(건 거름으로 질근질근 보리 갈아서.)

103028 #4 아이고, 먹고 말고 배고팡.(아이고, 먹든지 말든지 배고파서.)

103028 #5 조찍 엇엉 못 먹주. 엇엉.(조짚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103027 @ 어성 못 먹으민 이거 통시에는 보리짚을 놓주. 이거 아까우쿠다.(없어서 못 먹으면 이거 돼지우리에는 보리짚을 넣지. 이거 아깝겠네요.)

103028 #5 아니, 그냥 아니 쉐 먹어난 등치 먹지 못헐 건 그거해당 통더레 담는 거.(아니, 그냥 아니 소 먹어난 등치 먹지 못할 건 그거 해다가 통에 담는 거.)

103027 @ 조찍은 그거 쉐 아니믄예? 그거 걸름예?(조짚은 그거 소 아니면 그거 거름요?)

103028 @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조코고리가 드랑드랑[61]허다 뭐 어른덜 조에 관한 얘기덜.(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이삭이 '드랑드랑하다' 뭐 어른들 조에 관한 얘기들.)

103028 #1 조팟이 잘 뒈면은 처음에 조를 흔줌 비영 영 허면은 밧이 전체 흥갈

61) '드랑드랑하다'는 굵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음을 뜻한다.

흥갈헌다허는 말이 잇어. 조가 혼뿜, 혼뿜반씩은 나거든. 잘뒈며는.(조밭이 잘 되면 처음에 조를 한줌 베어서 이렇게 하면 밭이 전체 '흥갈 흥갈'한다 하는 말이 있어. 조가 한 뺨, 한 뺨 반씩은 나거든. 잘 되면.)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그러면은 이놈이 이레 얼거지고 이놈이 얼거지민 이렇게 허니까 혼줌허면 낭 싀 개 아니민 늬 개 쯤 쥐민 혼줌이 ᄀᆞ득아 불어.(그러면 이놈이 이리로 얽혀지고 이놈이 얽혀지면 이렇게 하니까 한줌하면 나무 세 개 아니면 네 개쯤 쥐면 한줌이 가득 해버려.)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그러면은 이놈을 이렇게 둥기민 밧전체가 흥갈흥갈한다고 허여.(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당기면 밭전체가 '흥갈흥갈'한다고 해.)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겐 얼른 뜨질 못허여.(그래서 얼른 떠나질 못해.)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호미 놔두고 이디선 호미를 낫이렌 허주게. 호미, 요렇게 놓고 버금엔 요렇게 놓고 허면은 고고리가 영 뒈면은 버금에 요마니 헤 논 다음에 ᄃᆞ시 다시 놓고 허민 망텡이, 멕 갖다 다 영 놓아가지고 툭툭툭툭 비는 뒤에는 남자는 이것도 무꺼야 쉐멕여야 뒈니까 비 마찌민 안뒈여.(낫 놔두고 여기선 낫을 낫이라고 하지. 낫 요렇게 놓고 다음엔 요렇게 놓고 하면 이삭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요만큼 해 논 다음에 또 다시 놓고 하면 '망텡이', 멱 갖다 다가 여기 놓아가지고 툭툭툭툭 베는 뒤에는 남자는 이것도 묶어야 소 먹여야 되니까 비 맞히면 안 돼.)

103028 @ ᄒᆞ꼼 헹 고고리 ᄐᆞᄃᆞ앙 허고 ᄒᆞ꼼헹 고고리 톹앗수과? 아니믄 다.(조금 해서 이삭 뜯어서 하고 조금 해서 이삭 뜯었습니까? 아니면 다.)

103028 #1 다 ᄐᆞᄃᆞ는디 가끔 이따가 트멍에 넘어가는 수 가 잇어. ᄐᆞᄃᆞ앙 데껴주고 경 안허민 조코고리가 잇으면은 쥐가 들어서 막 눌엉 놔두민 짤라불어.(다 뜯는데 가끔 이따가 사이에 넘어가는 수 가 있어. 뜯어서 던져주고 쥐가 들어서 막 가리어서 놔두면 잘라버려.)

103028 @ 아아. 게난 아 더껑 놔두고 경헤야켜예.(그러니까 아 덮어 놔두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103028 #1 눌엉 놔뒀당은에 소.(가리어서 놔뒀다가 소.)

103028 @ 주고.(주고.)

103028 #1 예.(예.)

103028 @ 고고리는 빨리 톹앙 어디 놔두고.(고고리는 빨리 톹앙 어디 놔두고.)

103028 #1 겐디 보릿낭은 그때 잘 안 먹어서.(그런데 보릿대는 그때 잘 안 먹었어.)

103028 @ 예.(예.)

103028 #1 보릿낭은 잘 안 먹는데 소 걸름을 내엉 그레 깔면은 이따가 혼장내

지 두 장은 먹어도 보릿낭은 쉐 양석이 안뒈는데 조, 콩, 감젯줄, 이제 벳찔.(보릿대는 잘 안 먹는데 소 거름을 내어서 거기 깔면 이따가 한 장내지 두 장은 먹어도 보릿대는 소양식이 안되는데 조, 콩, 고구마 줄, 이제 볏짚.)

103028 @ 벳찔, 산듸 찍도?(볏짚, 밭벼 짚도?)

103028 #1 곡식에 대한 그 넝쿨은 전부 쉐 양석으로 버릴게 하나도 없어.(곡식에 대한 그 넝쿨은 전부 소 양식으로 버릴게 하나도 없어.)

103028 @ 예.(예.)

103028 #1 게서 전부 쉐 양석 먹어나민 전부 통지에 담아가지고 퉤비를 만드는 거.(그래서 전부 소 양식 먹고 나면 전부 돼지우리에 담아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

103028 @ 아, 진짜예, 하나토 진짜예. 그런 걸 배와야 환경얘기가 나올 건디예.(아, 진짜요, 하나도 진짜요? 그런 걸 배워야 환경얘기가 나올 건데요.)

103028 #1 게난 요지금 흔 육십 대 미만은 잘 모르주게.(그러니까 요즘 한 육십 대 미만은 잘 모르지.)

103028 @ 몰라마씨. 공부, 공부, 공부가 뭣 산디 농사는 짓지 말라 어려우니까 허멍 헷던게.(몰라요. 공부, 공부, 공부가 뭔지 농사는 짓지 말라 어려우니까 하면서 했던 게.)

103028 #1 우리는 밧가는 잠대까지는 만들아.(우리는 밭가는 잠대까지는 만들어.)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게난 요즘은 난 흔 번 보민은 다 허여.(그러니까 요즘은 난 한 번 보면 다 해.)

103028 @ 아.(아.)

103028 #1 흔 번 보민은 다 헤서 허는디 그걸로 난 나가질 못헷어. 난 아픈 사람 침도 줘. 책도 봐서 운수평가도 헤 주고, 화주역도 봐.(한 번 보면 다 해서 하는데 그걸로 난 나가질 못했어. 난 아픈 사람 침도 줘. 책도 봐서 운수평가도 헤 주고, 화주역도 봐.)

103028 @ 아.(아.)

103028 #1 어떤 사람은 사람은 택일 봅써. 택일 빨리 날까 안 날까 알아져. 놈이 허는 거 흔번 보민 다헤(어떤 사람은 사람은 택일 보세요. 택일 빨리 날까 안 날까 알 수 있어. 남이 하는 거 한번 보면 다해.)

103028 @ 두루두루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숫도 구워낫수과?(두루두루 시선이 있으니까 숯도 구웠었습니까?)

103028 #1 아이구, 모슬포 훈련소 있을 때 ᄉᆞ삼사건 끝에.(아이구, 모슬포 훈련소 있을 때 사삼사건 끝에.)

103028 @ 그건 나중에 들으쿠다 이장님같은 경우는 숫 구워가지고 교수님이 와 가지고 찍어 갓덴 헙디다. 삼촌도 같이 헤낫수과?(그건 나중에 들을께요. 이장님같

은 경우는 숯 구워가지고 교수님이 와서 찍어 갔다고 합디다. 삼촌도 같이 해났습니까?)

103028 #1 게난 그것이 아이구, 우리도 숫을 많이 구웡 팔앗어. 숫을 구워서 가마니에.(그러니까 그것이 아이구, 우리도 숯을 많이 구워서 팔았어. 숯을 구워서 가마니에.)

103028 @ 가마니에.(가마니에.)

103028 #1 숫을 가마니도 스톤 가마니가 잇고 오톤 가마니가 잇거든. 큰 것이 잇고 오톤 가마니가 제일 큰 건데, 그걸로 헤가지고 쉐에 시껑 모슬포에 가면은 군인가족들안티 풀주게.(숯을 가마니도 사톤 가마니가 있고 오톤 가마니가 있거든. 큰 것이 있고 오톤 가마니가 제일 큰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소에 실어서 모슬포에 가면은 군인가족들한테 팔지.)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군인 가족들안티 풀고, 군인가족도 엇인 사람은 숫을 사서 가족에 쓰고 얕은 군인 가족 살림허는 사람은 나무, 장작을 헤서 사가지고 불 때어서 밥헤 먹고.(군인 가족들한테 팔고, 군인가족도 없는 사람은 숯을 사서 가족에 쓰고 얕은 군인 가족 살림하는 사람은 나무, 장작을 해서 사가지고 불 때어서 밥해 먹고.)

103028 @ 응. 경 헹 뭐가 뒌나부다예? 참나무가 좋아마씨? 숫은?(응. 그렇게 해서 뭐가 됐나보네요? 참나무가 좋아요? 숯은?)

103028 #1 참나무가 숫은 제일이주게. 게 숫을 굽 숫 잘뒈고, 못뒈고 기술적인 문젠디, 숫을 잘 뒌 것은 파란 꽃이 피고.(참나무가 숯은 제일이지. 게 숯을 굽 숯 잘되고 못되고 기술적인 문젠데, 숯을 잘 된 것은 파란 꽃이 피고.)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숫이 잘 안뒌 놈은 거멍헤여.(숯이 잘 안된 놈은 까매.)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시커멍만 허고. 숫이 잘 뒌 놈은 내려 강 보민, 파랑허면서 숫을 문직아가면 이레 놓으면은 쒜소리가 나 상글상글상글 허는 소리가 읍은 소리가 나고, 숫이 잘 안 뒌 놈은 데끼민 픽삭픽삭헤가지고.(새까맣기만 하고. 숯이 잘 된 놈은 내려가서 보면, 파랑하면서 숯을 만져 가면 여기 놓으면 쇠 소리가 나. '상글상글상글' 하는 소리가 여문 소리가 나고, 숯이 잘 안 된 놈은 던지면 '픽삭픽삭'해가지고.)

103028 @ 아아, 하하.(아아, 하하.)

103028 #1 소리가 죽은 소리가 나거든.(소리가 죽은 소리가 나거든.)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게. 숫에도 그 변화가 있어. 겨난 요지금은 숫도 잘된 놈 헤가지고 잘 사는 사람덜 집안에 딱 놓는 디 그게 숯이 잘 뒌 숫이라야지 잘 안 뒌 숫은 그런데 나갈 ᄌᆞ신이 안뒈여. 색깔조차 틀리고 모냥조차 틀리니까.(그게 숯에도 그 변화가 있어. 겨난 요즘은 잘된 놈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집안에 딱 놓는데 그게

숯이 잘 된 숯이라야지 잘 안 된 숯은 그런데 나갈 자신이 안 돼. 색깔까지 틀리고 모양까지 틀리니까.)

103028 @ 게난 뭐 아카시아 낭이여, 소낭이여 다 숫을 구웠수과?(그러니까 뭐 아카시아 나무여, 소나무여 다 숯을 구웠습니까?)

103028 #1 다 허는데 숫이 춤나무는 낭이 강한 낭이거든. 겨고 이따가 이제 살이 약헌 나무는 때면은 삭아불기가 쉬와.(다 하는데 숯이 참나무는 나무가 강하거든. 겨고 이따가 살이 약한 나무는 때면 삭아버리기가 쉬워.)

103028 @ 삭아불기가 쉬와.(삭아버리기가 쉬워.)

103028 #1 예.(예.)

103028 @ 참나무는 도토리 나는 낭이 참나무지예?(참나무는 도토리 나는 나무가 참나무지요?)

103028 #1 도토리, 예. 도토리낭도 저, 저 가시낭이라고 잇어. 가시낭 잇어. 가시낭이 도토리낭 중에.(도토리, 예. 도토리나무도 저, 저, 찔레나무라고 있어. 찔레나무 있어. 찔레나무가 도토리나무 중에.)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참나문디 그냥 도토리 잘못허민 종낭, 도토리열매가 드랑드랑 여는 거, 종낭이라고 허는 건 약허여.(참나문데 그냥 도토리 잘못하면 때죽나무, 도토리열매가 주렁주렁 여는 거, 때죽나무라고 하는 건 약해.)

103028 @ 약허여.(약해.)

103028 #1 약허니까 미러운[62] 낭은 도리깻장부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여물질 못하니까.(약하니까 미려운 낭은 도리깻장부로 많이 쓰거든. 게 가벼우니까 손이 안 아파. 여물질 못하니까.)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으물질 못허니까.(여물질 못하니까.)

103028 @ 종낭은 도깨어시로 많이 써마씨?(때죽나무 도리깻장부로 많이 써요?)

103028 #1 예.(예.)

103028 @ 아, 가벼우니까.(아, 가벼우니까.)

103028 #1 겐디 그놈의 나무가 미렵게 잘 크지를 못허는 나무라.(그런데 그놈의 나무가 '미럽게' 잘 크지를 못하는 나무라.)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가다가 허민 어, 이거 ᄉᆞ망일엇져.(가다가 하면 어, 이거 재수가 좋았어.)

103028 @ 아아.(아아.)

103028 #1 도깨어시 좋다. 가베우니까 가볍고 낭이 그렇게 으물지 안허니까.(도리깻장부 좋다. 가벼우니까 가볍고 나무가 그렇게 여물지 안하니까.)

103028 @ 윤뉴리낭은 도깨아덜을 쓰고, 종낭은 도깨어시로 쓰고.(윤노리 나무는

62) '미럽다'는 물건이 겉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미끈하다는 뜻이다.

도리깻열을 쓰고, 때죽 나무는 도리깻장부로 쓰고.)

103028 #1 윤뉴리는 그렇게 솔찌는 나무가 아니라. 대같이 그냥 쪽쪽 빼만 나가지고 뻗고, 그렇게 춤, 건드리지 안 헤가지고 여러 십년 뒈사 ᄒᆞ쏠 도깨어시같은 모습 그렇게 옴은 나무는 손이 아파.(윤노리는 그렇게 살찌는 나무가 아니라. 대같이 그냥 쪽쪽 뼈만 나가지고 뻗고, 그렇게 참 건드리지 않고 여러 십 년 되어야 조금 도리깻장부같은 모습 그렇게 여문 나무는 손이 아파.)

103028 @ 아아, 근데 도깨아덜은 윤뉴리로 쓰고.(아아, 그런데 도리깻장부는 윤노리로 쓰고.)

103028 #1 예 그 나무가 ᄋᆞ문 낭이니까, ᄋᆞ무면서 흘씬흘씬허니까, 반동이 잇어가지고 딱 붙으민 땅이나 탁 붙으니까 뻣뻣허질 안헤서?(예. 그 나무가 여문 나무니까, 여물면서 '흘씬흘씬'하니까, 반동이 있어가지고 딱 붙으면 땅이나 탁 붙으니까 뻣뻣하지 않아서.)

103028 @ 아이구, 정말, 경험이예? 대단허다예.(아이구, 정말, 경험이요? 대단하네요.)

103028 @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검질메멍 막 베엇져. 뭐 ᄌᆞ작벳디서 무싱 거 고생헷져. 그런 거?(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김매면서 막 베었다. 뭐 퇴약볕에서 무슨 거 고생했다. 그런 거?)

103028 #6 검질메멍, 사대노래 부르멍 메는 거 그거.(김매면서, 사대노래 부르면서 매는 거 그거.)

103028 @ 어기녀랑 사대로다. 허멍.(어기녀랑 사대로다. 하면서.)

103028 #5 어기녀랑 사대, 앞멍에랑 들어오라.('어기녀랑 사대', '앞멍에'는 들어오라.)

103028 #4 잘 알암신게.(잘 알고 있네.)

103028 #5 어기녀랑 사대 앞멍에랑 들어오라.('어기녀랑 사대 앞멍에랑 들어오라.')

103028 #6 어기녀랑 사대야.('어기녀랑 사대'야.)

103028 #4 노는 트멍이 어디서 검질메젠 허민.(노는 틈에 어디서 김매려고 하면.)

103028 @ 사대야? 그 월정에 가면.(사대야? 그 월정에 가면.)

103028 #6 곱은 쒜로 여의멍 가게. 건 골겡이로 메겐 말이주. 곱은 쒜.(굽은 쇠로 줄어들며 가자. 건 호미로 매겠다는 말이지. 굽은 쇠.)

103028 #5 골겡이로 꼭꼭, 곱은 쒜로 꼭꼭 메멍가라.(호미로 꼭꼭, 굽은 쇠로 꼭꼭 매면서 가라.)

103028 #4 아이고, 그 비나 안 온 때 여름에 쯤에사 아이고 ᄉᆞ믓.(아이고, 그 비나 안 온 때 여름에 쯤에야 아이고 사뭇.)

103028 #5 놉덜 빌엉 이껀 맬땐 춤.(놉들 빌어서 이끌어서 맬 땐 참.)

103028 #6 노래 소리에 넘어가주. 버청 못 메여.(노래 소리에 넘어가지. 힘들어

서 못 매여.)

103028 @ 누가 그 노래를 불름니까?(누가 그 노래를 부릅니까?)

103028 #5 버치니까 검질 메멍 버치니까 검질 이기젠 그자 사대 부르멍 사람덜 하영 놉 빌엉덜 수눌엉덜.(힘드니까 김매면서 힘드니까 김 이기려고 그저 사대 부르면서 사람들 많이 놉 빌어서 품앗이하면서.)

103028 @ 게도 못 불르는 사람은 노래 못 불름니께 그냥.(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은 노래 못 부릅니다. 그냥.)

103028 #5 게도 어기녀랑 사대로다. 그자 그추룩 허멍 가는 거라.(그래도 어기녀랑 사대로다. 그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라.)

103028 @ 돌림 창으로 아니면?(돌림 창으로 아니면?)

103028 #5 이제는 여자가 경 헴주만은 옛날은 남자덜이.(이제는 여자가 그렇게 하지만 옛날은 남자들이.)

103028 #6 문딱 혼꺼번에 또 불르고 냉중사람은 문딱 혼꺼번에 불르고, 처음에는 혼 사람 불르민 다음 사람.(모두 한꺼번에 또 부르고 나중사람은 모두 한꺼번에 부르고, 처음에는 한 사람 부르면 다음 사람.)

103028 #5 앞멍에랑 뒷멍에랑 무너나라 허멍 그자 노래부르는 거 그자.(앞멍에는 뒷멍에는 무너지라하면서 그저 노래 부르는 거 그저.)

103028 #4 놀 어이가 어디 셔.(놀 짬이 어디 있나.)

103028 @ 노래 혼번 불러봅서?(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103028 #5 불러 봅서.(불러 보세요.)

103028 #6 불러 봅서게.(불러 보세요.)

103028 #5 뭐? 어기녀랑 사대로다.(뭐? '어기녀랑 사대로다'.)

103028 @ 말로 말고 소리로?(말로 말고 소리로?)

103028 #5 소리 것도 좋아사주 원.(소리 것도 좋아야지 원.)

103028 #4 혼번 헙서게. 듣게.(한번 하십시오. 듣게.)

103028 #6 어기녀랑 사대로다. 이건 늦은 소리 있고, 빠른 소리 이십네다. 게난 나 곳세 부른건 늦은 거.('어기녀랑' 사대로다. 이건 늦은 소리 있고, 빠른 소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금방 부른 건 늦은 거.)

103028 @ 빠른 건?(빠른 건?)

103028 #6 빠른 건 나 아까 문저 불른 거.(빠른 건 나 아까 먼저 부른 거.)

103028 @ 겐 이어근에 혼번 헤봅서. 소리 좋은게마씨.(그래서 이어서 한번 해보세요. 소리 좋아요.)

103028 #5 어떵 골아봅서.(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103028 #6 사데[63]불렁 요 검질매자. 어기녀랑 ᄉᆞ대로다. 굽은 쒜로 여의멍 가게. 앞멍에랑 들어나 오라. 뒷멍에랑 무너나나라, 여기녀랑 사데로다. 목 ᄇᆞ짝헤연 어디.('사데'불러서 요 김매자. 어기녀랑 사대로다. 굽은 쇠로 줄이면서 가자. 앞밭머

63) '사데'는 검질 매는 소리를 말한다.

리는 들어오라. 뒷밭머리랑 물러나라, 여기녀랑 '사데'로다. 목 바짝 해서 어디.)

103028 @ 빠른 거?(빠른 거?)

103028 #6 빠른 걸로 헥헥, 니 아프고 무싱 거 허연 니 안 아파시민 잘 불를 컬.(빠른 걸로 헥헥, 이 아프고 뭐 해서 이 안 아팠으면 잘 부를 걸.)

103028 @ 누구마씨?(누구요?)

103028 #5 이 어른 삼차 신경이라부난 이디 아판 이디 게난 하간, 체멘 여름에도 영 체메영 댕기고.(이 어른 삼차 신경이니까 여기 아파서 여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 메어 여름에도 이렇게 처 메여 다니고.)

103028 @ 겐디 소리 좋수다.(그런데 소리 좋습니다.)

103028 #5 아 소린, 이 어른 소리 막 존 어른.(아 소린, 이 어른 소리 막 좋은 어른.)

103028 #6 옛날은 잘 불러낫수다만은.(옛날은 잘 불렀었습니다만.)

콩 농사

103029 @ 저번에 보리농사가지 헷지예?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저번에 보리농사가지 헷지예?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옛날이사 콩 농사허민 농약을 헤시카?(옛날이야 콩 농사하면 농약을 했을까?)

103029 #4 콩 용시가 제일 뱔라.(콩 농사가 제일 빨라.)

103029 #5 콩씨 뿌렁 밧디 강 콩씨 뿌렁.(콩씨 뿌려서 밭에 가서 콩씨 뿌려서.)

103029 #4 그건 볼리지도 안 허고, 그게 지일 존 거.(그건 밟지도 안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

103029 #5 이젠 쉐로 갈앙, 그자 벙에나 시민 벙에나 두드리고, 경 허멍 그건 쉬운 게 그놈의 벙에.(이젠 소로 갈아서, 그저 볏밥이나 있으면 볏밥이나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건 쉬운 게 그놈의 볏밥.)

103029 #4 쉬운 거.(쉬운 거.)

103029 @ 쉬운 거.(쉬운 거.)

103029 #5 쉬운 게 그 놈의 벙에. 조가 지일 사람 못 젼디게 허는 거. 조가.(쉬운 게 그 놈의 볏밥. 조가 제일 사람 못 견디게 하는 거. 조가.)

103030 @ 콩은 언제 갑니까?(콩은 언제 갑니까?)

103030 #1 콩은 이 여름농사는 다 그 장마 가운데, 장마중심에 콩을 주로 갑니다. 유월, 양력으로 허민 요지금 유월이십오일경에 보통 콩 농사가 적격이 뒈어.(콩은 여름농사는 다 그 장마가운데 장마중심에 콩을 주로 갑니다. 유월, 양력으로 하면 요즘은 유월이십오일경에 보통 콩 농사가 적격이 돼.)

103030 #5 것도 유월나민, 마 끗나 가민 이젠 콩도 갈고 조도 허곡.(것도 유월나면, 마 끝나 가면 이젠 콩도 갈고 조도 하고.)

103031 @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요지금은 콩 비료라고 나옵니다. 콩 비료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저 씨 뿌리고 갈기만 허믄 뒈어.(요즘은 콩 비료라고 나옵니다. 콩 비료라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저 씨 뿌리고 갈기만 하면 돼.)

103031 @ 옛날에는 씨 뿌리고 갈기만 헨마씨?(옛날에는 씨 뿌리고 갈기만 했어요?)

103031 #1 예. 게서 밧을 짚이 갈면은 안 뒌다고 헤서 밧가는 장남을 장 안 준다고 허여예.(예. 그래서 밭을 깊이 갈면 안 된다고 해서 밭가는 장남을 장 안 준다고 해요.)

103031 @ 예?(예?)

103031 #1 밧 가는 사람을 장을 안준다고, 잘 먹어 노면은 힘차게 밧을 짚이 갈아 버리면은 이 나질 잘 못허니까 얕게 어떵 어떵 갈게 허기 위헤서 밧 가는 사람보고 장남이라고 헤. 밧 가는 장남 장 안줘야 밥을 실피 먹지 못허게 배고픈 듯헤야 씩씩씩씩 헤여진다 헤서 허허 옛날 속담이 그렇게 뒈어예.(밭 가는 사람을 장을 안준다고, 잘 먹어 노면은 힘차게 밭을 깊이 갈아 버리면 나질 잘 못하니까 얕게 어떻게, 어떻게 갈게 하기위해서 밭가는 사람보고 장남이라고 밭가는 장남 장 안줘야 밥을 실컷 먹지 못하게 배고픈 듯해야 씩씩씩씩 해진다 해서 허허, 옛날 속담이 그렇게 되요.)

103031 @ 예. 너무 너무 깊게 갈면 안 뒈는구나예. 콩은.(예. 너무 너무 깊게 갈면 안 되는군요. 콩은.)

103031 #1 예.(예.)

103031 #5 그때는 걸름이 어디 서? 그냥 씨만 삐영 갈앗주.(때는 거름이 어디 있어? 그냥 씨만 뿌려서 갈았지.)

103031 #4 그땐 비료 어서부난 지금은 비료 놔도.(그땐 비료 없어버리니까 지금은 비료 놔도.)

103031 #5 옛날에 콩씨 뿌려근에양, 그 갈지 안 해도 뒙덴 헙디다게.(옛날에 콩씨 뿌려서, 그 갈지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103031 #4 비오랑 묻어 지주게.(비와서 묻어 지지.)

103031 #5 아니 지실왓인디 콩씨 뿌렁 자게 비오랑 갈지 못허난 내부난, 콩은 막 나난 이젠 헤볼레기 엇이난 내부난 거 콩 뒈어예?(아니 감자밭인데 콩씨 뿌려서 자게 비와서 갈지 못하니까 내버리니까, 콩은 막 나니까 이젠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내버리니까 거 콩 돼요?)

103031 #4 아 뒈여. 뒈여.(아 돼. 돼.)

103031 #5 ᄉᆞ믓 ᄒᆞ쏠 꼬달꼬달은 헤도.(사뭇 조금 '꼬달꼬달'은 해도.)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콩 씨는 혼줌 줴어가지고 씨부리는 거 다 비슷비슷헙니다게. 힘 줘서 착착 뿌려야 이게 떨어지면서도 떨어지면서도 둥그렁 나가고 뭐 헤서 뭐 허주. 그냥 졸락졸락 삐면은 이 저 무드락 무드락 뭉쳐 정 나가니까 춤춰서 땅에 탁탁 부트

게 허면은 두 개 싀 개가 뭉쳐 졋당 또 둥그러 나가지고 흩어지니까.(콩 씨는 한줌 쥐어서 씨 부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힘 줘서 짝짝 뿌려야 이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뒹굴러 나가고 뭐 해서 뭐 하지 그냥 졸딱졸딱 뿌리면 저 '무드락 무드락' 뭉쳐서 나니까 춤춰서 땅에 탁탁 붙게 하면 두 개 세 개가 뭉쳐졌다가 뒹굴러 나가지고 흩어지니까.)

103032 #4 겐 영 착착.(그래서 이렇게 짝짝.)

103032 #5 그냥 두러메영 그자 좁씨삐듯.(그냥 둘러 매여서 그저 조씨 뿌리듯.)

103032 @ 여자도 뿌리고예?(여자도 뿌리고요?)

103032 #5 응, 여자고 남자고 그자 뿌리고.(응, 여자고 남자고 그저 뿌리고.)

103033 @ 콩밭 김메기는 몇 번 합니까?(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3 #1 콩밭 김메는 거는 뭐, 어.(콩밭 김매는 거는 뭐, 어.)

103033 @ 검질메는 거예.(김매는 거요.)

103033 #1 검질 메는 거는 그 조팟같이 만칠 안치예. 한 두 번 정도 메면 끝나는 거고, 콩이 커지면은 그늘이 탁 쳐지면은 그 검질이 힘이 못 쓰니까.(콩밭 김매는 거는 머 검질 매는 거는 그 조밭같이 많지 않죠. 한두 번 정도 매면 끝나는 거고, 콩이 커지면 그늘이 탁 지면 그 김이 힘을 못 쓰니까.)

103033 #5 두 번만 메민 뒈여. 콩 검질은.(두 번만 매면 돼. 콩 김은.)

103033 #4 두 번 헤지는 사람은 허고 못 허는 사람은 혼 번 헹 내불고.(두 번 해지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한 번 해서 내버리고.)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콩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34 #5 콩밧딘 무싱 거 안 나는 게 잇어게? 여름 검질은 안 나는 거 엇이 다 나.(콩밭에는 무슨 거 안 나는 게 있나? 여름 김은 안 나는 거 없이 다 나.)

103034 #4 제완지, 옛날은 제완지가 보통이라.(바랭이, 옛날은 바랭이가 보통이라.)

103034 #5 이제는 요즈음은 다시 쉐비늄 무사 남광.(이제는 요즈음은 다시 쇠비름 왜 나는지.)

103034 #4 그땐 제완지, 게난 미녕허멍이라도 제완지방석.(그땐 바랭이, 그러니까 무명하면서도 바랭이방석.)

103034 @ 제완지방석? 제완지방석은 무사 제완지방석?(바랭이방석? 바랭이방석은 왜 바랭이방석?)

103034 #5 미녕허영 몸뻬 헹 입엉 이젠 몸뻰디 그땐 갈중이, 갈중이 헹 입엉 저 검질 맨 말로 이건 갈중이 저 검질 방석이옌 허멍.(무명해서 몸뻬해서 입어서 이젠 몸뻰데 그땐 갈중이, 갈중이 해서 입어서 저 김 맨 말로 이건 갈중이 저 김 방석이라고 하면서.)

103034 #4 제완지 방석.(바랭이 방석)

103034 #5 제완지 방석이옌, 갈중이 헤연.(바랭이 방석이라고, 갈중이 해서).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35 #1 콩 수확은 옛날에는 골갱이로 꺾어.(콩 수확은 옛날에는 호미로 꺾어.)

103035 @ 아아, 호미로 꺾으지 안 헹마씨?(아아, 낫으로 꺾지 않아요?)

103035 #1 호미는 중간에사 호미 헷주.(낫은 중간에야 낫 했지.)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아주 옛날에는 골갱이 웨골갱이라고 헤가지고 이렇게 헌 거 헤서야 허지. 겐디 옛날에는 공구라는 것이 엇어 노니까 호미로 호미는 청실로 헤서 헐라고 허면 얼마 안 잇어서 호미가 무껴버리니까 버금, 골라고 허면 힘이 들거든. 옛날에는 골갱이로만 콩을 걱엇수다.(아주 옛날에는 호미 외호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해서 했지. 그런데 옛날에는 공구라는 것이 없어버리니까 호미로 호미는 청실로 해서 할려고 하면 얼마 않아서 호미가 녹슬어버리니까 다음, 갈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 옛날에는 호미로만 콩을 꺾었습니다.)

103035 @ 아이구야.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우다. 경 헤영은에 콩 걱으민? 거를.(아이구야.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소립니다. 그렇게 해서 콩 꺾으면? 거를.)

103035 #1 꺽으민 멍석을 ᄀᆞ찌 밧데 가서 흔펜더레 가운더레 중심 부쪄 가지고 콩낭을 치와 뒁 그레 멍석을 흔 메칠 쭉허게 끌앙, 그레 가져다 놔가지고 이제 도깨로만 두드리거든. 호로깨.(꺾으면 멍석을 같이 밭에 가서 한편에 가운데 중심 붙여 가지고 콩짚을 치워 두고 거기에 멍석을 한 며칠 쭉하게 깔아서, 거기 가져다 놔가지고 이제 도리깨로만 두드리거든. '호로깨'.)

103035 @ 도깨를 호로깨렌 헤마씨? 호로께로 두드려예.(도리깨를 '호로깨'라고 해요? '호로께'로 두드려요.)

103035 #1 예.(예.)

103035 @ 밧디서예? 집에까지 안 왕?(밭에서요? 집에까지 안 와서?)

103035 #1 집엘 어떵 가져오라?(집에를 어떻게 가져와?)

103035 @ 멍석을 아예 밧 디 가졍 강?(멍석을 아예 밭에 가져가서?)

103035 #1 그거는 북대기가 커 노니까 집이 가져 올 수가 엇주게. 밧디서 헤서 두드령, 밧디서 불려야 콩 먼지가 아주 걸주게.(그거는 면적이 크니까 집에 가져 올 수가 없지. 밭에서 해서 두드려서, 밭에서 해야 콩 먼지가 아주 걸지.)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이제 쪼금만 헌 건 어데 저 흔 두 줌쯤 뒌 거는 집이 오랑 헹 허면은 질레 나가가지고 ᄇᆞ름 바룬디서 불리면은 그 콩 먼지 질에 버려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 허거든게.(이제 조금만 한 건 어디 저 한 두 줌쯤 된 거는 집에 와서 해서 하면은 길에 나가가지고 바람 '바룬'데서 불리면 그 콩 먼지 길에 버려 버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 하거든.)

103035 @ 다 걸름 뒌예?(다 거름 됐군요?)

103035 #1 경해서 굵은 거는 굵은 것데로 그 콩꼬질이라고 헤서 집에 갓다가

이제 눌워둠서 멕이고, 좀진 건 거 강맥이 털어진 거는 또 큰 맥에 담아다가, 저 쉐막 ᄒᆞᆫ 쪽 구석에 조찍같은 걸로 이렇게 좀 에우싸면서 담앙 모록이[64] 놔 뒷당, 그 걸 ᄀᆞᆯ채로 담으멍 쉐 줭 멕이고, 버릴 게 ᄒᆞ나도 엇쭈게. 쉐 먹어난 다음에는 이제 그 통시에 거름으로 담고.(그래서 굵은 거는 굵은 것대로 그 콩깍지라고 해서 집에 갔다가 이제 가리었다가 먹이고, 잔 건 그 '강맥'이 떨어진 거는 또 큰 멱에 담아다가, 저 외양간 한 쪽 구석에 조짚같은 걸로 이렇게 좀 에워싸면서 담아서 '모록이' 놔뒀다가, 그걸 삼태기로 담으면서 소 줘서 먹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없지. 소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돼지우리에 거름으로 담고.)

103035 @ 아아.(아아.)

103035 #1 굵은, 굵어서 안 먹은 거 남은 거는 이제 부인들이 부엌에 가져다 놔 가지고 불 때고, 콩대가 뻐닥뻐닥헌 놈덜은 밥 헹 먹는데 불 때고.(굵은, 굵어서 안 먹을 거 남는 거는 이제 부인들이 부엌에 가져다 놔가지고 불 때고, 콩대가 뻣뻣한 놈들은 밥해서 먹는데 불 때고.)

103035 @ 콩수확은 도깨질예.(콩 수확은 도리깨질이요.)

103035 #1 예. 게서 밧디서 좀팍으로 불리고.(예. 그래서 밭에서 '좀팍'으로 불리고.)

103035 @ 밧디서 다 좀팍으로 다 불리고예.(밭에서 다 '좀팍'으로 다 불리고요.)

103035 #1 그 얼맹이라고 얼맹이로 헤가지고 얼맹이로 이제 흔 사람은 치고, 쳐 놓으민 바람에 불려서.(그 어레미라고 어레미로 해가지고 어레미로 이제 한 사람은 치고, 쳐 놓으면 바람에 불려서.)

103035 @ 푸는 채도 허고예?(키질도 하고요?)

103035 #1 기계가 전혀 없어노니까 사람 어깨에서만.(기계가 전혀 없어버리니까 사람 어깨에서만.)

103035 @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셧지예?(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지요?)

103035 #1 예. 어머니네나 이제 모두 웃세대는 고생을 많이 헤십주.(예. 어머니네나 이제 모두 윗세대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103035 #5 꺽엉.(꺾어서.)

103035 @ 어떵 꺽습니까?(어떻게 꺾습니까?)

103035 #5 그냥 똑똑 믄딱 똑똑 꺽어 놩, 이제 이레 무싱거렌 허느니 궤? 무신 새?(그냥 똑똑 모두 똑똑 꺾어놔서, 이제 여기 뭐라고 하니? 궤? 무슨 새?)

103035 #4 새 메어당.(띠 매어다가.)

103035 #5 새 메어당 뱅뱅 둘렁 꿰 혜영 이디 놩, 마주 무껑 마주 노멍 혜영 무껑, 경 헹 서 뭇 썩 두 뭇썩 지어오랑.(띠 매어다가 뱅뱅 둘러서 참깨 해서 여기 놔서, 마주 묶어서 마주 노면서 해서 묶어서, 그렇게 해서 세 뭇씩 두 뭇씩 져 오고.)

103035 #4 무신 서 뭇 져지느니게? 두 뭇지민 흔 짐이주.(무슨 세 뭇 져지냐? 두 뭇 지면 한 짐이지.)

64) '모록이'는 그릇에 밥 따위가 넘칠 만큼 담아놓은 모양이다.

103035 #5 우리 씨어멍네 거 서뭇 져네 저 웃답디 간에 이녁꺼 강구장네 집이 강 강구장네 어멍네 밧디 강은에 산듸 비엉 시꺼다 뒨 아이고 이젠 할망네 밧디 강 봐사주긴 ᄀᆞ로 넘으멍 뛰멍 강 보난,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이제 무끄는 서늉헴선게 이제 그거 무껑 서 뭇 헤영 지어ᄋᆞ졍.(우리 시어머니네 거 세 뭇 지어서 저 '웃답디' 가서 이녘 거 강구장네 집에 가서 강구장네 어머니네 밭에 가서 밭벼 베어서 실어다 두고 아이고, 이젠 할머니네 밭에 가서 봐야지 가로 넘으면서 뛰면서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제 묶는 모양 하던데 이제 그거 묶어서 세 뭇 해서 져 왔어.)

103035 #4 아이고, 잰잰허게 무껏져. 게믄.(아이고, 잘게 묶었지. 그러면.)

103035 #5 서 뭇헤영 지어ᄋᆞ졍, 두뭇은 질고, 우이 흔 뭇은 홀치고 헹 무끄고 집이 오란, 아 담을 넘젠 ᄒᆞ난 담이 공ᄀᆞ록 헤가난 이제 튀엇어. 그걸 진 양 튄 거라. 담은 ᄆᆞᆯ아져 가는 거, 탁 튀난 그게 발 ᄀᆞ모깐, 아 잠팽이 어멍신디 강 잘도 줴레 댕겻수다만은 나 원.(세 뭇 해서 지어서, 두 뭇은 질고, 위에 한 뭇은 홀치고 해서 묶고 집에 와서, 아 담을 넘으려고 하니까 담이 '공ᄀᆞ록하니까' 이제 뛰었어. 그걸 진 채 뛴 거라. 담은 무너져 가는 거, 탁 뛰니까 그게 발 삐어서, 아 잠팽이 어머니에게 가서 잘도 쥐러 다녔습니다만 나 원.)

103035 #6 잠팽이 어멍도 줴니까?(잠팽이 어머니도 쥡니까?)

103035 #5 그 어른 줴데다게. 게난 나 잘도 줴레 댕겨나서.(그 어른 쥐던데요. 그러니까 나 잘 쥐러 다녔었어.)

103035 @ 저 손으로만 꺽읍니까? 호미 잡앙?(저 손으로만 꺾습니까? 낫잡아서?)

103035 #5 호미로게. 호미, 호미 영.(낫으로. 낫, 낫 이렇게.)

103035 @ 옛날엔 ᄀᆞᆯ갱이로도 걱으곡.(옛날엔 호미로도 꺾고.)

103035 #5 ᄀᆞᆯ갱이로도 허곡 호미 줴영 좁아 뎅기곡 꺽으고.(호미로도 하고 호미 쥐어서 잡아 다니고 꺾고.)

103035 #4 에에, 호미로만?(에에, 호미로만?)

103035 @ 다음 도깨질?(다음 도리깨질?)

103035 #5 도깨질은게 헤다 놩.(도리깨질은 해다 놔서.)

103035 @ 집에 왕.(집에 와서.)

103035 #4 집이 왕 마당에 와사.(집에 와서 마당에 와야.)

103035 @ 어떤 사람은 밧디 강 멍석 페와 놩 헷덴도 헙데다.(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멍석 펴 놓고 했다고도 합디다.)

103035 #5 에염엔 믄딱 다른 뭐 멍석이나 헹 믄딱 무싱 거 허고 흔가운데 마당에 놩 때려 가민 그디 가믄 콩 튀카 부덴 경 헨.(구석엔 모두 다른 뭐 멍석이나 해서 모두 무슨 거 하고 한가운데 마당에 놔서 때려 가면 거기 가면 콩 튈까봐 그렇게 했어.)

103035 @ 하영허믄 밧디서도 허고?(많이 하면 밭에서도 하고?)

103035 #5 밧디선 못 헤.(밭에선 못 해.)

103035 #6 이 근천 밧 ᄌᆞ가부난예 경 하영 농ᄉᆞ허는 디가 엇수다. 저 어드레 대정더렌양. 혼 두 섬지기썩 석 섬지기썩 밧이 널르니까 밧디서 허곡 이렌 밧이 ᄌᆞᆫ, ᄌᆞᆫ, ᄌᆞᆫᄌᆞᆫ헤여.(이 근천 밭 작아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농사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 어디 대정에는요. 한 두 섬지기씩 석 섬지기씩 밭이 넓으니까 밭에서 하고 이랬지. 여긴 밭이 잔, 잔, 잔잔해.)

103035 #4 메 아져 왕 마당에 오랑.(메어 와서 마당에 와서.)

103035 #5 이젠 밧은 정리허는 ᄇᆞ름에 널엇주기. 춤 옛날엔.(이젠 밭은 정리하는 바람에 널었지. 참 옛날엔.)

103035 @ 도깨도 수눌엉 헙니까? 사람덜 오렌 헨?(도리깨도 품앗이해서 합니까? 사람들 오라고 했어?)

103035 #5 수눌언 이녁도 강 ᄂᆞᆷ의 거 헤주민 그 사람 빌엉 헤질 거, 이녁이 안 헤주민 그 사람은 헤줄 사람이 엇어.(품앗이해서 이녁도 가서 남의 거 해주면 그 사람 빌어서 해질 거, 이녁이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해줄 사람이 없어.)

103035 #4 수눌엉, 수눌엉.(품앗이해서, 품앗이해서.)

103035 @ 도깨는 누가 만듭니까?(도리깨는 누가 만듭니까?)

103035 #5 게, 하르방이 멘들주게. 어떵허여?(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지. 어떻게 해?)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36 #1 게난 요즘처럼 많이 해서 풀젠 가는 게 아니라 된장허고 ᄀᆞᆯ아서 ᄆᆞ레에 ᄀᆞᆯ아가지고 콩국도 끓여먹고.(그러니까 요즘처럼 많이 해서 팔려고 가는 게 아니라 된장하고 갈아서 맷돌에 갈아가지고 콩국도 끓여서 먹고.)

103036 @ ᄆᆞ레에 ᄀᆞᆯ앙예, 콩국도 끓영 먹고.(맷돌에 갈아서요, 콩국도 끓여서 먹고.)

103036 #1 옛날에는 이 농사지은 걸 판매를 목적으로 허질 안헷거든. 먹고 갈기만.(옛날에는 이 농사지은 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질 안했거든. 먹고 갈기만.)

103036 @ 예. 게믄 제사때 콩나물이나 둠비나 이런 거 허는 거 봐봣수과?(예. 그러면 제사 때 콩나물이나 두부나 이런 거 하는 거 봐봤습니까?)

103036 #1 이디서 콩나물은 대부분 집이서 놔서 먹거든예. 제사 때라던지 이제 가절 때 뭐 헐 때는 집에서 놔가지고 자꾸 물 주면서 헹 허면은 콩나물은 옛날엔 질겻주기게. 요지금은게 사다가 먹으니까 부드러웟는데 옛날 콩나물은 질기고.(여기서 콩나물은 대부분 집에서 놔서 먹거든요. 제사 때라든지 이제 가절 때 뭐 할 때는 집에서 놔가지고 자꾸 물주면서 해서 하면 콩나물은 옛날엔 질겼지. 요지금은 사다가 먹으니까 부드러웠는데 옛날 콩나물은 부드러웠는데 질기고.)

103036 @ 콩나물을 청수에선 뭐렌 불럿수과?(콩나물을 청수에선 뭐라고 불렀습니까?)

103036 #1 콩지름.(콩나물.)

103036 @ 콩지름예?(콩나물요?)

103036 #1 콩나물 보고 콩지름.(콩나물 보고 콩지름.)

103036 @ 콩지름.(콩나물.)

103036 #1 지름이 아니라 주름이주게 콩주름.(콩나물 보고 콩지름, 기름이 아니라 주름이주게 '콩주름'.)

103036 @ 콩주름, 콩주름, 메주 또 둠비 이런 거 봐봣수과?('콩주름', '콩주름', 메주 또 두부 이런 거 봐봤습니까?)

103036 #1 예. 메주 둠비는 뭐 어디 무신 집이 일이나 허젠허믄 허주. 펭소에 그저 담아 먹진 못 헷수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던지. 집이 뭐 행사나 있게 뒈면은 이제 그 딱 ᄀᆞ레에 ᄀᆞᆯ아가지고 막 솟데 놩 쒀서.(예. 메주, 두부는 뭐 어디 무슨 집에 일이나 하려고 하면 하지. 평소에 그저 담아 먹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집이 뭐 행사나 있게 되면 이제 그 딱 맷돌에 갈아가지고 막 솥에 놔서 쑤어서.)

103036 @ 메주 당그는 거 어머니 허는 거 봐난예? 콩 숢앙은에 먹고.(메주 담그는 거 어머니 하는 거 봤었어요? 콩 삶아서 먹고.)

103036 #1 예. 콩 숢앙 허면은 막 발로 붋아 발로 붋아가지고, 요지금은 하꼬짝을 싸가지고 그레 놔서 꽉꽉 누르떠서 헷주만은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헤서 그냥 떡 모냥으로, 빵떡 모냥으로 훅허게 헤가지고 저 콩꼬질 같은 거 영 놓고 벳짚 같은 거 영 놔가지고 그레 영 헹 놩 줄어지민 무으뜨지 안 허게 헤가지고 경 헹 탁 더껑 놔두면은, 이제 그 곰팽이가 피어. 누룩 모냥으로. 곰팽이가 피면은 이자 그거 장담을 때는 물에다 담가서 판찍[65] 곰팽이 싯어두고 소금물에 헤서 장 당그고.(예. 콩 삶아서 하면은 막 발로 밟아 발로 밟아 가지고, 요즘은 상자를 싸가지고 거기 놔서 꽉꽉 눌러서 했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떡 모양으로 빵떡모양으로 훅하게 해가지고 콩깍지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볏짚 같은 거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놔서 줄어지면 붇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해서 탁 덮어 놔두면, 이제 그 곰팡이가 피어 누룩모양으로. 곰팡이가 피면은 이제 그거 장담을 때는 물에다 담가서 '판찍'허게 곰팡이 씻어두고 소금물에 해서 장 담그고.)

103036 #5 둠부허고 주름콩허고.(두부하고 콩나물하고.)

103036 #4 죽도 줭 먹고.(죽도 쥐서 먹고.)

103036 #5 ᄀᆞᆯ아당 이제 이전에도 어디 저 기계 강 ᄀᆞᆯ암주만은 ᄀᆞ레로 ᄀᆞᆯ아 흔 방울 흔 방울 드리치멍 ᄀᆞᆯ아근에.(갈아다가 이제 이전에도 어디 저 기계 가서 갈았지만 맷돌로 갈아서 한 방울 한 방울 넣으면서 갈아서.)

103036 #4 게난 밤이 놀 어이가 셔게?(그러니까 밤에 놀 여유가 있나?)

103036 #5 살아온 역사를 말허민.(살아온 역사를 말하면.)

103036 #4 밤이 콩 ᄀᆞᆯ젠허민, 눵 잘 어이가 셔?(밤에 콩 갈려고 하면, 누워서 잘 여유가 있어?)

---

65) '판찍'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이다.

103036 @ 물에 적션 ᄀᆞᆯ아야지예?(물에 적셔서 갈아야지요?)

103036 #5 아니, 아니, ᄆᆞ른 체게. ᄒᆞᆫ방울 들이쳥 맷돌로 맷돌로.(아니, 아니, 마른대로. 한 방울 들이쳐서 맷돌로, 맷돌로.)

103036 @ 그 굵은 콩이 맷돌에 갈려마씨?(그 굵은 콩이 맷돌에 갈려요?)

103036 #5 예. 게민 ᄀᆞ루 나오라양. 하영 안 헤영 ᄒᆞᆫ 방울 톡 들이쳥.(예. 그러면 가루 나와요. 많이 안 해서 한 방울 톡 들이쳐서.)

103036 @ 아이고, 힘 들어가켜예?(아이고, 힘 들어가겠네요?)

103036 #4 아니, 그때 ᄀᆞ레가 셔. ᄀᆞ레 ᄀᆞ레.(아니, 그때 맷돌이 있나?. 맷돌, 맷돌.)

103036 @ ᄀᆞ레, 게난.(맷돌, 그러니까.)

103036 #5 이젠 ᄆᆞᆫ딱 우린 저 무싱거옌 허느니? 나 놀레에는 ᄀᆞ레는 엇엇수다만은, ᄀᆞ레로 ᄀᆞᆯ아근에.(이젠 모두 우린 저 무슨 거라고 하니? 나 노래에는 맷돌은 없었습니다만, 맷돌로 갈아서.)

103036 @ 게난 ᄀᆞ레?(그러니까 맷돌?)

103036 #5 난 원래 ᄀᆞ레는 엇엇수다만은.(난 원래 맷돌은 없었습니다만.)

103036 #6 모멀떡 허는 ᄀᆞ레, ᄀᆞ는 정ᄀᆞ레[66].(메밀떡 하는 맷돌, 가는 '정ᄀᆞ레'.)

103036 #4 모멀떡 허는 건 조그만헌 게베운 거, 정ᄀᆞ렌, 건 막 큰 돌헤영 무싱거 ᄒᆞ는 건 양손으로도 ᄀᆞᆯ아봣닥, 흐흐흐.(메밀떡 하는 건 조그마한 가벼운 거,' 정ᄀᆞ레'는 건 막 큰 돌 해서 무슨 거 하는 건 양손으로도 갈아봤다가, 흐흐흐.)

103036 @ 콩이 어려우쿠다예? ᄀᆞ레 ᄀᆞᆯ땐.(콩이 어렵겠네요? 맷돌 갈 땐.)

103036 #5 ᄀᆞ레 ᄀᆞᆯ땐 마주 아장은에.(맷돌 갈 땐 마주 앉아서.)

103036 #4 사름 신 때는 마주 아장.(사람 있을 때는 마주 앉아서.)

103036 @ 이여 이여.(이여 이여.)

103036 #5 잘햄신게. ᄀᆞ레 ᄀᆞᆯ 때는.(잘하네. 맷돌 갈 때는.)

103036 #4 이여 이여. ᄀᆞ레 ᄀᆞ는 거 ᄒᆞᆫ번 헵서보게?(이여 이여. 맷돌 가는 거 한번 해 보세요?)

103036 #6 이 아팡 안헴수게.(이 아파서 안하네요.)

103036 @ 삼촌, ᄉᆞᆯᄉᆞᆯ, ᄉᆞᆯᄉᆞᆯ.(삼촌, 살살, 살살.)

103036 #5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그추룩 허멍 콩은 ᄀᆞᆯ앗주게.('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그처럼 하면서 콩은 갈았지.)

103036 #6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이여 말도 말아근 가라.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경 허멍 ᄀᆞᆯ앗주기.(이여 이여 이여도 허라 이여 말도 말고 가라. 이여 이여 이여도 해라 그렇게 하면서 갈았지.)

103036 @ 좋수다게. 가시어멍 강당장칩이 이런 거 남방에 질 때 혹시 나와낫수과?(좋습니다. 장모 강당장칩에 이런 거 남방아 질 때 혹시 나왔었습니까?)

66)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103036 #5 응, 남방에[67] 질 때도 그 소리주게.(응, '남방아' 찧을 때도 그 소리지.)

103036 @ 가시오름 강당장칩이 싀콜방에[68].(가시오름 강당장집에 '싀콜방아'.)

103036 #4 남방에 질 땐 ᄲᅳ르게 이여이여,('남방아' 찧을 땐 빠르게 이여이여)

103036 #5 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에 세글럼서라[69].(이여 이여 이여도 ᄒᆞ라 '싀콜방아' '세글럼서라'.)

103036 #6 요건 동더레가 잘 헙네다. 방에.(요건 동쪽에가 잘 합니다. 방아.)

103036 @ 아, 동더레에 남방에는, 남방에도 지어낫지예. 여기도?(아, 동쪽에 '남방아'는, '남방아'도 찧었었지요. 여기도?)

103036 #5 아이고, 남방에 젼 먹엇주기. 보리도 남방에 졍 먹언.(아이고, '남방아' 찧어서 먹었지. 보리도 '남방아' 찧어서 먹었어.)

103036 #6 이딘 헷쟈 그렌 저 물 영 놩근에 허질 못허여. 그냥.(여긴 했지만 거긴 저 물 이렇게 놔서 하질 못해. 그냥.)

103036 @ 보리 남방에 찔 땐 물 놉네까?(보리 '남방아' 찧을 땐 물 넣습니까?)

103036 #4 물 놩 물 놩게.(물 놔서 물 놓아서요.)

103036 #5 보리는 물 놩 지고, 조는 그냥 ᄆᆞ른 채 지곡.(보리는 물 놔서 찧고, 조는 그냥 모른 채 지고.)

103036 #6 나룩이옌 헨. 그 산듸, 그건 문 남방에만 찧고.(벼라고 했어. 그 밭벼, 그건 모두 '남방아'만 찧고.)

103036 @ 산듸도 물 놩?(밭벼도 물 놔서?)

103036 #5 아니게. ᄆᆞ른 체, ᄆᆞ른 체.(아니. 마른 채, 마른 채.)

103036 @ 가루 만드는 거잖아예?(가루 만드는 거잖아요?)

103036 #6 아니, 아니, 게민 이젠 거기 거죽 벳겨놔사 다시 막 ᄋᆞ라 번 져가민 그 쏠 난 후제도 그 까진 걸 ᄋᆞ라 번 져사 그 가죽우이 가죽이 빈죽가죽이 벗어져 불민 밥이 좋고, 그 빈죽가죽 안 벗어젼 이제 저 무신 선민가 거 무싱거추룩 그추룩허멍 금방 그 까징 건 그 현미추룩.(아니, 아니, 그러면 이젠 거기 거죽 볏겨 놔야 다시 막 여러 번 찧어 가면 그 쌀 난 후에도 그 까진 걸 여러 번 찧어야 그 가죽위에 가죽이 '빈죽'가죽이 벗어져 버리면 밥이 좋고, 그 '빈죽'가죽 안 벗어져서 이제 저 무슨 현민가 거 무슨 거처럼 그처럼 하면서 금방 그 까짓 건 그 현미처럼.)

103036 #4 아이고, 경헤도 ᄆᆞᆯ르민 ᄀᆞ레에서 쏠내왕덜 먹고.(아이고, 그렇게 해도 마르면 맷돌에서 쌀 내워들 먹고.)

103036 #6 저 뭐 멩 올거 안 메엉 와져서게. 저 남방에 그 나룩 산듸지렌허난 다심똘인디 쏠 두방울 입더레 톡 노난, 쓸 거 먹엄젠 남방에로 탁 두드리난, 아이고 세에 그 쏠 논냥 에엥헤영 죽으난, 그 꽃으로 피언게. 꽃 핀 거 그런 거 꽃 셩게마는 그거 하나 멩 올건 디, 안 메엉 와져서게.(저 뭐 메서 올 거 안 메어서 왔어. 저

67) '남방에'는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를 말한다.
68) '싀콜방에'는 세 사람이 방앗공이 셋으로 박자를 맞추며 방아를 찧는 일. 또는 그런 방아. 세콜방에.
69) '세글르다'는 두 사람 이상이 방아를 찧을 때 서로 찧는 운율이 잘 맞지 않은 것을 말한다.

‘남방아’ 그 벼 밭벼 찧으라고 하니까 의붓딸인데 쌀 두 방울 입에 톡 넣으니까, 쓸거 먹는다고 남방아로 탁 두드리니까, 아이고 혀에 그 쌀 논 채 이렇게 해서 죽으니까, 그 꽃으로 피었어. 꽃 핀 거 그런 거 꽃 있었지만 그거 하나 메서 올 건데, 안 메서 왔어.)

103036 @ 꽃으로 핀 게 산듸 꽃이 아니고 무싱 거마씨?(꽃으로 핀 게 밭벼 꽃이 아니고 뭐예요?)

103036 #6 죽으난 꽃으로 환생허연.(죽으니까 꽃으로 환생해서.)

103036 @ 그 꽃 이름이 뭔지 모르쿠과? 전설인게.(그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전설이네요.)

103036 #6 다심애기[70] 꽃.(‘다심애기’ 꽃.)

103036 #6 다심똘인디 남방에로 꽃으로 피언게.(의붓딸인데 ‘남방아’로 꽃으로 피어서.)

103036 #6 옆인 보라색이고 이 가운디 영 꽃 두 개가 저 나룩쏠닮은 거 톡 꽃 두 개가 나룩쏠 닮은 거 이십데다게.(옆엔 보라색이고 이 가운데 이렇게 꽃 두 개가 저 벼 쌀 닮은 거 톡 꽃 두 개가 벼 쌀 닮은 거 있습디다.)

103036 @ 아하하하 그 꽃 흔 번 진짜?(아하하하 그 꽃 한 번 진짜?)

103036 #6 우리어머니가 이거 무신 막 고운 꽃이우다. 허난 거 다심어멍 꽃 아니가? 다심어멍 꽃이 뭐시꽈? 다심어멍이 그 다심똘신디 나룩찌렌ᄒᆞ난 저 찌멍 하도 찌단 버치난 아장, 쏠방울을 두 개 톡 주서서 세러레 톡 입더레 노난, 방애끼로 탁 두드려부난 오꼿 죽으난, 세 여영 헌 냥 죽으난, 그 꽃으로 환생됴시녜. 건 수놓는 말 해난 옛날 말.(우리어머니가 이거 무신 막 고운 꽃입니다. 그러니까 거 의붓어미 꽃 아니가? 의붓어미 꽃이 뭡니까? 의붓어미가 그 의붓딸에게 벼 찧으라고 하니까 저 찧으면서 너무 찧다가 힘드니까 앉아서, 쌀 방울을 두 개 톡 주워서 혀에 톡 입에 노니까, 절구 공이로 탁 두드려 버리니까 그만 죽으니까, 혀 이렇게 한 채 죽으니까, 그 꽃으로 환생되었네. 건 수놓는 말 했었던 옛날 말.)

103036 @ 아이고 정말 게난 그 꽃을 꼭.(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 꽃을 꼭.)

103036 #4 우린 몰라.(우린 몰라.)

103036 @ 이런 말이 중요헌 거.(이런 말이 중요한 거.)

103036 #5 우린 그런 말 안 들언.(우린 그런 말 안 들었어.)

103036 #6 그걸 ᄒᆞ나 맹 올 건디 말쩨 강보난 그 날 쉐 완, 밧갈 쉐 있는 밧, 밧갈 쉐 깨우레 가난 펀찍 엇입디다게. 그거 매레 강 보난, 갈 거.(그걸 하나 맹 올 건데 말째 가서 보니까 그 날 소 와서, 밭 갈 소 있는 밭, 밧 갈 소 깨우러 가니까 ‘펀찍’ 없습디다. 그거 매러 가서 보니까, 갈 거.)

103036 @ 메주, 콩주름, 콩ᄀᆞ루 이건 저번에 막 얘기햇잖아예? 콩주름은 아무 때나 해서 먹진 안잖아예?(메주, 콩주름, 콩가루 이건 저번에 막 얘기했잖아요? 콩주름은 아무 때나 해서 먹진 안잖아요?)

---

70) ‘다심애기’는 ‘다슴애기’. ‘의붓자식’을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103036 #5 아니 건 이녘 그냥 기리우민 그냥 ᄉᆞᆼ키로도 놘 먹언.(아니 건 이녘 그냥 먹고 싶으면 그냥 나물로도 놔서 먹었어.)

103036 #6 콩주름은 막 먹음네다.(콩나물은 막 먹습니다.)

103036 #5 시리에 놩 물 드러 계속 물 줘가민 경 콩 자라낭 ᄀᆞ득안.(시루에 놔서 물 계속 계속 물 줘가면 그렇게 콩 자라나서 가득해져서.)

103036 @ 제사 때나 먹주게.(제사 때나 먹지.)

103036 #6 아무 때라도 먹어.(아무 때라도 먹어.)

103036 #5 아니, 그거 키우멍 건졍 ᄒᆞ쏠 좁아놩.(아니, 그거 키우면서 건져서 조금 집어놔서.)

103036 #6 간세허는 사람 뭣허지. ᄒᆞ낌 놩 먹어.(게으름 피우는 사람 뭣하지. 조금 놔서 먹어.)

103036 #4 것도 공드는 거란 ᄒᆞᆫ에 물 줘사.(것도 공드는 거라서 때에 물 줘야.)

103036 #5 계속 물만 주믄 자라.(계속 물만 주면 자라.)

103036 #4 물 안주민 ᄆᆞᆯ라 불고.(물 안주면 말라 버리고.)

103037 @ 콩찝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까 말헷지예 콩찍, 콩찝? 콩찍? 콩꼬질.(콩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아까 말했지요? '콩찍', 콩짚? 콩짚? 콩깍지.)

103037 #1 콩꼬질 아 콩꼬질은 집에 져다가 그 소 멕이고, ᄆᆞᆯ 잇는 사람은 말도 먹이고 타는 말 있는 사람은, 그니까 옛날 속담에 그러게. ᄆᆞᆯ이 콩꼬질을 ᄒᆞ루ᄌᆞ녁, ᄒᆞᆫ 눌을 눌엉 놔둔 거 다 먹고 싶어도 ᄯᅳᆨ망 아플 거 생각헤가지고 안 먹는다고 허여. 허허허.(콩깍지 아 콩깍지는 집에 져다가 그 소 먹이고, 말 있는 사람은 말도 먹이고 타는 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말이 콩깍지를 하루저녁, 한 가리를 가리어서 놔둔 거 다 먹고 싶어도 똥구멍 아플 거 생각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 허허허.)

103037 @ 아.(아.)

103037 #1 이 ᄆᆞᆯ은 먹으면 먹은 데로 소는 소화가 뒈는 디 말은 소화가 잘 안 뒈여. 소화가 잘 안 뒈서 그냥 나와 버리니까 무한정 먹는 거 이거.(이 말은 먹으면 먹은 데로 소는 소화가 되는 데 말은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냥 나와 버리니까 무한정 먹는 거 이거.)

103037 @ 아.(아.)

103037 #1 배탈 나는 법이 없주 이건.(배탈 나는 법이 없지 이건.)

103037 @ 아.(아.)

103037 #1 먹어가면서 배출 뒈버리니까.(먹어가면서 배출 돼버리니까.)

103037 @ 아.(아.)

103037 #1 게 소 먹다가 남는 것도 어느 정도 말은 더 먹으니까.(그게 소 먹다가 남는 것도 어느 정도 말은 더 먹으니까.)

103037 @ 예. 게난 ᄆᆞᆯ안틴 어느 정도만 주는구나예. 그믄 콩꼬질은 눌을 하는거로구나예? ᄂᆞ람지 놩 눌예?(예. 그러니까 말한텐 어느 정도만 주는군요. 그러면 콩

깍지는 가리를 하는 거로군요? 이엉 놔서 가리요?)

103037 #1 콩꼬질은 눌어야 뒈고, 그디 거 잘게 부서진 거 그 콩 담아져 난 깍지에다 뭐 헌 거 그런 거는 또 둥글려다가 뜨로 맥에 담아다가 이제 쉐막에다가 흔 펜데레 딱 데메둠서 골채로 담으멍 소 멕이고.(콩짚은 가리어야 되고, 거기 거 잘게 부서진 거 그 콩 담아져 난 깍지에다 뭐 한 거 그런 거는 또 둥글려다가 따로 맥에 담아다가 이제 외양간에다가 한편에 딱 쟁여두고서 삼태기로 담으면서 소 먹이고.)

103038 @ 소 멕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 어릴 때 콩 꺾으멍 힘들엇수과? 재미보다도예?(소 먹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때 콩 꺾으면서 힘들었습니까? 재미보다는요?)

103038 #1 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경을 쓰진 않헷주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에, 어디에서 지배를 받아서 허는 것도 아니고 허니까 자중자재로 쉬고 좀 싶으면 쉬고, 좀 허고 싶으면 허고 이렇게 허니까 그 누구안테 충격 받아서 일 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짓는 겁주. 자기 먹을 거니까.(그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어디에 서 지배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중자재로 쉬고 좀 싶으면 쉬고, 좀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구한테 충격 받아서 일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짓는 거지. 자기 먹을 거니까.)

밭벼 농사

103039 @ 이제는 산듸로 가쿠다.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산듸 허젠 허믄 뭐 영 거름을 내거나 보리처럼 뭐 준비 안 레도 뒈마씨?(이제는 밭벼로 갈께요.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밭벼 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거름을 내거나 보리처럼 뭐 준비 안 해도 되요?)

103039 #1 옛날에는 준비 헐 게 없는 거주게. 밧이 열필이 잇으며는 그디서 흔 서너 늬 필은 항상 쉬어. 밧을 갈앗다가, 갈앗다가 이제 풀 잘 안 나게. 게서 노는 밧이 잇으면은 옛날에는 우마가 많아요.(옛날에는 준비 할 게 없는 거지. 밭이 열 필이 있으면 거기서 한 서너 네 필은 항상 쉬어. 밭을 갈았다가, 갈았다가 이제 풀 잘 안 나게. 그래서 노는 밭이 있으면 옛날에는 우마가 많아요.)

103039 @ 예.(예.)

103039 #1 집마다 질루왓으니까. 밧디 들어가서 뎅이고 풀 다듬아 먹어 불고, 무싱 거 우마가 똥, 오줌 싸고 밧을 쉬우면은 쉬와야 농사가 잘 뒈지. 그 계속 연작을 허게 뒈며는 조가 딴 거 허민 지믜진다[71]고 헤여. 병들어서 그냥 멜락 자우라져서 결실이 안 뒈니까. 밧을 힘을 돋구울라고 허면은 그렇게 밧을 일 년 갈면서 헷빛 마추고 풀 못나게 헤서 쉬우고, 또 옛날에는 부지런헌 사람은 이 옛날에는 소 먹는 물이고 사람 먹는 물이고 ᄀᆞᄆᆞ라서 물이 다 빠지면은 펄이라고 허여. 흑 뽑아진 거. 부지런헌 사람은 그거를 파다가 높은데 가져 놔. 물싹헌 걸 가져가서 물이

71) '지믜지다'는 조대가 희읍스름하게 시들어 마르다는 뜻이다.

빠져 튼튼허면은 그놈을 또 맥에 담아다가 밧데다가 뿌려 줘. 그러면 밧이 그것이 일등 퉤비라.(집마다 길러왔으니까. 밭에 들어가서 다니고 풀 다듬어 먹어버리고, 무슨 거 우마가 똥, 오줌 싸고 밭을 쉬우면 쉬어야 농사가 잘 되지. 그 계속 연작을 하게 되면 조가 딴 거 하면 '지믜진다'고 해. 병들어서 그냥 폭삭 갸울어져서 결실이 안 되니까. 밭을 힘을 줄려고 하면 그렇게 밭을 일 년 갈면서 햇볕 마치고 풀 못나게 해서 쉬게 하고, 또 옛날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이 옛날에는 소 먹는 물이고 사람 먹는 물이고 말라서 물이 다 빠지면 뻘이라고 해. 흙 뽑아진 거. 부지런한 사람은 그거를 파다가 높은데 가져 놔. 물렁한 걸 물이 빠져 탄탄하면 그놈을 또 멱에 담아다가 밭에다가 뿌려 줘. 그러면 밭에 그것이 일등 퇴비라.)

103039 #5 뭐 그것도 곳사 조허듯게. 조허듯.(뭐 그것도 금방 조하듯. 조하듯.)

103039 #4 아니, 산듸는, 산듸는 인칙 헤사.(아니, 밭벼는, 밭벼는 일찍 해야.)

103039 #5 게메. 인칙이 ᄒᆞ쏠, ᄒᆞ꼼 인칙은 허주만은.(글쎄. 일찍 조금, 조금 일찍 하지만.)

103040 @ 산듸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밭벼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40 #1 산듸는 산듸농사는 봄에 뻐국새가 울 때는 산듸씨를 뿌립니다. 뻐국뻐꾹 헤가면은 어, 산듸 헐 시기가 됏다.(밭벼는 밭벼농사는 봄에 뻐국새가 울 때는 밭벼씨를 뿌립니다. 뻐국뻐꾹 해 가면은 어, 밭벼 할 시기가 됐다.)

103040 @ 쯧쯧쯧쯧.(쯧쯧쯧쯧.)

103040 @ 허허허허허허. 어, 게난 요새 사람은 그런 거 몰르주게.(허허허허허허. 어, 그러니까 요새 사람은 그런 거 모르지.)

103040 @ 예. 멋잇다예. 어떻게 갑니까? 이것도 뭐 아까처럼 콩처럼 깊게 가느냐? 덜 가느냐? 그런 거 엇어마씨?(예. 멋있네요. 어떻게 갑니까? 이것도 뭐 아까처럼 콩처럼 깊게 가느냐? 덜 가느냐? 그런 거 없어요?)

103040 #1 산듸는 갈아서 조처럼 밟아줘.(밭벼는 갈아서 조처럼 밟아줘.)

103040 @ 아아아아.(아아아아.)

103040 #1 밧이 펜펜허게. 논밧도 울퉁불퉁 허믄 안되지예. 펜펜허게 헤서 그냥 허듯이. 산듸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밧을 펜안허게 높은 디 야픈 디 없이 펜안허게 헤서 이제 쉐로 붋리믄 높은 디 붋으면은 뭘 허고 덜 돌롸지는 디는 사람이 뒤에 쫓아 뎅기면서 발로 툭툭 두루 차가지고 우마가 붋을 수 있게. 이 우마는 펭지에만 불으지, 높은 디는 붋으지 말라고 허니까. 어떻게 눈이 앞뒤에 돋는지 딱 솔펴서 앞발 가난 디 뒷발만 가거든.(밭이 편편하게 해서 그냥 논밭도 울퉁불퉁 하면 안 되지요. 편편하게 해서 그냥 하듯이. 밭벼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밭을 편안하게 높은 데 얕은 데 없이 편안하게 해서 이제 소로 밟으면 높은 데 밟으면 뭘 하고 덜 '돌롸지는데' 사람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발로 툭툭 덜 차가지고 우마가 밟을 수 있게. 이 우마는 평지에만 밟지, 높은 데는 밟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눈이 앞뒤에서 달렸는지 딱 살펴서 앞발 갔던 데 뒷발만 가거든.)

103040 @ 아아.(아아.)

103040 #1 ᄆᆞᆯ이고 쉐고. 앞발이 이렇게 가서 뭐 허민 뒷발이 똑 거기만 강 밟아. 게니까 뱅뱅 돌암서야 이게 어슥비슥이슥 허지. 다덜 구짝 ᄇᆞᆯ려가지를 안허고 이렇게 팽 항상 돌아가야 뒈어. 돌아가야 이제 자국이 여러 개 늬발 돋은 디가 늬발 ᄇᆞᆯ롸지지 구짝 밧가는 식으로 구짝가면은 앞발 붋은 디 뒷발도 붋아 버리니까 그만큼 동작이 느려.(말이고 소고. 앞발이 이렇게 가서 뭐 하면 뒷발이 꼭 거기만 가서 밟아. 그러니까 뱅뱅 돌고 있어야 이게 어슷비슷 하지. 다들 바로 밟아가지를 않고 이렇게 뺑 항상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이제 자국이 여러 개 네발 돋은 데가 네발 밟지. 바로 밭가는 식으로 바로 가면 앞발 가는데 뒷발도 밟아 버리니까 그만큼 동작이 느려.)

103040 @ 아아, 그렇구나.(아아, 그렇구나.)

103040 #5 그건 봄이 가는 거난.(건 봄에 가는 거니까.)

103040 #4 봄이, 봄이.(봄에, 봄에.)

103040 @ 봄 몇 월?(봄 몇 월?)

103040 #5 삼월 ᄃᆞᆯ에.(삼월 달에.)

103040 #4 삼월 ᄃᆞᆯ에.(삼월 달에.)

103040 @ 음력 삼월예?(음력 삼월요?)

103040 #4 그것도 ᄇᆞᆯ리곡 산듸도 허민.(것도 밟고 밭벼도 하면.)

103040 #5 멘네광 산듸는 저 3월ᄃᆞᆯ에 허는 거.(면화와 밭벼는 저 3월 달에 하는 거.)

103041 @ 산듸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밭벼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옛날에사 산듸 걸름이 셔게?(옛날에야 밭벼 거름이 있나?)

103041 @ 보리처럼 안 헷구나예?(보리처럼 안했군요?)

103041 #1 불체 같은 거 허면은 이 저 요새 감자, 옛날은 지실이라고 허는 데 지실 놀 때나 쓰주 어, 또 경 안헤서 모른 사람은 사람마다 메ᄆᆞᆯ 농사는 안 허지만은 메ᄆᆞᆯ 농사허는 사람덜은 그 오좀 모두앗다가 오좀 항이라고 잇서. 바깟데 오좀 항 가득 오좀 단지 헤가지고 ᄇᆞᆯ민 뭐허믄 그레 막 모두앗다가 불체에 놧다가 거 가서 놓는 거 좁놈이라고 헤서 ᄆᆞᆯ 가는데는. 이렇게 뿌리는 거 보고 좁는다라고 헤여.(재 같은 거 하면 이 저 저 요새 감자, 옛날은 '지실'이라고 하는 데 감자 놀 때나 쓰지 어, 또 그렇게 않고 모른 사람은 사람마다 메밀 농사는 안하지만 메밀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오줌 모아놨다가 오줌 항아리라고 있어. 바깥에 오줌 항아리 가득 오줌단지 해가지고 빨면 뭐하면 거기 막 모아놨다가 재에 놨다가 그거 가서 놓는 거 '좁는디'라고 해가지고 메밀 가는 데는 이렇게 뿌리는 거 보고 '집어서 놓는다'라고 해.)

103041 @ 아아.(아아.)

103041 #1 좁아서 놓는 거니까.(집어서 놓는 거니까.)

103041 @ 불체 뿌릴 때마씨? 오좀 뿌릴 때?(불체 뿌릴 때요? 오좀 뿌릴 때?)

103041 #1 씨에 버무리면은 밧을 갈아노면은 이렇게 탈탈 허는 거 보고 좁는다

고 헤서. 좁아서 논다는 말이지. 좁논다고.(씨에 버무리면 밭을 갈아노면은 이렇게 탈탈 하는 거 보고 '좁논다'고 해. 집어서 놓는다는 말이지. '좁논다'고.)

103041 @ 불체하고 씨 서끈 거를 좁논다?(재하고 씨 섞은 거를 '좁논다'?)

103041 #1 예. 게 불체가 축축허거든게. 자꾸 오줌에 헤노니까.(예. 그게 재가 축축허거든. 자꾸 오줌에 해버리니까.)

103041 @ 오줌에.(오줌에.)

103041 #1 벳 마치지 안허고 가만이 이제 더껑 놔두니까.(볕 맡지 않고 가만히 이제 덮어서 놔두니까.)

103041 @ 아아.(아아.)

103041 #1 게서 축축헌 때 너미 물르면은 또 물이라도 끌어가서 어떵 헹 축축허게 헤가지고 허면은 불체에 씨에 버무려지면은 이제 헤싸지질 안허니까.(그래서 이제 축축한 때 너무 마르면 또 물이라도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 축축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재에 씨에 버무려지면 이제 헤벌어지질 않으니까.)

103041 #5 걸름 안허고.(거름 안하고.)

103041 #4 건 걸름 안허는 거.(그건 거름 안하는 거.)

103041 #5 건 그냥 산듸씨 삐엉 갈앙 그자 불류민 뒈는 거고.(건 그냥 밭벼씨 뿌려서 갈아서 그저 밟으면 되는 거고.)

103041 @ 이것도 불려사 뒈여마씨?(건 그냥 밭벼씨 뿌려서 갈아서 그저 밟으면 되는 거고.)

103041 #5 예. 막 불려사 산듸 녹아불어.(예. 막 밟아야 밭벼 녹아버려.)

103041 #4 녹아불어.(녹아버려)

103041 @ 아아, 물 빌엉 아까 보리, 저 조 불리듯이.(아아, 말 빌어서 아까 보리, 저 조 밟듯이.)

103041 #4 응. 그래, 그래.(응. 그래, 그래.)

103041 #5 조 불리듯이 막 불려사. 지깍, 디깍 불리우민 어떵 글로 춤 땅 땅 팡 온 딜로 어떵 헹 솟앙 잘 나오라. ᄁᆞ작, ᄁᆞ작, ᄁᆞ작, ᄁᆞ작.(조 밟듯이 막 밟아야. 지깍, 디깍 밟으면 어떻게 글로 참 땅 땅 파서 온데로 어떻게 해서 솟아서 잘 나오라. 뽀족, 뽀족, 뽀족, 뽀족.)

103042 @ 아아!(아아!)

103041 #6 경 불려진 딘 아니 죽고, 아니 불려진 딘 다 나왕 죽어 불고.(그렇게 밟은 덴 아니 죽고, 아니 밟은 덴 다 나와서 죽어 버리고.)

103041 #5 녹앙게, 녹안 녹아불어.(녹아서, 녹아서 녹아버려.)

103042 @ 아이고 신기허다예.(아이고 신기하네요.)

103042 @ 산듸는 어떻게 뿌립니까?(밭벼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산듸씨도 뿌리는 거 뭐 콩씨 뿌리나 이 씨 그건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뿌리니까 뭐 거 다 비슷헌 다 동작이지예.(밭벼씨도 뿌리는 거 뭐 다 콩씨 뿌리나 이 씨 그거 기계가 아니고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뿌리니까 뭐 다

비슷한 다 동작이지요.)

103042 @ 남자 여자나 다 뿌리고예?(남자 여자나 다 뿌리고요?)

103042 #1 예.(예.)

103043 @ 그 다음, 밧벼, 산듸는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그 다음, 밭벼, 밭벼는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5 싀 번.(세 번.)

103043 @ 이것도 싀 번, 조허고 똑닮다예.(이것도 세 번, 조하고 꼭 같네요.)

103043 #5 예.(예.)

103044 @ 그러면 산듸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밭벼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44 #1 제주도 검질은 옛날부터 제완지. 유멩허는 게 제완지허고 복쿨. 복쿨이라는 검질은 중간 우마가 주면은 옆으로 막 걸이니까 자손 많은 사람 모냥으로 막 걸이니까 그래서 걸 복쿨이라고 헤여.(제주도 김은 옛날부터 바랭이. 유명한 게 바랭이허고 깨풀, 깨풀이라는 김은 중간 우마가 주면 옆으로 막 걸이니까 자손 많은 사람모양으로 막 걸이니까 그래서 걸 깨풀이라고 해.)

103042 @ 아아!(아아!)

103044 #1 우마가 주면은 막 좋아하니까 막 번지니까. 게서 옛날은 복클, 제완지, 게서 제완지 방석에 앚앗다고 허여. 부인들이 제완지 방석에 앉앗다고.(우마가 주면 막 좋아하니까 막 번지니까. 옛날은 깨풀, 바랭이, 그래서 바랭이 방석에 앉았다고 해. 부인들이 바랭이 방석에 앉았다고.)

103044 @ 검질 짓엇다 라는 뜻이지예?(김 짓었다 라는 뜻이지요?)

103044 #1 예. 제완지라는 검질이 씨가 워낙 많은 거라.(예. 바랭이라는 김이 씨가 워낙 많은 거라.)

103044 #5 그냥 건 조밧디 나는 거나 그디 나는 거나 마찬가지.(그냥 건 조 밭에 나는 거나 거기 나는 거나 마찬가지.)

103044 #6 절란지, 더 대개 그건 절란지.(바랭이, 더 대개 그건 바랭이.)

103044 #5 보통은 절란지가 하주게. 산듸삼춘도 잘나오고.(보통은 바랭이가 많지. 방동사니도 잘나오고.)

103045 @ 산듸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벨 때? 도깨 할 때?(밭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벨 때? 도리깨 할 때?)

103045 #1 호미로 비어가지고 그거는 무꺼당 집이 오라근에 거 가레기쉐[72] 영헌 거 게 헤서 홀트주게. 홀탕 도깨로 두드려야 뒈어. 것도.(낫으로 베어가지고 그거는 묶어 다가 집에 와서 거 '가레기쇠' 이렇게 한 거 헤서 훑지. 훑어서 도리깨로 두드려야 돼. 것도.)

103045 @ 가레기쇠가 이게 보리 클이 아니고? 이거는 산듸 클이꽈?('가레기쇠'가 이게 보리 틀이 아니고? 이거는 밭벼 틀입니까?)

---

72) '가레기쇠'는 가레기클 또는 나록클을 이르는 말로 벼를 훑는 기구를 말한다.

103045 #1 보리클에.(보리틀에.)
103045 @ 보리클에?(보리틀에?)
103045 #1 예.(예.)
103045 @ 홀타예?(홅어요?)
103045 #1 보리클도 그 저 굵은 놈이 잇고, 좀진 놈이 잇거든.(보리틀도 그 저 굵은 놈이 있고, 가는 놈이 있거든.)
103045 @ 예.(예.)
103045 #1 굵은 놈은 주로 보리허고.(굵은 놈은 주로 보리하고.)
103045 @ 예.(예.)
103045 #1 좀질게 영 부튼 놈은 주로 산듸 ᄀᆞ튼 걸 영 훌타야.(잘게 이렇게 붙은 놈은 주로 밭벼 같은 걸 이렇게 홅어야.)
103045 @ 그믄 두 가지를 만들엉 집에 이십니까? 보리클 따로 산듸클 따로?(그러면 두 가지를 만들어서 집에 있습니까? 보리틀 따로 밭벼틀 따로?)
103045 #1 예. 주로 그렇게 허지예.(예. 주로 그렇게 하지요.)
103045 @ 산듸 클이렌 헙니까?(밭벼 틀이라고 합니까?)
103045 #1 게니까 뭐 그거 하나로만도 다 뒈긴 뒙니다. 하나로만도 뒈긴 뒈는데 쪼금 뭐 헌 사람은 보리 두 개 헤가지고 놔두면은 둘 걸어가지고 보리도 훌트곡 산듸도 훌트곡.(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로만도 되긴 됩니다. 하나로만도 되긴 되는데 조금 뭐한 사람은 보리 두 개 해가지고 놔두면 둘 걸어가지고 보리도 홅고 밭벼도 홅고.)
103045 @ 그 보리클을 산뒤클이렌도 헙니까?(보리 틀을 밭벼 틀이라고도 합니까?)
103045 #1 예?(예?)
103045 @ 산듸클이렌은 안허지예?(밭벼 틀이라고 안하지요?)
103045 #1 산듸클이옌 ᄯᅳ로 이름은 안허곡.(밭벼 틀이라고 따로 이름은 안하고.)
103045 @ 클, 클.(틀, 틀.)
103045 #1예.(예.)
103045 @ 클예? 이것도 도깨질 헙니까?(틀요? 이것도 도리깨질 합니까?)
103045 #1 방법이 엇이 도깨로 ᄯᅳ려사.(방법이 없이 도리깨로 때려야.)
103045 @ 이것도.(이것도.)
103045 #1 예.(예.)
103045 @ 아, 조처럼 저 ᄆᆞᆯ방에로 둥글이는 건 아니구나예?(이것도 조처럼 저 연자방아로 둥글이는 건 아니군요?)
103045 #1 예. 그러믄 쏠 나오라 불어.(예. 그러면 쌀 나와 버려.)
103045 @ 조 밖엔 조가 ᄆᆞᆯ방에로구나.(조밖엔 조가 연자방아로구나.)
103045 #1 예. 조는 그 많이 놔서 그 부인, 쉐 몰곡 뒤에서 손보는 사람이 부지런허주기. 막 뭉텡이져서 그냥 허면은 영 나오민 ᄠᅳᆼ끄랭이 가야지 경 안 허민 도리

에 얼먹으니까 부인네덜이 부지런헤야 뒈어.(예. 조는 그 많이 놔서 그 소 몰고 뒤에서 손보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막 뭉텅이 져서 그냥 하면 이렇게 나오면 줄곧 가야지 그렇게 안하면 도리어 얼먹으니까 부인네들이 부지런해야 돼.)

103045 #5 그건 도깨질도 허고 방에에 강 둥글임도 허곡 허난.(그건 도리깨질도 하고 방아에 가서 둥글이기도 하고 하니까.)

103045 #4 산듸? 아이 산듸 옛날엔 좁게 헤근에 ᄒᆞ록ᄒᆞ록 홀타낫져. 헤끄만헌 건.(밭벼? 아이 밭벼 옛날엔 목대 해서 '혹혹혹혹' 홅았었지. 조그마한 건.)

103046 @ 홀타마씨?(홅아요?)

103045 #5 이렇게, 요렇게 낭께기로 헤영 영 놩 영 좁쩐 화르륵허게 홀트고, 영 허연.(이렇게, 요렇게 나무 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놔서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르륵하게 홅고, 이렇게 해서.)

103045 #6 경 헹 들렁 헌디도 싯고, 또 쳇망, 쳇망으로 영 헹 홀트는 디도 싯고.(그렇게 해서 들러서 한데도 있고, 또 쳇바퀴, 쳇바퀴 들러서 홅는 데도 있고.)

103045 #5 자르륵, 자르륵.(자르륵, 자르륵.)

103046 @ 좁게허곡 쳇망예? 자르륵 자르륵. 도깨도 허곡?(목대하고 쳇망요? 자르륵 자르륵. 도리깨도 하고?)

103045 #5 예.(예.)

103046 @ 벨 땐 호미로 베곡예?(벨 땐 낫으로 베고요?)

103045 #5 예.(예.)

103046 @ 보리 베는 거 허고 똑같아마씨?(보리 베는 거 하고 똑같아요?)

103045 #5 예.(예.)

103046 @ 도깨질. 산듸쌀로는 무엇을 헙니까?(타작. 밭벼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46 #1 에?(에?)

103046 @ 산듸쌀로는 무엇을 헤서 먹읍니까?(밭벼쌀로는 무엇을 해서 먹습니까?)

103046 #1 아이고, 이 산듸쏠로는 아이구, 생일밥이나 헤 먹고 식게 때나 헤 먹주. 게 옛날에는 잔치 때에 보리밥 이렇게 걸이곡 그 우에 흔 수꾸락헤서 싹 허게 영 허면은 이게 전부 쏠밥인가푸덴 헹 보면은 우에는 헤헤헤헤헤 옷 입진 거. 옷 입진거라. 이렇게 헹 보면은 보긴 좋은 디 숫구락을 딱 떵 보면 밑에는 보리밥이라.(에? 아이고 이 밭벼쌀로는 아이구, 생일 밥이나 해 먹고 제사 때나 해 먹지. 게 옛날에는 잔치 때 보리밥 이렇게 뜨고 그 위에 한수저해서 싹 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쌀밥인가보다 해서 보면 위에는 옷 입힌 거라. 옷 입힌 거라. 이렇게 해서 보면 보긴 좋은 데 숟가락을 딱 떠서 보면 밑에는 보리밥이라.)

103046 @ 아아, 쯧쯧쯧쯧.(아아, 쯧쯧쯧쯧.)

103046 #1 게난 그때는 잔치 때 아으덜 울어 가면은 울지 말라 근밥 주켄허면은 눈물 확 씰고 아니 울어.(그러니까 그때는 잔치 때 아이들 울어 가면 울지 말라

흰밥 주겠다고 하면 눈물 확 닦고 안 울어.)

103046 @ 아아, 눈물 확 안 씰고.(아아, 눈물 확 안 닦고.)

103046 #1 하하하하. 겨난 육지사람덜은 경 골읍디다. 제주도 처녀는 시집갈 때까지 에, 쌀 닷 뒈를 못 먹고, 시집간다고. 거 얼마나 나무렛수과?(하하하하.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디다. 제주도 처녀는 시집갈 때까지 쌀 닷 되를 못 먹고, 시집간다고 그거 얼마나 나무랐습니까?)

103046 @ 아이고, 게난. 떡도 헤 먹어나신가예?(아이고, 그러니까. 떡도 해 먹었었나요?)

103046 #1 예?(예?)

103046 @ 산듸쏠로 떡?(밭벼쌀로 떡?)

103046 #1 떡허면은 근쏠 제펜[73]이라고 허거든. 근쏠 제펜. 제펜만 줘도 아주 그냥 옛날 산듸쏠은 흐리지 안허영 모히혀. 모히여도 그걸 좋아하고, 이 생활수준이 남군과 북군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예. 북군에서는 우리 북군에서는 침떡을 헤도 얄바. 입으로 끊어먹기에 한걸 허는데 남군엔 꺾어서 먹어야지. 두께가 10센치정도 뚜껍게 허여. 모멀같은 것은 돌래떡이라고 셔양. 돌래떡 두 개 이렇게 붙여서 크게 만들고 우리 모관에서는 하나, 하나헤서 두 개 붙이지도 안허고 줄아. 게 대정사람덜은 나무레여.(떡하면 흰쌀 '제펜'이라고 하거든. 흰쌀 '제펜'. '제펜'만 줘도 아주 그냥 옛날 밭벼쌀은 흐리지 않아서 메져. 메져도 그걸 좋아하고, 이 생활수준이 남군과 북군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북군에서는 우리 북군에서는 시루떡을 해도 얇아. 입으로 끊어먹기에 한거하는데 남군엔 꺾어야 먹어야지 두께가 10센치 정도 두껍게 해. 메밀같은 것은 도래떡이라고 있어요. 도래떡 두 개 이렇게 붙여서 크게 만들고 우리 모관에서는 하나, 하나해서 두 개 붙이지도 않고 잘아. 그래서 대정 사람들은 나무라지.)

103046 @ 아아. 졸다고예? 나무레여. 대정이 더 못살지 안헤마씨?(아아. 잘다고요? 나무라요. 대정이 더 못살지 않아요?)

103046 #1 아, 떡 멘들아 놓은 거 보면 대정은 부촌이고.(아, 떡 만들아 놓은 거 보면 대정은 부촌이고.)

103046 @ 어어.(어어.)

103046 #1 우리 북군은 그냥 아주 게서 거 장사 때에 고적[74]이라고 허는데 고적이 아니고 말허자면 고족이주게.(우리 북군은 그냥 아주 그래서 거 장사 때 '고적'이라고 하는데 '고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고족'이지.)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돌아볼 고제, 전래 적제. 고적이 아니고 고족이주게 친족끼리 돌아본다는 말이.(돌아볼 고제, 전래 적제. '고적'이 아니고 말하자면 '고족'이지. 친족끼리 돌아본다는 말이.)

---

73) '제펜'은 지편이라고도 하며 쌀가루에 팥소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을 말한다.
74) '고적'은 집안에 장사가 났을 때, 친척들이 부조로 하는 떡이나 쌀을 말한다.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고족이라고 게서 사투리로 고적 바찌라. 허는데 대정에는 멧 놈의 치, 우리는 흔 합, 두합, 흔 합은 좀 먼 친척, 두합은 가까운 친척, 경 헤서 이제 그 떡을 경 헹 ᄒᆞ는데 남군 사람은 오면은 두 합 흔 합이 뭐여 경허거든. 멧 놈의 치, 거기서는 그렇게 허드라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성 다른 형제가 잇어 가지고 우리 할머니 돌아간 때 헹 보니까 ᄌᆞ손덜이 막 그디 ᄋᆞ라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멧 합인가 허니까 아 그것에 숭헙디다. 멧 합이 뭐냐고? 우리 멧 놈역, 멧 놈역, 멧 놈의 치 헹 오랏다고 영 허는 디 서른 놈역 헤오랏져. 마흔 놈역 해오랏져. 허는 디 여기는 흔 합이여, 두 합이여, 허니까 통허질 안허여.(고족이라고 그래서 사투리로 '고적' 바치라. 하는데 대정에는 몇 놈의 치, 우리는 한 합, 두 합, 한 합은 좀 먼 친척, 두합은 가까운 친척, 그렇게 해서 여기 떡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남군 사람은 오면 두 합, 한 합이 뭐야 그렇게 하거든. 몇 놈의 치, 거기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성 다른 형제가 있어서 우리 할머니 돌아간 때 해서 보니까 자손들이 막 여러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몇 합인가 하니까 오 그것에 흉봅디다. 몇 합이 뭐냐고? 우리 몇 놈 역, 몇 놈 역, 몇 놈의 치 해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서른 놈 역 해왔다. 마흔 놈 역 해왔다. 하는데 여기는 한 합이여 두 합이여 하니까 통하질 않아.)

103046 @ 멧 합은 뭐꽈 아까? 멧 합?(몇 합은 뭡니까 아까? 몇 합?)

103046 #1 흔 합은 에, 말하자면 열 빗.(한 합은 말하자면 열 빗.)

103046 @ 열 빗.(열 빗.)

103046 #1 두합이먄 스무 어어, 경 헤실거우다. 하, 경허난 이 제주도 풍습도 ᄋᆞ라찔이라.(두합은 어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 그러니까 제주도 풍습도 가지가지라.)

103046 @ 대정은 열 빗, 이런 식이 아니고 더 많이?(대정은 열 빗, 이런 식이 아니고 더 많이?)

103046 #1 이제는 또 옛날에는 그 못 살아 노니까.(이제는 또 옛날에는 그 못 살아 버리니까.)

103046 @ 못 살아 노니까.(못 살아 버리니까.)

103046 #1 떡 받는 거를 아주 뭐허고, 세력 있는 아이덜은 그 사람 봐가지고 ᄋᆞᆮ에서라도 떡을 주면은 가이는 버치는디, 불쌍한 아이는 아니 주고 주는 아이신디만 강 부모 세력을 봐가지고 막 아이고.(떡 받는 거를 아주 뭐 하고, 세력 있는 아이들은 그 사람 봐가지고 옆에서라도 떡을 주면 걔는 부치는데, 불쌍한 아이는 안 주고 주는 아이에게만 가서 부모 세력을 봐가지고 막 아이고.)

103046 @ 반 탈 때에? 멩절 날도?(반 탈 때에? 명절날도?)

103046 #1 제주도 풍속도 여러 가지라. 저 성산포 오조리 우리 일가에서 사돈을 헷는데 그디는 부모가 죽으면은 초상은 뚤이 전부 책임진다고.(제주도 풍속도 여러 가지라. 저 성산포 오조리 우리 일가에서 사돈을 했는데 거기는 부모가 죽으면 조

상은 딸이 전부 책임진다고.)

103046 @ 오우야.(오우.)

103046 #1 ᄋᆞ 그릇이건 뭐고 전부 책임진다고 허드라고. 게서 간에 나신디 와 가지고 삼촌 영 졍 헌덴 허는 디 어떵허코마씸? 허쿠테 돈으로 때라. 어데 서에서 한라산 너머 그릇지고, 사람 빌고, 뒈지 잡고, 쏠 뭐, 하간 뭐, 먹을 꺼 당헤가지고 어떵케 허는냐고 이디서 사람 빌고 거 안뒌다. 안뒈니까 돈으로 땔 테니까 거기 풍속대로 거기서 다하면은 그 경비는 내가 물테니까니 허라헤서 딱 간 그렇게 헷주.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여. 우린 제주에서는 그런 거 없어.(아, 그릇이건 뭐고 전부 책임진다고 하드라고. 그래서 걔네 나에게 와 가지고 삼촌 이렇게 졍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기에 돈으로 대라 어디 철에서 한라산 너머 그릇지고, 사람 빌고, 돼지 잡고, 쌀 뭐 여러 가지 먹을 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서 사람 빌고 거 안 된다. 안 되니까 돈으로 댈 테니까 거기 풍속대로 거기서 다하면 경비는 내가 물테니까 하라고 해서 딱 가서 그렇게 했지. 무조건 책임지라는 거야. 우리 제주에서는 그런 게 없어.)

103046 @ 예.(예.)

103046 #1 초상을 무조건 뚤이 책임진다는 거라.(조상을 무조건 딸이 책임진다는 거라.)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아덜은 상제질만 헌다는 거야.(아들은 상제질만 한다는 거야.)

103046 @ 신기하다예. 오조리예?(신기하네요. 오조리요?)

103046 #1 제주도 풍속도 여러 찔이라.(제주도 풍속도 가지가지라.)

103046 #5 밥도 헹 먹고, 떡도 허고, 식게 멩질헐 땐 걸로 멥쏠도 허곡, 걸로 다시 침떡 허영은에.(밥도 해서 먹고, 떡도 허고, 제사 명절 할 땐 걸로 멥쌀도 하고, 걸로 다시 시루떡 해서.)

103046 #4 아이고 옛날이사 오죽 어려왕.(아이고 옛날이야 오죽 어려워서.)

103046 @ 무슨 침떡?(무슨 시루떡?)

103046 #5 그냥 헤양헌 침떡.(그냥 하얀 시루떡.)

103046 #6 침떡, 제ᄉᆞ 때에나 제ᄉᆞ 때에 멩절 헐 때나.(시루떡, 제사 때에나 제사 때 명절 할 때나.)

103046 #4 막 멩심헐 땐 허곡.(막 조심할 땐 하고.)

103046 #5 ᄉᆞ믓 옛날은 침떡도 좁쏠떡 이제 우이 헤영케 ᄒᆞ낍썩 입진만 헷어.(사뭇 옛날은 시루떡도 좁쌀떡 이제 위에 하얗게 조금씩 입히기만 했어.)

103046 #6 반착씩 좁쏠 반착 쏠 반착.(반짝씩 좁쌀 반쪽, 쌀 반쪽.)

103046 #5 이제는 ᄒᆞ쏠 입졍은에 고달 입졍.(이제는 조금 입혀서 '고달' 입혀서.)

103046 #4 고달 놩.('고달' 놔서.)

103046 #5 고달 입지멍, 경 허멍 옛날은 허곡 저 궨당칩이 집이 영장이나 나민

ᄇᆞ딘 촌은 스무 빗 헹 가곡 다시 이제 먼촌엔 ᄒᆞᆫ 합 헹 가고, 너미 ᄇᆞ든 촌은 ᄉᆡ 합도 허곡 경 허멍 헤서.(‘고달’ 입히면서, 그렇게 하면서 옛날은 하고 저 친척집에 영장이나 나면 가까운 촌은 스무 빗 해서 가고 다시 이제 먼촌엔 한 합 해서 가고, 너무 가까운 촌은 세 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

103046 @ 산듸 ᄉᆞᆯ로예?(밭벼 쌀로요?)

103046 #5 좁ᄉᆞᆯ로 허곡, 산듸.(좁쌀로 하고, 밭벼.)

103046 #4 좁ᄉᆞᆯ이 보통이주기. 산듸ᄉᆞᆯ 어느 제.(좁쌀이 보통이주기. 밭벼쌀 언제.)

103046 @ 산듸ᄉᆞᆯ 헤져?(밭벼쌀 했어요?)

103046 #4 산듸ᄉᆞᆯ 어느ᄌᆞ를에.(밭벼쌀 어느 겨를에.)

103047 @ 그믄 산듸찍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밭벼 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7 #1 산듸 찍은 소 멕여. 것도.(밭벼 짚은 소 먹여.)

103047 @ 어어.(어어.)

103047 #1 이 곡식 대는 주로 다 소. 것도.(이 곡식 대는 주로 다 소.)

103047 @ 또 이거 짚신, 멕이나 안 헙니까? 산듸찍으로.(또 이거 짚신, 먹이나 안합니까? 밭벼 짚으로.)

103047 #1 그거는 저 강정 법환이나 이 해안 도로 가가지고 논밧디서 나룩찍이라고 헤서 사다가 멕도 줒고 신도 삼고 이 이디는 비작비작[75]헤서 괄아.(그거는 저 강정, 법환이나 해안 도로 가가지고 논밭에서 볏짚이라고 해서 사다가 먹도 짜고 신도 삼고 이 여기는 ‘비작비작’해서 잘 말라.)

103047 @ 아아.(아아.)

103047 #1 ᄆᆞ른 밧디서 큰 거라노니까 ᄒᆞᄉᆞᆯ ᄆᆞᆯ랏다허민 막 부서져불고 허는데, 논밧디서 나가지고 물 잘 줘서 헌 거는 그 두드려근에 물 퐁퐁허면은 흘렁흘렁 헤가지고.(마른 밭에서 큰 거라서 조금 말랐다 하면 막 부서져버리고 하는데, 논밭에서 나가지고 물 잘 줘서 한 거는 그 두드려서 물 퐁퐁하면 흘렁흘렁 해가지고.)

103047 @ 아아. 신기하다예.(아아. 신기하네요.)

103047 #1 멕, 멍석 다 이 해변서 지어. 게난 옛날 속담이 그렇지 안허꽈게? 검악 사람이 해변 사람보다 튀는 궤기를 ᄆᆞᆫ저 먹엇다고 허여. 제주도에는 일 강정, 이 법환리 헤서 논밧을 제일 세는 데거든예. 일 강정, 이 법환리. 거기서 먹음직헌 고기를 낚은 것을 검악 놈이 ᄆᆞᆫ저 먹엇다고 헤여. 검악이 축산단지가 뒈서 옛날도 부자라노니까, 강정, 법환리 좋은 논밧은 검악 놈이 가졋다는 거여. 검악사람이 가져노니까 그 밧을 날 벌게 헤줍서. 검악서 강 못 벌거든. 거 헤줍센 헐라고 허면은 밧 안에서 먹음직헌 고기 큰 걸 낚아지면은 붉기 전이 옛날 걸어서 다닐 때에 검악 오라서 그냥 밧 주인을 사귄다고 헤여.(먹, 멍석 다 이 해변에서 지어.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금악 사람이 해변 사람보다 튀는 고기를 먼저 먹었다고

75) ‘비작비작’은 풀 따위가 잘 달라붙는 모양이다.

해. 제주도에는 일 강정, 이 법환리 해서 논밭을 제일 세는 데거든요. 일 강정, 이 법환리 거기서 먹음직한 고기를 낚은 것을 금악 놈이 먼저 먹었다고 해. 금악이 축산단지가 되서 옛날도 부자라노니까, 강정, 법환리 좋은 논밭은 금악놈이 가졌다는 거여. 금악사람이 가져노니까 그 밭을 날 벌게 해주세요. 금악에서는 못 벌거든. 그거 해 주라고 하려고 하면 밭 안에서 먹음직한 고기 큰 걸 낚아지면 밝기기 전에 옛날 걸어서 다닐 때에 금악 와서 그냥 밭주인을 사귄다고 해.)

103047 @ 에구, 그 강정이 지금 어떵 뒛수과게? 해군기지 허멍. 에구, 금악 분들이 걸 다 사불든가 헤불어시믄.(에구, 그 강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군기지 하면서. 에구, 금악 분들이 그걸 다 사버리든가 해버렸으면.)

103047 #1 아니, 거기 사람이 반대 허는 게 뭐냐 허면은 군사기지를.(아니, 거기 사람이 반대 하는 게 뭐냐 하면 군사기지를.)

103047 @ 예게.(예.)

103047 #1 허는 것은 위험헌 일이거든.(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거든.)

103047 @ 예.(예.)

103047 #1 만약에.(만약에.)

103047 @ 게 도장 찍어부런, 돈 받안, 몃 명이.(그게 도장 찍어버려서, 돈 받아서, 몇 명이.)

103047 #1 만약에 국변이 낫을 때는 얻어맞을 거니까.(만약에 국변이 났을 때는 얻어맞을 거니까.)

103047 @ 게메마씨.(글쎄요.)

103047 #1 그래서 반대 허는 거라.(그래서 반대 하는 거라.)

103047 @ 예게. 일 강정 좋은 땅을 다 막아버리면예. 보통 사람덜 들어가지도 못허게 뒈언.(예게. 일 강정 좋은 땅을 다 막아버리면요. 보통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서.)

103047 #1 제주도에서 소문난 땅 아니우꽈게? 일 강정, 이 법환리.(제주도에서 소문난 땅 아니우꽈? 일 강정, 이 법환리.)

103047 @ 게메마씨. 어떵허단 경 뒈불어신고예? 그렇게도 불행한 곳이 뒈버려가지고. 그 학자덜도 많고.(글쎄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나요? 그렇게도 불행한 곳이 돼버려서. 그 학자들도 많고.)

103047 #1 게난 거기 사람덜이.(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103047 @ 참, 멍청헌 거주게.(참, 멍청한 거지.)

103047 #1 이 근처 사람보다 더 못 살아. 신이 왕성헤서.(이 근처 사람보다 더 못 살아. 신이 왕성해서.)

103047 @ 강정?(강정?)

103047 #1 응. 강정, 법환더레. 어, 왜 그러냐면 걸 나도 모르는데. 우리 일가사람이 하나 잇는디 고모가 거기 가 살아. 거기 가서 사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니 거기 놈이 일도 헤먹고 거기 가서 놈이 일 주로 일이 만헌 디니까 가서 사는데 보리

를 빌 때에 그때는 이제는 베염이 없어. 이 근처에도 보기가 힘들어. 가끔 잇긴 잇는데 베염을 호미로 ᄒᆞ쏠 볼 수 잇는 거 건드렷다 허민 그 날은 아파. 아프고 무당들 뭐 거, 헤다 버리는 잇다가 잇는 거 몰라가지고 건드렷다가도 아파. 허니까 사람 못살겟더라고. 그래서 거 우리 일가 사람도 고모 따라가 가지고 ᄂᆞᆷ이 일 알선 헤주민 벌어먹엉 임시 살라고 갓다가 도저히 이거 사름 살디가 아니더라고.(응. 강정, 법환쪽에. 어, 왜 그러냐면 걸 나도 모르는데. 우리 일가사람이 하나 있는데 고모가 거기 가 살아. 거기 가서 사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남이 일도 해먹고 거기 가서 남이 일 주로 일이 많은 데니까 가서 사는데 보리를 벨 때에 그때는 이제는 뱀이 없어. 이 근처에도 보기가 힘들어. 가끔 있긴 있는데 뱀을 호미로 조금 볼 수 있는 거 건드렸다 하면 그 날은 아파. 아프고 그 날은 아파. 무당들 뭐 거, 해다 버리는 있다가 있는 거 몰라가지고 건드렸다가도 아파. 허니까 사람 못살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가 사람도 고모 따라가 가지고 남이 일 알선 해주면 벌어먹어서 임시 살라고 갔다가 도저히 이거 사름 살 데가 아니더라고.)

103047 @ 아, 일 강정이 허는디 건디 거기 박심방이라고 엄청 큰 심방도 잇엇고, 당도 세덴 막 그냥 헌디 어떵 이렇게 뒛는고예?(아, 일 강정이 하는 데 그런데 거기 박무당이라고 엄청 큰 무당도 있었고 당도 세다고 막 그냥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요?)

103047 #1 게난 그 어, 우리가 말 들어보민 소목ᄉᆞ 시절에 그 제주도에서는 그 베염이 일 년에 처녀 ᄒᆞ나씩 먹엇다고 허여.(그러니까 그 어, 우리가 말 들어 보면 소목사시절에 그 제주도에서는 그 뱀이 일 년에 처녀 하나씩 먹었다고 해.)

103047 @ 예. 아 그 저 김녕.(예. 아 그 저 김녕.)

103047 #1 예. 그 뭣이 번진 모냥이라. 그 위허지 아니허면은 뭐헤부니까 그 토산베염이라고 헤서 그냥 이 서촌에서는 사돈 허는 걸 꺼려허거든.(예. 그 뭣이 번진 모양이라. 그 위하지 않으면 뭐 해버리니까 그 토산뱀이라고 해서 그냥 이 서촌에서는 사돈 하는 걸 꺼렸거든.)

103047 @ 게난마씨게. 것도 건 잘못뒌 거고. 잘못뒈긴 잘못뒛주게.(그러니까요. 것도 건 잘못된 거고. 잘못되긴 잘못됐지.)

103047 #1 아니, 그거 무섭게 생각을 안 헐수가 엇어. 우리 다른 데서 결혼을 그디 토평, 저 토평 결혼을 헷는데 사돈칩이서 헤오렌 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생허면은 아이덜이 출생허면은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허는 식이라. 붉은 멩지 석자시치, 푸린 멩지 석자시치, 또 뭐 흰 거라고 허던가? 뭐 허고 세 가지를 헤오라. 본향에 가서 신고를 헤야한다는 거여. 그러니까 그 집이 ᄌᆞ손이 뒌다는 거지. 말허자면 야 나 고만이 생각헐 때 저 집이 다음 대에 그걸 몰르고 내용을 안허민 발 찰 거란 말이여. 게난 우린 잘 모르주만 옛날 그런 말이 잇어. 현오봉이라고 허믄 제주도 왕이옌 헌 하르방이 잇어. 현봉옥이 저 원내총무ᄀᆡᆼ장 지내고 뭐 헤서 제주도에서는 현오봉이라고 허면은 거 아주 제주도 국회위원 중에선 왕이옌 헌 사람인디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굿 헤서 살앗다고 헤여.(아니, 그거 무섭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다른 데서 결혼을 거기 토평, 저 토평 결혼을 했는데 사돈집에서 해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출생하면 아이들이 출생하면 면사무소에 출생신고 하는 식이라. 붉은 명주 석자 세치, 푸른 명주 석자 세치, 또 뭐 흰 거라고 하든가? 뭐 허고 세 가지를 해와라. 본향에 가서 신고를 해야한다는 거랴. 그러니까 그 집에 자손이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야 나 고만이 생각할 때 저 집이 다음 대에 그걸 모르고 내용을 안하면 발 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지만 옛날 그런 말이 있어. 현오봉이라고 하면 제주도 왕이라고 한 할아버지가 있어. 현봉옥이 저 원내총무까지 지내고 뭐 해서 제주도에서는 현오봉이라고 하면 거 아주 제주도에서 국회위원 중에선 왕이라고 한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굿 해서 살았다고 해.)

103047 @ 어어.(어어.)

103047 #1 그 분이 돌아간 지 오래 자유당 때 황황헷거든. 헷는데.(그 분이 돌아간 지 오래 자유당 때 황황했거든. 했는데.)

103047 @ 아아. 아아, 산듸찍으로 안 헹 다 나룩찍으로 허엿구나예. 그런 거 몰라신디.(아아. 밭벼 짚으로 안 해서 다 벼 짚으로 했군요. 그런 거 몰랐는데.)

103047 #5 옛날은 그거 두드렁 신 삼앙 신엇주게. 옛날은.(옛날은 그거 두드려서 신 삼아서 신었지. 옛날은.)

103047 #4 베도 꼬고게, 멕도 줒고 뭐 산듸찍으로 못허는 거 셔시냐? 멍석도 줒고?(베도 꼬고, 멱도 짜고 뭐 밭벼 짚으로 못하는 거 있었나? 멍석도 짜고?)

103047 #5 예.(예.)

103047 @ 멍석도예? 어떤 분은 산듸찍은 삭삭 삭아부난 나룩찍은 별도로 상 헷덴도 헙디다. 나룩찍허고 산듸찍이 급이 다르덴.(멍석도요? 어떤 분은 밭벼 짚은 삭삭 삭아버리니까 볏짚은 별도로 상했다고도 합디다. 볏짚하고 밭볏짚이 급이 다르다고.)

103047 #6 줄라. 요만썩 줄라.(짧아. 요만큼씩 짧아.)

103047 #4 줄르곡 산듸찍은 야리고, 나룩찍은 질기고.(짧고 밭벼 짚은 여리고, 볏짚은 질기고.)

103047 #5 옛날은 그거 헹 조리 삼고, 신도 삼고 허연.(옛날은 그거 해서 조리 삼고, 신도 삼고 했어.)

103047 @ 경헤도 신도 삼고, 베도 꼬고, 멍석도 이걸로 허고.(그래도 신도 삼고, 베도 꼬고, 멍석도 이걸로 하고.)

103047 #5 조리 숨앙 신고게, 아니헌 거 엇어.(조리도 삼아서 신고, 안 한 거 없어.)

103047 #4 신도 삼고 옛날에사 산듸찍으로 삼앙 살앗주.(신도 삼고 옛날에야 밭볏짚으로 삼아서 살았지.)

103047 #6 나룩찍 사레 가지 못허난게.(볏짚 사러 가지 못하니까.)

103047 #4 고무신이 잇엇수과게? 고무신 난 지 오래지 안 헷수다.(고무신이 있

었습니까? 고무신 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103047 #6 나도 나냥으로 삼아져. 저 신도 삼아지고, 조리도 숨아지고.(나도 나 스스로 삼아. 저 신도 삼을 수 있고, 조리도 삼을 수 있고.)

103047 @ ᄉᆞ삼 사건 때도 다 짚신 신엇수과?(사삼 사건 때도 다 짚신 신었습니까?)

103047 #5 게. 그때 다 초신 신엉 살앗주.(그래. 그때 다 짚신 신어서 살았지.)

103047 #4 초신 신엉 가민 ᄉᆞ믓 발치기 믄 벳겨 불고 으흐흐.(짚신 신어가면서 사뭇 발 뒤치기 모두 벗겨버리고 으흐흐.)

103047 #5 거 무싱 거옌 허느니? 그것도 ᄒᆞ쏠 ᄆᆞᆯ싹이 저 뒤치길 ᄆᆞᆯ싹ᄒᆞ게 ᄒᆞᆫ 사람은 허고, 손 맥 줭 막 ᄃᆞᆼ경 ᄒᆞᆫ 사람은 뒤치기 잘 헹 헤불민 발 믄딱 벳겨졍.(거무슨 거라고 하니? 그것도 조금 물씬 저 뒤축을 물씬하게 한 사람은 하고, 손 맥 줘서 막 당겨서 한 사람은 뒤축이 잘 해서 해버리면 발 모두 벗겨져서.)

103047 #4 게민 손에 들렁 뎅겻져. 들렁.(그러면 손에 들어서 다녔지. 들러서.)

103047 #5 맨발에 거 꼭 신은 들르고 경 헹 걷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와시? 우리 살아온 인생이 너무도 험허고.(맨발에 거 꼭 신은 들고 그렇게 해서 걷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우리 살아온 인생이 너무도 험하고.)

103047 #6 츰, 애진이 아방이게 그 아방네 조리사 중에 낭조리, 조리사 닥닥 두드리멍 걸어 뎅기고 맨발에 걸어 뎅겻젠 눈위로 그냥 헤얗게, 경 부젯 칩이도?(참, 애진이 아버지가요. 그 아흔에 조리 중에 나무조리, 조리야 닥닥 두드리면서 걸어 다니고 맨발에 걸어 다녔다고 눈 위로 그냥 하얗게, 그렇게 부자 집에도?)

103047 @ 조리는 일본 조리꽈?(조리는 일본 조립니까?)

103047 #5 일본말로 옛날은 조리옌 헤낫수다.(일본말로 옛날은 조리라고 했습니다.)

103047 #6 게다, 게다, 게다.(‘게다’, ‘게다’, ‘게다’.)

103047 #5 낭으로 헨. 게다.(나무로 했어. 게다.)

103047 @ 보통 찍으로 맨들앗수과?(보통 짚으로 만들었습니까?)

103047 #6 예. 찍으로덜. 여자덜은 찍으로 멘들앗수다.(예. 짚으로. 여자들은 짚으로 만들었습니다.)

103047 @ 찍으로 쓰리빠처럼예?(짚으로 슬리퍼처럼요?)

103047 #5 쓰리빠추룩.(슬리퍼처럼.)

103047 #6 게다, 게다. 게단 일본말, 조린 이딘 말.(‘게다’, ‘게다’. ‘게다’는 일본말, ‘조리’는 여기 말.)

103047 #5 우린 저, 우리 오라방 조수ᄒᆞᆨ교, 일본글 헐 때, 조수ᄒᆞᆨ교 간 어떵 헨에 무싱 것사 헤신지 구즈베기 빠네 운동화를 아다로 허연, 강 오란 이젠 보난 여자 운동화라. 요마니헌게 혜양케 앞이 허곡 헌거 그런 운동화를 타오난.(우린 저, 우리 오빠 조선학교, 일본글 할 때, 조선학교 간 어떻게 해서 뭐를 했는지 ‘구즈베기, 빠네’ 운동화를 아다로 해서, 가서 와 이젠 보니까 여자 운동화라. 요만큼 한 게

하얗게 앞에 하고 한 거 그런 운동화를 타오니까.)

103047 #4 하도 지꺼졋주기.(너무 기뻤지.)

103047 #5 우리 아버진 그 돈을 얼매사 주켄 헤신지 석조아덜 샛아덜신디 걸 풀켄 헷던 모양이라. 게난 우리 오라방 허는 소리가 풀지 못허게 아버지ᄀᆞ라 풀지 못허게 헹 신으렌, 오라방이 그 신이 즉아낫던 모양이라. 즉으난 안 신어서 날주니까, 날ᄀᆞ라 풀지 못허게 헹 신으렌 경 허멍 헤연, 그때 막 군인 ᄒᆞ끔 그거 탕 신은 후제 군인덜 오랑 이디 일본 군인덜 오랑 막 살고, 지게 대비덜도 나고, 그때 그 시절에 경 헨게.(우리 아버진 그 돈을 얼마야 주겠다고 했는지 석조아들 둘째아들에게 걸 팔겠다고 했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오빠 하는 소리가 팔지 못하게 아버지 보고 팔지 못하게 해서 신으라고, 오빠가 그 신이 작았었던 모양이라. 작으니까 안 신어서 날 주니까, 날보고 팔지 못하게 해서 신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 그때 막 군인 조금 그거 타서 신은 후에 군인들 와서 여기 일본군인들 와서 막 살고, 그냥 양말도 나고,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했어.)

103048 @ 산듸허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 어머니 산듸쌀 헤영 고팡에 곱쪙놔둔 거. 뭐 그런 거 먹거나, 뭐 ᄋᆞᆨ든거나, 이런 건 기억 엇수과?(밭벼하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 밭벼쌀 해서 고방에 숨겨놔 둔 거 그런 거. 먹거나, 뭐 욕먹었던 거나, 기억 없습니까?)

103048 #1 그런 거.(그런 거.)

103048 @ 그 산듸쌀 밥, 도시락 싸 주멍 뭐 영 서껑 주거나.(그 밭벼쌀 밥, 도시락 싸 주면서 뭐 이렇게 섞어서 주거나.)

103048 #1 아이고, 도시락은 어떵 싸주멍 보리밥만 실피 먹어도 좋주. 왜정 때에는예. 밧 멘적에 의해서 딱 허라고 허면 우리도 열두 가마니를 헤서 풀아서. 뭐 돈은 준지 만지 뭐 이건 어거지로 헤서 이렇게 허니까 안하고는 매 맞을 건디 게서 이제 바쪄부리면은 와가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 뒈지도 잡아 먹어 불고 메낄게 없어 부난 뒈지 체를 멕여서 뒈질 살렷거든.(아이고,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며 보리밥만 실컷 먹어도 좋지. 왜정 때에는요. 밭 면적에 의해서 딱 하라고 하면 우리도 열두 가마니를 해서 팔았어. 돈은 줬는지 말았는지 뭐 이건 억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안하고는 매 맞을 건데 그래서 바쳐버리면 그래서 바쳤어. 기가 막혀 돼지도 잡아먹어 버리고 돼지 채를 먹여서 돼질 살렸거든.)

103048 @ 일제시대 때?(일제시대 때?)

103048 #1 게서 밥헤낭 솟디 솟 시신 물을 주로 뒈지를 멕이고, 게난 그때 밧디 가온 때에 가지고 그런 말 들어 봅데가? 밧디 가 가지고 이를 헹 들어오며는 집이 들어오면은 세수를 헤야 뒈여. 세수헤영 손 발 시신 물을 버리지를 아니 헤여. 이 옛날 질목이라고 헤여. 버선 뭐 헌 거. 이걸 그 물에 또 뿔아. 그 물을 뿔아서 그때야 버려.(그래서 밥해서 솥 씻은 물을 주고 돼지를 먹이고, 그러니까 밭에 가온 때에 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들어 봤어요? 밭에 가서 들어오면 세수를 해야 돼. 세수해서 손 발 씻은 물을 버리지를 않아. 옛날 길목이라고 해. 옛날 버선 뭐 한 거. 이

걸 그 물에 빨아서야 그때야 버려.)

103048 @ 아이고, 물 아경?(아이고, 물 아껴서?)

103048 #1 아이고 ᄀᆞ믄 때에, ᄀᆞ믄 때는 여기서 봉천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고산 가서 질어 당 먹고 서림ᄁᆞ지 가서 질어당 먹어낫수다.(아이고, 가물 때는 여기서 봉천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고산 가서 길어다가 먹고 서림까지 가서 길어다가 먹었었습니다.)

103048 @ 경헷구나예.(그랬군요.)

103048 #1 여기서 ᄀᆞ만이 아장 부엌에서 물 탁 틀민 나올 줄 누가 알아서? 허허허허허.(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부엌에서 물 탁 틀면 나올 줄 누가 알았니? 허허허허허.)

103048 @ 소중하게 생각해야 뒈는데예.(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구마 농사

103049 @ 그 다음 고구마 농사예.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그 다음 고구마 농사요.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 농사를 헐라면은 고구마 감자구뎅이라고 잇어. 감제 수확헐 때에 구뎅이 땅 짚이 일메다 짚인 파가지고 새로 이렇게, 영 에염으로 영 놩 담앗당 겨울에 양석으로도 먹고 거기서 보관헷다가 봄 나면은 이제 ᄒᆞ꼼 요지금은 ᄒᆞ꼼빨리 허주만은 그때는 비료가 없으니까 ᄒᆞ쏠 늦어서 ᄒᆞ쏠 ᄃᆞ신 철 나가지고 그 고구마 심어가지고 영 나가면은 오줌 같은 거 모두왓다가 요지금은 비료주주만은 그런 걸 주로 헤서 감잿줄을 키우면은 왜정 때에는 우리 할머니도 ᄒᆞᆫ 고지에 석줄을 보통 싱거.(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고구마 감자구덩이라고 있어. 감저 수확 할 때에 구덩이 땅 짚이 일 미터 깊인 파가지고 새로 이렇게, 이렇게 구석으로 이렇게 놔서 담았다가 겨울에 양석으로도 먹고 거기서 보관 했다가 봄 나면은 이제 조금 요즘은 조금 빨리하지만 그때는 비료가 없으니까 조금 늦어서 조금 따뜻한 철 나가지고 그 고구마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오줌 같은 거 모았다가 요즘은 비료주지만 그런 걸 주로 해서 고구마 줄을 키우면 왜정 때에는 우리 할머니도 한 고지에 세 줄을 보통 심어.)

103049 @ 예.(예.)

103049 #1 석줄을 싱그면 면사무소에서 면직원이 와가지고 두 줄은 메불고 가운디 싱그면은 그래서 농사양성을 일본 놈덜은 정치로서 시겻주게. 무싱거 경 헹 허면은 그때는 왜정 때도 절간감자를 쪼금 헷어. 절간감자를 헤서 정부에서 돈은 얼매나 줜디 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헤도 감자넝쿨을 떼 가지고 바찌라고 허니까 그 어느 ᄁᆞ정사 갓는지 건 몰르지.(세 줄을 심으면 면사무소에서 면직원이 와가지고 두 줄은 매버리고 가데 심으면 농사양성을 그래서 일본 놈들은 정치로서 무슨 거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때는 왜정 때도 절간감자를 조금 했어. 절간감자를 해서 정부에서 돈은 얼마나 줬는지 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초등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구마넝쿨을 때 가지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 어느 까지 갔는지 건 모르지.)

103049 #5 감잿줄게. 감재 메 놩.(고구마 줄. 고구마 매 놔서.)

103049 #4 감재 메 놩게.(고구마 매 놔서는.)

103049 #6 땅에 싱경 감재 싱경, 줄 나민 강은에 그레 싱경.(땅에 심어서 고구마 심어서, 줄나면 가서 거기 심어서.)

103049 #4 모록 모록, 모록 낭은에 커노민게.('모록 모록', '모록' 나서 커 놓으면.)

103049 #5 오줌 주멍 키왕 놩, 밧 갈앙 다시 하나하나 이젠 줄줄이 드러 싱경.(오줌 주면서 키워 놔서, 밭 갈아서 다시 하나하나 이젠 줄줄이 계속 심어서.)

103049 #4 싱경은에 벳나민 죽어 불고, 비나 오민 살고.(심어서 볕 나면 죽어버리고, 비나 오면 살고.)

103049 #5 잘 누르뜨멍 싱경, 따시 것도 이실찜이나 비어당은 다 죽어 다 죽어. 이실 털어지민 그 감잿줄 비어당 싱그고.(잘 누르면서 심어서, 다시 것도 이슬 낄 때 베어다가 다 죽어 다 죽어. 이슬 떨어지면 그 고구마 줄 베어다가 심고.)

103049 #4 아니, 벳이 안 나민 살고, 벳 나민 죽어 불어.(아니, 볕이 안 나면 살고, 볕 나면 죽어버려.)

103049 #5 이실에 헌 건양 ᄒᆞ낌 벳 나민 죽으크랑게. 이실찐데 ᄒᆞᆫ 건 이실이 잘도 독ᄒᆞ는 거 ᄀᆞ탕게.(이슬에 한 건 조금 볕 나면 죽을 것 같아. 이슬 낀데 한건 이슬이 잘도 독한 거 같아.)

103049 #4 이젠 이실도 엇어.(이젠 이슬도 없어.)

103049 #6 무사? 어제 아침인 하영 져십데다.(왜? 어제 아침엔 많이 졌던데요.)

103049 #5 어제 이실 하영 져십데다.(어제 이슬 많이 졌던데요.)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는 주로 보릿그르[76]에 심주게. 것도 이쟈 여름농사가 뒈다 보니까 그 보릿그르에 그 소서유월절 직전에 싱거. 유월절이 넘으면은 더우니까 잘 죽어부려. 소서유월절 전에다가 조농ᄉᆞ는 유월절 넘엉도 허주만은 이 콩하고 고구마는 유월절 전이 유월 ᄒᆞᆫ 십오일에서 이십 일경에 주로 감저 고구마는 심고.(고구마는 주로 '보릿그르'에 심지. 것도 이제 여름농사가 되다 보니까 '보릿그르'에 그 소서유월절 직전에 심어. 유월절이 넘으면 더우니까 잘 죽어버려. 소서유월절 전에다가 조 농사는 유월절 넘어도 하지만 이 콩하고 고구마는 유월절 전에 유월 한 십오일에서 이십일 경에 주로 고구마는 심고.)

103050 #4 조 빌 때.(조 벨 때.)

103050 #5 조 헤가민 감재도 갈고, 싱글 땐 유월에 싱그고.(조 해가면 고구마도 갈고, 심을 땐 유월에 심고.)

103050 @ 싱글 땐 유월예?(심을 땐 유월이요?)

---

76) '보릿그르'는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103051 @ 고구마 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고구마 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51 #1 옛날에사 걸름이 셔게. 비료가 전혀 읏인 때난.(옛날에야 거름이 있었나? 비료가 전혀 없을 때니까.)

103051 @ 아까 오줌? 오줌은 메밀 할 때가 오줌?(아까 오줌? 오줌은 메밀 할 때가 오줌?)

103051 #1 아, 경도 허곡 메밀 안 가는 사람은 걸 모두왓다가 보리왓디 가 가지고 이제 쪼끄만헌 바가지 헤가지고 보리 뿌리레만 톡톡톡톡톡톡 줫주기게.(그렇게도 하고 메밀 안 가는 사람은 걸 모였다가 보리밭에 가 가지고 이제 조그만 바가지 해가지고 보리 뿌리에만 톡톡톡톡톡톡 줬지.)

103051 @ 그걸 톡톡톡톡 줄 때가 어느 만큼 클 때마씨? 보리가.(그걸 톡톡톡톡 줄 때가 언만큼 클 때요? 보리가.)

103051 #1 보리 트지 않아서 봄 나가지고.(보리 트지 않아서 봄 나가지고.)

103051 @ 봄 나가지고?(봄 나가지고?)

103051 #1 보리라는 그 식물이.(보리라는 그 식물이.)

103051 @ 싹 나면 오줌을 줘마씨?(싹 나면 오줌을 줘요?)

103051 #1 입춘 정월 절 드는 해에.(입춘 정월 절 드는 해에.)

103051 @ 예.(예.)

103051 #1 요즈음 이월 사일이 입춘 아니꽈? 딱 드는 시간 청력에 보며는 입춘이 드는 그 시간이 잇어.(요즈음 이월 사일이 입춘 아닙니까? 딱 드는 시간 청력에 보면 입춘이 드는 그 시간이 있어.)

103051 @ 예.(예.)

103051 #1 그 시간에 보릿 발을 매봐.(그 시간에 보리 뿌리를 매봐.)

103051 @ 보리 뿌리?(보리 뿌리?)

103051 #1 보리를 하나 매엉 봐.(보리를 하나 매어 봐.)

103051 @ 예.(예.)

103051 #1 메엉 보면은 뿌리가 그 시간에 딱 하나가 나느냐? 두 개가 나느냐?(매어서 보면 뿌리가 그 시간에 딱 하나가 나느냐? 두 개가 나느냐?)

103051 @ 아아.(아아.)

103051 #1 그것이 딱 허민 이제는 새쩔이 들엇다 안들엇다. 시간이 딱 들기 전엔 뿌리가 안 나와. 시간이 딱 뒈면은 입춘시간이 저 청력에 딱 시간이 나와 잇어.(그것이 딱 하면 이제는 입춘이 들었다 안 들었다. 시간이 딱 들기 전엔 뿌리가 안 나와. 시간이 딱 되면 입춘시간이 저 청력에 딱 시간이 나와 있어.)

103051 @ 예.(예.)

103051 #1 딱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이 쪼끔 지난 듯 헹 딱 강 보면은 뿌리로 삐주룩이 그냥 하양게 나와. 그것을 봐서 보리가 나무가 나겟다. 나무가 쯔르겟다. 그걸 영 허영 허면은 그자 이월 달 나가지고 보리가 그자 요정도 뒈서.(딱 나와 있는

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난 듯해서 딱 가서 보면 뿌리로 삐쭉 그냥 하얗게 나와. 그것을 봐서 보리가 나무가 나겠다. 나무가 짧겠다. 그걸 이렇게 해서 하면 그저 이월 달 나가지고 보리가 그저 요 정도 되어서.)

103051 @ 예.(예.)

103051 #1 좀 타박타박 헷을 때에 긋 나멍사라 그 걸름에 간 거니까 습기 차고 허면은 그때 영 봐 가지고 좀 약헤 베듯 헌 딜로 허벅에 졍 가가지고.(좀 타박타박 했을 때에 곧 나면서 바로 그 거름에 간 거니까 습기 차고 하면 그때 이렇게 봐 가지고 약해 보이는 듯 한데로 허벅에 져서 가가지고.)

103051 @ 아아, 그때 흔 뿌리 두 뿌리 중에 어떻게 걸 좋은 게 어느 멧 개 나야 좋고?(그때 한 뿌리 두 뿌리 중에 어떻게 걸 좋은 게 어느 몇 개 나야 좋고?)

103051 #1 그 막 널리 주주게. 그 ᄒᆞ낌씩 졸락졸락 주니까.(그 막 넓게 주지. 그 조금씩 졸딱졸딱 주니까.)

103051 @ 뿌리가 하나가 나면, 풍년이고 두 개가 나면 뭐고 그런.(뿌리가 하나가 나면 풍년이고, 두 개가 나면 뭐고 그런.)

103051 #1 아멩헤도 두 개가 나면 기운차니까 수분이 많겟다는 거주. 게난 옛날 말이 잇엇수게. 그 저 뭣고? 비결에도 그게 나와 잇는데 봄에, 봄에 상갑절이레 비가 오며는 신선입시헌다고 헤서 신선이 갓을 쓰고 들어온다 이거여. 비가 많이 온다는거고. 하상갑에 하우허면은 적지천리 헌다고 뒈어 잇어.(아무리 해도 두 개가 나면 기운차니까 수분이 많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었지요. 그 저 뭐니? 비결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봄에, 봄에 상갑절이라고 비가 오면 신선입시 한다고 해서 신선이 갓을 쓰고 들어온다 해. 비가 많이 온다. 하상갑에 하우하면 적시천리 한다고 되어 있어.)

103051 @ 적지.(적지.)

103051 #1 적지천리, 붉을 적제, 따지제, 천리가 불붙은다는 거여. ᄀᆞ물앙. 요새 사람은 그런 거 몰라. 또 저 추상각에 가을에 칠월 팔월 구월을 가을 아니꽈? 추상각에 하우허면은 이제 곡두생각헌다고 헤서.(적시천리, 붉을 적자, 따지 천리가 불붙는다는 거야. 가물어서. 요새 사람은 그런 거 몰라. 또 추상각에 가을에 칠월 팔월 구월 가을 아닙니까? 추상각에 하우하면 이제 곡두생각한다고 해서.)

103051 @ 곡?(곡?)

103051 #1 곡석이 뿔난다. 이거라. 가을에 비가 많이 와 불면은, 게고 이제 겨울에 시월 동지섯달에 그 갑자이레 비가 오면은 우마가 동서헌다. 겨울이 춥다는 거여. 게서 그렇게 뒈는데 요지금은 기후가 화허게 그냥 그 불덩어리에 ᄆᆞᆯ려가지고 제대로 안돌아 강 기후가 안 맞아.(곡식이 뿔난다. 이거라. 가을에 비가 많이 와 버리면, 그리고 이제 겨울에 시월 동지섣달에 그 갑자이레 비가 오면 우마가 동서한다. 겨울이 춥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기후가 화하게 그냥 그 불덩어리에 몰려가지고 제대로 안돌아 가서 기후가 안 맞아.)

103051 @ 기후가 안 맞아예?(기후가 안 맞아요?)

103051 # 1 옛날 법이 그렇게 뒈는디 아 30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흔 구십 프로는 맞아.(옛날 법이 그렇게 되는데 아, 30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한 구십 프로는 맞아.)

103051 @ 예.(예.)

103051 # 1 겐디 지금은 안 맞아. 나가 경험헤 보면은.(그런데 지금은 안 맞아. 나가 경험해 보면.)

103051 @ 게믄 어머니는 입춘 전 날 입춘 날에 보리 뿌리도 영 메보고 헙니까 덜?(그러면 어머니는 입춘 전 날 입춘 날에 보리 뿌리도 이렇게 매보고 합니까?)

103051 #1 여자덜이 허는 게 아니라 남자덜이, 남자덜이 딱 그 시간을 봐가지고 어디던지 그때는 모다져 가지고 다 매보는 거를 기본으로 허거든.(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남자들이 딱 그 시간을 봐가지고 어디든지 그때는 모여 가지고 다 매보는 거를 기본으로 하거든.)

103051 @ 샛절 드는 시간에?(입춘 드는 시간에?)

103051 #1 예. 그 시간에 보릿발 매보는 걸, 옛 어른들은 기본이라.(예. 그 시간에 보리뿌리 매보는 걸, 옛 어른들은 기본이라.)

103051 @ 아아 보리뿌리.(아아. 보리뿌리.)

103051 #1 날추룩 ᄉᆞ믓 멍청헌 사람은 그냥 넘어 가는데, 좀 학문 헤영 글을 볼 줄 아는 사람덜은 모여지면은 그 시간에는 한 멧 사름, 너댓 사람이 다 모여져. 모여져 가지고 아랫사람보고 흔 번 강 매어보라. 시간이 든 것 닮다허면 그 시간보고 옛날에는 그 저 시계도 잘 엇고 허니까 짐작 시계거든. 시간이 거의 뭰 거 닮다 강 매보라. ᄒᆞ나 메영 ᄀᆞ져 ᄋᆞ라 보저. 영 헹 보면은 딱 난 덴 허면은 노시 딱 셋절 들엇져. 이렇게 헤가지고 경헌 때는 그 거래도 아니 헤여. 빚을 무나 뭐 허나 받는 것은 뭐 허는데 그 해에 빚을 물면은 무정 벗어진다고 헤여. 입춘 드는 날은 이 출납을 금지시키는 거. 요지금 사람은 그런 것도 몰르주게. 특히나 일년 열두둘치곡 입춘 드는 날은 빚을 물지 아니 허는 거.(나처럼 사뭇 멍청한 사람은 그냥 넘어 가는데, 좀 학문해서 글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모여지면 그 시간에 한 몇 사람, 넷 다섯 사람이 다 모여져. 모여져 가지고 아랫사람보고 한 번 가서 매어보라 시간 든 것 같다하면 그 시간보고 옛날은 그 저 시계도 잘 없고 하니까 짐작 시계거든. 시간이 거의 된 거 같다 가서 매보라. 하나 매여 가져 와 봐라. 이렇게 해서 보면 딱 난다고 하면 구지 딱 입춘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때는 그 거래도 안 해. 빚을 물거나 뭐하나 받는 것은 뭐 하는데 그 해에 빚을 물면 무정 벗어진다고 해. 입춘도 드는 날은 이 출납을 금지시키는 거. 요즘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지. 특히나 일 년 열두 달 치고 입춘 드는 날은 빚을 물지 안하는 거.)

103051 @ 게. 보리 뿌리가 두 개가 좋을 거라예? 하나보다.(그래. 보리 뿌리가 두 개가 좋을 거지요? 하나보다.)

103051 #1 예.(예)

103051 @ 예. 그런 뜻이고, 남자 분들이 헷고, 음 그믄 보리 농사허고 이 샛절

드는 날은 관계가 아주 깊은 거다예.(예. 그런 뜻이고, 남자 분들이 했고, 음 그러면 보리농사하고 이 입춘 드는 날은 관계가 아주 깊은 거네요.)

103051 #1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103051 @ 다른 농사보다.(다른 농사보다.)

103051 #1 예.(예.)

103051 @ 겨울, 봄에 딱 들어가는.(겨울, 봄에 딱 들어가는.)

103051 #1 샛절. 그런 절기에 가는데 보리 메는 것은 보리뿐.(입춘, 그런 절기에 가는데 보리 매는 것은 보리뿐.)

103051 @ 보리뿐.(보리뿐.)

103051 #1 예.(예.)

103051 @ 거난 입춘허고 관계가 제일 깊은 거 담수다.(그러니까 입춘하고 관계가 제일 깊은 거 같습니다.)

103051 #5 이젠 비료, 그때가 비료셔게? 그냥만 밧 갈앙 그냥만 싱것주게.(이젠 비료, 그때가 비료 있었나? 그냥 밭 갈아서 그냥 심었지.)

103051 #6 비료주민 맛어십니다. 이제도. 그냥 싱거사 맛좋아.(비료주면 맛없습니다. 이제도 그냥 심어야 맛좋아.)

103051 #4 그땐 비료 엇이 살젠 허난 사람이 못 젼뎡.(그땐 비료 없이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못 견뎌서.)

103052 @ 그믄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고구마에 걸름은 별도로 안허고예?(그러면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고구마의 거름은 별도로 안 하고요?)

103052 #1 옛날 걸름 허젠 허믄 셔게? 걸름이옌 허는 건 통지에 걸름허민 보리에만 힘써버렷지. 그 외에는 나위도 없고 겨울에 굴묵도 짓고 헤서, 불체 나오는 거 가지고 저 지실.(옛날 거름 하려고 하면 있나? 거름이이라고 하는 건 돼지우리에 거름하면 보리에만 힘써버렸지. 그 외에는 나위도 없고 겨울에 '굴묵'도 때고 해서, 재 나오는 거 가지고 감자.)

103052 @ 지실허고.(감자하고.)

103052 #1 예. 감자 놀 때 대부분은 허고, 그자 허당도 ᄒᆞ쏠 여유가 이시면은 뭘 허곡 이제 고지 강 쉐똥 ᄆᆞᆯ똥 주서당 케와근에 불체 허는 수도 잇고.(예. 감자 놀 때 대부분은 하고, 그저 하다가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뭘 하고 이제 고지 가서 소똥 말똥 주워서 태워 재하는 수도 있고.)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예. 그 농사 그거 허면은 농사 ᄆᆞ멀을 갈겟다허면은 그거를 잘 뒛다 허면은 지실이라도 많이 놓겟다 허면은 그걸로만 솟디 불 솜아난 거 허고 그걸로 허고 ᄆᆞ지레면은 허고 더러 준비도 허고 뭐 ᄀᆞ시락ᄀᆞ튼 것도 허다가 남으면은 불캐와 가지고 ᄀᆞ만이 모영, 밧데 갓다 뿌리면은 조 갈 때. 조 갈 때는 그 불체를 가져다가 살짝허게 뿌려 주면은 그 조가 그렇게 저 불체를 좋아 헤여예. 농사 중에는 조가 불체를 제일 좋아 허는 거.(예. 그 농사 그거 하면 농사 갈겠다하면 그거를 잘

됐다 하면 감자라도 많이 놓겠다하면 그것만 솥에 불 때난 거 하고 그걸로 하고 모자라면 더러 준비도 하고 뭐 하고 까끄라기 같은 것도 해다가 남으면 불태워 가지고 가만히 모여서, 밭에 갖다 뿌리면 조 갈 때. 조 갈 때는 그 재를 갔다 다가 살짝 뿌려주면 그 조가 그렇게 저 재를 좋아해. 농사 중에는 조가 재를 제일 좋아하는 거.)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그 준 보람이 잇어.(그 준 보람이 있어.)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요지금 비료 뿌려서 농사헌 거 허고 안뿌려서 농사헌 거 모냥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불체를 그렇게 중요허게 생각을 헷주기.(요즘 비료 뿌려서 농사한 거 허고 안 뿌려서 농사한 거 모양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103052 @ 아아.(아아.)

103052 @ 언제쯤 줍니까? 불체를 조는?(언제쯤 줍니까? 재를 조는?)

103052 #1 조 헐 때는 좁씨 삐면서 밧 갈아노면은 뿌려가지고 밟으면은 이게 영 무더지거든.(조 할 때는 조씨 뿌리면서 밭 갈아 놓으면 뿌려가지고 밟으면 이게 이렇게 묻어지거든.)

103052 @ 예. 그믄 그때 불체를 ᄀᆞ치.(예. 그러면 그때 재를 같이.)

103052 #1 예. 경허믄 조가 나서도 참 그.(예. 그렇게 하면 조가 나서도 참 그.)

103052 @ 불체하고 씨를 서끄지 안허고 씨 뿌려난 다음 또 불채를 또 뿌린 것꽈? 그 우에예?(재하고 씨를 섞지 않고 씨 뿌린 다음 재를 또 뿌린 겁니까? 그 위에요?)

103052 #1 예. 좁씨는 좁씨대로 뿌리고 불체는 불체대로 건 여자덜이 뿌리고 허며는 그 불체 뿌리민 날 때부터 조가 작박[77]이라고 허여. 첫 이파리 영 헤영, 작박이. 버룩버룩허게 그냥 나오면은 뭴쳇 종자 옛 어른이 그러거든. 뭴쳇 종자 궤궤작박으로 안다고.(예. 조씨는 조씨 대로 뿌리고 재는 재대로 건 여자들이 뿌리고 그 재 뿌리면 날 때부터 조가 '작박'이라고 해. 첫 이파리 이렇게 해서, '작박'이 버룩버룩하게 그냥 나오면 될 첫 종자 옛 어른이 그러거든. 될 첫 종자, 종자 궤궤 '작박'으로 안다고.)

103052 @ 무슨 종자?(무슨 종자?)

103052 #1 그 허허허, 이 제주도 말로 궤궤작박으로 안다고. 게 어린아이도.(그 허허허, 제주도 말로 궤궤'작박'으로 안다고. 게 어린아이도.)

103052 @ 궤궤작박으로.('궤궤작박'으로.)

103052 #1 뭔가 훌륭허게 뭴 뭣은 어릴 때부터 탁 뛰어나가지고 보는 상태가 다르다고. 게서(어린아이도 뭔가 훌륭하게 될 뭣은 어릴 때부터 탁 뛰어나가지고 보는 상태가 다르다고. 그래서.)

77) '작박'은 조를 파종하고 나서 4~5일 후 조의 '침'에서 결잎이 난 모양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103052 @ 아아, 뒐 종자 궤궤작박으로 안다고.(아아, 될 종자 궤궤‘작박’으로 안다고.)

103052 #1 예.(예.)

103052 @ 작박은 조가 처음 나는 모습예?(‘작박’은 조가 처음 나는 모습이요?)

103052 #1 예. 몰명허게[78] 난 건 ᄀᆞ늘게 꼬지락이 나오는데 그 불체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79] 그냥.(예. ‘몰명허게’ 난 건 가늘게 뾰족하게 나오는데 그 재 먹은 것은 그게 ‘버루기’ 그냥.)

103052 @ 불체 먹은 거는 버루기 난다고예?(재 먹은 거는 ‘버루기’ 난다고요?)

103052 #1 요새에 아이덜 약 먹는 숟가락모양으로 버룩하게 허허 그렇게 뭽니다. 아 금년 그 밧디 조 좋커라라. 허영 날 때부터 그런 평가를 허는데 그렇게 뭽니다.(요새 아이들 약 먹는 숟가락모양으로 ‘버룩하게’ 허허 그렇게 됩니다. 아 금년 그 밭에 조 좋을 거 같더라. 해서 날 때부터 그런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103052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103052 #1 밧 갈아서 고지중심으로 부각헌 밧이난 그자 꾹꾹꾹 찔르민 뭐.(밭 갈아서 고지중심으로 보각한 밭이니까 그저 꾹꾹꾹 찌르면 뭐.)

103052 @ 팡, 골갱이로 팡예?(파서 호미로 파서요?)

103052 #1 아, 골갱이 아니허고, 고구마 심는 밧은 혼 번 밧을 갈앗다가.(아, 호미 안하고, 고구마 심는 밭은 한 번 밭을 갈았다가.)

103052 @ 갈면. 아아.(갈면. 아아.)

103052 #1 다음 줄을 싱글 때는 두불 갈아서 허니까, 밟아지지도 안허고 딱 그 처음 갈면은 쉐나, 뭐나 들어가지 못허게 밧을 딱 에우거든예. 요지금은 밧이 막 터놓지만은(전화) 고구마 심은 밧은 밧 갈아 논 다음에는 넘어가는 소라도 들어가지 질 못허게 담을 다 다아. 요지금은 밭담, 집 문딱 쉐를 안 질루니까 들어갈 모쉬가 없으니까 도를‘ 텅 내부는데, 옛날에는 농사 헐 밧데 불려불믄 짐대ᄀᆞ튼데 불려불면은 안 좋으니까.(다음 줄을 심을 때는 두벌 갈아야 하니까, 밟아지지도 안하고 딱 그 처음 갈면 소나, 뭐나 들어가지 못하게 밭을 딱 에우거든요. 쌓아. 요즘에는 밭을 막 터놓지만 고구마 심은 밭은 밭 갈아 논 다음에는 넘어가는 소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담을 다 쌓아. 요즘은 밭담, 집 모두 소를 안 기르니까 들어갈 모쉬가 없으니까 길을 터서 내버리는데, 옛날에는 농사할 밭에 짐대 같은데 밟아버리면 안 좋으니까.)

103052 @ 예.(예.)

103052 #1 벙뎅이 졍 안뒈니까 밧을 다음 저 파종헐 때 좋게 딱허게.(덩어리 져서 안 되니까 밭을 다음 저 파종할 때 좋게 딱하게.)

103052 @ 게믄 두 번 갈앙 바로 꾹꾹 찔릅니까?(두 번 갈아서 바로 꾹꾹 찌릅

78) ‘몰명ᄒᆞ다’는 ‘몰멩지다’ 라고도 쓰이며 사람이 용렬하여 야무지지 못하고 시원찮다는 뜻이다.
79) ‘버루기’는 무슨 일을 알고서 즉시로 빠르게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모양이다.

니까?)

103052 #1 예. 두 번 갈앙.(예. 두 번 갈아서.)

103052 @ 오늘 밧 간 다음 바로 밧 부텅은에 고구마를 꾹꾹 찔릅니까?(오늘 밭 간 다음 바로 밭 붙어서 고구마를 꾹꾹 찌릅니까?)

103052 #1 게난 혼 번 이렇게 봐가지고 밧, 너무 질지도 않허고 ᄆᆞ르지도 안 헐 때, 그렇게 헤서 ᄆᆞ르듯 헌 때 밧을 갈아.(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봐가지고 밭, 너무 길지도 않고 마르지도 안할 때, 그렇게 해서 마르듯 한때 밭을 갈아.)

103052 @ 음.(음.)

103052 #1 밧을 갈면은 이게 밧이 북삭북삭허[80]거든.(밭을 갈면 이게 밭이 '북삭북삭'하거든.)

103052 @ 예.(예.)

103052 #1 다음 갈아도 북삭북삭허는디 아주 그 고구마 심을 밧은 아주 ᄌᆞ는 때에 물이 많이 오랑 허는 때에 갈아가지고 따시 비나 탁 부찌면은 밧이 탄탄혜 불어.(다음 갈아도 '북삭북삭하는데' 아주 그 고구마 심을 밭은 아주 무른 때에 물이 많이 와서 하는 때에 갈아가지고 다시 비나 탁 대면은 밭이 탄탄해 버려.)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탄탄허여 버금 갈아도 벙뎅이로 와글와글허니까 밧가는 거 이제 물 맞촹 갈아사 헌다고.(탄탄해 다음 갈아도 덩어리로 와글와글하니까 밭가는 거 이제 물 맞춰서 갈아야 한다고.)

103052 @ 아아. 그믄 비 와난 다음 갈아마씨? 아니믄?(그러면 비 온 다음 갈아요?)

103052 #1 비가와도 비가 많이 와도 ᄆᆞ르게 갈아 가지고 햇빛 맞인 밧은, 비가 많이 왕 밧을 갈아도 밧이 흙이 사락사락허[81]혜여.(비가와도 비가 많이 와도 모르게 갈아 가지고 햇볕 맞은 밭은, 비가 많이 와서 밭을 갈아도 밭에 흙이 사락사락해.)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사락사락허니까 너무 많이 온 때민 아니 혜영 ᄒᆞ쏠 물 빠질 만 헹 가면은 밧을 갈아 노면은다가 부각부각허여.(사락사락하니까 너무 많이 온 때면 안 해서 조금 물 빠질 쯤 해서 가면 밭을 갈아 노면 부걱부걱해.)

103052 @ 아아.(아아.)

103052 #1 게믄 뜬 밧 모냥으로 검은 헉 신 거, 모냥으로 그냥 ᄀᆞ져당 꾹꾹 찔르민 싹싹 들어가.(그래서 뜬 밭 모양으로 검은 흙 있는 거, 모양으로 그냥 가져다가 꾹꾹 찌르면 싹싹 들어가.)

103052 @ 아아. 날씨나 이런 거 참 중요허구나예. 골갱이 엇이도 꾹꾹 찔렁 들어간다는 거다예? 김매기는 혼 번허고.(날씨나 이런 거 참 중요하군요. 호미 없이도

80) '북삭ᄒᆞ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한다.
81) '사락사락ᄒᆞ다'는 물건이 겉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친것을 말한다.

꾹꾹 찔러서 들어간다는 거네요? 김매기는 한 번하고.)

103052 #5 게. 곳사추룩 메 놧당, 비어근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지 밧 갈앙 따시 이제 그거 헌 사람은.(그래. 아까처럼 매 놨다가, 베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고지 밭 갈아서 다시 이제 그거 한 사람은.)

103052 #6 영 감재 이제 쭉 갈민, 영 손으로 팡, 그래 감잿줄 탁 놩, 영, 영 묻엉 꼰꼰 누릇 떵.(이렇게 고구마 이제 쭉 갈면, 이렇게 손으로 파서, 거기 고구마 줄 탁 놔서, 이렇게, 이렇게 묻어서, 꼭꼭 눌러서.)

103052 #5 겐 멧 말지기썩.(그래서 몇 마지기씩.)

103052 #6 겡 헹 두루 누르떵 그냥 싱그는 체만 헹 간 사람은 다 죽어 불엉 안삽니다. 꼭 잘 싱거야 꼭꼭허게.(그렇게 해서 어설프게 눌러서 그냥 심는 체만 해서 간 사람은 다 죽어버려서 안삽니다. 꼭 잘 심어야 꼭꼭하게.)

103052 #5 경 헹 상호어멍 저디 육지사덜 오랏관데 원 어떵사 헹 싱건디 반장 붸려보난 아이고 무싱 거 싱그미꽈? 돌아봔 이거 무싱 거 싱그미꽈? 이거 다 살아집니껜 경허멍.(그렇게 해서 상호 어머니 저기 육지에서 오셨기에 원 어떻게 해서 심었는지 반장 봐보니까 아이고 뭐 심습니까? 돌아 봐서 이거 뭐 심습니까? 이거 다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103052 #6 거 싱경은에 그 위로 누르뜨지 안 허영 그 위로 밋밋 넘어가난 궁둥이로 문딱 헉은 근어져부난, 다 파져 부럿주기.(거 심어서 그 위로 누르지 않아서 그 위로 계속 넘어가니까 궁둥이로 모두 흙은 걷어져버리니까, 다 파져버렸지.)

103052 #5 경허난 그 해에 그 사람덜 다 망헤실거라. 감재 원 안 뒈언게. 뒈질 안 허연게 그때에.(그렇게 하니까 그 해에 그 사람들 다 망했을 거라. 고구마 원 안 되었어. 되질 안했어. 그때에.)

103053 @ 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고구마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53 #1 그거 혼 번 정도 매면 뭘 허고 경해서 옛날은 풀의 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그거 한 번 정도 매면 뭘 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은 풀의 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3054 @ 고구마 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고구마 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54 #1 옛날에는 제완지 뭐 헷는디, 진풀이라고 헤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디 요지금은 진풀 제와서 못살아. 제초제 헤서 크기 전인 드르 잡당 봐도 나는 건 그놈의 검질, 옛날에는 그 검질이 그렇게 없었거든 게.(옛날에는 바랭이 뭐 했는데, 별꽃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어디 요즘 별꽃 겨워서 못살아. 제초제 해서 크기 전에 계속 잡다가 봐도 나는 건 그놈의 김, 옛날에는 그 김이 그렇게 없었는데.)

103054 @ 어어, 허허허허 요즘은예?(어어, 허허허허 요즘은요?)

103054 #5 그것도 제완지. 제완지가 제일 한 거.(그것도 바랭이. 바랭이가 제일 많은 거.)

103054 #4 밧디 나는 것사 다 나주게.(밭에 나는 거야 다 나지.)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55 #5 그거 갈앙, 줄 비엉, 갈앙, 이젠 그 졸음에 이젠 멧 사람 졸음에 조차 가멍 주시멍 메와 놩, 다듬앙, 이젠 옛날엔 이젠 멕에 담앙 이젠 시꺼당 구뎅이 팡 눌엉, 눌어둠서 이젠 보곡노멍 눌엉은에 주젱이 더끄고 ᄂᆞ람지 둘러근에 헷당 저슬 들민 하나하나 파당, 그 트멍으로 파당은에 이젠, 무싱거 솖앙도 먹고게. 게. 솖앙 먹는 게 핫주기.(그거 갈아서, 줄 베어서, 갈아서, 이젠 그 '졸음'에 이젠 몇 사람 '졸음'에 쫓아가면서 주우면서 메워놔서, 다듬어서, 이젠 옛날엔 이젠 멱에 담아서 이젠 실어다가 구덩이 파서 가리어서, 가리어두고서 이젠 '보곡'놓으면서 가리어서 주저리 덮고 이엉 둘러서 했다가 겨울 되면 하나하나 파다가, 그 틈으로 파서 이젠, 무슨 거 삶아서도 먹고. 그래. 삶아서 먹는 게 많지.)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줄베기, 파기?(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줄 베기, 파기?)

103055 #1 고구마 수확은 줄, 옛날에는 그 많이 경작을 안허니까, 주로 식량이 주게. 식량.(고구마 수확은 줄, 옛날에는 그 많이 경작을 안 하니까, 주로 식량이지. 식량.)

103055 @ 예.(예.)

103055 #1 주로 식량이니까 구뎅이 파가지고 눌어.(주로 식량이니까 구덩이 파가지고 가리어.)

103055 @ 줄을 벱니까? 먼저.(줄을 벱니까? 먼저.)

103055 #1 호미로 베어.(호미로 베어.)

103055 @ 호미로 베영.(호미로 베여서.)

103055 #1 호미로 베어서 영허고 뒤에서 쉐시랑 같은 거나 이제 영헤영 좀 그차 가면은 호호 헤여근 영 ᄃᆞᆼ겨주면은 그디서 영도 허고 손으로 주로 옛날에사 장갑찌는 법이 어디서?(호미로 베어서 이렇게 하고 뒤에서 쇠스랑 같은 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끊어 가면 호호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거기서 이렇게도 하고 손으로 주로 옛날에야 장갑 끼는 법이 어디서?)

103055 @ 예예.(예예.)

103055 #1 장갑엇이 그냥 맨손으로 그냥 헤근에 영 헹 손에 감아졍 못 들르민 얼른 씨서지지도 안 허고 그자 오랜 공으로 돌로레도 거 영 막 밀엉 손도 씻고.(장갑 없이 그냥 맨손으로 그냥 해서 손에 감아져서 못 들면 얼른 쓰러지지도 않고 그저 오랜 공으로 돌로도 거 이렇게 막 밀어서 손도 씻고.)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경 헹 허면은 그거 쉐 영 갈아 노면은 그거 실어당 감재 구뎅이레 바로 놔. 바로 놩 그거 영 행 봉헷당은에 ᄂᆞ람지 둘르고 주젱이도 영 주젱이라고 헤여. 우이 씌우는 건. 주젱이 영 ᄐᆞ라지게 헤여. 공기 나가게. 너미 ᄃᆞ시면은 더웡 썩주. 더웡 썩고, 너미 추워도 추웡 썩고 허니까, 이게 짐작으로 영 허민 날이 좋은 때는 영 올고, 추운 때는 좀 더꺼주곡.(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거 소 이렇게 갈아 노

면 그거 실어다가 고구마 구덩이에 바로 놔. 바로 놔서 그거 이렇게 해서 봉했다가 이엉 두르고 주저리도 이렇게 주저리라고 해. 위에 씌우는 건. 주저리 이렇게 비뚤어지게 해. 공기 나가게. 너무 따뜻하면 더워서 썩지. 더워서 썩고, 너무 추워도 추워서 썩고 하니까, 이게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날이 좋은 때는 이렇게 열고, 추운 때는 조금 덮어주고.)

103056 @ 아아, 땅 팡 주젱이 영.(땅 파서 주저리 이렇게.)

103056 #1 땅 팡 헤가지고 땅 우에도 요렇게 눌주기.(땅 파서 해가지고 땅 우에도 요렇게 가리지.)

103056 @ 아아.(아아.)

103056 #1 경허민 요렇게 ᄂᆞ람지라고 헤서 새로 엮은 거 영.(그렇게 하면 요렇게 이엉이라고 해서 새로 엮은 거 이렇게.)

103056 @ 마당구석에마씨?(마당구석에요?)

103056 #1 예?(예?)

103056 @ 마당구석에? 어디? 밭디?(마당구석에? 어디? 밭에?)

103056 #1 마당구석에가 아니고 우영밧디 ᄒᆞ쏠 ᄃᆞ신디.(마당구석에가 아니고 텃밭에 조금 따뜻한데.)

103056 @ 우영밧디예.(텃밭에요.)

103056 #1 ᄃᆞ신디 영 펭풍쳐지듯이 영 ᄒᆞ곡 땅 짚은디. 게서 일 메다 짚이 파져야 경 헤영 뭘허고. 또 관리가 심헤여.(따뜻한데 이렇게 평풍 쳐지듯이 이렇게 하고 땅 깊은데 거기서 일 미터 깊이 파져야 그렇게 해서 뭐하고. 또 관리가 심해.)

103056 @ 예.(예.)

103056 #1 눈이 팍 오라가지고 이거 탁 씌우면 눈 소곱인 그렇게 뜨셔. 게 눈 오라 낭 눈이 많이 오랑 뭐 헤가면 이 눈을 자꾸 걷어 자청 ᄂᆞ람지 나오게.(눈이 팍 오라가지고 이거 탁 씌우면 눈 속엔 그렇게 따뜻해. 그게 눈 와서 눈이 많이 와서 뭐 해가면 이 눈을 자꾸 걷어 치워서 이엉 나오게.)

103056 @ 게난 이게 뜨뜻헌디서 놔둬야 썩지 안헌덴 헹예. 집 속에 놔뒀던 거 닮아. 할무니는 매일.(그러니까 이게 따뜻한데서 놔둬야 썩지 않는다고 해서요. 집 속에 놔뒀던 거 같아. 할머니는 매일.)

103056 #1 집에도 이제 춥지도 안허고 덥지도 안허고 헌디 감저를 헤여서 집안에 우리도 씨 헐 거 쪼금 방에 나두는 디 영 헌 옷 같은 거 영 헹 더껑 영 헹 허면은 약간 초근허듯 허면은 이제 저장이 잘 뒈고 ᄆᆞ르듯 헤서 ᄆᆞᆯ라도 썩어 불어.(집에도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고구마를 해서 집안에 우리도 씨 할 거 조금 방에 놔두는데 이렇게 헌 옷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덮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약간 '초근하'듯 하면은 이제 저장이 잘 되고 마르듯 해서 말라도 썩어버려.)

103056 @ 어.(어.)

103056 #1 너무 건조헤도 썩어 불곡.(너무 건조해도 썩어 버리고.)

103056 @ 어어. 고구마는 감저눌헤서 보관한다는 거다예? 감저눌?(고구마는 고

구마가리해서 보관한다는 거네요? 고구마가리?)

103056 #1 예.(예.)

103056 #5 눌, 눌, 구뎅이 파서, 땅을 파서, 둥그락케 팡 보공 옆으로.(가리, 가리, 구덩이 파서, 땅을 파서, 둥그렇게 파서 보공 옆으로.)

103056 #4 굴, 굴 팡.(굴, 굴 파서.)

103056 #5 막 굴 파듯 둥글락허게, 동글락허게 팡, 그레 요 옆으로 보곡 문딱 어욱으로 보곡 놩 그래 ᄋᆞ져다 논 감재줄이랑 솜빡 ᄀᆞ득영 놩 이젠 헉 지치멍 너르게 헹 이젠 솜빡 헉 지쳐노민 우트렌 다시 ᄂᆞ람지 둘렁 그 우인 다시 주젱이 씌왕 경 헹 놧당, 파단 그 우으로 ᄂᆞ람지 아사둥 ᄆᆞᆯ아둥근에.(막 굴 파듯 둥그렇게, 둥그렇게 파서, 거기에 요 옆으로 보고 모두 억새로 보고 놔서 거기 가져다 논 고구마 줄이랑 가득 가득여서 놔서 이젠 흙 지치면서 넓게 해서 이젠 가득 흙 지쳐놓으면 그 위엔 다시 이엉 둘러서 그 원단에 주저리 씌워서 그렇게 해서 놨다가, 파다가 그 위로 이엉 가져가고 말아두고.)

103056 #4 잘못허민 썩어 불고.(잘못하면 썩어 버리고.)

103056 #5 우리 씨아바님은양, 뭬려도 저프게 잘 헨게. 담더레 눌민양.(우리 시아버님은, 봐도 '저프게' 잘했다. 담에 가리면요.)

103056 #6 ᄃᆞ시믄 안 썩어 ᄃᆞ시민.(따뜻하면 안 썩어 따뜻하면.)

103056 #5 우로 파지 아니 헹 굽으로 팝데다. 땅ᄀᆞᆷ으로, 땅ᄀᆞᆷ으로만 북북 팡, 경 허멍 팝데다.(위로 파지 않고 밑으로 팝디다. 땅속으로, 땅속으로만 박박 파서, 그렇게 하면서 팝디다.)

103056 #4 ᄇᆞᄅᆞᆷ들카부덴.(바람 들까봐.)

103056 #5 원 어떵헌 구분사 헴신지 경 잘헨게.(원, 어떠한 구분이야 하는지 그렇게 잘했지.)

103056 @ 감잿눌예? 우에 주젱이 더끄고.(고구마가리요? 위에 주저리 덮고.)

103056 #5 ᄂᆞ람지 씌왕 주젱이 더꺼.(이엉 씌워서 주저리 덮어.)

103056 @ ᄂᆞ람지 씌왕, ᄂᆞ람지.(이엉 씌워서 이엉.)

103056 #5 ᄂᆞ람지 에낀 거 꼴앙 더껑은에 우트레 다시 주젱이 씌왕, 경헹 놔두민.(이엉 아낀 거 깔아서 덮어서 위에 다시 주저리 씌워서, 그렇게 해서 놔두면.)

103056 @ ᄂᆞ람지는 옆에 꺼고 꼭대기는 주젱이로구나예. 완전 많이 다르구나.(이엉은 옆에 꺼고 꼭대기는 주저리로군요. 완전 많이 다르구나.)

103056 #5 예. 경 헤근에 보관허는 거, 그거 완전 보관허는 거.(예.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거, 그거 완전 보관하는 거.)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56 #1 예?(예?)

103057 @ 절간고구마, 씨 고구마 고구마로는 뺏데기 그런 거?(절간고구마, 씨 고구마, 고구마로는 절간고구마 그런 거?)

103057 #1 감제뺏데기는 정부에서 뺏데기를 해서 받아가겟다고 헤사 허는 거주

경안하면 뻿데기를 허지 안헤여.(절간고구마는 정부에서 절간고구마를 해서 받아가겠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안하면 절간고구마를 하지 않아.)

103057 @ 언제쯤 뻿데기헙데가? 절간?(언제쯤 절간고구마 했습니까? 절간?)

103057 #1 뻿데기는 헐 때는 감저 수확하면서.(절간고구마는 할 때는 고구마 수확하면서.)

103057 @ 예.(예.)

103057 #1 수확하면서 이자 처음에는 촐 비어당 촐그루에 가져다 놔가지고 썰어서 이제 허데겻는데, 나중에주게. 막 전문적으로 헤가지고 정부에서 뭐 멧클 가마니썩 받을 때는.(며느리 등장) 겐 한참 그 절간고구마를 해서 멧 백가마니썩 고산 근방 같은 요 삼사백, 오륙백 가마니꺼장 헌 사람덜도 그 밧디서 갈아가지고 그 밧데서 썰엉 널엇으니.(수확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꼴 베어다가 꼴그루에 가져다 놔가지고 썰어서 이제 섞었는데, 나중에지. 막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몇 틀 가마니씩 받을 때는. 그러니까 한참 그 절간고구마를 해서 몇 백가마니씩 고산 근방 같은 요 삼사백, 오륙백 가마니까지 한 사람들도 그 밭에서 갈아가지고 그 밭에서 썰어서 널었으니.)

103057 @ 겐 그 옛날에 일제시대 넘엉 뻿데기가 있었던 거지예? 삼춘 멧 살 때쯤?(그래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넘어서 절간고구마가 있었던 거지요? 삼춘 몇 살 때쯤?)

103057 #1 이 일제시대에는 정부에서 헌덴 헤도 그 뭐 어떤 말산디 모르는디 그때는 절간을 쪼금 헤서 이제 받앗는디 거 뭔 용으로사 받앗는지 몰라. 그 때는 소수 량. 매 사름헤서 이제 다 일반적으로 허질 안허고.(이 일제시대에는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그 뭐 어떤 말인지 모르는데 그때는 절간을 조금 해서 이제 받았는데 거 뭔 용으로야 받았는지 몰라. 그 때는 소수 량. 매 사람해서 다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103057 @ 아아.(아아.)

103057 #1 ᄉᆞ삼사건 직후로 여기에 와가지고 숫 구워서 모슬포 강 풀고, 장작헤서 한림 강 풀고, 주로 일부는 장작은 주로 모슬포주장 군인덜안티도 풀고, 군인가족안테 장작도 헤서 땔나무도 풀고, 그래서 겨우 거기에서 이제는 쏠 ᄒᆞ끔 사가지고 와서 헤서 ᄒᆞ곡 와서 여기서 누룩낭이라고 헤서 누룩낭 불리 파서 ᄌᆞ베기도 헹 먹고 수제비.(일반적으로 사삼사건 직후로 여기에 와가지고 숯 구워서 모슬포 강 팔고, 장작해서 한림 가서 팔고, 장작은 주로 일부는 모슬포 군인들한테도 팔고, 군인가족한테 장작도 해서 땔나무도 팔고, 그래서 겨우 거기에서 이제는 쌀 조금 사가지고 와서 해서 하고 와서 여기서 느릅나무라고 해서 느릅나무 뿌리 파서 수제비도 해서 먹고 수제비.)

103057 @아아.(아아.)

103057 #1 이쟈 어려운 사람덜은 이제 감제전분주시, 그 당시에는 감제전분주시 구십프로, 구십프로는 마을에서 청수, 저지, 구십프로는 감제주시 안 먹은 사람이

없어. 그거 헤서 이제는 주먹만썩 그 전분주시, 지붕 꼭대기에나 담 같은데나 이렇게, 이렇게 툭툭 놔둬. 놔두면은 게스가 독허거든. 게니까 비오고 바람 불고 이제 밤에 이슬 맞고 허면은 그 게스가 증발헤 불어. 증발헤도 내가 쪼금 나긴 나는데 그걸 먹고 살았으니 그걸 먹고 사니까 뱃가죽이 늘어나가지고 가죽이 이제 종이짱ᄀᆞ치 얄롸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살기가 좋다가 보니까 전부 뱃가죽이 두껍고 문딱 그것도 혈압이라. 비만에 걱정허는 세상이 돌아와서. 이런 세상 돌아올 거 누가 알아서.(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고구마 전분 찌꺼기, 그 당시에는 감자전분찌꺼기 구십 프로, 구십 프로는 마을에서 청수, 저지, 구십 프로는 고구마찌꺼기 안 먹은 사람이 없어. 그거 해서 이제는 주먹만씩 그 전분찌꺼기, 지붕 꼭대기에나 담 같은데나 이렇게, 이렇게 놔둬. 놔두면 가스가 독하거든. 그러니까 비오고 바람 불고 이제 밤에 이슬 맞고 하면은 그 가스가 증발해버려. 증발해도 내가 조금 나긴 나는데 그걸 먹고 살았으니 그걸 먹고 사니까 뱃가죽이 늘어나가지고 가죽이 이제 종이 장같이 얇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살기가 좋다가 보니까 전부 뱃가죽이 두껍고 모두 그것도 혈압이라 비만에 걱정하는 세상이 돌아와서. 이런 세상 돌아올 거 누가 알아서.)

103057 @ 게난마씨. 좋은 세상인디도 불평불만은 많고, 점점 그런 것도 잇고예? 겨믄 이 고구마가 삼춘 어렸을 적부터 고구마가 잇엇수과?(글쎄요. 좋은 세상인데도 불평불만은 많고, 점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 고구마가 삼춘 어렸을 적부터 고구마가 있었습니까?)

103057 #1 우리 어렷을 때에는 토종고구마.(우리 어렸을 때에는 토종고구마.)

103057 #1 예.(예.)

103057 #1 토종고구마는 맛은 좋은데 수확이 아주 작아. 요즘은 기술시대라노니까.(토종고구마는 맛은 좋은데 수확이 아주 작아. 요즘은 기술시대니까.)

103057 #5 솖앙 먹는 게 주로주게.(삶아서 먹는 게 주로지.)

103057 #4 에이고, 복삭 속아노난 감자가 주작이라.(에이고, 폭삭 수고하니까 고구마가 주작이라.)

103057 #6 주로 양석으로 먹엉 살앗주기게.(주로 양석으로 먹어서 살았지.)

103057 #5 그거 솖앙 먹고, 콩국이나 끓인 사람은 거 잘 헤 논거고, 장국 끌령은에 ᄂᆞ멀 드르ᄂᆞ멀 캐당 놩 장국 끌령은에.(그거 삶아서 먹고, 콩국이나 끓인 사람은 거 잘 해 논거고, 된장국 끓여서 나물, 들나물 캐다가 놔서 된장국 끓여서.)

103057 #6 ᄀᆞ세ᄂᆞ멀 캐당.(씀바귀 캐다가.)

103057 #5 그거 놩은에 국 끓령 그거 먹으민, 입이 ᄎᆞ락ᄎᆞ락혜여.(그거 놔서 국 끓여서 그거 먹으면, 입이 '초락초락'해.)

103057 #4 아이고 거 사삼ᄉᆞ건 때, 일본시대에 감재 엇이민 못 살아. 비료 엇이난.(아이고 거 사삼사건 때, 일본시대에 고구마 없으면 못 살아. 비료 없으니까.)

103057 @ 지실보다 사삼사건 때 감재지예?(감자보다 사삼사건 때 고구마지요?)

103057 #6 응. 지실은 서러레 많이 낫수다게.(응. 감자는 서쪽에 많이 났습니

다.)

103057 @ 이렌 별로고예.(이쪽엔 별로고요.)

103057 #6 안덕면더레.(안덕면쪽에.)

103057 @ 게민 절간고구마 뻿데기도 헷수과? 여기.(그러면 절간고구마 '뻿데기'도 했습니까? 여기.)

103057 #5 아이고 뻿데기 오족 헷수과? 이레.(아이고 절간고구마 오족 했습니까? 이쪽에.)

103057 #4 아이고 뻿데기, 허당도 버쳣지.(아이고 절간고구마, 하다가도 힘들었지.)

103057 @ 어떵 헷수과? 건 어디서 받기 시작헷수과?(어떻게 했습니까? 건 어디서 받기 시작했습니까?)

103057 #5 이추룩 ᄆᆞ을에서 이젠 받앙허민 조합에서 오랑 ᄆᆞᆫ딱 검사허영, 경헨 따시 차로 ᄆᆞᆫ딱 시껑, 경헨 하나하나 다 시껑은에 다시 보관허는데 어디 저 신창 조합에사 감신지, 어디사 감신디 어디사 강 데멈신디 경헨허난 그건 아멩헤도 어디 술 공장에 가는거 ᄀᆞ타. 이녁 생각엔.(이처럼 마을에서 이젠 받아서 하면 조합에서 와서 모두 검사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차로 모두 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실어서 다시 보관하는데 어디 저 신창 조합에야 가는지, 어디에야 가는지 어디에 가서 쌓는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건 아무리해도 어디 술 공장에 가는 거 같아. 이녁 생각엔.)

103057 @ 뻿데기 어디 막 지붕우에도 널고.(절간고구마 어디 막 지붕위에도 널고.)

103057 #5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밧 옛날엔 처음에는 절간 헹 썰민, 그거 담아다 놩 촐 베어난 촐그루에 촐왓디 쉐 멕이젠 출왓디 뿌리단, 말쩨에는 밧 간 밧, 그 밧 갈앙은에 그 밧디서 썰언 그래 노난 그게 더 좋안게.(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밭 옛날엔 처음에는 절간해서 썰면, 그거 담아다 놔서 꼴 베었던 꼴 그루에 꼴밭에 소 먹이려고 꼴밭에 뿌리다가, 나중에는 밭 간 밭, 그 밭 갈아서 그 밭에서 썰어서 거기 노니까 그게 더 좋았어.)

103057 #4 겨난 조팟디 모난 철에.(그러니까 조밭에 모난 철에.)

103057 #5 경 못견디게 져네다보난 그기가 크기 부작으로 경 헤신지 말젠 그냥 썰엉 널어도 너미나 잘 ᄆᆞ르고 뒈는 걸 경.(그렇게 못 견디게 져내다보니까 거기가 크기 부족으로 그렇게 했는지 말젠 그냥 썰어서 널어도 너무나 잘 마르고 되는 걸 그렇게.)

103057 #4 게민 주심이 힘들주게. 주심이.(그러면 주움이 힘들지. 주움이.)

103057 @ 멧 명이 헷수과? 이런 거.(몇 명이 했습니까? 이런 거.)

103057 #5 아이고 ᄋᆞ라이 헷수다. 멧 명사 헤져신지, ᄋᆞ라이 헤서.(아이고 여럿이 했습니다. 몇 명이야 했는지, 여럿이 했어.)

103057 @ 고구마는 다 심엇겠다예? 다덜예?(고구마는 다 심엇겠네요? 다들요?)

103057 #5 예. 뭐 백가멩이여, 뭐 백오십가멩이여, 이백가멩이여 허젠허민 ᄉᆞ뭇야개가 다 그쳐 졍.(예. 뭐 백가마니여, 뭐 백오십가마니여, 이백가마니여 하려고 하면 사뭇 고개가 다 끊어져서.)

103057 #6 감재를 헷고게.(고구마를 했고.)

103057 #5 하나하나 다.(하나하나 다.)

103057 #6 비오람직허민 밤이 다 주섯주. 애기덜도 다 이녁.(비올 것 같으면 밤이 다 주었지. 애기들도 다 이녁.)

103057 #5 창곰[82]은 창곰대로 줍고 말제 피죽은 피죽대로 줍고허멍 경허멍 헤당 풀앙.('창곰'은 '창곰'대로 줍고 나중에 피죽은 피죽대로 줍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다가 팔아서.)

103057 #6 그때ᄁᆞ지 헷주.(그때까지 했지.)

103057 @ ᄉᆞ삼 때 멧 술때쯤 헷수과? 삼촌네는.(사삼 때 몇 살 때쯤 했습니까? 삼촌네는.)

103057 #5 아이고 나 그때가 열두어 술 뒈신가? 일본시국에.(아이고 나 그때가 열두어 살 됐는가? 일본시국에.)

103057 #4 오레헤서 멩텡이.(오래해서 망태기.)

103057 #5 아니, 저 ᄉᆞ삼 ᄉᆞ건.(아니, 저 사삼사건.)

103057 #6 사삼ᄉᆞ건은 열다숫ᄁᆞ장.(사삼사건은 열다섯까지.)

103057 #5 난 열다숫 안 난, 열두어술.(난 열다섯 안 나서, 열두어 살.)

103057 #6 열싀술 열두술ᄁᆞ지.(열세 살 열두 살까지.)

103057 #5 예. 그때 나서. 그때 경 헨.(예. 그때 나서. 그때 그렇게 했어.)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58 #1 고구마 줄기는 거 쉐양석이주기.(고구마 줄기는 거 소양식이지.)

103058 @ 것도 쉐예? 뒈지도 주곡예?(것도 소요? 돼지도 주고요?)

103058 #1 아, 고구마 줄은 뒈지는 안 허고 소, 에, 농사줄거리는 뭐 던지 다 소.(아, 고구마 줄기는 돼지는 안 하고 소, 에, 농사줄거리는 뭐든지 다 소.)

103058 @ 소예?(소요?)

103058 #5 그건 ᄆᆞᆯ리와근 쉐멕이고, 무꺼당.(그건 말려서 소먹이고, 묶어다가.)

103058 #4 쉐 어신 사람은 불도 솜고.(소 없는 사람은 불도 때고.)

103058 @ 불도 솜고예?(불도 때고요?)

103058 #6 쉐 있는 사람 줫수다. 많이, 일 빌엉 허젠.(소 있는 사람 줬습니다. 많이, 일 빌어서하려고.)

103058 @ 눌도 눌어마씨?(가리도 가리어요?)

103058 #5 예, 아이고 눌고 말고 감잿줄눌민 2층만썩 눌어.(예, 아이고 눌고 말고 고구마줄 가리면 2층만씩 가리어.)

82) '창곰'은 부엌이나 고방 따위에,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

103058 @ 동글락허게 말앙?(둥글게 말아서?)

103058 #5 빙빙 ᄂᆞ람지로 다시 믄딱 더껑, 우로 다시 주젱이 더껑, 그 우인 줄 놩 줄로 더끄곡.(빙빙 이엉으로 다시 모두 덮어서, 위로 다시 주저리 덮어서, 그 위엔 줄 놔서 줄로 덮고.)

103058 @ 빠젠허민 하나씩 한무끔씩 속속 허켜예?(빼려고 하면 하나씩 한 묶음씩 속속 하겠네요?)

103058 #5 무껑 믄딱 무끈거난 뱅뱅 믄딱 무끈 거난.(묶어서 모두 묶은 거니까 뱅뱅 모두 묶은 거니까.)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구마 막 큰 걸 파낫거나 뭐 감자뎅구리 주서 먹어난 거, 이런 거 어렷을 때, 씨감자를 어디, 훔쳥 먹엇던가 재미난 얘기 엇수과?(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고구마 막 큰 걸 파났거나 뭐 고구마줄거리 주워 먹었던 거, 이런 거 어을 때, 씨감자를 어디, 훔쳐 먹었던거나 재미난 얘기 없습니까?)

103059 #1 그거는 그 가끔 놈으거 도둑질헤서 먹은 사람은 이서 가지고 점 찍어서 어, 그 자손대까지 오다가 보니까 다음세대에도 손 검은 짓이 나더라고, 이게 유전성인 모냥이라.(그거는 그 가끔 남의 거 도둑질해서 먹은 사람은 있어 가지고 점찍어서 어, 그 자손 대까지 오다가 보니까 다음 세대에도 손 검은 짓이 나더라고, 이게 유전성인 모양이라.)

103059 @ 응.(응.)

103059 #1 게니까 옛날에다가 돌아가신 분 거니리왕상허고 이건 아주 놈으 거 훔쳐 먹는다는 것이 그 도적질 뭣에 드는 것은 아주 거 나쁜 짓이라. 우리 동네 그런 뭣이 잇는데 그런 이제 ᄌᆞ손이 그렇게 허고 잇어. 하고 잇다가 지금은 그 허던 사람이 떠나 버렷는데 옛날에 그 눈이 많이 왓을 때에, 도둑질도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돼. 감재를 한 집에 눌어서 헤 놔뒷는데 눈이 푹 오랏어. 눈이 푹 오랏는디 그 때 추우니까 조용헌 시간을 이용헤가지고 여기 가서 판 ᄀᆞ져 가불엇단 말이여. 간 ᄀᆞ져가 불어서 팡 ᄀᆞ져 가불어서 아침에는 눌을 치우라고 간 보니까 사람이 왓다 갓거든. 빼 먹었어. 빼 먹은 거 보니까 흔집에 발자국이 짝 잇엇거든. 그러니 이제는 동네사람 멧 사람을 해서 이렇게 뒛으니까 나 혼자 가긴 뭐 허니까 우리 가서 동조헤서 가서 보자 가보니까 깁져부니까 얼른 안 보여. 안방이라고 헌 디가 창고라. 일 년 먹을 양석을 놔두는 창곤디 창고 속에 들어서 안에 항속에 담아서 두껑을 탁 닫앗으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항 속에 두껑을 탁 닫아부니까 다 그렇게 헤서 소문이 났는데 다음 아들 세대에도 그 손 검은 짓을 허더라고. 게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건 디가 오레 뒛주만은 얼굴을 알아지는 분인데.(그러니까 옛날에다가 돌아가신 분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건 아주 남의 거 훔쳐 먹는다는 것이 도적질 뭣에 드는 것은 아주 거 나쁜 짓이라. 우리 동네 그런 뭣이 있는데 그런 이제 자손이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하던 사람이 떠나 버렸는데 옛날에 그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도둑질도 대가리가 잘 돌아가야 되어. 고구마를 한 집에

가리어서 해 놔뒀는데 눈이 푹 왔어. 눈이 폭 왔는데 그때 추우니까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가서 파서 가져 가버렸단 말이야. 가서 가져가버려서 파서 가져가버려서 아침에는 눈을 치우라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왔다 갔거든. 빼 먹었어. 빼 먹은 거 보니까 한집에 발자국이 쫙 있었거든. 그러니 이제는 동네사람 몇 사람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나 혼자 가긴 뭐하니까 우리 다들 동조해서 가서 보자 가보니까 숨겨버리니까 얼른 안 보여. 안방이라고 한데가 창고라. 일 년 먹을 양식을 놔두는 창곤데 창고 속에 들어서 안에 항아리속에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았으니까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항아리 속에 뚜껑을 딱 닫아 버리니까 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는데 다음 아들 세대에도 그 손 검은 짓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지만 얼굴은 알아지는 분인데.)

103059 @ 그게 감재 파 먹당 감자 먹당 버려분 밧에 꽁다리들 헤먹으레 어렷을 때?(그것이 고구마 파먹다가 고구마 먹다가 버려버린 밭에 꽁지들 해서 먹으러 어렸을 때?)

103059 #1 아, 그때는 그거는 이석 줍는다고 거.(아, 그때는 그거는 이삭 줍는다고 거.)

103059 @ 이삭 줍는다고, 거?(이삭 줍는다고, 거?)

103059 #1 이석 주서다가 뭘 허면은 그런 거는 주로 사람이 먹젠 안허고 뒈지ᄀᆞ튼 거 먹으면은 뒈지가 살찌주게. 고구마 먹으민 살찌니까.(이삭 주워 다가 뭐 하면 그런 거는 주로 사람이 먹으려고 않고 돼지 같은 거 먹으면 돼지가 살찌지. 고구마 먹으면 살찌니까.)

103059 @ 뒈지 이삭 줍는덴 허는구나.(돼지 이삭 줍는다고 하는구나.)

103059 #1 그런 거를 이제 반 썩는 거라든 가다가 못 봐가지고 비가 오라나면은 어디서 쪼금 보이면은 파나 그거ᄀᆞ라 이석 줍는다고 헷는데 없는 사람은 주서다 먹고, 여유 있는 사람은 주서다가 돼지도 멕이곡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삶아 가지고 술을 헤여 술.(그런 거를 이제 반 썩는 거라든 가다가 못 봐가지고 비가 오면 어디서 조금 보이면 파나 그거보고 이석 줏는다[83]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주워다 먹고, 여유 있는 사람은 주서다가 돼지도 먹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삶아 가지고 술을 해. 술.)

103059 @ 아아.(아아.)

103059 #1 술을 헤가지고 허면은 그 저 고소리헤서 다끄주게.(술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저 '고소리'해서 닦지.)

103059 @ 예.(예.)

103059 #1 누룩낭헤서 게민 그 그때는 그 뭔가 그 약이 있더라고 티우는 약이.(느릅나무서 그러면 그 그때는 그 뭔가 그 약이 있더라고 틔우는 약이.)

103059 @ 예.(예.)

103059 #1 그런 거헤서 솖아서 약 버무려서 탁 가마니 더꺼 놔두면은 곰팡이

83) '이석 줏다'는 고구마나 보리 따위를 거둔 밭에서 그 지스러기를 줍는 것을 말한다.

피면은 그거 이제 누룩 놔가지고 또 그 술 닦아 허면은 한참은 감재술이라고 헤서 이제 그 당시 그냥 그 세무서에서 막 나와서 조사 다니고 뭐 허면은 경 헷는디 요 중간에 이제 ᄉᆞ삼 사건 후제 감자술 많이 먹었는데, 한참은 그 술을 먹어가지고 그 간장염이 한참 유행이 뒈엇어.(그런 거해서 삶아서 약 버무려서 탁 가마니 덮어 놔 두면은 곰팡이 피면은 그거 이제 누룩 놔가지고 또 그 술 닦아. 하면은 한참은 고구마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 그냥 그 세무서에서 막 나와서 조사 다니고 뭐 하면은 그렇게 했는데 요 중간에 이제 사삼사건 후에 고구마술 많이 먹었는데, 한참은 그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장염이 한참 유행이 됐어.)

103059 @ 아아.(아아.)

103059 #1 간장념 수술 헌 사람 뭐 엄청나게 많앗주게. 이제 썩은 감재술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간장염 걸련 지금도 흔 멧 사람, 여러 사람 죽어 버렷어. 이디도.(간장염 수술 한 사람 뭐 엄청나게 많았지. 이제 썩은 고구마술 먹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간장염 걸려서 지금도 한 몇 사람, 여러 사람 죽어 버렸어. 여기도.)

103059 @ 음.(음.)

103059 #1 그 수술헤서 배 그믓난 사름 흔 멧 사람 잇어.(그 수술해서 배 상처난 사람 한 몇 사람 있어.)

103059 #5 아니 범벅은 흔어시 안 헹 먹고, 감재 그자 숢앙 먹는 게 하. 썰엉 밥에.(아니 범벅은 한없이 안 해서 먹고, 고구마 그저 삶아서 먹는 게 많아. 썰어서 밥에.)

103059 #6 감재쏠 ᄀᆞᆯ아당 떡도 헹 먹고, 개역도 헹 먹엇수다.(고구마 쌀 갈아다 떡도 해서 먹고, 미숫가루도 해서 먹었습니다.)

103059 #4 ᄌᆞ베기여, 감재 ᄌᆞ베기영 무신. 감재 범벅이여.(수제비여, 고구마 수제비랑 무슨, 고구마 범벅이랑.)

103059 @ 감재 ᄌᆞ베기.(고구마 수제비.)

103059 #6 돌레떡 그걸로.(도래떡 그걸로.)

103059 @ 감재로 돌레떡도?(고구마로 도래떡도?)

103059 #6 돌레떡 헤 먹엇주. 많이 맛잇어.(도래떡 해먹었지. 많이 맛있어.)

103059 #5 것도 식으민 둘지 않허여.(것도 식으면 달지 않아.)

103059 #6 ᄃᆞᆺᄃᆞᆺ헌 땐 맛 좋아.(따뜻한 땐 맛좋아.)

103059 #5 ᄀᆞᆫ 헐 땐 질긋질긋 ᄃᆞ는디, 식으민 게삭게삭헌게 경 맛이 업서.(곧 할 땐 '질긋질긋' 단데, 식으면 가슬락가슬락한 게 그렇게 맛이 없어.)

103059 #6 배고픈 때 영 강 왕, 어디 드르에 강 오랑 영 ᄒᆞ나쯤 먹어봐 오죽 ᄃᆞ느냐.(배고픈 때 이렇게 가서 와서, 어디 들에 가서 와서 이렇게 하나쯤 먹어봐 얼마나 다니.)

103059 #5 이제라도 헹 막 ᄃᆞᆯ암직은 안 허여. 생각헤 보난.(이제라도 해서 막 달 것 같지는 않아. 생각해보니까.)

103059 #6 이젠 입이 실프난.(이젠 입이 싫으니까.)

103059 #5 하도 먹언 경 헤진 셍이라.(너무 먹어서 그렇게 한 모양이야.)

기타 농사

103060 @ 여긴 수박 농산 안 헷지예?(여긴 수박 농사는 안 했지요?)

103060 #1 이디는 그런 원예농사는 잘 안허여예.(여기는 그런 원예농사는 잘 안 해요.)

103060 #5 이젠 수박은 그자 먹젠 멧 개 싱그난 헴주.(이젠 수박은 그저 먹으려고 몇 개 심으니까 하고 있지.)

103060 #4 수박 ᄀᆞ튼 거 이레 하영 안ᄒᆞ난.(수박 같은 거 여기 많이 안하니까.)

103060 #5 멧 개 사단 이녁 먹젠 싱그는 거베끼 그런 건 안 허여.(몇 개 사다가 이녁 먹으려고 심는 거밖에 그런 건 안 해.)

103061 @ 참외도 안하고?(참외도 안하고?)

103061 #5 춤웨도 이녁 먹는 거 풀진 안허고.(참외도 이녁 먹는 거. 팔진 안하고.)

103062 @ 고추 농산?(고추 농산?)

103062 #1 고추 농사, 그런 거 잘 안 허는디.(고추 농사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103062 @ 우영밧디 쪼끔예?(터앝에 조금요?)

103062 #1 어느 정도 저지는 쪼금 허는데 여기에는 그런 농사는 안 허고 요지금 유행뒈는 마늘이나 마늘도 이제는 대부분 설러 버리고 쪼금 허는 사람덜 있고.(어느 정도 저지는 조금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농사는 안하고 요즘 유행되는 마늘이나 마늘도 이제는 대부분 그만 둬버리고 조금 하는 사람들 있고.)

103062 #5 고추도 상 먹엉 멧 개 안허고, 그자 임시 댓 개 싱경은에 그자.(고추도 사서 먹어서 몇 개 안하고, 그저 임시 다섯 개 심어서 그저.)

103062 #6 싱그는 사람은 하영 싱경 폽네다.(심는 사람은 많이 심어서 팝니다.)

103062 #5 풀 고치로 먹젠 ᄒᆞ쏠 싱검지.(풀 고추로 먹으려고 조금 심지.)

103063@ 배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배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3 #5 배추 농사도 ᄒᆞ는 사람은 허고, 안 허는 사람은 상 먹고.(배추 농사도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사서 먹고.)

103064 @ 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무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4 #5 놈삐 바로 그거 상 먹어.(무 바로 그거 사서 먹어.)

103065 @ 감자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감자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5 #5 감자도 그거, 지실도 상 먹고.(고구마도 그거, 감자도 사서 먹고.)

103066 @ 피 농사도 안 하고예?(피 농사도 안 하고요?)

103066 #1 피 농사 안 허여.(피 농사 안 해.)

103067 @ 메밀 농사? 메밀?(메밀 농사? 메밀?)

103067 #1 ᄆᆞ멀 농사는 가끔 이쟈 조금씩 허거든.(메밀 농사는 가끔 이제 조금씩 하거든.)

103067 @ 메밀은 언제 씨 뿌립니까?(메밀은 언제 씨 뿌립니까?)

103067 #1 메밀씨는 어느제 뿌리는ᄀᆞ 허니까니 백종 칠월 보름 ᄀᆞ리가 그 백종이라고 허지 안 헙니까?(메밀씨는 어느 때 뿌리는가 하니까 백중 칠월 보름 고비가 그 백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3067 @ 예.(예.)

103067 #1 그 시기를 이용헤가지고 비만 오랏다고 허면은 메ᄆᆞᆯ씨는 파종을 헙니다. 거 제일 늦게 파종허는 농사지예.(그 시기를 이용해가지고 비만 왔다고 하면은 메밀씨는 파종을 합니다. 그거 제일 늦게 파종하는 농사지요.)

103067 @ 예. 무사 제일 늦게 파종을 헤신고예?(예. 왜 제일 늦게 파종을 했는가요?)

103067 #1 무사산디 그거 농사는 시기적으로 메밀은 제일 늦게.(왠지 그거 농사는 시기적으로 메밀은 제일 늦게.)

103067 @ 제일 늦어예. 메밀은 수확은 또 겨울들겟다예? 가을?(제일 늦어요. 메밀은 수확은 또 겨울 되겠네요? 겨울?)

103067 #1 예.(예.)

103067 @ 메밀은 냄새가 남니까? 빨강험니까?(메밀은 냄새가 납니까? 빨갛습니까?)

103067 #1 하얏치예.(하얗죠.)

103067 @ 꽃은 하얗고?(꽃은 하얗고?)

103067 #1 꽃은 하얗고, 알맹이는 껌시롱허고.(꽃은 하얗고, 알맹이는 거무스름하고.)

103067 @ 껌시롱허고예? 이걸 가졍 또 ᄀᆞ레 ᄀᆞᆯ앙 떡도 만들고.(거무스름하고요? 이걸 가졍 또 맷돌 갈아서 떡도 만들고.)

103067 #1 알맹이는 검은 거는 잘 된 거, 노린 거는 덜된 거.(알맹이는 검은 거는 잘 된 거, 노란 거는 덜된 거.)

103067 @ 아아, 게민 이것도 비어서 도깨질헤마씨? 뭐헤마씨?(아아, 그러면 이것도 베어서 도리깨질해요? 뭐해요?)

103067 #1 예. 옛날은 도깨로 때려서예. 도깨로 때리는데 요지금은 이 탈곡기로 때려 불어.(예. 옛날은 도리깨로 때렸어요. 도리깨로 때리는데 요즘은 이 탈곡기로 때려 버려.)

103067 @ 예. 게믄 이거는 껍데기는 어떵 베껴마씨?(예. 그러면 이거는 껍데기는 어떻게 벗겨요?)

103067 #1 껍데기는.(껍데기는)

103067 @ ᄀᆞ레로?(맷돌로?)

103067 #1 옛날에는 ᄀᆞ레에.(옛날에는 맷돌에.)

103067 @ 예.(예.)

103067 #1 그 ᄀᆞ레에 허면은 그 알, ᄀᆞ레착 아래는 나무가 요렇게 박앙 잇거

든.(그 맷돌에 하면 그 아래, 맷돌 짝 아래는 나무가 요렇게 박아서 있거든.)

103067 @ 예. 그걸 뭐렌 헙니까?(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103067 #1 나무로.(나무로.)

103067 @ 예. 그 나무 이름?(그 나무 이름?)

103067 #1 요 저 나무는 그 저 가시낭 같은 거 춤나무로.(요 저 나무는 그 저 가시나무 같은 거 참나무로.)

103067 @ 이름? 저 월령에서는 줏동이여 뭐여.(이름? 저 월령에서는 '줏동'이여 뭐여.)

103067 #1 웃착에는 ᄀᆞ망이 영 있으면 이렇게 해서 허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메밀 농사헐 때는 이 속에다 헌벅이나 뭣을 딱 놔가지고 딱 부뜨지 안 허게 공글공글헤야 이게 돌아가면은 살살살살 허지. 다른 ᄀᆞ레ᄀᆞᆯ듯, ᄀᆞ루허듯이 허듯이, 이게 우알착이 딱 부터서 돌면은 안뒈니까, 요거 ᄒᆞ썰 뜨게 헤서 허면은 요리 자울 요리 자울 허면은 모멀이 이제 벌러져.(위짝에는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돌아가는데, 메밀 농사할 때는 이 속에다 헝겊이나 뭣을 딱 놔가지고 딱 붙지 않게 흔들흔들해야 이게 돌아가면 살살살살 하지. 맷돌 갈듯 가루하듯이 하듯이 이게 위 아래짝이 딱 붙어서 돌면 안 되니까, 요거 조금 천천히 해서 하면 요리 갸울, 요리 갸울 하면 메밀이 이제 깨져.)

103067 @ 아아.(아아.)

103067 #1 벌러지면은 그거를 또 이제는 저 푸는 채로 쳐서.(깨지면 그거를 또 이제는 저 키로 쳐서.)

103067 @ 예.(예.)

103067 #1 껍데기만 날라가고, 이제 쏠을 쳐가지고 쌀은 쌀 빠지면은 껍데기 너무 굵으니까 우에 뜬 건 다시 놔서 또 ᄀᆞ레에서 이렇게 헤서 돌리고.(껍데기만 날아가고, 이제 쌀을 쳐가지고 쌀은 쌀 빠지면 껍데기 너무 굵으니까 우에 뜬 건 다시 놔서 또 맷돌에서 이렇게 해서 돌리고.)

103067 @ 모멀예? 겐 모멀떡이랑 이런 거 많이 헷었지예? 여기서 예?(메밀이요? 그래서 메밀떡이랑 이런 거 많이 했었지요? 여기서 요?)

103067 #1 모멀떡은 뭔가 그 경사 때에 그런 때에 뭘 허고 거기 헤난 저 하찔, 합하찔이라고 헤서 는쟁이라고 해서 그걸 범벅해서 껍데기도 ᄀᆞᆯ아지면은 가루허고 구분 못허는 거 구분을 할 수가 없서. 깜시근 헌 거. 는쟁이 범벅이라고 해가지고 범벅해서 먹어나서, 그것도 좋다고. 하하하.(메밀떡은 뭔가 그 경사 때에 그런 때에 뭘 하고 거기 해난 저 하찔, 합하찔이라고 해서 나깨라고 해서 그걸 범벅해서 껍데기도 갈아지면 가루하고 구분 못하는 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거무스름 헌 거. 나깨 범벅이라고 해가지고 범벅해서 먹었었어. 그것도 좋다고. 하하하.)

103067 @ 아아. 는쟁이 범벅예? 그것도 좋다고.(아아. 나께로 만든 범벅이요? 그것도 좋다고.)

103067 #6 이딘 그런 거 안 허여 저 대정더레 허주.(여긴 그런 거 안 해. 저 대

정 쪽에 하지.)

103067 @ ᄆᆞ멀?(메밀?)

103067 #6 쪼금씩, 쪼금씩 우리 먹을 것만 허여.(조금씩, 조금씩 우리 먹을 것만 해.)

103067 @ ᄆᆞ멀은 옛날에 많이 하지 안헷수과?(메밀은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3067 #6 저 화순더레 저 감산창천리렌 ᄆᆞ멀을 서광에서 마흔남은 섬썩 헷주만은, 나도 그레 친정이난.(저 화순에 저 감산 창천리엔 메밀을 서광에서 마흔남은 섬씩 했지만, 나도 거기 친정이니까.)

103067 @ 창천리 많이 헷덴 헵디다예.(창천리 많이 했다고 합디다.)

103067 #6 예. 나도 그레 친정이난 알아.(예. 나도 거기 친정이니까 알아.)

103067 #5 그디가 뜬 땅이니까 ᄆᆞ멀농사를 잘허는 셍이라.(거기가 뜬 땅이니까 메밀농사를 잘하는 모양이라.)

103067 #6 그래 ᄆᆞ멀 서른남은 섬, 마흔남은 섬.(거기 메밀 서른남은 섬, 마흔남은 섬.)

103067 #5 창천, 감상리.(창천, 감상리.)

103067 #4 옛날 ᄃᆞ리 송당더렌 ᄆᆞ멀 촌.(옛날 다리 송당 쪽엔 메밀 촌.)

103067 #5 옛날 밥허믄 모인덴 뜬밧이니까 안 뒌덴.(옛날 밥하면 모인다고 뜬 밭이니까 안 된다고.)

103067 #4 뜬밧이니까 뜬 흑이니까 안 뒈. 안 뒈.(뜬 밭이니까 뜬 흙이니까 안 돼. 안 돼.)

103067 #5 ᄆᆞ멀덜 뜬밧이니까.(메밀 뜬 밭이니까.)

103067 #6 피방에, ᄃᆞ리[84]송당.(피방아, ‘ᄃᆞ리’송당.)

103067 #5 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에 찧는 소리.(‘ᄃᆞ리’송당, ‘큰애기’ 피방아 찧는 소리)

103067 @ 아, 건 어디 남방에소리로 나옴니가?(아, 건 어디 남방아소리로 나옵니까?)

103067 #6 범벅범벅 ᄆᆞ멀범벅, 창감산이[85] ᄆᆞ멀범벅.(범벅범벅, 메밀범벅, 창감산의 메밀범벅.)

103067 #5 창감산이.(‘창감산이.’)

103067 @ 창감산은 뭐꽈?(‘창감산’은 뭡니까?)

103067 #5 그렌 뜬땅이난 창감산인 고향.(거긴 ‘뜬땅’이니까 ‘창감산인’ 고향.)

103067 @ 창천리허고 감산허고 ᄆᆞ을이름?(창천리하고 감산하고 마을이름?)

103067 #5 건 ᄆᆞ을 이름.(건 마을 이름.)

103067 @ 무신 범벅?(무슨 범벅?)

---

84) ‘ᄃᆞ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 이름이다.

85) ‘창감산이’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감산리를 일컫는다.

103067 #6 ᄆᆞ멀범벅.(메밀범벅.)

103067 @ 창감산 뜬 범벅?('창감산' 뜬 범벅?)

103067 #6 ᄆᆞ멀범벅 창감산이 ᄆᆞ멀범벅, ᄃᆞ리 송당 피범벅, ᄃᆞ리송당 큰애기덜 피범벅.(메밀범벅, '창감산'의 메밀범벅, 교래 송당 피범벅, 교래 송당 큰애기들 피범벅,)

103067 #5 피 방에 찧는 소리.(피 방아 찧는 소리.)

103067 #4 피 방에, 피 방에, 피, 그딘 거 헉이 식으니까 피 ᄀᆞ튼 것베끼 안헤.(피 방아, 피 방아, 피, 거긴 거 흙이 식으니까 피 같은 것밖에 안 해.)

103067 #6 창감산이 ᄆᆞ멀범벅 노래 싯수게게?('창감산'이 메밀범벅 노래 있잖아요?)

103067 @ 게. ᄆᆞ멀 농사는 어떵헙니까? ᄆᆞ멀 농사?(그래. 메밀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메밀 농사?)

103067 #6 ᄆᆞ멀 농사는?(메밀 농사는?)

103067 #4 지일로 나중에.(제일로 나중에.)

103067 #6 옛날은 저 재, 불 솜아 난 재 그거 다 메와근에 막 서껀.(옛날은 저 재, 불 때어 난 재 그거 다 모아서 막 섞어서.)

103067 #5 오줌이나 비와놓곡 헨.(오줌이나 부어놓고 했어.)

103067 #6 서꺼근에 이제 툭툭툭툭 줍아놔. 경 이디추룩 갈지 안 헹.(섞어서 이제 툭툭툭툭 집어넣어. 그렇게 여기처럼 갈지 않고.)

103067 #5 이제들은 삐엉들. 잘도.(이제들은 뿌려서들. 잘도.)

103067 #6 옛날은 경 톡톡 줍아놩, 나 그 ᄆᆞ멀 그 재 날르렌 허믄 아이고 그 밧이 흔 스무남은 섬 넘은 밧이주기게. 막 컨 이디 사민 저 멍에 바리지도 못허는디 그걸 날ᄀᆞ라 날르렌 그 잴, 경 허민 그거 막 ᄋᆞ라이 나르는디 그 혼자 날라집니까? 재게만 나르렌 ᄃᆞᆯ으라. ᄃᆞᆯ으라! 하하하하. 경 허멍 나 얼멕여낫어.(옛날은 그렇게 톡톡 집어넣어서, 야 그 메밀 그 재 나르라고 하면 아이고 그 밭이 한 스무남은 섬 넘는 밭이지. 아주 커서 여기 서면 저 밭머리 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날보고 나르라고 그 재를, 그렇게 하면 그거 막 여럿이 나르는데 그 혼자 날라집니까? 재우 막 나르라고 달려라. 달려라! 하하하하. 그렇게 하면서 나 얼먹었었어.)

103067 #5 아이고, 옛날 사는 것사, 옛날 사는 것사.(아이고, 옛날 사는 거야, 옛날 사는 거야.)

103067 #4 춤 목숨 살으난 살앗주.(참 목숨 사니까 살았지.)

103067 #6 경허믄 그디 ᄆᆞ멀 멧 사람 허는 거 이 두드려난 도깨 덴 탁 세와보믄은 올해 멧 섬 헐 걸 알아.(그렇게 하면 거기 메밀 몇 사람 하는 거 이 두드렸던 도리깨 대어서 탁 세워보면 올해 몇 섬 할 걸 알아.)

103067 #4 원체 ᄆᆞ멀ᄀᆞ장이게.(워낙 메밀꽃이.)

103067 #6 ᄆᆞ멀은 원체 만헌 세마 흔 섬썩, 백 섬썩 허는 집서 백 섬썩.(메밀은 원체 많은 세마(?) 한 섬씩, 백 섬씩 하는 집에서 백 섬씩.)

103067 #5 저 산업도로로 가멍 보난 ᄆᆞ멀밧 하영 봐젼게.(저 산업도로로 가면서 보니까 메밀밭 많이 보이던데.)

103067 #6 경 헐 거우다. 저 광평더레 경 하영 가난.(그럴 겁니다. 저 '광평'으로 그렇게 많이 가니까.)

103067 @ 무사 ᄆᆞ멀은 제일 늦게 가는 농사가 뒈어신고예?(왜 메밀은 제일 늦게 가는 농사가 되었는가요?)

103067 #5 다른 농사 안 뒈민 그거 가는 거라.(다른 농사 안 되면 그거 가는 거야.)

103067 #6 풋도 하영 갑네다. 풋, 풋도 막 하영 갈아. 그 광평더레.(팥도 많이 갑니다. 팥, 팥도 아주 많이 갈아. 그 광평으로.)

103067 @ 모멀은 뭘 헹 먹어마씨?(메밀은 뭘 해서 먹어요?)

103067 #5 게. 곳사 골앙 는젱이ᄀᆞ루헤영 범벅도 헤영 먹고, 쏠은 강 풀고 거 돈 나는 거렌, 모멀허영 떡 헤영근에 골앙 식게명절에 중게 약게허고, 세미[86]허곡 그런 거 헷주.(그래. 아가 갈아서 나깨가루해서 범벅도 해서 먹고, 쌀은 가서 팔고 거 돈 나는 거라고, 메밀해서 떡 해서 갈아서 제사명절에 중계 약과하고, '세미'하고 그런 거 했지.)

103067 #6 그거 복삭 놈삐 썰어근에 그 헤양헌 ᄀᆞ루 골아당 놈삐에 썰엉, 서껑 ᄀᆞ루에 서껀양 침떡허민양, 이 근떡보다 완전 맛 좁니다.(그거 가늘게 무 썰어서 그 하얀 가루 갈아다가 무에 썰어서, 섞어서 가루에 섞어서요 시루떡하면요, 이 흰떡보다 완전 맛 좋습니다.)

103067 #5 그렇게 맛 좋아, ᄒᆞ싱헌 게.(그렇게 맛좋아, 고소한 게.)

103067 #6 그건 흔 사람이 흔 빗씩 먹어.(그건 한 사람이 한 '빗'씩 먹어.)

103067 @ 맛잇엉? 흐랑흐랑?(맛이 있어서? 쫀득쫀득?)

103067 #5 놈삐 놩 먹어도 부담 안 가고.(무 넣어서 먹어도 부담 안 가고.)

103067 #4 징기가 어선게.(찰기가 없어서.)

103067 #6 경 허난 하영 먹어지는 거주기게.(그렇게 하니까 많이 먹어지는 거지.)

103067 @ 빙떡같이예?('빙떡'같이요?)

103067 #6 빙떡도 많이 허곡.('빙떡'도 많이 하고.)

103067 @ ᄆᆞ멀체는 뭘로 써마씨? 비게.(메밀껍질은 뭐로 써요? 베개.)

103067 #5 베게, 옛날은 거 베게만.(베개, 옛날은 거 베개만.)

103067 #6 베게로 장에 강 막 풀아 강.(베개로 장에 가서 막 팔아 가서.)

103067 @ ᄆᆞ멀체로 베게허고예. 그믄 ᄆᆞ멀 이런 거, 대, ᄆᆞ멀대론 그런 것들은 뭐헤마씨?(메밀껍질로 베개하고요. 그러면 메밀 이런 거, 대, 메밀대론 그런 것들은 뭐해요?)

---

86) '새미'는 새미떡, 세미, 세미떡. 메밀가루나 쌀가루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을 말한다.

103067 #6 그디 저 웃드리, 물 먹입네다. 물.(거기 저 '웃드르', 말 먹입니다. 말.)

103067 #4 불도 솜고게.(불도 때고.)

103067 #6 불은 안 솜아.(불은 안 때.)

103067 #5 ᄆᆞ멀낭 솜아난 재 헤영은에 옛날은 빙도 없고 헌 때난 ᄆᆞ멀낭 솜아난 재로허영 옷덜, 소게바지 저고리 튿엉 부병, 술앙, 그게 어이구.(메밀대 때었던 재 해서 옛날은 병도 없고 한 때니까 메밀대 때었던 재로해서 옷들, 솜바지, 저고리 뜯어서 비벼서, 태워서, 그게 어이구.)

103067 #6 ᄆᆞ멀낭 솜아난 재허영 부비고, 숫 헤영 부비고 그 잔치집이 도세기궤기 헤양허렌 그거 멕여나서. 완전 옛날에.(메밀대 땠던 재해서 비비고, 숯 해서 비비고 그 잔칫집의 돼지고기 하애라고 그거 먹였었어. 완전 옛날에.)

103067 #5 저 숫ᄀᆞ루레 헤영은에 다시 무싱거옌 ᄒᆞ느니? 조 ᄀᆞᆯ아놩은에 그.(저 숯가루에 해서 다시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 갈아놔서 그.)

103067 #6 그거 멕영 ᄆᆞ멀ᄀᆞ루, ᄆᆞ멀 ᄀᆞᆯ아놓고, 저 숫 ᄀᆞᆯ아 놓고, 그 ᄆᆞ멀체헤영 서껑 멕이민 궤기가 헤양.(그거 먹여서 메밀가루, 메밀 갈아놓고, 저 숯 갈아 놓고, 그 메밀껍질해서 섞어서 먹이면 고기가 하양.)

103067 #5 겐 오래 질룰 도세긴 경 못헌덴 헨게.(그래서 오래 기를 돼진 그렇게 못한다고 하던데.)

103067 #6 곧 잡아먹을 거, ᄒᆞᆫ 둘 내에 잡아먹을 거.(곧 잡아먹을 거, 한 달 내에 잡아먹을 거.)

103067 #5 그것도 너미 먹으민 못젼디는 모냥인 셍이라.(그것도 너무 먹으면 못 견디는 모양인 상이야.)

103067 @ 신기허다예.(신기하네요.)

103067 #6 완전 옛날게, 우리 나 ᄋᆞ나믄 술에, ᄋᆞ나믄 술에 우리 웨할아부지 광평 살멍 쉐 물 막 하영 헨, ᄒᆞᆫ 이벡 ᄆᆞ리 질루왓수다. 겨난 양 훈장 저렇게 헹 살렌 양 방송 드러드러 전이 나낫수다. 경허민 쉐 물 헹 풀민, 저 강정드르에 강 멘 논만 경 하영 헤연, 우리 어머니도 물 스무 개ᄁᆞ장 물려와낫ᄀᆞ렌 헙니다.(완전 옛날에, 우리 나 여남은 살에, 여남은 살에 우리 외할아버지 광평 살면서 소, 말 아주 많이 해서, 한 이백 마리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양 훈장 저렇게 해서 살라고요 방송 마구 마구 전에 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 말 해서 팔면, 저 강정들에 가서 맨 논만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어머니도 말 스무 개까지 물려왔었다고 합니다.)

103067 #5 부잔 부자엿어. 뚤을 물을 스무 개썩 물려주난 부잔 부잔게.(부잔 부자였어. 딸을 말을 스무 개씩 물려주니까 부잔 부잔데.)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이제는예 소,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소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이제는요 소,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1 쉐의 종류는 이 새 시상 나니까 미국 브라마덜이 오라가지고 흰쉐여 뭐 검은쉐여 오라가지고 잡종덜이 오란 그 전에는 순 토종이니까.(소의 종류는 이 새 세상 되니까 미국 브라마들이 와서 흰소다 뭐 검은소다 와가지고 잡종들이 와서 그 전에는 순 토종이니까.)

104002 @ 털 색깔, 뿔 모양?(털 색깔, 뿔 모양?)

104002 #1 쉐 색깔은 뭐 주로 노랑쉐를 좋아하고, 그 검은쉐, 노랑쉐, 에, 저 또 슥쉐라고 또 잇어. 슥쉐. 이 노랑쉐면서도 이 검은 종으로 저 뭣고? 화초 그린 것 모냥으로 뿔긋뿔긋헌 그 털이 이제 츰 괴약시럽게 잇는 걸 보고 슥쉐라고 허는데 슥쉐는 곤조가 좀 또 있다고 허여. 허허허.(소 색깔은 뭐 주로 노랑소를 좋아하고 그 검은소, 노랑소, 에, 저 또 칡소라고 또 있어. 칡소. 노랑소면서도 이 검은 종으로 저 뭐니? 화초 그린 것 모양으로 불긋불긋한 그 털이 이제 참 고약스럽게 있는 걸 보고 칡소라고 하는데 칡소는 성질이 좀 또 있다고 해. 허허허.)

104002 @ 허허허허(허허허허.)

104002 @ 소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털 색깔, 뿔 모양에 따라서 소의 종류가 잇수과?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잇고, 뿔 모양에 따라서.(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털 색깔, 뿔 모양에 따라서 소의 종류가 있습니까? 털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있고, 뿔 모양에 따라서.)

104002 #3 응. 얼룩송아지렌 헌 건 훤히 알 거고.(응. 얼룩송아지라고 한 건 훤히 알 거고.)

104002 @ 무신 색깔마씨?(무슨 색깔요?)

104002 #3 누렁이옌도 허고 황쉐옌도 허고 검은소, 무신거, 황소, 무신거옌 헷수다만은 제일 무신 쉐 색깔은.(누렁이라고도 하고 황소라고도 하고 검은소, 무엇, 황소, 무엇이라고 했습니다만 제일 무슨 소 색깔은.)

104002 @ 누렁 거?(누런 거?)

104002 #3 그 저 슥쉐.(그 저 칡소.)

104002 @ 누렁헌 거, 슥쉐?(누런 거, 칡소?)

104002 #3 저 슥쉐옌 우리말로 슥쉐옌 헷는데 그게.(저 칡소라고 우리말로 칡소라고 했는데 그게.)

104002 @ 무신 색깔마씨? 누렁헌 거?(무슨 색깔요? 누런 거?)

104002 #3 그게 이 저 노랑 건디 검시그룽 터럭 ᄒᆞ나씩 박아진 거. 그게 이제는 그 옛날엔 그 놈의 슥쉐허민 저거 아주 몹쓸 놈의 쉐렌 헤난디 지금은 완전 최상위 라마씨. 고기가 경 맛 좋다고 허대.(그게 이 저 노란 건데 거무스름한 털 하나씩 박힌 거. 그게 이제는 그 옛날엔 그 놈의 칡소하면 저거 아주 몹쓸 놈의 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최상위예요. 고기가 그렇게 맛 좋다고 하대.)

104002 @ 아아, 허허허. 이제 없잖아예?(아아, 허허허. 이제 없잖아요?)

104002 #3 아니 지금도 이서마씨. 육지엔가 제주돈가 어딘가 흔 번 테레비로 본 게 잇는데.(아니 지금도 있어요. 육지엔가 제주돈가 어딘가 한 번 텔레비전으로 본 게 있는데.)

104002 @ 속쉐 뿔에 따라가지고예.(칡소 뿔에 따라가지고요.)

104002 #3 겨곡 그전에 이디 토종허곡 부라마 들어오고 아이고 그건 기억 못허켜. 부라마 들어오고 또 저저저저 헤 무시거, 것ᄀᆞ라 뭐엔 헷져마는 거.(그러고 그 전에 여기 토종하고 브라마 들어오고 아이고 그건 기억 못하겠어. 브라마 들어오고 또 저저저저 해 무엇, 것보고 뭐라고 했다만 거.)

104002 #5 얼룩쉐.(얼룩소.)

104002 #4 검은쉐.(검은소.)

104002 #6 검은쉐, 누런쉐.(검은소, 누렁소.)

104002 @ 누렁쉐.(누렁소.)

104002 #5 속쉐.(칡소.)

104002 @ 속쉐는 뭣꽈?(칡소는 뭡니까?)

104002 #6 속쉐가 지일 페랍는 셍이라.(칡소가 제일 까다로운 모양이야.)

104002 #5 속쉔 저 뿔그룽헌 터럭에 검은 터럭에 흰 터럭에 서꺼졍, 독허게만 생긴 거.(칡소는 저 빨그스름한 털에 검은 털에 흰 털에 섞어져서, 독하게만 생긴 거.)

104002 #5 막 독허여, 그런 속쉐가 독허여.(아주 독해, 그런 칡소가 독해.)

104002 #4 이젠 검은쉐도 엇고, 속쉐도 엇고.(이젠 검은소도 없고, 칡소도 없고.)

104002 #5 텔레비전에 보난에 검은쉐 막 나오는 거 십데다.(텔레비전에 보니까 검은소 많이 나오는 거 있습디다.)

104003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1 소는 길루는 거는 여름에는 목장에 놓곡.(소는 기르는 거는 여름에는 목장에 놓고.)

104003 @ 예.(예.)

104003#1 여름에는 목장에 놓고, 겨울에는 집이 마구간에 매고, 소를 많이 허는 사람은 이제 목장에다가 야우라고 헤서 뭘 허곡 길루고, 눈이 많이 와서 추운 때는 소 먹을 풀을 져다가 주인이 울르면은 소가 알아들어서 어디 강 사람신디레 와. 오면은 눈 위의 좀 촐 얼마간 풀어주민은 그거 먹고, 겨울에는 고생헤서 살지예. 게 털도 막 추위만 타니까니 허옇게 막 지치고, 봄 나믄 살찌고.(여름에는 목장에 놓고, 겨울에는 집에 마구간에 매고, 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목장에다가 '야우'라고 해서 뭐 하고 기르고, 눈이 많이 와서 추운 때는 소 먹을 풀을 져다가 주인이 소리 내면 소가 알아들어서 어디 가서 사람에게로 와. 오면 눈 위의 좀 꼴 얼마간

풀어주면 그거 먹고, 겨울에는 고생해서 살지요. 그래서 털도 아주 추위만 타니까 허옇게 아주 지치고, 봄 되면 살찌고.)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소는 뭐에 씁니까? 이제 밧 갈 때?(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소는 뭐에 씁니까? 이제 밭 갈 때?)

104003 #1 예?(예?)

104003 @ 소 이용허는 거?(소 이용하는 거?)

104003 #1 소는 이용허는 거는 밧 갈고, 짐 져 들이고.(소는 이용하는 거는 밭 갈고, 짐 져 들이고.)

104003 @ 짐 져 들이고.(짐 져 들이고.)

104003 #1 똥 싸는 거는 퉤비로 이용허고.(똥 싸는 거는 퇴비로 이용하고.)

104003 @ 퉤비.(퇴비.)

104003 #3 소, 소 이용허는 거, 그 옛날에는 주로 이디서는 밧갈이로 주로 이용했고 그걸로 마차, 소의 마차, 무슨 저 뭐 그 밧불리는 거 이 불리는 거, 그 소도 여러 가지로 헷주. 그 츰, 소로 안 허는 게 잇어마씨? 옛날엔 다 헤십주.(소, 소 이용하는 거, 그 옛날에는 주로 여기서는 밭갈이로 주로 이용했고 그걸로 마차, 소의 마차, 무슨 저 뭐 그 밭 밟는 거 이 밟는 거, 그 소도 여러 가지로 했지. 그 참, 소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엔 다 했습죠.)

104003 #5 손게. 그자 드르에 저 드르에 강은에 풀 멕이고, 몰앙 뎅기멍 풀 멕이고, 줄 매고 다시 어두우민 강 몰아당은에 물 멕영 몰아당 쉐막에 매영, 촐 빵 주고 경.(손. 그저 들에 저 들에 가서 풀 먹이고, 몰아 다니면서 풀 먹이고, 줄 매고 다시 어두우면 가서 몰아다가 물 먹여서 몰아다가 외양간에 매서, 꼴 뽑아서 주고 그렇게.)

104003 #6 여름엔 밧디 강 놓곡, 저슬들민 촐 헤당 조찍도 멕이고, 꼴 베어당 눌엉 놧당 집이 매고 경헷수다게.(여름엔 밭에 가서 놓고, 겨울 들면 꼴 해다가 조짚도 먹이고, 꼴 베어다가 가리어서 놨다가 집에 매고 그렇게 했습니다.)

104003 #5 쉔 질황게 밧 골앙 밧도 사고.(손 길러서 밭 갈아서 밭도 사고.)

104003 #6 옛날엔 쉐에 질메 많이 시꺼 왓수다. 촐왓디 강 시꺼오고, 밧도 갈고.(옛날엔 소에 길마 많이 실러 왔습니다. 꼴밭에 가서 실어오고, 밭도 갈고,)

104003 #4 옛날이사 쉐 어시 살아졋수가?(옛날이야 소 없이 살아졌습니까?)

104003 #6 밧도 불리고 쉐 완전 못 젼디게 굴엇수다게.(밭도 밟고 소 완전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1 예?(예?)

104004 @ 소 길들이는 거.(소 길들이는 거.)

104004 #1 길들이는 거? 코를 꿰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어, 이제는 쉐멍에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어, 뒤에다가 돌멩이 구멍 뚤버서 ᄃᆞ라메가지고 질레에 뎅기멍 허는 사람이 잇고, 경 안허믄 또 낭토막, 낭토막을 헤가지고 검알 강 박앙 헤서는 끗

엉 뎅기고 헷어. 이제 밧디 들어강도 빙빙 돌리면은 밧가는 형태로 헤서 막 헤서 저 수굴수굴 말 잘 들으면은 그때는 밧가는 잠대 돌아메가지고 그냥 사람 ᄒᆞ나로 거 이끄렌 헤근에 허는 사람도 잇고, 힘이 좋은 사름은 이끄지 말면은 그냥 허렌 헹 밧가는 거 ᄀᆞ르치고.(길들이는 거? 코를 꿰어가지고, 코를 꿰어가지고 어, 이제는 소멍에를 멍에를 씌워가지고 어, 뒤에다가 돌멩이 구멍 뚫어서 달아매가지고 길에 다니면서 하는 사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나무토막, 나무토막을 해가지고 검알(?) 가서 박아서 해서는 끌어서 다니고 했어. 밭에 들어가서도 빙빙 돌리면 밭가는 형태로 해서 막 해서 저 수굿수굿 말 잘 들으면 그때는 밭가는 쟁기 매달아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로 거 이끌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좋은 사람은 이끌지 말면 그냥 하라고 해서 밭가는 거 가르치고.)

104004 @ 삼촌도 길들여낫수과? 밧, 소, 길들여낫수과?(삼촌도 길들였었습니까? 밭, 소, 길들였었습니까?)

104004 #1 ᄋᆞ라 개 가르쳣어. 소는 헤서 한, 오 육년 이상 뒈면은 늙어서 또 정리허고 다시 쓸만헌 놈으로 ᄀᆞᆯ라 가지고, 가르켜서 그리고 짐 시끄는 것도 질메지우면은 막 들러퀴니까 저 촐 한 뭇이나 두 뭇 헤가지고 질메 트멍에 허면은 살랑살랑허면은 막 돌아뎅기고 허면서 헤서 ᄎᆞᄎᆞ 질들영 허면은 하영 시끄고, 또 구루마 헐 때는 사람 더 빌어근에 구루마에 헹은에 탁허게 딱 잡거니 구루마에 체왕은에 심엉 영 한질에 뎅이곡, 돌이나 남이나 경 끗엉오랑은에 멍에 씌왕 ᄃᆞ겨나는 줄 알면은 아 주인이 영 시기는 구나 헹 시긴 말 잘 듣고.(여러 개 가르쳤어. 소는 해서 한, 오 육년 이상 되면 늙어서 또 정리하고 다시 쓸만한 놈으로 골라가지고, 가르쳐서 그리고 짐 싣는 것도 길마지우면 막 날뛰니까 저 꼴 한 뭇이나 두 뭇 해가지고 길마 틈에 하면 살랑살랑하면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해서 차차 길들여서 하면 많이 싣고, 또 수레 할 때는 사람 더 빌려서 수레에 해서 탁하게 딱 잡거니 수레에 채워서 잡아서 이렇게 한길에 다니고, 돌이나 나무나 그렇게 끌어와서 멍에 씌워서 당겨나는 줄 알면 아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구나 해서 시킨 말 잘 듣고.)

104004 @ 이거 소 기루멍 도저히 안 뒈겟다. 소.(이거 소 기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소.)

104004 #1 예.(예.)

104004 @ 도저히 말 안 들엄구나아. 실패헌 경우도 잇수과?(도저히 말 안 듣고 있구나.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까?)

104004 #1 그런 거는 죽어. 에, 그 막 헐 때 어떻게 허느냐면은 드러눠도 일어나질 안 허거든. 막 뭉 부려서 주인보고 죽여라 죽어도 좋다! 그런 식으로 암만 때려도 일어나지를 아니 헤여. 어디 낙천 사람은 그렛다가 여름에 그 밧을 갈다가 탁 버쳐서 드러누니까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이 놈의 소 그냥 돌로 지둘룅 놔두면은 일어나겟지 헤서 ᄌᆞ끗디 돌을 막 헹 헨 놔두니까 게도 일어날 테주 헤둰 집이 이젠 오랑 간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그런 거는 죽어. 에, 그 막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드러누워도 일어나질 안 하거든. 막 뭉 부려서 주인보고 죽여라 죽어도 좋다! 그

런 식으로 암만 때려도 일어나지를 아니 해. 어디 낙천 사람은 그랬다가 여름에 그 밭을 갈다가 탁 부쳐서 드러누우니까 때려도 안 일어나니까, 이놈의 소 그냥 돌로 지질러서 놔두면 일어나겠지 해서 곁에 돌을 막 해서 놔두니까 그래도 일어날 테지 해두고 집에 이제 와서 가 보니까 그냥 죽어버렸어.)

104004 @ 쓸모가 없는 거주게예.(쓸모가 없는 거지요.)

104004 #1 게난 츰, 소가 잇당 보민은 지독헌 게 있어. 가르켯는데 쉽게 말을 잘 듣는 소가 잇고.(그러니까 참, 소가 이따금 보면 지독한 게 있어. 가르쳤는데 쉽게 말을 잘 듣는 소가 있고.)

104004 @ 음.(음.)

104004 #1 곤조로, 읖에 가가민 곤조만 부리젠만 허고, 발로도 차불젠 허고, 받아불젠만 허는 소는 그 놈의 성질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동물은 자기 타고난 성질은 변함이 없어. 게니까 그 물방에, 발질을 막 사름 뒤 차버린 사람은 물방에 거꾸로 이렇게 메어서민 돌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 몽뚱이로 툭 뒷발을 건드리면은 탁 이걸 차고, 툭 건드리면은 이걸 탁 차고, 이거 돌이거든. 발토메기가 피가 닥닥 나도 두드리민 찬다는 거여. 허허허허.(심술로, 옆에 가면 심술만 부리려고만 하고, 발로도 차버리려고 하고, 받아버리려고만 하는 소는 그 놈의 성질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동물은 자기 타고난 성질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연자방아에, 발질을 막 사람 뒤 차버린 사람은 연자매 거꾸로 이렇게 매어서면 돌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 몽둥이로 툭 뒷발을 건드리면 탁 이걸 차고, 툭 건드리면 이걸 탁 차고, 이거 돌이거든. 발이 피가 닥닥 나도 두드리면 찬다는 거야. 허허허허.)

104004 @ 쯧쯧쯧쯧.(쯧쯧쯧쯧.)

104004 #1 이놈의 발이 아프면 안 하겟지 헤도 그냥 막 차는 수가, 타고난 성질 버리지 못 허는 거.(이놈의 발이 아프면 안 하겠지 해도 그냥 막 차는 수가, 타고난 성질 버리지 못 하는 거.)

104004 @ 길들인 소는 또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허게?(길들인 소는 또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104004 #1 아이구, 구루마를 우리가 체와 봐도 다가가민 거기 드러살 거로구나 읖으로 가도 착 허게 드러산 바로 딱 사가지고 잇고.(아이고, 수레를 우리가 채워 봐도 다가가면 거기 들어설 거로구나 옆으로 가도 척 하게 들어서서 바로 딱 서가지고 있고.)

104004 @ 진짜예?(진짜요?)

104004 #1 겐디 나도 밧갈소 마주막으로 그 쉐 부리당 뭐허니까 이젠 기계화가 뒈불고 허니까 소를 치와버리는데 그 소는 말 안 골을 뿐 허여. 곡석밧디 콩밧이나 조팟이 그게 곡식이 얼마나 맛이 좋은 거라. 여기 테역밧이라. 즈끗디 딱 사면은 곡석은 까닥 건드리지 안허고 촐만 먹어. 이건 뭐 말 안 골을 뿐.(그런데 나도 황소 마지막으로 그 소 부리다가 뭐하니까 이제 기계화가 돼버리고 하니까 소를 치워버리는데 그 소는 말 안 말할 뿐 해. 곡식밭에 콩밭이나 조밭이 그게 곡식이 얼마나

맛이 좋은 거야. 여기 잔디밭이야. 곁에 딱 서면 곡식은 까닥 건드리지 않고 꼴만 먹어. 이건 뭐 말 안 말할 뿐.)

104004 @ 야아, 진짜예?(야아, 진짜요?)

104004 #1 그렇게 허고 밤에도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큰질이 아니라. 큰질이엔 헤도 쪼금 족은질이엇는데 옆에 이제 배수로가 영 잇고 헤서. 구루마 탁 채와가지고 밧 갈아뒁 구루마 탁 채와가지고 집이 오랑 거기서 잠이 들어. 젊은 때니까, 쉐가 가질 안허는 거라. 식 헤가지고 이제 몰아서 쉐가 식 허면은 움찍헤서도 또 ᄀᆞ만이 사. 보민 마당에 와 잇어. 질 옆에 고랑착에 구루마 빠꾸 빠지는 법이 엇어. 딱 중심으로만 펭소에는 으염으로, 질 난 딜로 가는데 구루마 체운 다음은 안 다니는 뭣이라도 딱 양 바퀴 가는 거 봐가지고 옆이 담에나 고랑창이레 바퀴 빠지질 안허거든. 딱 정직허게 춤, 그 소는 이제 춤, 아까운 소 풀아부럿는데 늙언.(그렇게 하고 밤에도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큰길이 아니야. 큰길이라고 해도 조금 작은길이었는데 옆에 이제 배수로가 이렇게 있고 해서. 수레 탁 채워가지고 밭 갈아두고 수레 탁 채워가지고 집에 와서 거기서 잠이 들어. 젊은 때니까, 소가 가질 않는 거야. '식' 해가지고 이제 몰아서 소가 '식' 하면 움찔해서도 가만히 서. 보면 마당에 와 있어. 길 옆에 고랑창에 수레 바퀴 빠지는 법이 없어. 딱 중심으로만 평소에는 가장자리로, 길 난 데로 가는데 수레나 채운 다음은 안 다니는 뭣이어도 딱 양 바퀴 가는 거 봐가지고 옆에 담에나 고랑창에 바퀴 빠지질 않거든. 딱 정직하게 참, 그 소는 이제 참, 아까운 소 팔아버렸는데 늙어서)

104004 @ 늙언예?(늙어서요?)

104004 #1 소도 늙으민 머리가 허양허더라고 검은손디.(소도 늙으면 머리가 하얗더라고. 검은손데.)

104004 @ 아아, 아이구, 경허믄 다 고기로 가는 거잖아예?(아아, 아이고, 그렇게 하면 다 고기로 가는 거잖아요?)

104004 #1 아아 그 소는 춤 새끼도 잘 낳고, 일도 잘 헤주고, 멀리 가지 안헤서 탁 그 먹는, 길거리에서도 먹는 ᄉᆞ방에만 뎅기고.(아아 그 소는 참 새끼도 잘 낳고, 일도 잘 해주고, 멀리 가지 않아서 딱 그 먹는, 길거리에서도 먹는 사방에만 다니고.)

104004 @ 삼촌은 소의 이름도 지어봣수과?(삼촌은 소의 이름도 지어봤습니까?)

104004 #1 여기서는 소 이름 지으는 법은 엇고 누구던지.(여기서는 소 이름 짓는 법은 없고 누구든지.)

104004 @ 겐디 자기가 키우던 소 잡아먹고 이러진 안 헷구나예? 풀기는 풀아도?(그런데 자기가 키우던 소 잡아먹고 이러진 안 했군요? 팔기는 팔아도?)

104004 #1 가끔 그런 사람덜이 잇긴 잇주만은 자기 집에서 우리 성질엔 안 뒈여. 풀아버리민 다른 디 가서 춤 잡던지 뭐허던지 소는 다 사람 밥으로 태어난 거니까 다 잡아먹긴 잡아먹는데, 내가 그렇게 일 헐라고 허면은 곡식도 솖아서 그냥 멕이고 일을 그렇게 헤주고 허던 뭣을 풀아불민 풀아불주. 난 집에서 잡아먹는 것

은 싫어.(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자기 집에서 우리 성질엔 안 돼. 팔아버리면 다른 데 가서 참 잡든지 뭐하든지 소는 다 사람 밥으로 태어난 거니까 다 잡아먹긴 잡아먹는데, 내가 그렇게 일 하려고 하면 곡식도 삶아서 그냥 먹이고 일을 그렇게 해주고 하던 뭣을 팔아버리면 팔아버리지. 난 집에서 잡아먹는 것은 싫어.)

104004 @ 아이구, 진짜 자식만큼예. 그런 것들이 잇구나예? 겐 여기 노인회장님도 소를 그렇게 잘 키왓덴 막 그추룩 헹도 돈도 벌엇덴 허멍 헙디다만도 소 길들이는 게 여기 청수리 분들 중에는 여러 명 다 잘 길들여마씨? 경 헹 막.(아이고, 진짜 자식만큼요. 그런 것들이 있군요? 그래서 여기 노인회장님도 소를 그렇게 잘 키웠다고 아주 그처럼 해서 돈도 벌었다고 하면서 합디다만 소 길들이는 게 여기 청수리 분들 중에는 여러 명 다 잘 길들여요? 그렇게 해서 막.)

104004 #1 전문적으로 그 맡앙 허는 사람도 잇어.(전문적으로 그 맡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

104004 @ 예.(예.)

104004 #1 경허곡 이녁냥으로 헐 수 잇는 사람은 놈으 건 안하고 이녁냥으로 이녁 소를 허젠 허는 뭣도 잇고 허는데 남을 빌어서 헤서 성질이나 나면은 소가 너무 얼멕여 부는 수도 잇고 허니까, 주인이 자기대로 훈련을 가르키고 싶은 사람은 자기대로 허고, 못허는 사람은 그.(그렇게 하고 이녁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건 안하고 이녁대로 이녁 소를 하려고 하는 뭣도 있고 하는데 남을 빌려서 해서 성질이나 나면 소가 너무 얼먹여 버리는 수도 있고 하니까, 주인이 자기대로 훈련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자기대로 하고, 못하는 사람은 그.)

104004 @ 돈 줭?(돈 줘서?)

104004 #1 뭐 ᄒᆞ나 연장이 상헤서도 자기대로 고치지 못허고 허는 사람은 놉 빌어서 헤가지고, 이쟈.(뭐 하나 연장이 상해서도 자기대로 고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놉 빌려서 해가지고, 이제.)

104004 @ 길들여 달라고?(길들여 달라고?)

104004 #1 예. 길들여. 일당 주고.(예. 길들여. 일당 주고.)

104004 @ 삼촌, 놈이 건 안 헤보고 자기 소만 헷수과?(삼촌, 남의 건 안 해보고 자기 소만 했습니까?)

104004 #1 예. 나도 ᄌᆞ끗디 처남이 잇으니까 힘이 좋은 뭐가 잇으니까니 에, 그 좀 와서 손 도움 헤달라고 헤서 난 놈보다는 소를 좀 뽑아서 헷으니까 만만치를 안헷어. 게서 나도 춤, 그 소로 헤서 ᄒᆞᆫ번 죽을 뻔도 넘어갓는데.(예. 나도 곁에 처남이 있으니까 힘이 좋은 뭐가 있으니까 에, 그 좀 와서 손 도움 해달라고 해서 난 남보다는 소를 좀 뽑아서 했으니까 만만치를 안했어. 그래서 나도 참, 그 소로 해서 한번 죽을 뻔도 넘어갔는데.)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3 아, 소 길들이는 건 내가 그 이디서도 여러 번 헤 줫주만은 그 야매로 이디서도 치 박는 사람, 요 어디 덕수 이 사람이 쉐를 ᄀᆞ르쳐 주면은 이빨을 박

아 주켄 허길레 거 이레 ᄀᆞ져오렌 헨.(아, 소 길들이는 건 내가 그 여기서도 여러 번 해 줬지만 그 야매로 여기서도 치 박는 사람, 요 어디 덕수 이 사람이 소를 가르쳐 주면 이빨을 박아 주겠다고 하기에 거 이리 가져오라고 해서.)

104004 @ 아.(아.)

104004 #3 딱 ᄀᆞ져왓는디 하루 만에 그 길을 들엿어예.(딱 가져왔는데 하루 만에 그 길을 들였어요.)

104004 @ 하하.(하하.)

104004 #3 하루 만에 길을 딱 들여놓고, 뒷날은 밧 가니까 밧 갈아져? 아 요거 이젠 나는 밧 ᄀᆞ르치는 그 무신거 뚠 사람허고 아주 특이허게 가르쳐.(하루 만에 길을 딱 들여놓고, 뒷날은 밭 가니까 밭 갈아져? 아 요거 이제 나는 밭 가르치는 그 무엇 딴 사람하고 아주 특이하게 가르쳐.)

104004 @ 오.(오.)

104004 #3 뚠 사람덜은 밧을 밧 ᄀᆞ르치젠 허면은 ᄒᆞᆫ 열흘, 보름, 요추룩 헤근에 허는디 난 딱 하루, 하루 딱 튀와근에 그날, 그날 멍에 씌왕은에 밧도 갈 때가 잇엇고, 그 뒷날, 당장 튀와근에 밧을 밧 ᄀᆞ르치는 거는 춤 일이라낫주. 게난 거 이빨을 허는데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내가 쉐 왕 이꺼 가시오. 허니까 거 뭔 소리냐고, 쉐 다 ᄀᆞ르쳤데메. 허난 게믄 나가 강 밧 갈아보켄 헨 그 사람은 그 거기서 딸딸이 탕 이디 왕 밧 가는디 강 쉐 턱허게 씌와 놩 이제 밧 갈아 보렌 허난 아 제법 졸졸졸졸 가거든. 하하 게난 아, 이 사람이 이거 밧 ᄀᆞ르치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게난 사흘도 그거 난 막 익숙케 헤연 질 ᄀᆞ르쳐노난 게난 아, 이추룩 쉽는 거로구나. 춤 그때 이빨 박아주멍 헤난.(딴 사람들은 밭을 밭 가르치려고 하면 한 열흘, 보름, 요처럼 해서 하는데 난 딱 하루, 하루 딱 띄워서 그날, 그날 멍에 씌워서 밭도 갈 때가 있었고, 그 뒷날, 당장 띄워서 밭을 밭 가르치는 거는 참 일이었었지. 그러니까 거 이빨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내가 소 와서 이끌고 가시오. 하니까 거 뭔 소리냐고, 소 다 가르쳤다며.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밭 갈아보겠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거기서 '딸딸이' 타서 여기 와서 밭 가는데 가서 소 턱하게 씌워 놔서 이제 밭 갈아 보라고 허니까 아 제법 졸졸졸졸 가거든. 하하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이거 밭 가르치는 게 이렇게 쉬운 건가. 그러니까 사흘도 그거 난 아주 익숙하게 해서 길 가르쳐 놓으니깐 그러니까 아, 이처럼 쉬운 건가. 참 그때 이빨 박아주면서 했었어.)

104004 @ 흐흐 재밋다예.(흐흐 재밌네요.)

104004 #3 딱 그때 처음에 사흘 만에 돈 백만 원.(딱 그때 처음에 사흘 만에 돈 백만 원.)

104004 @ 아아.(아아.)

104004 #3 이빨 박젠허니까 백 백 멧, 야매로 치과에서는 이백인가 이백 멧 십만 원 ᄃᆞ렌 헌디 이 사람 허는 덴 백이십만 원인가, 백삼십만 원인가 ᄃᆞ렌 헌 거 쉐 ᄀᆞ르쳐 주면은 헤주켄 헨게 이레 ᄀᆞ져오렌 헨 딱 사흘 만에 그 돈 벌어봣어. 베

락 돈.(이빨 박으려고 하니까 백 백 몇, 야매로 치과에서는 이백인가 이백 몇 십만 원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덴 백이십만 원인가, 백삼십만 원인가 달라고 한 거 소 가르쳐 주면 해주겠다고 하던데 이리 가져오라고 해서 딱 사흘 만에 그 돈 벌어봤어. 벼락 돈.)

104004 @ 어떵 걸 가르칩디가? 소.(어떻게 걸 가르칩디까? 소.)

104004 #3 멍에 씌왕.(멍에 씌워서.)

104004 @ 멍에 씌왕?(멍에 씌워서?)

104004 #3 멍에 씌와가지고 쉐를 혼번 튀우게 되면은 이게 쉐는 그 멧 메다 못 가예. 이 저 뛰는 말추룩 뛰질 못헤영 멧 메다 못 강은에 그쟈 오백 메다 사이에서 폴락폴락헤가민 그쟈 그 발로 강은에 게난 멍에 씌왕은에 그 조름에 돌을 둘아매나 나무를 둘아멩 헷수다. 그 쉐 그 ᄀᆞ르치는 데는 경헤영 허게 뒈면은 그 뭉 쓰는 쉐도 잇긴 있주만은 갑자기 튀와놓게 뒈면은 그 겁절에 뛰엉은에 그 뭐 헐 때가 있는디, 그 겁절에 튀엉 허게 뒈믄, 앞으로 내빼는 거는 쉽고, 이건 뭉 썽 가단에 드러눕는 건 이건 뭐 힘이 들고.(멍에 씌워가지고 소를 한번 날뛰게 되면 이게 소는 그 몇 미터 못 가요. 이 저 뛰는 말처럼 뛰질 못해서 몇 미터 못 가서 그저 오백 미터 사이에서 '폴락폴락'해가면 그저 그 발로 가서 그러니까 멍에 씌워서 그 뒤에 돌을 달아매나 나무를 달아매서 했습니다. 그 소 그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뭉' 쓰는 소도 있긴 있지만 갑자기 뛰어 놓게 되면 그 겁결에 뛰어서 그 뭐 할 때가 있는데, 그 겁결에 뛰어서 하게 되면, 앞으로 내빼는 거는 쉽고, 이거 '뭉' 써서 가다가 드러눕는 건 이건 뭐 힘이 들고.)

104004 @ 허허허허.(허허허허.)

104004 #3 이건 어디 그쟈 혼 오백 미터 튀어 나가게 뒈면은 헬렐레 헤가면은.(이건 어디 그저 한 오백 미터 뛰어 나가게 되면 헬렐레 해가면.)

104004 @ 흐흐흐흐.(흐흐흐흐.)

104004 #3 빈 밧더레 들어강은에 고지 수정을 세는 거라양. 고지 수정을 세당 잠대 ᄀᆞ져당 떡 허게 매엉 겡 헤영 졸졸졸졸 헤가민 아이고 이거 뭴로구나 헹은에 이거 나도 새쉐[87] ᄀᆞ르쳐 가지고 돈 꿰 하영 벌엇수다. 근데 새송에기 사다근에 그쟈 ᄒᆞ루 튀왕은에 밧 가는 걸로 헤영은 폴아먹어으니까.(빈 밭으로 들어가서 이랑 수를 세는 거예요. 이랑 수를 세다가 쟁기 가져다가 떡 하게 매어서 그렇게 해서 졸졸졸졸 해가면 아이고 이거 되겠구나 해서 나도 '새쉐' 가르쳐 가지고 돈 꽤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새송아지' 사다가 그저 하루 띄워서 밭가는 걸로 해서 팔아먹었으니까.)

104004 @ 오오.(오오.)

104004 #3 밧가는 쉐 값 허고 꼭ᄀᆞ튼 쉔디 밧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허고는 그때 멧 배 차이가 나니까 경 허니까 그게 혼 번 둘아다가 탁 둘아멧다 허면은 이삼일이민 딱 ᄀᆞ르쳐근에 밧 가는 걸로 폴아먹으니까.(밭가는 소 값 하고 똑같은 손

87) '새쉐'는 길들이지 않은 부룩소를 가리킨다. 달리 '새송에기'라고도 한다.

데 밭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는 그때 몇 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한 번 데려다가 탁 달아맸다 하면 이삼일이면 딱 가르쳐서 밭 가는 걸로 팔아먹으니까.)

104004 @ 야. 재주가예.(야. 재주가요.)

104004 #3 그거는 아니, 그거는 춤, 특이허게 난 밧을 ᄀᆞ르쳐십주.(그거는 아니, 그거는 참, 특이하게 난 밭을 가르쳤습죠.)

104004 @ 야. 이걸 어떵 누구한티 전수를 해야 뒈는디예?(야.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전수를 해야 되는데요?)

104004 #3 전수를 헷자 요새 누게가 ᄀᆞ르칠 사람 어디 잇어?(전수를 했자 요새 누가 가르칠 사람 어디 있어?)

104004 @ 그래도 어떵 이거 책으로 하하하하.(그래도 어떻게 이거 책으로 하하하하.)

104004 #3 이제는 기계로 다다다다허는 때문에.(이제는 기계로 다다다다하는 때문에.)

104004 @ 야. 이거 진짜. 그난 소의 그 생각을 읽고.(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소의 그 생각을 읽고.)

104004 #3 응.(응.)

104004 @ 그런 걸 다 이제.(그런 걸 다 이제.)

104004 #3 아예 잊어불게 행 처음에 헐 때 이거 강 드러눕던가 무싱거 허던가 엇이 와당탕허게 흔꺼번에 튀어야 뒈어. 경 헤근에 흔 오백 메다만 튀어가민 쉐가 풀락풀락헤가민 튀어가민 아, 이건 뒈엇구나. 헤여근에 촌촌이 걸으렌 허영.(아예 잊어버리게 해서 처음에 할 때 이거 가서 드러눕든가 무엇 하든가 없이 와당탕하게 한꺼번에 뛰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한 오백 미터만 뛰어가면 소가 팔락팔락해가면 뛰어가면 아, 이건 되었구나. 해서 천천히 걸으라고 해서.)

104004 @ 야 진짜. 그믄 뭐 소 와, 워, 이런 거. 노래라던가 그 다루는 뭐, 뭐가 잇수과? 다루는 뭐 말, 노래 닮은 거. 이레가! 허싯끼! 허는 거.(야 진짜. 그러면 뭐 소 '와, 워', 이런 거 노래라든가 그 다루는 뭐, 뭐가 있습니까? 다루는 뭐 말, 노래 닮은 거. 이리로 가! '허싯끼!' 하는 거.)

104004 #3 거 이십주.(거 있습죠.)

104004 @ 그거 해봅서?(그거 해보십시오?)

104004 #3 어 그거 요레 저레 돌아사라. 무신거 허라. 게난 워낙 익숙은 소덜이고 이 서툰 소들은 그걸 말허지 안허고 겨니까 이 늙은 하르방덜 영 헤근에 밧을 갈젠 하민 멍에 지레 가근에 쉐 돌리멍 영 쟁기 ᄀᆞ졍 돌아사멍 허멍 그때 ᄒᆞ쏠 쉬는 소리로 헤근에 이 송애기 저 송애기.(어 그거 요리 저리 돌아서라. 무엇 해라. 그러니까 워낙 익숙한 소들이고 이 서툰 소들은 그걸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들 이렇게 해서 밭을 갈려고 하면 멍에 지러 가서 소 돌리면서 이렇게 쟁기 가져서 돌아서면서 하면서 그때 조금 쉬는 소리로 해서 이 송아지 저 송아지.)

104004 @ 노래로 한번 헤봅서. 그냥 .(노래로 해 보세요. 그냥.)

104004 #3 에에, 그거 노래꺼장.(에에, 그거 노래까지.)

104004 @ 아니, 그래도게. 우리 노래도 허는 팀이우다게. 워러러월월.(아니, 그래도요. 우리 노래도 하는 팀입니다. 워러러월월.)

104004 #3 그건 밧 불리는, 밧 불리는 소리.(그건 밭 밟는, 밭 밟는 소리.)

104004 @ 이건 밧 불리는 거고예. 또 이놈의 쉐야! 으응으으 허는구나!(이건 밭 밟는 거고요. 이놈의 소야! 으응으으 하는구나!)

104004 #3 으응.(으응.)

104004 @ 와와! 잘 듣기만 헌 거라부난.(와와! 잘 듣기만 한 거라 버리니까.)

104004 #3 그 저 무싱거 헹은에 옛날 하르방덜 허는 거 그건.(그 저 무엇 해서 옛날 할아버지들 하는 거 그건.)

104004 @ 소리 좋아서예? 옛날 하르방덜에 게난 쉐덜이예? 그거 그냥 잘잘 따르멍.(소리 좋았지요? 옛날 할아버지들에 그러니까 소들이요? 그거 그냥 잘잘 따르면서.)

104004 #3 게난 쇠덜이 오로롤롤롤롤롤혜가민 그 뭉셍이덜도 그냥 영 쉐덜도 그쟈 뭉셍이덜은 그 주장 하나만 허면은 이건 꼭 말 알아듣는 거 모냥으로 이건 주장 하나만 허민 요레저레 이껑 뎅겨가민 졸음에 벵벵벵벵 돌아뎅기고 쉐들은 그게 아니고 야개기에 걸려매영 영 헤근에 이레저레 영 뎅기고.(그러니까 소들이 '오로롤롤롤롤롤'해가면 그 망아지들도 그냥 이렇게 소들도 그저 망아지들은 그 주장 하나만 하면 이건 꼭 말 알아듣는 거 모양으로 이건 주장 하나만 하면 요리저리 이끌어 다녀가면 꽁무니에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소들은 그게 아니고 모가지에 걸려매서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고.)

104004 @ 소도 워러러러 헷수과 말이 아니고?(소도 워러러러 했습니까 말이 아니고?)

104004 #3 요 송아기 저 송아기 선장 가는 디 고불고불 걸어가라! 무싱거 영 허라! 정 허라! 허멍 그거, 그건 봉간에 허는 거난.(요 송아지 저 송아지 선장 가는 데 고분고분 걸어가라! 무엇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그거, 그건 주워서 하는 거니까.)

104004 @ 게도. 그런 말이 중요허주마씨. 아까 그 막 워러러러 이거 잘합디다마는 그거 말이꽈?(그래도. 그런 말이 중요하지요. 아까 그 막 워러러러 이거 잘합디다만 그거 말입니까?)

104004 #3 예. 워러러러헌 거 그거는 응.(예. 워러러러한 거 그거는 응.)

104004 @ 그거는 말이 아, 예 몽고에서 왔져. 뭐헷져. 막 이런 말덜 나옵디다만 그 워러러러도 말을 다루면서 만들어넨 말이구나예?(그거는 말이 아, 예 말이 몽고에서 왔다. 뭐했다. 막 이런 말들 나옵디다만 그 워러러러도 말을 다루면서 만들어낸 말이군요?)

104004 #3 으으응. 워러러러 헤근에 뭐 이제 뭐 요레 가라! 저레 가라! 헤가민

말을 다루멍. 와! 워러러러 허지만은 와! 허게 뒈면은 그레 가지 말앙 요레 요 펜더레 돌아사멍 이레 오라. 영 헌 소리. 와! 워러러러 이거는.(으으응. 워러러러 해서 뭐 이제 뭐 요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가면 말을 다루면서. 와! 워러러러 하지만 와! 하게 되면 그리 가지 말아서 요리 요 편으로 돌아서면서 이리 오라. 이렇게 한 소리. 와! 워러러러 이거는.)

104004 @ 신기헤예. 옛날 어르신들.(신기해요. 옛날 어르신들.)

104004 #3 예. 게난 그 이제도 영 그 ᄆᆞᆯ 모는 거 베려 보믄 뭐 어디 가근에 헤근에 저 목장에서도 허게 뒈믄 그 ᄆᆞᆯ ᄀᆞ튼 거. 이 쉐 ᄀᆞ튼 거는 경 말 안 들어마씨. 뭉이 좀 잇는 거란지. ᄆᆞᆯ덜은 영 헤근에 주인 소릴 알아들엉은에 그 뱅뱅뱅뱅 돌아사멍 무싱거.(예. 그러니까 그 이제도 이렇게 그 말 모는 거 봐 보면 뭐 어디 가서 해서 저 목장에서도 하게 되면 그 말 같은 거. 이 소 같은 거는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의뭉이 좀 있는 거인지. 말들은 이렇게 해서 주인 소릴 알아들어서 그 뱅뱅뱅뱅 돌아서면서 무엇.)

104004 @ 길들이는 이거 책으로 다시 한 번 정리 헹예. 소 어떵 길들이는 거 에피소드 이런 것들 나중에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 더예 생각헷당.(길들이는 이거 책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요. 소 어떻게 길들이는 거 에피소드 이런 것들 나중에 한 번 말해주십시오. 더요 생각했다가.)

104004 #6 ᄀᆞ레착 끗엉 버릇 ᄀᆞ르쳐.(맷돌짝 끌어서 버릇 가르쳐.)

104004 @ 하하 ᄀᆞ레착 끗엉 허허.(하하 맷돌짝 끌어서 허허.)

104004 #5 경 안 허민 다시 이만헌 낭에 다시 거말장 박안 그레 쉐 무싱거옌 허느니 멍에 씌왕 그 멍에레 다시 그레 ᄃᆞᆯ아매영.(그렇게 안 하면 다시 이만한 나무에 다시 거멀장 박아서 그리 소 무엇이라고 하느냐 멍에 씌워서 그 멍에에 다시 그리 달아매서.)

104004 #4 낭도 끗이고 아이고, 쉐 불쌍허게 살앗지. 아이구.(나무도 끌고 아이고, 소 불쌍하게 살았지. 아이고.)

104004 #5 경 허연 쉐 ᄒᆞ나 죽여낫수게. 저 충혼이 아방.(그렇게 해서 소 하나 죽였었습니다. 저 충혼이 아버지.)

104004 #6 건 요자기고게. 옛날.(건 요전이고. 옛날.)

104004 @ 남자가 길들이지예?(남자가 길들이지요?)

104004 #5 남자가 몰앙 뎅기멍.(남자가 몰아서 다니면서.)

104004 #6 남자도 아무나 아니 젊은 사람, 그렇게 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가르치는 사람, 쉐 ᄀᆞ르치는 사람 ᄃᆞ나.(남자도 아무나 아니 젊은 사람, 그렇게 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가르치는 사람, 소 가르치는 사람 달라.)

104005 @ 소는 나이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손 멧 살까지 살 건고예?(소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 몇 살까지 살 건가요?)

104005 #1 소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오촌이 제일 오래 살아 질롓다고 허는데 스물세 살까지.(소를 우리 동네에서 우리 오촌이 제일 오래 살아 길렀다고 하는데

스물세 살까지.)

104005 @ 응.(응.)

104005 #1 스물세 살까지 게니까 병만 안 들면은 오래 사는디 여기서 암소는 새끼를 안 난에 나이 들면은 새끼를 못 낳거든.(스물세 살까지 그러니까 병만 안 들면 오래 사는데 여기서 암소는 새끼를 안 나서 나이 들면 새끼를 못 낳거든.)

104005 @ 예.(예.)

104005 #1 새끼를 못 나가면은 처분을 헤 버려.(새끼를 못 나가면 처분을 해 버려.)

104005 @ 응.(응.)

104005 #1 폴아 버려.(팔아 버려.)

104005 @ 응.(응.)

104005 #1 보통 열두 솔이면은 폴아 버리주게. 세 솔에서부터 그 밧 갈기 시작허면 성질이 좋고, 그 기능이 좋은 쉐는, 흔 십년 뭐 밧갈쉐허면은 폴아 버리고, 경 안허영 쪼금 뭐헌 쉐는, 흔 칠팔년이면은 넹겨 버리고 새로 마련허고.(보통 열두 살이면 팔아버리지. 세 살에서부터 그 밭 갈기 시작하면 성질이 좋고, 그 기능이 좋은 소는, 한 십년 뭐 황소하면 팔아 버리고 그렇게 안 해서 조금 뭐한 소는, 한 칠팔년이면 넘겨 버리고 새로 마련하고.)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5 #3 소의 나이에 대해 가지고는.(소의 나이에 대해 가지고는.)

104005 @ 멧 년 삽니까? 보통?(몇 년 삽니까? 보통?)

104005 #3 글쎄예. 소 나이가 거 경 길지는 안 허지. 아마.(글쎄요, 소 나이가 거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아마.)

104005 @ 끝까지 키와 본적은 없잖아예?(끝까지 키워 본적은 없잖아요?)

104005 #3 응. 끝꺼진 안 키와 봔. 이거 여기서 아까 권식이네가 제일 소 오래 길루긴 길롸봣수다.(응. 끝까진 안 키워봤어. 이거 여기도 아까 권식이네가 제일 소 오래 기르긴 길렀봤습니다.)

104005 @ 아.(아.)

104005 #3 거 소 ᄒᆞ나가 워낙 새끼를 잘 나가지고.(거 소 하나가 워낙 새끼를 잘 나가지고.)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3 그 집이 그 쉐 하나로 그 집이 부자 뒛젠 허는 집인디.(그 집이 그 소 하나로 그 집이 부자 됐다고 하는 집인데.)

104005 @ 아.(아.)

104005 #3 그 소가 흔 십 흔 육, 칠년 이상 질롸실 거라마씸. 소 나이가 옛날 하르방덜 듣기론 흔 그쟈 스물에서 스물두서너 솔에서 그 나이 더 이상 가질 못헤여. 그걸 뭐 막 뒈도록 질롸봐사.(그 소가 한 십 한 육, 한 칠년 이상 길렀을 거예

요. 소 나이가 옛날 할아버지들 듣기론 한 그저 스물에서 스물두서너 살에서 그 나이 더 이상 가질 못해. 그걸 뭐 막 되도록 길러봐야.)

104005 @ 헤헤헤헤, 아이구, 말 놉서예. 나 다 존댓말로 쓰게 뭽니다.(헤헤헤헤, 아이고, 말 노십시오. 나 다 존댓말로 쓰게 됩니다.)

104005 #5 아이구 건 멧 솔사끙장 살암신디 쉐.(아이구 건 몇 살까지 살고 있는지 소.)

104005 #6 집이 안 질룹네다. 풀아 불엉.(집에 안 기릅니다. 팔아 버려서.)

104005 #4 스물끙장 질룰 거우다. 쉔 스물, 물은 서른. 경흔덴 헙디다.(스물까지 기를 겁니다. 소는 스물, 말은 서른.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104005 @ 쉔 스물, 물은 서른.(손 스물, 말은 서른.)

104005 #5 물이 흑쏠 질 펜안한ᄀᆞ라.(말이 조금 제일 편안한지.)

104005 #6 잡아먹지 못헌뎅 값 아니 주난 재개 풀아붑니다.(잡아먹지 못한다고 값 아니 주니까 재우 팔아버립니다.)

104005 #5 쉐 올렷당 낮 뒈가민 안 나오민 춪이레 뎅기고.(소 올렸다가 낮 되어 가면 안 나오면 찾으러 다니고.)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쟁기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6 #1 쟁기?(쟁기?)

104006 @ 쟁기가 잠대? 쟁긴 쟁기?(쟁기가 '잠대'? 쟁긴 쟁기?)

104006 #1 잠대엔도 허고 쟁기엔도 허고, 처음엔 잡는 것이 양주머리.('잠대'라고도 하고 쟁기라고도 하고, 처음엔 잡는 것이 양지머리.)

104006 @ 아.(아)

104006 #1 이렇게 딱 잡아서 허는 게 양주머리, 그다음에 보섭 찔르는 거는 무클, 잠대 무클, 그다음에 큰 거는 잠대 성에 진 거, 지러기 진 건 잠대 성에. 중간에 이제 와쿠 짠다 헌 거는 설칫, 그게 영 서 있는 거주게.(이렇게 딱 잡아서 하는 게 양지머리, 그다음에 보습 끼우는 거는 쟁깃술, 쟁기 쟁깃술, 그다음에 큰 거는 쟁기 성에 긴 거, 길이 긴 건 쟁기 성에. 중간에 이제 틀 짜서 한 거는 한마루, 그게 이렇게 서 있는 거지.)

104006 @ 아아.(아아.)

104006 #1 아래 영 가고 이거 영허민 이레 영 뭰 거니까 이게 설칫. 설칫, 그다음에 고망 뚤랑 영 흔 건 벳바드렝이[88], 벳바드렝이, 이제 또 이제 일로 끗뎅이 영헌 건 돌벵이뿔.(아래 이렇게 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리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한마루. 한마루, 그다음에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한 건 '볏바드렝이', '볏바드렝이', 이제 또 이제 일로 끄트머리, 이렇게 한 건 까막머리.)

104006 @ 돌벵이, 달팽이를 돌벵이렌 허는구나예?('돌벵이', 달팽이를 '돌벵이'

88) '벳바드렝이'는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를 말한다. '벳공젱이', '벳받이'로도 쓰인다.

라고 하는군요?)

104006 #1 예. 응. 돌벵이뿔이옌 허주게. 돌벵이뿔 그것에 이제 쉐멍에 헌 걸 걸려서 영 둥이는 거라. 그다음에는 이제 보섭 찔르고 벳 돌르고, 벳 돌른 다음에는 벳틀레[89] 요렇게 찔르는 것이 영 헌 것이 벳틀레가 잇고, 경허면은 그 잠대에는 명칭이 다 들어간 거.(예. 응. 까막머리라고 하지. 까막머리 그것에 이제 소멍에 한 걸 걸려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다음에는 이제 보습 찌르고 볏 두르고, 볏 두른 다음에는 '벳틀레' 요렇게 찌르는 것이 이렇게 한 것이 '벳틀레'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쟁기에는 명칭이 다 들어간 거.)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 쟁기는 잠대렌 헷수과? 쟁기?(쟁기의 부분 명칭, 쟁기는 '잠대'라고 했습니까? 쟁기?)

104006 #3 쟁긴 그냥 쟁기로 그냥. 잠대라는 건 쟁기.(쟁긴 그냥 쟁기로 그냥. '잠대'라는 건 쟁기.)

104007 @ 그다음 질마의 부분 명칭에 데헤서 말씀헤주십시오.(그다음 길마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4007 #1 예? 질메? 쉐질메옌 허는디, 질마?(예? 길마? 소길마라고 하는데, 길마?)

104007 @ 쉐질메예?(소길마요?)

104007 #1 질마는 앞에 영 오그라진 나무는 앞가지, 뒤엣 거는 뒤에 허면은 뒤에는 공젱이가 두 개가 잇어. 공젱이가 두 개. 그렇게 헤서 이제 그 저 샛낭 양쪽에 두 개 이렇게 허곡, 또 ᄀᆞ는 낭 가운딜로 찔렁은에 헤서 거 그 새에는 옛날에는 그 저 너덩, 너덩으로 딱 무꺼. 너덩에 고지 가면은 너덩 줄거리가 잇는데 그게 아주 질경 존 거라.(길마는 앞에 이렇게 오그라진 나무는 앞가지, 뒤에 거는 뒤에 하면 뒤에는 걸이가 두 개가 있어. 걸이가 두 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 사이나무 양쪽에 두 개 이렇게 하고, 또 가는 나무 가운데로 찔러서 해서 거 그 사이에는 옛날에는 그 저 으름덩굴, 으름덩굴로 딱 묶어, 덩굴, 숲에 가면 으름덩굴 줄거리가 있는데 그게 아주 질겨서 좋은 거야.)

104007 @ 신사라보다도 더 질겨마씨? 신사라만큼 질겨마씨?(신서란보다도 더 질겨요? 신서란만큼 질겨요?)

104007 #1 아이고, 옛날에사 신사라도 요 중간에 나온 건디.(아이고, 옛날에야 신서란도 요 중간에 나온 건데.)

104007 @ 아아.(아아.)

104007 #1 그 너덩이라고 헌 것은 벗벗허게 이렇게 손ᄀᆞ락 모냥으로 꺼죽도 두꺼운디 이거 께와근에 거죽 베껴 뒁 뭘 허면은 이거는 비가 맞아도 불어나지 안허고, 물라도 데깍[90], 젖어도 데깍, 허는 거니까 그 너덩이 아주 그 좋주게. 그 껍데기는 풀도 막 좋고 그걸로 헹 딱 무껑 허면은 그 베 걸면은 뒤에 시끌 때는 그 베

89) '벳틀레'는 쟁기에 볏을 단단히 틀어주는 나무 막대이다.
90) '데깍'은 '디깍'. '제깍'. '지깍'이라 하며, 짜인 물체나 담긴 물건이 딴딴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가 그 공젱이레 강 걸어근에 탁 도메시키는 거주게. 공젱이가 질메 하나에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 바로 영 헌 공젱이 멩글앙 딱 허게 딱, 딱, 딱, 허게 이레 베 영 걸엉 벗어지지 안 허게.(그 으름덩굴이라고 한 것은 뻣뻣하게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거죽도 두꺼운데 이거 깨서 껍질 벗겨두고 뭘 하면 이거는 비가 맞아도 불어나지 않고, 말라도 뻣뻣, 젖어도 뻣뻣, 하는 거니까 그 으름덩굴이 아주 그 좋지. 그 껍데기는 풀도 아주 좋고 그걸로 해서 딱 묶어서 하면 그 바 걸면 뒤에 실을 때는 그 바가 그 걸이에 가서 걸어서 딱 멈추게 하는 거지. 걸이가 길마 하나에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 바로 이렇게 한 걸이 만들어서 딱 하게 딱, 딱, 딱, 하게 이리로 바 이렇게 걸어서 벗겨지지 않게.)

104007 @ 길마? 소질메? 길마?(길마? 소길마? 길마?)

104007 #3 길마옌 헌 건 뭐여?(길마라고 한 건 뭐야?)

104007 @ 소질멧가지 할 때 질메. 제주도 말로 질메.(소길맛가지 할 때 길마. 제주도 말로 '질메'.)

104007 #3 으. 질메, 지르메, 지르메옌도 허고 질메. 짐 씨끄멍 씌우는 것ᄀᆞ라 질메.(응. 길마, '지르메', '지르메'라고도 하고 길마. 짐 실으면서 씌우는 것보고 길마.)

104007 @ 지르메예.('지르메'요.)

104007 #3 응.(응.)

104008 @ 멍에의 부분 명칭에 대헹 말씀헤주십서.(멍에의 부분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4008 #1 멍에낭은 항상 부드러운 낭. 부드러운 낭. 여기서는 주로 멍에낭을 헐라고 허면은 머구낭.(멍에나무는 항상 부드러운 나무. 부드러운 나무. 여기서는 주로 멍에나무를 하려고 하면 머귀나무.)

104008 @ 머구낭.(머귀나무.)

104008 #1 머구낭이 이게 가볍고 좀 솔이 무른 낭인디, 쉐 야개기에 가니 그 야개기가 덜 아파. 으물질 안 헌 낭이니까 에, 게서 그 머귀낭으로 주로 기본은 허고, 그기에다가 좁게[91], 좁게 두 개를 어, 헤서 꿰는, ᄀᆞ망똘랑 그 멍에낭에 고망 두 개 똘랑은에 좁게 두 개를 헹은에 허는 데 그거는 윤누리로 주로 허거든. 윤누리로 좁게 헤가지고 허곡 솜비줄이라고 헤서 이제 줄은 그 저 소리낭, 소리낭 깨어가지고 좀지룽이 얄께 대 모냥으로 깨어가지고 그놈으로 이제 새끼 그걸 꼬앙 그 전문으로 허는 사람 빌어근에 그걸 꼬앙 또 삼갑 드렁 그거 상당히 으물게 헤. 허면은 그게 춤 오래 가거든예. 경 헤서 그 뒤에는 벌렛낭, 벌렛낭 헤영 끗댕이에 걸고, 그다음에는 저 벌레, 그게 벌렛낭인디 벌렛낭이렌 허고 오리목, 뒤에 저 돌벵이 뿔에 걸리는 거세 오리목, 오리목 헤근에 그레 걸면은 그거 딱 구조시키젠 허면은 그 옛날에는 그 소가죽 헤근에 그디 딱 돌벵이뿔 성에 끝에 그거 오리목 허면은 딱 허게 무껑 경 헹 헤낫는데 중간에 들언 뭐, 뭐 이 로뽀베가 나오고 뭐허고 허니까 그런 것

91) '좁게'는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 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뭇가지를 뜻한다.

을 잘 안헤도 그 옛날에는 그 비가 맞아도 끊어지지 안허고, 불어나지 안 허고, 질긴 쉐가죽, 늙은 쉐가죽 헤가지고 가운딜로 고망 뚤랑 영 헹 꿰영 딱 줄마멧주. 밧 갈 때.(머귀나무가 이게 가볍고 좀 살이 무른 나무인데 소 목에 가니까 그 목이 덜 아파. 여물질 안 한 나무니까 에, 그래서 그 머귀나무로 주로 기본은 하고, 거기에다가 목대, 목대 두 개를 어, 해서 꿰는, 구멍 뚫어서 멍에나무에 구멍 두 개 뚫어서 목대 두 개를 해서 하는데 그거는 윤노리나무로 주로 하거든. 윤노리나무로 목대 해가지고 하고 봇줄이라고 해서 이제 줄은 그 저 소리나무, 소리나무 깨어가지고 잘게 얇게 대 모양으로 깨어가지고 그놈으로 이제 새끼 그걸 꼬아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 빌려서 그걸 꼬아서 또 삼갑 드려서 그거 상당히 여물게 해. 하면은 그게 참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비경이, 비경이나무 해서 끄트머리에 걸고 그다음에는 저 비경이, 그게 비경이나무인데 비경이나무라고 하고 '오리목', 뒤에 저 까막머리에 걸리는 것에 '오리목', '오리목' 해서 그리 걸면 그거 딱 구조시키려고 하면 그 옛날에는 그 소가죽 해서 거기 딱 까막머리, 성에 끝에 그거 '오리목' 하면 딱하게 묶어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중간에 들어서 뭐, 뭐, '로프바'가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안 해도 그 옛날에는 그 비가 맞아도 끊어지지 않고, 불어나지 않고, 질긴 소가죽 늙은 소가죽 해가지고 가운데로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해서 꿰어서 딱 잘라맸지. 밭 갈 때.)

104008 @ 지금 잠대 그런 거, 집이 엇지예.(지금 쟁기 그런 거, 집에 없지요.)

104008 #1 잠대? 기본은 잇어.(쟁기? 기본은 있어.)

104008 @ 기본? 멍에영?(기본? 멍에랑?)

104008 #1 멍에, 멍에도 우리 집 큰아덜 창고에 내불언 솜비줄도 삭아불고 헤영 버려불고, 잠대만 영 헤서 영 헌 거 이것만 이제 창고에 걸어져 이시니까 이젠 소용없어.(멍에, 멍에도 우리 집 큰아들 창고에 내버려서 봇줄도 삭아버리고 해서 버려버리고, 쟁기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 이것만 이제 창고에 걸어져 있으니까 이젠 소용없어.)

104008 @ 사진을 하나 찍어야 뭴 건디예.(사진을 하나 찍어야 될 건데요.)

104008 #1 벳이 잇엇는디 벳은 박거리 어떵 헹 불나가지고 헹 카버리니까 벳도 못 쓰게 뒈고, 이젠 보섭은 덕수, 저 안덕면 덕수리에서 보섭 제작을 허주게.(벼이 있었는데 벼은 바깥채 어떻게 해서 불나가지고 해서 타버리니까 벼도 못 쓰게 되고, 이젠 보습은 덕수, 저 안덕면 덕수리에서 보습 제작을 하지.)

104008 @ 예.(예.)

104008 #1 보섭 제작을 헤가지고 여기서 풀레 오면은 그 새당, 그디보고 새당이라고 허는디.(보습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러 오면 그 '새당', 거기보고 '새당'이라고 하는데.)

104008 @ 예.(예.)

104008 #1 ᄆᆞ을 보통 새당 보섭이라고 헤가지고 궤양 질들이민은 그거 좋고.(마을 보통 '새당' 보습이라고 해가지고 고이 길들이면 그거 좋고.)

104008 @ 아아.(아아.)

104008 #1 글씨후제 이제 이 쒜로다가 이 저 철물점에서 멘들앙 픈는 거는 그거 얼마 안 가고 ᄂᆞ실지도 안허여. 새당 보섭이옌 헌 거는 읖에도 칼날ᄀᆞ치 ᄂᆞ실아. 여긴 새당 보섭을 썻는데 새당이옌 헌 디가 덕수리주.(그 이후에 이제 이 쇠로다가 이 저 철물점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는 그거 얼마 안 가고 날카롭지도 않아. '새당' 보습이라고 한 거는 옆에도 칼날같이 날카로워. 여긴 '새당' 보습을 썼는데 '새당'이라고 한 데가 덕수리지.)

104008 @ 예. 불미허는 디예. 음. 거기가 주로 폴레 오는구나예? 사레 가는 게 아니고?(예. 풀무하는 데요. 음. 거기가 주로 팔러 오는군요? 사러 가는 게 아니고?)

104008 #1 예. 폴레 오라예.(예. 팔러 와요.)

104008 #3 그 저 밧 갈멍 씌우는 것ᄀᆞ라 멍에.(그 저 밭 갈면서 씌우는 것보고 멍에.)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1 청수에 목장은 공동 목장이주게.(청수에 목장은 공동 목장이지.)

104009 @ 옛날에도마씨?(옛날에도요?)

104009 #1 예. 옛날에 공동목장이니까 들어가는 코스에 살문이라고 헤서 살채기문, 나무로다가 이 저 이렇게 짜가지고 더끄고 열고 경헤서 헤야 목장에 있는 소는 이 농장에 나오면은 까딱 잘못허면은 이 농사밧데 들엉 피헤를 주니까 게서 그 살채기 멘들앙 딱 놓고, 이제 보통으로는 어, 고지 들어가면은 곶 안에 들어서 먹당 나오랑 마진흘[92]이옌 헌 데 물 먹으면은 바로 안터레 자기, 자기 먹는 선이 잇어. 우리 목장에 영 들어가면 이레 영 난 질이 있고 이레 영 난 질이 잇는디 일로 가는 소는 일로만 가고, 일로 가는 소는 일로만 가거든.(예. 옛날에 공동목장이니까 들어가는 코스에 살문이라고 해서 사립문, 나무로다가 이 저 이렇게 짜가지고 덮고 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목장에 있는 소는 이 농장에 나오면 까딱 잘못하면 곡식밭에 들어서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그 사립문 만들어서 딱 놓고, 이제 보통으로는 숲에 들어가면 숲 안에 들어서 먹다가 나와서 '마진흘'이라고 한 데 물 먹으면 바로 안으로 자기, 자기 먹는 선이 있어. 우리 목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리로 이렇게 난 길이 있고 이리로 이렇게 난 길이 있는데 이리로 가는 소는 이리로만 가고, 이리로 가는 소는 이리로만 가거든.)

104009 @ 아아.(아아.)

104009 #1 자기가 먹고 사는 지경 이외에는 잘 안 가.(자기가 먹고 사는 지경 이외에는 잘 안 가.)

104009 #3 목장은 그 그전에 그 목장 관리는 누게 벨도로 헤가지고 그 목장을 관리하지 않고, 소덜을 목장에 올려노게 뒈면은 우리가 어느 도량에 먹는다고이 겨난 이 우리 곧 목장에 가면은 도량이랑 게 잇고양. 어느 도량 어느 도량, 어느 도량 그 도량 명칭이 잇어. 그것도 제주대학에서 완 다 적어간 거 무싱거 이실 건디,

92) '마진흘'은 청수리의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도량 명칭이 잇는데 도량 명칭을 도량 명칭도 그 권식이가 잘 알아마씨양. 그 도량 명칭 하게 뒈민 우리 쉐는 어느 도량에서 먹나, 우리 쉐는 어느 도량에서 먹나, 이 추룩 허게 뒈면은 딱 그 쉐덜이 와근에 물 먹으레 나올 시간에 뒈근에 주인이 갑주. 그 물에. 그 물에 가면은 그 물에 미릇 강 앚인 사람덜은 느네 쉔 멧 시에 물 먹엉 들어갓져. 느네 쉔 뭐 어떵 헷져. 헤근에 앚앙덜 서로 소문 듣고 무신거 허멍 헌디 앚인 물에서는 못 봐라. 물 멕이레 못 봐라. 가게 뒈민 그 도량에 강 사람 몰앙 나왕 물 멕영 안트레 들여보내고 헌디 그거 ᄆᆞ진흘물[93]인디 ᄆᆞ진흘물이 그거 물이 아니라십주.(목장은 그 그전에 그 목장 관리는 누가 별도로 해가지고 그 목장을 관리하지 않고, 소들을 목장에 올려놓게 되면 우리가 어느 지경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 곧 그 목장에 가면 지경이란 게 있고요. 어느 지경, 어느 지경, 어느 지경, 그 지경 명칭이 있어. 그것도 제주대학에서 와서 다 적어간 거 무엇 있을 건데, 지경 명칭이 있는데 지경 명칭을 지경 명칭도 그 권식이가 잘 알아요. 그 지경 명칭 하게 되면 우리 소는 어느 지경에서 먹는다, 우리 소는 어느 지경에서 먹는다, 이처럼 하게 되면 딱 그 소들이 와서 물 먹으러 나올 시간에 돼서 주인이 가지. 그 물에. 그 물에 가면 그 물에 미리 가서 앉은 사람들은 너네 손 몇 시에 물 먹어서 들어갔다. 너의 손 뭐 어떻게 했다. 해서 앉아서들 서로 소문 듣고 뭐 하면서 했는데 앉은 물에서는 못 보더라. 물 먹이러 못 보더라. 가게 되면 그 지경에 가서 사람 몰아서 나와서 물 먹여서 안으로 들여보내고 하는데 그거 ‘ᄆᆞ진흘물’인데 ‘ᄆᆞ진흘물’이 그거 물이 아니었습지요.)

104009 @ ᄆᆞ진헐?(‘ᄆᆞ진헐’?)

104009 #3 마진흘.(‘마진흘’.)

104009 @ ᄆᆞ진흘물마씨?(‘ᄆᆞ진흘물’이요?)

104009 #3 응.(응.)

104009 @ 그거 어디 이신 거마씨?(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104009 #3 그걸 ᄆᆞ진흘 ᄆᆞ진흘 헌디 그 우리 목장 안에, 이디 잇수다.(그걸 ‘ᄆᆞ진흘’, ‘ᄆᆞ진흘’ 하는데 그 우리 목장 안에, 여기 있습니다.)

104009 @ 지금도 잇어마씨?(지금도 있어요?)

104009 #3 예.(예.)

104009 @ 지금도 그거 먹으멍 컷겟다예? 말덜이, 소가.(지금도 그거 먹으면서 컸겠네요? 말들이, 소가.)

104009 #3 으응. 이제는 그 목장 안에 그 저 수도가 들어가긴 헷는디, 농업용수가 들어가긴 헷는디 이제 그 지금 목장 안에 쉐덜이 엇수다. 엇어. 이디 이찬행 씨라고 그디가 그 목장 주변에서 몰덜 흔 멧 마리 키우는디.(으응. 이제는 그 목장 안에 그 저 수도가 들어가긴 했는데, 농업용수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 지금 목장 안에 소들이 없습니다. 없어. 여기 이찬행 씨라고 거기가 그 목장 주변에서 말들 한 몇 마리 키우는데.)

93) ‘ᄆᆞ진흘물’은 청수리 ‘ᄆᆞ진흘’ 지경에 있는 물 이름이다.

104009 @ 예예.(예예.)

104009 #3 그 물덜이나베끠 게난 그 물 안 먹엉 수돗물 빵은에 그 통 박아근에 통에서 먹곡 허는디 그런 날은 그 물이 겨난 소가 윽은 소는.(그 말들밖에 그러니까 그 물 안 먹어서 수돗물 뽑아서 그 통 박아서 통에서 먹고 하는데 그런 날은 그 물이 그러니까 소가 약은 소는.)

104009 @ 예.(예.)

104009 #3 아침이 일찍 완에 아젱이 걸라아진 물을 먹고 날ᄀᆞ치 멍텅헌 거는.(아침에 일찍 와서 앙금 가라앉은 물을 먹고 나같이 멍청한 거는.)

104009 @ 헤헤헤헤.(헤헤헤헤.)

104009 #3 그쟈 아무 때라도 나오당 붸려보면은, 왕 붸려보면은 그쟈 펄밧, 견디 그 물을 사람덜도 먹엇수다. 그게 물 반, 오줌 반이라 그게.(그저 아무 때라도 나오다가 봐보면, 와서 봐보면 그저 펄밭, 그런데 그 물을 사람들도 먹었습니다. 그게 물 반, 오줌 반이야 그게.)

104009 @ 아아.(아아.)

104009 #3 쉐덜이, 소들이 그디서 나와근에 그디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헤 논 거를 헤노으면 사람덜도 목이 ᄆᆞ르면은.(소들이, 소들이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해놓은 거를 해놓으면 사람들도 목이 마르면.)

104009 @ 으음.(으음.)

104009 #3 아, 그디 안 나왕 어떵 헐 거라? 집ᄁᆞ장 나오젠 허민 ᄒᆞ쏠 멀고 허난.(아, 거기 안 나와서 어떻게 할 거야? 집까지 나오려고 하면 조금 멀고 하니까.)

104009 @ 으음. ᄆᆞ진물예.(으음. ‘ᄆᆞ진물’이요.)

104009 #3 견디 우리, 나도 그 목ᄆᆞᆯ라도 당추 그 물을 먹지를 못허겟데. 그 물덜은 먹ᄀᆞ렌 헌 사람 잇어마씨/(그런데 우리 나도 그 목말라도 당최 그 물을 먹지를 못하겠데. 그 물들은 먹었다고 한 사람 있어요?)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이거는 소, 삼춘 멧 살부터 물 멕이레 가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꽈?(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 삼촌 몇 살부터 물 먹이러 가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까?)

104010 #1 이거는 초등학교 뎅길 때부터 집이 겨울에 쉐막에 뭘 허면은 미리 학교 갓다 오면은 오는 시간 내에 소 물통에 가서 물 멕영 ᄆᆞᆯ아당 매라. 쉐막에 들어 가면은 다 석이 매영 있으니까 쉐석[94]이 있으니까니 오랑 탁탁 매고, 겐디 쉐가 멍청헌 거 닮아도 주인은 다 알아.(이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겨울에 외양간에 뭘 하면은 미리 학교 갔다 오면 오는 시간 내에 소 물통에 가서 물 먹여서 몰아다가 매라. 외양간에 들어가면 다 석이 매여 있으니까 ‘쉐석’이 있으니까 와서 탁탁 매고, 그런데 소가 멍청한 거 같아도 주인은 다 알아.)

104010 @ 겐 어릴 때부터 그추룩 쉐 물도 멕이고.(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처럼

94) ‘쉐석’은 소의 대가리를 걸려 잡아매어 끄는 끈을 말한다.

소 물도 먹이고.)

104010 #1 집마다 다 그거라.(집마다 다 그거야.)

104010 @ 뭐 소 잃어불엉 울고불고 그런 일은 엇엇수과?(뭐 소 잃어버려서 울고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104010 #1 소를 잃어부는 건 도둑 일러불어. 도둑이, 그냥은 소가 잃어버릴 수가 없주.(소를 잃어버리는 건 도둑 잃어버려. 도둑이, 그냥은 소가 잃어버릴 수가 없지.)

104010 @ 도둑 들엉.(도둑 들어서.)

104010 #1 어, 일러부는 거는 이따가 그 소가 뭐 허다가 소가 싸와가지고 팍 쓰러지나 뭐 헐 때 일어나지 못 허면은 그 자리에서 가끔 죽는 수도, 나도 그렇게 그 ᄒᆞ나 죽언 세 살 난 쉐가 죽어가지고 춧지 못헹 허당 보니까 한쪽 삐뜨러진 디서 다른 소가 탁 받아버리니까 탁 쓰러지니까 대가리가 꾸부러진 디서 몸땡이로 지둘롸지난 그거 죽어불언 ᄒᆞ나 헷는데 도둑질 맞지 않고는 잃어버릴 수가 엇주.(어, 잃어버리는 거는 이따금 그 소가 뭐 하다가 소가 싸워가지고 팍 쓰러지나 뭐 할 때 일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가끔 죽는 수도, 나도 그렇게 그 하나 죽어서 세 살 된 소가 죽어가지고 찾지 못해서 하다가 보니까 한쪽 삐뚤어진 데서 다른 소가 탁 받아버리니까 탁 쓰러지니까 대가리가 구부러진 데서 몸뚱이로 지질러지니까 그거 죽어버려서 하나 했는데 도둑질 맞지 않고는 잃어버릴 수가 없지.)

104010 @ 소 새끼 날 때 이런 때 봐봣수과?(소 새끼 날 때 이런 때 봐봤습니까?)

104010 #1 소가 새끼 날듯 허면은 보지 말앙 피헤 부러야.(소가 새끼 날듯 하면 보지 말아서 피해 버려야.)

104010 @ 아부지만?(아버지만?)

104010 #1 예.(예.)

104010 #1 아예. 삼촌도 엇이 그냥 혼자만 낳게?(아예. 삼촌도 없이 그냥 혼자만 낳게?)

104010 #1 예.(예.)

104010 @ 아아.(아아.)

104010 #1 사람이 보이나 뭐 허나 새끼날 때 탁 쓰러져 눕거든. 누웟다가 대가리가 나오라 가면은 파짝[95] 일어살 때는 딱 떨어지니까 그때 좀 드러불면은 그쟈 에미가 고통 받는다 이거라. 게니까 자기 혼자 게니까 쉐가 집이서 밧 가는 소도 새끼 날라고 허면은 같이 쉐가 ᄋᆞ러 개 잇당도 자기만 살짝 빠져 나가가지고 조용헌 데로 가 서 낳거든.(사람이 보이나 뭐하나 새끼 날 때 탁 쓰러져 눕거든. 누웠다가 대가리가 나와 가면 벌떡 일어설 때는 딱 떨어지니까 그때 잠들어 버리면 그저 어미가 고통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소가 집에서 밭 가는 소도 새끼 나려고 하면 같이 소가 여러 개 있다가도 자기만 살짝 빠져 나가가지고 조

95) '파짝'은 가볍고 빠르게 덤비거나 날아 붙는 모양을 말한다.

용한 데로 가서 낳거든.)

104010 @ 아아.(아아.)

104010 #1 게니까 새끼 나는 거. 새끼 날 그 눈치가 나오면은 부모네라도 소 새끼 날라고 허니까 가지 말라.(그러니까 새끼 나는 거. 새끼 날 그 눈치가 나오면 부모네라도 소 새끼 낳으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

104010 @ 바로.(바로.)

104010 #1 예. 겐디 그 반종 와가지고 미국 소들이 들여와 가지고 허니까 그때는 종자 개량이 뒈다보니까 커 버리니까, 사람이 좀 도와줘야 뒈.(예. 그런데 그 반종 와가지고 미국 소들이 들여와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종자 개량이 되다보니까 커 버리니까,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104010 @ 음.(음.)

104010 #1 쪼끔 나왓을 때는 이 앞발을 대가리 이렇게 묻혀서 나오는데 심엉 땡겨 줘야지 안 허면은 에미가 죽어 버리는 수가 잇어.(조금 나왔을 때는 이 앞발을 대가리 이렇게 묻혀서 나오는데 잡아서 당겨 줘야지 안 하면 어미가 죽어 버리는 수가 있어.)

104010 @ 소예. 지금은 소 키우는 사람들 없잖아예? 목장이나 안 하면? 풀 걸로나 젖소나.(소요. 지금은 소 키우는 사람들 없잖아요? 목장이나 안 하면? 팔 걸로나 젖소나.)

104010 #1 지금은 소 질루는 사람이 축산 헤가지고 딱 허게 헤서 뭐허는 사람이 혼두 사람에 불과허지. 뭐 이제는 뭐, 겨난 사람이 살아가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지금은 소 기르는 사람이 축산 해가지고 딱 하게 해서 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에 불과하지. 뭐 이제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주십시오.(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주십시오.)

104010 #3 소 기루멍 무슨 부디 촘, 그 느끼고 무슨거 헌 건 엇고, 그쟈 뭐 아, 소는 그쟈 혼번 허게 되면은 돈 똥 싸는 거로구나. 셍각헙주. 왜 그러냐 하면 소 새끼는 혹나 나근에 부룽이 나게 뒈면은 그때 돈으로 최고급을, 고가를 받앗으니까 뭐 요즘 모냥으로 게난 우리가 소 한 마리에 십만 원 갈 때로부터 이제 백만 원 이상, 혼 이백만 원꺙장, 갈 때꺙장 우리가 소를 길루왔으니까. 게난 그 쉐는 낳앗다 허게 뒈면은 그전에는 그 소 하나 나게 뒈면은 밧 한 판이 털어졋다고 영 얘기를 헤마씨.(소 기르면서 무슨 부디 참, 그 느끼고 무엇 한 건 없고, 그저 뭐 아, 소는 그저 한번 하게 되면 돈 똥 싸는 거로구나. 생각합지요. 왜 그러냐 하면 소 새끼는 하나 나서 부룩소 나게 되면 그때 돈으로 최고급을, 고가를 받았으니까 뭐 요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 한 마리에 십만 원 갈 때로부터 이제 백만 원 이상, 한 이백만 원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소를 길러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는 낳았다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 소 하나 낳게 되면 밭 한 판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4010 @ 밧 한 판.(밭 한 판.)

104010 #3 워낙 소 시세가 좋안 무신거 헨 그 부렝이새끼 하나 나게 뒈면은 밧 한 판이 떨어졋젠 헤근에.(워낙 소 시세가 좋아서 뭐 해서 그 부룩소새끼 하나 낳게 되면 밭 한 판이 떨어졌다고 해서.)

104010 @ 부렝이가 수컷이지예?(부룩소가 수컷이지요?)

104010 #3 예, 예.(예, 예.)

104010 @ 암컷보다 수컷이.(암컷보다 수컷이.)

104010 #3 아주 돈 차잇줄이 커.(아주 돈 차이가 커.)

104010 @ 밧 가는 것 때문이지예?(밭가는 것 때문이지요?)

104010 #3 예. 아니, 아니, 그것도 헷는디 옛날은 술통[96]이라십주. 왜 그러냐 허믄 부렝이 나게 뒈면은 이 모슬포 근방에서.(예. 아니, 아니, 그것도 했는데 옛날은 살집이었습죠. 왜 그러냐 하면 부룩소 낳게 되면 모슬포 근방에서.)

104010 @ 예.(예.)

104010 #3 모슬포 근방에서 완 그 부렝일 사다가.(모슬포 근방에서 와서 그 부룩소 사다가.)

104010 @ 응.(응.)

104010 #3 술통으로 키와 가지고 육지레 네쳇거든마씸.(살집으로 키워 가지고 육지에 나갔거든.)

104010 @ 아, 술통이라는 거는.(살집이라는 건.)

104010 #3 술통, 술통.(살집, 살집.)

104010 @ 술통이 뭐꽈?(살집이 뭡니까?)

104010 #3 이 술쪄가지고 이 요즘 그 그저 그 비육소라고 비육우, 비육우.(이 살쪄가지고 이 요즘 그 그저 그 비육소라고 비육우, 비육우.)

104010 @ 응.(응.)

104010 #3 소를 술찌게 만들어서.(소를 살찌게 만들어서.)

104010 @ 술찌게 만들어서 고기로 판다는 거지예?(살찌게 만들어서 고기로 판다는 거지요?)

104010 #3 여기서 게난 모슬포에서 몰앙 한림항끄지 몰면은 돈이 얼마라는 걸 그 쉐 임자가 줘.(여기서 그러니까 모슬포에서 몰아서 한림항까지 몰면 돈이 얼마라는 걸 그 소 임자가 줘.)

104010 @ 예.(예.)

104010 #3 게믄 소 몰리는 사람이 잇어.(그러면 소 모는 사람이 있어.)

104010 @ 예.(예.)

104010 #3 게믄 소 혼 ᄆᆞ리 얼마 허믄 어떤 사람은 두 마리도 몰앙 가고 쉐 한 마리 몰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마리 몰아가다가 털리는 사람도 있고.(그러면 소 한 마리 얼마 하면 어떤 사람은 두 마리도 몰아서 가고 소 한 마리 몰아가는 사람

96) '술통'은 구술자 강대흥님에 의하면 살이 찐 비육우를 뜻한다.

도 있고, 여러 마리 몰아가다가 털리는 사람도 있고.)

104010 @ 털린다는 건 뭐꽈?(털린다는 건 뭡니까?)

104010 #3 털린다는 거는 그 소를 소 도망쳐 부는 거.(털린다는 건 그 소를 소 도망쳐 버리는 거.)

104010 @ 아아.(아아.)

104010 #3 경헤근에 막 우리 혼 번 그 소 도망쳔에 그 소몰이허는 사람 그 막 우는 것도 봣어요.(그렇게 해서 아주 우리 한 번 소 도망쳐서 그 소몰이하는 사람 그 막 우는 것도 봤어요.)

104010 @ 겐 못 찾앙?(그래서 못 찾아서?)

104010 #3 그거 아니, 춪기는 춪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가다가도 거 무신거 허게 뒈면은 자기가 먹는 디 먹어난 디 그딜 춪아가기 때문에.(그거 아니, 찾기는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가다가도 무엇 하게 되면 자기가 먹는 데 먹었던 데 거길 찾아가기 때문에.)

104010 @ 아아.(아아.)

104010 #3 춪게끔 뒈어마씨.(찾게끔 돼요.)

104010 @ 도둑놈이 이선 그런 건 없엇고예?(도둑놈이 있어서 그런 건 없었고요?)

104010 #3 그런 말이 잇어예. 그 모슬포에서 그 소를 멕영 질루면서 소한테는 개를 잡앙은에 딸령 그 소 솔치와근에 풀앙 돈 멩글라고.(그런 말이 있어요. 그 모슬포에서 그 소를 먹여서 기르면서 소한테는 개를 잡아서 딸려서 소 살찌워서 팔아서 돈 만들려고.)

104010 @ 개를마씨?(개를요?)

104010 #3 개 ᄀᆞ튼 거, 베염 ᄀᆞ튼 거 뭐 ᄃᆞᆯ영 이 짐승 잡아근에 소를 멕여마씨.(개 같은 거, 뱀 같은 거 뭐 달여서 이 짐승 잡아서 소를 먹여요.)

104010 @ 물, 딸린 물을 준다는 거지예?(물 달인 물을 준다는 거지요?)

104010 #3 어, 딸린 물도 주고, 그 저 목초에 서껑은에.(어, 달인 물도 주고, 그 저 목초에 섞어서.)

104010 @ 아.(아.)

104010 #3 무슨걸로 게난 그거를 개를 솖안에 나완에 짐은 풍풍 나가고 아방은 방문 올안 영 헤영 톧아아장, 영 툭 받아 앚아둠서 무슨 얘길 헷냐믄 얘야 그 개궤기 혼 멧 점만 이레 ᄀᆞ정오라. 나 혼 점 먹켜. 아버지 먹으믄 돈 똥 싸지쿠과? 요치룩 헷데요. 게니까 아버지가 먹으믄 돈 똥 싸지쿠과? 헌 말은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으며는 경허난 그 춤, 모슬포에서는 이 부모가 쉐마니도 못헌 뭔가? 무싱건가 이런 말이 나와서예. 거 저 거 궤기 혼점 ᄃᆞ렌 허난 아버지가 먹으믄 돈 똥 싸지쿠과라니?(무엇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개를 삶아서 나오니까 김은 퐁퐁 나고 아버지는 방문 열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앉아서 이렇게 턱 받아 앉고서는 무슨 얘길 했냐면 얘야 그 개고기 한 몇 점만 여기 가져 오라. 나 한 점 먹겠다. 아버지 먹으면

돈 똥 싸지겠습니까? 요처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으면 돈 똥 싸지겠습니까? 한 말은 아버지가 이 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그 참, 모슬포에서는 부모가 소만큼도 못한 뭔가? 뭔가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 저 거 고기 한 점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먹으면 돈 똥 쌀 수 있습니까라니?)

104010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10 #3 이거는 당추 말도 안 뒈는 소리렌덜 허멍 모여 앉앙덜 이제도 그런 얘기헤여마씨. 모여들민 이제는 경 쉐 몰던 시절도 이젠 지나가 불엇주만은 소엔 헌 게 저거 춤, 잘 뒈면은 첨, 돈 털어지는 겁주. 그 옛날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ᄃᆞᄅᆞ겡이[97]로 생각헹은 춤 아무것도 아닙주. ᄃᆞᄅᆞ겡이 ᄒᆞ나 사민.(이거는 당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들 하면서 모여 앉아서들 이제도 그런 얘기해요. 모여들면 이제는 그렇게 소, 몰던 시절도 이젠 지나가 버렸지만 소라고 한 게 저거 참, 잘 되면 첨, 돈 떨어지는 겁지요. 그 옛날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밭뙈기로 생각해서는 참, 아무것도 아닙지요. 밭뙈기 하나 사면.)

104010 @ ᄃᆞᄅᆞ겡이가 뭣꽈?('ᄃᆞᄅᆞ겡이'가 뭡니까?)

104010 #3 이 저 밧ᄀᆞ라 ᄃᆞᆯ겡이. 동촌 말허곡 제주도 사투리도 동촌 말허고 서촌 말허고 저 서귀포, 저 남군.(이 저 밭보고 밭뙈기 동촌 말하고 제주도 사투리도 동촌 말하고 서촌 말하고 저 서귀포, 저 남군.)

104010 @ 달라마씨.(달라요.)

104010 #3 다 다 다 틀려.(다 다 다 달라.)

104010 @ ᄃᆞᄅᆞ겡이?(밭뙈기?)

104010 #3 예. ᄃᆞᄅᆞ겡이.(예. 밭뙈기.)

104010 @ ᄃᆞᄅᆞ겡이가 밧이란 뜻이다예?('ᄃᆞᄅᆞ겡이'가 밭이란 뜻이네요?)

104010 #3 예. 밧.(예. 밭.)

104010 @ 밧. 아까 그거 닮다. 나 아까 물어보켄 헌 게. ᄃᆞᆯ겡이. 예. 아이고, 춤. 뭐 송에기 이렇게 낳고, 이런 거 받고.(밭. 아까 그거 같다. 내가 아까 물어보겠다고 한 게. 밭뙈기. 예. 아이고, 참. 뭐 송아지 이렇게 낳고, 이런 거 받고.)

104010 #3 음.(음.)

104010 @ 또 뭐 에기, 송에기 나민 뭐 삶아주고, 뭐 그런 것들 봐나겟다예?(또 뭐 아기, 송아지 나면 뭐 삶아주고, 뭐 그런 것들 봤었겠네요?)

104010 #3 송아지 난 뭐 별로 삶아주는 거 엇엇고마씨.(송아지 난 뭐 별로 삶아주는 거 없었고요.)

104010 @ 예.(예.)

104010 #3 삶아주는 건 엇고.(삶아주는 건 없고.)

104010 @ 먹이, 먹이, 마소의 먹이?(먹이, 먹이, 마소의 먹이?)

104010 #3 우리가 게난 이 밧이나 갈고 무신거 허젠 허민 요거 맛 존 풀 비어다줘야 헐로구나 헤근에 춤 이 보리가루나 이 그 전이는 보리를 그 무수끼, 이 방

97) 'ᄃᆞ로겡이'는 아주 자그마한 밭이란 뜻이다.

엣간에 강 그거 벳경 다까오면은 그 체 헤영은에.(우리가 그러니까 이 밭이나 갈고 무엇 하려고 하면 요거 맛 좋은 풀 베어다 줘야 할로구나 해서 참 이 보릿가루나 이 그전에는 보리를 그 '무수끼', 방앗간에 가서 그거 벗겨서 닦아오면 그 겨 해서.)

104010 @ 체.(겨.)

104010 #3 솖앙 그 저 촐에 서껑.(삶아서 그 저 꼴에 섞어서.)

104010 @ 촐.(꼴.)

104010 #3 예. 거 멕영은에 그걸 소 먹이 그추룩 헤영 멕영은에 배 ᄒᆞ쏠 봉오릇허게 올라오면은 강은에 밧을 갈아십주.(예. 거 먹여서 그걸 소 먹이 그처럼 해서 먹여서 배 조금 봉긋하게 올라오면 가서 밭을 갈았습죠.)

104010 @ 아아.(아아.)

104010 #3 예. 이 육지에서는 워낙 추워노니까 겨울 들면은 소 읏물을 헤근에 그 솖앙근에 짐 풍풍 나는 걸 쉐 ᄀᆞ져당 주는데 제주도는 짐 풍풍 나는 거 이빨 상헌다고이 그런 걸 안 줘마씨.(예. 이 육지에서는 워낙 추워 놓으니까 겨울 들면 소 여물을 해서 그 삶아서 김 풍풍 나는 걸 소 가져다가 주는데 제주도는 김 풍풍 나는 거 이빨 상한다고 그런 걸 안 줘요.)

104010 @ 아아.(아아.)

104010 #3 식형. 워낙 추워노니까 촌, 짐 풍풍 나지 안허게 뒈면은 그 물기 잇는 거라부니까 얼어 부니까, 얼어 부니까 소덜이 먹질 못헤 노니까 그추룩 허는 거 같아마씨.(식혀서 워낙 추워놓으니까 촌, 김 풍풍 나지 안하게 되면 그 물기 있는 거여 버리니까 얼어 버리니까, 얼어 버리니까 소들이 먹질 못해 놓으니까 그처럼 하는 거 같아요.)

104010 #5 우린 쉐 질루당 그 새끼 나멍 막 죽고, 거 질 빗나게 사온 쉔디 체음엔 저것이 어디로 나오란 민보 아방네 집으로 사온 쉔디 경 헨.(우린 소 기르다가 그 새끼 나면서 막 죽고, 거 젤 비싸게 사온 손데 처음엔 저것이 어디로 나와서 민보 아버지네 집으로 사온 손데 그렇게 했어.)

104010 #6 어떵 헹 죽언?(어떻게 해서 죽었어?)

104010 #5 죽진 안 헹 살앗수다만은, 막 아판에 어떵산디 풀을 이제 그 저실이난, 어디 강 ᄑᆞ리롱헌 거 봉가다 줘도 영 먹질 안헙디다게.(죽진 않아서 살았습니다만, 아주 아파서 어떻게인지 풀을 이제 그 겨울이니까, 어디 가서 파르스름한 거 주워다 줘도 전혀 먹질 안합디다.)

104010 #4 아프난게. 아프난.(아프니까. 아프니까.)

104010 #6 야가기 건 거 아니?(모가지 걸린 거 아니?)

104010 #5 아니, 아니. 이제 게난 저 완준이신디 풀앙 놔두난 완준인 어디 저 어디 서리눈[98] 풀안에 우리집 뚤 말이 서리눈 십디덴, 우리 쉐끼젠 ᄒᆞ난 쉐가 막 ᄌᆞ들인 셍이라. 경 헹 헤신디 그 서리눈 가네 그냥 저 질롸서렌.(아니,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저 완준이한테 팔아서 놔두니까 완준인 어디 저 어디 '서리눈' 팔아서 우

98) '서리눈'은 한경면 지역의 자연 마을 이름이다.

리 집 딸 말이 ‘서리눈’ 있었다고, 우리 쫓기려고 하니까 소가 아주 걱정시킨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서리눈’ 가서 그냥 저 기르고 있더라고.)

104010 #6 저 아픈 거 ᄀᆞ쩐.(저 아픈 거 고쳐서.)

104010 #5 예. 병 ᄀᆞ쳔, 게난 우리 ᄌᆞ들리젠 ᄒᆞ난 쉐 집이, 쥐끼젠ᄒᆞ난[99] 경 헤난 거 닮아. 인도산 숫쉐가 영 꼴 안 먹어노난, 우릴 게난 경헨 픈 후제 일절 안헷수다. 생각이 엇언 그.(예. 병 고쳐서, 그러니까 우리 걱정시키려고 하니까 소 집에, 쫓기려고 하니깐 그렇게 했던 거 같아. 인도산 수소가 이렇게 꼴 안 먹어놓으니까, 우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 후에 일절 안했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

104010 #6 어느 사람은 쉐 질룹단 저 원체 안 먹으난 손 드밀안에 영 보난 저 나일롱 ᄑᆞ따리 야가기에 간 걸려젼.(어느 사람은 소 기루다가 저 원체 안 먹으니까 손 디밀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나일론 보따리 모가지에 가서 걸어졌어.)

104010 @ 아이고.(아이고.)

104010 #5 이디서 온 짐에 쉐 저 쉐 멕이레 갓단 죽어나수게. 경 헹 보난 호박씨 그 비니루에 쌍 데껴부난 그거 봉강 영, 영 헹 씹엉 ᄂᆞ리우난 요딘 간, 거난 허파에 간.(여기서 온 김에 소, 저 소 먹이러 갔다가 죽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호박씨 그 비닐에 싸서 던져버리니까 그거 주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씹어서 내리우니까 여긴 간, 그러니까 허파에 가서.)

104010 #4 비니루난게. 비니루.(비닐이니까. 비닐.)

104010 #6 경허난 손 디밀앙 빠졋이믄 사는 건디?(그렇게 하니까 손 디밀었다가 빼졌으면 사는 건데?)

104010 #5 경 헌 줄 알앗수과? 이젠? 우리가 쉐 멕이레 갈 날인디, 거 쉘 간 번쉘[100] 보레 가젠 쉐 간 이제 ᄆᆞᆫ딱 몰앙 나오난 쉐 내웁서 내웁서! 헨 나오난 부춘네 쉐가 올레에 오난 탕허게 들어누원게. 부춘네 올레에 오난, 아이고 이건 무사 이거 영 헴신고? 영 몰안 다시 검부낭칙(?)까지 몰아가난 다시 가난 그디 가난 탕허게 다시 들어누원. 아이고 이젠 안 뒈켄 집이 저 집이 간 아이고 이만저만 헹 쉐 올레에 오난 누워성게. 다시 몰앙 가난 ‘건부낭칙’ 안에 드러누원 저 쉐 어떵허믄 좁네까? 살지 안으쿠다 ᄒᆞ멍 허난 경헨 그 쉐 죽엇수게. 아시날 쉐 멕이는 사람이거 멕인 거고, 뒷날은 쉐 멕이레 가난 그추룩.(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까? 이젠? 우리가 소 먹이러 갈 날인데, 거 소를 가서 ‘번쉐’를 보러 가려고 소 가서 이제 몽땅 몰아서 나오니까 소 내세요 내세요! 해서 나오니까 부춘네 소가 오래에 오니까 탕하게 들어누워서. 부춘네 오래에 오니까, 아이고 이건 왜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몰아서 다시 ‘검부낭칙’까지 몰아서 가니깐 다시 가니깐 거기 가니깐 탕하게 다시 들어누웠어. 아이고 이젠 안 되겠다고 집에 저 집에 가서 아이고 이만저만 해서 소 오래에 오니까 누워있으니까. 다시 몰아서 가니까 ‘건부낭칙’ 안에 드러누워서 저 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

99) ‘쥐끼다’는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다는 뜻이다.

100) ‘번쉘’은의 ‘번쉐’는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를 말한다.

죽었습니다. 전날 소 먹이는 사람이 거 먹인 거고, 뒷날은 소 먹이러 가니까 그처럼.)

104010 #6 경 ᄒᆞ난 나이롱 ᄀᆞᆮ은 거, 저 ᄑᆞ따리 ᄀᆞᆮ은 거 먹이믄 경 야개 걸엉 죽어.(그렇게 하니까 나일론 같은 거, 저 보따리 같은 거 먹이면 그렇게 목 걸려서 죽어.)

104010 #4 하도 배고판게.(하도 배고파서.)

104010 #6 게난 우리 오라방은 그런 걸 경 잘 빠넵데다게. 경 쉐 아픈 거 잘 알고 ᄆᆞᆯ락(?) 경 버릇 잘 ᄀᆞ르치고.(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그런 걸 그렇게 잘 뺍디다. 그렇게 소 아픈 거 잘 알고 ** 그렇게 버릇 잘 가르치고.)

104010 #5 아시날 벌써 봔 오랑 드무난 강 허난, 그 야개 거난 오족 못 젼디실 거꽈?(전날 벌써 봐서 와서 드무니까 가서 하니까, 그 목 거니까 오죽 못 견뎠을 겁니까?)

104010 #6 요즘은 그런 사람 엇어부난 경(요즘은 그런 사람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104010 #5 경허난 경 헐 줄도 모르고 분수 몰랑 아이고 어떵 허믄 좋으리. 어떵 허믄 좋으리. 가단 텅 드러눕고 가단 텅허게 드러눕고 헤가난 아이고, 아매도 이 소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뒐 거 같아요. 하니까 그래서 그때 잡아먹었어.(그렇게 하니까 그런 할 줄도 모르고 분수 몰라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리. 어떻게 하면 좋으리. 가다가 턱 드러눕고 가다가 턱하게 드러눕고 해가니까 아이고, 아마도 이 소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될 거 같아요. 하니까 그래서 그때 잡아먹었어.)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와봣수과?(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워봤습니까?)

104011 #1 아니, 나도 말, ᄒᆞᆫ 열댓 술에 집에 ᄆᆞᆯ ᄒᆞ나 사단에 서너 마리 사당 우리 아버지가 뭐 허는데 ᄉᆞ삼사건 때 당허니깐 공비덜 잡아먹어 버리난 없어지고, 말도 이 질루는 이 사람 보면은 그 우마를 타고난 사람이라야 뒈.(아니, 나도 말, 한 열댓 살에 집에 말 하나 사다가 서너 마리 사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데 사삼사건 때 당하니깐 공비들 잡아먹어 버리니까 없어지고, 말도 이 기르는 이 사람 보면 그 우마를 타고난 사람이라야 돼.)

104011 @ 음.(음.)

104011 #1 게니까 이 사람 손을 보고 ᄆᆞ쉬 테왓젠 허는 거. 혈관이 요렇게 돌아간 사람이 잇어.(그러니까 이 사람 손을 보고 마소 타고났다고 하는 거. 혈관이 요렇게 돌아간 사람이 있어.)

104011 @ 아아.(아아.)

104011 #1 손을 영 허민 이 여기에 ᄆᆞᆯ 발톱 그려졋다고 헤서.(손을 이렇게 하면 이 여기에 말 발톱 그려졌다고 해서.)

104011 @ 아아.(아아.)

104011 #1 요렇게 혈관이 돌아간 사람보고는 이 축산이라고 허는 게 타고나야 잘뒈는 모냥이라. 축산을 태우지 않은 사람은 자꾸 실패가 잇어.(요렇게 혈관이 돌아간 사람보고는 이 축산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야 잘되는 모양이야. 축산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실패가 있어.)

104011 #5 물은 그쟈 그냥 내몰앙 내불민 고지 강 내불민 컹 그쟈 이녁 궂일 때나 몰아오고 고지 드리쳥 목장에 드리쳥 멕이고.(말은 그저 그냥 내몰아서 내버리면 숲에 가서 내버리면 커서 그저 이녁 궂을 때나 몰아오고 고지 들이밀어서 목장에 집어넣어서 먹이고.)

104011 #6 산에 눈이 오랑 눈이 한라산ᄀᆞ치 묻엄직허민 몰아오지 안 헤도 집이 다 들어옵네다.(산에 눈이 와서 눈이 한라산같이 묻을 듯하면 몰아오지 안 해도 집에 다 들어옵니다.)

104011 #4 물 질름이 질 좋앗주.(말 기르기가 젤 좋았지.)

104011 #5 질 펜안헷수다게.(젤 편안했습니다.)

104011 #6 우리 저 옛날에 물 질롸보민 경 눈 하영 오람직허민 와당와당 밤이 허는 소리, 나 무신 소린고? 허민 물덜 집이 다 완게. 경 허민 뒷녁날은 보민.(우리 저 옛날에 말 길러보면 그렇게 눈 많이 올 듯하면 와당와당 밤에 하는 소리, 나 무슨 소린가? 하면 말들 집에 다 왔어. 그렇게 하면 뒷날은 보면.)

104011 #5 우린 물은 안 질롸 봔.(우린 말은 안 길러 봤어.)

104011 #6 우린 웨할마니네 경 질뢍게, 막 경 쉐도 질루고 물도 질루고.(우린 외할머니네 그렇게 길러서, 막 그렇게 소도 기르고 말도 기르고.)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2 #1 종자야 제주도에야 주로 저 조랑말인디 중간에서 이제 왜정 때 직후로야 그 호마가 생겨가지고 종자 개량이 많이 좀 뒈고 뭘 헷지. 그 전에사 주로 조랑말인디 조랑말 중에서도 한참은 그 저 숫물 웅매라고 허는데 웅매, 육지 수출을 한참 헷주게. 한참 헐 때 아주 가다가 좋은 놈으로 헤서 뭘 허는디 물 보는 거는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물을 잘 본다고 헤여.(종류야 제주도에야 주로 저 조랑말인데 중간에서 이제 왜정 때 직후에야 그 호마가 생겨가지고 종자 개량이 많이 좀 되고 뭘 했지. 그 전에야 주로 조랑말인데 조랑말 중에서도 한창은 그 수말 웅마라고 하는데 웅마 육지 수출을 한창 했지. 한창 할 때 아주 모양이 좋은 놈으로 해서 뭘 하는데 말 보는 거는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말을 잘 본다고 해.)

104012 @ 예?(예?)

104012 #1 개를 잘 보는 사람 물을 잘 본다고.(개를 잘 보는 사람 말을 잘 본다고.)

104012 @ 어.(어.)

104012 #1 어디 모든 디 나가서도 요지금 경마를 허나 뭐 허나 허는 데로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딱 어릴 때도 봐서 이놈은 사농허겟다, 이놈은 똥개지 아무 죄도 못 써. 궤기용베끠 잡아 먹을 용베끠 안 뒈다 허는 게 개 잘 보는 사람 물을 잘 본다고 헤여. 게난 어린 때 물을 놔서 영 허는 거 보면은 이 물은 커서 경마용으로 가겟다. 어데 타는물용으로 가겟다 허는 걸을 아는 사람은 그걸 잘 본다 이 말이여.(어디 모든 데 나가서도 요즘 경마를 하나 뭐 하나 하는 대로 개를 잘 보는 사람은 딱 어릴 때도 봐서 이놈은 사냥하겠다, 이놈은 똥개지 아무 데도 못 써. 고기용밖에 잡아먹을 용밖에 안 된다 하는 게 개 잘 보는 사람 말을 잘 본다고 해. 그러니까 어릴 때 말을 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말은 커서 경마용으로 가겠다. 어디 타는말용으로 가겠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잘 본다 이 말이야.)

104012 @ 물 털 색깔 따라서 이름 알아지쿠과?(말 털 색깔 따라서 이름 알겠습니까?)

104012 #1 물, 일 청충, 이 가래, 삼 적대.(말, 일 청총, 이 가라, 삼 절따.)

104012 @ 일청충, 이가래, 삼?(일 청총, 이 가라, 삼?)

104012 #1 삼, 일청충, 이가래, 삼적대, 뻘경헌 물.(삼, 일 청총, 이 가라, 삼 절따, 빨간 말.)

104012 @ 아, 적대. 뻘경헌. 무사 일, 이, 삼으로 나눴수과? 제일 좋은 게 일청충?(아, 절따. 빨간. 왜 일, 이, 삼으로 나눴습니까? 제일 좋은 게 일 청총?)

104012 #1 예. 청충의 물은 어떤 물인고 허니까 어, 흰 털이 절반, 이 뭐야.(예. 청총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어, 흰 털이 절반, 이 뭐야.)

104012 @ 아아, 백말?(아아, 백말?)

104012 #1 붉은 털이 쪼끔 서꺼지고 헤서 좀 희뚜룩헌 거, 싀뭇 흰 물은 아니고 게서 옛 어른덜이 곧는 게 일 청충, 이 가래, 이 가렌 검은 물, 삼 적대. 적은 붉을 적제니까 벌경헌 물이주기. 겐디 헤양헌 물은 뭣에 들어가는지 몰라, 건. 옛 어른덜이 곧는 게. 게서 우리덜 곧는 말은 일 청충, 이 가래, 삼 적대.(붉은 털이 조끔 섞어지고 해서 좀 희뜩한 거, 사뭇 흰 말은 아니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게 일 청총, 이 가라. 이 가라는 검은말, 삼 절따. 적은 붉을 적자니까 뻘건 말이지. 그런데 하얀 말은 뭐에 들어가는지 몰라, 건.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들 말하는 말은 일 청총, 이 가라, 삼 절따.)

104013 @ 털 색깔 모양.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밧 불리기 할 때 하고 운반, 밭 밟기, 물방애?(털 색깔 모양.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밭 밟기 할 때 하고 운반, 밭 밟기, 연자방아?)

104013 #1 예?(예?)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13 #1 아,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이용허는 것은 뭐냐 허면은 결혼 때에.(아,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이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혼 때에.)

104013 @ 아아. 신랑, 새시방.(아아. 신랑, 새신랑.)

104013 #1 결혼 때에 신랑은 말을 타고 종 돌아서 말 이끌고 가고, 신부는 가기

메라고 헤여. 가기메.(결혼 때에 신랑은 말을 타고 종 데려서 말 이끌고 가고, 신부는 가교마라고 해. 가교마.)

104013@ 아아.(아아.)

104013 #1 가기메를 헤서.(가교마를 해서.)

104013 @ 아아, 가마가 아니고 가기메렌 헷수과? 가마를 가기메렌예?(아아, 가마가 아니고 가교마라고 했습니까? 가마를 가교마라고요?)

104013 #1 예. 가기메. 가매가 있고 가기메가 잇주.(예. 가교마, 가매가 있고 가교마가 있지.)

104013 @ 아아.(아아.)

104013 #1 가매는 소서가 그 아주 산뜻허게 만들아진 그것이 이제 가마고, 가마헤서 이제 옆으로 이제 크찡헌 나무 영 두 개 찔르면은 앞에 이 저 요새 ᄀᆞ트민 광목, 몸통 헤가지고 졸라메서 영 둑지에 영 두러매서 이제 신부를 메영 가고 가기메엔 헌 것은 이제 ᄆᆞᆯ을 앞엣 ᄆᆞᆯ은 실헌 ᄆᆞᆯ을 쓰고, 뒤엣 ᄆᆞᆯ은 아주 약헌 ᄆᆞᆯ을 헤가지고 먼 거리에는 신부를 저 운반허는 거라. 요새 차 탕 가는 식으로. 경 허면은 뒤에는 왜 약헌 ᄆᆞᆯ을 ᄒᆞ느냐면은 앞엣 ᄆᆞᆯ이 힘을 써서 거 짐 실른 거 뒤에 잇으니까 ᄒᆞᆫ어시 힘을 못 쓰고, 뒤엣 ᄆᆞᆯ은 끗엉 가야지. 뒈엣 ᄆᆞᆯ이 실허면은 뒤사 엎으기 시작 허면 뒤엣ᄆᆞᆯ이 들려퀴영 감당을 못헌다고 경헤서 뒤엣ᄆᆞᆯ은 아주 약헌 ᄆᆞᆯ을 허고 앞엣 ᄆᆞᆯ은 좀 센 ᄆᆞᆯ을 헤가지고 그 딱허게 헹 사람이 이제 딱 잡아가지고 신부를 먼 거리는 그 ᄆᆞᆯ로 이용을 헤여.(가마는 소서가 그 아주 산뜻하게 만들아진 그것이 이제 가마고, 가마해서 옆으로 이제 가지런한 나무 이렇게 두 개 찌르면은 앞에 이 저 요새 같으면 광목, 몸통 해가지고 잘라매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서 이제 신부를 매어서 가고 가교마라고 한 것은 이제 말을 앞의 말은 실한 말을 쓰고, 뒤의 말은 아주 약한 말을 해가지고 먼 거리에는 신부를 저 운반하는 거야. 요새 차 타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뒤에는 왜 약한 말을 하느냐면 앞의 말이 힘을 써서 거 짐 실은 거 뒤에 있으니까 한없이 힘을 못 쓰고, 뒤의 말은 끌어서 가야지. 뒤의 말이 실하면은 뒤야 엎기 시작하면 뒤의 말이 날뛰어서 감당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뒤의 말은 아주 약한 말을 하고 앞의 말은 좀 센 말을 해가지고 딱하게 한 사람이 이제 딱 잡아가지고 신부를 먼 거리는 그 말로 이용을 해.)

104013 @ ᄆᆞᆯ예. ᄆᆞᆯ도 잘 알암수다예? 밧 ᄇᆞᆯ리기 허고, 집에서도 키와마씨?(말요. 말도 잘 알고 있네요? 밭 밟기 하고, 집에서도 키워요?)

104013 #1 아이 ᄆᆞᆯ은 보통으로 키우지 안 허고 ᄒᆞᆫ 부락이면은 ᄒᆞᆫ 뭐 ᄒᆞᆫ 서너늬 사람.(아니 말은 보통으로 키우지 안 하고 한 부락이면 한 뭐 한 서너네 사람.)

104013 @ 예.(예.)

104013 #1 ᄆᆞᆯ만 뭘 허주. 경 안 헌 사람은 그쟈 하나이나 둘이나 헤가지고 그쟈 심심소일로 탕도 뎅이고 그쟈 뭐 헹 허주. 보통 ᄆᆞᆯ은 질루지 안허여게. 보통은 어느 ᄆᆞ을 갓던지 보통 질루지 안허고 그냥 불과 ᄒᆞᆫ 멧 사람.(말만 뭘 하지. 그렇게 안한 사람은 그저 하나나 둘이나 해가지고 그저 심심소일로 타서도 다니고 그저 뭐 해서

하지. 보통 말은 기르지 않아. 보통은 어느 마을 갔든지 보통 기르지 않고 그냥 불과 한 몇 사람.)

104013 #5 ᄆᆞᆯ은 밧 ᄇᆞᆯ릴 때나베끠 원 그건.(말은 밭 밟을 때밖에 원 그건.)

104013 #6 밧 ᄇᆞᆯ릴 때도 허고 방에 그건 방에 질 때도 거 헙네다.(밭 밟을 때도 하고 방아 그건 방아 찧을 때도 거 합니다.)

104013 #4 건 ᄀᆞ르쳐사.(건 가르쳐야.)

104013 #5 어진 ᄆᆞᆯ은 허고, 독헌 ᄆᆞᆯ은 방애도 못 지고게.(어진 말은 하고, 독한 말은 방아도 못 찧고.)

104013 @ 운반은? 마차, 구루마로는?(운반은? 마차, 수레로는?)

104013 #5 구루마는 보통은 쉐가 하주. ᄆᆞᆯ은 하지 안허여.(수레는 보통은 소가 하지. 말은 하지 않아.)

104014 @ ᄆᆞᆯ의 나이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ᄆᆞᆯ 나이? 소보다 오래 삽니까?(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 나이? 소보다 오래 삽니까?)

104014 #1 소보단 오래 살주게.(소보단 오래 살지.)

104014 @ 어어.(어어.)

104014 #1 오래 살주만은 말을 경 오레 키우질 안 허주게.(오래 살지만 말을 그렇게 오래 키우질 안 하지.)

104014 @ 예.(예.)

104014 #1 허곡 말이 그냥 그 쓸모없는 ᄆᆞᆯ은 고기용이니까 너무 늙으면은 고기가 질겨서. 허허허허.(하고 말이 그냥 그 쓸모없는 말은 고기용이니까 너무 늙으면 고기가 질겨서 허허허허.)

104014 @ 허허허허.(허허허허.)

104014 #1 늙은 ᄆᆞᆯ 잡는 걸 좋아허지 안허주게.(늙은 말 잡는 걸 좋아하지 안하지.)

104015 @ 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5 #1 말을 뭐 나도 ᄒᆞᆫ 열댓 술에 뭐 ᄒᆞᆫ 이삼년 ᄒᆞ여 뎅기난 그 놈의 ᄆᆞᆯ이 참 ᄒᆞᆫ편으론 착허기는 헤여. 겐디 족금 타는 말이라.(말을 뭐 나도 한 열댓 살에 뭐 한 이삼년 해 다니니까 그 놈의 말이 참 한편으론 착하기는 해. 그런데 간지러움 타는 말이야.)

104015 @ 아아.(아아.)

104015 #1 사람 ᄀᆞ트민 ᄌᆞᄀᆞᆯ름 탄다는 말로.(사람 같으면 간지러움 탄다는 말로.)

104015 @ ᄌᆞᄀᆞᆯ름.(간지러움.)

104015 #1 팡을 이렇게 놔가지고 나가 올라상 ᄆᆞᆯ을 ᄃᆞᆼ기면 이놈의 말이 팡 ᄌᆞ끗딜로 쏙 들어가. 쏙 들어사면은 ᄆᆞᆯ을 안장도 안 찌고 맨 등에 탄단 말이여. 톡 타민 ᄌᆞ글르니까 와들랑와들랑 들럭퀴어. 들럭퀴민 아래 털어진단 말이여. 털어지민

이 몰이 가지도 안허고, 가지도 안 허고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봐.(대를 이렇게 놔가지고 내가 올라서서 말을 당기면 이놈의 말이 대 곁으로 쏙 들어가. 쏙 들어서면 말을 안장도 안 지우고 맨 등에 탄단 말이야. 톡 타면 간지러우니까 파들락파들락 날뛰어. 날뛰면 아래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 이 말이 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주인인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봐.)

10401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15 #1 이렇게 보는디 가만이 생각허민 어이가 엇인 노릇이라. 일어사가지고 또 이제 그 팡 우이 올라사민 몰이 쑥 들어사. 쑥 들어사 타민 그 버금엔 안 들러퀴어. 그러믄 그거를 타 아졍 댕겨난 것이 기억이 남는디 헤헤헤헤.(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노릇이야. 일어서가지고 또 이제 그 대 위에 올라서면 말이 쑥 들어서. 쑥 들어서서 타면 그 버금엔 안 날뛰어. 그러면 그거를 타 가지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남는데 헤헤헤헤.)

104015 @ 어렷을 때예. 겐 아부진 다 풀아 불고.(어렸을 때요. 그래서 아버진 다 팔아 버리고.)

104015 #1 이 즌등이에 가면은 탁 들어가면 즈글우니까 와들랑 와들랑 들러퀴어. 털어져부러. 안장을 지와시민 안털어질 건디. 게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이 잔등이에 가면 탁 들어가면 간지러우니까 파들락파들락 날뛰어. 떨어져버려. 안장을 지웠으면 안 떨어질 텐데. 글쎄 그것이 기억에 남는데.)

104015 @ 색깔은 조랑물예?(색깔은 조랑말요?)

104015 #1 예. 조랑물, 노랑말이라낫는데 결국은 내불어두고 소개 해변드레 강 보니까 산폭도 허는 놈덜이 오꼿 잡아먹어불엇어.(예. 조랑말, 노랑말이었었는데 결국은 내버려두고 소개 해변으로 가서 보니까 산폭도 하는 놈들이 그만 잡아먹어버렸어)

104015 @ 스삼 때엿구나예. 에이구, 참.(사삼 때였군요. 아아고, 참.)

104015 #5 우린 쉔 질뢍 경 풀앙은에 춤 밧도 사곡 헷주만은 저 물은 우린.(우린 손 길러서 그렇게 팔아서 참 밭도 사고 했지만 저 말은 우린.)

104015 #4 물 하영 안 질루와.(말 많이 안 길러.)

104015 #5 물은 안 질루난 어떻게 해연.(말은 안 기르니까 어떻게 해서.)

104015 #4 매 사람이 안 질루주기게.(매 사람이 안 기르지.)

104015 #6 밧 불림은 물 질룸이 더 좁네다.(밭 밟기는 말 기름이 더 좋습니다.)

104015 #4 화순더렌 경헹은에 물 하영 헷젠 합니다. 이딘 물.(화순으론 그렇게 해서 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긴 말.)

104015 #6 웃드리레 몰앙 내불민 지네 냥으로 먹곡 살곡.('웃드르'로 몰아서 내버려서 자기 대로 먹고 살고.)

104015 @ 일러불엉 그런 건 없고예?(잃어버려서 그런 건 없고요?)

먹이

104016 @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예?(예?)

104016 @ 말하고 소에 먹는 먹이? 아까 이제까지 말헷잖아예? 먹이? 말하고 소가 먹는 먹이?(말하고 소의 먹는 먹이? 아까 이제까지 말했잖아요? 먹이? 말하고 소가 먹는 먹이?)

104016 #1 먹이는 다 똑같은디, 물은 밖에서만 어, 집안에 매질 안허고 밖에서만 메여서 그 풀을 주고, 소는 소막 안에 놔서 딧이게 살리곡 물이 아마도 추위에 강헌 모냥이라예.(먹이는 다 똑같은데, 말은 밖에서만 어, 집안에 매질 안하고 밖에서만 매어서 그 풀을 주고, 소는 외양간 안에 놔서 따뜻하게 살리고 말이 아마도 추위에 강한 모양이예요.)

104016 @ 말하고 소에 먹이는 똑같아예?(말하고 소의 먹이는 똑같아요?)

104016 #1 예.(예.)

104017 @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예?(예?)

104017 @ 꼴은 육지말이고, 촐이지예? 우리 제주도말론 촐.(꼴은 육지말이고, '촐'이지요? 우리 제주도말로는 '촐.')

104016 #1 우리 제주도말론 촐.(우리 제주도말로는 '촐'.)

104016 #6 쉐고 물이고 다 귀신ᄀᆞ치 알아. 사람ᄀᆞ치 알아.(소고 말이고 다 귀신같이 알아. 사람같이 알아.)

104017 @ 촐, 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꼴,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아니, 촐은 옛날에나 이제 농사짓지 못헌 밧은 전부 촐왓이거든. 농사가 잘 뒈서 흙이 지픈 밧은 농사지어서 갈아먹고 흙이 작은 밧은 전부 촐을 갈아가지고 허면은 그거를 그걸 비어가지고 음력 팔월 말이면은 구월 말고비지. 구월 말고비에는 그 촐을 비어가지고 날 좋암직허면은 비어서 호미로 비엇지. 전부다가 놉 빌어서도 비어 가지고 흔 메칠 말리면은 그거 이제 무꺼 가지고 모두왕 집이 시꺼다근에 딱 눌엇당 눌엇당, 겨울에 빠멍 멕이주. 빠멍 멕이는디 새꼴[101] 흔 두어 번 주면은 제일 양이 많으니까 조짚도 흔 번 주고, 산듸찍도 흔 번 주고.(아니, 꼴은 옛날에나 이제 농사짓지 못한 밭은 전부 꼴밭이거든. 농사가 잘 되서 흙이 깊은 밭은 농사지어서 갈아먹고 흙이 작은 밧은 전부 꼴을 갈아가지고 하면 그거를 그걸 베어 가지고 음력 팔월 말이면 구월 말쯤이지. 구월 말쯤에는 그 꼴을 베어가지고 날 좋을 듯하면 베어서 낫으로 베었지. 전부다가 놉 빌려서도 베어 가지고 한 며칠 말리면 그거 이제 묶어 가지고 모여서 집에 실어다가 딱 가리었다가 가리었다가, 겨울에 빼면서 먹이지. 빼면서 먹이는데 '새꼴' 한 두어 번 주면 제일 양이 많으니까 조짚도 한 번 주고, 밭볏짚도 한 번 주고.)

104017 #1 감자줄도 흔 번 주고.(고구마줄기도 한 번 주고.)

101) '새꼴'은 꼴의 한 종류다.

104017 @ 감자줄도.(고구마줄기도.)

104017 #1 콩 뎅구리도 주고 허면서 가울리면서 줘야 입맛이 돋는다고 헤가지고.(콩 줄거리도 주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줘야 입맛이 돋는다고 해가지고.)

104017 @ 예.(예.)

104017 #1 하나로만 계속 주질 안 허고.(하나로만 계속 주질 않고.)

104017 @ 응.(응.)

104017 #1 그것저것 나눠서 주는 거.(그것저것 나눠서 주는 거.)

104017 #5 촐은게. 비어근에 느나엇이 경 그쟈게.(꼴은. 베어서 너나없이 그렇게 그저.)

104017 #6 드릇밧디 촐왓, 촐왓, 촐왓을 만듭네다. 곡석 용ᄉᆞ 안 허영.(들밭에 꼴밭, 꼴밭, 꼴밭을 만듭니다. 곡식 농사 안 해서.)

104018 @ 촐 베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촐 베는 거, 촐 베기, 호미로 촐 베기?(꼴 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꼴 베는 거, 꼴 베기, 낫으로 꼴 베기?)

104018 #1 예. 놉을 빌어서 빌라고 허면은 장남이라고 헤서 남자를 처음 앞이 앚앙 에염으로 비어가.(예. 놉을 빌려서 베려고 하면 일꾼이라고 해서 남자를 처음 앞에 앉아서 가장자리로 베어가.)

104018 @ 예.(예.)

104018 #1 그 사람이 쫙 앞더레 나가거든. 나가면은 줄지어서 다음, 다음, 단계로 이렇게 헤 나가면은 쭉 나가지. 다른 검질메는 거 모냥으로 사람이 코찡허게 나가질 안허고.(그 사람이 쫙 앞으로 나가거든. 나가면 줄지어서 다음,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해 나가면 쭉 나가지. 다른 김매는 거 모양으로 사람이 나란하게 나가질 않고.)

104018 @ 아아.(아아.)

104018 #1 예. 단계적으로 ᄒᆞᆫ 사람이 이만이 가면은 ᄒᆞᆫ 사람이 이만이 가고 버금 사람은 이마니 가곡 헤서 게서 영 빙허게 영 돌아오지.(예. 단계적으로 한 사람이 이만큼 가면은 한 사람이 이만큼 가고 버금 사람은 이만큼 가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빙하게' 이렇게 돌아오지.)

104018 @ 아아.(아아.)

104018 #1 촐 베는 사람은 는중난중 이렇게 새 떨어졍 앉아야지 꼭ᄀᆞ치 가면은 이게 호미ᄂᆞᆯ을 놀릴 때가 이게 어울리면 안 뒈여. 안 뒈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거기서 잘 베는 사람이 앞에서 쭉 나가면 다음 사람 나가고 여기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어, 이제 장점이라고 허면은 여기가 키가 크니까 호미를 ᄆᆞ음대로 ᄉᆞ뭇 굽으로 안 비어도 삭삭 나갈 수가 잇고, 가운데는 ᄇᆞ트니까 오래니까 츤츤이 가는 사람으로 헤서 이 원도 이제 즉으니까 이 사람이 ᄒᆞᆫ 바쿠를 이렇게 돌민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고.(꼴 베는 사람은 들쭉날쭉 이렇게 사이 떨어져 앉아야지 똑같이 가면 이게 낫날을 놀릴 때가 이게 어울리면 안 돼. 안 되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빨리 가기 위해서 거기서 잘 베는 사람이 앞에서 쭉 나가면 다음 사람

나가고 여기 사람은 동작이 빠르고, 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키가 크니까 낫을 마음대로 사뭇 밑으로 안 베어도 삭삭 나갈 수가 있고, 가운데는 밭으니까 오래니까 천천히 가는 사람으로 해서 이 원도 이제 작으니까 이 사람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이 사람은 이렇게 돌아오고.)

104018 @ 꼴 베기에 데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꼴을 촐이렌 허지예?(꼴 베기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꼴을 '촐'이라고 하지요?)

104018 #3 촐 비는 거 그거 무싱거 그것도 이제 뭐가 잇어양. 게난 요즘은 호미 그거 낫.(꼴 베는 거 그거 무엇 그것도 이제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호미' 그거 낫.)

104018 @ 낫.(낫.)

104018 #3 호미 ᄀᆞ정강 허게 뒈면은 동네 사람덜 데령강은에 촐밧디 앚앙 촐을 비어예.('호미' 가져가서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 데려가서 꼴밭에 앉아서 꼴을 베어요.)

104018 @ 예.(예.)

104018 #3 촐을 비면은 그 집이 그 촐 비는 장남.(꼴을 베면 그 집의 그 꼴 베는 일꾼.)

104018 @ 예.(예.)

104018 #3 그 장남은 남자ᄀᆞ라 장남이렌 허는 겁주양.(그 일꾼은 남자보고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104018 @ 예.(예.)

104018 #3 호미 ᄀᆞ는 장남이 호미를 잘 ᄀᆞᆯ면은 그 촐 비레 간 사람들이 상당히 수월을 ᄀᆞᆯ게 뒈면은 이 사람이 아주 수월허게 뒈고, 옷 ᄀᆞ는 거는 그거 ᄀᆞᆯ아불면은 ᄒᆞᆫ ᄒᆞᆫ 시간, 두 시간도 안 가근에 오꼿허게 헤영 오는디 그 호미를 못 ᄀᆞ는 그 장남이나 간 디 쯤은 다시는 가켄을 안 헤서마씨. 왜 그러냐면은 어깨 아팡은에 촐을 못 비니까. 호미 ᄀᆞ는 것도 옷 ᄀᆞ는 게 잇어양. 그 저 ᄂᆞᆯ을 영 세왕 ᄀᆞ는 것ᄀᆞ라 옷 ᄀᆞ는 거옌 허는디 영 세왕 ᄀᆞ는 거허고 영 눕형 ᄀᆞ는 거 허고, 눕형 ᄀᆞ는 거는 ᄒᆞ룰에 ᄒᆞᆫ 두세 번만 호미 무껴불어. 경허면은 이 어깨 아팡은에 그놈의 짓 거 자꾸 ᄀᆞᆯ렌 허민 이 사람은 허리 아팡은에 ᄀᆞᆯ지도 못허켄 헹은에 어떵 무싱 거허고 허긴 허는디 이거 호미 ᄀᆞ는 것도 다 요령이고 농촌 살젠 허면은 첫째는 요령.(낫 가는 일꾼이 낫을 잘 갈면 그 꼴 베러 간 사람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갈게 되면 이 사람이 아주 수월하게 되고, 옷 가는 거는 그거 갈아버리면 한 한 시간, 두 시간도 안 가서 그만하게 해서 오는데 그 낫을 못 가는 구 일꾼이나 간 데 쯤은 다시는 가겠다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깨 아파서 꼴을 못 베니까. 낫 가는 것도 옷 가는 거 있어요. 그 저 날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것보고 옷 가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워서 가는 거하고 이렇게 눕혀서 가는 거 하고, 눕혀서 가는 거는 하루에 한 두세 번만 낫 무디어버려. 그렇게 하면 이 어깨 아파서 그놈의 짓 거 자꾸 말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허리 아파서 갈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해서 어떻게 무슨 거하고 하

긴 하는데 이거 낫 가는 것도 요령이고 농촌 살려고 하면 첫째는 요령.)

104018 @ 요령.(요령.)

104018 #3 요령 헤근에 어떵, 어떵 헤근에 이걸 무스걸 헤사지 그냥 무턱대고 허젠 허당은 아예 뭐 이건.(요령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뭘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하려고 하다가는 아예 뭐 이건.)

104018 @ 끗도 한도 엇어예.(끝도 한도 없어요.)

104018 #3 춤, 이건 한도 끝도 엇주. 자기 힘은 힘ᄁᆞ지 들고 자기 보람은 보람ᄀᆞ치 엇고, 게난 농촌 살림이렌 헌 건 아주 무싱거 허여마씀.(참, 이건 한도 끝도 없지. 자기 힘은 힘까지 들고 자기 보람은 보람같이 없고, 그러니까 농촌 살림이라고 한 건 아주 뭐 해요.)

104018 #6 호미로.(낫으로.)

104018 #4 호미로도 비곡 기계로도 비곡.(낫으로도 베고 기계로도 베고.)

104018 #6 기곈 이제사 낫주. 기계 그때 나수과게?(기곈 이제야 났지. 기계 그때 났습니까?)

104018 #5 뒈나마나 장갑도 안 찌고 그 맨손에 호미로 그 작산 촐을 다 비엉 ᄆᆞᆯ리왕, 마주 무끄멍 헤영.(되나마나 장갑도 안 끼고 그 맨손에 낫으로 그 많은 꼴을 다 베어서 말려서, 마주 묶으면서 해서.)

104018 #6 그 백 바리썩 이백 바리썩 촐덜 헨 눌엇수다. 쉐 하영 잇는 집인.(그 백 바리씩 이백 바리씩 꼴들 해서 가리었습니다. 소 많이 있는 집엔.)

104018 #5 ᄉᆞ믓 다시 그거 ᄋᆞ져당 굴묵 짓젠 허민 ᄀᆞ져오고, 불 솜젠 허민 쉐 앞이 거 언주와 오멍 경허멍.(사뭇 다시 그거 가져다가 '굴묵' 때려고 하면 가져오고, 불 때려고 하면 소 앞에 거 그러 오면서 그렇게 하면서.)

104018 #4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4018 #6 똥 줏이레도 하영 뎅기고.(똥 주우러도 많이 다니고.)

104018 #5 똥 줏이레 무사 안 뎅깁네까?(똥 주우러 왜 안 다닙니까?)

104018 #6 난 똥 줏이레 하영 뎅겻져.(난 똥 주우러 많이 다녔어.)

104018 #5 난 집이서 저 친정에선 흔엇이 똥 줏인 거 닮지 안은디양. 이디 오란에 저 청수.(난 집에서 저 친정에선 한없이 똥 주은 거 같지 않은데요. 여기 와서 저 청수.)

104018 #6 똥 줏이레도 하영 뎅기고, 저 머리엊인오름[102]에 낭 허레도 하영 뎅기고.(똥 주우러도 많이 다니고, 저 '머리어진오름'에 나무 하러도 많이 다니고.)

104018 #5 그ᄁᆞ장? 머리엊은오름에?(그까지? '머리엊은오름'에?)

104018 @ 어디? 머리얹인오름이 뭐꽈?(어디? '머리얹은오름'이 뭡니까?)

104018 #4 이딘 경 안허연 요 하오머리[103].(여긴 그렇게 안했어. 요 '하오머리'.)

104018 #5 저 아래 똑 머리 얹인 것추룩 산업도로 가멍 보민 봐져.(저 아래 똑

102) '머리엊인오름'은 오름 이름의 하나이다.
103) '하오머리'는 지경 이름의 하나이다.

머리 얹은 것처럼 산업도로 가면서 보면 보여.)

104018 @ 거 이름은 모르고마씨?(거 이름은 모르고요?)

104018 #6 ᄀᆞᆯ른오름[104]게. ᄀᆞᆯ른오름.('ᄀᆞᆯ른오름'게 'ᄀᆞᆯ른오름'.)

104018 @ 이름이 ᄀᆞᆯ른오름이라? 거기 갓다완마씨?(이름이 'ᄀᆞᆯ른오름'이야? 거기 다녀왔어요?)

104018 #6 옛날엔게. 고사리 꺾끄레도 가고, 솔똥 줏이레도 가고, 막 뎅겻수다.(옛날엔. 고사리 꺾으러도 가고, 솔방울도 주우러도 가고, 막 다녔습니다.)

104018 @ 솔입?(솔가리?)

104018 #5 솔입도 글그레 가고 안 헌 거 엇어.(솔가리도 긁으러 가고 안 한 거 없어.)

104018 @ 그기까지 간마씨?(거기까지 갔어요?)

104018 #6 예. 친정에 살 때, 저 대정, 저 짝에.(예. 친정에 살 때, 저 대정, 저 쪽에.)

104018 #4 이디선.(여기선.)

104018 @ 친정이 어디꽈?(친정이 어딥니까?)

104018 #6 저, 창천게.(저, 창천.)

104018 @ 창천이난 거기 간 거주게. 딴 사람들은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예?(창천이니깐 거기 간 거지. 딴 사람들은 거기 갈 이유가 없잖아요?)

104018 #5 어떵 헹 거기까지 강 지어옴은 험광 어떻게 그쟈 ᄌᆞ끗디서 솔입 무껑 져 들이고 헷주기.(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서 지어오기는 하는지 어떻게 그저 곁에서 솔가리 묶어서 져 들이고 했지.)

104018 @ 저지오름[105]?(저지오름?)

104018 #5 아니, 오름 안 강 저지오름ᄁᆞ지도 아니고 ᄇᆞ든 디 저 소낭밧디 강은에.(아니, 오름 안 가서 저지오름까지도 아니고 가까운 데 저 소나무밭에 가서.)

104018 #4 저 고지.(저 숲.)

104018 #5 고진 건 낭허레 가고, 솔입은 이 등퀘[106]에서 솔입 극고.(숲 건 나무하러 가고, 솔가리는 이 '등퀘'에서 솔가리 긁고.)

104018 #4 아이고, 우린 구신물[107]ᄁᆞ장 강 헤오랏져.(아이고, 우린 '구신물'까지 가서 해왔지.)

104018 #6 이 오름엔 저 솔입 못 끈으큽디다. 알 막 어지러완.(이 오름엔 저 솔잎 못 긁겠더라고요. 아래가 아주 어지러워서.)

104018 #5 동물오름은 너무 비스러지난 날 ᄀᆞ튼 건 원.('동물오름'은 너무 비스

104) 'ᄀᆞᆯ른오름'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북쪽, 동광 육거리 동쪽에 두 봉우리가 쌍둥이처럼 나란한 두 오름. '옆인 머리 오름'이라고도 한다.

105) '저지오름'은 제주시 한경면 '닥물' 저청초중학교 북쪽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약 850미터. 깊이 75미터의 깔때기형 분화구가 있고 표고 239미터이다. '당물오름, 새오름, 생이오름, 시오름, 저지악(楮旨岳)'이라고도 불린다.

106) '등퀘'는 지경 이름이다.

107) '구신물'은 지경 이름이다.

러지니까 날 같은 건 뭐.)

104018 #6 어지런, 어지런. 그 오름이 나 멧 번 올라가 봔.(어지러워서. 어지러워서. 그 오름에 나 몇 번 올라가 봤어.)

104018 #5 멧 시 뒈신고?(몇 시 됐는가?)

104018 #4 영장밧디 갓다근에 즈미로 그 다.(장지에 갔다가 재미로 그 다.)

104018 #5 멧 시 뒛수과?(몇 시 됐습니까?)

104018 @ 멧 시까지 갈 것꽈? 열혼 시 삼십일 분.(몇 시까지 갈 겁니까? 열한 시 삼십일 분.)

104018 #5 열두 시만 뒈민 나강은에 열두 시 넘어사 오랑 먹을티. 밥헹은에.(열두 시만 되면 나가서 열두 시 넘어야 와서 먹을 지. 밥해서.)

104019 @ 촐의 운반과 저장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꼴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1 예?(예?)

104019 @ 촐의 운반과 저장. 촐을 베면 걸 어떵 무껑 어떻게 집으로 왕 눌을?(꼴의 운반과 저장. 꼴을 베면 걸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집으로 와서 가리를?)

104019 #1 그거는 어떻게 허는고 허니까 잘 비는 사람은 넉 줌, 넉 줌 비어서 노으민 혼 뭇이고.(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잘 베는 사람은 넉 줌, 넉 줌 베어서 놓으면 한 뭇이고.)

104019 @ 아아.(아아.)

104019 #1 못 비는 사람은 으섯 줌 비어야 혼 줌이라. 으섯 줌 일곱 줌 비어놔야 혼 줌이라. 경허면은 이거를 다 무끄면은 한짝에 스무 뭇씩, 마흔 뭇을 이렇게 ᄀᆞ져다 놔. 가져다 노민 쉐를 이렇게 ᄀᆞ져당 딱 노면은 양쪽에 사가지고, 쉐가 ᄀᆞ만이 사. 다 ᄀᆞ르친 쉐니까. 이디 사면은 뭐 저 새쉐 ᄀᆞ튼 사람은 이거 ᄒᆞ나 사람이 심엉 상도 허고 이걸 시꺼. 쉣베라고 해서 질메에 베가 열두 발정도 헤가지고 딱 질메에 놓으면은 딱허게 클렁은에 딱허게 시끄주기. 겡 시껑은에 허면은 석을 우트레 탁 쉐석을 지치면은 몰면은 집이 구짝 와. 두 개고 싀 개고 이제 이거 집이 시꺼가는 거로구나 헤서 뒤에서 사람만 몰면은 집이 구짝 오면은 마당에 이제 오랑 펴 놓으면은 눌왓이라고 잇어. 눌 누는 눌왓디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다 눌엇당 겨울내낭 그 쉐를 멕이주게. 쉐를 멕이고 봄 나가지고 물릇이 날 때는 물릇을 멕이레 또 바깟디 네왕 헤나면은 지친 쉐는 툭 붓어 또. 이 툭이 입에 들어가는 거 엇고 하도 ᄂᆞ려노니까 기운이 약헌 쉐는 툭 붓고 먹을 게 충분헌 사람은 그 물릇 날 때 아니 내놔서 좀 입하 ᄉᆞ월절이 들어야 나지. 게서 옛날에는 청명에는 물이 배 붓고, 입하 ᄉᆞ월절이 들면은 쉐가 배 붓는다고 해서, 입하 ᄉᆞ월절이 들어야 쉐는 놓고 방목을 허고.(못 베는 사람은 여섯 줌 베어야 한 줌이야. 여섯 줌 일곱 줌 베어놔야 한 줌이야. 그렇게 하면 이거를 다 묶으면 한짝에 스무 뭇씩 마흔 뭇을 이렇게 가져다 놔. 가져다 놓으면 소를 이렇게 가져다가 딱 놓으면 양쪽에 서가지고 소가 가만이 서. 다 가르친 소니까. 여기 서면 뭐 저 '새쉐'같은 사람은 이거 하나 사람이

잡아서 사기도 하고 이걸 실어. 참바라고 해서 길마에 베가 열두 발 정도 해가지고 딱 길마에 놓으면 딱하게 풀어서 딱 하게 실었지. 그래서 실어서 하면 석을 위로 탁 참바를 끼었으면 몰면 집에 바로 와. 두 개고 세 개고 이제 이거 집에 실어가는 거로구나 해서 뒤에서 사람만 몰면 집에 바로 오면 마당에 이제 와서 퍼 놓으면 가리밭이라고 있어. 가리 가리는 가리밭에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 다 가리었다가 겨울 내내 그 소를 먹이지. 소를 먹이고 봄 나가지고 무릇이 날 때는 무릇을 먹으러 또 밖에 내놔서 하면 지친 소는 턱 부어 또. 턱이 입에 들어가는 거 없고 하도 내리니까 기운이 약한 소는 턱 붓고 먹을 거 충분한 사람은 그 무릇 날 때 아니 내놔서 좀 입하 사월절이 들어야 나지. 그래서 옛날에는 청명에는 말이 배 부루고, 입하 사월절이 들면 소가 배 부른다고 해서, 입하 사월절이 되야 소는 놓고 방목을 하고.)

104019 @ 청명에는 ᄆᆞᆯ이 무슨거마씨?(청명에는 말이 뭐예요?)

104019 #1 청명에는 ᄆᆞᆯ이 배붓고.(청명에는 말이 배부르고.)

104019 @ 배?(배?)

104019 #1 많이 먹으니까.(많이 먹으니까.)

104019 @ 배불고 아아, 입하 ᄉᆞ월 달은?(배부르고 아아, 입하 사월은?)

104019 #1 입하 ᄉᆞ월절은 쉐가 배불어.(입하 사월절은 소가 배불러.)

104019 @ 쉐가 배불어.(소가 배불러.)

104019 #1 하하하하. 풀이 넉넉이 나니까.(하하하하. 풀이 넉넉히 나니까.)

104019 @ 네. 풀이 넉넉이 나니까. 그믄 눌 놓는다는 거다예? 촐도예?(네. 풀이 넉넉히 나니까. 그러면 가리 놓는다는 거네요? 꼴도요?)

104019 #1 게난 쉐는 알니만 있고 ᄆᆞᆯ은 우알니가 있으니까.(그러니까 소는 아래이만 있고 말은 위아래이가 있으니까.)

104019 @ 아아.(아아.)

104019 #1 경허니까 ᄆᆞᆯ은 일찍이 놔도 웬만이 낭가지 같은 거 이제 ᄒᆞ낌 쉐 몸만 헤서도 딱딱. 앞니로 씹어가지고 끊어먹고, 쉐는 이파리가 생기고 ᄒᆞ쏠 뭘 헤사 세로 경 정 알닛빨로 우트레 치켜서 끊어먹거든. 쉐는 웃니가 읏고 ᄆᆞᆯ은 우알니가 잇거든예.(그러니까 말은 일찍이 놔도 웬만큼 나뭇가지 같은 거 이제 조금 소 몸만 해서도 딱딱. 앞니로 씹어가지고 끊어먹고, 소는 이파리 생기고 조금 뭘 해야 혀로 그렇게 저렇게 아래이빨로 위로 치켜서 끊어먹거든. 소는 윗니가 없고 말은 위아래이가 있거든요.)

104019 @ 아아.(아아.)

104019 @ 촐의 운반과 저장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꼴의 운반과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3 무시거?(뭐?)

104019 @ 촐, 운반과 저장?(꼴, 운반과 저장?)

104019 #3 아, 촐 운반하고 저장이면 그거는 그 저 무신거게 거?(아, 꼴 운반하고 저장이면 그거는 그 저 무엇 거?)

104019 @ 구루마?(수레?)

104019 #3 응. 구루마 잇는 사람은 구루마. 경 안허믄 주로 이 이디 구루마가 그 엿날은 별로 엇엉 허니까 소지르매 지왕.(응. 수레 있는 사람은 수레. 그렇게 안 하면 주로 이 여기 수레가 그 옛날은 별로 없어서 하니까 소길마 지워서.)

104019 @ 아아, 소 지르매 지왕.(아아, 소길마 지워서.)

104019 #3 게믄 소로 강 한 쉐가 지어오는 거를 혼 바리라 그래요.(그러면 소로 가서 한 소가 지어오는 거를 한 바리라 그래요.)

104019 @ 아아. 한 쉐가 지어오는 거.(아아. 한 소가 지어오는 거.)

104019 #3 응. 게난 쉐가 혼 바리 지어오고, 두 바리 지어오고 헤근에 허는데 보통 그쟈 혼 못허는 디가 허곡 열댓 바리라는 건 열다섯 바리.(응. 그러니까 소가 한 바리 지어오고, 두 바리 지어오고 해서 하는데 보통 그저 한 못하는 데가 하고 열댓 바리라는 건 열 다섯 바리.)

104019 @ 아아.(아아.)

104019 #3 ᄒᆞ쏠 그건 못허는 디가 열댓 바리 허곡 경 안허면은 소 ᄒᆞ쏠 한 디는 혼 스무 바리, 설남은 바리, 막 하영 헌 디는 혼 마흔, 쉬나믄 바리ᄁᆞ장 허는 디가 잇어예.(조금 그건 못하는 데가 열다섯 바리 하고 그렇게 안하면 소 조금 많은 데는 한 스무 바리, 서른남은 바리, 아주 많이 한 데는 한 마흔, 쉰남은 바리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104019 @ 설남은 바리는?(서른남은 바리는?)

104019 #3 서른 바리.(서른 바리.)

104019 @ 서른 바리.(서른 바리.)

104019 #3 쉬나믄 바리는 쉰 바린디 그 경허는 디가 잇어마씨. 그 경헤근에 만약에 겨울 야우, 겨울에 그 저 고지 살리는 것ᄀᆞ라 야우렌 헤마씨. 그 야우 먹이젠 허믄 빵 가근에 그디 허는데 그 촐을 허면은 바짝 ᄆᆞᆯ리와. ᄆᆞᆯ리와 가지고 그걸 무껑 집이 와근에 눌을 누는 거라예. 눌을 눌엉 촐눌 눌엉 우에 ᄂᆞ람지 더프고 우에 씌우는 건 주젱이.(쉰남은 바리는 쉰 바린데 그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겨울 '야우', 겨울에 그 저 숲에 살리는 것보고 '야우'라고 해요. 그 '야우' 먹이려고 하면 뽑아서 가서 거기 하는데 그 꼴을 하면 바짝 말려. 말려 가지고 그걸 묶어서 집에 와서 가리를 가리는 거지요. 가리를 가리어서 꼴가리 가리어서 위에 이엉 덮고 위에 씌우는 건 주저리.)

104019 @ 주젱이.(주저리.)

104019 #3 주젱이 헤근에 덮엉 소를 저 무싱거 헤십주. 거 뭐냐 저장헤십주. 그 저장허는 거는 촐 눌엉은에 무싱거 허는 거? 주젱이 더껑허는 것ᄀᆞ라 무신거옌 허는 거.(주저리 해서 덮어서 소를 저 무엇 했죠. 거 뭐냐 저장했습죠. 그 저장하는 거는 꼴 가리어서 무엇 하는 거? 주저리 덮어서 하는 것보고 무엇이라고 하는 거.)

104019 @ 말은 운반, 밧 붋기를 하지예. 밧 붋을 때 말을 허지예.(말은 운반, 밭 밟기를 하지요. 밭 밟을 때 말을 하지요.)

104019 #3 예. 말. 주로 말.(예. 말. 주로 말.)

104019 @ 그리고 구루마 이런 거에도 말을?(그리고 수레 이런 거에도 말을?)

104019 #3 구루마도 말이고 이 동더레는 주로 말로 그 밧을 갈앗다 헤마씨.(수레도 말이고 이 동으로는 주로 말로 그 밭을 갈았다 해요.)

104019 @ 아아.(아아.)

104019 #3 우리 이 서촌더레는 쉐로 밧을 가는디 동더레는 말로 그 밧을 간다는 말을 들엇는데.(우리 이 서촌으로는 소로 밭을 가는데 동으로는 말로 그 밭을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104019 @ 예.(예.)

104019 #3 말로 밧 갈게 뒈면은 아주 많이 간덴.(말로 밭 갈게 되면 아주 많이 간다고.)

104019 @ 많이 간덴마씨? 어.(많이 간대요? 어.)

104019 #3 예. 말이 빠르니까.(예. 말이 빠르니까.)

104019 @ 아아, 붋을 때는 말도 쓰고예?(아아, 밟을 때는 말도 쓰고요?)

104019 #3 붋을 때 주로 말로 붋으고 경 안허민 쉐 몃 마리 헹은에.(밟을 때 주로 말로 밟고 그렇지 않으면 소 몇 마리 해서.)

104019 #5 촐 구루마에 시껑.(꼴 수레에 실어서.)

104019 @ 소에?(소에?)

104019 #6 소에도 시꺼오고. 구루마에도 시끄고.(소에도 실어오고. 수레에도 싣고.)

104019 #5 쉐에도 시꺼오고. 구루마에도 시끄고, 지곡, 지엉.(소에도 실어오고. 수레에도 싣고. 지고, 지어서.)

104019 #6 막 하영덜 졍도 오고 맨날 흔 달도 너무 걸립니다. 촐 허젠허민.(아주 많이들 져서도 오고 맨날 한 달도 너무 걸립니다. 꼴 하려고 하면.)

104019 #5 그거 들러아졍 밤이 오랑.(그거 들어가지고 밤에 와서.)

104019 @ 다 소 키우는 사람만 그거 허지예?(다 소 키우는 사람만 그거 하지요?)

104019 #6 예. 집보다 더 커. 눌이.(예. 집보다 더 커. 가리가.)

104019 @ 눌이, 이게 제일 큰 눌이로구나예?(가리가, 이게 제일 큰 가리로군요?)

104019 #4 아이고, 이렇게 놀 시간이 어디 셔? 팔월 나민 검질 끗나민 촐 허젠 ᄉᆞ뭇.(아이고, 이렇게 놀 시간이 어디 있어? 팔월 되면 김 끝나면 꼴 하려고 사뭇.)

104019 #5 하늬ᄇᆞ롬 나가민 ᄉᆞ뭇(하늬바람 나가면 사뭇.)

104020 @ 그리고 여물,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그리고 여물,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3 ᄋᆞ물이엔 헌 거는 아까 그 얘기한 거, 거.(여물이라고 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 거.)

104020 @ 꽁꼬지나 이런 건가?(콩깍지나 이런 건가?)

104020 #3 아니, 아니. 쉐 밧 갈젠 헹은에 그. 헌디 여물이옌 헌 거는 거 육지 말이라마씨.(아니, 아니. 소 밭 갈려고 해서 그. 한데 여물이라고 한 건 육지 말이에요.)

104020 @ 예.(예.)

104020 #3 이 이 제주말이 아니우다.(이 이 제줏말이 아닙니다.)

104020 @ 예.(예.)

104020 #3 그 소 촐 솖앙 멕이는 것ᄀᆞ라 여물, 여물.(그 소 꼴 삶아서 먹이는 것보고 여물, 여물.)

104020 @ 소 촐 솖앙 멕이는 거예.(소 꼴 삶아서 먹이는 거요.)

104020 #3 예.(예.)

104020 #5 쉐 먹는 여물은 여물 주는 건 촐이 주장이고 밧이나 갈젠 허민 쉐것 솖앙 멕엿주. 경 안허민 쉐 곡석.(소 먹는 여물은 여물 주는 건 꼴이 주장이고 밭이나 갈려고 하면 소먹이 삶아서 먹였지. 그렇게 안하면 소 곡식.)

104020 #6 밧이나 갈젠 허민 감젯줄 그거 양념이랏주. 우리 ᄀᆞ트민 근밥.(밭이나 갈려고 하면 고구마줄기 그거 양념이었지. 우리 같으면 흰밥.)

104020 #5 보리 무싱거 둥글여 낭은에 무싱거 헷당 그거 솖앙 쉐 멕영 밧 갈고, 쉐촐 헤오고 그쟈.(보리 무엇 굴리고 나서 무엇 했다가 그거 삶아서 소 먹여서 밭 갈고, 소꼴 해오고 그저.)

104021 @ 꼴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촐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촐 베레 갓다왓수과? 많이?(꼴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꼴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 꼴 베러 다녀왔습니까? 많이?)

104021 #1 촐 비젠 허민 나는 호미 ᄀᆞ는 사람이 하나 지정이 잇어야 뒈어.(꼴 베려고 하면 나는 낫 가는 사람이 하나 지정이 있어야 돼.)

104021 @ 예예. 호미 ᄀᆞ는 사람.(예예. 호미 가는 사람.)

104021 #1 ᄋᆞ러 사람 비엉 홀랴고 허면은 하루 종일 호밀 ᄀᆞᆯ아야 뒈어.(여러 사람 베어서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낫을 갈아야 돼.)

104021 @ 아아, 그 자락예?(아아, 그 정도요?)

104021 #1 촐 빌 새가 읏이 하루 종일 ᄀᆞᆯ아야 뒈어.(꼴 벨 새가 없이 하루 종일 갈아야 돼.)

104021 @ 아하, 하하. 그 자락예.(아하, 하하. 그 정도요.)

104021 #1 이 앞이 사람 ᄀᆞᆯ아 가민 다른 호미 ᄀᆞ져당 이레 줭 이 사람 ᄀᆞᆯ고 이 사람 ᄀᆞᆯ아뒁 이 사람 ᄀᆞᆯ고 헤서, 게서 끗에 사람 ᄀᆞᆯ아 나민 또 저 앞에 사람 ᄀᆞᆯ아줘야 되거든. 게난 여러 사람 빌엉 헐 때는 흔 사람은 부지런히 ᄒᆞ루 종일 호미영만 ᄀᆞᆯ아야 뒈어. 게서 그런 인사도 쓰지. 이제도록 호미 ᄀᆞᆯ젠 허난 속앗어. 허허허허.(이 앞의 사람 갈아 가면 다른 낫 가져다가 여기 줘서 이 사람 갈고 이 사람 갈아두고 이 사람 갈고 해서, 그래서 끝에 사람 갈고 나면 또 저 앞에 사람 갈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깐 여러 사람 빌려서 할 때는 한 사람은 부지런히 하루 종일 낫만 갈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인사도 쓰지. 이제도록 호미 갈려고 하니까 수고했다. 하하하하.)

10402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21 @ 여기선 선 낫 안 쓰고 그냥 ᄌᆞᆱ은 거 쓰지예?(여기선 선 낫 안 쓰고 그냥 짧은 거 쓰지요?)

104021 #3 으응 요거, 요거.(으응 요거, 요거.)

104021 @ 긴 거 안 쓰고예.(긴 거 안 쓰고요.)

104021 #3 예.(예.)

104021 #3 긴 거 쓰는 디도 이십디다만은.(긴 거 쓰는 데도 있습디다만.)

104021 #3 그난 우리.(그니까 우리.)

104021 @ 각단이여, 촐이여. 이건.('각단'이다, 꼴이다. 이건.)

104021 #3 각단은 각단이옌 헌 거는. 저 우리 이 집.('각단'은 '각단'이라고 한 거는. 저 우리 이 집.)

104021 @ 초가집?(초가집?)

104021 #3 초가집 일 때 줄 노는 것ᄀᆞ라.(초가집 일 때 줄 놓는 것보고.)

104021 @ 줄 노는 거예.(줄 놓는 거요.)

104021 #3 새 ᄌᆞᆱ은 것ᄀᆞ라 각단이옌 허는 거고, 긴 거는 새 집 이는 거.(띠 짧은 것보고 '각단'이라고 하는 거고, 긴 거는 띠 지붕 이는 거.)

104021 @ 집 이는 거고예.(지붕 이는 거고요.)

104021 #3 지붕 더프는 거는 새고, 집줄 그 지둘르는 거는 각단.(지붕 덮는 거는 띠고, 집줄 지지른 거는 '각단'.)

104021 @ 지둘르는 거예.(지지르는 거요.)

104021 #5 추억은 뭐 촐만 비난 다른 추억은 엇고.(추억은 뭐 꼴만 베니까 다른 추억은 없고.)

104021 @ 밥은 어떵 먹읍니까? 그럴 때 조 벨 때?(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럴 때 조 벨 때?)

104021 #5 옛날은 차롱착에 밥헤영 보리밥 허영은에 ᄋᆞ라이 갈 땐 양착에 다 거렁 탁 마주 착 부쳥 가근에 뒌장국 헤영 그것에 밥 먹고.(옛날은 채롱에 밥해서 보리밥 해서 여럿이 갈 땐 양쪽에 다 떠서 탁 마주 착 붙여서 가서 된장국 해서 그것에 밥 먹고.)

104021 #6 뒌장국 헤영 ᄆᆞᆷ치[108]게.(된장국 해서 모자반장아찌게.)

104021 #5 ᄆᆞᆷ치에 반찬허고.(모자반장아찌 반찬하고.)

104021 #4 ᄆᆞᆷ치.(모자반장아찌.)

104021 #6 남자덜 그레 주젠 허민 저 무싱거.(남자들 거기 주려고 하면 저 무

108) 'ᄆᆞᆷ치'는 모자반장아찌를 말한다. 마른 모자반을 간장이나 된장에 담가서 짠 맛이 든 후에 먹는 반찬. 'ᄆᆞᆷ지', 'ᄆᆞᆷ치의', 'ᄆᆞᆷ지시', 'ᄆᆞᆷ치이'라고도 불린다.

엇.)

104021 #5 거 무싱거? 반추지에.(거 무엇? 파초장아찌에.)

104021 #6 반추지에 그 뎅가린 우리 여자덜 먹고, 영 찢이멍 그 몸치가 특헌 반찬이랏수다.(파초장아찌에 그 줄거린 우리 여자들 먹고, 이렇게 찢으면서 그 모자반 장아찌가 특이한 반찬이었습니다.)

104021 #5 잘도 맛 좋앙게. 옛날은예. 맛 좋아신디, 이제는 어떵사 헐 지 몰라도.(잘도 맛 좋았어. 옛날은요. 맛 좋았는데, 이제는 어떻게야 할 지 몰라도.)

104021 #4 그때엔 궂인 게 엇더라.(그때엔 맛없는 게 없더라.)

땔감

104022 @ 땔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1 땔감? 땔감은 어떵 허는고 허니까 이제 ᄀᆞ을이 들어가면은 솔썹 근으레 가거든. 솔썹 그늘에 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디 거 하간 게 만허니까 준 농사가 많이 허다가 보니까 가까운데 좋은 거는 헤변 사람이 오랑 다 긁어가불어. 게믄 두불 털어진 것도 허고, 고지 가까우니까 고지 ᄋᆞ름에는 이 봄이 나면은, 이 음력 이월ᄃᆞᆯ이 나면은 방화를 부찌거든. 소, 방화를 부찌면은 진드기 방지허고 촐이 맛 조니까 잘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왈, 자왈에 이디 불이 부떵 허면은 죽은 나무덜이 많이 셍기면은 그 죽은 나무를 이제 가서 헤오고, 소낭밧디 가면은 죽은 가지 ᄀᆞ튼 거 갈꼬리 이렇게 헤서 오그라진 거 든든헌 낭 헹 걸령 줍아 ᄃᆞᆼ기민은 꺼꺼지면은 그거 헤영 그것에 그 속에는 이파리도 긁엉 솔입 글겡이라고 헤서 허고, 경 헤근에 고지 강도 헤 줏엉 곤 낭 삭은 걸로 ᄆᆞ른 걸로 헤어 오고, 소낭밧디서도 더러 줏어오고, 집이서 이제 쉐 먹다 남은 거 좃대, 조찍직대 같은 것도 긁은 조찍, 쉐가 버청 안 먹는 거 ᄀᆞ튼 거는 불 솜고, 한참 유체헐 땐 유쳇대도 불 솜고.(땔감? 땔감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가면 솔가리 긁으러 가거든. 솔잎 긁으러 가고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 거 온갖 게 많으니까 잔 농사가 많이 하다가 보니까 가까운 데 좋은 거는 해변 사람이 와서 다 긁어가버려. 그러면 두벌 떨어진 것도 하고, 숲 가까우니까 숲 여름에는 이 봄이 되면, 이 음력 이월달이 되면 방화를 붙이거든. 소 방화를 붙이면 진드기 방지하고 꼴이 맛 좋으니까 잘 먹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덤불, 덤불에 여기 불이 붙어서 하면 죽은 나무들이 많이 생기면 그 죽은 나무를 이제 가서 해오고, 소나무밭에 가면 죽은 가지 같은 거 갈고리 이렇게 해서 구부러진 거 단단한 나무 해서 걸려서 잡아당기면 꺾어지면 그거 해서 그것에 그 속에는 이파리도 긁어서 솔잎 갈퀴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숲에 가서도 해. 주워. 고운 나무 썩은 걸로 마른 걸로 해서 오고, 소나무밭에서도 더러 주워오고, 집에서 이제 소 먹다 남은 거 조대, 조짚대 같은 것도 긁은 조짚, 소가 부쳐서 안 먹는 거 같은 거는 불 때고, 한창 유채할 땐 유챗대도 불 때고.)

104022 #3 땔감 종류에서도 건.(땔감 종류에서도 건.)

104022 @ 삭다리?(삭정이?)

104022 #3 삭다리는 저 곶 낭 가근에 그 가젱이 거시렁 숫구멍, 가젱이 거시렁 네분 거 헤그네 ᄏᆞ찡ᄏᆞ찡[109] 놔근에 그거 헤 온 것ᄀᆞ라 거 삭다리옌 허는 거고. 장작이옌 헌 거는 화목. 화목이옌 헌 거는 여기 소낭 헤근에 도끼로 팬 것ᄀᆞ라 장작. 뭐 거 그거주. 무싱거라.(삭정이는 저 숲 나무 가서 그 가지 쳐서 '숯구멍', 가지 쳐서 내버린 거 해서 나란히나란히 놔서 그거 해 온 것보고 거 삭정이라고 하는 거고. 장작이라고 한 거는 화목. 화목이라고 한 거는 여기 소나무 해서 도끼로 팬 것보고 장작 뭐 거 그거지. 무엇이야.)

104022 #6 땔감?(땔감?)

104022 #5 장작.(장작.)

104022 #6 장작이 어디 셧어? 경.(장작이 어디 있었어? 그렇게.)

104022 @ 삭다리? 장작도.(삭정이? 장작도.)

104022 #6 저 소낭밧디 강은에 그 삭은 가젱이나 체당 짇엇주.(저 소나무밭에 가서 그 삭은 가지나 째다가 땠지.)

104022 #5 우린 놈의 밧 벵작헹은에 지들커허영 헙디다게. 우리 아버지넨.(우린 남의 밭 병작해서 땔감해서 합디다. 우리 아버지넨.)

104022 #6 솔입 헤영 근엉 오곡.(솔가리 해서 긁어서 오고.)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3 소똥, 말똥 연료는, 말똥은 그 옛날 거 구들 때는 거.(소똥, 말똥 연료는, 말똥은 그 옛날 거 방 때는 거.)

104023 @ 예.(예.)

104023 #3 그거고. 소똥은 그쟈 주로 이 우리가 거름헹 밧데 나강 거름 허는 거. 그걸 주로 허는 게 소똥.(그거고. 소똥은 그저 주로 이 우리가 거름해서 밭에 나가서 거름 하는 거. 그걸 주로 하는 게 소똥.)

104023 #5 소똥 줏어당 굴묵 짇고, 말똥 줏어당 굴묵 짇고.(소똥 주워다가 '굴묵' 때고, 말똥 주워다가 '굴묵' 때고.)

104023 #4 아이고, 일본 시대엔 소똥도 엇어. 공출헤낫어.(아이고, 일본 시대에는 소똥도 없어. 공출했었어.)

104023 #5 ᄀᆞ시락 져당 허곡, 다시 허당 버치난에 무싱거 솔똥 줏어당 굴묵 짇고, 다시 이젠 옛날엔 저, 소까이 간 때쯤은양 다시 조크르[110]도 다 메당 숨아서. 조크르도.(까끄라기 지어다 하고, 다시 하다가 부치니까 무엇 솔방울 주워다가 '굴묵' 때고, 다시 이젠 옛날엔 참, 소개 간 때쯤은요 다시 조 그루도 다 매다가 땠어. 조 그루도.)

104023 @ 예?(예?)

---

109) 'ᄏᆞ찡ᄏᆞ찡'은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의태어이다.

110) '조크르'는 조를 베고 난 밑동이다.

104023 #6 사삼시절에 거고게.(사삼시절에 그거고.)

104023 #5 조크르도 다 메다가 불 숨아낫어.(조 그루도 다 매다가 불 뗐었어.)

104023 #6 물릇게 물릇 밧.(무릇? 무릇 밭.)

104024 @ 나무, 솔가리 걷기? 솔입 걷는 거. 솔입 글거 봣수과? 남자덜은 안 허지예?(나무, 솔가리 걷기? 솔잎 걷는 거. 솔잎 긁어 봤습니까? 남자들은 안 하지요?)

104024 #1 아이고 무사 안 허여게?(아이고 왜 안 해?)

104024 @ 아아, 솔입도 헤서. 눌 눌고.(아아, 솔가리도 해서. 가리 가리고.)

104024 #1 아이, 나도 솔입 글경은에 끅 봉가근에 끅 봉강, 혼 싀 개 영 벌경 나무 삭은 가지에 요렇게 놔가지고 솔잎 영 거껑, 옆으로 톡톡ᄒᆞ게 글겡이로 두드리멍 헹 영 헹 딱허게 무껑, 무껑 ᄒᆞ쏠 크게 허고 ᄒᆞ썰 족게 헤근에 우트레 놩 져ᄋᆞ졍 집이 오주게. 요새사 짐 안 져부난 모르주만 옛날에는 문딱 등땡이에 짐졍 뎅기는 거 보통이주.(아니, 나도 솔잎 긁어서 칡 주워서, 칡 주워서, 한 세 개 이렇게 벌려서 나무 삭은 가지에 요렇게 놔가지고 솔잎 이렇게 꺾어서, 옆으로 톡톡하게 갈퀴로 두드리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딱하게 묶어서, 묶어서 조금 크게 하고 조금 작게 해서 위로 놔서 져가지고 집에 오지. 요새야 짐 안 져버리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몽땅 등에 짐 져서 다니는 거 보통이지.)

104024 @ 그믄 아이덜 친구덜이 같이 가마씨? 솔잎 긁으레 갈 때 여자도 가곡?(그러면 아이들 친구들이 같이 가요? 솔잎 긁으러 갈 때 여자도 가고?)

104024 #1 여자덜 주로 가고, 여자덜이 주로 근주기. 여자덜이 주로 가고, 남자가 가면은 그 끅도 칙 걷어다가 허곡 또 그 관 나뭇가지 ᄀᆞ튼 것도 저 어떤 땐 올라강도 꺼껑 내리청은에 헤영 그 솔썹 무끄젠 허면은 끅 영 그 줄 신 더레 영 노민 이레 놩은에 묵곡, 져 아졍 짐 출려주고, 혼디 긁음도 허곡.(여자들 주로 가고, 여자들이 주로 긁지. 여자들이 주로 가고, 남자가 가면 칡도 칡 걷어다가 하고 또 그 관 나뭇가지 같은 것도 저 어떨 땐 올라가서도 꺾어서 내리쳐서 해서 그 솔잎 묶으려고 하면 칡 이렇게 그 줄 있는 데로 이렇게 놓으면 이리 놔서 묶고, 져가지고 짐 차려주고, 같이 긁기도 하고.)

104024 @ 솔가리 걷기? 솔입 걷는 거?(솔가리 걷기? 솔잎 걷는 거?)

104024 #3 글겡이.(갈퀴.)

104024 @ 글겡이로 여자덜이 헷지예?(갈퀴로 여자들이 했지요?)

104024 #3 주로 여자덜.(주로 여자들.)

104024 #5 솔입은 털어진 거 근어오곡게.(솔가리는 떨어진 거 긁어오고요.)

104024 @ 멧 솔 때부터 여자덜끼리?(몇 살 때부터 여자들끼리?)

104024 #5 여자덜은 기자.(여자들은 그저.)

104022 #6 우리 혼 여실곱 솔 나난에 솔입은 긁어서. 강 무끄지 못허민 그냥 맥에 담앙 져 와난.(우리 한 예닐곱 살 되니까 솔잎은 긁어서. 가서 묶지 못하면 그냥 멱에 담아서 지어 왔었어.)

104022 #4 멕에 담앙 졍 오라낫어.(멱에 담아서 져서 왔었어.)
104022 #6 어린 때난에 무끄지 못헤영.(어린 때니까 묶지 못해서.)
104024 #5 ᄀᆞ찡허게 무끄민 아까와.(가지런하게 묶으면 아까워.)
104025 @ 나무하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나무한다는 말이 톱 들렁 강 나무하는 게 삭다리 끊는 게 나무허기 아니?(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한다는 말이 톱 들고 가서 나무하는 게 삭정이 끊는 것이 나무하기 아니?)
104025 #1 어떵헌 거?(어떡한 거?)
104025 @ 나무, 나무.(나무, 나무.)
104025 #1 어.(어.)
104025 @ 나무헐 때?(나무할 때?)
104025 #1 예.(예.)
104025 @ 장작 그런 나무를 톱으로 벨 수 없지예? 그냥 삭다리나 끈으레 가주.(장작 그런 나무를 톱으로 벨 수 없지요? 그냥 삭정이나 끊으러 가지.)
104025 #1 아니, 경도 허고 그 옛날에는 그 이 산림법으로 헤서 법에서 뭐 안 허니까 헤서 소낭밧이라고 이제 그 헌 밧을 그 대부분 다 가졍 잇어. 돌, 솔, 뭘 허민 줏인 거 보민 톱으로 끊엉, 끊엉 뭘 허곡 또 나둬도 재목이나 뒈지 안험직헌 거는 끊어가지고 동 줄랑 딱딱허게 화목으로 이만씩 동 줄라가지고, 도치로 깨어가지고 딱허게 헹 집이서 눌어. 눌엉 ᄂᆞ람지 둘렁 헹 놧다가 그러한 나무는 어느 때 쓰는고 허니까 잔치 때나 집이서 상사 난 때나 그 일 때에 쓰고 경 안 허민 제사 때에 그러한 그 본에 나게 헐 때는 그 홁은 장작은 그런 때 쓰곡, 잘잘헌 삭다리는 그쟈 펭소에 밥헤먹을 때 쓰곡.(아니, 그렇게도 하고 그 옛날에는 그 이 산림법으로 해서 법에서 뭐 안 하니까 해서 소나무밭이라고 이제 그 한 밭을 그 대부분 다 가져 있어. 돌, 솔, 뭐 하면 빽빽한 거 보면 톱으로 끊어서, 끊어서 뭘 하고 또 나둬도 또 재목이나 되지 않음직한 거는 끊어가지고 동 잘라서 딱딱하게 화목으로 이만큼씩 동 잘라가지고, 도끼로 깨가지고 딱하게 해서 집에서 가리어. 가리어서 이엉 둘러서 해서 놔뒀다가 그러한 나무는 어느 때 쓰는가 하니까 잔치 때나 집에서 상사 날 때나 그 일 때에 쓰고 그렇게 안 하면 제사 때에 그러한 그 폼이 나게 할 때는 그 굵은 장작은 그런 때 쓰고, 잘잘한 삭정이는 그저 평소에 밥해먹을 때 쓰고.)
104025 @ 나무하기?(나무하기?)
104025 #3 나무하는 건 남자덜 건 주로.(나무하는 건 남자들 건 주로.)
104025 @ 헤봣수과?(해봤습니까?)
104025 #3 아, 거 나무, 나무 패는 건 이제, 이제도 우리 그 저 장작 보일러 헤가지고 나무 패는디.(아, 거 나무, 나무 깨는 건 이제, 이제도 우리 그 저 장작 보일러 해가지고 나무 깨는데.)
104025 @ 아아.(아아.)
104025 #3 도끼 잇어. 우리 집이.(도끼 있어. 우리 집에.)
104025 @ 아아, 겐 나무를 함부로 허믄 안 뒈난 삭다리나 이런 걸 많이 헷지

예.(아아,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삭정이나 이런 걸 많이 했지요.)

104025 #3 그 옛날은 고지서도 경 헤십주. 경 허난 숫 굽는 거나 무신거 허는 건 다 검물이 뒈가지고 거 무신거 하긴 헷는데 어떵헐 거라? 먹고 살젠 허민 강 도둑질헐베끼.(그 옛날은 숲에서도 그렇게 했습죠. 그렇게 하니까 숯 굽는 거나 무엇 하는 건 다 '검물'이 돼가지고 거 무엇 하긴 했는데 어떡할 거야? 먹고 살려고 하면 가서 도둑질할밖에.)

104025 #5 나무도 그추룩 허연.(나무도 그처럼 했어.)

104025 #6 소낭 가젱이 삭은 거 강은에 돌아졍 꺼거 왕.(소나무 가지 삭은 거 가서 매달려서 꺾어 와서.)

104025 #4 베 걸멍 꺽어낫수다.(바 걸면서 꺾었었습니다.)

104025 #5 갈쿵이.(갈퀴.)

104025 #4 갈쿵이.(갈퀴.)

104025 #5 갈쿵이 헹 영 걸령 앙허게 둥기민 꺼꺼지는.(갈퀴 해서 이렇게 걸려서 앙하게 당기면 꺾어지는.)

104025 #6 혼디 뒈갈라지곡 헤헤.(함께 뒤집어지고 헤헤.)

104025 #5 혼디, 거 헹 사람도 너러졍 뒈갈라지고, 헤헤, 아이고 아이고 옛날은 살아온 역사를 생각허믄.(함께, 거 해서 사람도 넘어져서 뒤집어지고, 헤헤, 아이고 아이고 옛날은 살아온 역사를 생각하면.)

104026 @ 그다음 저번에 말한 숫 굽는 것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거의 다 뒘수다. 숫 굽는 것?(그다음 저번에 말한 숯 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숯 굽는 것?)

104026 #1 숫 굽는 거? 숫 굽는 거는 작대기 숫이라고 헤여. 세워서 허는 거는. 세워서 허는 것은 작대기 숫.(숯 굽는 거? 숯 굽는 거는 작대기 숯이라고 해여. 세워서 하는 거는. 세워서 하는 것은 작대기 숯.)

104026 @ 작대기 숫예?(작대기 숯이요?)

104026 #1 작대기 숫은 세와가지고 요만썩 동 줄르면은 한 삼 단계 정도 쪼금 많이 허는 사람은 혼 구뎅이가 삼 단계 정도로 이렇게 쌓아 올령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흙을 올리면서 역부로 돌담 쌓아가지고 아궁이, 아궁이를 혼 크면은 혼 네 군데쯤 아궁이를 내가지고 혼 쪽으로는 그 구멍을 요렇게 내어가지고 가운디까지 구멍을 내서 그디 관 낭 놓으면 거기서 불을 질렁 불이 저쪽 구멍으로도 불이 골루루 저쪽 구멍으로도 활딱활딱 헤가면은 멜랑 그 구멍을 막고, 이쪽으로도 활딱활딱 불이 나가면은 헤서 다 양쪽으로 다 그 어귀찬 딜로 불이 나오라 가면은 어두 멜랑 경허곡 그디 허다가 굽에 거는 또 숫이 뒈엉 도 막은 다음에 한 이틀 잇당 그 숫을 파내영 잘 된 놈은 가마니에 담앗다가 풀고, 밑엣 거 굽에 잇는 거는 넹바리라고 헤가지고 숫이 뒈다가 안 뒌 거, 안 뒌 거는 곰숫이라고 헤서 이제 눅져서 영 재엉 더펑은에 또로 불 질렁 허는 것이 곰숫이옌 허곡, 넹바리숫을 저 재생허는 것이 곰숫이라고 헤여.(작대기 숯은 세워가지고 요만씩 동 자르면 한 삼 단계 정도 조금 많

이 하는 사람은 한 구덩이가 삼 단계 정도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흙을 올리면서 일부러 돌담 쌓아가지고 아궁이, 아궁이를 한 크면 한 네 군데쯤 아궁이를 내가지고 한쪽으로는 그 구멍을 요렇게 내가지고 가운데까지 구멍을 내서 거기 마른 나무 놓으면 거기서 불을 질러서 불이 저쪽 구멍으로 불이 골고루 저쪽 구멍으로도 '활딱활딱' 해가면 무너뜨려서 그 구멍을 막고, 이쪽으로도 '활딱활딱' 불이 나가면 해서 다 양쪽으로 다 그 어귀찬 데로 불이 나와가면 '어두(?)' 허물어서 그렇게 하고 거기 하다가 굽에 거는 또 숯이 되어서 입구 막은 다음에 한 이틀 이따가 그 숯을 파내어서 잘된 놈은 가마니에 담았다가 팔고, 밑엣 거 밑에 있는 거는 냉과리라고 해가지고 숯이 되다가 안 된 거, 안 된 거는 '곰숯'이라고 해서 이제 눕혀서 이렇게 재어서 덮어서 또로 불질러서 하는 것이 '곰숯'이라고 하고, 냉과리숯을 저 재생하는 것이 '곰숯'이라고 해.)

104026 @ 숫 굽는 터나 이런 거 잇수과? 숫 굽는 터? 뭐 어디 강 숫 구워마씨?(숯 굽는 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숯 굽는 터? 뭐 어디 가서 숯 구워요?)

104026 #1 그거는 그 낭허는 그디서 그 뭣에서 흙이 충분이 이신 밧에 우리 농사 지어난 밧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게민 이만이 노프게 허면은 이디 흙을 막 준비헤서 돌새기도 줏어서 파가지고 이걸 완전히 덮어야 뒈니까 흙 없는 데서는 안 뒈주게.(그거는 그 나무하는 거기서 그 뭣에서 흙이 충분히 있는 밭에 우리 농사지었던 밭에다가 이제 파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높게 하면 여기 흙을 막 준비해서 자잘한 돌멩이도 주워서 파가지고 이걸 완전히 덮어야 되니까 흙 없는 데서는 안 되지.)

104026 @ 흑 잇는데예. 지금 그런 거 구경 못허지예?(흙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 구경 못하지요?)

104026 #1 이제 뭐 어디 요 낙천 그 저 뭣고? 관광지 개업허는 날은 뭐 제주시장도 오란에 막 뭣엔 골으멍 헤고나만은 헤봐야 형식적이주. 숫이 졸바로 뒈어게?(이제 뭐 어디 요 낙천 그 저 뭣고? 관광지 개업하는 날은 뭐 제주시장도 와서 막 뭐라고 말하면서 하더니만 해봐야 형식적이지. 숯이 제대로 되나?)

104026 @ 삼촌 혼자 헷수과? 숫 구울 때 누구 같이 헷수과? 풀아도 봣수과?(삼촌 혼자 했습니까? 숯 구울 때 누구 같이 했습니까? 팔아도 봤습니까?)

104026 #1 그때는 숫을 구워야 생애유지를 허젠 허니까 처음에 헐 때는 둘이서, 둘이서 그냥 뭐 나무를 막 부시대견 고지 강 부시대겨가지고 헷는데 처음에 헐 때는 실패를 여러 번 헷어. 다 삭아불어서.(그때는 숯을 구워야 생계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둘이서, 둘이서 그냥 뭐 나무를 막 부숴서 숲에 가서 부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실패를 여러 번 했어. 다 삭아버려서.)

104026 @ 아아.(아아.)

104026 #1 다 삭아불어서 실패를 헷는데 나중에 에에 안 뒈겟다고 헤서, 안 뒈겟다고 헤서 이제 다음에는 또 한 친구가 내가 숫을 잘 허니까 나가믄만 하면 틀림이 엇다. 게민 내 시김만 하면 내 시긴 말은 잘 들으켜. 경 허니까 그때는 혼 크게 혼둘을 헷는데 아, 참 잘 뒈드라고. 그때는 허는 공식은 뜰렷어. 뜰려서 나가 먼저

헌 거. 겐 뜰려서 경 허난 그거 막 익숙우니까 이제 산에 공비가 건즘 뒈니까 이젠 저 출장소 근무를 헷어. 출장소 근무를 허니까 이제 ᄆᆞ을에서 밥헤다 주민 먹고 손님들허고 같이 저 보초 사는데 순찰 돌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군대 가 불엇는데 여러 난관을 격엇주.(다 삭아버려서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에에 안 되겠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다음에는 또 한 친구가 내가 숯을 잘 하니까 나가기만 하면 틀림이 없다. 그러면 내 시키기만 하면 내가 시킨 말은 잘 듣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크게 한둘을 했는데 아, 참 잘 되더라고. 그때는 하는 공식은 달랐어. 달라서 내가 먼저 한 거. 그래서 달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주 익숙하니까 이제 산에 공비가 거의 되니까 이젠 저 출장소 근무를 했어. 출장소 근무를 하니까 이제 마을에서 밥해다 주면 먹고 손님들하고 같이 저 보초 서는데 순찰 돌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군대 가버렸는데 여러 난관을 겪었지.)

104026 @ 그믄 숫 굽는 참나무나 저번에 말헷듯이 참나무도 헤야 뒈고 소나무 무슨 나무 다 뒈어마씨?(그러면 숯 굽는 참나무나 저번에 말했듯이 참나무도 해야 되고 소나무 무슨 나무 다 되어요?)

104026 #1 다 뒈는디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아주 좀 약허여.(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나무는 아주 좀 약해.)

104026 @ 약허고.(약하고.)

104026 #1 약허니까 소나무 숫을 구울라고 허면은 소나무만 허는 게 좋고.(약하니까 소나무 숯을 구우려고 하면 소나무만 하는 게 좋고.)

104026 @ 구울라면?(구우려면?)

104026 #1 나무가 거의 잇다가 아주 술찌고 좋아 베도 술이 약헌 나무 부드러운 나무는 들면은 다른 것까지도 좀 피혜를 볼 수가 잇어.(나무가 거의 있다가 아주 살찌고 좋아 보여도 살이 약한 나무 부드러운 나무는 들면 다른 것까지도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어.)

104026 @ 음.(음.)

104026 #1 불에 약허니까.(불에 약하니까.)

104026 @ 음.(음.)

104026 #1 경 안 허믄 비슷비슷헌 나무로만 헤지는 게 좋주게.(그렇게 안 하면 비슷비슷한 나무로만 하는 게 좋지.)

104026 @ 숫 굽는 것에, 그런 거 직접 안 헤봣지예?(숯 굽는 것에 그런 거 직접 안 해봤지요?)

104026 #3 숫, 우리가 직접 구웟수게.(숯, 우리가 직접 구웠습니다.)

104026 @ 아아. 건 동영상으로 찍으민 좋은데.(아아. 건 동영상으로 찍으면 좋은데.)

104026 #3 아이, 동영상 그때 다 찍어 갓어요. 찍어 갓어.(아니, 동영상 그때 다 찍어 갔어요. 찍어 갔어.)

104026 @ 찍어 갓수과? 아이고야.(찍어 갔습니까? 아이고.)

104026 #3 그때. 우리 나무헐 때부터 그 무신거 게난 거.(그때. 우리 나무할 때부터 그 무슨 거 그러니까 거.)

104026 @ 논문 쓰젠 헴구나. 그 교수. 논문. 이런 것들을.(논문 쓰려고 하는구나. 그 교수. 논문. 이런 것들을.)

104026 #3 어어. 논문.(어어. 논문.)

104026 @ 으응.(으응.)

104026 #3 겨난 그 선생도 둘이가 와선게.(그러니까 그 선생도 둘이가 왔던데.)

104026 @ 예.(예.)

104026 #3 경 헌디 원, 숫 굽는 것도 혼 가지가 아니우다. 저거.(그렇게 하는데 원, 숯 굽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저거.)

104026 @ 예.(예.)

104026 #3 세 가지, 세 가지. 서너 가지로 헹은에 저 숫을 굽는디.(세 가지, 세 가지. 서너 가지로 해서 저 숯을 굽는데.)

104026 @ 예.(예.)

104026 #3 말숫이옌 헌 게 잇고.('말숯'이라고 한 것이 있고.)

104026 #3 말숫.('말숯'.)

104026 #3 작대기숫이옌 헌 게 잇고.('작대기숯'이라고 한 게 있고.)

104026 @ 작대기숫.('작대기숯'.)

104026 #3 곰숫이옌 헌 거이 잇고. 우리 아는 건 요거 세 가진디, 경 안 헤영 육지서 모냥으로 굴 파근에 허는 건 무신 숫이엔사 허는 지 건 모르거든. 겐디 요거 싀가지가 우리가 주로 허는 건디. 그거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이디서 허는 거는 작대기숫허고 곰숫 헹, 곰숫 헨에 그거 헹 놔두난 거.('곰숯'이라고 한 게 있고. 우리 아는 건 요거 세 가진데, 그렇게 안 해서 육지에서 모양으로 굴 파서 하는 건 무신 숯이라고 하는 지 건 모르거든. 그런데 요거 세 가지가 우리가 주로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여기서 하는 거는 '작대기숯'하고 '곰숯' 해서, '곰숯' 해서 그거 해서 놔두니까 거.)

104026 @ 크흐흐흐.(크흐흐흐.)

104026 #3 거짓말헨에.(거짓말해서.)

104026 @ 그 교수님 이름을 혼 번, 에이그 춤말로.(그 교수님 이름을 한 번, 에이그 참말로.)

104026 #3 명함이영 나신디 잇긴 잇수다만은 이름 골앙 무신거 헐 거라.(명함이랑 나한테 있긴 있습니다만 이름 말해서 무슨 거 할 거야.)

104026 @ 그래도 그런 걸게 알앙 놔두면은. 자료들은 잇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도 하면 또.(그래도 그런 걸 알아서 놔두면. 자료들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도 하면 또.)

104026 #5 숫은 저 고지 강 낭 그찬.(숯은 저 숲 가서 나무 잘라서.)

104026 #6 남자덜만 그거 헤나난 여잔 확실히 몰라. 게도 숫 굽는 거 알아져.

나도. 땅 ᄒᆞᆨ끔 파근에.(남자들만 그거 했었으니까 여잔 확실히 몰라. 그래도 숯 굽는 거 알 수 있어. 나도. 땅 조금 파서.)

104026 #5 그레 과짝 세완.(거기 곧게 세워서.)

104026 #4 이레 사람덜은 경 다 숫 안 구웟수다.(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다 숯 안 구웠습니다.)

104026 #5 소까이 간 온 때나 한 ᄒᆞᆫ 해 헷주기.(소개 간 온 때나 한 한 해 했지.)

104026 #6 그기 과짝 세완 옆이 굴뚝 ᄒᆞᆨ끔 내연.(거기 곧게 세워서 옆에 굴뚝 조금 내어서.)

104026 #5 이만이 굴뚝 내연 그렌 불 짇는디, 짇어근에 ᄆᆞᆫ딱 그거 열만허민 그거 빵 다시 고망 네완.(이만큼 굴뚝 내어서 그리론 불 때는데, 때서 모두 그거 열만하면 그거 빼서 다시 구멍 내서.)

104026 #6 막 지둘룅 헉으로 막 지둘룅 고망 막고.(막 지질러서 흙으로 막 지질러서 구멍 막고.)

104026 #5 에고.(에고.)

104026 #6 막 지둘왕 막 짐 나카부덴.(막 지질러서 막 김 날까봐.)

104026 #5 두루 헤지민 네 식어근에 ᄆᆞᆫ딱 삭아불곡.(덜 하면 내 식어서 몽땅 삭아버리고.)

104026 #4 게난 말이 읏어게? 숫 묻은 놈은 줌을 못 자고, 아방 죽은 놈은 줌을 잔다. 뭐 ᄒᆞᆫ 해에 거 어디 굴뚝 막지 안허민 오꼿 삭아분덴, 게난 아방 죽은 놈은 줌을 자고, 숫 묻은 놈은 줌을 못 잔다.(그러니까 말이 없는가? 숯 묻은 놈은 잠을 못 자고, 아버지 죽은 놈은 잠을 잔다. 뭐 한 해에 거 어디 굴뚝 막지 안하면 그만 삭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놈은 잠을 자고 숯 묻은 놈은 잠을 못 잔다.)

104027 @ 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삭다리 하레 갓당 칼싸움하고 놀고 이런 건 없잖아예?(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삭정이 하러 갔다가 칼싸움하고 놀고 이런 건 없잖아요?)

104027 #1 그런 거 허레 강 칼싸움은 어떵 칼싸움은 그 우리 왜정 때에 우리 키 정도 뭰 소나무 그 우에 나가민 이정도 일년생이 크거든. 게면은 학생덜이 그걸 짤라 가지고 가운딜로 요렇게 칼로 끊엉, 요딘 ᄆᆞ작 안으로 끊고 요건 ᄆᆞ작 바깟딜로 손잡을 만큼 허곡, 칼자루 모냥으로 요긴 ᄆᆞ작 있는디 올로 요렇게 칼로 그쳐서 마께로 독독허게 봄에 봄에베뀐 안 뒈어. 물 올른 때 가을이 되면은 안 되거든. 독독 두드려서 이렇게 허면은 쏙 빠지면은 이것이 일본 놈, 일본도 모양으로 헤서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허고.(그런 거 하러 가서 칼싸움은 어떻게 칼싸움은 그 우리 왜정 때에 우리 키 정도 된 소나무 그 위에 나가면 이정도 일년생이 크거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걸 잘라가지고 가운데로 요렇게 칼로 끊어서, 요긴 마디 안으로 끊고 요건 마디 밖으로 손잡을 만큼 하고, 칼자루 모양으로 요긴 마디 있는 데 여기

로 이렇게 칼로 잘라서 방망이로 독독하게 봄에, 봄에밖에 안 돼. 물오를 때 가을이 되면 안 되거든. 독독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쏙 빠지면 이것이 일본 놈, 일본도 모양으로 해서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하고.)

104027 #6 그거주기게. 그거 낭가젱이 돋은 거 헤영 그레 걸렁 ᄃᆞᆼ경 그거 탁 꺼거지민 사람도 헤뜩 갈라지고, 낭도 꺼꺼지고.(그거지. 그거 나뭇가지 돋은 거 해서 그리로 걸려서 당겨서 그거 탁 꺾어지면 사람도 해뜩 갈라지고, 나무도 꺾어지고.)

104027 #4 그때 낭도 하지 안 헷수다게. 낭밧이 엇어.(그때 나무도 많지 안 했습니다. 나무밭이 없어.)

104027 #6 게난 낭은 경 떼엇어게? 검질로 뗏주.(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땠어? 검불로 땠지.)

104027 #4 검질로만 네가 팡팡.(검불로만 내가 팡팡.)

104027 #5 느나읏이 무신거 질것 불만 솜앙 살아노난 굴묵 짇고 그거 허고.(너 나없이 무엇 질것 불만 때서 살아놓으니깐 '굴묵' 때고 그거 하고.)

104027 #4 집안이도 네가 솜빡.(집안에도 내가 가득.)

104027 #6 ᄆᆞᆫ지도 솜빡.(먼지도 가득.)

사냥

104028 @ 이번에는예. 사농? 사농? 꿩 사농에 대혜 말씀혜 주십시오. 노루 사농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이번에는요. 사냥? 사냥? 꿩 사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노루 사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4028 #1 사농, 요즘은 그런 가 노루 사농 꿩 사농 지달이 사농, 총으로 노루 허곡 군부대에서 빌려오고, 지서에서 빌련 다녔고, 쪼금 엽총 노루 사농.(사냥, 요즘은 그런 가 노루 사냥, 꿩 사냥, 오소리 사냥, 총으로 노루하고 군부대에서 빌려오고, 지서에서 빌려서 다녔고, 조금 엽총 노루 사냥.)

104028 @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잇습니까? 사농, 사농.(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냥, 사냥)

104028 #3 무시거?(무엇?)

104028 @ 사농, 사농바치.(사냥, 사냥꾼.)

104028 #3 아, 사냥.(아, 사냥.)

104028 @ 사농.(사냥.)

104028 #3 사냥 그, 우리 요새는 뭐 그런, 아니, 요즘은 그런 사냥 허지도 않고 무신거, 허는 디 그전에는 노루 사냥.(사냥 그, 우리 요새는 뭐 그런, 아니, 요즘은 그런 사냥 하지도 않고 무엇, 하는데 그전에는 노루 사냥.)

104028 @ 노루 사냥.(노루 사냥.)

104028 #3 꿩 사냥.(꿩 사냥.)

104028 @ 꿩 사냥.(꿩 사냥.)

104028 #3 이제 또 지다리, 지다리 사냥.(이제 또 오소리, 오소리 사냥.)

104028 @ 지다리 사냥.(오소리 사냥.)

104028 #3 그 그런 뭐 종네기덜인디 우리가 이디서 그 사냥 헤근에 뭐 총으로 사냥 허는 건 주로 노루엿고.(그 그런 뭐 종자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사냥 해서 뭐 총으로 사냥 하는 건 주로 노루였고.)

104028 @ 예.(예.)

104028 #5 사농, 그건 이디 흔시 안허난 몰라 건.(사냥, 그건 여기 '한시' 안하니까 몰라 건.)

104029 @ 꿩은마씨? 꿩코 놩은에.(꿩은요? '꿩코' 놔서.)

104029 #1 꿩은 꿩이.(꿩은 꿩이.)

104029 @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4029 #1 중간에 그 가느다란 철사가 전선이 일본놈의 전선은 가느다란 전선이 있어. 그놈 있을 때는 그거를 껍데기 벳겨둥은에 꿩코를 놔가지고 이제 꿩질이 잇어. 이 새 비기 이전 ᄀᆞ튼 디 밀림지대에 영 가면은 그 풀이 이렇게 잇는디 겨울에 듯인 딜로 꿩질이 잇어. 꿩질에다가 코 놔두민 글로 넘어가는 놈은 백 프로 걸리거든. 게니까 아이덜이 전문으로 허는 아이덜이 잇엇고, 게서 여러 개 걸린 때는 ᄑᆞ는 아이덜도 잇고 그렇게 헷고.(중간에 그 가느다란 철사가 전선이 일본놈의 전선은 가느다란 전선이 있어. 그놈 있을 때는 그거를 껍데기 벗겨둬서 '꿩코'를 놔가지고 이제 '꿩길'이 있어. 이 띠 베기 이전 같은 데 밀림지대에 이렇게 가면은 그 풀이 이렇게 있는데 겨울에 따뜻한 데로 '꿩길'이 있어. '꿩길'에다가 고 놔두면 글로 넘어가는 놈은 백 프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문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개 걸린 때는 파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했고.)

104029 #3 조금 무싱거 헹은에 그 헌 사람덜은 엽총, 이제 꿩 총 그 사탄총 그걸로 헤근에 노루 사냥도 주로 헷는디 잇엇고 헌디, 주로 이 우리 촌에서 꿩 사냥은 코, 코, 꿩 코, 코 놔가지고.(조금 무엇 해서 그 한 사람들은 엽총, 이제 꿩 총 그 '사탄총' 그걸로 해서 노루 사냥도 주로 했는데 있었고 한데, 주로 이 우리 촌에서 꿩 사냥은 올가미, 올가미, '꿩코', 올가미 놓아가지고.)

104029 @ 아아.(아아.)

104029 #3 코 놔가지고.(올가미 놔가지고.)

104029 @ 코예? 꿩코예?(올가미요? '꿩코'요?)

104029 #3 응. 코 놔가지고 그 저 야개기 걸렁 죽는 거. 그거.(응. 올가미 놔가지고 그 저 모가지 걸려서 죽는 거. 그거.)

104029 @ 많이 헤봣수과?(많이 해봤습니까?)

104029 #3 난 그거 안 헤 봣는디 우리 ᄉᆞ촌, 이제 돌아가 불엇수다만은 ᄉᆞ촌. 그 ᄒᆞ루, 겨울 이제 이때부터 꿩코 놓기 시작허여.(난 그거 안 해 봤는데 우리 사촌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만 사촌 그 하루 겨울 이제 이때부터 '꿩코' 놓기 시작해.)

104029 @ 아아.(아아.)

104029 #3 경 헹은에 음력 십일월들, 음력 십일월들에 우리 집안에 그 제사가

많은디 그놈아 살아잇을 적에는 그 꿩, 꿩으로 헤근에 젓갈 헷주. 이 저 뚠 고기 사보질 안 허연.(그렇게 해서 음력 십일월, 음력 십일월에 우리 집안에 그 제사가 많은데 그놈이 살아있을 적에는 그 꿩, 꿩 해서 적 했지. 이 저 딴 고기 사보질 안했어.)

104029 @ 꿩으로 적갈.(꿩으로 적.)

104029 #3 적갈허젠 게난 그 날ᄀᆞ라 형님 혼번 그 저 꿩코 노레 글렌 허길레 간 완헌디 아이 간완 헌디 ᄀᆞ치 가근에 꼭같은 그놈의 새끼 코에는 드는디, 나 코에는 전혀 들지 안허여.(적하려고 그러니까 그 날보고 형님 한번 그 저 '꿩코' 놓으라고 가자고 해서 가서 오고했는데 아니 가와서 했는데 같이 가서 똑같은 그놈의 새끼 올가미에는 드는데, 내 올가미에는 전혀 들지 않아.)

104029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29 #3 아이고 이거 나 당추 안 허켜. 아이고, ᄀᆞ치 뎅깁서. 뎅깁서. 허는디 요거는 나신디 벗 허젠, 벗을 헐라고 ᄀᆞ치 그릅서! 그릅서! 헌 거. 아이고 경 허당 나 코에 하나가 장끼가 하나, 딱 장꿩이 하나 들엇는디 간 급헌 바람에 확 심엉 좁아 뎅기당 그 줄로 헹은에 나 손도 끈어나고.(아이고 이거 당최 안 하겠다. 아이고, 같이 다니십시오. 다니십시오. 하는데 요거는 나에게 벗 하려고 벗을 하려고 같이 가세요! 가세요! 한 거.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내 올가미에 하나가 장끼가 하나, 딱 장끼가 하나 들었는데 가서 급한 바람에 확 잡아 다니다가 그 줄로 해서 내 손도 끊었었고.)

104029 @ 아이고.(아이고.)

104029 #3 겨난 그디 오래간만이 하도 반가운 바랑에 확 강 심엉 좁아 뎅기니까 그놈의 짓게 손을 몰착 끈차놩.(그러니까 거기 오래간만에 너무 반가운 바람에 확 가서 잡아서 잡아 다니니까 그놈의 것이 손을 뭉뚝 끊어놓아서.)

104029 @ 하.(하.)

104029 #3 거 천천이 헐 거주. 무사 경 바쁘게, 무사 경.(거 천천히 할 거지. 왜 그렇게 바쁘게, 왜 그렇게.)

104029 @ 멧 살 때 얘기마씨? 거는. 아이고 참.(몇 살 때 얘기예요? 거는. 아이고 참.)

104029 #3 중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때ᄁᆞ장 그거 헷주기.(중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했지.)

104029 @ 어머니 뭐 헷겟다예? 병원은 안 가고예?(어머니 뭐 했겠네요? 병원은 안 가고요?)

104029 #3 그때 병원이 가젠 허민 어디.(그때 병원에 가려고 하면 어디.)

104029 @ 춤말 재미잇다예.(정말 재미있네요.)

104030 @ 노루 사농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노루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0 #3 엽총 그걸로.(엽총 그걸로.)

104030 @ 예. 총, 총은 어디서 나마씨?(예. 총, 총은 어디서 나요?)

104030 #3 총은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저 이디 노루 사냥 데닐 때는 그 저 모슬포 군부대에 강도 빌려오고 또 경 안허민 지서, 지서 강 빌려다가 노루 쏘아지면 고기 갖다 주고 무신거 헹은에 빌렁 다녓고.(총은 그때 당시에는 이 저 여기 노루 사냥 다닐 때는 모슬포 군부대에 가서도 빌려오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지서, 지서 가서 빌려다가 노루 쏘아지면 고기 갖다 주고 무엇 해서 빌려서 다녔고.)

104031 @ 지다리 사농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오소리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1 #1 지다리 사농은 그것도 유전성이 잇어야 뒈어. 지다리라고 헌 놈이 들굽날굽헌다고 허는디, 급허면은 구멍에 들어가서 막은창에도 들어갈 수 있주만은 지다리 원질로 사는 디는, 들어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피헐라고 나가는 비상구가 잇어. 거 잇젠 허고게. 지다리 사농 가는 사람은 아그랑작쉬라고 가지고 다녀야 뒈. 개가 개 사농개가 요런 디 와서 엉둥이 디밀고 이렇게 하면은 벨놈이 개도 덤벼들지 못헌다는 거여. 그때는 아그랑작쉬를 쓴다는 거야. 아그랑작쉬는 뭐냐 허민 몽둥이 흔 발 지러기헌 거 이만이 헌 거 헤서 가서 깍 누르뜨면은 그때는 개가 탁 달라들어서 물어서 헤 제끼거든.(오소리 사냥은 그것도 유전성이 있어야 돼. 오소리라고 한 놈이 들락날락한다고 하는데, 급하면 구멍에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오소리 원질로 사는 데는, 들어가면 상황에 따라서 피하려고 나가는 비상구가 있어. 거 있다고 하고. 오소리 사냥 가는 사람은 '아그랑작쉬'라고 가지고 다녀야 돼. 개가 개 사냥개가 요런 데 와서 엉덩이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 별놈의 개도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야. 그때는 '아그랑작쉬'를 쓴다는 거야. '아그랑작쉬'는 뭐냐 하면 몽둥이 한발 길이 한 거 이만큼 한 그거 해서 가서 꽉 누르면 그때는 개가 딱 달려들어 물어서 해 젖히거든.)

104031 @ 브이 자로 된 거 영.(브이 자로 된 거 이렇게.)

104031 #1 응. 콱허게 아그랑작쉬라고 헤서 지다리는 이 앞발, 이빨이 무서운 거거든.(응. 콱하게 '아그랑작쉬'라고 해서 오소리는 이 앞발, 이빨이 무서운 거거든.)

104031 @ 지다리예.(오소리요.)

104031 #1 게서 엉둥이를 요렇게 디물고 이렇게 허면은 못 덤벼든다는 거라. 게서 지다리는 개가 탁 달라부틀 때 혼번 이걸로 콥 이렇게 세와 놓고 치면은 겁나서 덤벼들지 못헌다고 허거든. 게서 개가 주인 있으니까니 딱헤서 캉캉 주끄면은 뭐허민 돌아나지 못 허고 ᄀᆞ만이 잇을 때는 아그랑작쉬를 콱 누르떠. 게서 잡는다고 허고.(그래서 엉덩이를 요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하면 못 덤벼든다는 거야. 그래서 오소리는 개가 탁 달라붙을 때 한번 이걸로 톱 이렇게 세워 놓고 치면 겁나서 덤벼들지 못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개가 주인 있으니까 딱해서 컹컹 짖으면 뭐하면 달아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그랑작쉬'를 꽉 눌러. 그래서 잡는다고 하고.)

104031 @ 지다리예.(오소리요.)

104031 @ 지다리도?(오소리도?)

104031 #3 지다리 사냥은 안 헤봣어. 지다리 사냥은 안 헤봣는데, 우리 동네에 첨 그 어른도 돌아갓수다만은 그 사람은 지다리 사냥을 개 하나로 헤여. 게난 그 개가 열네 살 난 죽어신가? 멧 살 낭 죽엇어.(오소리 사냥은 안 해봤어. 오소리 사냥은 안 해봤는데, 우리 동네에 첨 그 어른도 돌아갔습니다만 그 사람은 오소리 사냥을 개 하나로 해. 그러니까 그 개가 열네 살 되어서 죽었는가? 몇 살 되어서 죽었어.)

104031 @ 예.(예.)

104031 #3 겐디 열 살 넘어 가난 니빨 빠져 불언.(그런데 열 살 넘어 가니까 이빨 빠져 버렸어.)

104031 @ 하하.(하하.)

104031 #3 야튼 그 지다리 구멍에 강 들이치민 그놈의 갠 들어강 꼭 그걸 물엉 나왓으니까.(하여튼 그 오소리 구멍에 가서 들이밀면 그놈의 갠 들어가서 꼭 그걸 물어서 나왔으니까.)

104032 @ 아아, 그렇게 잡앗구나. 사냥개예?(아아, 그렇게 잡았구나. 사냥개요?)

104031 #3 예.(예.)

104032 @ 쪽제비덧? 사농에 대한 추억 경험? 사농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농헐 때 뭘 잡읍니까?(족제비덫? 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 사냥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냥할 때 뭘 잡습니까?)

104032 #1 나는 그것에 대헤서는 족제비. 족제비덫이라고 헤서.(나는 그것에 대헤서는 족제비. 족제비덫이라고 해.)

104032 @ 예.(예.)

104032 #1 어,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어,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104032 @ 아.(아.)

104032 #1 족제비는 어딜로 다니느냐?(족제비는 어디로 다니느냐?)

104032 @ 헤헤.(헤헤.)

104032 #1 물로 다녀.(물로 다녀.)

104032 @ 아아.(아아.)

104032 #1 물, 물질로.(물, 물길로.)

104032 @ 물질로.(물길로.)

104032 #1 큰비가 왓을 때는 물 흐르는 디는 그 잣 구멍이 많아. 그런 그 물 흐르는 근처에는 물을 방지허기 위해서 돌담을 너르게 쌓아가지고 쭉 허게 헤서 물이 천천이 넘어가도 저펜 밧더레 자락 넘어강 흙 끗어 불지 안 허게 그런 뭐가 잇으니까 둣이고 홈진 부분으로 그 족제비가 가니까 그런 부분에 족제비 덧을 노면은 나도 ᄒᆞ루 ᄉᆡ 개썩은 잡아낫어. 그 당시에는 족제비 받으레 댕기는 사람이 잇어. 게서 그거는 경험이 잇고.(큰비가 왔을 때는 물 흐르는 데는 그 성 구멍이 많아. 그런 그 물 흐르는 근처에는 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담을 넓게 쌓아가지고 쭉 하게 해서

물이 천천히 지나가도 저편 밭에 '자락' 넘어가서 흙 끌어버리지 않게 그런 뭐가 있으니까 따뜻하고 홈진 부분으로 그 족제비가 가니까 그런 부분에 족제비덫을 놓으면 나도 하루 세 개씩은 잡았었어. 그 당시에는 족제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경험이 있고.)

104032 @ 족제비덧?(족제비덫?)

104032 #3 족덧도 우리 잘 놔십주. 족덫. 일 년에 족제비 잡아근에 족 흔 ᄆᆞ리 허면은 그 헤헤, 사탕값도 벌멍. 족 덫도 ᄋᆞ라 반디 놔나고.(족제비덫도 우리 잘 놨었습죠. 족제비덫. 일 년에 족제비 잡아서 족제비 한 마리 하면 그 헤헤, 사탕값도 벌면서 족제비덫도 여러 군데 놨었고.)

104032 @ 삼춘도 해봔마씨?(삼촌도 해봤어요?)

104032 #3 나도 그디저디 놨는데 ᄋᆞ라 반디 놔난. 바로 그 우리 집 마당 안에서 그쟈 족 놘, 족덧 놘, 거 멧 마리? ᄋᆞ라 마리 잡앗어. 견디 족도 그 족제비도 이 봄 나근에 털갈이 헐 때는 안 뒈고, 그쟈 이 겨울 들어강 이루후에 흔 음력 시월, 음력 시월들 나근에 족덧 놔근에 허게 뒈면은.(나도 거기저기 놨는데 여러 군데 놨었어. 바로 그 우리 집 마당 안에서 그저 족제비 놔서, 족제비덫 놔서, 거 몇 마리? 여러 마리 잡았어. 그런데 족제비도 그 족제비도 이 봄 돼서 털갈이 할 때는 안 되고, 그저 이 겨울 들어가서 이 이후에 한 음력 시월, 음력 시월 되어서 족제비덫 놔서 하게 되면.)

104032 @ 털이 고운가 보다예. 거 풀아마씨? 오일장? 사는 사람이 잇어?(털이 고운가 보네요. 거 팔아요? 오일장? 사는 사람이 있어?)

104032 #3 어. 그 족덧, 그때는 족제비털이, 그 견디 족제비도 그게 색깔이 여러 가지라. 검시구룽헌 거. 검은, 완전 검은 거는 엇는디 그냥 검시룽 희우룽헌 거 잇고 검시룽헌 거 거 잇고, 빨강케 아주 색깔 고운 거 잇고 헌데, 빨강케 고운 거는 거는 돈을 더 주고, 희우룽헌 거나 검시근 헌 거는 건 돈을 덜 주고 영 헨. 거 춤, 우리 어렷을 적에는 들에 나강 여기 이제는 들에 나강 그런 거 타먹으렌 헤도 안 먹는데 졸겡이 타먹으레 뭐 이 저 거 뭐냐? 이 폭 타먹으레 졸겡이영 뭐영 이 무신.(어. 그 족제비덫, 그때는 족제비털이, 그 그런데 족제비도 그게 색깔이 여러 가지야. 거무스름한 거. 검은, 완전 검은 거는 없는데 그냥 거무스름 '희우룽한' 거 있고, 거무스름한 거 거 있고, 빨갛게 아주 색깔 고운 거 있고 한데, 빨갛게 고운 거는 거는 돈을 더 주고, '희우룽헌' 거나 거무스름한 거는 건 돈을 덜 주고 이렇게 했어, 거 참 우리 어렸을 적에는 들에 나가서 이제는 들에 나가서 그런 거 따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으름 따먹으러 저 거 뭐냐? 이 팽 타먹으러 으름이랑 뭐랑 이 무슨.)

104032 @ 삼동.(상동.)

104032 #3 삼동, 지금도 삼동은 건 아주 좋은 거라예. 삼동.(상동 지금도 상동은 건 아주 좋은 거지요. 상동.)

104032 @ 탈.(산딸기)

104032 #3 탈 ᄀᆞ튼 거. 예. 그런 것만 주로 우리 어린 때는 그 참, 그 간식이 바로 그거라시니까.(산딸기 같은 거. 예. 그런 것만 주로 우리 어릴 때는 그 참, 그 간식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104032 #5 덫 멘들아근에 궤기나 영.(덫 만들어서 고기나 이렇게.)

104032 #6 요추룩 헌 가젱이 헹 ᄋᆞ깐, ᄋᆞ깡은에 이 안에 거 저 무신거 궤기 둘아메근에 영 강 놔뒷당, 그거 궤기 강 톡 튿아먹으민, 그거 탁 멜라졍.(요처럼 한 가지 해서 엮어서, 엮어서 이 안에 거 저 무엇 고기 달아매서 이렇게 가서 놔뒀다가, 그거 고기 가서 톡 뜯어먹으면, 그거 탁 무너져서.)

104032 #5 이제 족제비도 잘 못 봐. 옛날은 그 족제비 잡아난 족제비.(이제 족제비도 잘 못 봐. 옛날은 그 족제비 잡았던 족제비.)

104033 @ 다른 거는 뭐예. 멧돼지나 노루 이런 건 안 헤 봣고예?(다른 거는 뭐요. 멧돼지나 노루는 이런 건 안 해 봤고요?)

104033 #1 제주도에는 지금 말 들어 보면은 멧돼지가 잇긴 잇는디 우리 옛날 전설에 의하면 돗순빌레가 잇고, 고분덴밧이 잇고, 돗죽은물이 잇는디 그것은 아마도 멧 백 년 전 얘기인 거 같고.(제주도에는 지금 말 들어 보면 멧돼지가 있긴 있는데 우리 옛날 전설에 의하면 '돗순빌레'가 있고, '고분덴밧'이 잇고, '돗죽은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몇 백 년 전 얘기인 거 같고.)

104033 @ 산뒈진 안봐봣고예?(산돼진 안 봐봤고요?)

104033 #1 제주도에서는 우린 멧돼진 안 봣어. 지금 한라산에 가면은 많이 신 모양이라.(제주도에서는 우린 멧돼진 안 봤어. 지금 한라산에 가면 많이 있는 모양이야.)

5. 의생활

명주

106002 @ 예. 삼촌. 옷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멩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멩주실을 만드는 과정?(예. 삼촌.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실을 만드는 과정?)

106002 #4 그거?(그거?)

106002 @ 예.(예.)

106002 #4 저 즌골레기 닮은 거 헤당 저 일곱 종제 헤당은에 일곱 종제옌 헌 거는 소미, 요마니 헌 거 일곱 종저옌 허는 거. 땡글락땡글락헌 거, 영. 영 흔 거 ᄀᆞ져당 이제 영 놔두민 그것이 이제 보골보골 보골보골 나.(저 '즌골레기' 같은 거 해다가 저 일곱 종자 해서 일곱 종자라고 한 거는 솜이, 요만큼 한 거 일곱 종자라고 하는 거.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면 그것

이 보골보골 보골보골 나.)

106002 #7 깨와.(깨워.)

106002 #4 보골보골 보골보골 나오민 이젠 그.(보골보골 보골보골 나오면 이젠 그.)

106002 #5 차롱더레덜 놔근에.(채롱으로들 놔서.)

106002 #4 저 누에 밥, 누에 밥 헤당은에 그 칼르로 막 좀질게 썰엉, 겐 영 영 영 영허민 그때는 먹으멍, 먹으멍 커. 크민 요마니, 요만이 크당, 요마니 크당 요만이 크당, 요만이 크당, 막 크민 막 이만이 커. 경허민 이제 바글바글 바글바글헤영 이젠 저 거 무싱 거 누에 밥 헤당은에 ᄎᄎᄎᄎ 크게 막 질루주기. 이젠 막 질루와 노민 이젠 이만썩 영 크민 그거 이제 심엉은에 이것이 ᄋᆞ물이 싱가? 싱가? 엇인가? 영 허당 이제 그 똥 문딱 싸불민, 문딱 싸불민 그놈을 이제 심엉은에 제지낭, 제지낭, 제지낭, 제지낭.(저 누에 밥, 누에 밥 해다가 칼로 아주 잘게 썰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때는 먹으면서, 먹으면서 커. 크면 요만큼, 요만큼 크다가 요만큼 크다가, 요만큼 크다가 아주 크면 막 이만큼 커. 그렇게 하면 이제 바글바글 바글바글해서 저 거 무슨 거 누에 밥 해다가 차차차차 이젠 막 기르지. 이젠 막 길러 놓으면 이젠 이만큼씩 이렇게 크면 그거 이제 잡아서 여물이 있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똥 모두 싸버리면, 모두 싸버리면 그놈을 이제 잡아서 '제지낭', '제지낭', '제지낭', '제지낭'.)

106002 #5 제지낭에 문딱 올령은에.('제지낭'에 모두 올려서.)

106002 #4 제지낭 저 ᄂᆞ물, ᄂᆞ물 헤난 거. 제지낭더레 이제 올리민 이젠 그 놈이 이젠 입으로 실을 네우멍 그 고치를 헤여근에 둥글락둥글락 막 곱게 멘들아. 그 놈덜이 이제 줄줄줄줄 네우멍 막 곱게 멘들민 거 ᄀᆞ져당 이젠.('제지낭' 저 나물, 나물 했던 거. '제지낭'으로 이제 올리면 이젠 그놈이 이젠 입으로 실을 내우면서 그 고치를 해서 동글동글 아주 곱게 만들어. 그놈덜이 이제 줄줄줄줄 내우면서 아주 곱게 만들면 거 가져다가 이젠.)

106002 #5 문딱 타 놩은에 이젠.(모두 타 놔서 이젠.)

106002 #4 거 쪼그만헌 솟디, 거 쪼그만헌 누에 싸 놓는 거. 쮀끄만헌 솟 헤영 그것에 꿰우멍 그 실을 이젠 할망덜이, 늙은 할망덜이 영 줴왕 영, 영 줴왕 놓곡, 영 줴왕 놓곡, 혼 바다긴 헤사 이만인 헤여.(거 조그마한 솥에, 거 조그마한 누에 싸 놓는 거. 조그마한 솥에 해서 그것에 끓이면서 그 실을 이젠 할머니들이, 늙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이렇게 쥐어서 놓고, 이렇게 쥐어 놓고, 한 바닥은 해야 이만큼 해.)

106002 #9 누에 싼 거 ᄀᆞᆯ암구나.(누에 싼 거 말하는 구나.)

106002 #5 누에 질롸난 역ᄉᆞ ᄀᆞᆯ암수다게.(누에 길렀던 역사 말하고 있습니다.)

106002 #9 아아.(아아.)

106002 @ 혼 바다기?(한 바닥?)

106002 #4 이만이 허여.(이만큼 해.)

106002 #6 버렝이로 씨 뒈영게.(벌레로 씨 돼서.)

106002 #4 경허민 이젠 그걸 헤당 놀곡 이젠 메곡 차곡 허민 이젠 멩지가 뒈어.(그렇게 하면 이젠 그걸 해다가 날고 이젠 매고 짜고 하면 이젠 명주가 돼.)

106002 #6 버렝이로 씰 빵.(벌레로 씨를 뽑아서.)

106002 #5 베클허영.(베틀해서.)

106004 @ 멩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5 도폭이여 이제 멩주로.(도포다 이제 명주로.)

106004 #4 보통은 저싱옷, 저싱 가는.(보통은 수의, 저승 가는.)

106004 #9 죽엉 갈 때 허는 도폭.(죽어서 갈 때 하는 도포.)

106004 #5 저싱 가는.(저승 가는.)

106004 @ 아아, 호상옷.(아아, 수의.)

106004 #7 응. 호상옷.(응. 수의.)

106004 #4 장옷.(장옷.)

106004 @ 장옷.(장옷.)

106004 #4 남자는 도폭.(남자는 도포.)

106004 @ 남자는 도폭.(남자는 도포.)

106004 #5 중의 적삼, 바지저고리, 치매저고리 다 그걸로.(중의 적삼,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다 그걸로.)

106004 #6 버렝이 이는 거 문딱.(벌레 이는 거 모두.)

106004 #4 멧 사람 못 허메. 엇인 사람은 못허여.(몇 사람 못 해. 없는 사람은 못해.)

106004 #6 잘사는 사람이라야 그것도 헤낫수다.(잘사는 사람이어야 그것도 했었습니다.)

106005 @ 게믄 이번에는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그러면 이번에는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5 #4 미녕은 저 밧디 강은에게 멘네씨도 삐곡, 비료도 삐곡 헹 놔두민 나주게. 나. 꼬족꼬족꼬족 나민.(무명은 저 밭에 가서 면화씨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해서 놔두면 나지. 나. 뾰족뾰족뾰족 나면.)

106005 #9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6005 #4 이젠 이거 키왕 검질메영, 이젠 키왕 영 키왕은에 커가면은, 우 막아사 헤여. 우 막아사.(이젠 이거 키워서 김매어서, 이젠 키워서 이렇게 키워서 커가면, 위 막아야 해. 위 막아야.)

106005 #5 우 막아사 으는 거.(위 막아야 여는 거.)

106005 #4 우 막아사 영 올앙.(위 막아야 이렇게 열어서.)

106005 #6 꼿도 막 이쁘게 피어.(꽃도 아주 예쁘게 피어.)

106005 #4 팔록팔록 이제 크면은 타당은에게 물레에 볼랑.('팔록팔록' 이제 크면 따다가 물레에 발라서.)

106005 #5 물리앗다 불랏다. 아이구.(말렸다 발랐다 아이구.)

106005 #4 이젠 물리영은에 이젠 타당, 그거 이젠 어디 저 기계에 강은에 태왕, 태와. 태왕.(이젠 말려서 이젠 따다가, 그거 이젠 어디 저 기계에 가서 타서, 타. 타서.)

106005 #8 씨 까왕.(씨 까서는.)

106005 #6 정 밀엉.('정' 밀어서.)

106005 #4 영, 영, 영, 정 밀엉 영, 영, 영. 이제 물레에, 바릉바릉바릉 쌍 영 착. 하하 영 영 착. 하하하하.(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레에 바릉바릉바릉 켜서 이렇게 착. 하하 이렇게 이렇게 착. 하하하하.)

106005 @ 노래도 헤낫구나예?(노래도 했었군요?)

106005 #4 헤낫지. 헤낫지. 영, 영, 영, 영, 쌍 영허민 이제 이만큼 허여. 이제는 멘주기가 이만큼 헤여. 이제민 그거 열 개.(했었지. 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만큼 해. 이제는 토리가 이만큼 해. 이제면 그거 열 개.)

106005 #5 열 개 헤영은에 뽑앙.(열 개 해서 뽑아서.)

106005 #4 뽑앙.(뽑아서.)

106005 #8 솟디.(솥에.)

106005 #4 이제 영, 영 뽑아당은에 영 놩 그거 매영 이젠 창 그거 매영.(이제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놔서 그거 매어서 이젠 짜서 그거 매어서.)

106005 #5 그거 멘만 헴시민 좋주기. 그거 헤영은에 이제 놀앙 이젠 그거 허영 다시 이젠 무싱거 영, 영, 허영 그 무싱거 허는 거 허여 뒁.(그거 매기만 하고 있으면 좋지. 그거 해서 이제 날아서 이젠 그거 해서 다시 이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뭐 하는 거 해 두고.)

106005 #6 풀 다 멕영 실 멘들앙.(풀 다 먹여서 실 만들어서.)

106005 #4 그 말 다 곧지 못합니다.(그 말 다 말하지 못합니다.)

106005 #6 에, 덜럽고 에록헤여.(에, 더럽고 '에록'해.)

106005 #4 문딱 곧지 못헙네다.(모두 말하지 못합니다.)

106005 #6 그걸로 옷 헤영 입고 실 멘들앙.(그걸로 옷 해서 입고 실 만들어서.)

106004 #7 시집감젠, 옷, 잘사는 집인 멩지치메저고리 줫젠 헤고나만은.(시집간다고, 옷, 잘사는 집엔 명주치마저고리 줬다고 하더니만.)

106005 #4 그 실 멘들아근에 경 헹 차면은 이제는 바데기 뒈는 거라. 바데기.(그 실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짜면 이제는 바닥이 되는 거야. 바닥.)

106005 #6 잘 차는 사람이라야 ᄒᆞ루 ᄒᆞᆫ 필 서른 자.(잘 짜는 사람이어야 하루 한 필 서른 자.)

106005 #5 마흔 자.(마흔 자.)

106005 #6 마흔 자?(마흔 자?)

106005 #5 마흔 자가 ᄒᆞᆫ 필이주게.(마흔 자가 한 필이지.)

106005 #4 아이고, 혼 필 못헙네다. 스무 자 찻지.(아이고, 한 필 못합니다. 스무 자 짰지.)

106005 #6 잘 차는 사람은 그거 ᄒᆞ루 혼 필 차.(잘 짜는 사람은 그거 하루 한 필 짜.)

106005 #8 아니, 멩지는 저 혼 필 절대 못짜. ᄒᆞ루 종일 헤사 다숫 자베끼 못 짜.(아니, 명주는 저 한 필 절대 못 짜. 하루 종일 해야 다섯 자밖에 못 짜.)

106005 #6 멩진 헤도 미녕은 경 차낫수다.(명주는 해도 무명은 그렇게 짰었습니다.)

106005 #8 미녕은 혼 필도 차고.(무명은 한 필도 차고.)

106005 #7 예. 미녕은 잘 허는 사람 혼 필 헤나도 멩진 경 못허여.(예. 무명은 잘 하는 사람 한 필 했어도 명준 그렇게 못해.)

106005 #4 당췌, 당췌. 스무 자도 못 차.(당최, 당최. 스무 자도 못 짜.)

106005 #6 버렝이로 실 멩들앙게 아이구, 덜러와.(벌레로 실 만들어서 아이구, 더러워.)

106005 #4 멩지, 멩지 얼매나 좀지카부덴.(명주, 명주 얼마나 잘까봐.)

106005 #7 예. 좀진 거난 경 못헙니다.(예. 잔잔한 거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106005 #4 당췌, 멩지, 멩지 얼매나 좀지카부덴.(당최, 명주, 명주 얼마나 잘까봐.)

106005 #9 누에 밥헤영 주로 멕연.(누에 밥해서 주로 먹여서.)

106005 #7 우리 어릴 때엔 멩지는 안 헤봐보고, 미녕, 멘네 헤여근에.(우리 어릴 때엔 명주는 안 해봤었고, 무명, 면화 해서.)

106005 #6 버렝이로 씨를 멩들아 노니까.(벌레로 씨를 만들어 놓으니까.)

106005 #7 멘네 헹은에 우리 어멍, 미녕 싀 필씩 헨 풀아낫수다게.(면화 해서 우리 어머니, 무명 세 필씩 해서 팔았었습니다.)

106005 #4 나 씨어멍 멩지 차단 놔두시킷테 못허여고. 못허여.(내 시어머니 명주 짜다가 놔뒀는데 못했어. 못했어.)

106005 #7 아아, 형님네 연걸이라도.(아아, 형님네 연배라도.)

106005 #4 예.(예.)

106005 @ 삼촌 성함이 김○○?(삼촌 성함이 김○○?)

106005 #6 나가 김○○이우다.(내가 김○○입니다.)

106005 #5 이 어른이 김○○.(이 어른이 김○○.)

106005 @ 아까 여기는?(아까 여기는?)

106005 #7 강○○.(강○○.)

106005 @ 아아.(아아.)

106005 #7 이 중에 나가 제일 어려.(이 중에 내가 제일 어려.)

106005 @ 일름 헷갈리쿠다게.(이름 헷갈리겠어요.)

106005 #7 질루 어려.(제일 어려.)

106005 @ 예.(예.)

106005 #9 옛날에사 옷 읏언 막 얼멍 살앗수게. 막 얼언.(옛날에야 옷 없어서 아주 추우면서 살았어요. 아주 추워서.)

106005 #4 영 들르민 이디 술 다.(이렇게 들면 여기 살 다.)

106005 #9 내의가 어디 셔? 내의가 안 입엉 살안.(내의가 어디 있어? 내의가 안 입어서 살았어.)

106006 @ 누에치기에 대헤서 누에치기?(누에치기에 대해서 누에치기?)

106005 #4 뭣?(뭣?)

106005 #5 누에, 누에.(누에, 누에.)

106006 @ 고치? 누에고치?(고치? 누에고치?)

106005 #5 누에고치 멘들앙. 거기서. 솟에 놩 솖앙 뽑앙은에. 바릉바릉 뽑으멍.(누에고치 만들어서. 거기서. 솥에 넣어서 삶아서 뽑아서. 바릉바릉 뽑으면서.)

106005 #4 아, 누에고치?(아, 누에고치?)

106006 #6 누에고치. 거 벌거지를 질루민 누에고치가 됍니다게. 크민 막 크민 그게 벌거지가 누에를 멘들아.(누에고치. 거 벌레를 기르면 누에고치가 됩니다. 크면 아주 크면 그게 벌레가 누에를 만들어.)

106005 #9 한라산에 씨.(한라산에 씨.)

106006 #6 ᄀᆞ만 ᄎᆞ례로 ᄀᆞᆯ읍서. 경 거꾸로 가지 말앙.(그만 차례로 말하세요. 그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106006 #4 입으로 씨를 멘들아.(입으로 씨를 만들어.)

106006 #6 응. 벌거지 크게 질루왕 저레 무신 나무에 저 저 유채나무에 올리민 그게 씨를 멘들아.(응. 벌레 크게 길러서 저기 무슨 나무에 저 저 유채나무에 올리면 그게 씨를 만들어.)

106006 #4 입으로 씰 네왕.(입으로 실 내서.)

106006 #6 응, 실 네왕 그거 영, 영 벌거지가 고치라 헌 걸 멘들앙.(응, 실 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벌레가 고치라 한 걸 만들어서.)

106005 #9 옛날엔 이런 것도 엇언 살앗어. 못 먹지.(옛날엔 이런 것도 없어서 살았어. 못 먹지.)

106006 #6 ᄀᆞ만 이십서. 경 헤연 그 벌거지가 고치라 헌 걸 멘들앙, 그걸로 많이 헤놩 우리가 솖앙 그걸 뽑아내영 이제 뭣드레 막 감앙, 감앙은에.(가만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그 벌레가 고치라 한 걸 만들어서, 그걸로 많이 해놔서 우리가 삶아서 그걸 뽑아내서 이제 뭣에 막 감아서, 감아서.)

106005 #4 멩주실을 둥글락허게 멘들아.(명주실을 동그랗게 만들어.)

106006 #6 멩주실을 둥글락허게 멘들아 놩, 그걸 ᄃᆞ시 베클에 놩 그걸 ᄃᆞ시 자 멘들앙 놩 저 베클로 짜, 짜민 그거 멩진 ᄒᆞ루 멧 자씩 못헤낫수다.(명주실을 동그랗게 만들어 놔서, 그걸 또 베틀에 놔서 그걸 다시 자 만들어 놔서 베틀로 짜, 짜면 그거 명준 하루 몇 자씩 못했었습니다.)

106006 #7 좀진 거난게 경.(자잘한 거니까 그렇게.)
106006 @ 여긴 뽕나무가 어디 셩 그추룩 누에를 헷수과?(여기 뽕나무가 어디 있어서 그처럼 누에를 했습니까?)
106006 #6 많이 질롸낫수다.(많이 길렀었습니다.)
106006 #5 고지 강, 고지 강 막.(숲에 가서, 숲에 가서. 막.)
106006 #7 집마다 그 뽕나무 길루왕(집마다 그 뽕나무 길러서.)
106006 @ 아아.(아아.)
106006 #8 질루는 디가 어디 싯수과?(기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6006 @ 청수에도 많이 헷수과? 청수에도 많이 허연?(청수에도 많이 했습니까? 청수에도 많이 했어요?)
106006 #7 옛날 노인네 다 다 헷젠.(옛날 노인네 다 다 했다고.)
106006 #6 청수선 많이 안 헤낫어.(청수는 많이 안 했었어.)
106006 #4 겐디 고급은 멩지베끼 없어. 고급 원단이 멩지베끼 없어.(그런데 고급은 명주밖에 없어. 고급 원단이 명주밖에 없어.)

무명

106007 @ 게믄예 무명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무명? 뭐 토목, 생목, 광목, 닷새무명, 엿새무명, 으덟새무명, 미녕에 대헤서.(그러면요 무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명? 뭐 토목, 생목, 광목, '다섯새무명', 엿새무명, 여덟 새무명, 무명에 대해서.)
106007 #7 아, 미녕은 멘네로 헌 거 미녕.(아, 무명은 면화로 한 거 무명.)
106007 @ 예.(예.)
106007 #5 저 무싱거옌 허느니? 일곱새가 제일 좀지라낫어, 우리 할 때.(저 무슨 거라고 하느니? 일곱새가 제일 가늘었었어, 우리 할 때.)
106007 #7 이건 멩지. 여기서 누에 헤영 허는 건 멩지.(이건 명주. 여기서 누에 해서 하는 건 명주.)
106007 #4 옛날은 미녕 아니민 입어볼 게 엇입니께게.(옛날은 무명 아니면 입어볼 게 없습니다.)
106008 @ 미녕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8 #6 중의적삼게.(중의적삼.)
106008 #8 갈옷.(갈옷.)
106008 #4 갈중이영 갈적삼이영.('갈중이'랑 '갈적삼'이랑.)
106008 #5 바지저고리영 다 멘들앗주.(바지저고리랑 다 만들었지.)
106008 #8 다 미녕.(다 무명.)
106008 #4 보선이영.(버선이랑.)
106008 #6 감 딜영 감옷을 헷수게. 감옷.(감 들여서 '감옷'을 했습니다. '감옷'.)
106008 #8 물딜영 옷 헤주곡.(물들여서 옷 해주고.)

106008 #7 아니, 감 안 들영 그쟈 검은물도 들이고, 양복 허곡.(아니, 감 안 들여서 그저 검은물 들이고, 양복 하고.)

106008 #4 검은물 들영양. 이제 일 년에 몸빼.(검은물 들여서요, 이제 일 년에 몸빼.)

106008 #6 우이옷도 허곡 아래 것도 허곡 또 어디 고급 옷을 만들앙 허젠 허민 검은물도 들이곡 또 저 뭐 다른 색깔도 딜영, 그걸로 옷 멘들앙 입으민, 그걸 고급 옷으로 어디 갈 땐 입엉 가곡.(윗옷도 하고 아래 것도 하고 또 어디 고급 옷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검은물도 들이고 또 저 뭐 다른 색깔도 들여서, 그걸로 옷 만들어서 입으면, 그걸 고급 옷으로 어디 갈 땐 입어서 가고.)

106009 @ 그믄 토목으로, 토목 들어봣수과?(그러면 토목으로, 토목 들어봤습니까?)

106009 #5 토목이 그거라, 미녕.(토목이 그거야, 무명.)

106009 #7 토목이 이제 미녕.(토목이 이제 무명.)

106009 #4 아, 토목. 토목이 미녕이주기.(아, 토목. 토목이 무명이지.)

106010 @ 그믄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광목하곡 미녕이 틀려마씨?(그러면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광목하고 무명이 달라요?)

106010 #7 예예. 아이고, 틀리당도 버치주.(예예. 아이고, 다르다가도 부치지.)

106010 #5 예. 광목이 너베기가 이렇게 너븐 거고, 미녕은 너베기 요멘이베끼 안 헌거지.(예. 광목이 넓이가 이렇게 넓은 거고, 무명은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한 거지.)

106010 #4 광목사 이디서 헷수과게?(광목이야 여기서 했습니까?)

106010 #7 예. 광목은 육지서 나오고.(예. 광목은 육지서 나오고.)

106010 #5 광목은 이디서 안헷어. 육지서만 기계로 짠 거지.(광목은 여기서 안 했어. 육지서만 기계로 짠 거주.)

106010 #4 제주도 기술은 미녕뿐, 미녕뿐.(제주도 기술은 무명뿐, 무명뿐.)

106010 #7 미녕, 멩지.(무명, 명주.)

106010 @ 제주도는 미녕뿐?(제주도는 무명뿐?)

106010 #5 예. 옛날은 미녕만 헷수게.(예. 옛날은 무명만 했습니다.)

106009 #7 미녕허고 멩지.(무명하고 명주.)

106010 #5 멩지나 ᄒᆞ는 사람은 멩지허곡 미녕이나 헷주. 이디선 광목이옌 헌 건 일절 읏어난. 이딘 육지로 나온 거.(명주나 하는 사람은 명주하고 무명이나 했지. 여기선 광목이라고 한 건 일절 없었어. 여긴 육지로 나온 거.)

106010 #4 이 제주도선 광목 못 입언.(이 제주도선 광목 못 입었어.)

106010 #5 육지서 회사로 헤서 나왓주, 무신.(육지서 회사로 해서 나왔지, 무슨.)

106010 #7 저 모멘, 모멘은 이제 저 옹포, 옹포 모멘 공장 있으니까 옹포에서 미녕, 모멘 공장덜허연 모멘덜은 이제 옹포서 모멘 공장 셔나고.(저 목면, 목면은

이제 저 옹포, 옹포 목면 공장 있으니까 옹포에서 무명, 목면 공장들 해서 목면들은 이제 옹포에서 목면 공장 있었었고.)

106010 #4 건 요적이게.(건 요전에.)

106011 @ 홍세미녕[111]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홍세미녕? 들어봣수과?('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세미녕'? 들어봤습니까?)

106011 #5 홍세? 홍세미녕은 새시방, 새각시 시집갈 때, 홍세 놔주는 거 시집이서.(홍세? '홍세미녕'은 새신랑, 새색시 시집갈 때, '홍세' 놔주는 거 시집에서.)

106011 #7 츰, 그거 미녕 곱게 짜근에 읏새목이옌 허나? 막 즘질게.(참, 그거 무명 곱게 짜서 엿새목이라고 하나? 아주 잘게.)

106011 #5 일곱세미녕이나 읏세미녕이나 헤영.(일곱새무명이나 엿새무명이나 해서.)

106011 #4 뒈나마나 읏새가 보통.(되나마나 엿새가 보통.)

106011 #5 예. 그걸로 홍세 놔줫주기게. 일곱세.(예. 그걸로 '홍세' 놔줬지. 일곱새.)

106011 #6 일곱센 막 즘지롱헌 거.(일곱샌 아주 가는 거.)

106011 #7 예. 건 경허연 곱게 짱.(예. 건 그렇게 해서 곱게 짜서.)

106011 #4 경 헨 두 개 헹 ᄀᆞ찡ᄒᆞ게 놔근에 헹 함에 담앙.(그렇게 해서 두 개 해서 가지런히 놔서 해서 함에 담아서.)

106011 #5 함에 담앙, 그래 저 거 무싱거옌 ᄀᆞᆫ느니? 함 씨고 함이라고 글 써 놓곡 헹 그레 ᄋᆞ정강.(함에 담아서, 그래 저 거 무슨 거라고 말하느냐? 함 쓰고 함이라고 글 써 넣고 해서 그리로 가져가서.)

106011 #8 미녕이 아니라 비단이라.(무명이 아니라 비단이야.)

106011 #5 그땐 비단.(그땐 비단.)

106011 #4 경 헤연 거 미녕 트멍에 거 무싱 거 예장 썽, 예장 썽은에 그 우트레 더껑, 경 헨 드려낫주기.(그렇게 해서 거 무명 틈에 거 무슨 거 예장 써서, 예장 써서 그 위에 덮어서, 그렇게 해서 드렸었지.)

106012 @ 목화 용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멘네 용시?(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면화 농사?)

106012 #5 멘네게. 멘네씨 헤영.(면화, 면화씨 해서.)

106012 #6 밧디 가 갈앙.(밭에 가 갈아서.)

106012 #5 무싱거옌 허느니? 옛날은 그 멘네도 쉐똥 허연 쉐똥 헹 부비연에 다시 불치에 부비곡 헤연에 뿌려낫어.(뭐라고 하니? 옛날은 그 면화도 소똥 해서 소똥 해서 비벼서 다시 재에 비비고 해서 뿌렸었어.)

106012 #6 밧디 가 갈앙, 씨 갈앙, 그건 비료가 안 나니까 그건 걸게 험으로 쉐똥 헹 부비고, 불치 헤영 ᄉᆞ뭇 버부령은에 그거 갈앙 네왕, 걸 키왕.(밭에 가 갈아서, 씨 갈아서, 그건 비료가 안 나니까 그건 걸게 함으로 소똥 해서 비비고, 재 해

111) '홍세미녕'은 혼인날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함에 담은 무명이다.

서 사뭇 버무려서 그거 갈아서 내워서, 걸 키워서.)

106012 #5 검질메영.(김매서.)

106012 #4 게민 요멘썩 체음은 나.(그러면 요만큼씩 처음은 나.)

106012 #6 그거 이만이 크민.(그거 이만큼 크면.)

106012 #7 도레기 메영.(다래 매서.)

106012 #6 우이 톡톡 그차뒁 그 도레기가 많이 저 만들기 위헤서 우인 그차불어.(위에 톡톡 끊어두고 그 다래가 많이 저 만들기 위해서 위엔 끊어버려.)

106012 #5 ᄃᆞ레기 메는 것도 저 알로 ᄒᆞᆫ 멧 개, 그쟈 우 막아사 허주. 고장 피젠 낭이 이만이 헷젠 강 우 막으민, 젖 순만 남앙 생전 ᄃᆞ래 안 여는 거랑게.(다래 매는 것도 저 아래로 한 몇 개, 그저 위 막아야 하지. 꽃 피려고 나무가 이만큼 했다고 가서 위 막으면, 젖 순만 남아서 생전 다래 안 여는 거던데.)

106012 #9 그 멘네 타당.(그 면화 따다가.)

106012 @ 삼춘이 김○○예?(삼촌이 김○○요?)

106012 #5 예예.(예예.)

106012 #4 이제 테레비에 나오카부다.(이제 텔레비전에 나올까보다.)

106012 @ 테레비가 아니고 책으로예. 나올 거예.(텔레비전이 아니고 책으로요. 나올 거예요.)

106012 #8 책으로 나온다고.(책으로 나온다고.)

모시

106013 @ 멘네 농사예. 그다음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헹 말씀헤 주십서.(면화 농사요. 그다음 모시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3 #5 모시는 여기서 ᄒᆞᆫ엇이 안 허여.(모시는 여기서 한없이 안 해.)

106014 @ 안 허믄 안 헷덴예.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안 하면 안 했다고요.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5 중이적삼게.(중의적삼.)

106014 #4 제주도선 모시 못 봐.(제주도선 모시 못 봐.)

106014 #7 제주돈 ᄋᆞ름에 입는 거. ᄋᆞ름에 입는.(제주돈 여름에 입는 거. 여름에 입는.)

106014 #5 지일 고급 옷이라. 모시가 제일 고급. 겐디 죽음에 노민, 머리에 ᄌᆞ손덜 머리 흰덴 헤여.(제일 고급 옷이야. 모시가 제일 고급. 그런데 죽음에 넣으면, 머리에 자손들 머리 하얗게 된다고 해.)

106014 #7 경허여근에 모시, 이제 죽음에 안 입는 거.(그렇게 해서 모시, 이제 죽음에 안 입는 거.)

106014 #5 죽음에 입엉 가면은, 죽음에 입젼 보내면.(죽음에 입어서 가면, 죽음에 입혀서 보내면.)

106014 @ 호상옷으로.(수의로.)

106014 #7 예. 그런 거 아니 쓰는 거.(예. 그런 거 안 쓰는 거.)
106014 @ 멩주가 좋다는 거지예.(명주가 좋다는 거지요.)
106014 #7 예. 멩지는 좋고.(예. 명주는 좋고.)
106014 #5 모시는 아니 헤여.(모시는 안 해.)
106014 #6 베는 허여도 모시는 안 협네다.(베는 허여도 모시는 안 합니다.)
106014 #5 모시는 죽음엔, 절대 죽음엔 안 놔.(모시는 죽음엔, 절대 죽음엔 안 놔.)
106014 #4 저 무신 거? ᄌᆞ손덜 머리 흰덴.(저 무슨 거? 자손들 머리 흰다고.)
106014 #5 ᄌᆞ손덜 머리 헤영 헌덴 아니 놔.(자손들 머리 하양 한다고 안 놔.)
106014 @ 재미잇다예.(재미있네요.)
106014 #4 ᄌᆞ손이 이렇게 헌다고. 이렇게.(자손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106014 @ 응. 아아, 게도 곱기만 허우다게.(응. 아아, 그래도 곱기만 합니다.)
106014 #4 하하하하.(하하하하.)

삼

106016 @ 게난 그다음예, 모시 재배는 안 헷고.(그러니까 그다음요, 모시 재배는 안 했고.)
106016 #5 예.(예.)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6 #5 삼에 흔엇이 삼에 대헨도 흔엇이, 그 삼 헹은에 갈앙 그거 헤영 훌트멍 헤도.(삼에 한없이 삼에 대해서도 한없이, 그 삼 해서 갈아서 그거 해서 훑으면서 해도.)
106016 #4 ᄒᆞ쏠 이빨로.(조금 이빨로.)
106016 #5 예. 그건 꼬아근에 신늘 삼고 그런 건 헷주. 옷에 대헌 건 안 헤봔.(예. 그건 꼬아서 신날 삼고 그런 건 했지. 옷에 대헌 건 안 해봤어.)
106017 @ 그믄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그러면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6 #7 배론 바지저고리 다.(배론 바지저고리 다.)
106017 #5 그것도 중이적삼허곡, 저싱 가는 사람덜 중의적삼이 제일이주.(그것도 중의적삼하고, 저승 가는 사람들 중의적삼이 제일이지.)
106017 #4 무사? 남자덜은 두루막 헷주, 모시두루막.(왜? 남자들은 두루마기 했지, 모시두루마기.)
106017 #6 노랑케 입고게. 엿날은.(노랗게 입고. 옛날은.)
106016 #7 치ᄌᆞ로 물들영.(치자로 물들여서.)
106017 #6 옛날은 물레도 엇이난 치지, 치지나무 키왕, 그것에 열매 올앙, 그 물들이민 노랑허민 그게 고왕.(옛날은 물감도 없으니까 치자, 치자나무 키워서, 그것에 열매 열어서, 그 물 들이면 노랑하면 그게 고와서.)

106017 #9 옷 기지가 시카?(옷 천이 있을까?)
106017 #6 그게 고운 옷으로.(그게 고운 옷으로.)
106016 #4 요 색 뒈. 요 색.(요 색 돼. 요 색.)
106017 #6 예. 베옷을 만들앙 경 헹 헤낫수다.(예. 베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6018 #5 엿날 사는 것사.(옛날 사는 것이야.)
106018 @ 삼 재배는?(삼 재배는?)
106018 #5 예. 삼 재배는 하영 안 허고.(예. 삼 재배는 많이 안 하고.)
106018 #9 먹을 것도 읏고.(먹을 것도 없고.)
106016 #4 입을 것도 읏고.(입을 것도 없고.)

도구

106020 @ 이번에는예. 씨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헤 주십시오. 씨아, 물레, 베틀?(이번에는요. 씨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씨아, 물레, 베틀?)
106020 #5 베클.(베틀.)
106020 #4 것사 목시가 알주.(거야 목수가 알지.)
106020 #7 멘네게.(면화.)
106020 #4 아아, 멘네.(아아, 면화.)
106020 #8 멘네, 씨 빼는 거게.(면화, 씨 빼는 거지.)
106020 #5 물레는 멘네 영, 영 헤가민 씨는 이레 도록도록 털어지곡 저레 멘네 불라지멍 나가곡 허민 그거 물리와 가지고 이젠 그걸 강 이제.(씨아는 면화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씨는 여기 또록또록 떨어지고 저기 면화 발라지면서 나가고 하면 그거 말려 가지고, 이젠 그걸 가서 이제.)
106020 #7 태왕.(타서.)
106020 #5 테우민, 와가지고 다시 이만큼 정 ᄀᆞᆯ앙.(타면, 와가지고 다시 이만큼 '정' 갈아서)
106020 #6 그거 이만큼 ᄀᆞ늘게 헤영 이만큼씩 강, 소게 태우는 디 강 만들아 오랑 이렇게, 이렇게 부비멍.(그거 이만큼 가늘게 해서 이만큼씩 가서, 솜 타는 데 가서 만들어 와서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106020 #4 정 안 헹은 못 짜.('정' 안 해서는 못 짜.)
106020 #6 경헨 그거 정이옌 헙니다. 그것ᄀᆞ라. 소랑허게 멘들앙 우리 실 빼는 게 정.(그렇게 해서 그거 '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보고. 길쭉하게 만들어서 우리 실 뽑는 게 '정'.)
106020 #4 영 허영, 영 헤영 착.(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착.)
106020 #7 박물관에 다 싯수게, 저 물레.(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저 물레.)
106020 #6 경 헨 그 실로 헹 만든 거는 꼬리.(그렇게 해서 그 실로 해서 만든 거는 실톳.)

106020 #5 꼬리 감곡.(실톳 감고.)

106020 #6 그걸 꼬리엔 헹은에(그걸 실톳이라고 해서.)

106020 #9 하여튼 옛날 사람.(하여튼 옛날 사람.)

106020 #4 가레기에 꿰언, 가레기에 꿰언게. 게민 영 허믄.(가락에 꿰어서, 가락에 꿰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6020 #6 그 실을 가레기에 꿰왕 영, 영 둘러 가민 실 영 헤영 영 나옵네다. 그게. 경허믄 그걸 그게 뚜시 영 보제기 멘들앙 기계로 죽 감아지게 만들앙 영 헤영 조록허게 감아지곡 허영.(그 실을 가락에 꿰어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 가면 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그걸 그게 다시 이렇게 보자기 만들어서 기계로 죽 감아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조록허게' 죽 감아지고 해서.)

106020 #5 물레에 영 드는 물레에 가레기 꿰어서 그레 영 헤여서 영 영 허영 영 헹 다시 영 올리곡, 경 헨 다시 싸아가근에 영 헹 영 헹 올리곡 허멍 허민 멘주기 ᄒᆞ나 뒈엉, 멘주기 ᄒᆞ나 뒈민 뽑아뒁 다시 가레기에 다시 이제 저 저 어욱, 어욱고장 저 산에 어욱고장 그런 거, 그거 헤난 거 허영 그걸로 다시 그레 꼭 허게 꿰영 가레기레 꿰영 다시 영 영 헹 불렁 그레 올리고, 꼬리 다 하나 뒈민 이젠 빵 헤뒁, 멘주기 ᄒᆞ나 뒈민 빠뒁 다시 하나 찔렁 다시 영 영 막 두르멍 헤가민 그거 ᄀᆞ득으믄 다시 빠고. 경 헹 그걸로 허영.(물레에 이렇게 드는 물레에 가락 꿰어서 그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켜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면서 하면 토리 하나 되어서, 토리 하나 되면 뽑아두고 다시 가락에 다시 이제 저 저 억새, 억새꽃 저 산에 억새꽃 그런 거, 그거 했던 거 해서 그걸로 다시 거기 꼭 하게 꿰어서 가락에 꿰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러서 그리로 올리고, 실톳 다 하나 되면 이젠 뽑아서 해두고, 토리 하나 되면 뽑아두고 다시 하나 찔러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막 두르면서 해가면 그거 가득하면 다시 뽑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106020 #4 열 개, 열 개.(열 개, 열 개.)

106020 #5 열 개를 헤영 다시 이젠 솟디 청.(열 개를 해서 다시 이젠 솥에 쪄서.)

106020 #7 영 헹 감앙.(이렇게 해서 감아서.)

106020 #5 그거 헹 이제 열 개 가레기 꿰영 허영 그거 열 개 씨를 문딱 뽑안에 문딱 실을 뽑아네영, 그건 다시 이젠 문딱 헤연 다 헤 놘 다시 이제 그걸 놀앙, 놀아 놩 다시 풀 멕영.(그거 해서 이제 열 개 가락 꿰어서 해서 그거 열 개 씨를 몽땅 뽑아서 몽땅 실을 뽑아내서, 그건 다시 이젠 몽땅 해서 다 해 놔서 다시 이제 그걸 날아서 날아 놔서 다시 풀 먹여서.)

106020 #6 꼬리에 감아야지게. 꼬리에.(실톳에 감아야지. 실톳에)

106021 #5 풀 멕여사 저 찰 건, 창은에.(풀 먹여야 저 짤 건, 짜서.)

106021 #6 이렇게, 이렇게 감앙 꼬리를 만들어야.(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실톳을 만들어야.)

106021 #5 꼬리민, 건 꼬리 감는 거고.(실톳이면, 건 실톳 감는 거고.)

106021 #6 꼬리 감앙 그걸 널어 놩.(실톳 감아서 그걸 널어 놔서.)

106021 #7 꼬린 마주막, 지일 마주막엔 꼬리.(실톳은 마지막. 제일 마지막엔 실톳.)

106021 #4 네중에.(나중에.)

106021 #5 아니, 거 무싱거엔 곧느니? 그 저 베클에 허는 거는 저 무싱거꿰? 문딱 헨 그 무싱거 저저.(아니, 거 무엇이라고 말하니? 그 저 베틀에 허는 거는 저 무엇이죠. 몽땅 해서 그 무엇 저저.)

106021 #7 놀아 놩.(날아 놔서.)

106021 #5 놀아 놔사.(날아 놔야.)

106021 #7 도꼬마리에 감앙.(도투마리에 감아서.)

106021 #5 게메. 도꼬마리에 감기 전이 문딱 놀아놔사, 그걸 이렇게, 이렇게 허멍서 문딱 하나하나 다 헷당, 그걸 이젠 문딱 이젠 무싱 것더레 다시 놓아 놩 ᄀᆞ레 착에 놓곡 헨 이디 강 놔둠서, 조롱조롱 딩기멍, 이디선 풀 멕이멍, 이젠 비로 영 영 영 영 다 씰멍.(글세. 도투마리에 감기 전에 몽땅 날아놔야,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몽땅 하나하나 다 했다가, 그걸 이젠 모두 이젠 무슨 것으로 다시 놓아 놔서 맷돌짝 놓고 해서 여기 가서 놔두고서, '조롱조롱' 당기면서, 여기선 풀 먹이면서, 이젠 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쓸면서.)

106021 #6 꼬리를 감아놔야 그걸 멘글앗지게.(실톳을 감아놔야 그걸 만들었지.)

106021 #5 곧건 들읍서게, 그디 게난 ᄇᆞ디에 꿰어 놩.(말하면 들으십시오. 거기 그러니까 바디에 그러니까 바디에 꿰어 놔서.)

106021 #6 아, 꼬리 안 만들엉 그걸 헤지냔 말이여.(아, 실톳 안 만들어서 그걸 해지냔 말이야.)

106021 #5 꼬린 영 영 감는 거가 꼬리고.(실톳은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거가 실톳이고.)

106021 #4 건 젤 네중 허는 거, 네중에.(건 제일 나중 하는 거, 나중에.)

106021 #7 지일 말째 허는 거. 이 순선이 어멍.(제일 말째 하는 거. 이 순선이 어머니.)

106021 #6 꼬리 지름칠헤놩 꼬리 감아?(실톳 기름칠해놔서 꼬리 감아?)

106021 #5 풀칠 헌 거는 도꼬마리허여근에 ᄇᆞ디.(풀칠 한 거는 도투마리해서 바디.)

106021 #6 도꼬마리에.(도투마리에.)

106021 #5 ᄇᆞ디고망 수정에 꿰어근에 저 무신 ᄇᆞ디집 헹 착착 차근에 헐 때 허게 뒈어사, 꼬리 감앙 솖앙 물에 들이쳥 솖앙 건졍, 이젠 다시 꼬릿박더레 들이쳥, 이제 무신 그디 요영헌 거 헹 영 나오지 못허게 헤 뒁, 이제 그걸로 착 허민 저레 강 착 두들리고, 일로 착 들이쳥 ᄇᆞ디집 탁 딩기민, 헤지곡 헷주. 건 꼬리고.(바디구멍 수에 꿰어서 저 무슨 바디집 해서 착착 짜서 할 때 하게 되어야, 실톳 감아서

삶아서 물에 집어넣어서 삶아서 건져서, 이제 다시 북에 집어넣어서, 이제 무슨 거기 요런 거해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해 두고, 이제 그걸로 착하면 저리 가서 착 두드리고, 이리로 착 집어넣어서 바디집 탁 당기면, 해주고 했지. 건 실톳이고.)

106021 #8 맞아. 맞아. 하하하하하.(맞아. 맞아. 하하하하하.)

106021 #5 그건 꼬리, 건 꼬리, 그건 미녕 내는 게 아니고. 건 꼬리. 질 마지막에 허는 거. 꼬리 감는 거.(그건 실톳, 실톳, 그건 무명 내는 게 아니고. 건 실톳. 젤 마지막에 하는 거. 실톳 감는 거.)

106021 #7 예. 순선이 어멍이 츠례로 골암수다게. 츠례로.(예. 순선이 어머니가 차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106021 #6 우린 꼬리에 감아나신디.(우린 실톳에 감았었는데.)

106021 #5 게난 꼬리에 감는 거는 저.(그러니까 실톳에 감는 거는 저.)

106021 #4 건 제일 나중에 허는 거게.(건 제일 나중에 하는 거니까.)

106021 #7 질로 말쩨 허는 거난 이 순선이 어멍 곧는 대로 헙서.(제일 말째 하는 거니까 이 순선이 어머니 말하는 대로 하세요.)

106021 #5 요만이 무싱거 그레 들이쳥은에 요영헌 저 무싱거옌 ᄒᆞ느니? 저 대 헤영 대 신딜로 허영 그 무싱거 못 나오게 요디 영 지둥 멧 개 무싱거에, ᄇᆞ디집에 영 찔렁 그걸로 이젠 다시 미녕을 차게 뒈민 이디 착 허게 디밀앙 ᄇᆞ디집을 탁 ᄃᆞᆼ기고 이디선 다시 탁 ᄇᆞ디집을 ᄃᆞᆼ기민 짜졈주기. 게민 이걸로 영 ᄃᆞᆼ기곡 영 밀리곡, 영 ᄃᆞᆼ기곡 영 밀리곡, 저 초신에다가 저 무신 저.(요만큼 무엇 그리로 집어넣어서 요런 저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 대 해서 대 있는 데로 해서 그 무엇 못 나오게 요기 이렇게 기둥 몇 개 무엇에, 바디집에 이렇게 찔러서 그걸로 이젠 다시 무명을 짜게 되면 여기 착 하게 들이밀어서 바디집을 탁 당기고 여기선 다시 탁 바디집을 당기면 짜지고 있지.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밀고, 저 짚신에다가 저 무슨 저.)

106021 #6 친거리 ᄃᆞᆯ앙.(끈 달아서.)

106021 #5 친거리 ᄃᆞᆯ아메영 영 헤근에.(끈 달아매서 이렇게 해서.)

106021 #6 발 영 영 헤가민.(발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106021 #5 영 허민 그 ᄇᆞ디집을 탁 ᄃᆞᆼ기민 자지민 영 밀리민 그거 올아지민 일로 착 뎅기민 다시 영 ᄃᆞᆼ기민 착 경 헷수다.(이렇게 하면 그 바디집을 탁 당기면 자지면 이렇게 밀리면 그거 열어지면 이리로 착 당기면 다시 이렇게 당기면 착 그렇게 했습니다.)

106021 #9 아멩 골아도 젊은 사람덜 몰라게.(아무리 말해도 젊은 사람들 몰라.)

106021 @ 친 거리? 잘 아셤수다예. 두 분이예? 헤낫다는 거지예? 지금 말씀허시는 건 물레꽈? 베틀이꽈?(끈? 잘 아십니다. 두 분이요? 했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물레입니까? 베틀입니까?)

106021 #5 우리 곧는 건 베클, 베클.(우리 말하는 건 베틀, 베틀.)

106021 #7 베클, 이건 베클.(베틀, 이건 베틀.)

106021 @ 물레는 안허고예?(물레는 안하고요?)

106021 #5 영, 영 미녕 싸는 게 물레고.(이렇게, 이렇게 무명 켜는 게 물레고.)

106020 #6 실 빠내는 게게 물레, 실 뽑아내는 게.(실 뽑아내는 게 물레, 실 뽑아내는 게.)

106020 #9 아이구, 젊은 사람덜 몰른다. 아멩 골아도 원.(아이고, 젊은 사람들 모른다. 아무리 말해도 전혀.)

106021 @ 이것도 헤나고 둘 다?(이것도 했었고 둘 다?)

106021 #5 예. 옷 헹 입엉 살아 와시난.(예. 옷 해서 입어서 살아왔으니까).

106021 #7 이거 다. 이걸로 옷을 헹 입곡 이불까지 다 이걸로, 이 미녕으로 이거. 미녕으로 제주돈 그쟈.(이거 다. 이걸로 옷을 해서 입고 이불까지 다 이걸로, 이 무명으로 이거. 무명으로 제주도는 그저.)

106021 #4 어휴, 미녕 헤영 옷 ᄒᆞ나 허민 일 년.(어휴, 무명 해서 옷 하나 하면 일 년.)

106021 #5 미녕 ᄆᆞᆫ딱 털어가 불고.(무명 몽땅 털어가 버리고.)

106021 @ 멧 살부터마씨? 이걸 헨마씨?(몇 살부터요? 이걸 했어요?)

106021 #7 어린 때에 허니까.(어릴 때에 하니까.)

106021 #5 아이고, 우리 옛날엔 어린 때부터 살아보젠 허난 멘네 갈앙 타 오곡, 무신거 허곡.(아이고, 우리 옛날엔 어릴 때부터 살아보려고 하니깐 면화 갈아서 따오고, 무엇 하고.)

106021 #7 계속.(계속.)

106021 #6 ᄒᆞᆫ 댓 ᄉᆞᆯ 나민 헷수다. 우린 댓 ᄉᆞᆯ 나민.(한 댓 살 되면 했습니다. 우린 댓 살 되면.)

106021 #5 계속 일본 시국이니까 일본 시국이니까 다.(계속 일본 시국이니까 일본 시국이니까 다.)

106021 #6 공출 허렌 헹 ᄆᆞᆫ딱 다 빼가 불고.(공출 하라고 해서 몽땅 다 빼가 버리고.)

106021 #5 그 멘네 헹 놔두민 다 빼가 불고, 무신 미녕 헹 입젼 그걸 곱졋당은에 그걸 네놩 허당 안 주민 ᄆᆞᆫ딱 털어가 불고.(그 면화 해서 놔두면 다 빼가 버리고, 무슨 무명 해서 입혀서 그걸 숨겼다가 그걸 내놔서 하다가 안 주면 몽땅 털어가 버리고.)

106021 #4 경 허난 밤이 찻지. 밤이.(그렇게 하니까 밤에 짰지. 밤에.)

106021 #7 나도 춤 시방 그때엔 어린 때라도 막 장돌베기 시장에 뎅길 때난 강오랑 보민 놉 아니 빌어긴에 베클에 놀암시민 베클에 올라근에 그.(나도 참, 시방 그때엔 어릴 때여도 막 장돌뱅이 시장에 다닐 때니까 가 와서 보면 놉 아니 빌려서 베틀에 놀고 있으면 베틀에 올라서 그.)

106021 #4 배우젠, 배우젠.(배우려고, 배우려고.)

106021 #7 예. 배우젠, 이젠 걸 ᄒᆞᆨ끔 베와낫수다게. 겨난 방직생활도 그거 헤나

난 그걸로 알안에 그걸로 기어들언 배 짜는 디 들엉 헤낫수게.(예. 배우려고, 이젠 걸 조금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직생활도 그거 했었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그걸로 기어들어서 베 짜는 데 들어서 했었습니다.)

106021 #4 아아.(아아.)

106021 #7 그 미녕 ᄒᆞ꼼 짜나난.(그 무명 조금 짜나니까.)

106021 @ 열 술부터 헷수과?(열 살부터 했습니까?)

106021 #5 열 살도 전이부터 우린 나난 세상 나가니까.(열 살도 전에부터 우린 나니까 세상 나가니까.)

106021 #6 일고ᄋᆞ닯 술에 그것만.(일고여덟 살에 그것만.)

106021 @ 일고ᄋᆞ닯 술에 베클을 헤마씨?(일고여덟 살에 베틀을 해요?)

106021 #7 아니게. 부모네 허는 걸 본 말이주. 봔.(아니. 부모네 하는 걸 본 말이지. 봤어.)

106021 #6 아니게, 베클은 못헤도.(아니, 베틀은 못해도.)

106021 #5 검질은 멧지.(김은 맸지.)

106021 #6 솜은 타왓지. 솜.(솜을 따왔지. 솜.)

106021 #5 멘네 타오고.(면화 따오고.)

106021 @ 멘네는 탓주게.(면화는 탔지.)

106021 #7 예. 밧디 강도.(예. 밭에 가서도.)

106021 #9 아멩 ᄀᆞᆯ아도 젊은이덜 몰라 원.(아무리 말해도 젊은이들 몰라 전혀.)

106021 @ 게난마씨. 이거.(그러니까요. 이거.)

106021 #7 밧디 강 갈앙 탕, 다듬앙.(밭에 가서 갈아서 따서, 다듬어서.)

106021 #8 멘네도레기로.(목화다래로.)

바느질

106022 @ 자, 이번에는 바느질 도구? 바농상지?(자, 이번에는 바느질 도구? 바늘쌈지?)

106022 #5 그 옛날엔 저 무싱거엔 허느니? 요마니헌 바구리새끼에 동이 뚤랑이 요영 동글락헌 거 바구리 오모록헌 건데, 바농상지 허영 그레 다시 저.(그 옛날엔 저 무엇이라고 하니? 요만한 바구니새끼에 동이 뚫어서 요런 동그란 거 바구니 오목한 건데, 바늘쌈지 해서 그리로 다시 저.)

106022 #7 가위, 실, 바늘.(가위, 실, 바늘.)

106022 #5 가위 ᄃᆞᆯ아멘, 춤, 무싱거옌 허느니? 씰졸레 씰졸레 허는 건 바농 꿰는 거 ᄀᆞ라 씰쫄레.(가위 달아매서, 참, 무엇이라고 하느냐? 실 바늘겨레 실 바늘겨레 하는 건 바늘 꿰는 거 보고 실 바늘겨레.)

106022 @ 아아.(아아.)

106022 #5 그거 헤영은에 그 차롱 바위에 이디 헨 줄라멩 놔둠서 바농 써난 꼭찔렁은에 감앙 영, 영 감앙 놔두고, 거 어디레 사람 몸더레라도 질르카부덴.(그거

해서 그 채롱 테두리에 여기 해서 잘라매서 놔두고서 바늘 써서 꾹 찔러서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놔두고, 거 어디로 사람 몸에라도 찌를까 봐서.)

106022 #6 바농은 그 시국엔 없으니까, 엣장시, 엣장시신디 우리 무신거 신착이라도 헌 거 주문 그런 바농은 줘 우리 저 썻수다.(바늘은 그 시국엔 없으니까, 엿장수, 엿장수에게 우리 뭐 신짝이라도 헌 거 주면 그런 바늘은 줘서 우리 저 썼습니다.)

106022 #4 아니, 신착 헐민 내불지 안허여.(아니. 신짝 헐면 내버리지 않아.)

106023 @ 바농질 허는예, 방법?(바느질 하는요, 방법?)

106023 #5 예. 바농질은 뭐 이제도 그냥 바농질은 허는 거니까.(예. 바느질은 뭐 이제도 그냥 바느질은 하는 거니까.)

106023 @ 홈질이여 뭐여.(홈질이다 뭐다.)

106023 #5 바농질은 다 헤영 옷 헹 입고, 우린 바지저고리도 다 헤나난.(바느질은 다 해서 옷 해서 입고, 우린 바지저고리도 다 했었으니까.)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잠벵이? 뭐 중의적삼?(남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잠방이? 뭐 중의적삼?)

106024 #5 줌벵이 저 갈중이적삼ᄀᆞ라 줌벵이, 엿날은 줌벵이, 줌벵이. 것ᄀᆞ라 줌벵이 입져사 줌벵이 헹 입져사 헹게.(잠방이 저 '갈중의적삼'보고 잠방이, 옛날은 잠방이, 잠방이. 것보고 잠방이 입혀야 잠방이 해서 입혀야 했어.)

106024 #4 줌벵이 감 들여사.(잠방이 감 들여야.)

106024 #5 예게. 줌벵이 헹 입져사 허곡, 빤스나 ᄒᆞ나 헹 입곡, 그쟈 경 허민 그걸로 그쟈 중의적삼 헹 춤 줌벵이 헹 입으민 걸로 끗 헤영.(예. 잠방이 해서 입혀야 하고, 팬티나 하나 해서 입고, 그저 그렇게 하면 그걸로 그저 중의적삼 해서 참 잠방이 해서 입으면 걸로 끝 해서.)

106024 @ 빤스옌 헷수과? 살마다엔 헷수과?(팬티라고 했습니까? '살마다'라고 했습니까?)

106024 #7 살마다.('살마다'.)

106024 #5 옛날은 살마다, 빤스옌 안 헤영 이제는.(옛날은 '살마다', '빤스'라고 안 해서 이제는.)

106024 #8 ᄒᆞ꼼 개량 뒈가난 빤스, ᄒᆞᆷ 뒈가난 팬티. 흐흐흐.(조금 개량 되가니까 '빤스', 조금 돼가니까 팬티. 흐흐흐.)

106024 #6 게곡 남자 옷은 이 강알에 밋을 ᄃᆞᆯ련 옷을 만들앗수다. 게곡 여잔 경 안 허곡.(그러고 남자 옷은 이 사타구니에 밑을 달려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여잔 그렇게 안 하고.)

106024 #4 여자 옷이야 더 ᄃᆞᆯ렷지게.(여자 옷이야 더 달렸지.)

106025 #6 여자 옷도 이렇게 이렇게.(여자 옷도 이렇게 이렇게.)

106024 #5 밋을 돌아멘 게 아니고.(밑을 달아맨 게 아니고.)

106025 #6 이레 무껑 다녀나서. 이만이 넙게 헹.(이리로 묶어서 다녔었어. 이만큼 넓게 해서.)

106024 #4 독다림. 독다림.(중대님. 중대님.)

106024 #6 영 헹 걷엉 일로 걷엉 오줌도 싸고. 엿날은.(이렇게 해서 걷어서 이리로 걷어서 오줌도 싸고. 옛날은.)

106024 #5 이만이 너르게 멘들앙. 경 어려운 멩주를 이제 ᄀᆞ트민 이추룩 입어도 뒈는 거주. 이만이 다리를 이렇게 감앙 영 헹 무껑은에 영 헹 무껀에 엿날, 엿날은.(이만큼 넓게 만들어서. 그렇게 어려운 명주를 이제 같으면 이처럼 입어도 되는 거지. 이만큼 다리를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옛날, 옛날은.)

106024 #6 경 헨 걷엉 글로 헹 걷엉 오줌도 싸고 엿날은.(그렇게 해서 걷어서 그리로 해서 걷어서 오줌도 싸고 옛날은.)

106024 #9 하하하하.(하하하하)

106025 @ 거 굴중의[112]옌 안헙니까?(거 '굴중의'라고 안합니까?)

106025 #4 굴중의, 굴중의.('굴중의', '굴중의'.)

106025 @ 거 굴중의 정말 오줌 싼마씨?(거 '굴중의' 정말 오줌 쌌어요?)

106025 #4 응.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영 허믄 막 너른, 너른허민 궁둥이 나와.(응.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하면 아주 넓은, 너르면 궁둥이 나와.)

106025 #6 소곱인 또시.(속엔 또.)

106025 #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6025 #6 소중기 만들앙 입고.(속옷 만들어서 입고.)

106025 @ 소중기예?(속옷이요?)

106025 #6 ᄒᆞ쏠 부젯집인 아기덜 소중의 멘들앙 입져 주고, 가난헌 집인 소중기 만들 것도 엇언 못 만들어서 그냥 굴중이만 입졋주.(조금 부잣집엔 아기들 속옷 만들어서 입혀 주고, 가난한 집엔 속옷 만들 것도 없어서 못 만들어서 그냥 '굴중의'만 입혔지.)

106025 #4 소중긴 메 사람 멘들아져서게.(속옷은 매 사람 만들어졌었나.)

106025 #10 잇당 갑서.(있다가 가십시오.)

106025 @ 아이고야, 재미지다예.(아이구야, 재미지네요.)

106026 #9 옛날에사 굴중이 벗고 갈적삼 벗엉 살아 볼 때가 싯수과? 친정 가젠 허민 뭣을 입엉 가코?(옛날에야 '굴중의' 벗고 '갈적삼' 벗어서 살아 볼 때가 있었습니까? 친정 가려고 하면 뭣을 입어서 갈까?)

106026 @ 아이 옷의 종류?(아이 옷의 종류?)

106026 #6 애기 옷도 그런 염색 들영 곱게 헤영 입지고.(아기 옷도 그런 염색 들여서 곱게 해서 입히고.)

---

112) '굴중의'는 허리 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를 말한다.

106026 #4 감 들영 감 뽓앙.(감 들여서 감 빻아서.)

106026 #6 감 들영 입지고 부젯집 아이, ᄒᆞ썰 부제, ᄒᆞ쏠 사는 집이라야 아기 염색ᄒᆞ연 경 곱게 헨 입지고, 가난헌 집인 감 들영 입지고 경 헷수다.(감 들여서 입히고 부잣집 아이, 조금 부자, 조금 사는 집이어야 아기 염색해서 그렇게 곱게 해서 입히고, 가난한 집엔 감 들여서 입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106026 #4 아니, 갈옷은, 갈옷은 아무 사람이나 허엿수게게.(아니, '갈옷'은, '갈옷'은 아무 사람이나 했었습니다.)

106026 #6 게메, 갈중의[113]는 아무 사람이나 헹 입고, 물 들영 곱게 헌 건 ᄒᆞ쏠 부잣집이.(글쎄, '갈중의'는 아무 사람이나 해서 입고, 물 들여서 곱게 한 건 조금 부잣집에.)

106026 #5 보통 사람이 다 입엇으니까.(보통 사람이 다 입었으니까.)

106026 @ 갈옷 입엇덴 헤도 겨울엔 감옷, 안 입엇주게?(갈옷 입었다고 해도 겨울엔 감옷, 안 입었지요?)

106026 #5 겨울에는 물들여가지고 엿날엔 저 ᄀᆞᆺ세 영 차는 미녕마다 헤신디 꼬리 영 헌 것에 무싱거엔 허느니? 검은물 딜영 꼬리 멘들앙 감앙, 이제 영 차민 알록달록 알록달록허게 미녕을 차지는 거라. 흰 꼬리에다 흰 것에다가 검은 꼬리를 차노니까 알록알록.(겨울에는 물들여가지고 옛날엔 저 아까 이렇게 짜는 무명마다 했는데 실톳 이렇게 한 것에 뭐라고 하니? 검은물 들여서 실톳 만들어서 감아서, 이제 이렇게 짜면 알록달록 알록달록하게 무명을 짜지는 거야. 흰 실톳에다 흰 것에다가 검은 실톳을 짜니까 알록알록.)

106026 #7 게민 그걸 막 고운 걸로.(그걸 아주 고운 걸로.)

106026 #6 노랑 꼬리도 난 차고.(노랑 실톳도 난 짜고.)

106026 @ 노랑 꼬린 아까 치자 이런 거?(노랑 실톳은 아까 치자 이런 거?)

106026 #5 아니, 아니. 노랑멘네 잇어낫어. 엿날도 노랑멘네가.(아니, 아니. 노랑면화 있었어. 옛날도 노랑면화가.)

106026 #7 예. 멘네도 두 가지.(예. 목화도 두 가지.)

106026 #5 노랑 거 잇고, 흰 거 잇고, 노랑멘네는 노랑 거. 노랑멘네는 흰 멘네 모냥으로 바락바락은 안 허여서. 조락조락 엇어부난.(노랑 거 있고, 흰 거 있고, 노랑면화는 노랑 거. 노랑면화는 흰면화 모양으로 바락바락은 안 했어. 조락조락 없어버리니까.)

106026 #7 예. 조락조락허곡 하영 나도 안 허고.(예. 조락조락하고 많이 나도 않고.)

106026 #4 저저, 광목이 줄아.(저저, 광목이 잘아.)

106026 #7 예. 광목이 막 줄안.(예. 광목이 아주 잘아서.)

106027 @ 겨믄 마름질과 옷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러면 마름질과 옷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3)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중의를 뜻한다.

106027 #5 곳세 ᄀᆞ치게 여자는 소중기[114] 멘들앙 입고, 남저는 저 빤스도 멘들앙 입고.(아까 같이 여자는 속옷 만들어서 입고, 남자는 저 팬티도 만들어서 입고.)

106027 #4 살마데.('살마다.')

106027 #5 빤슨가 살마단가 만들앙 입고, 다시 갈중이나 헹 입고 그쟈 그게.(팬틴가 '살마단'가 만들어서 입고, 다시 '갈중의'나 해서 입고 그저 그게.)

106027 #6 남자 아인 이디 요만이 오게 그 ᄌᆞ른 중의로 만들앙 입지고, 여자 아인 소중기 헹 입지고 ᄯᅳ나게 헷수다.(남자 아인 여기 요만큼 오게 그 짧은 중의로 만들어서 입히고, 여자 아인 속옷 해서 입히고 다르게 했습니다.)

106027 #5 엿날 사는 게 얼마나.(옛날 사는 게 얼마나.)

106027 #9 옛날에 ᄃᆞᆺ인 거 ᄒᆞ나 입어 봐?(옛날에 따뜻한 거 하나 입어 봐?)

106028 @ 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의 각 부분의 명칭을 말씀헤 주십시오. 바지는 바지, 저고리, 치매, 보선.(바지, 저고리, 치마, 버선의 각 부분의 명칭을 말씀헤 주십시오. 바지는 바지, 저고리, 치마, 버선.)

106028 #4 미녕을 다 멩글언.(무명을 다 만들어서.)

106028 #6 바지는 소곱에 무신 헌 걸로나 ᄒᆞ쏠 무신 입단 옷으로나 헤영 속에 놓곡, 중간엔 소게 놔. 경 헨 우인 미녕으로 허곡 헹 만들앙, 저 경 ᄒᆞ난 소곱에 그 소개를 감추젠 허민 소곱에 안 놓곡, 바깟디 미녕 놓고 경 헤근에 만들앙, 어른들은 경 헨 입젼.(바지는 속에 무슨 헌 걸로나 조금 무슨 입던 옷으로나 해서 속에 놓고, 중간엔 솜 넣어. 그렇게 해서 위엔 무명으로 하고 해서 만들어서, 저 그렇게 하니까 속에 그 솜을 감추려고 하면 속에 안 넣고, 바깥에 무명 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른들은 그렇게 해서 입혔어.)

106028 #5 안팟으로 한가운디 담앙 소게저고리 입지고, 바지 입지고.(안팎으로 한가운데 담아서 솜저고리 입히고, 바지 입히고.)

106029 @ 단추도 잇엇수과?(단추도 있었습니까?)

106029 #5 옛날도 단추 잇어. 단추도 몾인단추.(옛날도 단추 있어. 단추도 매듭단추.)

106029 #4 옛날엔 단추 엇엇져. 영 곰.(옛날엔 단추 없었어. 이렇게 고름.)

106029 #6 ᄒᆞ꼼 만드는 집이라야 그 만드는 걸로 그 멘들안 입엇주. 단추, 아무 집이나 그 단추도 만들지 못헷수다.(조금 만드는 집이어야 그 만드는 걸로 그 만들어서 입었지. 단추, 아무 집이나 그 단추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106029 #4 게난 친 ᄃᆞᆯ앙 입엇주기.(그러니까 끈 달아서 입었지.)

106029 #6 친 ᄃᆞᆯ앙 입엇주, 친.(끈 달아서 입었지, 끈.)

106029 #5 속곳에도 단추 놩은에 ᄃᆞᆯ매기, ᄃᆞᆯ매기 허멍 단추 ᄃᆞᆯ앙 영 허곡.(속옷에도 단추 놔서 매듭단추, 매듭단추 하면서 단추 달아서 이렇게 하고.)

106029 @ 물옷에예?(물옷에요?)

106029 #6 단추가 어디서?(단추가 어디 있어?)

---

114) '소중기'는 '소중의', '속중의'라고 한다. 여자들이 속곳으로 입는, 오른쪽 옆이 트인 중의를 말한다.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옷감 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0 #5 그건게. 뻘앙 푸답헤여근에.(그건 빨아서 푸새해서.)

106031 @ 그다음, 염색, 염색 아까 말한 염색은 언제부터 어떵 헷수과?(그 다음, 염색, 염색 아까 말한 염색은 언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106031 #5 염색은 뒈나마나 미녕을 찰 때부터 물 들영은에 허곡, 경 안 허믄 다시 검은물 사당.(염색은 되나마나 무명을 짤 때부터. 물 들여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다시 검은물 사다가.)

106031 @ 검은물은 어디 강 사마씨? 오일장?(검은물은 어디 가서 사요? 오일장?)

106031 #5 엿날은 물레 장시가 잇어낫어.(옛날은 물감 장수가 있었었어.)

106031 @ 아아.(아아.)

106031 #6 옛장시신디, 옛장시신디.(엿장수에게, 엿장수에게.)

106031 #5 아니, 물레장시가 저.(아니, 물감 장수가 저.)

106031 #6 물레가 염색, 저 바농, 뭐 막 하간 거 다 졍 뎅기멍 엿도 받고, 바농도 풀곡, 비누도 풀아주곡.(물감이 염색, 저 바늘, 뭐 막 온갖 거 다 져서 다니면서 엿도 받고, 바늘도 팔고, 비누도 팔아주고.)

106031 #4 아이고, 비누가 나건 딘 어느제꽈게?(아이고, 비누가 난 때 언제입니까?)

106031 #6 아니, 그 엿장신 아졍 뎅겻수다게. 경헌디 우리가 비쌍 못 상 썻주.(아니, 그 엿장수 가져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비싸서 못 사서 썼지.)

106031 #5 거 무싱거옌 곧느니? 옛날은 미녕도 허민 재에 솖앙.(거 무엇이라고 말하니? 옛날은 무명도 하면 재에 삶아서.)

106031 #4 어느 절에 비누?(어느 결에 비누?)

106031 #6 비누가 어디 셔게?(비누가 어디 있었어?)

106031 #5 재는 뭣이냐 허믄 불 솜아난 저 불껑.(재는 뭐냐 하면 불 땠던 저 재.)

106031 #4 재, 재 솖앙.(재, 재 삶아서.)

106031 #5 재 놩, 서답 솖앙, 그거 강 물통에 강 계속 솖앙, 물렷닥 뻘앗다 물렷다 널엇닥 허멍 드러 반복헤 놩.(재 넣어서, 세답 삶아서, 그거 가서 물통에 가서 계속 삶아서, 말렸다가 빨았다 말렸다 널었다 하면서 마구 반복해 놔서.)

106031 #6 경허믄 하얗게 곱네다.(그러면 하얗게 고웁니다.)

106031 #5 경 헹 바레어다 놩.(그렇게 해서 바래어다 놔서.)

106031 @ 불체? 그 재마씨?(재요? 그 재요?)

106031 #6 불 솜는 아레 불체.(불 때는 아래 재.)

106031 #5 경 헤놩. 옛날은. 이제추룩 비누도 없으니까.(그렇게 해서. 옛날은 이제처럼 비누도 없으니까.)

106031 #4 경 헤 놩 풀헤영.(그렇게 해 놔서 풀해서.)

106031 #5 그거 허영 이젠 푸답허영 다듬앙 ᄉᆞ믓 마께질 ᄉᆞ믓 다닥다닥 다닥다닥 풀마께질 허영은에 빈직빈직 다듬앙, 이젠 나비 요거, 요거면은 이거 미녕 너베기민 요렇게 헤여서 영 막 영 헹 나비 요영 마주 ᄃᆞᆼ기면서 허영 ᄉᆞ답 허영 개여 놩 놧당 옷 헐 땐 다시 꺼네영 따시 경 옷을 ᄆᆞᆯ랑 경 허멍 엿날 살아왓어. 살아오는 과정이.(그거 해서 이젠 푸새해서 다듬어서 사뭇 방망이질 사뭇 다닥다닥 다닥다닥 풀방망이질해서 '빈직빈직' 다듬어서, 이젠 너비 요거, 요거면 이거 무명 넓이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너비 요영 마주 당기면서 해서 세답 해서 개여 놔서 놨다가 옷 할 땐 다시 꺼내서 다시 그렇게 옷을 말라서 그렇게 하면서 옛날 살아왔어. 살아오는 과정이.)

106031 #7 그것도 요디만 허민 허주만은.(그것도 요기만 하면 하지만.)

신발

106032 @ 경허믄 이번엔예 신발. 신발의 종류에 대헹 말씀헤 주십서.(그러면 이번엔요, 신발. 신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2 #3 신발의 종류는 짚신, 고무신, 검은고무신.(신발의 종류는 짚신, 고무신, 검은고무신.)

106032 #5 신발은 저 드르에 강은에 그 저 미우, 미우꼭대기 그거 이제 저 고장피기 전에 빠당, 그걸 이젠 저 문딱 ᄃᆞᆯ아멧당 ᄆᆞ르민 그거 헹은 하나하나 그거 헹은에 문딱 빠근에 이제 그걸로 ᄆᆞᆯ리왕 그걸로 헹 영 영 꿰영 노 꼬앙 이젠.(신발은 저 들에 가서 그 저 억새꽃, 억새꽃 그거 이젠 저 꽃 피기 전에 뽑아다가, 그걸 이제 저 몽땅 달아맸다가 마르면 그거 해서 하나하나 그거 해서 몽땅 뽑아서 이제 그걸로 말려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꿰여서 노 꼬아서 이젠.)

106032 #6 신 삼앙.(신 삼아서.)

106032 #5 신 이렇게 헤서 이레 발가락에 끼곡 이디 허리에 졸라메고 헤영 영 헤근에 신을 이레 차는 거라, 신을. 이디 강은에 깍 ᄒᆞ나 부비고 이디 오랑 깍 ᄒᆞ나 부비곡 이쪽에 강 깍 ᄒᆞ나 부비고 허멍 이젠 신을 계속 줄아가는 거라. 경 헨 이젠 이디 강 이젠 요만이 그 무싱거 헤영 신깍 양쪽에.(신 이렇게 해서 이리로 발가락에 끼우고 여기 허리에 잘라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신을 이리로 짜는 거야, 신을. 여기 가서 총 하나 비비고 여기 와서 총 하나 비비고 이쪽에 강 총 하나 비비고 하면서 이젠 신을 계속 결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젠 여기 가서 이젠 요만큼 그 무엇 해서 신총 양쪽에.)

106032 #6 초신 말, ᄀᆞᆯ암시냐?(짚신 말, 말하고 있니?)

106032 #5 예. 초신 말. 이만이허게 요만썩허게 허여오민, 이젠 일로 이렌 다시 저 ᄃᆞᆯ치기옌 ᄒᆞ다고 요리 요만 쪽인 다시 아무것도 안 헤영 그냥 줄아가곡 이레 줄

아가고 줄아아졍 이젠 이디 가민 신돌갱이 헐 이디 가민 다시 이디 강 신돌 헤질 거 그거 헤여근에.(예. 짚신 말. 이만큼하게 요만큼하게 해오면, 이젠 이리로 이린 다시 저 '돌치기'라고 하다고 요리 요만 쪽엔 다시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결어가고 이리로 결어가고 결어가지고 이젠 여기 가면 당감잇줄 할 여기 가면 다시 여기 가서 당감잇줄 해질 거 그거 해서.)

106032 #6 그거 헹 발에 신어.(그거 해서 발에 신어.)

106032 #5 그거 허여근에 이제 고젱이 꿰영 다시 이제 문딱 이젠 벵허게 허영 이젠 다 ᄆᆞ차면은 어떵허느냐 허믄 이젠 다시 신골이 요만썩헌 신골이 잇어. 신골 허곡 뒤치기 허는 거 싯고, 중간에 허는 거 싯곡 허민 그것에 요 마께로 닥닥 박으멍 허영 이젠 잇당, ᄏᆞ찡허게[115] 헷당 곱게 이젠 멘들앙 이걸로 무신 신엉 신돌겡이로 헹 막 영영 문질렁 영 영 문지르곡 헤영 문딱 헤여근에 이젠 다 꿰어지민 이젠 헤영 그거 헹 신언 경 허멍 살아왓어.(그거 해서 이제 꼬챙이 꿰어서 다시 이제 몽땅 이젠 뱅 하게 해서 이젠 다 마치면 어떡하느냐 하면 이젠 다시 신골이 요만큼씩 한 신골이 있어. 신골하고 뒤축 하는 거 있고, 중간에 하는 거 있고 하면 그것에 요 방망이로 닥닥 박으면서 해서 이젠 있다가, 가지런하게 했다가 이젠 곱게 이젠 만들어서 이걸로 무슨 신어서 당감잇줄로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고 해서 몽땅 해서 이젠 다 꿰어지면 이젠 해서 그거 해서 신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106032 #4 경 헹 그거 신어나민 발 문 그차불고.(그렇게 해서 그거 신어나면 발 몽땅 끊어져 버리고.)

106032 #5 이디가 문 벳겨젼, 뒤치기 문 벳겨졍.(여기가 모두 벗겨져서, 뒤축 모두 벗겨져서.)

106032 @ 그거 이름을 초신?(그거 이름을 짚신?)

106032 #5 예. 초신.(예. 짚신.)

106032 #4 예. 초신, 초신.(예. 짚신, 짚신.)

106032 #5 이제도 저 박물관엔 다 초신 잇어.(이제도 저 박물관엔 다 짚신 있어.)

106032 @ 찍신이렌 안 헤영 초신이옌 헷구나예?('찍신'이라고 안 해서 '초신'이라고 했군요?)

106032 #5 예. 예. 우린 옛날에 초신이옌. 찍신이옌 안 헤연 '초신'.(예. 예. 우린 옛날에 초신이라고. '찍신'이라고 안 해서 '초신'.)

106032 #9 찍으로 멘드난 초신이주게. 찍으로 멘든 초신, 메칠 가지도 안허여. 메칠 못 신어. 열흘도 못 신어.(짚으로 만드니까 '초신'이지. 짚으로 만든 짚신, 며칠 가지도 않아. 며칠 못 신어. 열흘도 못 신어.)

106032 #5 옛날은 시집갈 때도 시집이서가 막 잘 출려 줄 때도 씨아방이 곱게 찍을, 저 이제 우리 저 나룩허는 찍 꼭대기 거꺼당 그걸로 솖앙 노랗게 솖앙은에

115) 'ᄏᆞ찡ᄒᆞ다'는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는 뜻이다.

이젠 곱닥허게 저 깍 부병은에 이젠 삼앙 곱게 삼앙, 눈놀베기 허영은에 막 싫어하는 사람이사 눈놀베기 헤영 신 삼앙 메누리 오민 그거 주곡 헤나서. 옛날 시대엔.(옛날은 시집갈 때도 시집에서가 아주 잘 차려 줄 때도 시아버지가 곱게 짚을, 저 이제 우리 저 벼하는 짚 꼭대기 꺾어다가 그걸로 삶아서 노랗게 삶아서 이젠 곱게 저 총 비벼서 이젠 삼아서 곱게 삼아서, '눈놀베기' 해서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야 '눈놀베기' 해서 신 삼아서 며느리 오면 그거 주고 했었어. 옛날 시대엔.)

106032 #9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6032 #5 거 얼마나 정성 들언.(거 얼마나 정성 들어서.)

106032 @ 그것도 초신예? 이름 달르지 안허고예?(그것도 짚신요? 이름 다르지 안하고요?)

106032 #5 다 초신.(다 짚신.)

106032 #6 곱게 멩근 건 깍신.(곱게 만든 건 '총신.')

106032 #4 미투리, 미투리.(미투리, 미투리.)

106033 @ 곱게 멩근 건 깍신예.(곱게 만든 건 '총신'요.)

106032 #5 그추룩 허멍 세상 살아왓어.(그처럼 하면서 세상 살아왔어.)

106033 @ 게믄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은 모르지예?(그러면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은 모르지요?)

106033 #3 가죽신은 허는 건 그건 우리 세대에는 그게 없었으니까.(가죽신은 하는 건 그건 우리 세대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106033 #5 우린 그건 몰라. 우린 허는 거 안 봐나난 잘 몰라.(우린 그건 몰라. 우린 하는 거 안 봤었으니까 잘 몰라.)

106033 #4 건 제주도에선 안 헤난.(건 제주도에선 안 했었어.)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헹 말씀헤 주십시오.(나막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4 #3 나막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봣어마씨. 보기는 봣는데 그 저 그것도 우리 대에는 엇어져 불고.(나막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그 저 그것도 우리 대에는 없어져 버리고.)

106034 #5 예. 나막신은 낭토막을 헤서.(예. 나막신은 나무토막을 해서.)

106034 #6 나막신은 낭토막 헤근에 멩글안게.(나막신은 나무토막 해서 만들어서.)

106034 #5 낭토막 영 허연 벌러 가지고, 이젠 이추룩, 이추룩 벌러 가지고, 영 이마니 헤여 놓으면은 이디 문딱 파는 거라. 요디 네비지 않고, 영 곱게 네비여둠서 문딱 이젠 이 소곱을 다 파는 거라. 파 놩 이제 ᄀᆞ찡허게 헹 이디 이젠 발 아프지 안허게 문드글렉기[116] 까 놩은에, 이젠 ᄀᆞᆨ쒜로 긁으멍 허영, 그 신더레 영 디밀앙 신엉 이젠, 그 신이 요렇게 뒌 거라. 요렇게 요렇게 뒌 거난 이거 뒤치기도 잇고,

116) '문드글렉기'는 '멘들락, 멘들락기. 문들락기'. 자그마한 물체가 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아주 동그스름하고 매끈한 모양을 말한다.

욜로 요영 디밀민 요디만 나오랏주. 이디도 뭣이 다 신 거라, 다 씌여진 거라. 이디도 다. 그거 신엉 남박신이라고 허영 신엉, 옛날은 눈 올 때 그쟈 그걸 옛날은 고무신도 어렵고.(나무토막 이렇게 해서 쪼개 가지고, 이젠 이처럼, 이처럼 쪼개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해서 놓으면 여기 모두 파는 거야. 여기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곱게 내버려두고서 모두 이젠 이 속을 다 파는 거야. 파 놔서 이제 가지런하게 해서 여기 이젠 발 아프지 안하게 매끈하게 파 놔서, 이젠 호비칼로 긁으면서 해서, 그 신에 이렇게 들이밀어 신어서 이젠, 그 신이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요렇게 된 거니까 이거 뒤축도 있고, 요기 이렇게 들이밀면 여기만 나왔지. 여기도 뭐가 다 있는 거야, 다 쓰여진 거야. 여기도 다. 그거 신어서 나막신이라고 해서 신어서, 옛날은 눈 올 때 그저 그걸 옛날은 고무신도 어렵고.)

106034 #4 경 헤도 옛날은 멧 사람 헤져시냐?(그렇게 해도 옛날은 몇 사람 해졌니?)

106034 #5 경 허난 그것이 지일 고급 신으로 엿날은 남막신 신엉 뎅겨서. 엿날은.(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제일 고급 신으로 옛날은 나막신 신어서 다녔어. 옛날은.)

106034 @ 비 올 땐?(비 올 땐?)

106034 #6 비 올 때고 눈 올 때고.(비 올 때고, 눈 올 때고.)

106034 #5 눈 올 때 비 올 때 찍신은 신엉 뎅기다 보면은 젖이민 발 젖엉은에, 실리왕 못 젼디고 허난, 옛날 시절은 그렇게 헹 살아왓어.(눈 올 때 비 올 때 짚신은 신어서 다니다 보면 젖으면 발 젖어서, 시려서 못 견디고 하니까, 옛날 시절은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

106034 #6 게난 그 나막신 신엉 뎅기당은에, 알로 눈 막 부트곡 부트곡 허민 이만이 노프민 탁 넘어지곡.(그러니까 그 나막신 신어서 다니다가, 아래로 눈 막 붙고 붙고 하면 이만큼 높으면 탁 넘어지고.)

106034 #5 ᄂᆞ려지곡, 이디 신 막 얼렁은에 이만이 높아. 경 허민 뎅기당 지륵[117]허민 헤뜩 갈라지곡[118]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허멍 살아왓어.(넘어지고, 여기 신 막 얼려서 이만큼 높아. 그렇게 하면 다니다가 '지륵'하면 희뜩 자빠지고 사람이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

106034 #4 밍글락허민 발 ᄀᆞ무끄고.(미끈하면 발 삐고.)

106034 #5 경 헨 발 ᄀᆞ무끄고 허리 꺼꺼먹고.(그렇게 해서 발 삐고 허리 꺾어먹고,)

106034 #6 아니, 발 ᄀᆞ무끄는 게 하.(아니, 발 삐는 게 많아.)

106034 #5 경 허멍 옛날 살아온 과정은 그렇게 살아왓어.(그렇게 하면서 옛날 살아온 과정은 그렇게 살아왔어.)

106034 #6 맨 천지.(맨 천지.)

106035 @ 짚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짚신을 만드는 과정

117) '지락'은 잘락. 갑자기 힘있게 밀거나 물 따위를 붓는 모양으로 '가락, 자락이, 지락이' 등으로도 쓰인다.

118) '헤뜩 갈라지다'는 갑자기 뒤로 등대어 눕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5 #3 짚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봣는데, 우리 헤보진 안 허고.(짚신을 만드는 거 보기는 봤는데, 우리 해보진 안 하고.)

106036 @ 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의 종류는 초신허곡 깍신예?(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의 종류는 짚신하고 '총신'이요?)

모자 등

106038 @ 여름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여름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8 #5 옛날이나 이제나 모저는 밀낭페렝이가 제일 대중허엿고.(옛날이나 이제나 모자는 밀짚모자가 제일 대중했고.)

106038 #4 여름엔 험벅베끼 못 쓰곡.(여름엔 헝겊밖에 못 쓰고.)

106038 #6 게곡 여름엔 페렝이, 하나씩 페렝이 줄아낫어.(그리고 여름엔 패랭이, 하나씩 패랭이 결었었어.)

106038 #5 페렝이 밀낭 꼭데기 그창, 밀낭 끄차당은에 영, 영 짜근에.(패랭이 밀짚 꼭대기 끊어서, 밀짚 끊어다가 이렇게, 이렇게 짜서.)

106038 @ 보리찍, 보리찍, 보리.(보리짚, 보리짚, 보리.)

106038 #5 보리찍이 아니고 밀낭, 밀, 밀.(보리짚이 아니고 밀짚, 밀, 밀)

106038 #6 밀찍.(밀짚.)

106038 #5 밀ᄀᆞ루 밀낭 꼭대기 톤앙.(밀가루 밀짚 꼭대기 뜯어서.)

106038 @ 거난 밀낭페렝이이꽈? 아이고 건 몰란 밀낭페렝이, 밀낭페렝이 헤도 보리 허는 것이 밀낭페렝인 줄 알앗주게.(그러니까 밀짚모자입니까? 아이고 건 몰라서 밀짚모자, 밀짚모자 해도 보리 하는 것이 밀짚모자인 줄 알았지.)

106038 #5 밀찍 허여당 줄아가지고 영, 영.(밀짚 해다가 결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106038 @ 아이고게. 세상에 밀낭으로 허난 밀낭페렝이로구나.(아이고. 세상에 밀짚으로 하니까 밀짚모자로구나.)

106038 #5 게민 이추룩 영 헹 짜민, 오그렁 짜곡 헹 짜민, 밋밋, 드러 짜지민 그거 옛날인 저 뭣이냐 물레에 미녕 짜는 물레에 영 헹 믄딱, 믄딱 영영 디밀렁 멘딱 허게 허멍 허영은에, 구멍 그걸로 다시 밀낭페렝이 이디 믄딱 주멍.(그러면 이처럼 이렇게 해서 짜면, 오그려서 짜고 해서 짜면, 미끈 마구 짜지면 그거 옛날인 저 뭐냐 물레에 무명 짜는 물레에 이렇게 해서 몽땅, 몽땅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어서 반드럽게 하면서 해서, 구멍 그걸로 다시 밀짚모자 여기 몽땅 기우면서.)

106038 @그건 보리낭으로 안 헤낫수과?(그건 보리짚으로 안 했습니까?)

106038 #5 보리낭도 헷주만은 밀낭이 하영 헷어.(보리짚도 했지만 밀짚이 많이 했어.)

106038 @ 아아.(아아.)

106038 #6 밀낭은 보리낭으로 일년 쓰는 거민, 밀낭으론 이년 써낫수다.(밀대는 보리짚으로 일년 쓰는 거면, 밀짚으로 이년 썼었습니다.)

106038 @ 아이고야.(아이고야.)

106038 #5 그추룩 허멍 세상 우리 살아오는 과정은.(그처럼 하면서 세상 우리 살아오는 과정은.)

106038 @ 게민 이 동네에서도 밀이 재배가 뒛다는 거다예?(그러면 이 동네에서도 밀이 재배가 되었다는 거네요?)

106038 #6 밀낭이 그렇게 질겨. 옛날은 밀을 많이 갈앗어.(밀짚이 그렇게 질겨. 옛날은 밀을 많이 갈았어.)

106038 #5 옛날은 밀 갈앙 먹엇거든. 살아온 과정이.(옛날은 밀 갈아서 먹었거든. 살아온 과정이.)

106038 #7 밀낭이 질겨낫어.(밀짚이 질겼었어.)

106038 #5 밀낭이 질기주게. 밀낭 헤영은에 그거 허영 춤, 떡도 헹 먹고, 즈베기도 헹은에, 그거 골앙 떡 헹은에 식게 멩질허고 허곡, 다 옛날은 경 헷주, 무신.(밀짚이 질기지. 밀짚 해서 그거 해서 참, 떡도 해서 먹고, 수제비도 해서, 그거 갈아서 떡 해서 제사 명절하고, 다 옛날은 그렇게 했지, 무슨.)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헹 말씀헤 주십서.(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4 벙것, 벙것.(벙거지, 벙거지.)

106039 #5 밀낭페렝이허곡 다시 옛날은 쉐터럭산디 무신 터럭 헤근에 벙것 멘들앙 써나곡.(밀짚모자하고 다시 옛날은 소털인지 무슨 털 해서 벙거지 만들어서 섰었고.)

106039 #4 터럭벙것, 모저는 이제사 난 거라.(털벙거지, 모자는 이제야 난 거야.)

106039 #5 예. 모저는 이제사 낫주, 옛날은 모저 말 엇어낫어. 옛날에 저 우리 알아지는 건 뭣이냐믄, 휘양[119], 휘양이옌 헨에, 험벅 헹은에 이추룩 영 이추룩 영 진 험벅에다가 요렇게 놔가지고 요영 줘근에, 영 헹 쎵, 심방 모자 씌곡 요영 쎵 친 매는 거.(예. 모자는 이제야 났지, 옛날은 모자 말 없었어. 옛날에 저 우리 알아지는 건 뭐냐면, 휘양, 휘양이라고 해서, 헝겊 해서 이처럼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긴 헝겊에다가 요렇게 놔가지고 요렇게 기워서, 이렇게 해서 써서, 심방 모자 쓰고 요렇게 써서 끈 매는 거.)

106039 #4 휘양, 휘양.(휘양, 휘양.)

106039 #5 휘양, 그거 휘양이라고.(휘양, 그거 휘양이라고.)

106039 @ 휘양이 뭐꽈?(휘양이 뭡니까?)

106039 #5 저실에 쓰는 모자가 그런 모자가 그런 모자.(겨울에 쓰는 모자가 그런 모자가 그런 모자.)

119) '휘양'은 추울 때 머리에 쓰던 모자의 하나이다.

106039 @ 아, 여자 모자? 남자 모자?(아, 여자 모자? 남자 모자?)

106039 #5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쎠낫져. 한쪽만 주민 이딘 영 벌겨지고 일로 헹 씌곡, 옛날엔 그렇게 허멍 살앗어.(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썼었지. 한쪽만 기우면 여긴 이렇게 벌려지고 이리로 해서 쓰고, 옛날엔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

106039 #8 미녕으로 멩근 거 것도.(무명으로 만든 거 것도.)

106039 @ 이건 겨을에? 춥지 않게?(이건 겨울에 춥지 않게?)

106039 #5 저실에.(겨울에.)

106039 #4 저실에, 저실에.(겨울에, 겨울에.)

106042 @ 탕건 존기에 대헹 말헤 줍서? 말꼬리로?(탕건 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꼬리로?)

106042 #6 탕건 ᄀᆞ튼 거, 그거.(탕건 같은 거, 그거.)

106042 #4 ᄆᆞᆯ총으로.(말총으로.)

106042 #6 그건 저 조천더레 가는 거 허영, 이렌 그거 안 허여.(그건 저 조천으로 가는 거 해서, 여긴 그거 안 해.)

106042 #4 한림엔 거 허여.(한림엔 거 해.)

106042 #6 게메. 한림ᄁᆞ지는 헷주만은 하영 허는 건.(글쎄. 한림까지는 했지만 많이 하는 건.)

106042 #5 이렌 그런 건 안 허여.(이리론 그런 건 안 해.)

106042 @ 이렌 그런 거 안 헷고예?(이리론 그런 거 안 했고요?)

106042 #6 함덕, 조천더레 가민.(함덕, 조천으로 가면.)

106044 @ 도롱이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 도롱이, 도롱이?(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롱이, 도롱이?)

106044 #3 도롱이나 탕건, 망건 ᄀᆞ튼 거는 이디는 자세히 몰라마씨. 그거는 또 이쪽 서촌에서는 주로 동촌에서.(도롱이나 탕건, 망건 같은 거는 여기는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또 이쪽 서촌에서는 주로 동촌에서.)

106044 @ 비 올 때 영 ᄒᆞ는 우장?(비 올 때 이렇게 하는 우장?)

106044 #5 거ᄀᆞ라 뭐셍 헌다만은 것ᄀᆞ라? 그 저 새로 짜근에 저 초롱[120].(거보고 뭐라고 한다만 것보고? 그 저 띠로 짜서 저 '초롱'.)

106044 @ 비 올 때, 이렇게?(비 올 때, 이렇게?)

106044 #6 ᄎᆞ롱이[121]?(도롱이?)

106044 #4 ᄎᆞ궹이, ᄎᆞ궹이.(도롱이, 도롱이.)

106044 #6 ᄎᆞ궹이, ᄎᆞ궹이.(도롱이, 도롱이.)

106044 @ ᄎᆞ궹이?(도롱이?)

106044 #5 ᄎᆞ궹이 요영 헹 요렇게 요영 쓰민 요렇게 ᄆᆞᆫ딱 돌아왕 둘러쓰민 요렇게 ᄆᆞᆫ딱.(도롱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쓰면 요렇게 몽땅 돌아와서 둘러쓰면

120) '초롱'은 제보자가 'ᄎᆞ궹이'를 생각하면서 생각한 어휘다.
121) '초롱이'는 제보자가 'ᄎᆞ궹이'를 생각하면서 말한 어휘다.

요렇게 몽땅.)

106044 #6 등 맞추멍 만들앙, 새로 짜근에.(등 맞추면서 만들어서, 띠로 짜서.)

106044 #5 테레비에 나왕게. 것도.(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것도.)

106044 #6 경 헨 ᄎᆞ궹이 썬 많이 뎅겻수다.(그렇게 해서 도롱이 써서 많이 다녔습니다.)

106044 #4 ᄎᆞ궹이 안 쓰민 못 헤.(도롱이 안 쓰면 못 해.)

106044 @ 여자고 남자고 다?(여자고 남자고 다?)

106044 #5 비옷도 읏고 아무것도 옛날은 읏엇거든. 읏이니까 그추룩. 쉐 멕이레 가젱 헤도 그거 쎠사 가곡, 물 보레 가젱 헤도 거 입엉 영 쎵은에 데겡이만 안 쎵 그쟈 일로 영 씌곡 밀낭페렝이만 씌곡 헹 옛날은 경 헹 살안.(비옷도 없고 아무것도 옛날은 없었거든. 없으니까 그처럼. 소 먹이러 가려고 해도 그거 써야 하고, 말 보러 가려고 해도 거 입어서 이렇게 써서 대가리만 안 써서 그저 이리로 이렇게 쓰고 해서 밀짚모자 쓰고 해서 옛날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

6.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밥?(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밥?)

107001 #5 밥은게. 보리쏠 헤영.(밥은 보리쌀 해서.)

107001 @ 보리밥.(보리밥.)

107001 #5 보리 방애 저 무신거옌 허느니? 보리 갈앙.(보리방아 저 무엇이라고 하니? 보리 갈아서.)

107001 @ 보리쏠, 좁쏠.(보리쌀, 좁쌀.)

107001 #5 그거 비어당 물랑 이젠 물방애에 강 쉐 메왕 문딱 지어당.(그거 베어다가 말려서 이젠 연자매에 가서 소 메워서 몽땅 찧어다가.)

107001 #4 남방에도 지엉 먹고.('남방아'도 찧어서 먹고.)

107001 #5 이젠 지어 놩 이제는 두불 정 먹고 헷주만은 옛날은 초불도 못 찌민 셍보리밥 허여근에 셍보리 ᄀᆞ레에 거평은에 밥 헹 먹어보고, 그거 헹 좁쏠 헹 밥도 헹 먹어보고.(이젠 지어 놔서 이제는 두벌 찧어서 먹고 했지만 옛날은 애벌도 못 찧으면 '생보리밥'도 해서 '생보리' 맷돌에 거피해서 밥 해서 먹어보고, 그거 해서 좁쌀 해서 밥도 해서 먹어보고.)

107001 #7 밧디 강 오랑은에.(밭에 가서 와서.)

107001 #5 밧디 강 오랑. 푸푸 허멍.(밭에 가서 와서. 푸푸 하면서.)

107001 #7 밧디 강 오랑 ᄀᆞ레에 골앙.(밭에 갔다 와서 맷돌에 갈아서.)

107002 #6 ᄒᆞ쏠 잘사는 집인 두불 골앙 문들락허게[122] 밥을 헹 먹고, 못 사는

집인 초불만 헤당 ᄀᆞ레에 ᄀᆞᆯ앙 그거 헤먹엇수다.(조금 잘사는 집엔 두벌 갈아서 '문들락하게' 밥을 해서 먹고, 못 사는 집은 초벌만 해다가 맷돌에 갈아서 그거 해먹었습니다.)

107002 #4 범벅도 헤먹고.(범벅도 해먹고.)

107002 @ 게믄 이제 밥, 쏠의 종류?(그러면 이제 밥, 쌀의 종류?)

107002 #5 밥, 쏠의 종륜겐. 곤쏠도 허곡 보리쏠도 허곡.(밥, 쌀의 종류는. 흰쌀도 하고 보리쌀도 하고.)

107002 #6 밥, 쏠의 종륜 밀밥 많이 헹 먹엇어.(밥, 쌀의 종류는 밀밥 많이 해서 먹었어.)

107002 @ 밀밥도 헹 먹언마씨?(밀밥도 해서 먹었어요?)

107002 #6 ᄉᆞ뭇 옛날엔 밀밥도 헹 먹고, 보리밥은 그루후제사 보리밥, 보리 난 보리밥 헤 먹엇주.(사뭇 옛날엔 밀밥도 해서 먹고, 보리밥은 그 후에야 보리밥, 보리 나서 보리밥 해 먹었지.)

107002 @ 아아.(아아.)

107003 @ 보리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5 @ 밥 중엔 무슨 밥이? 곤밥이 질 맛 좋주만은 산듸밥으론 밥을?(밥 중에는 무슨 밥이? 흰밥이 제일 맛 좋지만 흰밥으론 밥을?)

107005 #6 엿날엔 산듸밥 먹엇주. 이거 나룩밥 먹어본 디가 엇수다.(옛날엔 밭벼밥 먹었지. 이거 볍쌀밥 먹어본 데가 없습니다.)

107005 #5 오래지 않은 거라.(오래지 않은 거야.)

107005 #9 산듸가 어디 셔?(밭벼가 어디 있어?)

107005 #6 산듸 강 밧디 강 저 갈앙 것도 하영 갈민 하영 먹어지카부덴, 남방에 졍 먹을 만이만 지엉.(밭벼 가서 밭에 가서 저 갈아서 것도 많이 갈면 많이 먹어질까봐, 남방아 찧어서 먹을 만큼만 찧어서.)

107005 #4 허벅에 질어당.('허벅'에 길어다가.)

107005 #6 저 제사 헐 때 ᄀᆞ튼 디, 멩질 헐 때만 헨 먹엇수다. 산듸밥도 매 해 많이 못 먹엇어.(저 제사 할 때 같은 데, 명절 할 때만 해서 먹었습니다. 밭벼밥도 매 해 많이 못 먹었어.)

107005 #5 보리밥만 그쟈 먹엇주. 보리밥, 조팝.(보리밥만 그저 먹었지. 보리밥, 조밥.)

107005 @ 보리밥, 조팝, 서껑도 먹고예? 서껑 먹고예?(보리밥, 조밥, 섞어서도 먹고요? 섞어서 먹고요?)

107003 #5 보리밥 헤영은에 막 왈랑왈랑[123] 막 쏠 거져 익어 가민, 좁쏠 확허게 허데경, 두껑 더껑 놧당 왈랑왈랑 궤영 놧당 이젠 틈 재왕 놧당 거렁 허민 푸들

122) '문들락ᄒᆞ다'는 '멘들락ᄒᆞ다'. '민들락ᄒᆞ다'. '믄드글락ᄒᆞ다'. '믄들락ᄒᆞ다'. 작은 물체가 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아주 동글고 매끈하다는 말이다.

123) '왈랑왈랑'은 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를 뜻한다.

푸들헌 게 맛은 좋아 게도.(보리밥 해서 막 '왈랑왈랑' 막 쌀 거의 익어 가면, 좁쌀 확하게 흩뜨려서, 뚜껑 덮어서 놨다가 '왈랑왈랑' 끓여 놨다가 이젠 뜸 들여서 놨다가 떠서 하면 푸들푸들한 게 맛은 좋아 그래도.)

107003 #8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03 #5 경 헹 먹으멍 살아왓어. 살아온 말.(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살아왔어. 살아온 말.)

107003 #8 옛날에사 보리밥 갈앙 보리 먹엇주. 무신 쏠밥은? 제사나 허젠 헤사 쏠밥 먹주. 보리밥 먹엇주. 보리밥.(옛날에야 보리밥 갈아서 보리 먹었지. 무슨 쌀밥은? 제사나 하려고 해야 쌀밥 먹지. 보리밥 먹었지. 보리밥.)

107003 #5 맞주게.(맞지.)

107003 #8 보리밥만 먹엇주. 보리밥.(보리밥만 먹었지. 보리밥.)

107003 #9 쏠밥이 어디 셔? 어이구?(쌀밥이 어디 있어? 아이고?)

107005 #5 게난 엿날, 엿날은 새각시 나시 새각시 들어오민 거 무싱거옌 허연 무뚱[124]에덜 사람덜이 지깍허연, 삿다근에 문 올앙 새각시 밥 주민, 영 손 받으민 수꾸락으로 하나 영 그찬 주민 먹언 무너사고 경허멍 옛날 살아 왓어.(그러니깐 옛날, 옛날은 새색시 몫 새색시 들어오면 거 무엇이라고 해서 문앞에들 사람덜이 빽빽해서, 섰다가 문 열어서 새색시 밥 주면, 이렇게 손 받으면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잘라서 주면 먹어서 물러서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 살아 왔어.)

107005 #6 밥 흔 숟가락 못 타 먹으민 분허영 아이구.(밥 한 숟가락 못 타 먹으면 분해서 아이고.)

107005 #5 곤밥이 어디 셔? 곤밥.(흰밥이 어디 있어? 흰밥.)

107003 #9 보리밥도 엇언 좁쏠밥, 좁쏠밥으로.(보리밥도 없어서 조밥, 조밥으로.)

107005 #4 경 헹 이제 새각씨 밥 얻어먹젠 그 ᄉᆞ뭇 바낏디ᄁᆞ지 흔 수꾸락 주민.(그렇게 해서 이제 새색시 밥 얻어먹으려고 그 사뭇 바깥에까지 한 숟가락 주면.)

107005 #8 창굼[125]에 문 올앙. 바깟디서 사둠서.('창곰'에 문 열어서. 바깥에서 서두고.)

107005 #5 경 허다근에 경 헹 손을 받앙 허민 주민 허주만은 아니 주민 춤 그만이 섭섭허곡 허허.(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손을 받아서 하면 주면 하지만 안 주면 참 그만큼 섭섭하고 허허.)

107005 #8 아 하하하하.(아 하하하하.)

107005 #6 밥이 족안, 아이덜은 하곡 밥은 흔 사발이난게 경 문딱 못 줘.(밥이 적어서, 아이들은 많고 밥은 한 사발이니까 그렇게 몽땅 못 줘)

107005 #4 경 헹은에 이제 새각시 밥이엥, 주민. 에에. 허허.(그렇게 해서 이제

124) '무뚱'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125) '창꿈'은 '창곰, 창꼼, 창굼'이라고도 하며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 낸 구멍을 말한다.

새색시 밥이라고, 에에. 허허.)

10700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05 #5 츰, 이제 개것은 고급이주기.(참, 이제 개밥은 고급이지.)

107005 #9 양, 우리 아기덜 키울 때 엄마! 어느제 멧 번 눵 자민 식게헐 거? 거 들엉 뭣 헐래? 곤밥 먹젠.(여보세요, 우리 아기들 키울 때 엄마! 언제 몇 번 누워 자면 제사할 거? 거 물어서 뭐 할래? 흰밥 먹으려고.)

10700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05 #4 것도 나록밥 아닌 산듸밥.(것도 '볍쌀밥' 아닌 '밭벼밥'.)

107006 @ 조밥?(조밥?)

107006 #5 조팝도 헹 먹어보고.(조밥도 해서 먹어보고.)

107006 #6 조팝은 흐린조팝, 모인조팝. 뚜시 피범벅도 헤 먹엇주. 피범벅.(조밥은 차진조밥, 메진조밥. 다시 피범벅도 해 먹었지. 피범벅.)

107007 @ 풋밥?(팥밥?)

107007 #5 풋밥도 헹 먹고.(팥밥도 해서 먹고)

107008 @ 피밥?(피밥?)

107008 #5 피밥도 헹 먹고.(피밥도 해서 먹고.)

107008 @ 피도 여기 갈안마씨?(피도 여기 갈았어요?)

107008 #6 뚜시 피범벅도 헤먹엇주. 피범벅.(다시 피범벅도 해먹었지. 피범벅.)

107008 #5 아이고양, 피쏠은 모연게.(아이고, 핍쌀은 메져.)

107008 #6 피쏠도 모이고, 따시 무신 쏠도 모여.(핍쌀도 메지고, 또 무슨 쌀도 메져.)

107008 #5 지장도 모인다 엇이양. 꼭 지장쏠 닮습디다. 피쏠은.(지장도 메지다 없이요. 꼭 지장쌀 같습니다. 핍쌀은.)

107009 @ 감저밥?(고구마밥?)

107009 #5 감저밥만도 헹 먹고.(고구마밥만도 해서 먹고.)

107010 @ 무밥?(무밥?)

107010 #5 그것도 헹 먹고.(그것도 해서 먹고.)

107010 @ 놈삐?(무?)

107010 #6 무운 ᄆᆞ멀ᄀᆞ루레 무 놩 범벅 헹 먹어. 거 진짜 맛 좋아 그거.(무는 메밀가루에 무 넣어서 범벅 해서 먹어. 거 진짜 맛 좋아. 그거.)

107010 #5 놈삐 복삭 썰어 놔근 삶앙은에 그레 ᄆᆞ멀ᄀᆞ루 놩 범벅허민 그게 지일 맛 좋아.(무 '복삭' 썰어 놔서 삶아서 그리로 메밀가루 놔서 범벅하면 그게 제일 맛 좋아.)

107010 #7 반찬이 어디 셔?(반찬이 어디 있어?)

107010 #6 그게 맛 좋아.(그게 맛 좋아.)

107010 #5 소금 놓고 허믄 그게 지일 맛 좋아. 반찬이 싯고 엇고, 싯고 엇고 먹어지난.(소금 넣고 하면 그게 제일 맛 좋아. 반찬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먹어지니

까.)

107010 #6 장이 싯던 엇던 그건 헤먹엇수다.(장이 있든 없든 그건 해먹었습니다.)

107011 @ 톳밥, 패밥? 그런 거 들어봣수과?('톳밥', '패밥'?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107011 #5 아니, 톳밥, 패밥 흔덴 말은 들어도 헤연 먹어보진.(아니, '톳밥', '패밥' 한다는 말은 들어도 해서 먹어보진.)

107011 @ 건. 바다니까예.(건. 바다니까요.)

107013 @ 이번엔 국예? 국? ᄂᆞ멀국, 콩나물국, 무국, 콩국, 호박잎국 뭐꽈? 모자반국, 생선국, 메역국, 냉국, 성게국, 보말국, 너패국, 가시리국, 물회?(이번엔 국요? 국? 나물국, 콩나물국, 무국, 콩국, 호박잎국 무엇입니까? 모자반국, 생선국, 미역국, 냉국, 성게국, 보말국, 넙패국, 풀가시리국, 물회?)

107013 #5 놈삐국도 헤 먹고.(무국도 해 먹고.)

107013 #6 그런 바당에 고기 ᄀᆞ튼 건 제ᄉᆞ헐 때 멩절헐 때만 먹고.(그런 바다에 고기 같은 건 제사할 때 명절 할 때만 먹고.)

107013 #4 드르ᄂᆞ멀, 드르ᄂᆞ멀.(들나무, 들나물.)

107013 #6 이디서 국 헤 먹은 건 놈삐, 다시 이디 배추 갈앙 배추.(여기서 국 해 먹은 건 무, 다시 여기 배추 갈아서 배추.)

107011 @ ᄂᆞ멀국.(배춧국.)

107013 #4 아이구, 어느 절에. 구덕 차근에 ᄂᆞ물 캐당.(아이고, 어느 결에. 바구니 차서 나물 캐다가.)

107013 #6 ᄀᆞ세ᄂᆞ멀 캐당 먹엇어. ᄀᆞ세ᄂᆞ멀.(씀바귀 캐다가 먹어서. 씀바귀.)

107013 @ ᄀᆞ세ᄂᆞ멀은 뭐꽈?(씀바귀는 뭡니까?)

107013 #5 ᄀᆞ세ᄂᆞ멀은 놈삐ᄂᆞ멀 닮아도 드르ᄂᆞ멀인디.(씀바귀는 무나물 같아도 들나물인데.)

107013 #4 칼칼 씬 거.('칼칼' 쓴 거.)

107013 #5 놈삐 하영 안 드는 거.(무 많이 안 드는 거.)

107013 #6 어, 칼칼 써.(어, '칼칼' 써.)

107013 @ 열무김치 닮은 거.(열무김치 같은 거.)

107013 #6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헹 먹엇어.(옛날엔 그런 거 많이 해서 먹었어.)

107013 #5 그거 헤 먹고, 마농 케당 먹기, ᄂᆞ멀 케당 먹기, 그쟈 그 전상 옛날은 세상 살젠 허난.(그거 해 먹고, 마늘 캐다가 먹기, 나물 캐다가 먹기, 그저 그 '전상' 옛날은 세상 살려고 하니까.)

107017 @ 국, 국? 무슨 국이 제일 맛 좋아마씨?(국, 국? 무슨 국이 제일 맛이 좋아요?)

107017 #6 그땐 콩 ᄀᆞᆯ아당 ᄂᆞ멀 놩 콩국이 질 고급이라낫수다.(그땐 콩 갈아다가 배추 넣어서 콩국이 제일 고급이었습니다.)

107017 #9 그 누넹이덜 ᄃᆞ투왕게 누넹이덜.(그 누룽지들 다퉈서 누룽지들.)

107017 @ 누넹인 무슨 누넹이마씨?(누룽진 무슨 누룽지예요?)

107017 #6 콩국 누넹이. 하하하하.(콩국 누룽지. 하하하하.)

107017 @ 콩국 누넹이. 하하하하.(콩국 누룽지. 하하하하.)

107017 #5 콩죽 누넹이가 제일 맛은 좋아. 콩죽 누넹이가 제일 맛 좋아. 먹어 보민.(콩죽 누룽지가 제일 맛은 좋아. 콩죽 누룽지가 제일 맛 좋아. 먹어 보면.)

107017 #4 콩죽 누넹이 ᄃᆞᆯ아.(콩죽 누룽지 달아.)

107017 #7 화덕 우이 타 앉앙 그거 ᄃᆞ투왕게.(화덕 위에 타 앉아서 그거 다퉈서.)

107017 @ 콩국도 끓이곡, 콩죽도 끓이고?(콩국도 끓이고, 콩죽도 끓이고?)

107017 #5 예.(예.)

107017 @ 콩국하고 콩죽은.(콩국하고 콩죽은.)

107017 #6 좁쏠 놩. 그땐 쏠 엇이난. 좁쏠 놩.(좁쌀 놔서. 그땐 쌀 없으니까. 좁쌀 놔서.)

107017 #5 아니, 모인좁쏠 놓곡, 콩ᄀᆞ루 ᄀᆞᆯ아당 ᄀᆞ레에 것도 ᄀᆞᆯ앙.(아니,

107017 #7 국 끌리민 씨우룽허연.(국 끓이면 메진 좁쌀 넣고, 콩가루 갈아다가 맷돌에 것도 갈아서.)씁쓸해서.)

107017 #5 이제는 방애에 ᄀᆞᆯ암주만은 엿날은 ᄀᆞ레에 앚앙 ᄒᆞᆫ 방울씩 드리쳥, 계속 ᄀᆞ는 거라. ᄀᆞᆯ앙 그거 헤영은에 콩ᄀᆞ루에 좁쏠에 서껑은에 이제 물 꿰가민 죽 쒕 먹고, 콩국 끌영 먹고, 그게 그쟈 보통으로.(이제는 방아에 갈고 있지만 옛날은 맷돌에 앉아서 한 알씩 집어넣어서 계속 가는 거야. 갈아서 그거 해서 콩가루에 좁쌀에 섞어서 이제 물 끓어가면 죽 쒀서 먹고, 콩죽 끓여서 먹고, 그게 그저 보통으로.)

107017 #7 그 생각허민 눈에 줌이 안 와.(그 생각하면 눈에 잠이 안 와.)

107017 @ 강 베와야겟다예? 좁쏠이영 상왕예.(가서 배워야겠네요? 좁쌀이랑 사와서요.)

107017 #6 경헌디 쏠 놩 그 저 콩국 헤사 맛 좋주. 좁쏠 놩은 헌 건 까릿까릿헙디다. 이젠. 옛날엔 그것도 막 맛 좋안 먹어신디 그거 옛날에 먹어나난 을마나 맛시카부덴 좁쏠 놘에 죽 쒕 허난 아니, 맛어십데다. 까릿까릿허연, ᄒᆞᆫ번 허난 말주.(그런데 쌀 놔서 그 저 콩국 해야 맛 좋지. 좁쌀 놔서는 한 건 '까릿까릿'합디다. 이젠. 옛날엔 그것도 아주 맛 좋아서 먹었는데 그거 옛날에 먹었으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봐 좁쌀 놔서 죽 쒀서 하니까 아니, 맛없습디다. '까릿까릿'해서 한번 하니까 말지.)

107018 #7 맛읏어. 맛읏어.(맛없어. 맛없어.)

107017 #6 쏠 놩 헌 거만이 맛읏어.(쌀 놔서 한 거만큼 맛없어.)

107018 @ 호박잎국도 끌영 먹고?(호박잎국도 끓여서 먹고?)

107018 #6 예. 호박잎국도.(예. 호박잎국도.)

107018 #7 화덕 우이덜 타 앚앙양 그거 누넹이덜 ᄃᆞ투앙게.(화덕 위에들 타 앉

아서요 그거 누룽지들 다투어서.)

107019 @ 잔치 때에 몸국은 여기 안 끓입니까? 몸국.(잔치 때에 모자반국은 여기 안 끓입니까? 모자반국.)

107019 #5 아니, 잔치 때에 돗술 받앙 국물에 몸 뿔앙, 썰어 놩 국 허영, 동네 칩이도 혼 사발썩, 두 사발썩 갖다 드리곡.(아니, 잔치 때에 돼지살 받아서 국물에 모자반 빨아서, 썰어 놔서 국 해서, 동네 집에도 한 사발씩, 두 사발씩 갖다 드리고.)

107019 @ 여기도 접쩍빼국이렌 헙니까?(여기도 '접쩍빼국'이이라고 합니까?)

107019 #5 예.(예.)

107019 #9 보리밥이라도 실피 먹어시민.(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107019 #7 잔치 돌아오민 아으덜, 어느제 기꽈? 어느제?(잔치 돌아오면 아이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107019 #8 옛말 골암서. 옛말. 아이구, 우리 손지덜 그 말 골아가믄 에, 할망은 옛날 말만.(옛말 말하고 있어. 옛말. 아이고, 우리 손자들 그 말 말해가면 에, 할머니는 옛날 말만.)

107019 @ 몸국이옌 허지예?(모자반 국이라고 하지요?)

107019 #5 예.(예.)

107020 #6 바닷고기국은.(바닷고기국은.)

107020 @ 생선국은?(생선국은?)

107020 #6 예. 제사헐 때나 식게헐 때나 우리 맛봣주. 여기 사람덜은 그냥 보통으로 먹어보진 못헷수다.(예. 제사할 때나 제사할 때나 우리 맛봤지. 여기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107021 @ 미역국은 당연이.(미역국은 당연히.)

107021 #5 메역국은 강 헤영 오민 강 이제는 안 허염주만은 옛날은 우리도 바당에 ᄂᆞ려가서 그걸 강 우이 올린 것도 헤 오곡, ᄀᆞᆺ메역도 ᄐᆞ다당 국 끌령 먹고 헷주만은 이젠 뭐.(미역국은 가서 해서 오면 가서 이제는 안 하고 있지만 옛날은 우리도 바다에 내려가서 그걸 가서 위에 올린 것도 해 오고, 갯가미역도 따다가 국 끓여서 먹고 했지만 이젠 뭐.)

107022 @ 냉국? 성게국, 보말국은 힘들겟다예?(냉국? 성게국, 보말국은 힘들겠네요?)

107023 #5 예. 이디선 그거 먹음은 힘듭니다. 잔치집이나 강 얻어먹고, 그쟈 삭삭 츰 메역이나 놩 국 끓영 먹고, 뒌장국이나 헹 먹고 허멍 살앗주.(예. 여기선 그거 먹음은 힘듭니다. 잔칫집이나 가서 얻어먹고, 그저 삭삭 참 미역이나 넣어서 국 끓여서 먹고, 된장국이나 해서 먹고 하면서 살았지.)

죽류

107029 @ 이번 죽이우다예. 곤죽, 조죽, 풋죽 콩죽, ᄆᆞ멀죽, 녹두죽 닥죽, 깅이

죽 뭐 꿩죽. 뭐가 좋아마씨?(이번 죽입니다. 흰죽, 조죽, 팥죽 콩죽, 메밀죽, 녹두죽 닭죽, 뭐 꿩죽. 뭐가 좋아요?)

107029 #5 무싱거옌 허느니? 벌써 ᄀᆞᆯ암구나만은 보말죽이여, 성게여 무싱거여 헤도 이디선 성게 ᄀᆞ튼 거 보말 ᄀᆞ튼 거 허는 거 아는 **, 그쟈 삭삭 춤 메역이나 놩 국 끓영 먹고, 뒌장국이나 헹 먹고 허멍 살앗주.(무슨 거라고 하니? 벌써 말하는 구나만 고둥죽이여, 성게다 무엇이다 해도 여기선 성게 같은 거 고둥 같은 거 하는 거 아는 **, 그저 삭삭 참 미역이나 넣어서 국 끓여서 먹고, 된장국이나 해서 먹고 하면서 살았지.)

107029 #6 꿩죽 헤 먹는 집이 잇당 이녁 냥으로 잡앙, 코 놩.(꿩죽 해 먹는 집이 있다가 이녁 대로 잡아서, 올가미 놔서.)

107029 #5 코 놩 잡앙 옛날은게 헷주.(올가미 놔서 잡아서 옛날은 했지.)

107029 #6 그거나 거 맛 좋게 헹 먹어봣주. 경 다른 거 못 헹 먹엇수다.(그거나 거 맛 좋게 해서 먹어봤지. 그렇게 다른 거 못 해서 먹었습니다.)

107029 @ 녹두여, ᄆᆞ멀이여 이런 건? ᄆᆞ멀죽은.(녹두다, 메밀이다 이런 건? 메밀죽은.)

107029 #6 녹두도 잘 못 갈고.(녹두도 잘 못 갈고.)

107029 #5 그건 틈틈이 헤낫주만은.(그건 틈틈이 했었지만.)

107029 #6 ᄆᆞ멀죽 ᄀᆞ튼 건 이디 ᄆᆞ멀 가니까. ᄆᆞ멀죽 헹 먹고.(메밀죽 같은 건 여기 메밀 가니까. 메밀죽 해서 먹고.)

107029 #5 난 살멍 ᄆᆞ멀을 잘 갈아진 거 같아.(난 살면서 메밀을 잘 갈아진 거 같아.)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이번엔 범벅예. 범벅의 종류? 범벅허고 ᄌᆞ베기, 칼국?(이번엔 범벅요. 범벅의 종류? 범벅하고 수제비? 칼국수?)

107034 #5 칼국수도 헹 먹고 다 그거 나 하영 헹 먹고.(칼국수도 해서 먹고 다 그거 나 많이 해서 먹고.)

107034 #6 칼국수도 ᄆᆞ멀칼국이 제일 맛 좋아.(칼국수도 메밀칼국수가 제일 맛 좋아.)

107034 #7 건 고급.(건 고급.)

107034 #6 고급.(고급.)

107034 @ 범벅을 ᄒᆞᆫ 번 ᄀᆞᆯ아봅서. 범벅?(범벅을 한 번 말해 보세요. 범벅?)

107034 #5 감저범벅도 헨 먹고, ᄆᆞ멀범벅도 헹 먹고, 대죽범벅도 헹 먹고.(고구마범벅도 해서 먹고, 메밀범벅도 해서 먹고, 수수범벅도 해서 먹고.)

107034 #4 보리범벅.(보리범벅.)

107034 #6 지슬범벅도 헹 먹고.(감자범벅도 해서 먹고.)

107034 #5 지실 숢앙은에.(감자 삶아서.)

107034 #6 감저 놩 범벅은 둘고.(고구마 놔서 범벅은 달고.)

107034 #5 지실로 헹 보리쏠 골아다 놩, 보리 골아당 범벅도 헹 먹고 옛날은 그 추룩 허멍 살아온 게 그게 전설이난 원.(감자로 해서 보리쌀 갈아다 넣어서, 보리 갈아다가 범벅도 해서 먹고 옛날은 그처럼 하면서 살아온 게 그게 전설이니까 원.)

107034 #7 쏠 놩 밥 헹 먹는 디가 어디 셔?(쌀 놔서 밥 해서 먹는 데가 어디 있어?)

107034 @ 뭐가 제일 맛 좋아마씨? ᄆᆞ멀?(뭐가 제일 맛 좋아요? 메밀?)

107034 #6 ᄆᆞ멀이 제일 맛 좁니다.(메밀이 제일 맛 좋습니다.)

107034 #5 ᄆᆞ멀이 제일 맛 좋아. 제일 순허여.(메밀이 제일 맛 좋아. 제일 순해.)

107034 @ 무우 놓고?(무 넣고?)

107034 #5 무울 놧던 감젤 썰어놧던, 이젠 고구마엔 허주만은 옛날은 감제라고 헷어. 감저.(무를 놨던, 고구마를 썰어놨든, 이젠 고구마라고 하지만 옛날은 '감제'라고 했어. '감제'.)

107034 #8 혼 뒛박에 이만 천 원. 혼 뒛박에.(한 되에 이만 천 원. 한 되에.)

107035 @ 감제예? 수제비? ᄌᆞ베기는 ᄆᆞ멀ᄌᆞ베기?(고구마요? 수제비? 수제비는 메밀수제비?)

107035 #5 ᄌᆞ베기도 ᄆᆞ멀ᄌᆞ베기가 제일 맛 좋고, 그 버금은 밀ᄀᆞ루ᄌᆞ베기 헹 먹고.(수제비도 메밀수제비가 제일 맛 좋고, 그 버금은 밀가루수제비 해서 먹고.)

107035 @ ᄆᆞ멀ᄌᆞ베기는 뭐 거기 꿩이라도 영 놔야 맛 좋게 먹지예?(메밀수제비는 뭐 거기 꿩이라도 이렇게 놔야 맛 좋게 먹지요?)

107035 #6 맛 좋기야 겅허지게. 겐디 꿩 놩은 가끔 혼 번이나게. 코 놩 잡아지민.(맛 좋기야 그렇지. 그런데 꿩 넣어서는 가끔 한 번이나. 올가미 놔서 잡아지면.)

107035 @ 흐흐.(흐흐.)

107035 #4 매 사람 ᄆᆞ멀은 갈아.(매 사람 메밀은 갈아.)

107035 #5 난 ᄆᆞ멀 하영 헤져신ᄀᆞ라 우리 아기덜은양, 우리 큰아덜은 경 골읍니다. 나 뭣헤 가믄 우리 어머니 ᄆᆞ물ᄎᆞ베기 헴져. 그거 지일 싫어난 셍이라.(난 메밀 많이 했었는지 우리 아기들은요,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뭐해 가면 우리 어머니 메밀수제비 하고 있지. 그거 제일 싫었던 모양이야.)

107035 #4 응.(응.)

107035 #5 이제 ᄋᆞᆨ앙[126]허는 거.(이제 커서 하는 거.)

107035 #6 자꾸 그것만 헤가난게.(자꾸 그것만 해가니까.)

107035 #5 이제 빙 부껑은에 헤도양, 걸 경 반지질 안허여. 어멍, ᄆᆞ물ᄎᆞ베기 헴져. ᄆᆞ물초베기. 허허.(이제 '빙' 지쳐서 해도요, 걸 그렇게 반기질 않아. 어머니, 메밀수제비 한다. 메밀수제비. 허허.)

107035 @ ᄆᆞ물초베기렌 헷수과??(메밀수제비라고 했습니까?)

126) 'ᄋᆞᆨ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107035 #5 모멀ᄌᆞ베기ᄀᆞ라 ᄆᆞᆯ초베기라고.(메밀수제비보고 메밀수제비라고.)

107035 @ 아아.(아아.)

107035 #5 우리 아덜, 경허믄 게난 우리 애기덜은 ᄒᆞᆫ엇이 경 막 ᄆᆞ멀ᄎᆞ베기 그런 거 막 좋아하진 안허여.(우리 아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기들은 한없이 그렇게 막 메밀수제비 그런 거 아주 좋아하진 않아.)

107035 @ 반기질 안허여?(반기질 않아?)

107035 #5 자꾸 그것만 헤가난게.(자꾸 그것만 해하니까.)

107035 #5 막 좋아하질 안허여.(아주 좋아하질 않아.)

107036 @ 칼국, 칼국은 무사? 뭐가 달라마씨? ᄌᆞ베기랑?(칼국수, 칼국수는 왜? 뭐가 달라요? 수제비랑?)

107036 #5 칼국수도 그것도 ᄌᆞ베기랑 다르지 안허주만은 그것도 영영 밀엉 ᄒᆞ쏠 공들언 헌 거나 맛 좋게 생각헤지는 거 같아. 이제.(칼국수도 그것도 수제비랑 다르지 안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조금 공들어서 한 거나 맛 좋게 생각해지는 것 같아. 이제.)

107036 #4 그건 막 고급.(그건 아주 고급.)

김치

107045 @ 이번에는 짐치? 배추짐치, 열무짐치, 물짐치, 동지짐치, 무짐치, 파짐치, 달래짐치, 갓짐치, 부추짐치 담그는 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이번에는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물김치, 동지김치, 무김치, 파김치, 달래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5 #6 그런 갯ᄂᆞ멀이나 캐당 짐치허곡, 꿩마ᄂᆞᆼ 캐당 짐치허곡 헷주, 이디 그런 고급으로 헤영 못 먹엇어. ᄉᆞ뭇 옛날엔.(그런 갓이나 캐다가 김치하고, 달래 캐다가 김치하고 했지, 여기 그런 고급으로 해서 못 먹었어. 사뭇 옛날엔.)

107045 @ 동지짐치?('동지짐치'?)

107045 #6 동지가 어디 잇어? ᄂᆞ멀 갈아야 동지도 잇지.(동지가 어디 있어? 배추 갈아야 동지도 있지.)

107045 #5 드르ᄂᆞ멀.(들나물)

107045 #6 ᄀᆞ세ᄂᆞ멀, ᄀᆞ세ᄂᆞ멀, ᄀᆞ세ᄂᆞ멀이 많이 캐당 먹엇수다. ᄀᆞ세ᄂᆞ멀 캐당 먹고.(씀바귀, 씀바귀, 씀바귀가 많이 캐다가 먹었습니다. 씀바귀 캐다가 먹고.)

107045 @ 갯ᄂᆞ멀이옌 안 헹 ᄀᆞ세ᄂᆞ멀?(갓이라고 안 해서 씀바귀?)

107045 #6 응. ᄀᆞ세ᄂᆞ멀 캐당 꿩마농 캐당 짐치헤 먹고.(응. 씀바귀 캐다가 달래 캐다가 김치해서 먹고.)

107045 #5 갯ᄂᆞᄆᆞᆯ도 옛날, 드르에 간 갯ᄂᆞᄆᆞᆯ은 칼칼 씬 갯ᄂᆞᄆᆞᆯ이라. 이제 오는 건 저 무싱거옌 허느니? 그거 경 쓰지 안 헨게.(갓도 옛날, 들에 간 갓은 칼칼 쓴 갓이야. 이제 오는 건 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거 그렇게 쓰지 안 해서.)

107045 #6 이제 ᄂᆞ멀도 불근 건 씨어.(이제 나물도 붉은 건 써.)

107045 #5 갓 짐찌 허는 거.(갓 김치 하는 거.)

107045 #9 아이고 옛날이사 밥은 헤어서 드르ᄂᆞ멀 캐당 고구마 쳐근에 밥은 안 헤영 그것만 먹고.(아이고 옛날이야 밥은 해서 들나물 캐다가 고구마 쪄서 밥은 안 하고 그것만 먹고.)

107045 #5 옛날엔 집이서 드릇마농 캐당 영 영 판칙 씻엉은에 소금으로 꾹꾹 눌렁 먹고 옛날은 먹고.(옛날엔 집에서 달래 캐다가 이렇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소금으로 꾹꾹 눌러서 먹고 옛날은 먹고.)

107045 @ 고춧가루 안 놓고?(고춧가루 안 넣고?)

107045 #5 예. 고춧가루도 안 놓고.(예. 고춧가루도 안 넣고.)

107045 #6 고춧가루가 어디 셔?(고춧가루가 어디 있어?)

107045 #5 고춧가루도 안 놔도 이젠 허믄 어떵사 뒐지.(고춧가루도 안 놔도 이젠 하면 어떻게야 될지.)

107045 #6 아니, 이제도 꿩마농짐치에 고추 안 놔야 맛싯어. 소금.(아니, 이제도 달래김치에 고추 안 넣어야 맛있어. 소금.)

107045 #5 경 헹 놔두민 새콤새콤허민 잘도 맛 좋아게.(그렇게 해서 놔두면 새콤새콤하면 잘도 맛 좋아.)

107045 #6 이제도 그건 맛 좋아.(이제도 그건 맛 좋아.)

젓갈

107048 @ 젓갈, 이번은 젓갈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자리젯, 멜첫(젓갈, 이번은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젓, 멸치젓.)

107048 #5 자리젯, 멜첫 그쟈 그거.(자리젓, 멸치젓 그저 그거.)

107048 @ 것도 아무나 경 먹지 못허지예?(것도 아무나 그렇게 먹지 못하지요?)

107048 #5 예. 아니, 자리젯광 멜첫은 아무나 먹어지는디 다시 새우젯은 아무나 못허고.(예. 아니, 자리젓과 멸치젓은 아무나 먹어지는데 다시 새우젓은 아무나 못하고.)

107048 @ 자리젯 멜첫은 한림에서 사당?(자리젓 멸치젓은 한림에서 사다가?)

107048 #6 자리젯 멜첫은 ᄉᆞ뭇 옛날엔 못 먹엇는디 그루후제. 자리젯 먹음도 ᄒᆞ쏠 그루후제. ᄉᆞ뭇 옛날엔 그런 거 엇엇수다.(자리젓 멸치젓은 사뭇 옛날엔 못 먹었는데 그 후에. 자리젓 먹음도 조금 그 후에. 사뭇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107053 @ 젯 당그고예. 아강젓, 깅이젓, 음, 자리젯과 멜첫 당그는 거, 알아지쿠과?(젓 담그고요. 아감젓, 게젓, 음, 자리젓과 멸치젓 담그는 거, 알겠습니까?)

107053 #5 건 소금만 헹 버물민 뒈는 거난 아무나 홀 수 잇인 거.(건 소금만 해서 버무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107054 @ 출레[127]에 대헤서 말씀헤 보십시오.('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127) '촐레'는 밥에 딸리어서 먹는 장, 젓 따위의 간이 들어간 반찬을 말한다.

107054 #5 출레가 그거 그거주. 무슨 벨거라게? 뒌장허곡 그쟈 춤, 고치장, 뒌장, 뭐 이제, 곳세 젓갈 허는 그런 것베끼사 그런 거나베끼 옛날은 안 헤봣어.('출레'가 그거 그거지. 무슨 별거야? 된장하고 그저 참, 고추장, 된장, 뭐 이제, 아까 젓갈 하는 그런 것밖에야 그런 것밖에 옛날은 안 해봤어.)

장아찌와 회

107056 @ 이번에는 장아찌? 마늘, 유, 파초, 양아, 모자반,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헤서 마농지?(이번에는 장아찌? 마늘, 들깨, 파초, 양하, 모자반,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마늘장아찌?)

107056 #5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6 @ 골아줍서.(말해주세요.)

107056 #5 마농지, 저 그디 동지 살 흔 뒈가민 헤당 썰엉 요만씩 썰어근에 그거 소금물에 둥강 영 영 헤영 죽어가민 건졍 죽어가민 거 건졍, 그거 이젠 우리 옛날 헐 땐 그걸 믄딱 물리왓어. 그걸 믄딱 물려와근에 싀 번썩 장 꿰왕 놩 지도 헤영 먹엇어. 장아찌도.(마늘장아찌, 저 거기 동 설 한 되가면 해다가 썰어서 요만큼씩 썰어서 그거 소금물에 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어가면 건져서 죽어가면 거 건져서, 그거 이젠 우리 옛날 할 땐 그걸 몽땅 말렸어. 그걸 몽땅 말려서는 세 번씩 간장 끓여서 넣어서 장아찌도 해서 먹었어. 장아찌도.)

107056 @ 마농지가 제일 그거 마농쫑 그거.(마늘장아찌가 제일 그거 마늘종 그거.)

107056 #6 아니, 몸치.(아니 모자반장아찌.)

107056 @ 예?(예?)

107056 #5 장항에 몸치의. 몸 헤당.(장독에 모자반장아찌, 모자반 해다가.)

107056 #6 몸 사다가 장 담을 때 몸을 요만씩, 요만씩 몽크령 담앙 장 익으민 그 몸치도 익으민 뭐 그거 큰 반찬이라. 그건 몸치.(모자반 사다가 장 담글 때 모자반을 요만큼씩, 요만큼씩 뭉쳐서 담아서 장 익으면 그 모자반장아찌도 익으면 뭐 그거 큰 반찬이야. 그건 모자반장아찌.)

107056 #4 그건 돌아. 돌아.(그건 달아. 달아.)

107056 #6 그거 몸치.(그거 모자반장아찌.)

107056 @ 몸치는 몸?(모자반장아찌는 모자반.)

107056 #5 몸.(모자반.)

107056 @ 생몸을?(생모자반을?)

107056 #6 생몸을 홀근 거.(생모자반을 굵은 거.)

107056 #5 생몸을 몸 올라오민 바싹 물령 그거 사당 이젠 뿔앙 확허게 뿔앙, 요렇게 멘들멘서 썰엉, 장항더레 컹 그거 이젠 장 담앙, 장 익으민 이젠 그 몸치의.(생모자반을 모자반 올라오면 바싹 말려서 그거 사다가 이젠 빻아서 확하게 빨아서, 요렇게 만들면서 썰어서, 장항으로 담가서 그거 이젠 장 담가서, 장 익으면 이젠 그

모자반장아찌.)

107056 @ 장이믄 뭰장? 아니면 간장?(장이면 된장? 아니면 간장?)

107056 #6 간장 담을 때?(간장 담글 때?)

107056 #5 담을 때 몸 못 나오게 딱 돌 지둘뢍 나두민 그게 익으면은 건져네영 썰엉덜 ᄒᆞ민 그게 질 큰 반찬. 옛날은 우리.(담글 때 모자반 못 나오게 딱 돌 지질러서 놔두면 그게 익으면 건져내서 썰어서들 하면 그게 제일 큰 반찬. 옛날은 우리.)

107056 @ 지금도 혹시 헤 먹는 분 잇어마씨?(지금도 혹시 해 먹는 분 있어요?)

107056 #5 아니, 지금은 잘 안 헹 먹엄실 거라.(아니, 지금은 잘 안 해서 먹고 있을 거야.)

107056 #6 옛날추룩 좋은 몸이 엇어.(옛날처럼 좋은 모자반이 없어.)

107056 #5 어려와. 어려와. 몸.(어려워. 어려워. 모자반.)

107056 @ 그건 처음 들어 봣수다.(그건 처음 들어 봤습니다.)

107056 #5 그거 경 맛 좋아.(그거 그렇게 맛 좋아.)

107056 @ 아오야, 그런 것도 잇어낫수과?(아오야,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107056 #5 옛날은 그게 경 맛 좋아.(옛날은 그게 그렇게 맛 좋아.)

107056 #5 경헨 꿰ᄀᆞ루나 ᄒᆞᆷ 허트면은 경 맛 좋아.(그렇게 해서 깨 가루나 조금 흩으면 그렇게 맛 좋아.)

107056 #6 경 맛 좋아도 이젠 맛으십데다.(그렇게 맛 좋아도 이젠 맛없습디다.)

107056 @ 하하하하하하. 게도 그거 만드는 거 베와봐시믄.(하하하하하하. 그래도 그거 만드는 거 배워봤으면.)

107056 #6 ᄉᆞ믓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담을 때 보민 콩 뒈싱 두 뒈민 아니, 흔 말이민 물 두 허벅썩 놘 저 장을 ᄃᆞᆼ갓어. 경허믄 뭰장도 맛 좋고 간장도 맛 좋고 그 몸치 커도 경 맛 좋고.(사뭇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담글 때 보면 콩 뒈 두 되면 아니, 한 말이면 물 두 허벅씩 넣어서 저 장을 담갔어. 그렇게 하면 된장도 맛 좋고 간장도 맛 좋고 그 모자반장아찌 담가도 그렇게 맛 좋고.)

107056 #5 경 헤신디 이젠 장을 담아보니까 메주 흔 말 숣아도 물 흔 허벅도 안 해도 전이만이 맛 ᄒᆞ낫토 엇어.(그렇게 했는데 이젠 장을 담아보니까 메주 한 말 삶아도 물 한 허벅도 안 해도 전에 만큼 맛 하나도 없어.)

107056 #6 흔 번 두 번 놔야 맛 좋아.(한 번 두 번 놔야 맛 좋아.)

107056 #5 아이고 맛 좋은 철이.(아이고 맛 좋은 철이.)

107056 #6 ᄀᆞᆫ이 맞아사 맛 좋지. 난 이제도 물 두 허벅 놩 담아.(간이 맞아야 맛 좋지. 난 이제도 물 두 허벅 놔서 담가.)

107056 #5 아.(아.)

장 담그기

107059 @ 게믄 장은 언제 담급니까?(그러면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5 섣돌 그물민, 음력으로 섯돌 그믈민, 육지 사람덜은 정월에 강 거기 장을 담는디 이디 사람은 섣돌 그믈어사.(섣달 저물면, 음력으로 섣달 저물면, 육지 사람들은 정월에 가서 거기 장을 담그는데 여기 사람은 섣달 저물어야.)

107059 #6 상돌이옌 헹 상돌엔 안 좋덴 허영 상돌에 장 둥그민 대주가 좋지 안헌덴 헤영 정월에 장 안 담음네다.(상달이라고 해서 상달에 안 좋다고 해서 상달에 장 담그면 대주가 좋지 안 한다고 해서 정월에 장 안 담급니다.)

107059 #5 육지는 뒈나마나 정월에 담는 셍이란게.(육지는 되나마나 정월에 담그는 모양이던데.)

107060 @ 장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60 #5 장이사게. 긋세 곧듯 메주 솖앙 장 둥그는.(장이야. 아까 말하듯 메주 삶아서 장 담그는.)

107060 #6 메주 솖앙.(메주 삶아서.)

107060 #5 뿟앙.(빻아서)

107061 @ 장 담그는 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고추장, 뒌장, 간장.(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추장, 된장, 간장.)

107060 #5 콩 솖은 건 뒌장이고.(콩 삶은 건 된장이고.)

107060 #6 콩 솖앙 담앙 두 둘 반이나 석 둘이나 뒈민 뒌장을 건져내영 간장. 경 헹 당강 먹엇주. 우린 경 고치장 하간 거 경 야냥게시리 헤 먹어보질 못헷수다. 반찬은 그 몸치 경 헤놩 허고, 반추.(콩 삶아서 담가서 두 달 반이나 석 달이나 되면 된장을 건져내어서 간장. 그렇게 해서 담가서 먹었지. 우린 그렇게 고추장 온갖 거 그렇게 '야냥게시리' 해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반찬은 그 모자반장아찌 그렇게 해놔서 하고, 파초.)

107060 #5 자리젯도 헹 먹고.(자리젓도 해서 먹고.)

107060 #6 반추옌 헌 건.(파초라고 한 건.)

107060 @ 반추?(파초?)

107060 #5 반춘 뭐시냐 허민 저 바나나낭 닮은 건디 옛날 이디 시난 반추, 그런 거 헤당.(파촌 뭐냐 하면 저 바나나나무 같은 건데 옛날 여기 있으니까 파초, 그런 거 해다가.)

107060 #6 그게 굽엣 건 헤당 완전 굽엣 건 손님이나 오민 헤영 손님상에 놓고.(그게 밑에 건 해다가 완전 밑에 건 손님이나 오면 해서 손님상에 놓고.)

107060 #5 썰어넣고.(썰어넣고.)

107060 #6 또 우이 뎅가리는 또 우린 쩨영 간장 담을 때 담앙 질긴, 질긴 헌 건 그거는 우리 먹고 경 헨 간장 담을 때 그것도 담앙.(또 위에 줄거리는 또 우린 찢어서 간장 담글 때 담아서 질기고, 질기고 한 건 그거는 우리 먹고 그렇게 해서 간장 담글 때 그것도 담아서.)

107060 @ 반추렌 헌 나무가 잇어마씨?(파초라고 한 나무가 있어요?)

107060 #5 예예. 반춘 꼭 이제 바나나낭 닮은 거.(예예. 파촌 꼭 이제 바나나나무 같은 거.)

107060 @ 어디 여기 볼 수 잇어마씨?(어디 여기 볼 수 있어요?)

107060 #5 이제 요센 못 봐. 이젠.(이제 요샌 못 봐. 이젠.)

107060 #6 아니, 이제 셔.(아니, 이제 있어.)

107060 #5 어디 셔?(어디 있어?)

107060 #6 저 누구네 무뚱에. 저 창호네 집더레 들어가는 디 이펜이 할망네 무뚱에.(누구네 문앞에. 저 창호네 집으로 들어가는 데 이편에 할머니네 문앞에.)

107060 #5 아아, 절로 헤영헌 저 저, 누구옌 허느니? 저.(아, 저리로 하얀 저 저, 누구라고 하느냐? 저.)

107060 @ 언제 날 잡앙 삼촌네 집이 강은에 그거 사진이나 찍게예?(언제 날 잡아서 삼촌네 집에 가서 그거 사진이나 찍게요?)

107060 #6 아니, 우리 집이 아니고 그디.(아니, 우리 집이 아니고 거기.)

107060 @ 게난 같이 강.(그러니까 같이 가서.)

107060 #6 창훈이 올레난 훤헐 건디.(창훈이 오래니까 훤할 건데.)

107060 #5 큰질 에염이난.(큰길 가장자리니까.)

107060 @ 겐 반추라는 건, 몸치, 여기서 두 가지가 반찬이 나왓다예.(그래서 파초라는 건, 모자반장아찌, 여기서 두 가지가 반찬이 나왔네요.)

107060 #6 그거 완전 고급이우다. 그 굽에 거 하양헌 거는 완전 손님신디만 놓는 거.(그거 완전 고급입니다. 그 굽에 거 하얀 거는 완전 손님한테만 놓는 거.)

107060 #5 그 손님신디 놓나 허는 거는 영 헤 보민 니치름 닮은 거 나오라. 지각지각, 줄 막 나와. 줄이 영 허민.(그 손님한테 놓으나 하는 거는 이렇게 해 보면 침 같은 거 나오라. '지각지각', 줄 막 나와. 줄이 이렇게 하면.)

107060 @ 아아.(아아)

107060 #5 경허곡 그 곳세 헌 건 살강살강 흔 게 이 대로 헌 거는.(그러고 그 아까 한 건 살강살강 한 게 이 대로 한 거는.)

107060 #6 뎅가리는 그렇게 질기고 쫍찌롱헌 맛으로 먹엄쭈.(줄거리는 그렇게 질기고 짭짜름한 맛으로 먹고 있지.)

107060 #5 살강살강 허민 거 치지멍 그쟈 장맛으로 씹어 먹고.(살강살강 하면 거 찢으면서 그저 장맛으로 씹어 먹고.)

107060 @ 요즘은 양엣간도 허곡, 꿧잎도 허곡, 브로콜리도 허곡.(요즘은 '양엣간'도 하고, 깻잎도 하고, 브로콜리도 하고.)

107060 #5 꿧잎도 잇고, 브로콜리고 이젠 원 읏인 거 엇이 다 시니까.(깻잎도 있고, 브로콜리고 이젠 전혀 없는 거 없이 다 있으니까.)

107060 #6 옛날도 저 양엔 잇어낫수다.(옛날도 저 양한 있었습니다.)

107060 #5 양엣근 헤영 지허곡.('양엣근' 해서 장아찌하고.)

107061 @ 게믄 우럭조림, 물외, 고사리무침 호박무침 그 계절에 따라 반찬 잇수

게?(그러면 우럭조림, 물외, 고사리무침 호박무침 그 계절에 따라 반찬 있지요?)

107061 #5 고사린 많이 헤 먹어수다. 고사린.(고사린 많이 해 먹었습니다. 고사린.)

107061 @ 고사리는 또 제사를 위헤서.(고사리는 또 제사를 위해서.)

107061 #6 예.(예.)

107061 #5 게도 다시 고사리는 제사도 위헹 허주만은 그냥 놀고사리 거꺼당 판찍 싯어뒁 물 빠줭은에 보깡 장 놓곡 그거 놩 보깡은에 이젠 문 뒈민 이젠 하간 양념 놩은에 먹엄주만은 이젠 그런 건 그냥 보통 사람이 먹는 거고 식게 멩질에도 흐는 건 솖앙 물리왕 놧당 다시 솖앙 허곡.(그래도 다시 고사리는 제사도 위해서 하지만 그냥 날고사리 꺾어다가 깨끗이 씻어두고 물 빼서 볶아서 장 넣고 그거 넣어서 볶아서 이젠 몽당 되면 온갖 양념 넣어서 먹고 있지만 이젠 그런 건 그냥 보통 사람이 먹는 거고 제사 명절에도 하는 건 삶아서 말려서 놨다가 다시 삶아서 하고.)

107061 #6 ᄉᆞ뭇 옛날에 먹어난 건 몸치, 그 저 반추, 그거랏수다게. 큰 반찬이. 다른 건 엇어낫수다. 무신 자리젯이여.(사뭇 옛날에 먹었던 건 모자반장아찌, 그 저 파초, 그거였습니다. 큰 반찬이. 다른 건 없었었습니다. 무슨 자리젓이다.)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메주는 언제, 어떻게 쑵니까?)

107062 #6 콩 솖앙 뿟앙(콩 삶아서 빻아서.)

107062 @ 언제?(언제?)

107062 #6 요 흔 이제 시월 이 돌에 솖아야 저, 저 섯돌에 담아져.(요 한 이제 시월 이 달에 삶아야 저, 저 섣달에 담아져.)

107062 #5 이 돌광 새 돌엔 솖아사 헐 거주기. 콩 솖앙 그거 텅 물리왕은에 물리와사 다시 장을 둥그는 거라부난. 과정이.(이 달과 새 달엔 삶아야 할 거지. 콩 삶아서 그거 떠서 말려서 말리어야 다시 장을 담그는 거니까. 과정이.)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헤 주십시오. 뭐 허지 말라. 뭐 허지 말라.(장 담글 때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107063 #5 저 영장 날 때 담지 말렌 허고. 사람 죽으면 영장 난 때 비린다고. 장 담지 못허게 허곡.(저 영장 날 때 담지 말라고 하고. 사람 죽으면 영장 난 때 비린다고. 장 담지 못하게 하고.)

떡류

107064 @ 그다음엔 떡이우다. 떡. 떡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다음엔 떡입니다. 떡.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4 #5 떡은게 침떡도 허곡, 좁쏠 뿟앙 침떡허고, 곤쏠 뿟앙 침떡 허곡.(떡은 시루떡도 하고, 좁쌀 빻아서 시루떡하고, 흰쌀 빻아서 시루떡 하고.)

107064 #6 놈삐 썰어놓곡 ᄆᆞ멀ᄀᆞ룰헤영 헤영 부비영 떡 헤영 경 헤연 그게 흔짝으론 쌀가룰 영 흐쏠 허트고, 흔짝으론 ᄆᆞ멀ᄀᆞ루 허트고 헹 그건 저 곤쏠ᄀᆞ루 허

튼 딘 큰 그 제상에 올리곡 그냥 ᄆᆞ멀ᄀᆞ루만 헌딘 사람 먹곡 경 헤연 ᄉᆞ믓 엿날엔 헤낫수다.(무 썰어넣고 메밀가루해서 해서 비벼서 떡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쪽으론 쌀가루 이렇게 조금 흩고, 한쪽으론 메밀가루 흩고 해서 그건 저 흰쌀가루 흩은 덴 큰 그 제상에 올리고 그냥 메밀가루만 한데는 사람 먹고 그렇게 해서 사뭇 옛날은 했었습니다.)

107064 #5 옛날은 어려우니까 경 헷주만은 요즘은 그렇게 안헴주만은.(옛날은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만.)

107064 #6 요즘에 말을 허는 게 아니고 엿날 말만 들엄수게게. 경허난 저 ᄆᆞ멀ᄏᆞ룰로 절벤, 솔벤, 중게, 약게, 그런 거 막 헤낫수다. ᄆᆞ멀ᄏᆞ룰로 것도.(요즘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말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 메밀가루로 절편, 솔편, 중계, 약과, 그런 거 막 했었습니다. 메밀가루로 것도.)

107065 @ 시루떡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시루떡이 침떡이지예?(시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루떡이 '침떡'이지요?)

107065 #5 예. 시루떡이 침떡.(예. 시루떡이 '침떡'.)

107065 #6 그거 아까 ᄀᆞᆯ은 거 그거주기. ᄒᆞᆫ짝은 쌀 올리곡, ᄒᆞᆫ짝은 ᄆᆞ멀ᄏᆞ루 ᄒᆞ곡 허연.(그거 아까 말한 거 그거지. 한쪽은 쌀 올리고, 한쪽은 메밀가루 하고 해서.)

107066 @ 송편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송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6 #5 송펜은게 보통 그냥 ᄒᆞᆫ 가지라. 그건. ᄋᆞ러 가지가 송편은 ᄒᆞᆫ 가지.(송편은 보통 그냥 한 가지야. 그건. 여러 가지가 송편은 한 가지.)

107066 @ 반착? 반 거, 온 거? 반돌이여?(반쪽? 반 거, 온 거? 반달이다?)

107066 #5 이렇게 헤서 이레 뭣 담아 가지고 요영, 요영헌 그게 송펜이고, 다시 절벤이옌 헌 건 다시 저 영, 영 밀엉은에 영 무신걸로 떵은에 뭐 그릇으로 떵 그거 헤 내영 그레 논 것ᄀᆞ라 세미, 은절미.(이렇게 해서 여기 뭣 담아 가지고 요렇게, 요런 그게 송편이고, 다시 절편이라고 한 건 다시 저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무엇으로 떠서 뭐 그릇으로 떠서 그거 해 내서 그리 논 것보고 '세미', 인절미.)

107066 @ 게난 우리가 알고 있는 송편은 보름달 모양에 거기 막 놓는데예. 월령 마을을 제가 조사헷수다게. 그기 선인장 잇는데.(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송편은 보름달 모양에 거기 막 놓는데요. 월령 마을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거기 선인장 있는데.)

107066 #5 아아.(아아.)

107066 @ 거기는 송편이렌 허난 속에 고물도 안 놓고.(거기는 송편이라고 하니까 속에 고물도 안 넣고.)

107066 #5 안 놩 무싱걸로 헹은에 송편이옌 허는 거라?(안 놔서 무슨 걸로 해서 송편이라고 하는 거야?)

107066 @ 송편이 동글락헌 게 아닙디다. 반달 모양 떡.(송편이 둥근 게 아닙디다. 반달 모양 떡.)

107066 #6 물떡게. 물떡.(물떡. 물떡.)

107066 #5 세미 멘들앗구나게.(‘세미’ 만들었구나.)

107066 @ 틀립디다. 게난.(다릅디다. 그러니까.)

107066 #6 이디도 세미 멘드는 디 잇입니다.(여기도 세미 만드는 데 있습니다.)

107066 #5 엿날은 이제는 저 송편이 하주만은 옛날은 뒈나마나 세밀 멩근 거라. 요영 동글락허게 헹은에 그레 뭣 놩 영 좁앙은에.(옛날은 이제는 저 송편이 많지만 옛날은 되나마나 ‘세밀’ 만든 거야. 요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리로 뭣 놔서 이렇게 집어서는.)

107066 #6 세미는 영, 영 세미는 영 영 밀엉 뭣으로 영 딱 허민 동글락헐 거 아니우꽈? 경 허민 영 좁앙은에 이 쉬 놩 영 영 좁으민 그게 세미.(‘세미’는 이렇게, 이렇게, ‘세미’는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뭣으로 이렇게 딱 하면 둥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집어서 이 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집으면 그게 ‘세미’.)

107066 #5 똑 요 모냥으로 이거추룩, 요렇게 헌 것ᄀᆞ라 세미.(똑 요 모양으로 이거처럼, 요렇게 헌 것보고 ‘세미’.)

107066 @ 조로 하고 메밀로도 하고.(조로 하고 메밀로도 하고.)

107066 #6 예. 그렌 그렇게 멘듭니다게. 함덕더렌.(예. 그리론 그렇게 만듭니다. 함덕으론.)

107066 @ 아니, 함덕이 아니고, 요기 월령. 선인장.(아니, 함덕이 아니고, 요기 월령. 선인장.)

107066 #5 월령. 이 저 조수로 저레 내려간 디 월령.(월령. 이 저 조수로 저리 내려간 데 월령.)

107066 #6 가세헤영 영 동글락하게 멘들민 공들어. ᄒᆞ쏠.(‘가세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공들어. 조금.)

107067 @ 빙떡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빙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7 #5 예. 빙떡은 보통 헤나고.(예. ‘빙떡’은 보통 했었고.)

107067 #6 보통으로 이제도 허난에.(보통으로 이제도 하니까.)

107067 #5 잔치집은 멩심헹 허는 딘 허고.(잔칫집은 명심해서 하는 덴 하고.)

107067 @ 여름엔 안 허지예?(여름엔 안 하지요?)

107067 #5 여름에도 생각허는 사람은 헤도 경 안 헌 사람은 안 헤.(여름에도 생각하는 사람은 해도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안 해.)

107067 @ 무가 귀헤부난. (무가 귀하니까.)

107067 #6 ᄆᆞ멀빙떡.(메밀빙떡.)

107067 @ 무우가 귀헤가지고 보통 거기 쉬가 무우만?(무가 귀해가지고 보통 소가 무만?)

107067 #5 풋 솖앙 뿟앙도 허고, 녹두 솖앙 뿟앙도 허고, 쉬 담앙 다 허는 거.(팥 삶아서 빻아서도 하고, 녹두 삶아서 빻아서도 하고, 소 담아서 다 하는 거.)

107067 #6 제일 맛 좋음은 무우 담아사 노인네 그게 좋덴 헙네다.(제일 맛 좋음

은 무 담아야 노인네 그거 좋다고 합니다.)

107067 @ 예.(예.)

107067 #5 동욱이 아방은 픗쉬만 담으렌 허곡, 빙에고 뭣에도 픗쉬헌 건 먹곡 그냥 늠삐 헌 건 안 먹넨 헙디다. 동욱이 아방.(동욱이 아버지는 팥소만 담으라고 하고, '빙'에고 뭐에도 팥소한 건 먹고, 그냥 무 한 건 안 먹는다고 합디다. 동욱이 아버지.)

107067 #6 건 입이 틋나.(건 입이 달라.)

107067 #5 우리는 무가 먹으민 한걸허여.(우리는 무가 먹으면 한가해.)

107068 @ 틋나. 하하하하하. 상웨떡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상웨떡?(달라. 하하하하하. 상화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떡?)

107068 #5 어? 삼메떡?(어? 상화떡?)

107068 @ 상웨떡? 건 막걸리 놩 허는 건가?(상화떡? 건 막걸리 넣어서 하는 건가?)

107068 #5 삼메떡, 밀ᄀᆞ루 헤가지고 막걸리 사다놔서 찧어가지고 허영 놔두민 뭐 더껑 곱게 헹 잘 더껑 놔두민.(상화떡, 밀가루 해가지고 막걸리 사다놔서 찧어가지고 해서 놔두면 뭐 덮어서 곱게 해서 잘 덮어서 놔두면.)

107068 #6 건 이제고, ᄉᆞ믓 옛날엔 지슬, 지슬 솖앙 뻣앙, 물 ᄒᆞ쏠 놓고 누룩 놩, 영 놔두민, 그게 와글와글 뀁네다.(건 이제고, 사뭇 옛날엔 감자, 감자 삶아서 빻아서, 물 조금 넣고 누룩 놔서, 이렇게 놔두면, 와글와글 끓니다.)

107068 #5 밥 놓곡 헤영.(밥 넣고 해서.)

107068 #6 경허민 그거 물 뚜라 놩, 저 모멀, 저 밀ᄀᆞ루레 쪙, 것도 밀ᄀᆞ루도 ᄀᆞ레에 ᄀᆞᆯ앙, 밀 ᄀᆞᆯ앙, 밀 ᄀᆞᆯ앙은에 ᄀᆞ레에 ᄀᆞᆯ앙 거 좀진체로 쳐.(그렇게 하면 그거 물 따라 넣어서, 저 메밀 저 밀가루에 찧어서, 것도 밀가루도 맷돌에 갈아서, 밀 갈아서, 밀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거 가는체로 쳐.)

107068 #5 밀떡ᄀᆞ치 희진 안헤서 검시근허여. 옛날 밀 ᄀᆞᆯ앙 헌 건.(밀떡같이 희진 않아서 거무스름해. 옛날 밀 갈아서 한 건.)

107068 #6 게난 ᄀᆞᆯ아부난 거죽을 안 벳겨부난 그게 불구룽허는 거우다. 경ᄒᆞ난 그추룩 헨 저 그런 떡은 만들엇수다.(그러니까 갈아버리니까 거죽을 안 벗겨버리니까 그게 불그스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처럼 해서 저 그런 떡을 만들었습니다.)

107068 #5 게난 소까이 간 헌 때는 보리떡도 세미 그것도.(그러니까 소개 가서 한 때는 보리떡도 '세미' 그것도.)

107068 #6 건 이제고게, 그 전에 말을 말 헤야지게.(건 이제고, 그 전에 말을 말 해야지.)

107068 #5 게메, 소까이 간 온 때는 그것도 보통 헷어.(글쎄, 소개 가서 온 때는 그것도 보통 했어.)

107068 @ 지실을 무사 경 부겍이 경?(감자를 왜 그렇게 부각이 그렇게?)

107068 #6 옛날엔 지실은 만허곡 다른 건 어려우니까. 어려완.(옛날엔 감자는 많고 다른 건 어려우니까. 어려웠어.)

107068 @ 감자가 더 맛 좋지 안헤마씨? 감자?(감자가 더 맛 좋지 않아요? 감자?)

107068 #5 둘ᄏᆞ롬허주만은 어려우니까 그 철에 따라 감제 엇일 때는.(달콤하지만 어려우니까 그 철에 따라 고구마가 없을 때는.)

107068 #6 이제도 지실로 빵떡 멘들믄 완전 맛 좋읍네다.(이제도 감자로 빵떡 만들면 완전 맛 좋습니다.)

107068 @ 아아, 지슬로 허는 걸 봐 본 적이 엇인디?(아아, 감자로 하는 걸 봐 본 적이 없는데?)

107068 #5 지실 허영 그디 놩 막 부벼가지고, 쪄가지고 쩡, 솟디 쪄가지고 거죽 베껑 다여놩 뻣아가지고, 이젠 ᄀᆞ루에 놩 막 부벼.(감자 해서 거기 놔서 막 비벼가지고, 쪄가지고 쪄서, 솥에 쪄가지고 껍질 벗겨서 으깨어서 빻아가지고, 이젠 가루에 넣어서 막 비벼.)

107068 @ 아, 솖은 거를?(아, 삶은 거를?)

107068 #5 막 부벼 놩 다시 그레 기주 놩 이젠 막 찌는 거라. 찌엉 북세기 헤영 놔두면 그게 부겍이 궤민 이젠 그거 앗아네영, 이젠 저 무시거옌 허느니? 암반에 놩은에 이제 영, 영 헤영.(막 비벼 놔서 다시 그리로 기주 넣어서 이젠 막 찧는 거야. 찧어서 부각이 해서 놔두면 그게 부각이 괴면 이제 그거 가져내서, 이제 저 뭐라고 하느냐? 암반에 놔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7068 @ 그거 이름이 뭐마씨?(그거 이름이 뭐예요?)

107068 #6 아까 기주떡[128].(아까 '기주떡'.)

107068 #5 기주떡. 긋세 ᄀᆞᆯ은 저.('기주떡', 아까 말한 저.)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5 삼메떡, 삼메떡을 그렇게 헹은에, 이젠 그걸 이렇게 늬기반듯허게도 그치곡 다시 저 무신거 동글락허게 영 헹 헤놘 그차근에.(상화떡, 상화떡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자르고 다시 저 무엇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해놔서 끊어서.)

107068 #6 침떡추룩 많이 멘들앗수다. 그.(시루떡처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107068 @ 막걸리 놓지 않고? 막걸리 안 놔도.(막걸리 넣지 않고? 막걸리 안 넣어도.)

107068 #5 막걸리 놩.(막걸리 넣어서.)

107068 @ 아아.(아아.)

107068 #5 게난 삼메떡.(그러니까 상화떡.)

107068 @ 지실 노난 더 맛 좋겟다예.(감자 넣으니까 더 맛 좋겠네요.)

107068 #5 게벼왕 그것이 부삭거려.(가벼워서 그것이 부석거려.)

---

128) '기주떡'은 보리쌀가루나 밀가루 따위에 지주를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해서 찐 떡을 말한다.

107068 #6 지실로 저 순다리 멘들고, 지실로 그 떡 멘들곡 허민 더 맛 좋아.(감자로 '순다리' 만들고, 감자로 그 떡 만들고 하면 더 맛 좋아.)

107068 @ 지실로도 쉰다리를 만들어마씨?(감자로도 '순다리'를 만들어요?)

107068 #6 예.(예.)

107068 @ 보리밥으로가 아니고?(보리밥으로가 아니고?)

107068 #6 다른 걸로 만들민 검는디, 지실로 만들민 떡이 희여.(다른 걸로 만들면 검은데, 감자로 만들면 떡이 하얘.)

107068 @ 아아.(아아.)

107068 #6 더 부드럽지. 더 부드러와.(더 부드럽지. 더 부드러워.)

107068 #5 겁죽 다 벳겨뒁 솖앙 까주민 헤양허지 안헙니까?(껍질 다 벗겨두고 삶아서 깨뜨리면 하얗지 않습니까?)

107068 @ 아아. 강원도에서는 감자떡이렌 헹은에 지실로 헤가지고 영 손으로 헤가지고 완전 인긴디, 그거 제주도식으로 뭔가 개발하면 뭔가 나올 건디?(아아. 강원도에선 감자떡이라고 해서 감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완전 인긴데, 그거 제주도식으로 뭔가 개발하면 뭔가 나올 건데?)

107068 #5 그거는 붸려보난에 지실이 어떵헤산디 지실을 쎅여 가지고 항에 담앙와근에 이젠 그 물 우러나민 거 뜨르고, 다시 그 물 우러나민 뜨르고 헤서, 그걸로 저 지실로 저 무신거 허는 셍이란게. 그건 다시 질긋질긋헹게. 전분허연 헌 거.(그거는 바라보니까 감자가 어떡해선지 감자를 썩혀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이젠 그 물 우러나면 거 따르고, 다시 그 물 우러나면 거 따르고 해서, 그걸로 저 감자로 저 무엇 하는 모양이야. 그건 다시 쫄깃쫄깃하던데. 전분해서 한 거.)

107068 #6 건 전분 지질 전분으로.(건 전분 지질 전분으로.)

107068 @ 쫄깃쫄깃헤여. 떡이 완전 오메기떡보다도 더 잘 풀려, 거기는.(쫄깃쫄깃해. 떡이 완전 '오메기떡'보다도 더 잘 팔려, 거기는.)

107068 #5 거난 석은 지실을 석여 놓곡 항아리 담아놘에 이젠 그거를 막 영 영 막 젓엉 놔두민 그 전 물이 우러나민 그 물 알러레 골라앉으민 비와 뒁, 다시 물 놩 젓엉 놔두민 그거 헹 비우곡 헤가난 그게 전분 뒈는 셍이란게.(그러니까 썩은 감자를 썩혀 놓고 항아리 담아놔서 이젠 그걸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저어서 놔두면 그 전 물이 우러나면 그 물 아래로 가라앉으면 부어 두고, 다시 물 넣어서 저어서 놔두면 그거 해서 붓고 해가니까 그게 전분 되는 모양이던데.)

107068 #6 이디서 지실 썩으민 전분덜 만듭네다게.(여기서 감자 썩으면 전분들 만듭니다.)

107068 #5 게난 난 그런 거 헤 보진 안허곡.(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해 보진 안하고.)

107069 @ 제사떡의 종류에 대헹 말씀헤 주십시오.(제사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9 #5 침떡, 다시 이제 중게 약게옌 헹은에 ᄆᆞ멀 중게 약게옌 헤영 요추룩

헹은에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젠 송편으로 헴주만은 옛날은 이렇게 떡을 밀어가지고 칼로 영 영 그차가지고 ᄏᆞ칭허게 그창, 영 그창, 늬기반듯헌 떡허고 다시 정 밀어놩 빡 찍엉 다시 반착 갈랑 들떡, 그추룩 헹 올리고 그 우인 곤떡 헹 올리곡, 그 우인 다시 지름떡 헹 올리고 그 우인 저 무신거 헨 올려근에 허는 거 이디선 옛날에는.(시루떡, 다시 이제 중계 약과라고 해서 메밀 중계 약과라고 해서 요처럼 해서 옛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젠 송편으로 하고 있지만 옛날은 이렇게 떡을 밀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지런하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네모반듯한 떡하고 다시 정 밀어놔서 빡 찍어서 다시 반쪽 갈라서 달떡, 그처럼 해서 올리고 그 위엔 흰떡 해서 올리고, 그 위엔 다시 기름떡 해서 올리고 그 위엔 저 무엇 해서 올려서 하는 거 여기에선 옛날에는.)

107069 #6 나 ᄀᆞᆫ건 들읍서예. 잘사는 집인 곤떡으로 중게 약게여 웃적이여 다 만드는디, 못사는 사름은 ᄆᆞ멀로만 헷수다. ᄉᆞ믓 옛날에, 우리 시절엔 우리 아이 시절엔.(나 말하면 들으십이오. 잘사는 집엔 흰떡으로 중계 약게과 웃기떡이다 다 만드는데, 못사는 사름은 메밀로만 했습니다. 사뭇 옛날에, 우리 시절엔 우리 아이 시절엔.)

107070 @ 상례 때의 떡에 대헹 말씀헤 주십서.(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0 #5 다시 영장밧디 갈 때는 저 ᄇᆞ딘 궨당은 싀 합인가 멧 합, 서른 빗인 셍이라. 싀 합이옌 헤연 서른 빗허고, 그냥 먼 궨당엔 두 합 허민 스무 빗 헹 가곡, 고달 입정은에 건 생각하민 좁쏠ᄀᆞ루레 곤쏠 허껑은에 고달 입젼 헹 간 건 상주덜 멕이곡,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헤영 주곡, 경 헤영게.(다시 장지에 갈 때는 저 가까운 권당은 세 합인가 몇 합, 서른 '빗'인 모양이야. 세 합이라고 해서 서른 '빗'하고, 먼 권당엔 두 합 하면 스무 '빗' 해서 가고 스무 빗 해서 가고, '고달' 입혀서 건 생각하면 좁쌀가루에 흰쌀 흩어서 '고달' 입혀서 해서 가서 건 상주들 먹이고,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해서 주고, 그렇게 하던데.)

107070 #6 돌레떡도 헤낫수다. 잘사는 집인 친정에 헤 가젠 부모 돌아가민 그게 돌레떡이라고 영 넙삭허게 만들앙 바위 두둑허게 만들앙 저 스무 개 영 부쪙, 영 세젱은 허민 스무 개썩 부쪙.(도래떡도 했었습니다. 잘사는 집엔 친정에 해 가려고 부모 돌아가면 그게 도래떡이라고 이렇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가장자리 두둑하게 만들어서 저 스무 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세려고 하면 스무 개씩 붙여서.)

107070 #5 스무 개가 흔 합.(스무 개가 한 합.)

107070 #6 그거 흔 합 허연 그거, 그거 헤갓수다. 친정아버지나 돌아가민, 돌레떡.(그거 한 합 해서 그거, 그거 해갔습니다. 친정아버지나 돌아가면, 도래떡.)

107070 #5 조돌레, ᄆᆞ멀돌레 허영은에.(조도래, 메밀도래 해서.)

107070 @ 아아, 조돌레, ᄆᆞ멀 돌레예? 조돌레도 헷수과?(아아, 조도래, 메밀 도래요? 조도래도 했습니까?)

107070 #5 예. 조돌레도 헙니다.(예. 조도래도 합니다.)

107070 #6 예. 없는 집인 조돌레.(예. 없는 집엔 조도래.)

107070 #5 예. 조돌레 너미 맛 좋아낫어. 너미 맛 좋아.(예. 조도래 너무 맛 좋았었어. 너무 맛좋아.)

107070 @ 조 비싸. ᄆᆞ멀도 비싸고.(조 비싸. 메밀도 비싸고.)

107070 #5 술 허젠 허민 조 오메기허듯 그 좁쏠헤영.(술 하려고 하면 조 '오메기' 하듯 그 좁쌀해서.)

107070 #6 경헌디 잊어부런 못 ᄀᆞᆯ으크라. 떡? 그걸 저 근쏠로 영 ᄒᆞᆫ착헤영.(그런데 잊어버려서 못 말하겠어. 떡? 그걸 저 흰쌀로 이렇게 한쪽해서.)

107070 #5 게난 고달 입진 거.(그러니까 '고달' 입힌 거.)

107070 #6 아니, 돌래떡인디 저 반착 싹싹 오그렁 그 친정에 부젯집인 ᄯᅮ로 멘들앙 헤가난 거, 그 말은 못, 잊어부런 못 ᄀᆞᆯ으크라.(아니, 도래떡인데 반쪽 싹싹 오그려서 그 친정에 부잣집엔 따로 만들어서 해갔던 거, 그 말은 못, 잊어버려서 못 말하겠어.)

107070 #@ 돌레떡예?(도래떡요?)

107070 #5 돌레떡이옌 헌 것광 침떡 헌 건 영장밧디 저 산, 묻으레 간, 사람 묻을 때 강은에 허는 거 돌레떡이주. 그냥 저 집이 제 올리는 건 그런 거 아니. 그냥 아까 ᄀᆞᆺ세추룩 침떡 올리고, 그 우이 중게 약게 헤영 곤떡 그쟈 그런 거 올렁 지름떡, 인절미.(도래떡이라고 한 것과 시루떡 한 건 장지에 저 산, 묻으러 간, 사람 묻을 때 가서 하는 거 도래떡이지. 그냥 저 집에 제 올리는 건 그런 거 아니. 그냥 아까 아까처럼 시루떡 올리고, 그 위에 중계 약과 해서 흰떡 그저 그런 거 올려서 기름떡, 인절미.)

107071 @ 설기떡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백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1 #5 설기떡은 뭐?(백설기는 뭐?)

107071 #6 설귀? 침떡ᄀᆞ라 설귀떡이옌 허주게 엿날.(설기? 시루떡보고 백설기라고 하지. 옛날.)

107071 #5 우린 침떡 경 헹 헷주. 설기떡이옌 헌 말은 들음이 처음.(우린 시루떡 그렇게 해서 했지. 백설기라고 한 말은 듣기가 처음.)

107072 @ 인절미? 인절민 뭐꽈?(인절미? 인절민 뭡니까?)

107072 #5 그냥 저 ᄆᆞ멀 헹 그 중게 약게 이추룩 헹 늬게반듯허곡.(그냥 저 메밀 해서 그 중계 약과 이처럼 해서 네모반듯하고.)

107072 #6 인절민게 영 좁은 거 아니?(인절민 이렇게 집은 거 아니?)

107072 #5 그건 세미?(그건 '세미'?)

107072 @ 인절미는 찹쌀에 영 콩고물 섞은 거.(인절미는 찹쌀에 이렇게 콩고물 섞은 거.)

107072 #6 크게 ᄉᆞ뭇 크게 만든 건 물떡[129], 족게 멘든 건 세미, ᄒᆞᆫ쏠 크게 멘

129) '물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을 말한다

든 건 물떡 우리 옛날 떡만 이제 안 말.(크게 사뭇 크게 만든 건 '물떡', 작게 만든 건 '세미', 조금 크게 만든 건 '물떡' 우리 옛날 떡만 이제 안 말.)

107072 @ 물떡이렌 헷구나예.('물떡'이라고 했군요.)

107072 #6 예.(예.)

107074 @ 그다음에 인절미, 절변, 솔변은?(그다음에 인절미, 절편, 솔편은?)

107074 #5 솔잎 빠다 봉 삼메떡도 싯곡, 곤떡 그런 건 ᄆᆞ멀떡이나 곤떡 니기반듯 중게 약게 허곡 경허난.(솔잎 뽑아다 봤다가 상화떡도 있고, 흰떡 그런 건 메밀떡이나 흰떡 네모반듯 중계 약과 하고 그렇게 하니까.)

107075 @ 웃기떡? 웃기떡이 기름떡 별떡인가예? 고달떡이옌 헤싱가예?(웃기떡? 웃기떡이 기름떡 '별떡'인가요? '고달떡'이라고 했는가요?)

107075 @ 젤 우에가 지름떡이꽈?(제일 위가 기름떡입니까?)

107075 #5 예, 젤 우이 거가 지름떡, 엿날은 중게 약게는 침떡 우이 올리는 게 중게 약게곡, 그 우이 올리는 건 곤떡이고, 그 우이 올리는 건 지름떡이고 경헤근에 엿날은 다시 그 무신거옌 허느니? 지짐이 허여근에 어떵 저 고망 나게 허여근에 우에 올려놓고 경헤난, 옛날은.(예, 젤 위의 것이 기름떡, 옛날은 중계 약과는 시루떡 위에 올리는 그게 중계 약과고, 그 위에 올리는 건 흰떡이고, 그 위에 올리는 건 기름떡이고 그렇게 해서 옛날은 다시 그 무엇이라고 하니? 지짐이 해서 어떻게 저 구멍 나게 해서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어, 옛날은.)

107075 @ 무사 지짐이 고망 나게 허연마씨?(왜 지짐이 구멍 나게 했어요?)

107075 #5 계란으로 계란 때려가지고 고망 나게 영 영 허연 그런 거 헨. 경 헤낫어.(계란으로 계란 때려가지고 구멍 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했어. 그렇게 했었어.)

107075 @ 고달떡이옌 헙디다예? 고달떡?('고달떡'이라고 합디다? '고달떡'?)

107075 #6 지름떡이 고달떡이라, 옛날 바위가 다데다데허난.(기름떡이 고달떡이야, 옛날 가장자리가 '다데다데'하니까.)

107075 @ 계란 하나 가지고 저 회장님은 또 무슨 계란으로.(계란 하나 가지고 저 회장님은 또 무슨 계란으로.)

107075 #6 건 웃적, 웃적, 계란으로 동그락허게 허는 거.(건 '웃적', '웃적', 계란으로 동그랗게 하는 거.)

107075 @ 웃적, 웃적이라고 헤야 맞을 거 같다. 남자덜은 잘 모르는 거 닮다예. 그믄 상례 땐 영장밧디 갈 때하고 아까 상례 치를 때는 똑같고, 영장밧디 갈 때는 돌레떡이고.('웃적', '웃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러면 상례 땐 장지에 갈 때하고 아까 상례 치를 때는 똑같고, 장지에 갈 때는 도래떡이고.)

107075 #5 드르에 갈 땐 돌레떡광 침떡이고, 이 안에서 집이서 허는 건 다 곳세ᄀᆞ치 춤 침떡에 저 중게 약게 올리고, 다시 곤떡 올리곡 그 우이 다시 지름떡 올리고.(들에 갈 땐 도래떡과 시루떡이고, 이 안에서 집에서 하는 건 다 아까같이 참,

시루떡에 저 중계 약과 올리고, 다시 흰떡 올리고 그 위에 다시 기름떡 올리고.)

107075 #6 절변, 솔변 올리고.(절편, 솔편 올리고.)

107075 @ 절변, 솔변은 어디 올려마씨?(절편, 솔편은 어디 올려요?)

107075 #6 그 중게 약게 허는 디레 같이 올라가는 거라. 그것도. ᄉᆞ뭇 옛날이우다게.(그 중계 약과 하는 데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사뭇 옛날입니다.)

107075 @ 웃기떡이 기름떡, 별떡인가예? 고달떡이렌 헷수과? 기름떡을?(웃기떡이 기름떡, '별떡'인가요? '고달떡'이라고 했습니까? 기름떡을?)

107075 #6 웃적은 계란으로 동글락허게 만들앙 올리는 게 웃적. 고사리 ᄒᆞ나 놓곡 헤영 동글락허게 만드는 거.('웃적'은 계란 동그랗게 만들어서 올리는 게 '웃적'. 고사리 하나 놓고 해서 동그랗게 만드는 거.)

107075 #10 어릴 때 보민 그 저 꽃을 싱거. 그 고달꽃. 빨강헌 꽃, 저 그거 헹은에 고달떡 헹 먹어.(어릴 때 보면 그 저 꽃을 심어. 그 맨드라미. 빨간 꽃, 저 그거 해서 '고달떡' 해서 먹어.)

107075 #5 옛날은 고장 타당은에 물 헤여근에 것도 잊어 비엇수다. ᄀᆞ장 이름도 잊어비어신게원. 고달.(옛날은 꽃 따다가 물 해서 것도 잊어 버렸습니다. 꽃 이름도 잊어버렸네. '고달'.)

107075 #6 이제도 저 어디 고달꽃 그거 보여.(이제도 저 어디 맨드라미 그거 보여.)

107075 #5 게메 보여도, 이젠 이름은 잊어 비엇어. 그 고장 이름은?(글쎄 보여도, 이젠 이름은 잊어 버렸어. 그 꽃 이름은?)

107075 #6 고달꽃게.(맨드라미.)

107075 #5 아이고, 뭣엔산디 ᄀᆞᆯ아나신디.(아이고, 뭐라고 말했었는지.)

107075 @ 이름이 고달? 고달꽃?(이름이 '고달'? 맨드라미?)

107075 #6 고달꽃, 독 고달추룩 꼬골꼬꼴헌 꽃, 픕니다. 빨강헌 거?(맨드라미, 닭 볏처럼 꼬불꼬불한 꽃, 픕니다. 빨간 거?)

107075 #5 독 고달 닮은 고장인디.(닭 볏 같은 꽃인데.)

107075 @ 아, 맨드라미?(아, 맨드라미?)

107075 #5 아니, 아니, 맨드라미도 아니고.(아니, 아니, 맨드라미도 아니고.)

107075 #6 다 틀립니다. 저디 저 시에 말광, 이디 말광 대정 말광 다 틀려. 다 틀려.(다 다릅니다. 저기 저 제주시에 말과, 여기 말과 대정 말과 다 달라. 다 달라.)

107075 @ 고달꽃으로 만든, 그 물 빠가지고 허니까 고달떡?(맨드라미로 만든, 그 물 뽑아가지고 하니까 '고달떡'?)

107075 #10 으응.(으응.)

107075 @ 그믄 색깔이 어떵헙니까?(그러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107075 #5 빨강헌 거.(빨간 거.)

107075 #10 빨강허여.(빨개.)

107075 @ 맨드라미 닮다.(맨드라미 같다.)

107075 #10 그걸로 헤영 그 우이 올리는 거.(그걸로 해서 그 위에 올리는 거.)

107075 @ 것이 또 기름떡을 색깔 잇는 걸로 헷수과?(것이 또 기름떡을 색깔 있는 걸로 했습니까?)

107075 #5 옛날에, 옛날에. 엿날에는, 계란도 귀헤난 거 같아. 게난 그 물딜영은에 다른 ᄀᆞ루레 물딜영 그 떡을 헌 거 닮아. 옛날은.(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는, 계란도 귀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그 물들여서 다른 가루에 물들여서 떡을 한 거 같아. 옛날은.)

107075 #10 그 곤떡에 물딜영.(그 흰떡에 물들여서.)

107075 #6 경허난 웃적이옌 헌 건예. 계란으로 헌디.(그러니까 '웃적'이라고 한 건요. 계란으로 한데.)

107075 #5 아이구, 종애야. 아이구, 종애야.(아이고, 종아리야. 아이고, 종아리야.)

107075 #6 고사리 하나 영 뺑동글락허게 놓곡 헹 웃적 멩들앗수다. 그냥 멘드는 게 아니고,(고사리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해서 '웃적'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107075 @ 무사 고사리 놔신고예?(왜 고사리 놨을까요?)

107075 #6 몰라.(몰라.)

107075 #10 고사리는 귀신덜이.(고사리는 귀신들이.)

107075 #6 그 웃적이라 한 건 구신이 그걸 다 받앙 그레 쌍 가는 거옌.(그 '웃적'이라 한 건 귀신이 그걸 다 받아서 그리 싸서 가는 거라고.)

107075 #5 게난 그 고사리도 손 영 벌긴 걸 헤사 그레 떡을 받앙, 영 헤영 갓젠 헤고, 옛날은.(그러니까 그 고사리도 손 이렇게 벌린 걸 해야 거기 떡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 옛날은.)

107075 #10 그거 귀신이 지게라고 헤여. 거리면은 그것에 지게라고 헤근에 그것에 지게에 졍 간다고.(그거 귀신이 지게라고 해. 벌어지면 그것에 지게라고 해서 그것에 지게에 져서 간다고.)

107075 #6 웃적, 웃적, 그 고사리 하나 놓곡 헤근에, 웃적 만든 거. 거 쌍 ᄀᆞ졍 가는 거지 거.('웃적', '웃적', 그 고사리 하나 놓고 해서, '웃적' 만든 거. 거 싸서 가져가는 거지 거.)

107075 #5 귀신이 쌍 간다 헤서 그추룩 고사리 놘에.(귀신이 싸서 간다 해서 그처럼 고사리 놔서.)

107076 @ 당은 어디 갑디다예. 저지 갑디다예.(당은 어디 가딥다요. 저지 갑디다.)

107076 #6 동글락동글락, 넵질넵질 멘든 거. 뭐 돌레떡.(동글동글 '얇게 얇게' 만든 거. 뭐 도래떡.)

107076 #5 존존허게 돌레 멘들앙은에 할망디 갈 때 엿날.(자잘하게 도래 만들어

서 ‘할망당’ 갈 때 옛날.)

107076 @ 영장밧디보다는 족구나예. 존존한 돌레예, 어머니네나 당에 가시는 거 봐봣수과?(장지에서보다는 작군요. 잘잘한 도래요. 어머니네나 당에 가시는 거 봐봤습니까?)

107076 #5 아이구, 우리가 다 뎅겨낫주기.(아이고, 우리가 다 다녔었지.)

107075 #6 난 안 뎅견.(난 안 다녔어.)

107076 #5 난 당에 가 왓수다. 난 늙으난에 이젠 칠십 넘으난 안 가쿠다. 허여네 헤뒨 다신 그루후젠 안 갓수다게. 게난 아기덜신디.(난 당에 가왔습니다. 난 늙으니까 이젠 칠십 넘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해서 해 두고 다신 그 후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107075 #6 아기덜 일름은 걷어 불어야지게.(아기들 이름은 걷어 버려야지.)

107076 #5 아기덜 일름은 혜도 안직ᄁᆞ장은 어떵 안허연 그쟈 그걸로 그치룩헨 나 안 뎅기난 아기덜.(아기들 이름은 해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안해서 그저 그걸로 그처럼해서 나 안 다니니까 아기들.)

107076 @ 할머니당이꽈? 저도 찾아가 볼려고 하는데.(‘할머니당’입니까? 저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107075 #5 할망당. 밧으로 들어가는 디난 가기가 곶일 건디.(‘할망당’. 밭으로 들어가는 데니까 가기가 곶을 건데.)

107075 #6 질 빠져실 거우다. 막 너르게.(길 빼졌을 겁니다. 아주 넓게.)

107076 #5 밧입데다. 원래 밧이라.(밭입디다. 원래 밭이야.)

107075 #6 게메 밧으로 들어가는 디주게.(글쎄 밭으로 들어가는 데지.)

107076 @ 할망당이지예?(‘할망당’이지요?)

107076 #5 예. 크찡헌 밧인디 저 공동묘 산덜 막 한 딜로 쭉 들어가민, 밧으로 들어강 그디 가민 볼레낭이영 막 더꺼진 디.(예. 가지런한 밭인데 저 공동묘 묘지들 아주 많은 데로 쭉 들어가면, 밭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면 보리수나무랑 막 덮어진 데.)

107076 @ 무싱거, 무싱거 가져갑데가? 갈 때 무싱거 가져갑디가?(무엇, 무엇 가져갑디까? 갈 때 무엇 가져갑디까?)

107076 #6 종이 가져가곡, 물색 삼색 석 자치.(종이 가져가고, 물색 삼색 석 자치.)

107076 #5 물색 삼색혜영 ᄀᆞ졍가곡 것도 그 삼색 허는 사람도 어떵헌 사람이냐믄 저 옷 허는 사름덜이 그런 건 허는 것 ᄀᆞ탕게. 경 안 헌 사름은 그냥 종이, 소지 거껑 석 장허곡 다시 지전이나 물랑은에 흔 멧 장 물라 놓곡, 경 메허곡 그쟈 궤기덜 그쟈 생각허는 냥 적깔 상 ᄋᆞ졍가곡 경헷주기.(물색 삼색해서 가져가고 것도 그 삼색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저 옷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한 사름은 그냥 종이, 소지 꺾어서 석 장하고 다시 지전이나 말라서 한 몇 장 말라 놓고, 그렇게 메하고 그저 고기들 그저 생각하는 대로 적 사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지.)

107076 #10 떡은 안 헹 가는가?(떡은 안 해서 가는가?)

107076 #5 아니, 떡 헹 갑니다. 술도 ᄋᆞ정가곡, 떡도 다 헹 가. 난 막 오래, 난 막 늦도록 뎅겻수다게.(아니, 떡 해서 갑니다. 술도 가져가고, 떡도 다 해서 가. 난 아주 오래, 난 아주 늦도록 다녔습니다.)

107076 #6 난 가본 딘 읏어. 그런 딘.(난 가본 덴 없어. 그런 데는.)

107076 #5 난 막 늦도록.(난 아주 늦도록.)

107076 @ 삼촌 저지에서 태어나고 저지에서.(삼촌 저지에서 태어나고 저지에서.)

107076 #6 이 동네.(이 동네.)

107076 #5 아, 난 이디서 헷주만은 난 원래 우리 씨어멍네가 그디 뎅겨나부난에 거기 죽장 뎅겻수다.(아, 난 여기서 했지만 난 원래 우리 시어머니네가 거기 다녀버리니까 거기 쭉 다녔습니다.)

107076 @ 정성은 좋은 거 닮아마씨. 정월달엔 꼭 가야겟다예?(정성은 좋은 거 같아요. 정월달에 꼭 가야겠네요?)

107076 #5 정월둘에도 가곡양, 멩심허는 사름은 잘도 ᄋᆞ라 번 가메. 잘도 ᄋᆞ라 번.(정월달에도 가고요, 명심하는 사람은 잘도 여러 번 가. 잘도 여러 번.)

107076 #10 초일뤠날은 가고.(초이레날은 가고.)

107076 #5 초일뤠날 가곡, 초사흘날 가곡헤여. 초사흘, 초일뤠 가메. 열사흘 열일뤠, 스무사흘, 스무일뤠.(초이레날 가고, 초사흘날 가고 해. 초사흘, 초이레 가. 열사흘 열이레, 스무사흘 스무이레.)

107076 #10 경 가. 그디 갈 때는 저 누게 동네 사름.(그렇게 가. 거기 갈 때는 저 누구 동네 사람.)

107076 #5 봐도 말, 인사도 안 허영 그냥 가곡.(봐도 말, 인사도 안 해서 그냥 가고.)

107076 @ 무사마씨?(왜요?)

107076 #5 그디 가민 문딱 그 심방 입에 다 골아. 오멍 인사 받앗젠. 게난 ᄀᆞ딱 줌줌혜영 솔작솔작 그냥.(거기 가면 모두 그 심방 입에 다 말해. 오면서 인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까딱 잠잠해서 살짝살짝 그냥.)

107076 @ 오는 사람 잇어도 그냥 슥 지나가고.(오는 사람 있어도 그냥 슥 지나가고.)

107076 #5 예. 아는 사람 봐져도 그쟈 줌줌혜영 수국수국 가멍, 알아먹엉 출리는 거 보면은 다 알앙 줌줌혜영 다시 살살 넘어가곡.(예. 아는 사람 봐도 그저 잠잠해서 수굿수굿 가면서, 알아먹어서 차리는 거 보면 다 알아서 잠잠해서 다시 살살 넘어가고.)

107076 @ 게믄 거기 톤아 뒁 오지예?(그러면 거기 뜯어두고 오지요?)

107076 #5 그디 심방이 있어. 심방이 잇어서 문딱 하나하나 이름 적으멍, 문딱

올령, 예명 올렷닥 두 번 다시 헐 땐, 그거 허멍 다시 제비쏠 좁으멍 문딱 허영은에 이 애긴 아무 둘은 궂다, 좋다. 영 허영 문딱 그디서 말허민 그대로 그쟈 알앙 오랑은에 그쟈.(거기 심방이 있어. 심방이 있어서 몽땅 하나하나 이름 적으면서, 몽당 올려서, 예명 올렸다가 두 번 다시 할 땐, 그거 하면서 다시 제비쌀 집으면서 몽땅 해서 이 아긴 아무 달은 궂다, 좋다. 이렇게 해서 몽당 거기서 말하면 그대로 그저 알아서 와서 그저.)

107076 #6 나 시에 살 땐 그디 가 온 떡 먹엇단에 말 몰란.(나 제주시에 살 땐 거기 가 온 떡 먹었다가 말 몰라서.)

107076 #5 게난 우린양 우정오질 안헙니다. 헤난 그디서 먹당 남은 건 다 심방구덕더레 다 문딱 우져당 다 그 사람이 우정강, 동네 사름덜 거이 누놔먹넨 헹게.(그러니까 우린요 가져오질 안합니다. 했던 거기서 먹다가 남은 건 다 심방바구니로 다 몽땅 가져다가 다 그 사람이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 거의 나눠먹는다고 하던데.)

107076 @ 메인 심방이 잇수과? 엇지예?('메인 심방'이 있습니까? 없지요?)

107076 #5 이디 심방이 앚암신디 말암신디 난.(여기 심방이 앉았는지 말았는지 난.)

107076 #10 심방은 아니고 그 옥길이 각시.(무당은 아니고 그 옥길이 각시.)

107076 #6 거 심방이우다게.(거 심방입니다.)

107076 #5 막 큰심방이라, 옥길이 각시. 옥길이 각시도 허단 놔둰 시에 갓수다. 옥길이 각시도 죽어실 거우다게 옥길이 각시도 나이 핫수다게, 아이고, 흔 구십은 나실 거우다게.(아주 큰심방이야, 옥길이 각시. 옥길이 각시도 하다가 놔둬서 제주시에 갔습니다. 옥길이 각시도 죽었을 겁니다. 옥길이 각시도 나이 많습니다. 아이고, 한 구십은 됐을 겁니다.)

107076 #6 아니우다게. 작년끄지도 저지 살앗주.(아닙니다. 작년까지도 저지 살았지.)

107075 #5 이디 안 살암수다. 누구엔 허느니? 검뎅이 어멍신더레 일임헤둰 갓젠 헤고.(여기 안 삽니다. 누구라고 하니? 검뎅이 어머니한테로 일임해두고 갔다고 하던데.)

107076 @ 검뎅이 어멍 못봐?(검댕이 어머니 못 봐?)

107075 #5 모르쿠다 원. 그 할망도 살아신지 죽어신지 난 봐나질 안허난 난 몰라.(모르겠습니다. 전혀. 그 할머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봤었질 안하니까 난 몰라.)

107076 @ 검뎅이 어멍마씨?(검댕이 어머니요?)

107075 #5 그 아덜이 얼굴이 검으니까 껌뎅이, 껌뎅이, 껌뎅이 어멍, 껌뎅이 어멍 헹게.(그 아들이 얼굴이 검으니까 검댕이, 검댕이, 검댕이 어머니, 검댕이 어머니 해서.)

107076 @ 허허허허.(허허허허.)

107075 #10 겡헤도 그 할망도 늙어서.(그렇게 해도 그 할머니도 늙어서.)

107075 #5 심방질허레 자꾸 뎅깁니다.(심방질하러 자꾸 다닙니다.)

107075 #6 것도 큰심방 아니라?(것도 큰심방 아니야?)

107075 #5 예. 심방질허레 뎅겨. 검뎅이 어멍은 뻐꾸기 어멍이영 산덴허멍 심방질허여.(예. 심방질하러 다녀. 검댕이 어머니는 뻐꾸기 어머니랑 산다고 하면서 무당질해.)

107076 @ 살아 계신지 알아줄 수 엇수과? 살아계신지.(살아 계신지 알아줄 수 없습니까? 살아 계신지.)

107075 #6 그거 정월돌에 오랑 지켱 아무라도 오랑 앚입니다게.(그거 정월달에 와서 지켜서 아무라도 와서 앉습니다.)

107076 @ 초사흘에 감수과?(초사흘에 갑니까?)

107076 #5 초사흘, 초일뤠, 열사흘, 열일뤠, 스무사흘, 스무일뤠, 그땐 똑 그디 가주기덜.(초사흘, 초이레, 열사흘, 열이레, 스무사흘, 스무이레, 그땐 똑 거기 가지들.)

107075 #6 초싱에 틀림엇이 앚입니다.(초승에 틀림없이 앉습니다.)

107076 @ 한 멧 명 정도 오십니까?(한 몇 명 정도 오십니까?)

107076 #5 아이구, 사름 합네다양. 시에서도 오고, 어디 서귀포 간 사람덜도 다 그땐 춪아오니까 조상 춪앙.(아이고, 사람 많습니다. 시에서도 오고, 어디 서귀포 간 사람들도 다 그땐 찾아오니까 조상 찾아서.)

107076 @ 월령 심방밖에 엇수게, 서쪽더렌.(월령 심방밖에 없잖아요. 서쪽으론.)

107076 #5 몰라. 어느 심방산디.(몰라. 어느 심방인지.)

107075 #6 저지 심방 잇수다. 아적은.(저지 심방 있습니다. 아직은.)

107076 @ 심방 잇수과?(심방 있습니까?)

107076 #6 검뎅이 어멍.(검댕이 어머니.)

107076 #5 몰르쿠다원. 어느 심방산디, 할망도 살아신지 죽어신지 만나질.(모르겠습니다. 어느 심방인지, 할머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나질.)

107078 @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헤 주십시오.(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7078 #5 다시 전병이옌 헌 건 다시 영, 영 밀어근에 영 무시거 떵은에, 뭣 것을 떵, 그레 놓는 것ᄀᆞ라 세미, 인절미, 옛날은 이제는 송편이 핫주만은 옛날은 뒈나마나 세미, 요영 동글락허게 뭐 놩 좁앙은에.(다시 전병이라고 한 건 다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무엇 떠서, 뭣 것을 떠서, 그리 넣는 것보고 '세미', 인절미, 옛날은 이제는 송편이 많지만 옛날은 되나마나 '세미', 요렇게 동그랗게 뭐 놔서 집어서.)

107078 #6 세미는 영, 영 밀엉. 영, 영 밀엉. 뭣으로 딱허민 동글락헐 거 아니꽈? 경허민 좁앙은에 이 쉬 놩 영 영 좁으민 그게 세미, 그렌 그렇게 먹읍니다게. 안덕더렌, 경허당 그 가지가 동글락허게 만들민 공들어. 거.('세미'는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뭣으로 딱하면 동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집

어서 이 소 놔서 이렇게 이렇게 집으면 그게 '세미', 그리론 그렇게 먹습니다. 안덕으론, 그렇게 하다가 그 가지가 동그랗게 만들면 공들어. 거.)

소와 고물

107079 @ 떡에 다른 소 종류, 소라는 것은 속에 놓는 거예. 고물. 팥, 깨, 완두콩, 설탕, 건 요즘이잖아예? 옛날에는?(떡에 다른 소 종류, 소라는 것은 속에 넣는 거요. 고물. 팥, 깨, 완두콩, 설탕, 건 요즘이잖아요? 옛날에는?)

107079 #5 녹디, 픗, 다시 이제.(녹두, 팥, 다시 이제.)

107079 #6 콩ᄀᆞ룰 놔놧수다. 콩ᄀᆞ루.(콩가루 놨었습니다. 콩가루.)

107079 #5 이제 콩 보깡은에 골앙 그것도 놔나고.(이제 콩 볶아서 갈아서 그것도 놨었고.)

107079 @ 꿰?(깨?)

107079 #5 예. 꿰도 놔나고.(예. 깨도 놨었고.)

107080 @ 그다음 고물이 아까 팥, 콩가루. 떡에 얽힌 속담이나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혜 주십시오.(그다음 고물이 아까 팥, 콩가루. 떡에 얽힌 속담이나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80 #5 다시, 중간에 다시 저 떡 안에 놓는 거, 고구마도 숢앙 썰어놓고, 다시 지실도 숢앙 썰어놓고, 엿날은 그렇게도 허고, 다 그쟈 그때 당허는 냥 이녁 자신에 메꼉은에 그쟈 헌 거난. 누게가 영 허라 헌 게 아니고 이녁 자신만썩 허는 거난.(다시, 중간에 다시 저 떡 안에 넣는 거, 고구마도 삶아서 썰어넣고, 다시 감자도 삶아서 썰어놓고, 옛날은 그렇게도 하고, 다 그저 그때 당하는 대로 이녁 자신에 맡겨서 그저 한 거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 한 게 아니고 이녁 자신만큼씩 하는 거니까.)

별식

107082 @ 순대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2 #5 ᄆᆞ멀ᄀᆞ루 허영은에 는젱이 ᄀᆞ루엔 헌 거 허영은에 수웨 담곡.(메밀가루 해서 나께 가루라고 한 거 해서 순대 담고.)

107082 @ ᄆᆞ멀 는젱이 ᄀᆞ루로 수에 담아예?(메밀 나께 가루로 순대 담아요?)

107082 #5 예. 거 맛 좋아.(예. 거 맛 좋아.)

107082 @ 담아낫수과?(담았었습니까?)

107082 #6 맛 좋아.(맛 좋아.)

107082 @ 남자덜이 담는 거?(남자들이 담는 거?)

107082 #6 아니 여자덜이 헙네다. 여긴.(아니, 여자들이 합니다. 여긴.)

107082 @ 이장님 만들어나십데다.(이장님 만들었습디다.)

107082 #5 아니, 이딘 여자덜이 허여.(아니, 여긴 여자들이 해.)

107082 @ 말씀도 잘하시고예. 창자 그거 무슨 메역귀 그거 하하.(말씀도 잘하시

고요. 창자 그거 무슨 미역귀 그거 하하.)

107082 #6 여자가예. 저 똥만 빼영 내불민 여자덜이 다 시쳔, 깨끗이 시쳥, 남자덜 헌 건 냄새 낭 못 먹어.(여자가요. 저 똥만 빼서 내버리면 여자들이 다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남자들 한 건 냄새 나서 못 먹어.)

107082 #5 메역귀 썰엉 건, 건만 무싱거옌 허느니? 다시 소금으로 시쳣더라, 다시 밀ᄀᆞ루 놩 시쳣더라. 얼마나 무르쥐영[130] 시치는 거라. 그 베설을.(미역귀 썰어서 건, 건만 무엇이라고 하니? 다시 소금으로 씻었더라, 다시 밀가루 놔서 씻었더라. 얼마나 '무르쥐영' 씻는 거야. 그 창자를.)

107082 #6 커피 놩도 시치고, 게난 여자덜 냥으로 시친 건 냄새가 안 낭 맛 좋고, 남자덜 헌 건 냄새 낭 못 먹어. 게난 남자덜 시치지 못허게 헤여.(커피 놔서도 씻고, 그러니까 여자들 대로 씻은 건 냄새가 안 나서 맛 좋고, 남자들 한 건 냄새 나서 못 먹어. 그러니까 남자들 씻지 못하게 해.)

107082 #5 건 것만 시시니까게 에펜덜ᄀᆞ치 퉨장 놘 뭐 무르쥐곡, 뭐 밀ᄀᆞ루 놩 무르쥐곡 그런 걸 안 헤영 그쟈 단순히 소금이나 놩 무르쥐영 시시민 냄새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멩 ᄀᆞᆯ앗쟈, 게곡 수에가 냄살 ᄒᆞ쏠 나긴 허는 거. 이거.(건 것만 씻으니까 여자들같이 된장 놔서 뭐 주무르고, 뭐 밀가루 놔서 주무르고 그런 걸 안 해서 그저 단순히 소금이나 놔서 주물러서 씻으면 냄새 안 날 수가 없는 거. 아무리 말해도, 그러고 순대가 냄새 조금 나긴 하는 거. 이거.)

107082 #10 나긴 허는 거.(나긴 하는 거.)

107082 #5 게난 그레 다시 무슨 메역귀도 썰어 놓곡, 간쏨[131]도 썰어놓곡 허여근에 수웨 담고.(그러니까 그리로 다시 무슨 미역귀도 썰어 넣고, '간쏨'도 썰어놓고 해서 순대 담고.)

107082 @ 아이고 춤예, 재미지다예.(아이고 참요, 재미지네요.)

107083 @ 그다음 둠비? 둠비도 헹 먹어낫수과?(그다음 두부? 두부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83#5 두부는 이제는 빠당 먹엄주만은 우린 옛날 우리 시절에는 콩 ᄀᆞᆯ아가지고 콩을 다시 그걸 물에 불왕, 그거 헤영 걸렁 비제긴 비제기대로 빠고, 줌진 건 줌진 거대로 ᄀᆞ루를 거기 허영 다시 이제 저 무신거옌 허느니? 저 솟디 놩 막 저어. 가메에 막 놩 숢앙 그레 이젠 소금물, 간물 허영 소금물 ᄒᆞ꼼 놩, 이젠 허여 놩, 그건 다시 이제 또 무싱거더레 저 무신 저.(두부는 이제는 뽑아다가 먹고 있지만 우린 옛날 그 시절에는 콩 갈아가지고 콩을 다시 그걸 물에 불려서, 그거 해서 걸러서 비진 비지대로 빼고, 가는 건, 가는 거대로 가루를 거기 해서 다시 이제 저 무엇이라고 하니? 저 솥에 놔서 막 저어. 가마에 막 놔서 삶아서 거기에 이제 소금물 간수해서 소금물 조금 놔서, 이젠 해 놔서, 그건 다시 이제 또 무엇에 저 무슨 저.)

130) '무르쥐다'는 짓무르게 주무르다. 꽉 쥐다는 뜻이다.
131) '간쏨'은 돼지의 횡경막을 뜻한다.

107083 #10 차롱에.(채롱에.)

107083 #6 자루에 영 허영 늬기반듯허게 하꼬 짱 그레 놩.(자루에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하게 상자 짜서 거기 놔서.)

107083 #5 하꼬에, 자루 영 허영 늬기반듯헌 것드레 영 놔근에 그레 영 험벅, 큰 험벅 꼴앙 그레.(상자에, 자루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한 것으로 이렇게 놔서 그리로 이렇게 헝겊, 큰 헝겊 깔아서 그리로.)

107083 #6 솖은 걸.(삶은 걸.)

107083 #5 솖은 물을 그레 놩, 다시 그 보자기 더껑, 이젠 그레 다시 무싱거 딱 놩 눌렁 고레착이영 막 놩 눅뜰민 그 물은, 둠비물은 알로 빠져 불민 이젠 겨믄 그거 들러내영 다시 두부 헤영 먹고, 잔치집이도 허곡, 경 헤연. 옛날은. 것도 잘 허는 저 부제칩이라사 두부 허곡.(삶은 물을 거기 놔서, 다시 보자기 덮어서, 이젠 그리 다시 무엇 딱 놔서 눌러서 맷돌짝이랑 막 놔서 누르면 그 물은, 두붓물은 아래로 빠져 버리면 이젠 그러면 그거 들어내서 다시 두부 해서 먹고, 잔칫집에도 하고, 그렇게 했어. 옛날은. 것도 잘 하는 저 부잣집이어야 두부 하고.)

107083 @ 헤낫수가?(했었습니까?)

107083 #6 가난헌 집인 경 두부허곡 하근 거 못 헷수다.(가난한 집엔 그렇게 두부하고 온갖 거 못 했습니다.)

107083 @ 우리 내도에 사는 딘예, 둠비 막 유명혜젼 아예 가게를 열어 놓안예. 찰련.(우리 내도에 사는 데는요, 두부 막 유명해져서 아예 가게를 열어 놓앗어요. 차려서.)

107083 #5 외돈 둠비 허는 디 잇어. 그디 강 우리도 빠와낫어. 잔치 돌아와 가민 그것 강 멧 말 에치 강 맞추어당.(외도는 두부 하는 데 있어. 거기 가서 우리도 뽑아왔었어. 잔치 돌아와 가면 그것 가서 몇 말 어치 가서 맞추어다가.)

107083 #6 그디 강.(거기 가서)

107083 #10 잔치 헐 땐 그디 강 사 먹주게.(잔치 할 땐 거기 가서 사 먹지.)

107083 #6 예. 맞추와당.(예. 맞추어다가.)

107083 #10 잘도 맛 좋아. 쿠싱헌 게.(잘도 맛 좋아. 고소한 게.)

107083 #5 예.(예.)

107083 #6 그디도 잘허는 집 싯곡, 못허는 집이 잇어.(거기도 잘하는 집 있고, 못하는 집이 있어.)

107083 #5 외도 저 바당 쪽에 막 그때 잘헙디다.(외도 저 바다 쪽에 아주 그때 잘합디다.)

107083 #10 내도, 내도.(내도, 내도.)

107083 #5 외도 우린, 그거 허레 잘 뎅겨낫어.(외도 우린, 그거 하러 잘 다녔었어.)

107084 @ 내도. 자, 이번에는 메밀묵, ᄆᆞ멀묵?(내도. 자, 이번에는 메밀묵, 메밀묵?)

107084 #5 메멀묵은 다시 ᄀᆞ룰로 헤영 허는 것도 잇곡, 쏠로 ᄆᆞ멀쏠 헤가지고 물 컷당은에.(메밀묵은 다시 가루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쌀로 메밀쌀 해가지고 물 담갔다가.)

107084 #10 물 짱.(물 짜서.)

107084 #5 이젠 그걸로 이젠 자루에 담앙 곱닥헌 짠.(이젠 그걸로 이젠 자루에 담아서 고운 짠.)

107085 @ ᄆᆞ멀쏠 청묵이렌 헙니까?(메밀쌀 '청묵'이라고 합니까?)

107085 #6 청묵.('청묵.')

107085 @ 메밀묵허곡 청묵은 따로 따로 ᄀᆞᆯ아 봅서?(메밀묵하고 '청묵'은 따로 따로 말해 보세요?)

107085 #5 ᄀᆞ룰로 헌 건 묵이고. 다시 쏠로 헤영 줍진 거는 청묵이고.(가루로 한 건 묵이고. 다시 쌀로 해서 짠 건 '청묵'이고.)

107085 #6 청묵이고. ᄀᆞ룰로 헤도 뭡니다.('청묵'이고, 가루로 해도 됩니다)

107085 @ 어느 게 더 맛 좋아마씨?(어느 게 더 맛 좋아요?)

107085 #6 청묵이 맛 좋주. 하하하하하.('청묵'이 맛 좋지. 하하하하하하.)

107085 #5 공은 더 들어시난게. 곰도 허곡 하양헌 게.(공은 더 들었으니까. 곱기도 하고 하얀 게.)

107084 #10 맛 좋아.(맛 좋아.)

107085 #6 청묵 허젠 나도 쏠 사당 놔뒀어.('청묵' 하려고 나도 쌀 사다가 놔뒀어.)

107085 @ 이건 언제 때 먹어마씨?(이건 언제 때 먹어요?)

107085 #6 멩질 때나 제ᄉᆞ 때나 잔치 때나.(명절 때나 제사 때나 잔치 때나.)

107085 #5 멩질 돌아오고 식게, 제ᄉᆞ 때나 아무상 엇이 먹어져? 잔치 때 ᄀᆞ튼 때.(명절 돌아오고 제사, 제사 때나 아무 일 없이 먹어져? 잔치 때 같은 때.)

107086 @ 개역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미숫가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6 #5 개역이사 보리 보깡 허영 ᄀᆞᆫ 게 개역이난 무신, 콩 보깡 놓고 그거 놩은에 보리 보까근에 ᄀᆞᆫ 게 개역이난게.(미숫가루야 보리 볶아서 해서 간 게 미숫가루니까 무슨, 콩 볶아 놓고 그거 놔서 보리 볶아서 간 게 미숫가루니깐.)

107086 #6 게도 어떤 집인 꿰에, 춥쏠에 콩에 경 놩 허는 집도 셔.(그래도 어떤 집엔 깨에, 찹쌀에 콩에 그렇게 놔서 하는 집도 있어.)

107086 #5 건 옛날 헌 말 이제는 헤도 옛날은 그냥 보리 보깡 그쟈 옛날은 보리 보깡도 ᄀᆞ레에 ᄀᆞᆯ앙 맷돌에. ᄀᆞ레에 ᄀᆞᆯ앙.(건 옛날 한 말 이제는 해도 옛날은 그냥 보리 볶아서 그저 옛날은 보리 볶아서 맷돌에 갈아서 맷돌에. 맷돌에 갈아서.)

107086 #6 콩 보깡 ᄀᆞᆯ앙 놓곡, 춥쏠 놩 ᄀᆞᆯ앙 놓곡 헤영 어디 외방 갈 때 잘리에 쌍 양석으로 쌍 뎅겻수다.(콩 볶아서 갈아서 놓고, 찹쌀 놔서 갈아서 놓고 해서 어디 외방 갈 때 자루에 차서 양식으로 싸서 다녔습니다.)

107086 @ 어디 갈 때에 양석으로예.(어디 갈 때에 양식으로요.)

107086 #6 어디 갈 때 양석으로 길가에서 배고프민 먹젠.(어디 갈 때 양식으로 길가에서 배고프면 먹으려고.)

107086 @ 남자덜도 먹고, 여자덜도?(남자들도 먹고, 여자들도?)

107086 #6 혼 수저썩 거려먹으민 그것도 양석 뒌덴.(한 수저씩 떠먹으면 그것도 양식 된다고.)

107087 @ 지짐이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적, 적이렌 허지예? 지짐이, 비 올 때?(지짐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적, 적이라고 하지요? 지짐이, 비 올 때?)

107087 #10. 적 지졍.(적 지져서.)

107087 #5 지짐인게 이제는 저 두부 헤영 적갈도 헴주만은 엿날 우리 세상, 우리 커가는 과정에는 그 무싱거옌 허느니? ᄀᆞ룰 ᄀᆞᆯ앙 그걸 카서, 적을 지져서, 그걸 꿰어서 이제 두부 꿰듯 꿰서, 적이옌 헷주만은 이제사 두부 헤당 썰엉 그찬 꿰영 튀경은에.(지짐이는 이제는 저 두부해서 적도 하고 있지만 옛날 우리 세상, 우리 커가는 과정에는 그 무엇이라고 하니? 가루 갈아서 그걸 타서, 적을 지져서, 그걸 꿰어서 이제 두부 꿰듯 꿰어서, 적이라고 했지만 이제야 두부 해다가 썰어서 끓어서 꿰여서 튀겨서는.)

107087 #6 아니, 두부 헤도 꼭 적갈, 그거 적 지지는 집은 지집니다. 지졍 영 짤랑 놩 적갈추룩 영 늬기반득허게 썰엉 적고지에 꿰영, 네 개씩.(아니, 두부 해도 꼭 적, 그거 적 지지는 집은 지집니다. 지져서 이렇게 잘라 놔서 적처럼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썰어서 적꼬치에 꿰여서, 네 개씩.)

107087 #5 넉 점씩 꿰영은에.(넉 점씩 꿰어서.)

107088 @ 게믄 이번은 오메기술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러면 이번은 '오메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8 #5 오메기술은 좁쏠헤영 ᄀᆞᆯ아당, 그거 헤영 물 꿰왕, 물 설어도 안 뒈는 거. 물 와상와상[132] 꿰엉 잘 꿰민, 그 물 거려노멍 오메기 다 찌엉.('오메기술'은 좁쌀해서 갈아다가, 그거 해서 물 끓여서, 물 덜 끓여도 안 되는 거, '와상와상' 끓어서 잘 끓으면, 그 물 떠놓으면서 '오메기' 다 쪄서.)

107088 #7 이제도 허멘?(이제도 해?)

107088 #10 응.(응.)

107088 #7 야.(야.)

107088 #5 거 헤영 이젠 거 다 허민, 뭣이냐 이젠 물러레 요만썩 그챵 이제 영 영 영 헤연, 고망 똘롸 영 고망 똘롸 이젠 영 영 영 동글락허게 헤영 요추룩 헤영 고망 똘롸, 이젠 물 삭삭 꿰가민 그거 하나썩 들이치멍, 멧 개 들이쳥, 솖앙 건져내영, 이젠 그거 찌엉, 그거 드러 쪙, 막 문딱 찌어 놩 달롸, 그레 물 놓곡 누룩 놓곡 헤영 이젠 영 영 달롸, 항아리 담앙 놔두민 부그락이[133] 궤영 이제.(거 해서 이젠

132) '와상와상'은 물 따위가 끓는 소리를 뜻하는 의태어이다.

133) '부그락ᄒᆞ다'는 작고 부드러운 물체나 싹 따위가 한곳에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다.

거 다 하면, 뭐냐 이젠 물에 요만큼씩 끓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서 이렇게 구멍 뚫어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처럼 해서 구멍 뚫어서, 이젠 물 팔팔 끓어가면 그거 하나씩 집어넣어서, 몇 개 집어넣어서, 삶아서 건져내서, 이젠 그거 쪄서, 그거 마구 쪄서, 막 '문딱' 찌어 놔서 다뤄서, 그리로 물 넣고 누룩 넣고 해서 이젠 이렇게 이렇게 다뤄서, 항아리 담아서 놔두면 '부그락이' 궤서 이제.)

107088 #10 그거 허젠 허민 상당히 공들어.(그거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공들어.)

107088 #6 그거 잘 찌민 술이 많고, 두루 찌민 술이 적고, 경 허는 거우다.(그거 잘 찧으면 술이 많고, 덜 찧으면 술이 적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7088 @ 아아, 남자들은 좋앗다예. 고생은 여자덜이 허곡, 남자덜은 먹고.(아아, 남자들은 좋았네요. 고생은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먹고.)

107088 #10 우리 어머니네 헐 때 보민 그 댓썹 헷당 댓썹.(우리 어머니 할 때 보면 댓잎 했다가 댓잎.)

107088 #5 댓썹, 대 그차당.(댓잎, 대 끊어다가.)

107088 #6 유술, 최고 술 중엔 유술이 맛좋덴 남자덜이 헷수다게. 그때.(들깨술, 최고 술 중엔 들깨술이 맛 좋다고 남자들이 합니다. 그때.)

107088 @ 유술이?(들깨술이?)

107088 #10 그거 지져우민 그거 뜨거운 때 쪄사주이, 식으민.(그거 뜨거우면 그거 뜨거울 때 찧어야지. 식으면.)

107088 #5 손이 파삭파삭헤여. 찌당 지져우민 물러레 손 영 당갓당 건져내영.(손이 '파삭파삭'해. 찧다가 뜨거우면 물에 손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내어서.)

107088 #6 유ᄀᆞ루, 유, 유.(들깨가루, 들깨, 들깨.)

107088 @ 숫ᄀᆞ루? 유ᄀᆞ루?(숯가루? 들깨가루?)

107088 #5 유, 유.(들깨, 들깨.)

107088 @ 유ᄀᆞ루가 뭣꽈? 유잎?(들깨가루가 뭡니까? 깻잎?)

107088 #6 엿날은 유주기. 이젯말론 그게 들깨주만은.(옛날은 들깨지. 이제말론 그게 들깨지만.)

107088 @ 아아, 유잎? 꿧잎?(아아, 깻잎? 깻잎?)

107088 #5 들깨 헤단에.(들깨 해다가.)

107088 @ 유가루? 거기 유가루가 들어가마씨?(들깨가루? 거기 들깨가루가 들어가요?)

107088 #5 그디 나온 게, 유ᄀᆞ루. 그 우리 먹는 그 유잎에 대헌, 저 꿧잎에 대헌, 그것에 씨, 씨 헤여서.(거기 나온 게, 들깨가루. 그 우리 먹는 그 깻잎에 대한, 깻잎에 대한, 그것에 씨, 씨 해서.)

107088 #6 그게 막걸리 헤 노민 그게 막걸리 중엔 최고, 지름이 등갈등갈헤여[134].(그게 막걸리 해 놓으면 그게 막걸리 중엔 최고, 지름이 '등갈등갈해'.)

134) '등갈등갈ᄒᆞ다'는 기름기가 둥둥 떠 있다는 뜻이다.

107088 @ 걸 어디에다가 놓는 거마씨?(거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107088 #6 막걸리 헤 놓은 때.(막걸리 해 놓을 때.)

107088 #5 막걸리 찔 때에.(막걸리 찧을 때.)

107088 @ 바로 유씨를?(바로 들깨를?)

107088 #5 골아가지고.(갈아가지고.)

107088 @ 들깨가루를?(들깨가루를?)

107088 #5 그걸 헹은에 오메기 찔 때에 흔디 놩 찌어가지고, 놔두면 지름이 둥굴둥굴허여.(그걸 해서 '오메기' 찧을 때에 같이 넣어서 찧어가지고, 놔두면 기름이 둥굴둥굴해.)

107088 @ 아아, 걸 놔놧수과? 오메기 헐 때.(아아, 걸 놨었습니까? '오메기' 할 때.)

107088 #5 꿰 보깡 놓곡, 그거 놩도 허곡 경 허연.(깨 볶아서 넣고, 그거 넣어서도 하고 그렇게 했어.)

107088 @ 꿰도 보깡 놓곡.(깨도 볶아서 넣고.)

107088 #6 꿰 보끈 거고 무슨거고 들깨도 놓곡, 유술이 최고 좋넨 남자덜 헙니다게.(깨 볶은 거고 무엇이고 들깨도 넣고, 들깨술이 최고 좋다고 남자들 합니다.)

107088 @ 유잎이 그런 때도 썻구나예(들깨가 그런 때도 썼군요.)

107088 #6 유잎이 아니고 읏멀.(깻잎이 아니고 여물.)

107088 @ 유 읏멀.(들깨 여물.)

107088 #5 그디 씨, 씨 빠당 씨 헤 놩 그걸 보깡 골앙 그걸로 헤영 헷주게.(거기 씨, 씨 빼다가 씨 해 놔서 그걸 볶아서 갈아서 그걸로 해서 했지.)

107088 @ 읏물. 여자들은 안 먹지예? 오메기술?(여물. 여자들은 안 먹지요? '오메기술'?)

107088 #6 무사 먹는 사람은 먹읍네다.(왜 먹는 사람은 먹습니다.)

107088 #5 소주도 먹는 사람은 짝짝 먹는디 무슨.(소주도 먹는 사람은 짝짝 먹는데 무슨.)

107088 #6 먹는 사람은 먹어. 오메기술은 맛이 좋아. 겨곡 스뭇 막 술 뒈불기 전에 여점 보그레기 궤민 떠먹고.(먹는 사람은 먹어. '오메기술'은 맛이 좋아. 그러고 사뭇 아주 술 되기 전에 예사로 '보그레기' 끓으면 떠먹어.)

107089 @ 쉰다리[135]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쉰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9 #6 순다린 이제 밥만 하영 헤 놩 누룩 놩, 저 누룩 놩, 쪼몰쪼몰 헹 줌앙 놔두민 순다리 뒙네다게. 겐 오늘 헹 놔두민 닐이나 모리나 뭐, 뭐 먹으민 좋주.('순다린' 이제 밥만 많이 해서 넣어서 누룩 넣어서, 저 누룩 넣어서, 조물조물해서 말아서 놔두면 '순다리'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해서 놔두면 내일이나 모레나 뭐, 뭐 먹으면 좋지.)

135)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여름철에 많이 해 먹는다.

107089 #5 닐모리까진 무신게? 닐 아적이민 바글바글 궤주기.(낼모래까진 무슨? 낼 아침이면 바글바글 괴지.)

107089 @ 지금도 먹엄수과? 헹.(지금도 먹고 있습니까?)

107089 #5 이디서 밥 남으민게.(여기서 밥 남으면.)

107089 @ 아까 쉰다리, 보리 쉰다리 말고?(아까 '쉰다리', 보리 '쉰다리' 말고?)

107089 #5 곤밥 순다리도 뒈여.(흰밥 '순다리'도 돼.)

107089 #10 더 맛 좋아. 하하하하.(더 맛 좋아. 하하하하.)

107089 @ 곤밥 쉰다리 더 맛 좋아마씨?(흰밥 '쉰다리' 더 맛 좋아요?)

107089 #6 더 맛 좋아. 밥 먹단 남은 거, 누룩 ᄒᆞ꼼 놩 물 뜨뜻허게 데왕 그레영 조막조막 허게 놔두민.(더 맛 좋아. 밥 먹다가 남은 거, 누룩 조금 넣어서 물 따뜻하게 데워서 그리로 이렇게 '조막조막' 하게 놔두면.)

107089 #5 무르쪙 놔두민, 이제 덤방덤방 헹 놔두민, 아무 거라도.('무르쪄서' 놔두면, 이제 텀벙텀벙 해서 놔두면, 아무 거라도.)

107089 @ 아까 또 무신 쉰다리 맛좋덴 헹게 무신 쉰다리?(아까 또 무슨 '쉰다리' 맛 좋다고 하던데 무슨 '쉰다리'?)

107089 #6 지슬, 지슬 순다리. 지슬도 솖앙 먹지 못허민 경 헹 놔두민 경 맛 좋아.(감자, 감자 '순다리'. 감자도 삶아서 먹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 놔두면 그렇게 맛 좋아.)

107089 @ 솖은 지실마씨?(삶은 감자요?)

107089 #5 예. 솖은 지실.(예. 삶은 감자.)

107089 @ 솖은 지실을 막 는작는작 막 곰팡이 필 거 같이 뒌.(삶은 감자를 막 는적는적 막 곰팡이 필 거 같이 된.)

107089 #6 곰팡이 안 필 때 허민 더 맛 좋주게.(곰팡이 안 필 때 하면 더 맛 좋지.)

107089 #5 그추룩 헌 때 고구마다 감재, 고구마나 지실이나 다 헤영 놔두민 아무 것에 놔도 다 맛잇어.(그처럼 한 때 고구마다 감자, 고구마나 감자나 다 해서 놔두면 아무 것에 넣어도 다 맛있어.)

107089 @ 솖은 거 우이 누룩 놩 ᄀᆞ만 놧당 경헨 쉰다리 만들면 맛 좋다는 거지예? 베와시민 좋켜, 이거.(삶은 거 위에 누룩 넣어서 가만 놔뒀다가 그렇게 해서 '쉰다리' 만들면 맛 좋다는 거지요?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

107089 #10 누룩은 건져 불곡 그걸 새로 걸렁은에 먹으면은 더 맛 좋아.(누룩은 건져 버리고 그걸 새로 걸러서 먹으면 더 맛 좋아.)

107089 #5 누룩은 ᄀᆞᆯ아온 거는 방앗간에 강 ᄀᆞᆯ아온 거는 누룩 멘들앙 지냥으로 ᄆᆞᆯ으멍 트민 닥닥 뽓앙, 크게 벌어논 건 그 저 쉰다리 헹 논 디 건져 놔두고 다시 버금 헐 때 헤도 뒈는 거고 경 헹 허는 거고 경 안 헹.(누룩은 갈아온 거는 방앗간에 가서 갈아온 거는 누룩 만들어서 저대로 마르면서 뜨면 닥닥 빻아서, 크게 벌어논 건 그 저 '쉰다리' 해서 논 데 건져 놔두고 다시 버금 할 때 해도 되는 거고 그

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서.)

107089 @ 아, 이런 거 개발헹은에 돈 벌젠만 허믄 진짜 딱 청수리 요만헌 상점 ᄒᆞ나 헹은예. 아이디어 넹은에 아, 진짜, 이런 진짜예.(아, 이런 거 개발해서 돈 벌려고만 하면 진짜 딱 청수리 요만한 상점 하나 해서요. 아이디어 내서 아, 진짜, 이런 진짜요.)

107089 #6 유술은 허민 잘 폴릴 거우다.(들깨술은 하면 잘 팔릴 겁니다.)

107089 @ 아아.(아아.)

107089 #6 어디 요 저지쯤 강 허민.(어디 요 저지쯤 가서 하면.)

107089 @ 특이하우다게. 정말. 향이 나난.(특이합니다. 정말. 향이 나니까.)

107089 #6 바로 사발에 뜨민 지름이 노랑허여. 유 놩.(바로 사발에 뜨면 기름이 노랑해. 들깨 넣어서.)

107089 @ 하.(하.)

107089 #10 유 안 놔도 노랑헙네다게. 잘 뒈민.(들깨 안 넣어도 노랑합니다. 잘 되민.)

107089 #6 아니, 지름이 등갈등갈헤여. 유술은.(아니, 지름이 '등갈등갈'해. 들깨술은.)

107089 #10 지름이 직깍허여.(기름이 가득해.)

107090 @ 이번에는예? 누룩 만드는 법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누룩 만드는 법?(이번에는요?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룩 만드는 법?)

107090 #5 누룩은게 보리 ᄀᆞᆯ앙은에.(누룩은 보리 갈아서.)

107090 #6 보리누룩보다 밀누룩이 좋아.(보리누룩보다 밀누룩이 좋아.)

107090 #10 밀누룩이 좋주기.(밀누룩이 좋지.)

107090 #6 최고 좋는 건 밀누룩.(최고 좋은 건 밀누룩.)

107090 #5 보리누룩도 허곡, 밀누룩도 허곡 보리 가까 낭은에 그 막 ᄀᆞ루로도 허곡 다 허는 거난게.(보리누룩도 하고, 밀누룩도 하고 보리 깎고 나서 그 막 가루로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107090 @ ᄀᆞ루를 싹 틔우는 걸로 알아신디?(가루를 싹 틔우는 걸로 알았는데?)

107090 #5 쏠도 틔왕 허고 다 헤져. 누룩은 허젠 허민 물 버무렁은에.(쌀도 띄워서 하고 다 해. 누룩은 하려고 하면 물 버무려서.)

107090 @ 싹 틔왕 가루로 만드는 것꽈? 그냥 가루로 만들어마씨?(싹 띄워서 가루로 만드는 겁니까? 그냥 가루로 만들어요?)

107090 #5 아니, ᄀᆞ룰도 허곡 그냥 쏠로라도 물 컹 놔두민, 물오르면 그걸 다시 ᄀᆞ룰 ᄒᆞ꼼 놩 영 영 젓이민 아무 밀ᄀᆞ루라도 ᄒᆞ쏠 놩 막 영, 영 젓엉 놧당, 영 영 허민 누룩은 그냥 멩글아질 거 아니라, 딱딱허게.(아니, 가루도 하고 그냥 쌀로라도 물 담가서 놔두면, 물오르면 그걸 다시 가루 조금 놔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 아무 밀가루라도 조금 놔서 막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놨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누룩은 그냥 만들어질 거 아니야, 딱딱하게.)

107090 @ 아아, 그믄 저 보리 싹 틔와가지고 허는 건 뭣과? 또 건.(아아, 그러면 저 보리 싹 띄워가지고 하는 건 뭡니까? 또 그건.)

107090 #5 그것도 누룩, 저것도 누룩, 다 누룩. 곤쏠 틔운 것도 누룩, 곤쏠 틔운 걸로.(그것도 누룩, 저것도 누룩, 다 누룩. 흰쌀 띄운 것도 누룩, 흰쌀 띄운 걸로.)

107090 @ 가루로 곰팡이 틔운 것도 누룩이고.(가루로 곰팡이 띄운 것도 누룩이고.)

107090 #5 다 누룩, 누룩 안 노민 술 뭴 수가 없어. 순다리 뭴 수가 없어.(다 누룩, 누룩 안 넣으면 술 될 수가 없어. '순다리' 뭴 수가 없어.)

107090 @ 순 나온 걸로, 순 나와 가지고 뭐 영 허는 거렌 헌.(순 나온 걸로, 순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

107090 #5 저 누룩에 대혜영 그 무싱거 아니 논 건 순다리 뭴 수가 없어.(저 누룩에 대해서 그 무엇 아니 넣은 건 '순다리' 될 수가 없어.)

107090 #6 미락이 그냥 썩엉예. 누룩 안 뭽니다.('미락이' 그냥 썩어서요. 누룩 안 됩니다.)

107090 #5 누룩 안 논 거 허영은 술 먹을 수가 없어. 순다리 잘 뒈민.(누룩 안 넣은 거 해서는 술 먹을 수가 없어. '순다리' 잘 되면.)

107090 #10 아아, 그거는 골. 골.(아아, 그거는 엿기름. 엿기름.)

107090 @ 아아, 그건 골이로구나.(아아, 그건 엿기름이로구나.)

107090 #6 아아, 골 말.(아아, 엿기름 말.)

107090 #11 엿을 멘드는 거라.(엿을 만드는 거야.)

107090 @ 골, 틔우는 거로구나. 뭰장 틔우듯이예. 메칠을 놔둬마씨?(엿기름, 띄우는 거로구나. 된장 띄우듯이요. 며칠을 놔둬요?)

107090 #5 여러 날 놔둬사, ᄆᆞ르젠 허민 오래여. 오래 놔둬사 헤여.(여러 날 놔둬야, 마르려고 하면 오래. 오래 놔둬야 해.)

107090 @ 그거 햇빛에 노민 안뒈지예?(그거 햇볕에 놓으면 안 되지요?)

107090 #5 아니, 그냥 놔두민 아니 지대로 영 딱딱허게 뭐 하영 허젠 허민 이추룩 무싱것에 놔근에.(아니, 그냥 놔두면 아니 저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뭐 많이 하려고 하면 이처럼 무엇에 놔서.)

107090 @ 바람 들고.(바람 들고.)

107090 #5 예. 딱딱허게 불롸근에. 궤영 비완에 영.(예. 딱딱하게 밟아서. 고이 부어서 이렇게.)

107090 @ 발로 붋아마씨.(발로 밟아요.)

107090 #5 예. 발로.(예. 발로.)

107090 #6 데깍[136]헤야 그거.('데깍'해야 그거.)

107090 #5 무신거 영 놔근에 저영헌 통에라도 놩, 막, 저런 다락 닮은 것에라도 놩, 막 옷 뭐 더껑은에 이제 막 ᄇᆞ르거든. 딱딱 막 ᄇᆞ르민 데깍허민 궤양 비왕은에

136) '데깍'은 짜인 물체나 담겨진 물건이 딴딴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을 말한다.

이젠 어디레 뭐 더껑은에 이젠 틔우는 거라.(무엇 이렇게 놔서 저런 통에라도 넣어서, 막, 저런 대야 같은 것에라도 넣어서, 막 옷 뭐 덮어서 이제 막 밟거든. 딱딱 막 밟으면 '데깍'하면 고이 부어서 이젠 어디로 뭐 덮어서 이젠 띄우는 거야.)

107090 #6 잘 터야 맛 좋아. 소곱에 노랑헌 게.(잘 떠야 맛 좋아. 속에 노란 게.)

107090 #10 발강허게 터사 더 맛 좋아.(빨갛게 떠야 더 맛 좋아.)

107090 #5 나룩찍을 더끄나 산듸찍을 더껏던 아무런 거라도 더꺼근에 그 우트레 무싱거 놩 더껑 잘 뚜뜻하게 지둘뢍 놔두민 그것이 지냥으로 와락와락 트멍 술 헤영 만들어.(볏짚을 덮으나 밭볏짚을 덮었던 아무런 거라도 덮어서 그 위로 무엇 놔서 덮어서 잘 따뜻하게 지질러서 놔두면 그것이 저대로 와락와락 뜨면서 술 해서 만들어.)

107090 #10 어렵지 안 허여. 쉬와.(어렵지 않아. 쉬워.)

107090 @ 오일장에서 나오는 건 진짜가 아니주게. 뭔가 바람도 통하고 맛이 좋잖아예. 일단예.(오일장에서 나오는 건 진짜가 아니지. 뭔가 바람도 통하고 맛이 좋잖아요. 일단요.)

107090 #10 맞아.(맞아.)

107090 #5 이제 저 그기 막걸리 헹 파는 거는 곤쏠헤영 바르르 피완에 허는 거고 우리 허는 누룩은 그냥 허영 자연으로 몰리면서 튼 거 놘에 허는 거고.(이제 저 거기 막걸리 해서 파는 거는 흰쌀해서 바르르 피워서 하는 거고 우리 하는 누룩은 그냥 해서 자연으로 말리면서 뜬 거 놔서 하는 거고.)

107090 @ 재료가 또 좋아야 뒈여.(재료가 또 좋아야 돼.)

107090 #5 예.(예.)

107090 @ 다 중국산 썸주기게.(다 중국산 쓰고 있지.)

107090 #10 맞아.(맞아.)

107090 #5 그기 저 이제 막걸리 헤영은에 하간 디 배달 보내는 건 그냥 쏠 헤영 틔완에 그냥 쏠 헤영 그거 놩 틔왕 헌 걸로.(거기 저 이제 막걸리 해서 온갖 데 배달 보내는 건 그냥 쌀 해서 띄워서 그냥 쌀 해서 그거 넣어서 띄워서 한 걸로.)

107090 #6 경 헹 틔완게.(그렇게 해서 띄워서.)

107090 @ 이젠 거꾸로 뒈엇수게.(이젠 거꾸로 되었습니다.)

107090 #5 예.(예.)

107090 @ 곤쏠이 싸고 ᄆᆞ멀쏠, 좁쏠이 더 비싼 세상이 뒈부난.(흰쌀이 싸고 메밀쌀, 좁쌀이 더 비싼 세상이 돼버리니까.)

107090 #5 경 허난 그거 헨 영 허는 거 보난 그추룩 틔운 걸 무싱것더레 담앙 비완, 물 비와낭게. 젓엉게.(그렇게 하니까 그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처럼 띄운 걸 무엇으로 담아서 부어서, 물 부어놔서 저어서.)

107090 #6 나신디 밀 신 거 걸로 누룩 헤야켜.(나한테 밀 있는 거 걸로 누룩 해야겠다.)

107090 #5 아이고, 나 잘못헷당양. 장도 맛읏고, 장 녹지도 안 헤.(아이고, 나 잘못했다가요. 장도 맛없고, 장 녹지도 않아.)

107090 #6 무사 장에 저 누룩을 놔?(왜 장에 저 누룩을 놔?)

107090 #5 저 누룩을 놧수과게. 저 ᄆᆞᆯ 허는 디 간에 ᄒᆞᆫ 뒈 준 걸 가져단 놧당 몇 해 냉장고.(저 누룩을 놨습니까. 저 말 하는 데 가서 한 되 준 걸 가져다가 놨다가 몇 해 냉장고.)

107090 #6 누룩 멘들주게, 걸로.(누룩 만들지, 걸로.)

107090 #5 그걸로 헨 다시 누룩을.(그걸로 해서 다시 누룩을.)

107090 #6 생 거라 부난 누룩 ᄀᆞᆯ아야 누룩 멩글아.(생 거여 버리니까 누룩 갈아야 누룩 만들어.)

107090 #5 ᄀᆞᆯ아사 헐 거 아니우꽈? 경 못허난. 그걸로 물우쩐 물 컷놧당 건졍 이젠 시리에 담아 쳇다. 치언 건젼 이젠 그냥 널어근에 허민 트주긴 헨 ᄒᆞᆫ 메칠 놔두난 ᄒᆞᆫ엇이 잘 트지 안헙디다게. 경허쿠테 장은 담가야쿠테 그걸 놩 찌젠 허난 놔두난 잘 녹지도 안 허고.(갈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로 물에 불려서 물 담가놨다가 건져서 이젠 시루에 담아 쪘다. 쪄서 건져서 이젠 그냥 널어서 하면 트겠지 해서 한 며칠 놔두니까 한없이 잘 뜨지 안합디다. 그렇게 하니까 장은 담가야 해서 그걸 넣어서 찌려고 하니까 놔두니까 잘 녹지도 안 하고.)

107090 #6 아니, 밀 그디 녹으카부덴 생각헙디가? 장 담는 디.(아니, 밀 거기 녹을까봐 생각합디까? 장 담는 데.)

107090 #5 그걸 물 컨에.(그걸 물 담가서.)

107090 #6 아멩 헤도 밀은 잘 안 녹아.(아무리 해도 밀은 잘 안 녹아.)

107090 #5 경 헹 허난 허쿠덴.(그렇게 해서 하니까 하겠다고.)

107090 #6 밀은 안 녹읍네다게.(밀은 안 녹습니다.)

107091 @ 게믄 이번에는 엿 종류와 만드는 법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엿? 청수, 엿 혜영 먹어낫수과?(그러면 이번에는 엿 종류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엿? 청수, 엿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91 #5 엿이사게 그냥 골 허영은에, ᄀᆞᆯ앙, 다시 이제 좁쏠, 이젠 좁쏠이 엇주만은 ᄀᆞᆫ쏠이라도 ᄀᆞᆫ쏠이나 좁쏠이나 혜연 이젠 밥을 허영, 이젠 어느 정도 시그민, 그레 다시 골 서껑, 더운 땐 허민 골이 익어 부니까, ᄒᆞ쏠 시껀 그레 골 놩, 젓엉 물 놓곡 헹 젓엉 놔두민 뒈영 더껑 놔두민 이젠 그게 ᄒᆞ끔 헹 더껑 놔두민 그게 ᄒᆞ끔 보글보글 궤가민.(엿이야 그냥 골 해서, 갈아서, 다시 이제 좁쌀, 이젠 좁쌀이 없지만 흰쌀이라도 흰쌀이나 좁쌀이나 해서 이젠 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식으면, 거기 다시 골 섞어서, 더운 때 하면 골이 익어 버리니까, 조금 식으면 거기 골 놔서, 저어서 물 놓고 해서 저어서 놔두면 되어서 덮어 놔두면 이젠 그게 조금 해서 덮어서 놔두면 그게 조금 보글보글 끓어 가면.)

107091 #6 보글보글 궤 가민.(보글보글 끓어 가면.)

107091 #5 게꿈 올라오라 가민, 저 좁쏠이나 ᄀᆞᆫ쏠이나 이젠 ᄋᆞ물을 빠져불민 이

젠 ᄂᆞ멀은 빠졍은에 동글동글 터. 경허민 그땐 걸렁 그걸 이젠 딸리는 거라. 드르 딸리당 ᄃᆞᆨ을 잡아 놧던.(거품 올라와 가면, 저 좁쌀이나 흰쌀이나 이젠 여물을 빠져 버리면 이젠 배추는 빠져서 동글동글 떠. 그렇게 하면 그땐 걸려서 그걸 이젠 다리는 거야. 다리다가 닭을 잡아 놨든.)

107091 #6 뒈야지고길 사다 놧던, 쉐궤길 놧던.(돼지고길 사다 놨든, 소고길 놨든.)

107091 #5 돗궤기, 도야지고기 사다 놧던 그걸 딸령 엿 허는 거.(돼지고기, 돼지고기 사다 놨든 그걸 달여서 엿 하는 거.)

107091 #6 쉬웁네다게. 딸리는 게 어렵주.(쉽습니다. 달이는 게 어렵지.)

107091 @ 익모초도 놓곡?(익모초도 넣고?)

107091 #6 응. 거 배 아픈 사람덜은 익모초도 놓고.(응. 거 배 아픈 사람들은 익모초도 넣고.)

107091 @ 몸에 좋다고 느껴집니까?(몸에 좋다고 느껴집니까?)

107091 #5 무싱거옌 허느니? 저 월경에 대혜영은에 아맹 혜도 익모초 놩 엿을 허는 셍이라.(뭐라고 하니? 저 월경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익모초 넣어서 엿을 하는 모양이야.)

107091 #6 핏 배 아픈 사람도.(핏 배 아픈 사람도.)

107091 #5 핏 배 아픈 사람덜은.(핏 배 아픈 사람들은.)

기타

107092 @ 마을에서 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거 잇수과? 옛날에 지금은 없엇다고 생각허는?(마을에서 해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없었다고 생각하는?)

107092 #6 무신 거 혜 먹은 거?(무엇 해 먹은 거?)

107092 @ 혜 먹엇던 음식. 청수리에 특히 어렷을 때 맛 좋게 먹엇다던가.(해 먹었던 음식. 청수리에 특히 어렸을 때 맛 좋게 먹었다든가.)

107092 #5 맛 좋게 헷던 궂게 헷던 옛날 먹어난 건 뭐 쥐기떡도 혜 먹고.(맛 좋게 했든 궂게 했던 옛날 먹었던 거 쥐기떡도 해 먹고.)

107092 @ 쥐니까 쥐기떡?(쥐니까 쥐기떡?)

107092 #5 쥐기떡은 뭣이냐 허면 쥐기떡이라고 헤서 저 밀 허영 굽혀가지고 풀을 그걸로 물 컷당 풀 좁지랑 옛날은 이제처룩 풀ᄀᆞ루가 엇이니까 그걸로 혜영 물 우쩟당 좁지랑 걸로 풀 쒀나민 그 우잇건 혜영 그건 다시 무신 ᄀᆞ루 ᄒᆞᆷ 놩 이젠 쥐기떡, 그 쏠방울 신 거 그거 혜영 쥐기떡 허멍도 먹어보고. 무신 아니 혜본 거 엇이 다 혜 본.(쥐기떡은 뭐냐 하면 쥐기떡이라고 해서 저 밀 해서 굽혀(?)가지고 풀을 그걸로 물 담갔다가 풀 짜서 옛날은 이제처럼 풀가루가 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물 담갔다가 짜서 걸로 풀 쒀나면 그 위에 건 해서 그건 다시 무슨 ᄀᆞ루 조금 놔서 이젠 쥐기떡, 그 쌀알 있는 거 그거 해서 쥐기떡 하면서도 먹어보고. 무슨 아니 해

본 거 없이 다 해 본.)

107092 #6 쏠 가까난, 보리쏠 가끌 꺼 아니꽈? 헤양케 가끄믄 그거 맨 막불 하양헌 거 십니다. 그거 헹은에 떡 만들앙 밧디 강 촐 빌 때 그걸로 간식으로덜 많이 먹엇수다. 난 흔 일곱 술 나난양 밧디만 경 끗엉 갑디다게. 갈 땐 업엉 가곡양. 가민 일허렌 허곡.(쌀 찧었던, 보리쌀 찧을 거 아닙니까? 하얗게 찧으면 그거 맨 막벌하얀 거 있습니다. 그거 해서 떡 만들어서 밭에 가서 꼴 벨 때 그걸로 간식으로들 많이 먹었습니다. 난 한 일곱 살 나니까요 밭에서 그렇게 밭에만 그렇게 끌고 갑디다. 갈 땐 업어서 가고요. 가면 일하라고 하고.)

107092 #10 어.(어.)

107092 #6 밧은 멀민 못 걸엉 가민 갈 땐 업엉 가곡양. 가믄 일허렌 허곡.(밭은 멀면 못 걸어서 가면 갈 땐 업어서 가고요. 가면 일하라고 하고.)

107092 #10 응, 그거 고구마 물린 거 뺏대기 헨 그거 저 부실뢍 줄앙은에.(응. 그거 고구마 말린 거 절간고구마 해서 그거 저 부숴서 갈아서.)

107092 #6 그건 요, 요적이고게.(그건 요즘이고.)

107092 #10 그거 헹 감저침떡 허면 잘도 맛 좋아.(그거 해서 고구마시루떡 하면 잘도 맛 좋아.)

107092 #11 거 맛잇어.(거 맛있어.)

7. 주생활

구조

108002 @ 집을 지엇던 경험이 잇으면? 집의 종류에 대헹 말씀헤 주십시오. 초가집, 흑집, 돌집?(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가집, 흙집, 돌집?)

108002 #3 겐디 이 초가집은 재목이 아무런 그런 거라도 헹은에 그 저 더플, 그 새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게 더픔만 하믄 뒈는 거고, 기와집은 워낙 재목이 좋아야 뒈어양. 이 저 우가 무거와 노니까 이제 그 저 알러레 꼴아 앉지 안허게끔 헤근에 거, 서리고 그디 그 무신거 허는 게 그 워낙 든든헤야 뒈고 기와집은. 뭐 그런 정돕주. 그.(그런데 이 초가집은 재목이 아무런 그런 거라도 해서 그 저 덮을, 그 띠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덮기만 하면 되는 거고, 기와집은 워낙 재목이 좋아야 돼요. 이 저 위가 무거워 놓으니까 이제 그 저 아래에 깔아 앉지 않게끔 해서 에 거, 서까래고 거기 그 무엇 하는 게 그 워낙 단단해야 되고 기와집은. 뭐 그런 정도지요. 그.)

108003 @ 집채의 종류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는 종류에 대헤서?(집채의 종류 안채, 바깥채, 곁채 종류에 대해서?)

108003 #3 응.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는 그 저 대개 이문간, 문간을 보고 이 모

커리옌 허는디 거.(응. 안채, 바깥채, 곁채는 그 저 대개 대문, 문간을 보고 이 곁채라고 하는데 거.)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에 대헹 말씀헤 주십시오.(삼간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4 #3 응?(응?)

108004 @ 삼칸집?(삼간집?)

108004 #3 삼간집도 그 저 아니 거 주로 그전에는 그 삼간집이라낫는데 이 우리가 소개된 금방 올라왔을 적에는 이칸집으로 헤근에 부엌 ᄒᆞ나, 방 ᄒᆞ나 헤근에 그 살앗는디 그, 그 다음에 ᄒᆞ썰썩 무싱 거 헌 사람덜은 삼칸집으로 헨에 그 삼칸은 거 마루방을 가운데 둰에 영 허긴 헷는디, 것도 마찬가지라예. 이 그 기와집허고 초집하고 그 저 뭐냐 그 나무 사용허는 게. 초가집은 첨, 나무 아무런 거라도 헤근에 그쟈 얽어근에 새만 안 세민 뒈고, 이 저 기와집은 워낙 그 재목이. 게니까 청수에도 기와집 헌 디가 멧 군데 엇엇수다. ᄒᆞᆫ두 군덴가? 아, 세 군데 잇엇구나.(삼간집도 그 저 아니 거 주로 그전에는 그 삼간집이었는데 이 우리가 소개된 금방 올라왔을 적에는 이간집으로 해서 부엌 하나 방 하나 해서 그 살았는데 그, 그 다음에 조금씩 무슨 거 한 사람들은 삼간집으로 해서 그 삼간은 거 마루방을 가운데 둬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것도 마찬가지네요. 이 기와집하고 초집하고 그 저 뭐냐 그 나무 사용하는 게. 초가집은 첨 나무 아무런 거라도 해서 그저 얽어서 띠만 안 새면 되고, 이 저 기와집은 워낙 그 재목이. 그러니까 청수에도 기와집 한 데가 몇 군데 없었습니다. 한두 군덴가? 아, 세 군데 있었구나.)

108004 @ 어떤 사람들이 헨마씨? 부자?(어떤 사람들이 했어요? 부자?)

108004 #3 부자, 부자가 허주. 그거 무신 첨 소소헌 사람이사 그런 거 헤져?(부자, 부자가 하지. 그거 무슨 첨 소소한 사람이야 그런 거 해져?)

108004 @ 그 사람덜, 부자로 잘 살암수과?(그 사람들,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까?)

108004 #3 돌아가션. 다 돌아가 불엇어.(돌아가셨어. 다 돌아가 버렸어.)

108004 @ 풀아불지도 않고 자손덜은 다 잘.(팔아버리지도 않고 자손들은 다 잘.)

108004 #3 자손덜은 지금 이제 동네 사람덜한티 욕 듣는 사람도 잇고.(자손들은 지금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욕 듣는 사람도 있고.)

108004 @ 아아. 경 잘 살단도예.(아아. 그렇게 잘 살다가도요.)

108004 #3 예.(예.)

108004 @ 쯧쯧쯧. 게메예, 어떤 연윤진 몰라도.(쯧쯧쯧. 글쎄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108004 #3 게난 그 저 옛날도 이제 그 재산 관리가 삼대, 삼대ᄁᆞ장.(그러니까 그 저 옛날도 이제 그 재산 관리가 삼대, 삼대까지.)

108004 @ 못 간다.(못 간다.)

108004 #3 게난 옛날도 재산 관리가 삼대, 잘 살민 삼대, 요즘은 뭐 삼대고 사대고 그쟈 물려주면 그런대로 쭉 뭐 허는데 옛날은 그쟈 삼대 흥망이라는 건 삼대째 그 저 누려오던 그 옛날 하르방덜 그.(그러니까 옛날도 재산 관리가 삼대, 잘 살면 삼대, 요즘은 뭐 삼대고 사대고 그저 물려주고 그런대로 쭉 뭐 하는데 옛날은 그저 삼대 흥망이란 건 삼대 째 그 저 내려오던 옛날 할아버지들 그.)

108005 @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5 #3 주춧돌 그건 이 저 대개 이 초가집이나 기와집 짓는데 그 기둥 받침으로 그 주춧돌 허는 거고.(주춧돌 그건 이 저 초가집이나 기와집 짓는데 그 기둥 받침으로 그 주춧돌 하는 거고.)

108005 @ 기둥 받침예?(기둥 받침요?)

108005 #3 응.(응.)

108005 @ 기둥은 기둥이고예?(기둥은 기둥이고요?)

108005 #3 응. 기둥 뚜로 그 주춧돌 뚜로.(응. 기둥 따로 그 주춧돌 따로.)

108005 @ 보, 도리, 서까래?(보, 도리, 서까래?)

108005 #3 서까래 그 저 앞에 거 난간 앞에 놓는 건가? 그 난간더레 올라가젠 허연 가이단 놓는 거, 그걸 말허는 건질 모르겟네.(서까래 그 저 앞에 거 난간 앞에 놓는 건가? 그 난간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계단 놓는 거, 그걸 말하는 건질 모르겠네.)

108006 @ 외, 산자, 인방, 반자틀?(외, 산자, 인방, 반자틀?)

108006 #3 건 뭐여?(건 뭐야?)

108006 @ 초가집 엮기, 흙 바르기? 큰방, 즉은방?(초가집 엮기, 흙 바르기? 큰방, '즉은방'?)

108006 #3 가시새에 엮으는 거, 가시새에 엮으는 거는 고지 강은에 저 낭가젱이 준준헌 것덜 해당덜 허고.(가시새에 엮는 거, 가시새에 엮는 건 숲 가서 저 나뭇가지 자잘한 것들 해다가들 하고.)

108006 @ 가시새?(가시새?)

108006 #3 가시새, 가시새에 엮으는 거는 저 이 방 가르는데.(가시새, 가시새에 엮는 거는 저 이 방 가르는데.)

108006 @ 예. 방 가르는데.(예. 방 가르는데.)

108006 #3 이 방 가르는데 그 저 이 뭐냐? 편방이라는 게 잇어예. 편방 왜 그러냐면 이 방을 영 요 방, 요 방 가르젠 허면은.(이 방 가르는데 그 저 이 뭐냐? '편방'이라는 게 있어요. '편방' 왜 그러냐면 이 방을 이렇게 요 방, 요 방 가르려고 하면.)

108006 @ 벽.(벽.)

108006 #3 요영 헤영 벽을 만들어야 뒈예. 게난 편방이라는 건 흔꺼번에 일로 이디까지 쭉 허게 뒈면은 그 준낭으로 여껑은에 이 흙 발랑 이 칸을 막젠 허민 이

거 멜라져버리니까.(요렇게 해서 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편방'이라는 건 한 꺼번에 일로 여기까지 쭉 하게 되면 그 잔나무로 엮어서 이 흙 발라서 이 칸을 막으려고 하면 이거 허물어져버리니깐.)

108006 @ 예.(예.)

108006 #3 이 편방으로 박아마씨. 이거 흔두 자 흔 육십 센치 여하튼 한두 자 정도에 흐나씩 세왕은에 칸 갈랑 가시새를 여꺼. 여껑 올라강은에 흙은 마주 영 불라. 겨난 그 흙질 헐 때는 흔 사람은 이짝으로 가고 흔 사람은 이짝으로 사근에 영 불라 놩은에 이거 마주 영 씰엉 영 올라강 거 편방 막아근에 경혜연 이제 그 막아논 다음에는 두불 개벽이라고 잇어양. 개벽.(이 '편방'으로 박아요. 이거 저 한두 자 한 육십 센티 여하튼 한두 자 정도에 하나씩 세워서 칸 갈라서 가시새를 엮어. 엮어서 올라가서 흙은 마주 이렇게 발라. 그러니까 그 흙질 할 때는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서 이렇게 발라 놔서 이거 마주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거 '편방' 막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막아 놓은 다음에는 두벌 새벽이라고 있어요. 새벽.)

108006 @ 두불 개벽, 개벽.(두벌 새벽, 새벽.)

108006 #3 초불 바를 적에는 그 저 보리낭 썰엉 놩 허고.(초벌 바를 적에는 그 저 보릿짚 썰어서 넣어서 하고.)

108006 @ 아아.(아아.)

108006 #3 두불 개벽은 이 저 ᄀᆞ시락.(두벌 새벽은 이 저 까끄라기.)

108006 @ 아아. 세상에.(아아. 세상에.)

108006 #3 ᄀᆞ시락을 헤영 츤흑, 그건 츤흑 파당 이 저 이디서 식은흑은 안 뒈여마씨. 그 저 츤흑 파당 세면 대신 멘딱허게 헤근에 칠허는 거라마씨. 그쟈 판칙허게. 경헤야 그디 종이가 붙을 거주기. 어.(까끄라기를 해서 찰흙 그건 찰흙 파다가 이 저 여기서 '식은흙'은 안 돼요. 그 저 찰흙 파다가 시멘트 대신 '멘딱하게' 해서 칠하는 거예요. 그저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거기 종이가 붙을 거지. 어.)

108006 @ 아아. 판칙허게. 아이고 세상에. 이거 아무도 말 안 헤줘신디.(아아. 깨끗하게. 아이고 세상에. 이거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108006 #3 무싱걸? 게믄 나.(무엇을? 그러면 나.)

108006 @ 이런 말 못헙디다. 구십 난 삼촌들도 이런 말 못헙디다. 정확허게 허셤싱게예. 흑 바르기가 그런 거예?(이런 말 못합디다. 구십 된 삼촌들도 이런 말 못합디다. 정확하게 하시고 있네요. 흙 바르기가 그런 거요?)

108006 #3 응. 천장, 이 천장은 그 저 아래에서 여꺼근에 우트레 강 짜륵허게 페우면은 그건 뒈는 거고.(응. 천장, 이 천장은 그 저 아래에서 엮어서 위로 가서 짝하게 펴면 그건 되는 거고.)

108007 @ 큰방, 즉은방, 시렁, 벽장, 궤, 이불상, 아렛목, 윗목.(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궤, 이불장, 아랫목, 윗목.)

108007 #3 응.(응.)

108007 @ 시렁? 시렁이?(시렁? 시렁이?)

108007 #3 시렁이 저 굴묵 아니라?('시렁'이 저 '굴묵' 아니야?)

108007 @ 벡장?(벽장?)

108007 #3 응. 벡장 아래 그 저 거 굴묵허여근에 굴묵 때는 디ᄀᆞ라 시렁이엔 헐 건디.(응. 벽장 아래 그 저 거 '굴묵'해서 '굴묵' 때는 데보고 '시렁'이라고 할 건데.)

108008 @ 마루는 상방이렌 허지예?(마루는 '상방'이라고 하지요?)

108008 #3 그냥 마루방은, 그 옛날부터 그냥 마루방이렌 그.(그냥 마루방은, 그 옛날부터 그냥 마루방이라고 그.)

108008 @ 상방? 고팡?(대청? 고방?)

108008 #3 상방은 맞아. 삼방이엔도 골았져. 고팡은 저 이 저 무신 쏠이영 무신 거 하간 거 데미는 곳간ᄀᆞ라 고팡이엔 허고.(대청은 맞아. '삼방'이라고도 말했지. 고방은 이 저 무슨 쌀이랑 무엇 온갖 거 쌓는 곳간보고 고방이라 하고.)

108010 @ 예. 부억을 정지렌 허고예?(부엌을 '정지'라고 하고요?)

108010 #3 응. 정지.(응. '정지'.)

108011 @ 문설주, 돌쩌귀, 문지방?(문설주, 돌쩌귀, 문지방?)

108011 #3 돌처귀, 돌철귀허고 그 걸쒜는 돌철귀허고 걸쒜는 문 걸엉 ᄌᆞᆼ가근에 문, 저 도둑 들지 못허게 그 박는 것ᄀᆞ라 그 박는 거, 그 걸쒜 거는 거는 돌처귀고.(돌쩌귀, 돌쩌귀하고 그 걸쇠는 돌쩌귀하고 걸쇠는 문 걸어서 잠가서 문, 저 도둑 들지 못하게 그 박는 것보고 그 박는 거, 그 걸쇠 거는 건 돌쩌귀고.)

108011 @ 아아.(아아.)

108011 #3 그 걸어근에 영 ᄀᆞ리 헤영 동글락허게 돌아멘 거.(그 걸어서 이렇게 고리 해서 동그랗게 달아맨 거.)

108011 @ 아아.(아아.)

108011 #3 돌아매영 그거는 걸쒜.(달아매어서 그거는 걸쇠.)

108012 @ 아아. 동그락헌 거는 걸쒜, 돌철귀 이제 알쿠다.(아아. 동그란 거는 걸쇠, 돌쩌귀 이제 알겠습니다.)

108011 #3 어.(어.)

108012 @ 그렇구나. 거믄 문은 창문, 뛔창문, 창 바르기, 호령창?(그렇구나. 그러면 문은 창문, 뛔창문, 창 바르기, '호령창'?)

108012 #3 어. 그런 등등. 호령창이엔 헌 거는 그 저 정지광 방 사이에. 겐디 그거 이 주로 이 무신 거는 건 아주 옛날.(어. 그런 등등. '호령창'이라고 한 거는 그 저 부엌과 방 사이에. 그런데 그거 이 주로 이 무슨 거는 건 아주 옛날.)

108012 @ 아주 옛날.(아주 옛날.)

108012 #3 우리가 전에 집 지을 때는 호령창이엔 헌 건 엇엇어.(우리가 전에 집 지을 때는 '호령창'이라고 한 건 없었어.)

108012 @ 아아.(아아.)

108012 #3 우리 알거니 그 우에.(우리 알거니 그 위에.)

108012 @ 우에.(위에.)

108012 #3 게난 그 안에 앚아둠서.(그러니까 그 안에 앉아두고서.)

108012 @ 응.(응.)

108012 #3 하르방이 문 그 요만이헌 문, 방하고 부엌에 요만이헌 문 둘아근에 영 혜영 앚아둠서 이레 뭣 안네라 저레 뭣 허레 가라 혜여근에 호령허는 것ᄀᆞ라 그것ᄀᆞ라 호령창이라고. 헤헤. 그거 춤.(할아버지가 문 그 요만큼한 문, 방하고 부엌에 요만큼한 문 달아서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이리로 뭐 드려라 저리 뭣 하러 가라 해서 호령하는 것보고 그것보고 '호령창'이라고. 헤헤. 그거 참.)

108012 @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108012 #3 옛날이사 춤, 여자. 이제는 바로 여자덜이 대통령이주만은.(옛날이야 참, 여자. 이제는 바로 여자들이 대통령이지만.)

108012 @ 예.(예.)

108012 #3 그 옛날에사 아이구 시집가민 그쟈 죽으민 다 죽었구나. 헹은에 살아야 뒌다 헤근에 ᄉᆞ믓.(그 옛날에야 아이고, 시집가면 그저 죽으면 다 죽었구나. 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사뭇)

108014 @ 재밋다예. 호령창예. 굴묵? 굴묵 때기 하곡 굴묵에 연료? 어떤 걸 씁니까?(재밌네요. '호령창'이요. '굴묵'? '굴묵' 때기 하곡 '굴묵'에 연료? 어떤 걸 씁니까?)

108014 #3 굴묵은 연료, 그게.('굴묵'은 연료, 그게.)

108014 @ ᄀᆞ시락.(까끄라기.)

108014 #3 그 저 ᄀᆞ시락허고. 그 저 ᄆᆞᆯ똥.(그 저 까끄라기하고. 그 저 말똥.)

108014 @ ᄆᆞᆯ똥.(말똥.)

108014 #3 응. 소똥 ᄀᆞ튼 거는 이 저 워낙 ᄆᆞᆯ르기가 힘들어 노니까.(응. 소똥 같은 거는 이 저 워낙 마르기가 힘들어 놓으니까.)

108014 @ 아아.(아아.)

108014 #3 주로 안허고 ᄆᆞᆯ똥은 ᄀᆞ져당은에 그쟈 놩 놔두민 그놈의짓 거는 소화가 안 뒈는 거라노니까.(주로 안하고 말똥은 가져다가 그저 놔서 놔두면 그놈의 짓 거는 소화가 안 되는 거라놓으니까.)

108014 @ 아아.(아아.)

108014 #3 복삭복삭허난 그쟈 그거 허당.('복삭복삭'하니까 그저 그거 하다가.)

108014 @ 아아, 기꽈?(아아. 그렇습니까?)

108014 #3 제일 좋은 건 춤, ᄆᆞᆯ똥이라예.(제일 좋은 건 참, 말똥이지요.)

108014 @ 아아.(아아.)

108014 #3 ᄀᆞ시락은 그쟈 그 저 쉐 먹어난 디 것 쉐데추렌 헤근에 그 쉐 먹어난 거, 몬지레기도 ᄀᆞ져당은에 굴묵 때고. 예.(까끄라기는 그저 그 저 소 먹었던 데 것 '소대치'라고 해서 그 소 먹었었던 거, 먼지도 가져다가 굴묵 때고. 예.)

108015 @ 가져당 굴묵 때고예. 어머니가 주로 땟지예? 그믄 풍채?(가져다가 굴

묵 때고요. 어머니가 주로 땠지요? 그러면 풍채?)

108015 #3 풍채. 이 앞가지에.(풍채. 이 앞처마에.)

108015 @ 앞가지에.(앞처마에.)

108015 #3 앞가지에 옛날에는 비 오면은 그 집가지가 ᄲᅳ뜨니까 그 가지를 이은 것ᄀᆞ라 풍채렌 헙주게. 거기는 별도로 그거는 짝을 앞더레 돌아매근에 작대기로 영 바톼.(앞처마에 옛날에는 비 오면 그 처마가 밭으니까 그 처마를 이은 것보고 차양이라고 하지요. 거기는 별도로 그거는 짝을 앞으로 달아매서 작대기로 이렇게 받혀.)

108015 @ 예.(예.)

108015 #3 지둥에 바톼근에 비와근에 비 들이삐지 못허게 허는 게 거 풍채.(기둥에 받혀서 비와서 비 들이치지 못하게 하는 게 거 차양.)

108015 @ 비 들이삐지 못허게.(비 들이치지 못하게.)

108015 #3 예. 막는 거. 거.(예. 막는 거. 거.)

108015 @ 막는 거예.(막는 거요.)

108015 #3 것ᄀᆞ라 풍채.(것보고 차양.)

108016 @ 풍채예. 물팡은마씨?(차양요. '물팡'은요?)

108016 #3 물팡.('물팡'.)

108016 @ 물허벅?('물허벅'?)

108016 #3 그 저 물허벅 헤당 그것도 매 집이 엇어근에.(그 저 '물허벅' 해다가 그것도 매 집에 없어서.)

108016 @ 매 집이 엇언.(매 집에 없었어.)

108016 #3 응. 거 ᄒᆞ썰 있는 집인 그런 거 헤당 거 돌이 워낙 고와사 뒈기 때문에.(응. 거 조금 있는 집엔 그런 거 해다가 거 돌이 워낙 고와야 되기 때문에.)

108016 @ 아아, 돌이 고와사 되어마씨?(아아, 돌이 고와야 돼요?)

108016 #3 돌이 펜펜헤야 되주. 이추룩 멘딱헤사 물허벅 헤당 톡 부리주. 경 안허믄 뽀족뽀족헌 것덜이사 그레 물허벅 그 구덕을 져당 톡 부리면은 공골락헤, 부리민.(돌이 편편해야 되지. 이처럼 반드러워야 '물허벅' 해다가 톡 부리지. 그렇게 안하면 뾰족뾰족한 것들이야 그리로 '물허벅' 그 바구니를 져다가 톡 부리면 흔들려, 부리면.)

108016 @ 아아.(아아.)

108016 #3 그게 저 멘딱허게 그게 춤.(그게 저 반드럽게 그게 참.)

108016 @ 거 아무 집이나 엇수과?(거 아무 집에나 없습니까?)

108016 #3 매 집이 엇어십주.(매 집에 없었습죠.)

108016 @ 오오, 게믄 어머니 물 지레 어디 갓다온 거 기억 남수과?(오오, 그러면 어머니 물 길러 어디 갔다온 거 기억납니까?)

108016 #3 물 지레?(물 길러?)

108016 @ 삼촌도 헤봣수과?(삼촌도 해봤습니까?)

108016 #3 청수, 흑수물이렌 헌 거양.(청수, ‘흑수물’이라고 한 거요.)

108016 @ 아아.(아아.)

108016 #3 그거 청수 흑수물이옌 헌 게양. 사람덜 그때는 청수 사람덜 많이 살긴 헷는디양. 청수 사람덜 음료수로 헤서 석 달 반 내지 넉 덜 반 ᄀᆞ문 거는 그 물이 ᄁᆞ딱도 안허여양.(그거 청수 ‘흑수물’이라고 한 게요. 사람들 그때는 청수 사람들 많이 살긴 했는데요. 청수 사람들 음료수로 해서 석 달 반 내지 넉 달 반 가문 거는 그 물이 까딱도 않아요.)

108016 @ 어어.(어어.)

108016 #3 경헌디 그 물도 여러 번 뿔어나십주. 왜 그러냐 허면은 그 옛날에는 그 ᄀᆞ뭄이 하도 와가민 첨, 비, 기우제 지내고 무신거 뭐허고 헷는디 그 물도 여러 번 뿔어나기도 헷는디 왜 물이 그렇게 뿌러낫냐면.(그런데 그 물도 여러 번 삐었었습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옛날에는 그 가뭄이 하도 와가면 참, 비, 기우제 지내고 무엇 뭐하고 했는데 그 물도 여러 번 넘치고 했는데 왜 물이 그렇게 삐어났냐면.)

108016 @ 뿔어나마씨?(삐어나요?)

108016 #3 뿔어난 거는 물이 없어졌다는 거.(삐어난 거는 물이 없어졌다는 거.)

108016 @ 뿔어난 거 뿔어난 거예 ᄀᆞ문 거?(삐어난 거 삐어난 거 가문 거?)

108016 #3 ᄀᆞ문 거, 물 뿌는 거, 뿌는 거.(가문 거, 물 삐는 거, 삐는 거.)

108016 @ 뿌는 거.(삐는 거.)

108016 #3 겐 그 물 뿌러지면은 이디저디서 낙천 첨, 새미왓, 거 새미왓이옌 헌디 강은에.(그래서 그 물 삐어지면 여기저기서 낙천 참, ‘새미왓’, 거 ‘새미왓’이라고 한 데 가서.)

108016 @ 새미왓?(‘새미왓’?)

108016 #3 새미왓에 그 물 떨어지면 저 두모.(‘새미왓’에 그 물 떨어지면 저 두모.)

108016 @ 아아.(아아.)

108016 #3 겨난 두모 이 소덜은 두모물을 많이 먹엇고.(그러니까 두모 이 소들은 두모물을 많이 먹었고.)

108016 @ 예.(예.)

108016 #3 사람은 두모물 별로, 흔디 두모물 흔 번, 흔 해가 ᄀᆞ물안에 두모물 더러 져당 먹긴 먹어낫는디.(사람은 두모물 별로, 함께 두모물 한 번, 한 해가 가물어서 두모물 더러 져다가 먹긴 먹었었는데.)

108016 @ 응.(응.)

108016 #3 소 물은 그 두모물을 ᄋᆞ라 번 져당 먹엇어마씨.(소 물은 그 두모물을 여러 번 져다가 먹었어요.)

108016 @ ᄋᆞ라 번. 예. 여기도 뿔어불민예.(여러 번. 예. 여기도 삐어버리면요.)

108016 @ 예.(예.)

108016 #3 그믄 대바지, 물구덕 게믄 하루에 삼촌 져봣수과? 남자 안 져?(그러

면 ‘대바지’, ‘물구덕’ 그러면 하루에 삼촌 져봤습니까? 남자 안 져?)

108016 #3 무사 남자 안 져? 남자도 지주.(왜 남자 안 져? 남자도 지지.)

108016 @ 멧 살 때부터 져봣수과?(몇 살 때부터 져봤습니까?)

108016 #3 아니, 그거 왜 그렇게 이 흑숫물이 ᄀᆞ물아가면은.(아니, 그거 왜 그렇게 이 ‘흑숫물’이 가물어가면.)

108016 @ 예.(예.)

108016 #3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질어당 놓젠 곡석도 문 항도 다 빕고 물 질레 경 안허면은 물 질으레 천리만리 가야 뒈니까.(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더 길어다가 놓으려고 곡식도 모두 항도 다 비우고 물 길러 그렇게 안하면 물 길러 천리만리 가야 되니까.)

108016 @ 어머니영 같이.(어머니랑 같이)

108016 #3 어 어떵헐 거라.(어 어떻게 할 거야.)

108016 @ 남자 별로 없엇지예?(남자 별로 없었지요?)

108016 #3 아, 그때는 보통.(아, 그때는 보통.)

108016 @ 보통. 그믄 나이든 아버지도 짐을.(보통. 그러면 나이든 아버지도 짐을.)

108016 #3 아니, 나이든 어른덜은 안 허는디 어떤 젊은 사람덜은 그 저 물허벅도 남자덜도 여러 번 지어낫어. 게난 이 물 그냥 그 저 물이 흥건헤영 게난 비나 와근에 물이 하영 ᄀᆞᆯ 때는 안 허고 막 뿔어갈 때는 겨난 ᄉᆞ믓 이 동새벡이덜 일어낭.(아니 나이든 어른들은 안 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 저 ‘물허벅’도 남자들도 여러 번 지었었어. 그러니까 이 물 그냥 그 저 물이 흥건해서 그러니까 비나 와서 물이 많이 갈 때는 안 하고 막 삐어갈 때는 그러니깐 사뭇 이 첫새벽에들 일어나서.)

108016 @ 동새벡이덜 일어낭.(첫새벽에들 일어나서.)

108016 #3 이 옛날엔 이 아침, 겨난 이 그 소먹이 헐 철쯤 뒈어근에 촐 비레 갈 때 이 바로 이땝주. 이때 그 꼴 비레 저 어디 저 산더레 갈 때쯤은 쳇ᄃᆞᆨ 우는, 쳇ᄃᆞᆨ 우는 게 ᄒᆞᆫ 두시 반에서 세 시 거든마씨.(이 옛날엔 이 아침, 그러니까 이 그 소먹이 할 철쯤 되어서 꼴 베러 갈 때 이 바로 이땝지요. 이때 그 꼴 베러 저 어디 저 산으로 갈 때쯤은 첫닭 우는, 첫닭 우는 게 한 두시 반에서 세 시 거든요.)

108016 @ 삼경.(삼경.)

108016 #3 그때 일어낭은에 밥 ᄒᆞᆫ 적 그 보리밥 괴양 그거 헤근에 동그랑착에 그거 싸고, 무싱거 다 헹은에 그거 헹 멍에 갈 때는 쉐질메 지왕 쉐에 시끄고 헹 밤에 걸어가야 뒙주게. 밤에 걸어가근에 해 뜨기 전 밧디 도달. ᄒᆞ썰 성질 급헌 하르방덜은 해 뜨기 전 빌만 헐 때 밧디 가지민 코삿허곡, 경 안헤근에 해나 텅 올라왕 밧디 도달허는 할망 이시민 이놈이 ᄌᆞᄌᆞ리 몽근 년! 늦잠 자부난 무신거 헷다고 그 욕지거리, 거 무신 이녁도 무신거 헌디 그 할망은 무신 죄랑 새벽이 일어낭 밥 헌 거만 헤도 무신거 헌디 밧디 늦게 도착헌 거 할망 심엉 태작허고. 태작이렌 헌

건 뚜드려 분 거.(그때 일어나서 밥 한 술 그 보리밥 고이 그거 해서 도시락에 그거 싸고 무엇 다 해서 그거 해서 멍에 갈 때는 소길마 지워서 소에 싣고 해서 밤에 걸어가야 됩지요. 밤에 걸어가서 해 뜨기 전 밭에 도달. 조금 성질 급한 할아버지들은 해 뜨기 전 벨만 할 때 밭에 가지면 기쁘고, 그렇게 안해서는 해나 떠서 올라와서 밭에 도달하는 할머니가 있으면 이놈이 '즈즈리 몽근 년!' 늦잠 자버리니까 무엇 했다고 그 욕지거리, 거 무슨 이녁도 무엇 한데 그 할머니는 무슨 죄랑 새벽에 일어나서 밥한 거만 해도 무엇 한데 밭에 늦게 도착한 거 할머니 잡아서 타작하고. 타작이라고 한 건 두들겨 버린 거.)

108016 @ 헤헤헤헤, 아이고, 진짜로.(헤헤헤헤, 아이고, 진짜로.)

108016 #3 아, 옛날 츰 우스운 일 많앗습니다.(아, 옛날 참 우스운 일 많았습니다.)

108017 @ 헤헤, 게도 어머닌, 아이구, 츰말로 올레, 골목에 대헹 말씀헤 주십시오.(헤헤, 그래도 어머닌, 아이고, 참말로 오래, 골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17 #3 올레 골목 골목길이란 건 뭐.(오래 골목 골목길이란 건 뭐.)

108017 @ 올레여 뭐 골목길이여.(오래다 뭐 골목길이다.)

108017 #3 골목길, 골목길은 그 저 이 저 각 동네마다 그쟈 이 그 고망 저 고망으로 들어가는 것ᄀᆞ라 골목길이옌 허기는 허는디.(골목길, 골목길은 그 저 이 저 각 동네마다 그저 이 그 구멍 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고 골목길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108017 @ 히히.(히히.)

108017 #3 그 한길이옌 헌 거는 이 그 ᄒᆞ쏠 큰길ᄀᆞ라 한길이옌 허엿고, 골목길이옌 헌 건 동네마다 그 집드레 들어가는 골목.(그 한길이라고 한 거는 이 그 조금 큰길보고 한길이라고 하였고, 골목길이라고 한 건 동네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108017 @ 응.(응.)

108017 #3 그것ᄀᆞ라 거.(그것보고 거.)

108017 @ 올레예.(오래요.)

108017 #3 응.(응.)

108020 @ 도새기, 돼지우리?(돼지, 돼지우리?)

108020 #3 돼지우리 그건 뭐 통지.(돼지우리 그건 뭐 '통지.')

108020 @ 돗통시.(돼지우리.)

108020 #3 통지.(돼지우리.)

108020 @ 통지.(돼지우리.)

108020 #3 디딜낭, 디딜낭이옌 헌 거 알아?(부춛돌, 부춛돌이라고 한 거 알아?)

108020 @ 몰라마씨. 뒤?(몰라요. 뒤?)

108020 #3 응. 뒤 보는 디. 뒤 보는.(응. 뒤 보는 데. 뒤 보는.)

108020 @ 뒤들랑?(부춛돌?)

108020 #3 디딜항. 디딜항.(부춛돌. 부춛돌.)

108020 @ 아아 디딜팡?(아아 부춛돌?)

108020 #3 응. 디딜팡이옌도 하고 디딜항이옌도 하고.(응. '디딜팡'이라고도 하고 '디딜항'이라고도 하고.)

108020 @ 아아, 디딜항이렌 합니까?(아아, '디딜항'이라고도 합니까?)

108020 #3 응. 디딜항이옌도 하고 디딜팡이옌도 하고.(응. '디딜항'이라고도 하고 '디딜팡'이라고도 하고.)

108020 @ 예. 우리 애월서는 디딜팡 아아, 디딜낭.(예. 우리 애월에서는 '디딜팡' 아아, '디딜낭'.)

108020 #3 응. 디딜팡이옌도 하고 디딜항이옌도 하고.(응. '디딜팡'이라고도 하고 '디딜항'이라고도 하고.)

108020 @ 디딜팡.(부춛돌.)

108020 #3 거 디뎡 아장은에.(거 디뎌서 앉아서.)

108020 @ 디뎡 아장.(디뎌서 앉아서)

108020 #3 거 저 무싱거 보는 디.(거 저 무엇 보는 데.)

108020 @ 돗통시, 돗통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돼지우리, 돼지우리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0 #5 무시거?(무엇?)

108020 @ 돗통시, 돗도고리[137]? 웃담 튀어 넘기. 도새기에 대헤서? 돗도고리?(돼지우리, '돗도고리'? 윗담 뛰어 넘기. 돼지에 대해서? '돗도고리'?)

108020 #5 돗도고리는.('돗도고리'는.)

108020 @ 도새기에 대헤서?(돼지에 대해서?)

108020 #5 예. 돗도고리는 크게 파가지고 큰 도새기 새끼 내운 사람은 큰 도고리에 사용헤여서 그레 물을 하영 놔뒁 밧디 가민 헤원 먹으렌 그레 놩은에 저 체 캉 놩 네불민 먹고, 경 안 헌 건 즌도새긴 줏도새기덜은 즉은 도고리 헤영은 물 놓곡 체 ᄒᆞ쏠 놓곡 헹.(예. '돗도고리'는 크게 파가지고 큰 돼지 새끼 내운 사람은 큰 '도고리'에 사용해서 그리로 물을 많이 놔두고 밭에 가면 종일 먹으라고 그리 넣어서 저 겨 타서 놔서 내버리면 먹고, 그렇게 안 한 건 작은 돼진 젖 돼지들은 작은 '도고리' 해서 물 넣고 겨 조금 놓고 해서.)

108020 #6 조 장만 헤난 그 조 체 헤영 도새기 줫수다. 게곡 ᄆᆞ멀읏[138]이라고 ᄆᆞ멀 두드려나민 그 체 그거 헤영 도새기 주곡 도새긴 오족 가난헙네까게? 경ᄒᆞ난.(조 장만 했던 그 조 겨 해서 돼지 줬습니다. 그리고 '메밀읏'이라고 메밀 두드려나면 그 겨 그거 해서 돼지 주고 돼지 오죽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108020 #5 사람이 가난헌 거주.(사람이 가난한 거지.)

108020 #6 잔치나 허젱은 허민 저 ᄆᆞ멀 ᄒᆞ쏠 ᄀᆞᆯ아놓곡 숫ᄀᆞ룰.(잔치나 하려고

137) '돗도고리'는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을 말한다.
138) 'ᄆᆞ멀읏'은 메밀을 두드려나면 나온 체(겨)를 말한다.

하면 저 메밀 조금 갈아놓고 숯가루를.)

108020 #5 불 살랑 츠는 숫, 불 살랑 츠는 숫.(불 때서 쬐는 숯, 불 때서 쬐는 숯.)

108020 #6 숫ᄀᆞ룰을 헤영 먹으민.(숯가루를 해서 먹으면.)

108020 @ 숫이믄 저 이 땔감, 땔감?(숯이면 저 이 땔감, 땔감?)

108020 #6 응. 땔감 헤영 불 지치민, 살라난에 물 지쳐불민 시커멓게 숫 뒈지 안 합네까게? 그거 뻣아근에 그 ᄆᆞ멀ᄏᆞ루레.(응. 땔감 해서 불 끼얹으면 땐 물 끼얹으면 시커멓게 숯 되지 않습니까? 그거 빻아서 그 메밀가루에.)

108020 #5 오레 질루는 도새긴 못허곡, 오래 안 질루는 도새긴 경 먹으민 잔치 혼저 술지렌 혼저 이제는 술진 걸 안 먹엄주만은 엿날은 술질 수가 엇어.(오래 기르는 돼진 못하고, 오래 안 기르는 돼진 그렇게 먹으면 잔치 어서 살찌라고 어서 이제는 살찐 걸 안 먹고 있지만 옛날은 살찔 수가 없어.)

108020 #6 서껑 멕영 잔치집에 도새기 잡앗덴 허민 도새기 술지지 안 허주만은 고기가 고기가 쭌쭌헌 건디 고기가 희여. 희뚜룩헤여. 경허렌 경 멕여낫수다. 경헤영 옛날엔 도새기도 가난허고 사람도 가난허고.(섞어서 먹여서 잔칫집에 돼지 잡았다고 하면 돼지 살찌지 안 하지만 고기가 고기가 '쭌쭌한' 건데 고기가 희여. 희읍스름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먹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엔 돼지도 가난하고 사람도 가난하고.)

108020 #5 사람이 가난헌디 도새긴 아니.(사람이 가난한데 돼진 아니.)

108020 #6 서난허고 서난허연 살앗수다.(서럽고 서러워서 살았습니다.)

108020 @ 게 모시입도 주곡 막 어릴 때 나 도새기는 우리도예. 나도 어릴 때 봐난.(그러니깐 모시 잎도 주고 아주 어릴 때 나 돼지는 우리도요. 나도 어릴 때 봤었어.)

108020 #10 폭낭섶도 헤당주곡.(팽나무잎도 해다가 주고.)

108020 #6 모멀체 하영 헹 멕엿수다.(메밀겨 많이 해서 먹였습니다.)

108020 #5 모멀체민 좋주.(메밀겨면 좋지.)

108020 #6 저 조 장만 헤나민 그 붕당체 그거 멕이곡.(저 조 장만 해나면 그 '붕당체' 그거 먹이고.)

108020 #10 붕당체도 멕이고.('붕당체'도 먹이고.)

108020 @ 도새기집을 돗통시렌 허지예?(돼지집을 돼지우리라고 하지요?)

108020 #10 통지.(돼지우리.)

108020 #5 예. 통제에 도새기집을 짓는 거라. 동글락허게. 요렇게, 요렇게 헤영 집 짓엉.(예. 돼지우리에 돼지집을 짓는 거야. 동그랗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집 지어서.)

108020 @ 디딜팡 이렇게.(부춧돌 이렇게.)

108020 #10 알암싱게.(알고 있네.)

108020 #5 예. 저 통제 막 헉 팡은에 담 다아근에 통제 멘들곡.(예. 저 돼지우리

막 흙 파서 담 쌓아서 돼지우리 만들고.)

108020 #6 곧지 안헤도 다 압니다게. 저 어디 가믄 다 만들엉 싯수게게.(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저 어디 가면 다 만들어서 있습니다.)

108020 #5 돗집 헤영은에 도새기 디밀앙 오고, 체 헤영 캉 멕이고 경 허멍.(돼지집 해서 돼지 집어넣어서 오고, 겨 해서 타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108020 #6 그 우이 강 디딜팡 우이 강 앚앙 똥 싸 가민 도새기 똥 제게 싸렌 주둥이로 똥고망 받아 불고. 하하하하.(그 위에 가서 부춘돌 위에 가서 앉아서 똥 싸 가면 돼지 똥 재우 싸라고 주둥이로 똥구멍 받아 버리고. 하하하하.)

108020 #10 똥고망 믄 받아 불고. 하하하하.(똥구멍 몽땅 받아 버리고. 하하하하.)

108020 @ 망뗑이로 이렇게 허고예.(몽둥이로 이렇게 하고요.)

108020 #10 하하하하. 몽뗑이 놔둠서 막 ᄉᆞ믓 때리멍 하하하하.(하하하하. 몽둥이 놔두면서 마구 사뭇 때리면서 하하하하.)

108020 #7 그런 것덜 멕이멍 먹엇주.(그런 것들 먹이면서 먹었지.)

108020 #6 하하하. 아이고, 겁난에 돗도고리에 대구리 고불랑창 헨 털어졍.(하하하. 아이고, 겁나서 '돗도고리'에 머리 '고불랑창(?)' 해서 떨어져서.)

108020 @ 게믄 똥떡 헤 먹어낫수과 그런 때?(그러면 '똥떡'해 먹었습니까? 그런 때?)

108020 #5 어떵?(어떻게?)

108020 @ 똥떡.('똥떡.')

108020 #5 똥떡은 안 헨 먹언.('똥떡'은 안 해서 먹었어.)

108020 @ 요즘 아이덜 동화책에예. 그 얘기, 제주도 얘기 나왕 얼마나 재밋게 봠수과? 아이덜. 그 떨어진 아이 넋 나지 안 허게 똥떡을 만들엉 영 돌려야 그 나쁜 저 뭐가 안 뭰덴 허영.(요즘 아이들 동화책에요. 그 얘기, 제주도 얘기 나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 그 떨어진 아이 넋 나지 안 하게 '똥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야 그 나쁜 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108020 #5 그건 모르고게.(그건 모르고.)

108020 #10 어, 무신 똥떡을 만들어?(어, 무슨 '똥떡'을 만들어?)

108020 @ 제주도에 있는 돗통시에 얼먹어나면?(제주도에 있는 돼지우리에 얼먹어나면?)

108020 #10 어어.(어어.)

108020 #5 넋 나면 엿날엔.(넋 나면 옛날엔.)

108020 #6 돗통에 털어졍 저 그 돗도고리레 털어졍 넋 난 아인 경 안허민 넋을 안 들엇젠 헨 경 헷수게.(돼지우리에 떨어져서 저 그 '돗도고리'에 떨어져서 넋 난 아인 그렇게 안하면 넋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08020 #10 아아.(아아.)

108020 @ 그런 뭐 재미잇는 얘긴 엇엇수과?(그런 뭐 재미있는 얘긴 없었습니

까?)

108020 #5 그런 구경은 안 헤보곡.(그런 구경은 안 해보고.)

108020 @ 도새기 막 웃담 튀어 나가지고 재미난 동네 그냥 막 돌아다니멍 어머니.(돼지 막 '웃담' 뛰어 나가지고 재미난 동네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108020 #5 담 물앙 도새기가 배고프민 나 서방 촞아나민 담 물앙 나강 놈이 집이 하근 거, 강 부솨불곡 벨짓그릴 다 헤영 나도 저 민보 아방네 집이 단지 간 흐나 벌럿젠 헤영 설어낫어.(담 허물어서 돼지가 배고프면 나 서방 찾아나면 담 허물어서 나가서 남의 집에 온갖 거, 가서 부숴버리고 별짓거릴 다 해서 나도 저 민보 아버지네 집에 단지 가서 하나 깼다고 해서 변상했어.)

108020 #10 에이고. 하하하.(에이고. 하하하.)

108020 #5 오줌단지산디 무슨 단지산디 둥글언에 민보 아방네 집이 헨 설어낫어 나도.(오줌단지인지 무슨 단지인지 둥글어서 민보 아버지네 집에 해서 변상했어. 나도.)

108022 @ 헛간, 장독대, 츰항? 헛간에 뭐렌 헙니까? 제줏말로?(헛간, 장독대, '츰항'? 헛간에 뭐라고 합니까? 제줏말로?)

108022 #3 헛간은 그 저 요즘 말로는 창곤데 저게 그전 옛날말로는 지들커 들이는 디. 헛간. 게난 그 비왐직허민 지들커 들엿당 영 지들커덜 데멋당 허는 디ᄀᆞ라 헛간이옌 허주게. 하간 어지러운 거 들이는 디 어지러운 거.(헛간은 그 저 요즘 말로는 창고인데 저게 그전 옛날말로는 땔감 들이는 데. 헛간. 그러니까 비올 것 같으면 땔감 들였다가 이렇게 땔감들 쟁였다가 하는 데보고 헛간이라고 하지. 온갖 어지러운 거 들이는 데 어지러운 거.)

108023 @ 외양간을 쉐막이렌 헙니까?(외양간을 '쉐막'이라고 합니까?)

108023 #3 쉐막이 외양간은 쉐막.('쇠막'이 외양간은 '쇠막'.)

108023 #5 쉐 질르는 것ᄀᆞ라 쉐막.(소 기르는 것보고 외양간.)

108023 #10 쉐막.(외양간.)

108023 @ 쉐막에 대해서? 쉐왕이옌 헷수과? 쉐막이렌 헷수과?(외양간에 대해서? '쉐왕'이옌 했습니까? '쉐막'이라고 했습니까?)

108023 #5 쉐막.(외양간.)

108023 @ 쉐막.(외양간.)

108024 @ 외양간은 쉐막예. 말은 안 키와나고. 장독대?(외양간은 '쉐막'요. 말은 안 키웠었고. 장독대?)

108024 #3 장독대는 그 저 거 부억으로 헤가지고 즉은 문으로 나강은에 그 장 담앙 무스거 허는 거. 장독대 그거. 장항 놓는 데.(장독대는 그 저 거 부엌으로 해가지고 작은 문으로 나가서 그 장 담아서 뭐 하는 거. 장독대 그거. 장독 놓는 데.)

108024 @ 장항, 장항.(장독, 장독.)

108024 @ 장독대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장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4 #5 장독대사게 이제는 장독대 우이 올라감주만은 옛날은 뒤에 헤영 장 팡기옌 헤영 그디 강 장 담앙은에 그쟈 헷주만은.(장독대야 이제는 장독대 위에 올라가고 있지만 옛날은 뒤에 해서 장독대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장 담아서 그저 했지만.)

108024 #6 무신 돌판이나 ᄒᆞ나 놩은에 그레 항 놩은에 담앙.(무슨 돌판이나 하나 놔서 그리로 항아리 놔서 담아서.)

108024 #5 장 담앙.(장 담아서.)

108024 @ 항 멧 개 정도? 뒌장, 간장 정도?(항아리 몇 개 정도? 된장, 간장 정도?)

108024 #6 뒌장, 간장, 그거 ᄒᆞᆫ 댓 개썩 잇는 집은 셧주게. 짐치, 그 ᄀᆞ세ᄂᆞ멀로 짐치 담앙 먹곡게. 저 꿩마농 헤영 짐치 담고 허젠 허민 ᄋᆞ라 개 잇엇어.(된장, 간장, 그거 한 댓 개씩 있는 집은 있지. 김치, 그 씀바귀로 김치 담가서 먹고. 저 달래 해서 김치 담고 하려고 하면 여러 개 있었어.)

초가지붕 이기

108026 @ 초가지붕 이기에 대행 말씀헤 주십서. 초가지붕? 지붕이기?(초가 지붕 이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가지붕? 지붕이기?)

108026 #3 지붕 이는 거?(지붕 이는 거?)

108026 @ 예.(예.)

108026 #3 지붕 이는 거 그거 저 새로 일고 각단[139]으로 줄 놔근에 그 저 동여매는 것ᄀᆞ라 거 지붕 이는 거옌 허는 거.(지붕 이는 거 그거 저 띠로 이고 '각단'으로 줄 놔서 그 저 동여매는 것보고 거 지붕 이는 거라고 하는 거.)

108026 @ 초가지붕 일기? 초가지붕 이기?(초가지붕 이기? 초가지붕 이기?)

108026 #5 초가집은 새 비영 이는 게 초가집.(초가집은 띠 베어서 이는 게 초가집.)

108028 @ 집줄 만들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집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8 #3 집줄 만드는 거 그거는.(집줄 만드는 거 그거는.)

108028 @ 진줄, ᄍᆞ른줄? 호렝이[140]?(긴줄, 짧은줄? '호렝이'?)

108029 #3 진줄, ᄌᆞ른줄.(긴줄, 짧은줄.)

108028 @ 진줄, ᄌᆞ른줄.(긴줄, 짧은줄.)

108028 #3 호렝이. 그 저 이 줄 비어 나가는 거.('호렝이'. 그 저 이 줄 꼬아 나가는 거.)

108028 @ 줄 비어 나가는 거.(줄 꼬아 나가는 거.)

108028 #3 그 저 그것ᄀᆞ라 호렝이옌 허는.(그 저 그것보고 '호렝이'라고 하는.)

---

139) '각단'은 '각다니'라고도 하며 초가지붕을 얽어 매는 집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140) '호렝이'는 '호롱이', '훼롱이'라고도 하며 집줄 따위를 뒤트는 기구이다.

108028 @ 새, 각단 준비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띠, '각단'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8 #5 새, 각단 비어당 줄 놩 영, 이렇게 멘들민.(띠, '각단' 베어다가 줄 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108028 #6 줄 놩 영 뒈왕.(줄 놔서 이렇게 뒤틀어서.)

108028 @ 집줄 만들기?(집줄 만들기?)

108028 #6 예.(예.)

108028 #5 줄 영, 영 놔가민 저디서 영, 영 비어가면은 줄 감아지면은 저기까지 강 꼽아둥 다시 오랑 이디 오랑 헤영 헤가민 헤영 믄 허민 이디서 두 개 헹 한 가달에 메우쳥 허영.(줄 이렇게, 이렇게 놔가면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꼬아가면 줄 감아지면 저기까지 가서 꽂아두고 다시 와서 여기 와서 해서 해가면 해서 몽땅 하면 여기서 두 개 해서 한 가닥에 모아서 해서.)

108028 #6 두 가달 헹 메왕(두 가닥 해서 모아서.)

108028 #5 메와사 줄 하나 뒈는 거.(모아야 줄 하나 되는 거.)

108028 #6 베 꽈져.(베 꼬아져.)

108028 #5 경 헤영 집 일고.(그렇게 해서 집 이고.)

108028 @ 집줄 만들기 말헴지예? 그믄 집줄 만들기 연장은 호렝이, 뒤치기 필요한 거고예.(집줄 만들기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집줄 만들기 연장은 '호렝이', '뒤치기' 필요한 거고요.)

108028 #5 예.(예.)

108029 @ 호렝이예. 뒤치기[141]는 뭐꽈?('호렝이'요. '뒤치기'는 뭡니까?)

108029 #3 뒤치기 그 저 뒤에서 둘러 가면 그 호렝이 헤영 줄 어울릴 때.('뒤치기' 그 저 뒤에서 둘러 가면 그 '호렝이' 해서 줄 어울릴 때.)

108029 @ 어울릴 때.(어울릴 때.)

108029 #3 줄 어울릴 때 그 저 이 베꼽 모냥으로 거 영 어울려가멍 거 헤근에 두 곱으로 헹은에 든든허게 멘들엉 영 영 쭉허게 베추룩 꼬아가는 거. 게난 뒤치는 거는 그 저짝에서 호렝이로 영영 둘이 상 비어가면은 흔 사람은 이 줄 심엉 가운디 이디서 그걸 뒈와주는 건 뒤치는 거옌 허여.(줄 어울릴 때 그 저 이 배꼽 모양으로 거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거 해서 두 겹으로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쭉하게 바처럼 꼬아가는 거. 그러니까 뒤치는 거는 그 저쪽에서 '호렝이'로 이렇게, 이렇게 둘이 서서 꼬아가면 한 사람은 이 줄 잡아서 가운데 여기서 그걸 비트는 건 뒤치는 거라고 해.)

108030 @ 거 뒈와주는 거예. 허허. 평고대?(거 꼬아주는 거요. 허허. 평고대?)

108030 #3 아, 평고대, 그 저 이 줄 줄마맬 때 초가집 영 쭉허게 헹은에.(아, 평고대, 그 저 이 줄 잘라맬 때 초가집 이렇게 쭉하게 해서.)

---

141) '뒤치기'는 '뒤차대', '뒤체', '호롱이판'이라고도 하며 두 가닥의 줄을 하나의 단단한 줄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이다.

108030 @ 예.(예.)

108030 #3 알 가젱이로 영 돌아가멍 매어야 그 저 줄을 일어근에 무끄는 것ᄀᆞ라 평고대옌 허는 거.(아래 처마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어야 그 저 줄을 이어서 묶는 것보고 평고대라고 하는 거.)

108030 @ 평고대하고 집줄 메기?(평고대하고 집줄 매기?)

108030 #6 평고댄 그건 집줄 메는 저 거왕. 여기선 거왕.(평고댄 그건 집줄 매는 저 평고대. 여기선 '거왕.')

108030 #5 거왕.(평고대.)

108031 @ 집줄 매기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서. 집줄 횟수? 집줄 매기?(집줄 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줄 횟수? 집줄 매기?)

108031 #3 집줄 횟수는 그거 뭐, 뭐 큰 집은 하영 매고 즉은 집은 즉영 매고.(집줄 횟수는 그거 뭐, 뭐 큰 집은 많이 매고 작은 집은 적게 매고.)

108031 @ 집줄 매기는 남자덜이 매고예?(집줄 매기는 남자들이 매고요?)

108031 #6 여자덜도 메고.(여자들도 매고.)

108031 #5 예. 시세에 뚜랑 남자 엇이민 여자가 매고.(예. 시세에 따라서 남자 없으면 여자가 매고.)

108031 #10 난 죽창 매영 아방 엇어부난. 혼자 살멍.(난 줄곧 매서 아버지 없어 버리니까. 혼자 살면서.)

108032 @ 흐흐, 쓰다 남은 집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혜 주십시오.(흐흐, 쓰다 남은 집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32 #3 그건 지들커.(그건 땔감.)

108032 @ 아아, 지들커예. 집줄예. 다른 건 안 쓰고예.(아아, 땔감요. 집줄요. 다른 건 안 쓰고요.)

108032 #3 예.(예.)

108032 @ 쓰다 남은 집줄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집줄을 쓰다 남은 거는?(쓰다 남은 집줄의 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집줄을 쓰다 남은 거는?)

108032 #5 그건 헤영 방석 만들고, 꼴아 앚는 방석이라고 헤영 옛날은 줄방석이옌 허영.(그건 해서 방석 만들고, 깔아 앉는 방석이라고 해서 옛날은 줄방석이라고 해서.)

108032 @ 그 다음 테우고?(그 다음 태우고?)

108032 #5 게믄게 헐믄 케와 불고.(그러면 헐면 태워 버리고.)

108032 @ 헐믄 지들커로 쓰고.(헐면 땔감으로 쓰고.)

108032 #6 그거 하영 남으민 집 저 집 옆이 지둥 ᄒᆞ나 세와지고 집 허민 이펜이 그 트멍 날 거 아니꽈? 그런 디 개영 잘 데명 놔둬.(그거 많이 남으면 집 저 집 옆에 기둥 하나 세워가지고 집 하면 이편에 그 틈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데 개어서 잘 쟁여서 놔둬.)

108032 #5 게읫트멍이라고 헤엿어.(툇기둥 틈이라고 했어.)

108032 @ 게왓?(툇기둥?)

108032 #5 트멍.(틈.)

108032 @ 게왓트멍. 뭐 놔마씨? 그거 남으면?(툇기둥 틈 뭐 놔요? 그거 남으면?)

108032 #6 줄 남으믄.(줄 남으면.)

108032 #5 줄 끗뗑이 그창 그 끗뗑이 ᄒᆞ찡허게 그창 그 줄 끗뗑이 헤영 그 버려불기 에스러우니까 그 트멍에 저 게왓트멍에 그레 ᄌᆞ근ᄌᆞ근 데명 쌓앗당 그걸로 불도 ᄉᆞᆷ고 그쟈 아무 거라도 헤져.(줄 끄트머리 끊어서 그 끄트머리 가지런하게 끊어서 그 줄 끄트머리 해서 버려 버리기 아쉬우니까 그 틈에 저 툇기둥 틈에 그리로 자근자근 쟁여서 쌓았다가 그걸로 불도 때고 그저 아무 거라도 해져.)

108032 @ 게왓은 뭐꽈?(툇기둥은 뭡니까?)

108032 #5 게왓 트멍. 그건 저.(툇기둥 틈. 그건 저.)

108032 #6 지둥 트멍. 이건 지둥이고 이건 집이믄 이 트멍.(기둥 틈. 이건 기둥이고 이건 집이면 이 틈.)

108032 #5 이 지붕광 이 지붕 사이 집안에 집 짓인 트멍. 이젠 그런 집이 읏주만은. 옛날은 다 게읫 트멍을 헤연.(이 지붕과 이 지붕 사이 집안에 집 지은 틈. 이젠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은 다 툇기둥 틈을 해서.)

108032 @ 비에 젖지 않게예.(비에 젖지 않게요.)

연장

108033 @ 집 짓는 연장의 종류?(집 짓는 연장의 종류?)

108033 #3 집 짓는.(집 짓는.)

108033 @ 집 짓는 연장?(집 짓는 연장?)

108033 #3 짓는 거 그건 여러 가진디. 톱허고.(짓는 거 그건 여러 가진데. 톱하고.)

108033 @ 톱, 못 뽑기, 배척, 장도리?(톱, 못 뽑기, 배척, 장도리?)

108033 #3 곱자귀, 장도리.(곱자귀, 장도리.)

108033 @ 곱자귀, 장도리.(곱자귀, 장도리.)

108033 #3 까그젠 허민 대패.(깎으려고 하면 대패.)

108033 @ 대패. 자.(대패. 자.)

108033 #3 또 저 저 저 끌.(또 저 저 저 끌.)

108033 @ 끌. 먹통, 먹줄?(끌. 먹통, 먹줄?)

108033 #3 먹통. 것도 재기 곧젠 허난 무신 모르켜.(먹통. 것도 재우 말하려고 하니까 무슨 모르겠다.)

108033 @ 먹통, 먹줄, 흑손, 흑받기? 자?(먹통, 먹줄, 흙손, 흙받기? 자?)

108033 #3 곱은자.(곱은자.)

108033 @ 곱은자, 곱은자예?(곱은자, 곱은자요?)

108033 #3 어. 거 상당히 하. 그놈의짓 거. 자귀.(어. 거 상당히 많아. 그놈의짓 거. 자귀.)

108033 @ 자귀?(자귀?)

108033 #3 곱자귀허고 자귀허고 틀려. 곱자귀는 영 사람 사근에 손으로 까까 내려오는 거고 자귀는 손으로 독독 가끄는 거고. 응.(곱자귀하고 자귀하고 달라. 곱자귀는 이렇게 사람 서서 손으로 깎아 내려오는 거고 자귀는 손으로 톡톡 깎는 거고. 응.)

108033 @ 자귄 손으로?(자귄 손으로?)

108033 #3 손에 들렁 까그는 것ᄀᆞ라 자귀옌 허고, 양손으로 헹 일어상 까그는 걸 곱자귀옌허고.(손에 들어서 깎는 것보고 자귀라고 하고, 양손으로 해서 일어서서 깎는 걸 곱자귀라고 하고.)

108033 @ 양손으로 일어상 가끄는 거예.(양손으로 일어서서 깎는 거요.)

108033 #3 응.(응.)

108033 @ 아이구, 이거.(아이구, 이거.)

8. 신앙

109002 @ 성주? 성주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성주? 성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2 #3 성주?(성주?)

109002 @ 성주풀이, 성주?(성주풀이, 성주?)

109002 #3 심방 ᄃᆞᆯ아당.(심방 데려다가.)

109002 @ 심방 ᄃᆞᆯ아당.(심방 데려다가.)

109002 #3 그 성주풀이란 게 심방 ᄃᆞᆯ아당 그 나무.(그 성주풀이란 게 무당 데려다가 그 나무.)

109002 @ 예.(예.)

109002 #3 나무나 거 땅 무신 이 허는 건디 옛날은 그 신, 귀신 부뜬다고 헤가지고.(나무나 거 땅 무슨 이 하는 건데 옛날은 그 신, 귀신 붙는다고 해가지고.)

109002 @ 예.(예.)

109002 #3 그 귀신, 그 낭에 부튼 귀신이나 무신 하간 거에 부뜬 성주렌 귀신 ᄃᆞ리는 것ᄀᆞ라 성주옌 허는 거.(그 귀신, 그 나무에 붙은 귀신이나 무슨 온갖 거에 붙은 성주라고 귀신 쫓는 것보고 성주라고 하는 거.)

109002 @ 귀신 ᄃᆞ리는 거예.(귀신 쫓는 거요.)

109002 #3 응. 귀신 ᄃᆞ리는 거.(응. 귀신 쫓는 거.)

109002 #5 성준겐 무싱 거옌 허느니? 떡 헤 놩 올려근에 저 강태공 쉐목쉬허곡.(성주는 무슨 거라고 하니? 떡 해 놔서 올려서 저 강태공 수목수하고.)

109002 #4 거 성주 거슬리는 거.(거 성주 받는 거.)

109002 #5 게. 경 ᄀᆞᆯ암수게.(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109002 #6 성주 거시리는 거 말ᄒᆞ렝 헴수게. ᄀᆞᆯ읍서.(성주 받는 거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세요.)

109002 #4 알아지주게. 헤헤.(알아지지. 헤헤)

109002 #5 저 그쟈 떡 헹 올리고, 하간 거 올령 펭풍 쳥 올령 이젠, 드러 이젠 경 그 엿날은 그 무신거 헤신디 그때 그 무사 ᄀᆞ루는 그 ᄆᆞ멀, ᄆᆞ멀ᄀᆞ루떡 허여근에 ᄀᆞ루를 곤쏠ᄀᆞ루산디 ᄆᆞ멀ᄀᆞ루산디 허트는 건고이? 그추룩.(저 그저 떡 해서 올리고, 온갖 거 올려서 병풍 쳐서 올려서 이젠, 마구 이젠 그렇게 그 옛날은 그 무엇 했는데 그때 그 왜 가루는 그 메밀, 메밀가루떡 해서 가루를 흰쌀가루인지 메밀가루인지 흩는 걸까? 그처럼.)

109002 #6 ᄆᆞ멀ᄀᆞ루만 떡 헨 그디 못 올립니께게. 성주가 오죽 멩심헹 허는 거꽈?(메밀가루만 떡 해서 거기 못 올립니다. 성주가 오죽 명심해서 하는 겁니까?)

109002 #5 게메. 경 헹 올려놓고, 우이 다시 곤떡헹 올리곡, 좀팍떡인가 무싱거영, 영 누르뜨는 거 싯지 안험네가? 똑 좀팍만썩 좀팍, 철팍으로 멘든 거, 곤떡인디.(글쎄.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위에 다시 흰떡해서 올리고, '좀팍떡'인가 무엇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좀팍'만씩 '좀팍', '철팍'으로 만든 거, 흰떡인데.)

109002 #6 소랑소랑[142]한 거.(기름기름한 거.)

109002 #5 그거 헹 올리고, 요만썩 헤영 옴막옴막헤영, 경헨 올령은에 드러 헤영, ᄉᆞ뭇 낭 뎅기멍 들엉 강태공 쉐목쉬 헤가민, 저 무싱거옌 허느니? 거 베로나 미녕으로나 헤영 절로 강태공 서목쉬 싀 번 불르민 절로 오라가민, 그걸로 걸령 둥기고, 경 헨 그걸로 다시 오라근에, 도깨로 하간 디 그디저디 찍는 체 헤연 그디도.(그거 해서 올리고, 요만큼씩 해서 옴폭옴폭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서 마구 해서, 사뭇 나무 다니면서 들어서 강태공 수목수 해가면, 저 무엇이라고 하니? 거 바로나 무명으로나 해서 저리로 강태공 수목수 세 번 부르면 저리로 와 가면, 그걸로 걸려서 당기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다시 와서, 도끼로 온갖 데 거기저기 찍는 체 해서 거기도.)

109002 #4 찍는 첵이랑 마랑 하영 찍나. 막.(찍는 척이랑 마랑 많이 찍나. 막.)

109002 #6 팡팡 찍어불어.(팡팡 찍어버려.)

109002 #5 종이에 물 놩은에 벡지에 물 놩 카근에 착착 부시데기고.(종이에 물 넣어서 벽지에 물 놔서 타서 착착 부스러뜨리고.)

109002 #6 천장더레.(천장으로.)

109002 #4 것도 심방에 멘다게.(것도 심방에 매어.)

109002 #5 강태공 쉐목쉬헤여근에.(강태공 수목수해서.)

109002 #6 제라헌 심방은 경헤도, 저 불법에 시님은 빌어당 경은 헤도, 경 안허

142) '소랑소랑'은 좀 기름한 물건이 나란하게 놓여 있는 모양을 말한다.

여. 작작 부치진 안허여.(제대로된 심방은 그렇게 해도, 저 불법에 스님은 빌려다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안 해. 작작 붙이진 않아.)

109002 #5 게도 문딱 저녕헌 디 다 부치메.(그래도 모두 저런 데 다 붙여.)

109002 #4 똑똑이 허는 사람은 경허여.(똑똑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109002 #5 그 도치 직는 서늉헤여 놓곡, 그레 다시 문딱 그 헉질허는 서늉으로 헉 헹 그레 강 착.(그 도끼 찍는 시늉해 놓고, 그리로 다시 몽땅 그 흙질하는 시늉으로 흙 해서 그리 가서 착.)

109002 #4 저 웃산에 그 낭 메당 찍는 서늉허는 거라.(저 윗산에 그 나무 메다가 찍는 시늉하는 거라.)

109002 #5 경 헨 허영게.(그렇게 해서 했어.)

109003 @ 문전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문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3 #3 문전은 뭐 부디 얘기 헐 게 뭐가 잇어? 제사 헤가지고.(문전은 뭐 부디 얘기 할 게 뭐가 있어? 제사 해가지고.)

109003 @ 문전제[143]?('문전제'?)

109003 #3 응. 문전제 지내는 뭐 그저 뭐 허는 집도 잇고, 안 허는 집도 잇고.(응. '문전제' 지내는 뭐 그저 뭐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고.)

109003 @ 아아.(아아.)

109003 #3 그 옛날부터 이 집에 제라는 거는 그 집안에서 그 어떵 어떵 헤가지고 끌어나가던 그런 식으로 따라오라 가지고 제가 뒈는 거난 그거는 문전제고 제사허고 그런 거는 집집마다.(그 옛날부터 이 집에 제라는 거는 그 집안에서 그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나가던 그런 식으로 따라와 가지고 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전제'고 제사하고 그런 거는 집집마다.)

109003 @ 집집마다.(집집마다.)

109003 #3 게난 가정, 가문마다 다 틀려. 어.(그러니까 가정, 가문마다 다 달라. 어.)

109003 @ 예. 삼촌은 헤마씨?(예. 삼촌은 해요?)

109003 #3 응.(응.)

109003 @ 문전은 누구꽈? 문전신은?(문전은 누굽니까? 문전신은?)

109003 #3 저 문전은.(저 문전은.)

109003 @ 집 지키는?(집 지키는?)

109003 #3 아니, 아니. 문전제는 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도 제사 대헤 가지고 그 벌여놓는 그 무신거나 어디 하르방덜안티 들은 예도 엇고 부모네 다 가부니까 뭐 헤난디 외가에서 뎅기멍 제 벌이는 거고 무싱거고 벱긴 베왓는디.(아니, 아니. '문전제'는 저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우리도 제사 대해 가지고 그 벌여놓는 그 무엇이나 어디 할아버지들한테 들은 예도 없고 부모네 다 가버리니까 뭐 했었는데 외가에서 다니면서 제 벌이는 거고 무엇이고 배우긴 배웠는데.)

143) '문전제'는 '문제'. '문체'. 제사 때 문 앞쪽에서 지내는 제를 뜻한다.

109003 @ 예.(예.)

109003 #3 저 어뜻 내가 들은 바로는 저 문전이란 거는 그 그날 제사에.(저 언뜻 내가 들은 바로는 저 '문전'이란 거는 그 그날 제사에.)

109003 @ 예.(예.)

109003 #3 ᄀᆞ찌 ᄯᅳ라뎅기는 친적이나 웃대, 웃대 같이 왓으면은 그쟈 그 어른덜 대접하는 게 그 문전제라고 헤가지고 게난 문전에서 그 어른덜을 대접해뒁 그날 당헌 제ᄉᆞ는 나중에 그 어른덜을 문저 멕영 보내뒁 제사를 지낸다고 헤서 문전제 헌다고 말을 들엇는데 모르겟어. 게난 그 어른을 대접헤뒁 집집마다 틀리는.(같이 따라다니는 친척이나 윗대, 윗대 같이 왔으면 그저 그 어른들 대접하는 게 그 '문전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전에서 그 어른들을 대접해두고 그날 당한 제사는 나중에 그 어른들을 먼저 먹여서 보내두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문전제'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어른을 대접해두고 집집마다 다른.)

109003 @ 예.(예.)

109003 #5 문전제사게, 문전에서 제허는 거난 문전제는 저 식게 때도 문전제허곡 멩질에도 문전제허는 거니까.('문전제'야, 문전에서 제하는 거니까 '문전제'는 저 제사 때도 '문전제'하고 명절에도 '문전제'하는 거니까.)

109004 @ 조왕?(조왕?)

109004 #3 밥허는 디.(밥하는 데.)

109004 @ 밥허는 디.(밥하는 데.)

109004 #3 솟 앚지는 디ᄀᆞ라 조왕이옌.(솥 앉히는 데보고 조왕이라고.)

109004 @ 조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조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4 #5 조왕은 부엌. 부엌ᄀᆞ라 조왕.(조왕은 부엌. 부엌보고 조왕.)

109004 @ 문전제 헤난 다음 아들이 먹어난 걸 또 어멍안티 준덴 헤영 부엌으로 가라는 거 아니꽈?('문전제' 해난 다음 아들이 먹었던 걸 또 어머니한테 준다고 해서 부엌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109004 #10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왕은 그 조왕할망이 잇고, 또 문전은 문전하르방이 잇주게. 문전은 남자고.(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조왕은 그 조왕할머니가 있고, 또 문전은 문전할아버지가 있지. 문전은 남자고.)

109004 #5 문전에는 문전에 문전제를 영 이렇게 영 상 하나 꾸명 문전제를 다그디 올령 문전제 헤나민 말쩨는 저 퉤선이옌 헌 거 무신거 우이 걷어근에 이젠 그거 헤영 부엌에 저 조왕 우이 강, 조왕에 강은에 그 저 이제 ᄀᆞ트민 싱크대에 그디 강 영 헹 놧당.(문전에는 문전에 '문전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 하나 꾸며서 '문전제'를 다 거기 올려서 '문전제' 해나면 말째는 저 제반이라고 한 거 뭐 거 위에 걷어서 이젠 그거 해서 부엌에 저 조왕 위에 가서, 조왕에 가서 그 저 이제 같으면 싱크대에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놨다가.)

109004 @ 그 문전제에 올리는 거 조왕에 올리는지 모르쿠과?(그 '문전제'에 올리는 거 조왕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까?)

109004 #6 조왕은 할망이고게. 문전은 하르방이니까.(조왕은 할머니이고 문전은 할아버지니까.)

109004 #5 문전은 하르방이니까 하르방 먹어난 음식을 허영 이젠 저 조왕에 간 이러헌 디 강 이젠 싱크대 그런 저 가스렌지 위주만은.(문전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먹었던 음식을 해서 이젠 저 조왕에 가서 이러한 데 가서 이젠 싱크대 그런 저 가스레인지 위지만.)

109004 @ 문전이 아덜이옌 안하고 아방이옌 헙디가?(문전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109004 #5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9004 #10 문전은 아방이고, 어멍은.(문전은 아버지고, 어머니는.)

109004 #5 어멍은 그 조왕이난게. 예펜은 조왕이난.(어머니는 그 조왕이니까. 여편은 조왕이니까.)

109004 @ 아방이 문전이렌 헙디가?(아버지가 문전이라고 합디까?)

109004 #5 아방은 문전이고, 어멍은 조왕.(아버지는 문전이고, 어머니는 조왕.)

109004 @ 어떤 디는 아덜이 문전이고, 그 아덜 먹엇단 걸 어멍안테로.(어떤 데는 아들이 문전이고, 그 아들 먹었던 걸 어머니한테로.)

109004 #6 뚜날ㅠ거우다. 다 뚜나.(다를 겁니다. 다 달라.)

109004 #5 게난 이렌 아방은 저 문전이고 어멍은 조왕이니까 아방 먹어난 음식을 우로 걷엉은에, 이 젠 그디 강 올렷당 다시 문딱 제 지내나민 이제.(그러니까 여긴 아버지는 '문전'이고 어머니는 '조왕'이니까 아버지 먹었던 음식을 위로 걷어서, 이젠 거기 가서 올렸다가 다시 몽땅 제 지내나면 이제.)

109004 #10 조왕할망게.(조왕할머니.)

109004 #5 조왕할망 먹어난 건 다시 저레 바깟더레 영 헤영 싯엉 내쳐 불곡.(조왕할머니 먹었던 건 다시 저리로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씻어서 내쳐 버리고.)

109004 @ 지붕 우에 놩 까마귀 뭐?(지붕 위에 놔서 까마귀 뭐?)

109004 #5 식게헐 때 벌영 헤난 음식을 우로 다시 밥이고 떡이고 국이고 궤기고 다 그디 ᄐᆞ다놩 모든 과일 ᄐᆞ다 놓곡 허영 집 우터레 널렁 놔두민 가마귀 오랑 주서 먹는 거고.(제사할 때 벌여서 했던 음식을 위로 다시 밥이고 떡이고 국이고 고기고 다 거기 뜯어놔서 모든 과일 뜯어 놓고 해서 집 위로 널려서 놔두면 까마귀 와서 주워 먹는 거고.)

109004 #10 그건 저 어멍 아방이 올 때 그 굴른 귀신덜이 ᄀᆞ찌 따라온다고.(그건 저 어머니 아버지가 올 때 군 귀신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109004 #11 그렇지.(그렇지.)

109004 #10 오면은 이젠 그 귀신 먹으렌 그 다 헤당 지붕 우트레 데끼, 던지면은 경 허면은.(오면 이젠 그 귀신 먹으라고 그 다 해다가 지붕 위로 던지, 던지면 그렇게 하면.)

109004 #6 거 먹고 가라고.(거 먹고 가라고.)

109004 @ 확인허고 이런 거 헤낫수과?(확인하고 이런 거 했었습니까?)

109004 #5 이렌 다 그런 거 헤난.(이리론 다 그런 거 했었어.)

109004 @ 옛날엔.(옛날엔.)

109004 #5 이제는 집도 노프곡 허난 데끼지도.(이제는 집도 높고 하니까 던지지도.)

109004 #10 이젠 경 안 허여.(이젠 그렇게 안 해.)

109004 #6 올레레 강 데껴. 올레.(오래에 가서 던져. 오래.)

109004 #10 올레레도 강 케우리곡.(오래로도 가서 던지고.)

109005 @ 게믄 칠성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러면 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5 #3 칠성이라는 건 베염.(칠성이라는 건 뱀.)

109005 @ 베염예.(뱀요.)

109005 #3 베염이 이레는 엇주만은 저 동더레는 잇다는데. 뎅기멍 헴시민 들을 건데.(뱀이 이리로는 없지만 저 동으로는 있다는데. 다니면서 하고 있으면 들을 건데.)

109005 #10 베염이주게. 칠성. 베염이라고 헤근에. 그 베염 모시는 집이 잇어낫어, 옛날에.(뱀이지. 칠성. 뱀이라고 해서. 그 뱀 모시는 집이 있었었어, 옛날에.)

109005 #5 저 베염 모시는 집은 무슨 집이냐 허믄 밧칠성허는 사람은 저 그게 안방에, 저 안방엔가? 뒤엔가? 저 눌 눌엉은에 그 소곱에 베염이 신 것 같아.(저 뱀 모시는 집은 무슨 집이냐 하면 '밧칠성'하는 사람은 저 그게 안방에, 저 고방엔가? 뒤인가? 저 가리 가리어서 그 속에 뱀이 있는 거 같아.)

109005 #10 응.(응.)

109005 #5 경 헹은에 허곡 그냥 저 안칠성은 그냥 그쟈 궤팡에 코시허영은에 그디 거세기 헤영은에 허는 거고.(그렇게 해서 하고 그냥 저 '안칠성'은 그냥 그저 고방에 고사해서 거기 거시기 해서 하는 거고.)

109005 #10 우린 그 안방에 허는 거는 안 봐나난 모르고.(우린 그 고방에 하는 거는 안 봤었으니까 모르고.)

109005 #5 안방에 허는 건 그기 저 무시거 코시헐 때 허는 거고 바깟디 허는 건 밧칠성이라고 헤서 뒤에 눌 눌엉은에 저 뱅뱅 둘렁 그디 강은에 뭐 올령 허는 거고 원.(고방에 하는 건 거기 저 뭐 고사할 때 하는 거고 바깥에 하는 건 '밧칠성'이라고 해서 뒤에 가리 가리어서 뱅뱅 둘러서 거기 가서 뭐 올려서 하는 거고 원.)

9. 세시풍속

정월

110002 @ 그 다음, 정월명절, 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뭐 헷수과? 옛날에.(그 다

음, 정월명절, 대보름 정월대보름에는 뭐 했습니까? 옛날에.)

110002 #5 엿날은 정월대보름도 셋주만은 이젠 경 흔엇이 경 것에 대헹 막.(옛날은 정월대보름도 셌지만 이젠 그렇게 한없이 그렇게 것에 대해서 막.)

110002 #6 산메 쳐낫수다. 엿날은.('산메' 쳤습니다. 옛날은.)

110002 @ 뭐 헨마씨?(뭐 했어요?)

110002 #5 엿날은 막, 메. 메.(옛날은 막, 메. 메.)

110002 #6 쏠광 쏠 시쳥 물 놓곡 헤영 솟 안에 놔근에 짝 쳥.(쌀과 쌀 씻어서 물 넣고 해서 솥 안에 놔서 짝 쪄서.)

110002 #5 사발에 놩.(사발에 놔서.)

110002 #6 사발에 놩.(사발에 놔서.)

110002 #5 사발에 놩 물 맞췅은에 사발 싀 개에 물 마촹 톡톡 놔근에 헤영 알로 솟디 불 솜으민 밥이 쳐졍 오골레끼 밥 잘.(사발에 놔서 물 맞춰서 사발 세 개에 물 맞춰서 톡톡 놔서 해서 아래로 솥에 불 때면 밥이 쪄져서 고스란히 밥 잘.)

110002 #6 집이 사람 수정 세영 그 사발을 쏠 시쳥 놩 그 밥이 잘뒈민 그 애기가.(집의 사람 수 세어서 그 사발을 쌀 씻어서 넣어서 그 밥이 잘되면 그 아기가.)

110002 #5 펜안하고.(편안하고.)

110002 #6 다 일름 썽 놩, 그 쏠에.(다 이름 써서 놔서, 그 쌀에.)

110002 #5 밥에.(밥에.)

110002 #6 경허믄 잘 밥이 뒈엉 이 바깟더레 쏠이 아니 흘치민 좋곡, 그 밥이 넘엉 솟창더레 막 넘으민 그 아기가 좋지 안 헤영 액을 막아 줘야 뒈엇주기.(그렇게 하면 잘 밥이 되어서 이 바깥으로 쌀이 안 흘리면 좋고, 그 밥이 넘어서 솥바닥으로 마구 넘으면 그 아기가 좋지 않아서 액을 막아 줘야 되었지.)

110002 @ 경 정월대보름날 아침인 경 헷수과?(그렇게 정월대보름날 아침엔 그렇게 했습니까?)

110002 #5 낳은 날 밤이.(낳은 날 밤에.)

110002 @ 정월대보름 전날.(정월대보름 전날.)

110002 #5 응.(응.)

110002 @ 십사일날.(십사일날.)

110002 #5 붉으민 보름 뒐 건디.(밝으면 보름 될 건데.)

110002 @ 아아.(아아.)

110002 #6 경허난 잘, 그디 애기덜이 좋젠 허민 그 안에 밥이 그 바우에ᄁᆞ장 바껏디 다랑다랑헤도 영 털어지지 안 허여.(그러니까 잘, 거기 아기들이 좋으려고 하면 그 안에 밥이 그 테두리에까지 바깥에 다랑다랑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110002 #5 솜빡헤도 밥방울이 안 털어지곡 궂젠 허민 ᄉᆞ믓 솜빡 안 헤도 밥방울이 바깟더레 넘어가.(가득해도 밥알이 안 떨어지고 궂으려고 하면 사뭇 가득 안 해도 밥알이 바깥으로 넘어가.)

110002 @ 아아, 신기하다예.(아아, 신기하네요.)

110002 #6 응. 경헌 거 그거 보젠 그거 칩네다게.(응. 그렇게 한 거 그거 보려고 그거 찝니다.)

110002 @ 겐 경 청 안 좋으면 어떵헙니까?(그래서 그렇게 쪄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110002 #6 안 좋으면 액을 막아야지.(안 좋으면 액을 막아야지.)

110002 @ 어디 강? 심방안티.(어디 가서? 심방한테.)

110002 #5 게. 날 잡앙.(그럼. 날 잡아서.)

110002 #6 심방안티 강 그냥 삼 커리 강 애기 옷을 케와주던.(심방한테 가서 그냥 삼 거리 가서 애기 옷을 태워주던.)

110002 @ 아아.(아아.)

110002 #5 경 골아근에.(그렇게 말해서.)

110002 #6 심방 빌지 실프민 밤중에 아무도 모른 때 저 옷 케우는 사람이 많아. 모르난 헴주.(심방 빌기 싫으면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저 옷 태우는 사람이 많아. 모르니까 하고 있지.)

110003 @ 그믄 방사, 액막이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러면 방사, 액막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2 #6 그게 액막이주게.(그게 액막이지.)

110002 #5 그게 액막이 헷주기게. 겐디 다시 저 궂은 사람덜은 이녁 발로, 발로 발앙은에 허영 시 자치 헤영은에 멩지 흰 거, 푸린 거, 불근멩지 시 자치 행 술아주곡 그런 거 다 헤낫어. 엿날은.(그게 액막이 했지. 그런데 다시 저 궂은 사람들은 이녁 발로, 발로 밟아서 해서 세 자어치 해서 명주 흰 거, 푸린 거, 붉은명주 세 자어치 해서 살라주고 그런 거 다 했었어. 옛날은.)

110002 #6 정월보름날 그거 시 자치 헤영 액 막앗수다게.(정월보름날 그거 세 자어치 해서 액 막았습니다.)

110002 @ 어디에 강?(어디에 가서?)

110002 #6 달밤에.(달밤에.)

110002 @ 달밤에, 하, 달 보면서?(달밤에, 하, 달 보면서?)

110002 #6 응.(응.)

110002 @ 어디 집에서 페와마씨?(어디 집에서 펴요?)

110002 #6 집이서 헤도 뒈고 저.(집에서 해도 되고 저.)

110002 #5 어디 삼커리 강.(어디 삼거리 가서.)

110002 #6 삼커리 강 헹은 저 보믄 욕헤여 사람덜.(삼거리 가서 해서 저 보면 욕해 사람들.)

110002 #5 놈은 보믄 욕헐 거주게 모르게 헤.(놈은 보면 욕할 거지 모르게 해.)

110002 #6 밤중에 모르게베끼 게난 이녁 집이서 헤야 뒈어.(밤중에 모르게밖에 그러니깐 이녁 집에서 해야 돼.)

110002 #5 이제는 차도 하고 허난 허주만은 엿날은 사름, 차도 하지 안허곡 허

난 걸언만 뎅기니까. 그 허는 것이.(이제는 차도 많고 하니까 하지만 옛날은 사람, 차도 많지 않고 하니까 걸어서만 다니니까. 그 하는 것이.)

110004 @ 포제도 헤낫수과? 옛날에.(포제도 했었습니까? 옛날에.)

110004 #5 예. 포제덜도 다 헤난.(예. 포제들도 다 했었어.)

110004 @ 포제 헷을 때 금줄, 붉은 흑 뿌리기. 제관, 마을제, 봐본 적 잇수과?(포제 했을 때 금줄, 붉은 흙 뿌리기. 제관, 마을제, 봐본 적 있습니까?)

110004 #5 예. 다 경헤난.(예. 다 그렇게 했었어.)

110004 @ 붉은 흑은 무사 뿌려마씨?(붉은 흙은 왜 뿌려요?)

110004 #6 사람 금하므로게.(사람 금하므로.)

110004 #5 ᄉᆞ끼도 ᄂᆞ단세끼 안 꼬앙 웬ᄉᆞ끼 꼬앙은에.(새끼도 오른쪽세끼 안 꼬아서 왼새끼 꼬아서.)

110004 @ 웬ᄉᆞ끠 꼬앙, 금줄?(왼새끼 꼬아서, 금줄?)

110004 #5 금줄 메고.(금줄 매고.)

110004 #6 그 붉은 흑을 올레 두믄 사람 들어오젠 허당도 안 들어옵네께.(그 붉은 흙을 오래에 두면 사람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안 들어옵니다.)

110004 @ 아아, 붉은 흑은 어디 잇수과? 그믄 그건 남자덜도 여자덜도 돌아다니지 안허고?(아아, 붉은 흙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남자들도 여자들도 돌아다니지 않고?)

110004 #10 아니, 붉은 건 왜 붉은 걸로 허느냐 허면은 그 나쁜 그 잡귀덜이 그 붉은 거를 싫어하니까 제사헐 때나 뭐 헐 때 피나민 저 비린덴 안 허여? 게난 비린 따문에 그 뿕은 거를 허면은 그게 그.(아니, 붉은 건 왜 붉은 걸로 하느냐 하면 그 나쁜 잡귀들이 그 붉은 거를 싫어하니까 제사할 때나 뭐 할 때 피나면 저 비린다고 안 해? 그러니까 비린 때문에 그 붉은 거를 하면 그게 그.)

110004 #5 방법이 뒈는 셍이라.(비법이 되는 모양이야.)

110004 #10 응. 방법이 뒌다고.(응. 비법이 된다고.)

110004 @ 금줄은 그믄 아무 집이나 포제 헐 때 허는 게 아니고?(금줄은 그러면 아무 집에나 포제 할 때 허는 게 아니고?)

110004 #5 매 집은 안 허는 거. 매 집은 안 허여. 포제는 드르에 강은에 도새기 잡앙 강 올리고 바로 잡앙은에 그냥 문딱 갈리갈리 그치지 안 허영 속만 쏙 빼영은에 강 그쟈 세왕은에 저.(매 집은 안 하는 거. 매 집은 안 해. 포제는 들에 가서 돼지 잡아서 가서 올리고 바로 잡아서 그냥 몽땅 가리가리 자르지 안 해서 속만 쏙 빼서 가서 그저 세워서 저.)

110004 #10 포젯동산이 잇주게.(포제동산이 있지.)

110004 #5 포제동산에 강 그디 강은에 포제 허는 거보난 그추룩 허는 거란게.(포제동산에 가서 거기 가서 포제 하는 거보니까 그처럼 하는 거던데.)

110004 @ 여자덜 못 들어가곡, 그냥 생으로 그냥 통으로 올린다는 말이잖아예? 뒈지예? 봐낫구나예?(여자들 못 들어가고, 그냥 생으로 그냥 통으로 올린다는 말이

잖아요? 돼지요? 봤었군요?)

110004 #10 여자덜은, 젊은이덜은.(여자들은, 젊은이들은.)

110004 #5 부정헌덴 헹은에.(부정한다고 해서.)

110004 #10 응.(응.)

110005 @ 안택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안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5 #10 무시거?(무엇?)

110005 @ 안택?(안택?)

110005 #5 안택, 깃사 떨어 논 거 잘 골읍서.(안택, 아까 놓친 거 잘 말하십시오.)

110005 @ 날 보는 거.(날 보는 거.)

110005 #10 아아, 날 보는 거.(아아, 날 보는 거.)

110006 @ 보리밧 밟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보리밭 밟기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6 #10 무시 거 보리밧?(무슨 거 보리밭?)

110006 @ 보리밧을 무사 밟아신고예?(보리밭을 왜 밟는가요?)

110006 #5 보리가 북삭하니까 발 들러졍 아니 옴으니까 볼르민 튼튼허니까 보리 옴으렌 경허는 거.(보리가 '북삭'하니까 뿌리 들어져서 아니 여무니까 밟으면 단단하니까 보리 여물라고 그렇게 하는 거.)

110006 #10 그게 겨울에는 그 서리 ᄂᆞ리곡 허민 바짝 얼리주게.(그게 겨울에는 그 서리 내리고 하면 바싹 얼리지.)

110006 #5 겐디 우리 이 ᄉᆞ방에는 보리 볼려주진 안 헤여. 옛날도. 무사 안 볼련냐 허민.(그런데 우리 이 사방에는 보리 밟아주진 안 해. 옛날도. 왜 안 밟았냐 하면.)

110006 #10 부각헌[144] 밧이나 볼리지.(부각한 밭이나 밟지.)

110006 #5 이디 어떵 허냐면 땅이 저 헉발이 뒈니까 이딘 안 볼려도 어떵 안헌디 헉발 약헌 딘 북삭북삭헌 땅엔 보리가 죽으니까 볼려 주는 거.(여기 어떻게 하냐면 땅이 저 흙발이 되니까 여긴 안 밟아도 어떻게 안하는데 흙발 약한 덴 북삭북삭한 땅엔 보리가 죽으니까 밟아 주는 거.)

110006 #10 그 발이 들러져근에 경허곡 그.(그 뿌리가 들러져서 그렇게 하고 그.)

110006 #5 예. 경ᄒᆞ난 볼려주는 거.(예. 그러니까 밟아주는 거.)

110007 @ 걸궁 헤낫수과?(걸립도 했었습니까?)

110007 #3 걸궁도 헷주.(걸립도 했지.)

110007 @ 어어, 멧 살 때 봐낫수과?(어어, 몇 살 때 봤었습니까?)

110007 #3 아니, 걸궁헤나건 디는 좀 과히 ᄒᆞᆫ 걸궁 끈어지건 디가 ᄒᆞᆫ 오십 년 뒛나?(아니, 걸립해난 지는 좀 과히 한 걸립 끊어진 지가 한 오십 년 됐나?)

144) '부각ᄒᆞ다'는 '보각ᄒᆞ다'라고도 하며 솜 따위가 부풀어 솟아오르는 것을 뜻한다.

110007 @ 오십 년? 스무 살 때도 봔마씨?(오십 년? 스무 살 때도 봤어요?)

110007 #3 어.(어.)

110007 @ 일곱 살 애기 때도 봔마씨?(일곱 살 애기 때도 봤어요?)

110007 #3 그렇죠. 아이 일곱 살 때는 우리 ᄉᆞ삼사건으로 ᄉᆞ믓 정신이 하나토 엇어노니까.(그렇죠. 아이 일곱 살 때는 우리 사삼사건으로 사뭇 정신이 하나도 없어버리니까.)

110007 @ 예.(예.)

110007 #3 그게 엇엇고, 소개 강 올라왕도 이삼 년 안 허당.(그게 없었고, 소개 가서 올라와서도 이삼 년 안 하다가.)

110007 @ 예.(예.)

110007 #3 경헤근 걸궁허멍 놀이게 헤낫주.(그렇게 해서 걸립하면서 놀이 했었지.)

110007 @ 아아. 다 깽맥기영 치는 사람 잇언마씨?(아아, 다 꽹과리랑 치는 사람 있었어요?)

110007 #3 깽맥기 치고 하간 거 집집마다 들어가민 북 두드리고 대양치고 뎅기멍 그쟈 집집마다 들어가민 그 쏠도 흔 줌 내놓는 디 잇고.(꽹과리 치고 온갖 거 집집마다 들어가면 북 두드리고 대양치고 다니면서 그저 집집마다 들어가면 그 쌀도 한 줌 내놓는 데 있고.)

110007 @ 음.(음.)

110007 #3 돈 신딘 돈도 흔 푼 내놓는 디 잇고.(돈 있는 데는 돈도 한 푼 내놓는 데 있고.)

110007 @ 음.(음.)

110007 #3 그추룩 헹은에 동녕바치덜이 그 동녕바치 서늉헹 뎅기멍 그런 거 빌어당은에 그 끝나면은 그걸로 헹은에 요즘말로 회식, 그 무신것덜 모여졍덜 술도 흔 잔 뭐.(그처럼 해서 동냥아치들이 그 동냥아치 시늉해서 다니면서 그런 거 빌려다가 그 끝나면 그걸로 해서 요즘말로 회식, 그 무엇들 모여져서들 술도 한 잔 뭐.)

110007 @ 심방은 엇엇고마씨?(심방은 없었고요?)

110007 #3 어?(어?)

110007 @ 심방도 같이 잇엇수과? 이런 걸궁에(심방도 같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립에.)

110007 #3 그건 이녁 그 부락에서, 게난 심방이 그 이녁 그 이건 걸궁은 이녁 부락마다 돌아뎅기멍 허는 디니까 동네에 심방이 있으면 그 들어가고 엇이민 안 들어가고.(그건 이녁 그 부락에서, 그러니까 심방이 그 이녁 그 이건 걸립은 이녁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데니까 동네에 무당이 있으면 그 들어가고 없으면 안 들어가고.)

110007 @ 여기 심방 잇엇수과? 청수에도.(여기 무당 있었습ㄹ니까? 청수에도.)

110007 #3 엇어수다. 청수에는. 점쟁이는 잇엇는데.(없었습니다. 청수에는. 점쟁

이는 있었는데.)
110007 @ 점쟁이는 잇언예.(점쟁이는 있었어요.)
110007 #3 점쟁이는 제주도예.(점쟁이는 제주도에.)
110007 @ 어머닌 당 다녀낫수과?(어머닌 당 다녔었습니까?)
110007 #3 어.(어.)
110007 @ 저지리당?(저지리당?)
110007 #3 어.(어.)
110007 @ 할망당이꽈?('할망당'입니까?)
110007 #3 어, 할망당.(어, '할망당')
110007 @ 그믄 언제 갑니까 보통? 생짓 낀 날(그러면 언제 다닙니까? 보통? 생기 낀 날.)
110007 #3 멩절 초ᄒᆞ룰 보름 뎅겻고.(명절 초하루 보름 다녔고.)
110007 @ 예.(예.)
110007 #3 경 안 허영 뭐 헐 때는 팔월 추석허고 정월 초ᄒᆞ루. 정초 때.(그렇게 안 해서 뭐 할 때는 팔월 추석하고 정월 초하루. 정초 때.)
110007 @ 예. 뭘 헹 갑디가? 돌레떡?(예. 뭘 해서 갑디까? 도래떡?)
110007 #3 하얀 거 그런 걸 안하고 멩절, 제사 출린 거.(하얀 거 그런 걸 안하고 명절, 제사 차린 거.)
110007 @ 음.(음.)
110007 #3 그거 헹은에 할망디 갈 거를 우선 거둬.(그거 해서 '할망디' 갈 거를 우선 거둬.)
110007 @ 예. 할망디 갈 거, 우선 거둥.(예. '할망디' 갈 거, 우선 거둬서.)
110007 #3 그 저 과일이고 무싱거고 집이 제사 ᄎᆞ리는 식으로 ᄀᆞ졍가곡.(그 저 과일이고 무엇이고 집에 제사 차리는 식으로 가져가고.)
110007 @ 옥돔이영.(옥돔이랑.)
110007 #3 제숙.(제수.)
110007 @ 가졍 온 건 드시고예?(가져서 온 건 드시고요?)
110007 #3 가졍오질 안 허여.(가져오질 않아.)
110007 @ 다 놔마씨?(다 놔요?)
110007 #3 그디 지키는 심방이 잇어. 심방이 다 ᄀᆞ졍 가불어.(거기 지키는 심방이 있어. 심방이 다 가져 가버려.)
110007 @ 아아.(아아.)
110007 #3 그디 강 심방은 그거 헤다근 멧날 메칠 놔둠서 먹주게. 그 날 ᄒᆞ루 와근에 동네도 노놔주고 워낙 하 불면은 지엉 뎅기지도 못헤여.(거기 가서 심방은 그거 해다가 몇날 며칠 놔두고서 먹지. 그 날 하루 와서 동네도 나눠주고 워낙 많아 버리면 져서 다니지도 못해.)
110007 @ 걸궁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여기 봐난 적 잇엇수과? 걸궁.(걸립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봤었던 적 있었습니까? 걸궁.)

110007 #10 엿날엔.(옛날엔.)

110007 @ 청수도 잇어난마씨?(청수도 있었나요?)

110007 #5 걸궁 헷주기게.(걸립 했지.)

110007 #10 집마다 돌아뎅기멍 돈도 받고.(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도 받고.)

110007 #5 돈 빌레 뎅기곡.(돈 빌러 다니고.)

110007 @ 거 누가 허여마씨? 마을에서 껭마기 하곡.(거 누가 해요? 마을에서 꽹과리 하고.)

110007 #10 청년덜.(청년들.)

110007 @ 껭마기 치곡 허는 사람이 잇엇수과?(꽹과리 치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110007 #10 응.(응.)

110007 #5 옛날은 경 다허여.(옛날은 그렇게 다해.)

110007 #11 뚜라뎅기멍. 나도 춤춰낫어.(따라다니면서. 나도 춤췄었어.)

110007 #5 우리 집 아방네도 그 걸궁헤연 벌언, 무싱거? 가멘가? 독겐가? 헤연 머쳐두난 개집헴져. 무싱거.(우리 집 아버지네도 그 걸립해서 벌어서, 무엇? 가만가? '독굔'가? 해서 맡겨두니까 개집하고 있다. 무엇.)

110007 #11 집에 가민 그 그냥 돈을 주주기, 돈을, 돈을 줘.(집에 가면 그 그냥 돈을 주지, 돈을, 돈을 줘.)

110007 #6 가메ᄀᆞ라? 가메 신 디 개집 헤불언?(가마보고? 가마 있는 데 개집 해 버렸어?)

110007 #5 오레난게 안 써가난 가메집 헹은에 개집인가 헤비엿젠.(오래니까 안 써가니까 가마집 해서 개집인가 해버렸다고.)

110007 @ 아이고 진짜.(아이고 진짜.)

110007 #6 이제 사계소[145] 가메집 새로 곱닥허게 멘들앙 신랑덜 다 식 지내민 말쩬 그것에 들렁 뎅경 사진 찍고 해서고.(이제 '사계소' 가마집 새로 곱게 만들어서 신랑들 다 식 지내면 말짼 그것에 들어서 다니며 사진 찍고 했던데.)

110007 #5 몰라.(몰라.)

110007 #6 이제 대정 요 저 사계소.(이제 대정 요 저 '사계소'.)

110007 #10 영장밧디 강은에 그.(장지에 가서 그.)

110007 @ 그 상여도 여기 상여집이 잇수과?(그 상여도 여기 상엿집이 있습니까?)

110007 #5 이제 상교집은 엇어.(이제 향교는 없어.)

110007 #10 엇어. 이제 없어져 부런.(없어. 이제 없어져 버렸어.)

110007 #5 저 상교 어디 잇냐면 저 바굼지오름 아레 상교, 대정. 검은 질러레 가는 그.(저 향교 어디 있냐면 저 '바굼지오름' 아래 향교, 대정. 검은 길로 가는

145) '사계소'는 대정읍의 한 지명 이름이다.

그.)
110007 @ 청수린 엇어마씨?(청수린 없어요?)
110007 #5 엇어. 이딘 그런 거 엇어.(없어. 여긴 그런 거 없어.)
110007 @ 어디 창고 닮은 거 잇덴 허던데?(어디 창고 닮은 거 있다고 하던데?)
110007 #10 아니 잇어낫어게. 이 저 쪼그만이 집 지엉.(아니 있었었어. 이 저 조그맣게 집 지어서.)
110007 #5 상여집 무사 엇수과?(상엿집 왜 없습니까?)
110007 #10 도고덜 영장더레 가는 디.('도고'들 장지로 가는 데.)
110007 #6 어디 요펜이 실 거라.(어디 요편에 있을 거야.)
110007 #10 예. 그거 헤근에 다 그레 놩. 문 중그고. 영장 메영 뎅기단.(예. 그거해서 다 거기 놔서. 문 잠그고. 영장 매서 다니다가.)
110007 #6 영장 메영 뎅기단 못 놓으민 놓는 나무.(영장 매어서 다니다가 못 놓으면 놓는 나무.)
110007 #5 아아, 건 요디 싯고.(아아, 건 여기 있고.)
110007 #6 게메.(글쎄.)
110007 #10 그런 거 말이주게.(그런 거 말이지.)
110007 #6 그게 상여집 아닛꽈게.(그게 상엿집 아닙니까.)
110007 #5 난 상교집이옌 허난. 상교는.(난 향교라고 하니까. 향교는.)
110007 #10 상교 말고.(향교 말고.)
110007 #5 거 검은질로 내려가는데 바굼지오름 아레 향교 잇언게.(거 '검은길'로 내려가는데 '바굼지오름' 아래 향교 있던데.)
110007 #6 상픈 제주시 셔. 저 서문통.(향픈 제주시 있어. 저 '서문통'.)
110007 #5 게메. 서문통도 싯주만은 어디 그거 션게.(글세. '서문통'도 있지만 어디 그거 있어.)
110008 @ 게믄 입춘?(그러면 입춘?)
110008 #5 입춘은게 저 뭐.(입춘은 저 뭐.)
110008 @ 입춘굿은 안 헤낫수과? 여기.(입춘굿은 안 했었습니까? 여기.)
110008 #5 입춘대길이여 뭐 입춘 무신거여.(입춘대길이다 뭐 입춘 무엇이다.)
110008 @ 입춘에 보리점 영 헨 보리뿌리.(입춘에 보리점 이렇게 해서 보리뿌리.)
110008 #5 보리 빵 보민 ᄋᆞ라 개 허민 낭 남져. ᄒᆞ나민 낭 ᄇᆞ뜬다. 두 개민 낭 그만허민 뒌다. 경 허여.(보리 뽑아서 보면 여러 개 하면 나무 나고 있다. 하나면 나서 밭다. 두 개면 나무 그만하면 된다. 그렇게 해.)
110008 @ 뭐가 제일 좋아마씨? 보리뿌리가?(뭐가 제일 좋아요. 보리뿌리가?)
110008 #5 두 개가 좋은 거 닮아.(두 개가 좋은 거 같아.)
110008 @ 두 개가 좋고, 하나민?(두 개가 좋고, 하나면?)
110008 #10 하나민 ᄀᆞ물고.(하나면 가물고.)

110008 @ 하나는 ᄀᆞ물고.(하나는 가물고.)

110008 #10 세 개 허민 비가 너미 오랑 나쁘고.(세 개 하면 비가 너무 와서 나쁘고.)

110008 @ 아아, 세 개 허민 비가 너무 오고.(아아, 세 개 하면 비가 너무 오고.)

110008 #10 두 개 허민 딱 좋고, 게난 우리 어린 때 보민 그 샛절 드는 시간에.(두 개하면 딱 좋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때 보면 그 입춘 드는 시간에.)

110008 #5 강 보릿발 메영 봅니께.(가서 보리뿌리 매서 봅니다.)

110008 #10 첫발로 헤영 탁 디뎌진 걸 메엉보렌 허여.(첫발로 해서 탁 디뎌진 건 매어보라고 해.)

110008 @ 아아. 첫발로.(아아. 첫발로.)

110008 #10 경 헹 메엉 보민 새 발이 두 개 잇으민 그것이 좋덴허곡.(그렇게 해서 매서 보면 새 뿌리가 두 개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하고.)

110008 @ 여자는? 남자가 본덴 헨게. 여자가 봐도.(여자는? 남자가 본다고 하던데. 여자가 봐도.)

110008 #5 신기허긴 잘도 신기헌 거.(신기하긴 잘도 신기한 거.)

110008 #6 아무라도 봅니다게.(아무라도 봅니다.)

110008 @ 셋절 드는 시간에.(입춘 드는 시간에.)

110008 #10 응.(응.)

110008 #5 그 시간에 강 보면은 발이 꼬쪽허게 나온 거 보면은 잘도 신기헤여. 신기헤여. 꼬쪽허게 나왕.(그 시간에 가서 보면 뿌리가 뾰쪽하게 나온 거 보면 잘도 신기해. 신기해. 뾰쪽하게 나와서.)

110008 @ 보릿점 청수리에선. 참 신기하다예.(보릿점 청수리에선. 참 신기하네요.)

110009 @ 영등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영등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09 #10 영등은 그 저게. 영등할망 흐흐흐흐.(영등은 그 저게. '영등할망' 흐흐흐흐.)

110009 @ 영등할망 들어 봣수과? 한수리로 온덴허멍?('영등할망' 들어 봤습니까? '한수리'로 온다고 하면서?)

110009 #5 한수리사 왐신지 어디로사 왐신지.('한수리'야 오고 있는지 어디로야 오고 있는지.)

110009 #10 어디로사 왐신지.(어디로야 오고 있는지.)

110009 @ 하하하하. 바당 아니난 몰람구나예.(하하하하. 바다 아니니까 모르는군요.)

3월

110011 @ 한식명절?(한식명절?)

110011 #5 한식명절 안 헤보난 몰라.(한식명절 안 해보니까 몰라.)

110011 #10 몰라.(몰라.)

110011 #6 옛날은 헤낫주만은 이제는 안 헙네다게.(옛날은 했었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110011 #10 헤난 거, 우리 알아. 일본 군인덜 왕 살 때에 멩질 헴시민. 우리 어머니네 보민.(했던 거, 우리 알아. 일본 군인들 와서 살 때에 명절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네 보면.)

110011 #5 단오도 안 허고 뭐 안 헴서?(단오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있어?)

110011 #6 한식 멩절날은 산에 강 테 벗어진 거나 입지고 가시나 케고.(한식 명절날은 산에 가서 잔디 벗겨진 거나 입히고 가시나 캐고.)

110011 @ 게 벗어진 건 뭐꽈?(개 벗어진 건 뭡니까?)

110011 #10 테.(잔디.)

110011 @ 테 벗어진 거.(잔디 벗어진 거.)

110011 #10 응.(응.)

110011 #5 산에 저 테역 벗겨진 거ᄀᆞ라 태 벗어진 거옌 허는 거.(산에 저 잔디 벗겨진 거보고 잔디 벗어진 거라고 하는 거.)

4월

110013 @ 초파일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초파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13 #3 거 석가탄신일은.(거 석가탄신일은.)

110013 @ 여기도 절간 잇수가?(여기도 절간 있습니까?)

110013 #3 절간도 가마오름 영축사 쭉 뎅기당 똘애기 시님으로 들어강 어디고?(절간도 '가마오름' 영축사 쭉 다니다가 딸애기 스님으로 들어가서 어디고?)

110013 @ 월평동?(월평동?)

110013 #3 월평인가? 영평인가? 월평 천주교.(월평인가? 영평인가? 월평 천주교.)

110013 @ 기운이 좋은 디라예.(기운이 좋은 데지요.)

110013 #3 우리 절간은 특이허여. 거기 영정 모시는 거.(우리 절간은 특이해. 거기 영정 모시는 거.)

110013 @ 이름 여러 군데 잇어예.(이름 여러 군데 있어요.)

110013 #3 거 어디 아, 황세왓[146] 우에 그디.(거 어디 아, '황세왓' 위에 거기.)

110013 @ 황세왓 우에.('황세왓' 위에.)

110013 #3 그디서는.(거기서는.)

110013 @ 예.(예.)

110013 #3 헤노난.(해버리니까.)

110013 @ 커.(커.)

110013 @ 그믄 초파일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그러면 초파일에 대해서 말

146) '황세왓'은 황사평. 황수와동. '황수왓'마을. 제주시 화북2동의 자연 마을이다.

씀해 주십시오?)
110013 #5 초파일옌게 불공허곡게.(초파일에는 불공하고.)
110013 @ 여기 절간이?(여기 절간이?)
110013 #6 절간에 강 불 싸는 게 초파일.(절간에 가서 불 켜는 게 초파일.)
110013 @ 저기 월림산가? 무신 거?(저기 월림산가? 무슨 거?)
110013 #6 이디도 세 개나 잇수다.(여기도 세 개나 있습니다.)
110013 @ 청수리도 잇수과?(청수리도 있습니까?)
110013 #5 두 개나 두 개 셔.(두 개나 두 개 있어.)
110013 #6 가마오름 요 동산에 싯고.('가마오름' 요 동산에 있고.)
110013 @ 교회여 절간이여 여긴 지역이 좋은 딘 셍이우다.(교회다 절간이다 여긴 지역이 좋은 덴 모양입니다.)
110013 #10 가마오름 절간, 절간 커. 가마오름.('가마오름' 절간, 절간 커. '가마오름'.)
110013 #5 예비당도 싯고 성당도 잇고.(예배당도 있고 성당도 있고.)
110013 #6 예비당도 두 개.(예배당도 두 개.)
110013 #10 허허.(허허.)
110013 @ 세다예. 신들이 많이 모영 이신게마씨.(세네요. 신들이 많이 모여서 있네요.)
110013 #10 천주교도 크고.(천주교도 크고.)
110013 @ 게믄 삼촌네는 어디 절간도 다녕수과? 어디?(그러면 삼촌네는 어디 절간도 다닙니까? 어디?)
110013 #6 요디 절간 셔.(요기 절간 있어.)
110013 #11 이디 절간 잇주.(여기 절간 있지.)
110013 @ 초파일엔 거기 강 불 싸지예?(초파일엔 거기 가서 불 켜지요?)
110013 #11 예.(예.)

5월

110015 #7 단오명절, 옛날엔 뭐 헷수과? 망종, 하지.(단오명절, 옛날엔 뭐 했습니까? 망종, 하지.)
110015 #10 헤낫지게.(했었지.)
110015 #5 단오엔 저 페마농 헤영 영 영 감앙은에 걸로 적 멘들고.(단오엔 저쪽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걸로 적 만들고.)
110015 @ 아아, 그 영 영 솖앙 영 영 감아?(아아, 그 이렇게,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
110015 #5 예.(예.)
110015 @ 무사 단오에 헤마씨?(왜 단오에 해요?)
110015 #5 오월 단오에.(오월 단오에.)

110015 @ 패마농 영 영 말앙 뭐예? 초장에 찍엉 먹어마씨?(쪽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뭐요? 초장에 찍어서 먹어요?)

110015 #5 그걸 적꼬지에 꿰서, 꿰서 경 몰아서 꿰서. 옛날은 그거 헹 올렷던 것 같아.(그걸 적꼬치에 꿰서, 꿰서 그렇게 말아서 꿰서. 옛날은 그거 해서 올렸던 것 같아.)

110015 @ 단오에.(단오에.)

110015 #5 뭣이 어려운 때난 경 헷던 것 같아.(뭣이 어려운 때니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110015 #6 먹엇지 올리진 않으메. 마늘.(먹었지 올리진 않아. 마늘.)

110015 #10 게. 마늘은.(그럼. 마늘은.)

110015 @ 먹언?(먹었어?)

110015 #5 질 어려우니까 경 헌 거 같아.(제일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 같아.)

110015 @ 먹으민 뭐가 좋다 이런 건 모르고마씨?(먹으면 뭐가 좋다 이런 건 모르고요?)

110015 #6 아무것도 엇이니까 걸로 헷지.(아무것도 없으니까 걸로 했지.)

110015 #5 질 어려우니까 패마농 감앙은에 그 헐 때 시절이니까 얼마나.(제일 어려우니까 쪽파 감아서 그 할 때 시절이니까 얼마나.)

110015 @ 막 요리헐 때 그거 헤영 영 영 영 영 헹은에 막 초장에 찍어먹게 예쁘게 접시에 담앙 그런 게 다.(막 요리할 때 그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초장에 찍어먹게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그런 게 다.)

110015 #5 그게 게 다 전설인 셍이라.(그게 게 다 전설인 모양이야.)

6월

110017 @ 게믄 독 잡아먹는 날, 유월 스무날?(그러면 닭 잡아먹는 날, 유월 스무날?)

110017 #3 독 잡아먹는 날은 우리 읏라 번 허는 디 하지나 무신거는 서촌에서는 잘 지내지 안 헤마씨?(닭 잡아먹는 날은 우리 여러 번 하는 데 하지나 무엇은는 서촌에서는 잘 지내지 않아요?)

110017 @ 예. 유월 스무날이 독 잡아먹는 날이꽈?(예. 유월 스무날이 닭 잡아먹는 날입니까?)

110017 #3 예. 유월 스무날.(예. 유월 스무날.)

110017 @ 유월 스무날 이게 음력예?(유월 스무날 이게 음력요?)

110017 #3 음력.(음력.)

110017 @ 그믄 항상 어머니가 항상 독 잡아 줍디가?(그러면 항상 어머니가 항상 닭 잡아 줬습니까?)

110017 #3 아이고, 독이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신 토종닭이냐 무싱거냐 해도 우리가 지금에 그 독고기는 맛을 못 봐예. 그 정월에 끼운 거 그것ᄀᆞ라 영계라 그

럽주예.(아이고, 닭이야 그때는 우리가 이제 무슨 토종닭이냐 무엇이나 해도 우리가 지금에 그 닭고기 맛을 못 봐요. 그 정월에 깐 거 그것보고 영계라 그렇죠.)

110017 @ 예.(예.)

110017 #3 영계. 정월에 끼운 거 유월 스무날도록 놔두게 뒈면은 보글보글 헹은에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 거 잡앙 허게 뒈면은 그 죽 흔 ᄆᆞ리만 잡아놔도 죽 흔 다도테기[147]는.(영계. 정월에 깐 거 유월 스무날도록 놔두면 되면 보글보글 해서 병아리가 어느 정도 커. 거 잡아서 하게 되면 그 죽 한 마리만 잡아놔도 죽 한 '다도테기'는.)

110017 @ 크.(크.)

110017 #3 춤, 베지근헌[148]게 맛이 좋아.(참, '베지근한'게 맛이 좋아.)

110017 @ 죽 흔.(죽 한.)

110017 #3 다도테기.('다도테기.')

110017 @ 다도테기가 뭐꽈?('다도테기'가 뭡니까?)

110017 #3 다도테기, 말치, 옹졸레기 그거 몰람구나?('다도테기', '말치', 옹달솥 그거 모르는구나?)

110017 @ 말치, 옹졸레기.('말치', 옹달솥.)

110017 #3 옹졸레기는 제일 적은 솟.(옹달솥은 제일 작은 솥.)

110017 @ 옹졸레기는 제일 적은 솟? 아아.(옹달솥은 제일 작은 솥? 아아.)

110017 #3 응. 서도테기[149]는 그 다음.(응. '서도테기'는 그 다음.)

110017 @ 하하하하.(하하하하.)

110017 #3 다도테기는 그 다음.('다도테기'는 그 다음.)

110017 @ 아, 세상에.(아, 세상에.)

110017 #3 말치.('말치'.)

110017 @ 그 다음.(그 다음.)

110017 #3 말치는 ᄒᆞ쏠 큰 거.(말치는 조금 큰 거.)

110017 @ 일번, 이번, 옹졸래기, 서도테기, 다도테기, 말치가 제일 큰 거예?(일번, 이번, 옹달솥, '서도테기', '다도테기', '말치'가 제일 큰 거요?)

110017 #3 말치가 제일 큰 거 아니라 그 다음은 가마로 들어가주.('말치'가 제일 큰 거 아니라 그 다음은 가마로 들어가지.)

110017 @ 오늘 완전 새로운 것을 알게 뒛수다. 옹졸래기, 서도테기, 다도테기, 말치 세상에.(오늘 완전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옹달솥', '서도테기', '다도테기', '말치' 세상에.)

110017 #3 하하.(하하.)

110017 @ 다 어머니 덕이우다게.(다 어머니 덕입니다.)

110017 #3 겐디 어머니가 밧디 강 늦게 오면은 밥이고 내가.(그런데 어머니가

147) '다도테기'는 용적이 두 되 드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148) '베지근ᄒᆞ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는 뜻이다.
149) '서도테기'는 석 되 정도의 밥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솥을 말한다.

밭에 가서 늦게 오면 밥이고 내가.)

110017 @ 착헌 아덜이다예.(착한 아들이네요.)

110017 #3 어떵 허게끔 그렇게 뒈더라고.(어떻게 하게끔 그렇게 되더라고.)

110017 @ 어머니 일허는디예. 세상에.(어머니 일하는데요. 세상에.)

110017 @ 닭 잡아 먹는 날? 유월 스무날 옛날에 여자덜안테도 입에 갓수과?(닭 잡아 먹는 날? 유월 스무날 옛날에 여자들한테도 입에 갔습니까?)

110017 #5 초복, 중복, 말복ᄁᆞ장 잡아 먹엇지. 옛날은.(초복, 중복, 말복까지 잡아먹었지. 옛날은.)

110017 #6 집이 질루완게.(집에 길러서.)

110017 @ 집이 질루민 여자덜 입에 들어 갈 건 이십디가?(집에 기르면 여자들 입에 들어 갈 건 있습니까?)

110017 #10 남자나 먹고 여자는 부억에서 무신 물이나 먹고.(남자나 먹고 여자는 부엌에서 무슨 물이나 먹고.)

110017 #5 실프게사 먹어서게? 먹고 죽이나 흔 사발썩 먹고 궤기나 헤영 ᄒᆞᆷ 먹고.(싫게야 먹었나? 먹고 죽이나 한 사발씩 먹고 고기나 해서 조금 먹고.)

110018 @ 삼복더위에 개 잡아 먹고 이런 일도 잇어낫수과(삼복더위에 개 잡아 먹고 이런 일도 있었었습니까?)

110018 #3 개 잡아먹는 거.(개 잡아먹는 거.)

110018 @ 어머니가 그건 안 헤줍디까?(어머니가 그건 안 해줍디까?)

110018 #3 육지에서는 주로 허는디 이 제주도는 개를.(육지에서는 주로 하는데 이 제주도는 개를.)

110018 @ 부정 탄다고.(부정 탄다고.)

110018 #3 부정 탄다고 헤가지고 잘 첨 옛날에는 정월이나 팔월에는 그때 돌아가도 몰허고 개는 안 먹고, 그 저 무신거 이제는 뭐 그쟈 아무 거라도 그런 거 저런 거 헤 먹는디 그런 거 잘 안 먹어.(부정 탄다고 해가지고 잘 첨 옛날에는 정월이나 팔월에는 그때 돌아가도 말하고 개는 안 먹고, 그 저 무엇 이제는 뭐 그저 아무 거라도 그런 거 저런 거 해 먹는데 그런 거 잘 안 먹어.)

7월

110021 @ 백중제?(백중제?)

110021 #5 백중에도.(백중에도.)

110022 @ 모래찜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모래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2 #5 모래찜도 이제 바당에 모래찜허레 가낫주.(모래찜도 이제 바다에 모래찜하러 갔었지.)

110022 @ 가 봣수과?(가 봤습니까?)

110022 #5 난 안 가봣주만은.(난 안 가봤지만.)

110022 #6 잘 안 갑니다.(잘 안 갑니다.)

110023 @ 물맞이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물맞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23 #3 어릴 때는 물 맞이레 저 고산 엉알에 댕겻주.(어릴 때는 물 맞으러 저 고산 '엉알'에 다녔지.)

110023 @ 아아, 고산 엉알에 물 맞이레 댕견예?(아아, 고산 '엉알'에 물 맞으러 다녔다고요?)

110023 #3 그때 가면은 고산 엉알에 굴소곱에 들어가민 우트로 착착착착 떨어지는 물, 것 강은에 흔 삼십 분 맞앙 앚아민 입술이 삼동 뒈불어.(그때 가면 고산 '엉알'에 굴속에 들어가면 위로 착착착착 떨어지는 물, 것 가서 한 삼십 분 맞아서 앉으면 입술이 상동 돼 버려.)

110023 @ 하하. 입술이 삼동, 지금도 잇수과? 엉알.(입술이 상동, 지금도 있습니까? '엉알'.)

110023 #3 지금도 잇어.(지금도 있어.)

110023 @ 엉알?('엉알'?)

110023 #3 경헌디 그 그디 강 바래보민 지금은 이제 문딱 무신거 통 박아불언 그 우틀로 떨어지는 물 맞는 디는 없어져 불엇덴 허데.(그런데 그 거기 가서 바라보면 지금은 이제 몽당 무엇 통 박아 버려서 그 위로 떨어지는 물 맞는 데는 없어져 버렸다고 하더라.)

110023 @ 아깝다예. 이런 거 완전 지금 문화자산 뒐 건디 고산.(아깝네요. 이런 거 완전 문화자산 될 건데 고산.)

110023 #3 문딱 통 박아 불고 무신거 헤부난 무신거.(모두 통 박아 버리고 무엇 해버리니까 무엇.)

110023 @ 아이고.(아이고.)

110023 @ 물맞이?(물맞이?)

110023 #5 물 맞이레 옛날엔 뎅겻주만은 이 근렌 원.(물맞으러 옛날엔 다녔지만 이 근래는 전혀.)

110023 @ 옛날엔 어딜 갓수과? 물 맞이레?(옛날엔 어디 갔습니까? 물 맞으러.)

110023 #5 고산 당산봉[150] 아래 가민 맞아. 차귀 가민 잇주만은 이젠 보난 그디 뭐 무싱 거 헤부난 ᄀᆞ딱 들어가지도 못허커라고 물 맞이레 뎅겨난디, 우리 옛날 물 맞이레 뎅겨난디. 고산도 참.(고산 '당산봉' 아래 가면 맞아. 차귀 가면 있지만, 이젠 보니까 거기 뭐 무슨 거 해 버리니까 까딱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물 맞으러 다녔었는데, 우리 옛날 물 맞으러 다녔어. 고산도 참.)

110023 @ 그거를 보존헤야 허는데 참, 고산도 참.(그걸 보존해야 하는데 참, 고산도 참.)

110023 #5 그레 막 집덜 막 들어산 이젠 하간 저 무신거 관광덜 막 뎅겨ᄂᆞ난

150) '당산봉'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북서쪽 바닷가와 용수리와 경계에 걸쳐진 148미터의 오름으로 당오름, 차귀악이라고도 불린다.

혀뜩ᄒ[151]크라고.(거기 막 집들 마구 들어서서 이젠 온갖 저 무엇 관광들 막 다니니까 해뜩하겠더라고.)

110023 @ 물이 끊어져 불어실 거우다.(물이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8월

110025 @ 절기. 입추, 처서, 벌초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지금은 여자덜 가도 옛날에도 여자 갑니까?(절기. 입추, 처서, 벌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여자들 가도 옛날에도 여자 갑니까?)

110025 #6 이제도 가는 집인 갑니다.(이제도 가는 집엔 갑니다.)

110025 #5 난 벌초허렌 안 가왓수다.(난 벌초하런 안 가왔습니다.)

110025 #6 난 늘 뎅겨낫어.(난 늘 다녔었어.)

110025 @ 적고지나 다 이런 음식을 마련허지예?(적꼬치나 다 이런 음식을 마련하지요?)

110025 #6 적고지 헤영 강 올리는 집 싯고, 안 올령은에 벌초만 허는 집 십네다.(적꼬치 해서 가서 올리는 집 있고, 안 올려서 벌초만 하는 집 있습니다.)

11월

110030 @ 백로, 상강, 입동, 소설, 동지 풋죽? 어머니가 풋죽은 쒀줫수과?(백로, 상강, 입동, 소설, 동지 팥죽? 어머니가 팥죽은 쒀 줬습니까?)

110030 #3 겐디 우리 풋죽을 좋아허긴 헷는디.(그런데 우리 팥죽을 좋아하긴 했는데.)

110030 #6 동지 풋죽은 어린이 날은 안 헹 먹고, 늙은이 날은 풋죽 쒕 먹어.(동지 팥죽은 어린이 날은 안 해서 먹고, 늙은이 날은 팥죽 쒀서 먹어.)

110030 #5 어린이동지엔 안 헹 먹고 노동지에는 헹 먹고. 죽 쒕 먹어.(어린동지라고 안 해서 먹고 노동지에는 해서 먹고. 죽 쒀서 먹어.)

110030 @ 어렷을 때부터 거 어머니가 무사 그걸 헹 먹어신고예?(어렸을 때부터 거 어머니가 왜 그걸 해서 먹었을까요?)

110030 #6 감기 들리지 말렌.(감기 들지 말라고.)

110030 @ 감기? 오우, 풋죽 먹으민 감기가 안 들려마씨? 감기 들지 말렌.(감기? 오우, 팥죽 먹으면 감기가 안 들려요? 감기 들지 말라고.)

110030 #5 감기 들지 말렌.(감기 들지 말라고.)

110030 #10 붉은 건 먹으민.(붉은 건 먹으면.)

110031 @ 남평날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 남평날 안 들어 봣수과?(납평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납평날 안 들어 봤습니까?)

110031 #3 남평날 남평, 그거 저기 엿 딸려 먹는 거.(납평날 납평, 그거 저기 엿 달여 먹는 거.)

---

151) '혀뜩ᄒ다'는 '히여뜩ᄒ다'. 머리가 어질어질하다는 뜻이다.

110031 @ 아아.(아아.)

110031 #3 그날 남평날 엿 딸렁은에 옛날 할망덜 그 부시럼 나면은 그저 부찌젠 헹은에 그 사발에 헤영 언정 놔뒷당 부시럼이옌 헌 건 허물 이 저 그런 거 나는 거 헤영 그 종기 나는 디 탁 붙이게 뒈면은 거 좋고.(그날 납평날 엿 달여서 옛날 할머니들 그 부스럼 나면 그저 붙이려고 해서 사발에 해서 얹어서 놔뒀다가 부스럼이라고 한 건 헌데 이 저 그런 거 나는 거 해서 그 종기 나는 데 딱 붙이게 되면 거 좋고.)

110031 @ 엿을 부쳐마씨? 남평날은 그믄 엿을, 엿을.(엿을 부쳤어요? 납평날은 그러면 엿을, 엿을.)

110031 #3 허물에 부치는 엿, 이름은 갱엿, 갱엿이렌 허여.(허물에 붙이는 엿, 이름은 갱엿, 갱엿이라고 해.)

110031 @ 아아, 허물에 부치는 엿을.(아아, 허물에 붙이는 엿을.)

110031 #3 갱엿.(갱엿.)

110031 @ 갱엿이라고 헷고예. 아우 잘 알암다예. 남자 분인데도예. 참 난 납평날이 아니고 남평날예? 제주도에서는예?(갱엿이라고 했고요. 아우 잘 알고 있네요. 남자 분인데도요. 참 난 납평날이 아니고 납평날이요? 제주도에서는요?)

110031 #3 예. 남평날.(예. 납평날.)

110031 @ 그믄 어머니가 이 항상 이렇게 헙디가?(그러면 어머니가 이 항상 이렇게 합디까?)

110031 #3 그렇죠.(그렇죠.)

110031 @ 토끼 익모초 넣거나 이런 엿은 어떤.(토끼 익모초 넣거나 이런 엿은 어떤.)

110031 #3 그 엿에다가 그 저 그런 갱엿 만들젠 헹 거는 그런 사발에다 그 저 쪼금 떠 뒁은에 그날 그 다음에는 그 하간 거 놩 쏠 놩은에 딸리고 독 놩 딸리는 사람.(그 엿에다가 그 저 그런 갱엿 만들려고 해서 거는 그런 사발에다 그 저 조금 떠 둬서 그날 그 다음에는 그 온갖 거 놔서 쌀 놔서 달이고 닭 놔서 달이는 사람.)

110031 @ 꿩?(꿩?)

110031 #3 꿰 ᄀᆞ튼 거 그런 거 놩 딸리는 사람. 이녁 취미에 맞게끔 헤근에 놩덜 딸령 먹고 허는데 그놈의 짓 꺼, 딸리젠 허믄 뭐 스물 네시간 딸려야 뒈어. 그 엿이 제라헌 엿이주.(깨 같은 거 그런 거 놔서 달이는 사람. 이녁 취미에 맞게끔 해서 놔서 달여서 먹고 하는데 그놈의짓 거, 달이려고 하면 뭐 스물네 시간 달여야 돼. 그 엿이 정확한 엿이지.)

110031 @ 아아, 저 사모님은 예펜삼춘 이거 못 허고예? 엿 허는 거(아아, 저 사모님은 여자삼촌 이거 못 하고요? 엿 하는 거.)

110031 #3 엿 허는 거 옛날 할망이나베끼.(엿 하는 거 옛날 할머니나밖에.)

110031 @ 지금 할 수 잇는 사람 엇일 거라예?(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110031 #3 벨로.(별로.)

110031 #6 그건 엿 허는 날.(그건 엿 하는 날.)

110031 @ 아아, 엿 허는 날. 무슨 엿 아까추룩?(아아, 엿 하는 날. 무슨 엿 아까처럼?)

110031 #6 아무 엿이라도, 그날에 헹 먹으민 약 뒌덴.(아무 엿이라도, 그날에 해서 먹으면 약 된다고.)

110031 @ 약 뒌덴.(약 된다고.)

12월

110033 @ 신구간에 대헹 말씀헤 주십서.(신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3 #3 신구간은 그 구신이 다 어디레 도망가 불 때 이사헌덴 헤영 요새 신구간 이제는 엇어져 불엇주.(신구간은 그 귀신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릴 때 이사한다고 해서 요새 신구간 이제는 없어져 버렸지.)

110033 @ 이사철 신구간예. 하늘에 가분 사이에 화장실도 고치고예.(이사철 신구간이요. 하늘에 가분 사이에 화장실도 고치구요.)

110033 #3 그때는 춤 신구간 뒈어 가민 베라벨 거 다 헷주. 문딱 귀신덜 산으로 올라가는지 귀신이 신디 읏인지 올라갓는지 안 올라갓는지.(그때는 참 신구간 되어 가면 별의별 거 다 했지. 모두 귀신들 산으로 올라가는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110033 @ 경헤도 규칙은 세왓수게예?(그렇게 헤도 규칙은 세웠네요?)

110033 #3 그걸 지키긴 지켜야 뒈주.(그걸 지키긴 지켜야 되지.)

110033 @ 뭣부터 가지고 갑니까?(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3 #3 솟단지 문저.(솥단지 먼저.)

110033 @ 가스렌지예.(가스레인지요.)

110033 #3 요즘은 밥통 ᄒᆞ나를 들렁 ᄀᆞ정 가사.(요즘은 밥통 하나를 들어서 가져서 가야.)

110033 #6 신구간엔 이사허고, 뭐 튿어진 거 고치고.(신구간엔 이사하고, 뭐 뜯어진 거 고치고.)

110033 #10 귀신덜이 하늘에 다 올라가분덴 헤근에. 그 기간만. 신구간에 허는 셍이라.(귀신들이 하늘에 다 올라가버린다고 해서. 그 기간만. 신구간에 하는 모양이야.)

110035 @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5 #5 솟단지게. 처음 갈 땐 솟단지 ᄋᆞ정 가는 거.(솥단지지. 처음 갈 땐 솥단지 가져서 가는 거.)

110035 #6 솟단지 안에랑 요강 놓곡.(솥단지 안에는 요강 넣고.)

110035 #5 옛날은 경 헹 가서. 옛날은.(옛날은 그렇게 해서 갔어. 옛날은.)

110035 #6 옛날은 꼭 방법?(옛날은 꼭 비법?)

110035 #10 어, 처음 가는 덴, 불도, 불 켱 가곡.(어, 처음 가는 데는, 불도, 불 켜서 가고.)

110035 #5 엿날은 꼭 그 방법.(옛날은 꼭 그 빕법.)

110035 @ 어우야, 솟단지 안에 요강 놓는다는 게 경허지 안우꽈?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어우야, 솥단지 안에 요강 넣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10035 #5 응. 그 안티 놘.(응. 그 안에 놨어.)

110035 @ 허허허허.(허허허허.)

110035 #10 아주 옛날엔 그 저 시집갈 때.(아주 옛날엔 그 저 시집갈 때.)

110035 #6 방법이엇던 모양이라.(비법이었던 모양이야.)

110035 @ 먹고 싸는 거.(먹고 싸는 거.)

110035 #10 결혼헐 때도 그 요강에 쏠 담아근에 가마에 놩 가곡 헷주게.(결혼할 때도 그 요강에 쌀 담아서 가마에 놔서 가곤 했지.)

110035 @ 결혼헐 때도 가마에마씨?(결혼할 때도 가마에요?)

110035 #10 가마에 놩.(가마에 놔서.)

110035 @ 뭐허곡? 솟하고 요강?(뭐하고요? 솥하고 요강?)

110035 #10 아니, 그냥 요강단지에 쏠담앙.(아니, 그냥 요강단지에 쌀 담아서.)

110035 #5 요강에 쏠 놩게. 요강에.(요강에 쌀 놔서. 요강에.)

110035 @ 쏠 담앙마씨? 하하하하하. 그 쏠을 먹어져? 새 요강단지?(쌀 담아서요? 하하하 그 쌀을 먹어? 새 요강단지?)

110035 #10 비와 뒁은에.(부어 둬서.)

110035 #5 아니, 새 거난 간 사온 거난 것도 아멩 헤도 방법인 셍이라. 쏠 담앙.(아니, 새 거니까 가서 사온 거니까 것도 아무리 해도 비법인 모양이야. 쌀 담아서.)

110035 @ 뭔가 잇어실 건디이. 아아, 쏠 담앙예. 재미잇다예. 새각시가 가져가는 거.(뭔가 있었을 건데. 아아, 쌀 담아서요. 재미있네요. 새색시가 가져가는 거.)

110037 @ 집알이가 뭔고? 집알이가 집들이 아닌가? 집들이할 때 선물은 무엇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집알이가 뭔가? 집알이가 집들이 아닌가? 집들이할 때 선물은 무엇으로 합니까?)

110037 #3 그때사.(그때야.)

110037 #5 그때사 뭐 곽이 제일 필요한 거 ᄀᆞ타.(그 때야 뭐 성냥이 제일 필요한 거 같아.)

110037 #10 성냥.(성냥.)

110037 @ 성냥곽.(성냥갑.)

110037 #6 성냥이나 초나.(성냥이나 초나.)

110037 #5 성냥이 제일 필요한 거 ᄀᆞ타.(성냥이 제일 필요한 거 같아.)

110037 #6 엿날은 성냥이 필요헷주.(옛날은 성냥이 필요했지.)

110037 #10 응. 성냥은 영 팍허민 파륵허게 불 나온다고 헹은에 잘 살라고.(응. 성냥은 이렇게 팍하면 '파륵하게' 불 나온다고 해서 잘 살라고.)

9. 놀이

111001 @ 예전에는 주로 어떤 놀이를 하였습니까?(예전에는 주로 어떤 놀이를 하였습니까?)

111001 #5 낭에도 잘 올르고 폭도 타 먹으레 올라가고, 그런 짓깔은 잘하고, 삥이 빠레 뎅기기. 그런.(나무에도 잘 오르고 팽도 따 먹으러 올라가고, 그런 짓거리는 잘하고, 삘기 뽑으러 다니기. 그런.)

111001 #6 폭낭에만 올라가믄 일로 올라가믄 저 이파리로 알러레 ᄂᆞ려가 저프게 놀코넹이질 헷주.(팽나무에만 올라가면 이리로 올라가면 저 이파리로 아래로 내려가 엄청나게 날고양이짓 했지.)

111001 #5 놀코넹이질, 경허당 보난 이젠 빙신 뒈언.(날고양이짓,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젠 병신 되었어.)

111001 #6 겨난 미깡을 타도 사다리 놩 높은 디 나만 타당 보면은 빙신 뒈어.(그러니까 귤을 따도 사다리 놔서 높은 데 나만 따다가 보면 병신 돼.)

111001 #4 우리 아덜 나 네비어둥 밧디 강 검질매당 강 오랑 보민 성담 우이 올랑 그 성담 멜라졍 막 하간 디 부수우고, 원 죽으카부덴 헤도 안 죽어고.(우리 아들 나 내버려두고 밭에 가서 김매다가 가서 와서 보면 성담 위에 올라서 그 성담 무너져서 마구 온갖 데 부수고, 원 죽을까봐서 해도 안 죽더고.)

111001 #5 것도 멩이 메기라사 죽주게. 멩이 시난 살앗수게.(것도 명이 그만이어야 죽지. 명이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111001 @ 땅따먹기?(땅따먹기?)

111001 #5 그런 것도 헤낫고 다, 방찰락도 헤낫고, 방찰락이옌 헌 것도 헤낫고.(그런 것도 했었고 다, '방찰락'도 했었고, '방찰락'이라고 한 것도 했었고.)

111001 @ 예? 방찰락?(예? '방찰락'?)

111001 #5 늬기반듯헌 영, 영, 영 방찰락.(네모반듯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찰락'.)

111001 #6 밧 따 먹을락, 밧 따 먹을락.('밭 따 먹을락', '밭 따 먹을락'.)

111001 #10 밧 따 먹을락이 아니고.('밭 따 먹을락'이 아니고.)

111001 #5 영 헹 허는 거 영, 영 방찰락, 방찰락.(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방찰락', '방찰락'.)

111001 @ 방찰락.('방찰락'.)

111001 #6 건 남자 허는 건디?(건 남자 하는 건데?)

111001 #5 아니, 여ᄌᆞ, 여ᄌᆞ. 방찰락은 여ᄌᆞ 허는 거.(아니, 여자, 여자. '방찰락'은 여자 하는 거.)

111001 #10 여ᄌᆞ덜 다 허여.(여자들 다 해.)

숨바꼭질

111032 @ 곱을락은 어떻게 합니까?(숨바꼭질은 어떻게 합니까?)

111032 #5 것사게. 곱음자기사 뭐.(거야. 숨바꼭질이야 뭐.)

111032 #10 숨바꼭질.(숨바꼭질.)

111032 @ 꼭꼭 숨어라! 머리꺼럭 보인다.(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111032 @ 곱음자기, 술래는 어떻게 정헙니까?(숨바꼭질, 술래는 어떻게 정합니까?)

111032 #10 술레?(술래?)

111032 #6 강강술레?(강강술래?)

111032 @ 아니, 원이. 원이. 원이엔 헙니까? 영 헹양. 잡는 사람 곱을락 할 때.(아니, 술래. 술래. 술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요. 잡는 사람 숨바꼭질 할 때.)

111032 #6 곱을락 헐 때, 곱음작 헐 때 허는 거?(숨바꼭질 할 때, 숨바꼭질 할 때 하는 거?)

111032 #10 건 곱을락이고.(건 숨바꼭질이고.)

111032 @ 원이렌 안 헙니까? 뭐렌 헙니까? 영, 영 팡에 사 가지고 허는 아이.(술래라고 안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팡'에 서 가지고 하는 아이.)

111032 #10 원이사 영 둥글럭헌 것이 원이주.(원이야 이렇게 둥그렇게 한 것이 원이지.)

111032 #11 영 곱앙은에 허는 거. 거 말헴신게.(이렇게 숨어서 하는 거. 거 말하고 있네.)

111032 #10 영 둥글럭허게 강강술레 허는 거.(이렇게 둥그렇게 강강술래 하는 거.)

111032 @ 그 원이 아니고 영 헹 꼭꼭 숨어라.(그 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꼭꼭 숨어라.)

111032 #6 머리꺽이 보인다. 그거.(머리카락이 보인다. 그거.)

111032 @ 다 숨언? 허멍 허는 아이가 가위, 바위, 보, 촞이레 다니는 디. 거 안 헤낫구나예.(다 숨었니? 하면서 하는 아니가 가위, 바위, 보, 찾으러 다니는 데. 거 안 했었군요.)

111032 #10 다 헤낫수다. 꼭꼭 곱으레? 무사 안 해?(다 했었습니다. 꼭꼭 숨으러? 왜 안 해?)

실뜨기

111037 @ 실뜨기? 실뜨기할 때는 어떤 손가락이 필요합니까? 실뜨기할 때는 어

떤 손가락?(실뜨기? 실뜨기할 때는 어떤 손가락이 필요합니까? 실뜨기할 때는 어떤 손가락?)

111037 #5 저 그디 무신거옌 헌다만은? 영 뒈싸근에 영 실 헌 거.(저 거기 무엇이라고 한다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실 하는 거.)

111037 #10 아, 실?(아, 실?)

111037 #5 다 잊어비어신게.(다 잊어버렸네.)

111037 #6 거 나 잘 헤낫져만은 잊어불언.(거 나 잘 했었다만 잊어버렸어.)

111037 #7 나도 헤낫수다만은.(나도 했었습니다만.)

111037 #10 이 상손ᄀᆞ락에 영 꿰영.(이 가운뎃손가락에 이렇게 꿰어서.)

111037 #5 영 헹 걸이고 영 헹 걸령 영 헤영은에 뒈실락 허렌 허멍 헤나신디, 문딱 잊어비어신게.(이렇게 해서 걸리고 이렇게 해서 걸려서 이렇게 해서 뒤집기 하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모두 잊어버렸네.)

111037 @ 뒈실락, 뒈실락.(뒤집기, 뒤집기.)

111037 #10 뒈실락.(뒤집기.)

111037 #5 헤나신디 다 잊어불어신게.(했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111037 #7 잊어붑니다게. 아이고 게메.(잊어버립니다. 아이고, 글쎄.)

111037 @ 상손가락 꿰영.(가운뎃손가락 꿰어서.)

111037 #10 벨 걸 다 썸져야.(별 걸 다 쓰고 있네.)

111037 #7 아이고, 게난.(아이고, 그러니까.)

공기놀이

111041 @ 공기? 공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공기? 공기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41 #6 돌새기 뭇앙 멘들앙.(돌멩이 마서 만들어서.)

111041 #5 다숫 개 멘들앙.(다섯 개 만들어서.)

111041 @ 공기를 제주도말로 또 뭐 잇수과?(공기를 제주도말로 또 뭐 있습니까?)

111041 #6 공기, 공기돌.(공기, 공깃돌.)

111041 @ 공기돌, 다숫 개 멘들앙 놀안예. 많이 놀앗수과? 이걸로.(공깃돌, 다섯 개 만들어서 놀았어요. 많이 놀았습니까? 이걸로.)

111041 #5 우린 공긴 저프게 잘헤낫어.(우린 공긴 엄청 잘했었어.)

111041 @ 등에도 올리고?(등에도 올리고?)

111037 #10 응.(응.)

111041 #5 영 헤영은에 영 올령, 다섯 개 올령 영 헹 잡곡.(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다섯 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잡고?)

111041 #4 그땐 어린이집도 엇고.(그땐 어린이집도 없고.)

111041 @ 공기는 본전이렌 안헷수과? 공기렌 월령에선 본전이렌.(공기는 본전이라고 안 했습니까? 공기라고 월령에선 본전이라고.)

111041 #5 아니, 아니. 동그락허게 요만썩 헹 다숫 개 헤근에, 하나썩 헹 좁앙 허당.(아니, 아니. 동그랗게 요만큼씩 해서 다섯 개 해서, 하나씩 해서 집어서 하다가.)

111041 #4 영 데껸 영, 톡 데껸 영.(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톡 던져서 이렇게.)

111042 @ 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헹합니까?(공기는 어떤 순으로 진행합니까?)

111042 #5 둘썩 좁앗당, 버금엔 뎃경 놩, 다시 싀 개썩 잡고, 하나 좁곡, 다시 허당, 버금은 늬 개 잡안 다시 영 헹 올령 영 헹 잡고 경 헤낫주기. 우린.(둘씩 집었다가, 버금엔 던져 놔서, 다시 세 개씩 집고, 하나 집고, 다시 하다가, 버금은 네 개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잡고 그렇게 했었지. 우린.)

111042 #6 경 헹 따먹어사 이기주게. 얼마허믄 얼마.(그렇게 해서 따먹어야 이기지. 얼마하면 얼마.)

111042 #5 엿날은 그런 것만 엿날은.(옛날은 그런 것만 옛날은.)

111042 #4 홀 게 엇어.(할 게 없어.)

111042 #5 그런 것만 그쟈 엿날은 공부허레 갈 훼게도 안 허고, 혹교 시기지 안 혼난 그쟈 더퍼 놓고 그런 거, 그런 짓깔만 허멍 잘.(그런 것만 그저 옛날은 공부하러 갈 회계도 안 하고, 학교 시키지 안하니깐 그저 덮어 놓고 그런 거, 그런 짓거리만 하면서 잘.)

'삘기치기'

111072 @ 그 다음 뼁이치기?(삘기치기?)

111072 #5 펭이치기도 다 헤낫고.(팽이치기도 다 했었고.)

111072 @ 뼁이치긴 여자도 헤낫수과?(삘기치기 여자들도 했었습니까?)

111072 #5 응.(응.)

111072 #10 여자도 헤낫주.(여자도 했었지.)

111072 @ 두 개 헤 가지고 잡아 뎅기는 거?(두 개 해 가지고 잡아 다니는 거?)

111072 #5 아니, 뼁이, 동글락허게 헤연 요디 쪼짝허게 튀어나오게 헤영 저 뼁이체로 영, 영 무껑은에 낭께기로 무껑은에 영, 영 헹 착착 뿌리는 거.(아니, 팽이, 동그랗게 해서 요기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해서 저 팽이채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나뭇개비로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착착 뿌리는 거.)

111072 @ 아아, 그 펭인 남자덜이 하는 거고. 펭이 말고 뼁이?(아아, 그 팽인 남자들이 하는 거고. 팽이 말고 삘기?)

111072 #5 건 뼁이 빠 먹는 거.(건 삘기 뽑아 먹는 거.)

111072 #6 뼁이 빠다근에.(삘기 뽑아다가.)

111072 #5 무껑은에.(묶어서.)

111072 #6 무껑, 저 내기 쳥 따먹는 거.(묶어서, 저 내기 쳐서 따먹는 거.)

111072 #11 까먹는 거.(까먹는 거.)

111072 @ 어떻게 내기헤마씨? 뼁이 타당 영 잡아 뎅기는 거 아니?(어떻게 내기

해요? 삘기 따다가 이렇게 잡아 다니는 거 아니?)

111072 #5 아니, 뼁인 뭐시냐민 이제 새, 집 이는 새, 새 비어불민 다시 그디 모룩이 요마닌허게 나민, 그디 뼁이가 나오민, 그거 뽑앙은에 무껑 뎅기멍, 우린 무껀 그 ᄉᆞ믓 그땐 노도 경 어려완, 노 헤영근에 꼬아근에 무껑 이추룩 무껑, ᄋᆞ정ᄋᆞ곡 놈덜이영 헹 강 뼁이치기도 허곡 허멍.(아니, 삘긴 뭐냐면 이제 띠, 집 이는 띠, 띠 베어놓으면 다시 모록하게 요만큼하게 나면, 거기 삘기가 나오면, 그거 뽑아서 묶어서 다니면서, 우린 묶어서 그 사뭇 그땐 노도 그렇게 어려워서, 노 해서 꼬아서 묶어서 이처럼 묶어서, 가져오고 남들이랑 해서 가서 삘기치기도 하고 하면서.)

111072 #6 뼁이치기, 어떵 헹 헨덴 들엄수게게? 뼁이치기게?(삘기치기,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하네요? 삘기치기?)

111072 #5 뼁이치기 영 헹은에 영 찰락 데끼민 이디 헤영 믄딱 그 썹으로 저 썹으로 영 믄딱 다시 이디 뭐가 막아지민 그레 무꺼근에 영 무꺼서 영 들이치곡, 거찌느냐? 못허느냐?(삘기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찰락 던지면 여기 해서 몽땅 그 잎으로 저 잎으로 이렇게 몽땅 다시 여기 뭐가 막아지면 거기에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건드리느냐? 못하느냐?)

111072 #6 밧이 크민 혼줌 뒈영 영 노민 혼줌 영허민 혼줌 받아네영, 다시 크민 흑 쭤끔베끼 거 못 따 먹을 거, 경 헷주게.(밭이 크면 한줌 되어서 이렇게 놓으면 한줌 이렇게 하면 한줌 받아내서, 다시 크면 흙 조금밖에 거 못 따 먹을 거, 그렇게 했지.)

111072 #10 흐흐.(흐흐.)

111072 #6 거 고망이 막 커노민 막 혼줌 줴영 영 허민, 거 믄덜 빼앗아 오는 거라. 겡 헹 뼁이치기 헷어.(거 구멍이 막 커 놓으면 막 한줌 쥐어서 이렇게 하면, 거 몽딸들 빼앗아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삘기치기 했어.)

111072 @ 남자덜이 많이 허엿겟다예?(남자들이 많이 했겠네요?)

111072 #5 아니, 여자가 헤연 여자가 주로.(아니, 여자가 했어. 여자가 주로.)

111072 #7 남자는 안 허여. 여자.(남자는 안 해. 여자.)

고무줄놀이

111075 @ 고무줄? 삼촌네도 고무줄 헨? 무슨 노래 부릅니까? 고무줄은.(고무줄? 삼촌네도 고무줄 했어요? 무슨 노래 부릅니까? 고무줄은.)

111075 #5 뭐 세깍꼬마리네 뭐 와따구시네. 뭐.(뭐 '세깍꼬마리네' 뭐 '와따구시네'. 뭐.)

111075 @ 일본말, 일본 거로구나예, 일본노래예? 생각나는 거 한번 불러봅서?(일본말, 일본거로군요. 일본노래요? 생각나는 거 한 번 불러보세요?)

111075 #5 나 몰라. 우린 옛날, 세깍꼬마네 와따구시네 헤영 경 헹 헤낫어.(나 몰라. 우린 옛날, '세깍꼬마네 와따구시네' 해서 그렇게 해서 했었어.)

줄넘기

110782 @ 줄넘기는 어떻게 합니까?(줄넘기는 어떻게 합니까?)

110782 #10 저 그 베칠락.(저 그 줄넘기.)

110782 @ 베뛸락, 베칠락, 베뛸락?(‘베뛸락’, ‘베칠락’, ‘베뛸락’?)

110782 #5 베뛸락도 헤나고, 베칠락도 헤나고.(‘베뛸락’도 했었고 ‘베칠락’도 했었고.)

110792 @ 뭐 허면서 베뛸락 헤낫수과?(뭐 하면서 줄넘기 했었습니까?)

110792 #5 베뛸락도 헤나고, 베칠락도 헤나고.(‘베뛸락’도 했었고, ‘베칠락’도 했었고.)

110792 #10 요빈 사요 하요로시 하요로시. 하하하하.(‘요빈 사요 하요로시 하요로시.’ 하하하하.)

110792 #5 일본시국 때난게.(일본시국 때니까.)

110792 @ 일본말로. 아니, 제주도말론 엇수과? 하하하하 일본서 와신가?(일본말로. 아니, 제주도말론 없습니까? 하하하하 일본서 왔나요?)

110792 #5 우리 어린 땐 일본 시국 때난게.(우리 어린 땐 일본 시국 때니까.)

110792 @ 일제 시절이라 노난.(일제 시절이어 놓으니까.)

110792 #5 우린, 우리 아버지넨 저 믄딱 저 아이덜 여ᄌᆞ고 남ᄌᆞ고 어린 사람덜, 다 일본 내 보내덴 허난, 감제 싱것단 감제도 다 우리 아버지 감제도 다 메어낫어. 이거 헹 뭣 헐 거냐고. 아이덜 다 육지, 일본더레 내보내뒁 이건 누게가 먹느냐고 경 허멍 믄 감제도 다 메어낫어.(우린, 우리 아버지네는 저 몽땅 저 아이들 여자고 남자고 어린 사람들, 다 일본 내 보내려고 하니까, 고구마도 심었다가 고구마도 다 우리 아버지 고구마도 다 매었었어. 이거 해서 뭐 할 거냐고. 아이들 다 육지, 일본으로 내보내두고 이건 누가 먹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몽땅 고구마도 다 매었었어.)

110792 #6 우리 어머닌 열ᄋᆞ숫에 풀아 먹언.(우리 어머닌 열여섯에 팔아 먹었어.)

110792 #10 아이고.(아이고.)

110792 #5 저 처녀덜 경 심어간덴 허난.(저 처녀들 그렇게 잡아간다고 하니까.)

110792 #10 아아, 풀아 불언. 결혼헤여 불언.(아아, 팔아 버렸어. 결혼해 버렸어.)

110792 #6 저 처녀덜 믄 심어간덴 허멍, 시집보내부런. 열ᄋᆞ숫 난 걸.(저 처녀들 몽땅 잡아간다고 하면서, 시집보내버렸어. 열여섯 살 된 걸.)

110792 #10 그땐 보통 경 헷수다게.(그땐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110792 @ 거기 가부는 것보단 낫주게.(거기 가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110792 #6 하이고, 낫고말고.(하이고, 낫고말고.)

110792 @ 정말, 얼마나 정말 한 맺혀가지고.(정말, 얼마나 정말 한 맺혀가지고.)

110792 #5 이제 그거 테레비에 나오는 거 봅서게.(이제 그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보세요.)

110792 @ 눈물 나마씨. 일본에선 모른 척허곡 지금도.(눈물 나요. 일본에선 모른 척하고 지금도.)

110792 #6 일본에선 원 어느제.(일본에서는 전혀 언제.)

그네뛰기

111080 @ 그네뛰기도 헷수과? 그네뛰기는 제주도 말로 뭐렌 합니까?(그네뛰기도 했습니까? 그네뛰기는 제주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111080 #5 하영 헷어.(많이 했어.)

111080 @ 그네뛰기를 제주도말로 뭐렌 헙니까?(그네뛰기를 제주도말로 뭐라고 합니까?)

111080 #5 두천 뛰기.('두천' 뛰기.)

111080 @ 에?(에?)

111080 #5 두천 뛰엄젠, 두천, 두천, 두천.('두천' 뛴다고, '두천', '두천', '두천'.)

111080 @ 두천?('두천'?)

111080 #10 주천.(그네.)

111080 @ 주천.(그네.)

111080 #5 베에 밀리민 저레 가곡 오곡 허는 거.(바에 밀리면 저리 가고 오고 하는 거.)

111080 @ 주천, 주천뛰기.(그네, 그네뛰기.)

'한다리인다리'

111083 @ 한다리인다리 거청개 할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한다리인다리 거청개' 할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111083 #5 영 헤근에 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둥엣 척 허멍, 경허민 척 헌 뗀 이 정갱이.(이렇게 해서 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둥엣 척 그렇게 하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척 한 땐 이 정강이.)

111083 @ 사월, 구월 그 다음마씨?(사월, 구월 그 다음요?)

111083 #5 혼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둥엣 척. 경허민(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원경밭에 기둥에 척. 그렇게 하면.)

111083 @ 웬경밧디 지둥엣 척.(원경밭에 기둥에 척.)

111083 #5 척, 경허민 정갱이, 정갱이 줌지곡.(척, 그렇게 하면 정강이, 정강이 접고.)

111083 @ 정갱이 정갱이 줌지곡.(정강이 정강이 접고.)

111083 #5 영 헷당 영 헐 게 아니라 한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허영 마주막 간 사람은 그걸.(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다리 인다리 거청 더청 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원경밭에 해서 마지막 간 사람은 그걸.)

111083 #6 지둥엣 촉혜영.(기둥에 척해서)

111083 #5 지둥엣 척허민 이제 이 정갱이 줌지곡, 다시 경 헨 다시 '한다리 인다리' 헹 세가민 다시 그 영 헹 간 사람은 다시 줌지곡. 경 허멍 헤난.(기둥에 척하면 이제 이 정강이 접고, 다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다리 인다리 해서 세가면 다시 그 이렇게 해서 간 사람은 다시 접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

111083 @ 재밋게 헤난마씨?(재미있게 했었나요?)

111083 #5 응.(응.)

111083 @ 그축 헹 술래 정허곡?(그처럼 해서 술래 정하고?)

111083 #5 응. 옛날은 공부헐 셍각덜은 안 허곡 그런 짓깔만 허멍 살앗어.(응. 옛날은 공부할 생각들은 안 하고 그런 짓거리만 하면서 살았어.)

111083 #6 공분 뭐? 일본글이난에게.(공분 뭐? 일본글이니까.)

111083 @ 이 말이 뜻은 뭐꽈? 원님밧디는 지둥엣 척은 알겠는데 원님밧딘 뭐고 ᄉᆞ월, 구월?(이 말이 뜻은 뭡니까? 원님밭에는 지둥엣 척은 알겠는데 원님밭엔 뭐고 사월, 구월?)

111083 #5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둥엣 척 허난, 우리도 것도 몰라도 그쟈 그때 곧는 말로 경 헤난 거난 무신 말산디 뜻은 몰르는 거라.(구월 나월 원경밭에 기둥에 척 하니까, 우리도 것도 몰라도 그저 그때 말하는 말로 그렇게 했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뜻은 모르는 거야.)

111083 @ 구월은 알겠는데 나월은 뭐고? 구월, 나월?(구월은 알겠는데 나월은 뭐고? 구월, 나월?)

111083 #5 웬경밧디.('원경밭에.')

111083 @ 웬경밧디가 뭣꽈?('원경밭에'가 뭡니까?)

111083 #5 난 몰라. 뭣산디. 경 허멍 헤나난 몰라.(난 몰라. 뭣인지. 그렇게 하면서 했었니까 몰라.)

111083 @ 걸 완전이 청수리에서 헷던 거다예? 이거예. 그거는 잘도.(걸 완전히 '청수리'에서 했던 거네요? 이거요. 그거는 잘도.)

111083 #5 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웬경밧디 지둥엣 척(원님 ᄉᆞ설 구월 나월 원경밭에 기둥에 척.)

111083 @ 원님 ᄉᆞ설이 뭐고?(원님 ᄉᆞ설이 뭐고?)

111083 #5 하하하.(하하하.)

111083 @ 재밋다예.(재밌네요.)

111083 #5 우리 입으론 조조허게 ᄀᆞᆯ아도 그게 무신 뜻으로 ᄀᆞᆯ은 지 모르지.(우리 입으론 '조조'하게 말해도 그게 무슨 뜻으로 말하는 지 모르지.)

10. 통과의례

출생

112001 @ 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을 때?(태교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했을 때?)

112001 #5 어떵헤게?(어떻게 해?)

112001 @ 조심헤야 뒈는 거?(조심해야 되는 거?)

112001 #5 조심사 헤신지 무신 꽝사 헤신지.(조심이야 했는지 무슨 '꽝'이야 했는지.)

112001 #6 아기 낭 일헷수다.(아기 낳아서 일했습니다.)

112001 #10 아기 나는 날끄지 일허고.(아기 낳는 날까지 일하고.)

112002 @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

112002 #5 집에서 헷지. 옛날이사 이제사 저 믄딱 빙원에.(집에서 했지. 옛날이야 이제야 저 몽땅 병원에.)

112002 #10 보리낭 꼴앙.(보릿대 깔아서.)

112002 @ 보리낭 꼴앙마씨?(보릿대 깔아서요?)

112002 #10 어. 피 많이 나민게, 그 보리낭 꼴아사.(어. 피 많이 나면, 그 보릿대 깔아야.)

112002 @ 방에서마씨? 부엌에서마씨?(방에서요? 부엌에서요?)

112002 #11 방에서 꼴앙 북삭허게[152]게.(방에서 깔아서 푹신하게.)

112002 @ 북덕자리옌 헷수과?('북덕자리'라고 했습니까?)

112002 #11 어어, 그렇지.(어어, 그렇지.)

112002 #10 아니, 그게 아니고, 방이 그때는 방바닥에 헤근에 그 걷어뒁 아기 낳젠 허면은.(아니, 그게 아니고, 방이 그때는 방바닥에 해서 그 걷어두고 아기 낳으려고 하면.)

112002 #11 그 검질 꼴앙 북삭허렌.(그 검불 깔아서 포근하라고.)

112002 #10 그 검질을 꼴면은 피가 많이 날 거 아니? 경허민 그 피가 많이 나면은 아기도 뭐 허지 안허여? 경허난에 그것도 걸러지곡 이제 아기 나불민 저 그걸 그 검질로 박박 씰엉은에 허허.(그 검불을 깔면 피가 많이 날 거 아니? 그렇게 하면 그 피가 많이 나면 아기도 뭐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걸러지고 이제 아기 나버리면 저 그걸 그 검불로 박박 닦아서는 허허.)

112002 #5 멕에 담앙.(멱서리에 담아서.)

112002 #10 멩텡이에 담앙.(망태기에 담아서.)

112002 #5 머리맡에 비엉 누웡.(머리맡에 베어서 누워서.)

112002 #10 맞아. 비엉 누웡. 하하.(맞아. 베어서 누워서. 하하.)

152) '북삭ᄒᆞ다'는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112002 #5 비엉 눳당, 삼일 첸, 바깟디 강 케왕.(베어서 누웠다가, 삼 일짼, 바깥에 가서 태워서.)

112002 #6 봇도 그디 끊어놓고.(태도 거기 끊어놓고.)

112002 #5 방석.(자궁.)

112002 #6 애기방석도 끊어놓고.(태도 끊어놓고.)

112002 @ 냄새 안나마씨?(냄새 안나요?)

112002 #5 방석, 애기 보, 방석도 그것도 케우는 거라, 삼일 첸 강.(봇, 애기 태, 봇도 그것도 태우는 거야, 삼일 짼 가서.)

112002 #10 냄새나지.(냄새나지.)

112002 @ 뱃속에 놓곡 비어. 저기 애기 난 어멍이?(뱃속에 놓고 베어. 저기 애기 난 어머니가?)

112002 #5 이만이 크게 헌 큰 멕에 보리낭 놩 보릿낭 꼴앙 그레 아기 방석도 그레 놓곡 헤영, 경헨 직산헹 눕곡 허당, 삼일 뒈민 어멍도 목욕허곡, 그것도 강 바깟디 강 터진 방에 강 술고.(이만큼 크게 한 큰 멱서리에 보릿대 놔서 보릿대 깔아서 거기에 태도 거기에 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기대서 눕고 하다가, 삼일 되면 어머니도 목욕하고, 그것도 가서 바깥에 가서 터진 방에 가서 태우고.)

112002 @ 터진 방에 강, 다 여기 북덕자리에서 애기 나난마씨?(터진 방에 가서, 다 여기 '북덕자리'에서 애기 났었나요?)

112002 #5 게. 나 아기, 북덕자리에서 이젠 기저귀도 잇주만은, 우리 아기덜 키울 땐 기저귀도 어려와낫어.(그래. 내 아기, '북덕자리'에서 이젠 기저귀도 있지만, 우리 아기들 키울 땐 기저귀도 어려웠었어.)

112002 #10 기저귀가 어디셔?(기저귀가 어디 있어?)

112002 #6 제우 지성귀옌 헌 건, 아방 입어난 거 갈중이 헌 거 헹은에, 그걸로 쌍.(겨우 기저귀라고 한 건, 아버지 입었던 거 '갈중의' 헌 거 해서, 그걸로 싸서.)

112002 #5 난 무신거옌 허느니? 밀ᄀᆞ루 찰리 그거 사당 그거 뿔안에, 거 헤당 기저귀 경 헹은에 마지막엔 헤봣주 원, 그전인 그냥.(난 무엇이라고 하니? 밀가루 자루 그거 사다가 그거 빨아서, 거 해다가 기저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엔 해봤지 전혀, 그전엔 그냥.)

112002 #6 그전인 다 갈중이에 싸서.(그전엔 다 '갈중의'에 싸서.)

112002 #10 그 몸빼 헌 것덜 헤당은에 그걸로 허여.(그 '몸빼' 헌 것들 해다가 그걸로 해.)

112002 #6 여자 옷으론 싸민 애기 팡팡 아렛 맥 엇엉 씨러진덴 허연, 남자 옷으로 쌋지.(여자 옷으로 싸면 애기 팡팡 아래 맥 없어서 쓰러진다고 해서, 남자 옷으로 쌌지.)

112002 #10 아이고, 남자가 어디 옷은 어디 셔게?(아이고, 남자가 어디 옷은 어디 있어?)

112002 #6 게난 남자 입어난 갈중이.(그러니까 남자 입었던 '갈중의'.)

112002 #10 우리 아방[153], 우리 집 아방 갈중이 혼번 헤놧단.(우리 남편, 우리 집 남편 '갈중의' 한번 해놨다가.)

112003 @ 태와 탯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태와 탯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12003 #5 응?(응?)

112003 @ 태와 탯줄은 아까 멕에 놧당 술아버린덴 헷지예?(태와 탯줄은 아까 멱서리에 놨다가 태워버린다고 했지요?)

112003 #6 술아 불어.(태워 버려.)

112003 @ 터진 방에예?(터진 방에요?)

112003 #6 터진 방더레 강.(터진 방으로 가서.)

112002 #10 우리 탯줄이 잇지이, 혼 서너 나흘 뒈민 털어지지 안허여, 톡 털어지민 이젠 그거 영 놔둬.(우리 탯줄이 있지. 한 서너 나흘 되면 떨어지지 않아. 톡 떨어지면 이젠 그거 이렇게 놔둬.)

112003 #5 궷문에 좁쪙, 실로 헤영 돌아멩 놔두고.(궷문에 끼워서, 실로 해서 달아매서 놔두고.)

112002 #10 놔둬. 놔두민 이제.(놔둬. 놔두면 이제.)

112003 @ 무사마씨? 궷문에 좁쪙?(왜요? 궷문에 끼워서?)

112002 #7 약으로 쓴다고.(약으로 쓴다고.)

112003 #5 이디 탯줄, 아기 탯줄 물랑 털어지게 뒈믄, 털어지면은 그디 저 체음에 그 탯줄 끗뗑이에 저 실로 무끄지 안허여, 무껏당 털어지민 그것에 저 궷문 그 무신것에 강, 걸엉 놧당, 걸엉도 놔두고 헹게.(여기 탯줄, 아기 탯줄 말라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 거기 저 처음에 그 탯줄 끄트머리에 저 실로 묶지 않아, 묶었다가 떨어지면 그것에 저 궷문 그 무엇에 가서, 걸어서 놨다가, 걸어서도 놔두고 하더라고.)

112003 @ 메칠 잇당 또 보관도 허곡.(며칠 있다가 보관도 하고.)

112003 #6 궷 설랍에 놔두민 그건 어디사 가부는디 말째에 보믄 엇어.(궤 서랍에 놔두면 그건 어디에 가버리는지 말째에 보면 없어.)

112003 @ 나민 그거 ᄀᆞ세로 끊음네까?(낳으면 그거 가위로 끊습니까?)

112003 #10 가위로.(가위로.)

112003 #5 나 옛날에 우리 당멀 손진가 어떤 사람 난 때에 지네 할망은 미깡타레 강 엇어불곡 이젠 나를 오렌 헨 돌아간 거라. 사위가. 돌아가난 이젠 아깃뻬 맞추왕 ᄉᆞ믓 몬 죽어가곡 경허당 보난 아긴 이젠 붉아가난 아긴 털아젼에 허난 급헌 주망엔 이젠 실로 츰, 저 실로 그 베똥줄을 무껀에 이젠 ᄀᆞ세로 무짝 이젠 그친 거라. 그찻단 그 아긴 다시 돌앙 이젠 빙원에 가야 뒷날은 빙원에 그 무신 주사산디 노레 이젠 한림을 갓다. 가난에 원장 ᄒᆞ는 소리가, 간호원 ᄒᆞ는 소리가 아기 텟줄은 어떵 헹 쫄릅데가? 뭐 뭐 ᄀᆞ새, 츰 저 실로 딱 무꺼네 ᄀᆞ새로 물착 그차 불엇덴 게당 글로 충 들어가민 어떵할틴 허난 충 들민 어떵사 허는 건지. 급허민 허곡

153) 여기서 '우리 아방'은 제보자의 남편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게, 겁이 바락 난 경ᄒᆞᄀᆞ렌, 경 헹 나.(나 옛날에 우리 '당ᄆᆞᆯ' 손잔가 어떤 사람 낳은 때에 자기네 할머니는 귤 따러 가서 없어버리고 이젠 나를 오라고 해서 데려간 거야. 사위가. 데려가니까 이젠 아깃밴 맞추어서 사뭇 모두 죽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긴 이젠 밝아가니까 아긴 떨어져서 하니까 급한 김에 이젠 실로 참, 저 실로 그 탯줄을 묶어서 이젠 가위로 싹뚝 이젠 그친 거야. 잘랐다가 그 아긴 다시 데리고 이젠 병원에 가야 뒷날은 병원에 그 무슨 주사인지 놓으러 이젠 한림을 갔다. 가니까 원장 하는 소리가, 간호원 하는 소리가 아기 탯줄은 어떻게 해서 자릅디까? 뭐 뭐 가위, 참 저 실로 딱 묶어서 가위로 싹둑 잘라 버렸다고 그러다가 거기로 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균 들면 어떻게야 하는 건지. 급하면 하고, 겁이 버럭 나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나.)

112003 @ 파상풍.(파상풍.)

112002 #5 에이고, 나 경 혜연. 아이고 하도 우수완.(에이고, 나 그렇게 해서. 아이고, 하도 우스워서.)

112002 #6 잘못허민 파상풍 걸려.(잘못하면 파상풍 걸려.)

112002 #5 배설 창지 다 그차젼.('배설' 창자 다 끊어졌어.)

112002 #10 게난 그 탯줄은 놔두난 우리 아덜은 그거 어디 갈 땐 재수 좋넨 허렌 허멍 선보레 갈 때도 그거 ᄋᆞ정 허곡 흐흐, 경허멍 경허믄 재수 좋넨.(그러니까 그 탯줄은 놔두니까 우리 아들은 그거 어디 갈 땐 재수 좋다고 하면서 선보러 갈 때도 그거 가져서 하고 흐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재수 좋다고.)

112003 @ 어어, 탯줄 놔뒴구나예.(어어, 탯줄 놔두는군요.)

112003 #11 높은 사람 뒛주게. 관에 높은 사람.(높은 사람 됐지. 관에 높은 사람.)

112004 @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2004 #5 ᄆᆞ멀ᄀᆞ루 캉 먹어.(메밀가루 타서 먹어.)

112004 @ ᄆᆞ멀ᄀᆞ루? ᄌᆞ베기영?(메밀가루? 수제비랑?)

112004 #5 놀것으로 캉 먹고, 핏배 삭으라고.(날것으로 타서 먹고, 핏배 삭히라고.)

112004 #10 아니, ᄆᆞ멀 ᄒᆞ꼼 미지근ᄒᆞ게 그쟈 캉 ᄒᆞᆫ 사발 드리치고.(아니, 메밀 조금 미지근하게 그저 타서 한 사발 들이켜고.)

112004 @ 놀거? 모멀 솖은 거 아니고?(날거? 메밀 삶은 거 아니고?)

112004 #5 어, 놀걸로 캉 먹고, 저 묵 쑤는 ᄀᆞ루 그걸 미지근헌 물에 카근에 피삭으렌, 다시 그 버금엔 ᄆᆞ멀ᄎᆞ베기 허연 메역 뿔아놓곡, 지름 놓곡 헹 헨 주믄 먹곡 경 혜연.(어, 날걸로 타서 먹고, 저 묵 쑤는 가루 그걸 미지근한 물에 타서 피삭히라고, 다시 그 다음엔 메밀수제비 해서 미역 빨아넣고, 기름 넣고 해서 해서 주면 먹고 그렇게 했어.)

112004 @ 젯 나오고예.(젓 나오고요.)

112004 #10 젯은 그것으로 나온 건 아니.(젖은 그것으로 나온 건 아니.)

112004 #5 피 삭으렌. 피 삭으렌.(피 삭히라고. 피 삭히라고.)

112004 @ 피 삭으렌예.(피 삭히라고요.)

112005 @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

112005 #11 삼일.(삼일.)

112005 #5 삼일 뒈민.(삼일 되면.)

112005 @ 삼일 뒤에예.(삼일 뒤에요.)

112006 @ 깃저고리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깃저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5 #5 아기저고리. 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아기저고리. 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112006 #6 베로 만들앙 헹 입지민 등뗑이 안 ᄀᆞ릅넨 헤연, 베로 멘들앙 입졋수다.(베로 만들어서 해서 입히면 등이 안 가렵다고 해서, 베로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112005 #5 봇뒤창옷이옌 허영은에.('봇뒤창옷'이라고 해서.)

112005 #10 또 베게도 저 조, 조체 담앙은에 눅지면은.(또 베개도 저 조, 조겨 담아서 눕히면.)

112005 #5 베게 만들앙 헹.(베개 만들어서 해서.)

112005 #10 응. 게민 이 데멩이에.(응. 그러면 이 머리에.)

112005 #5 납닥헌덴 허멍은에.(납작하다고 하면서.)

112005 #10 뒷데멩이에.(뒷머리에.)

112005 #5 조혜영 담앙 베게 멘들앙 애기덜 눅지곡.(조해서 담아서 베개 만들어서 아기들 눕히고.)

112007 @ 할망상에 대해서 말씀혜 주십시오.('할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7 #10 우린 할망상은 안 놔 보난 어떵사.(우린 '할망상'은 안 놔 보니깐 어떻게야.)

112007 @ 애기 나민 할망상, 생일이나 보시메나 헷는가 상ᄀᆞ지 꼽고 헤낫수과?(애기 나면 '할망상', 생일이나 '보시기메'나 했는가 향가지 꼿고 했었습니까?)

112007 #5 메 싀 개 거려근에, 젭시에 메 싀 개 걸영, 그디 저 뭐 상겁이나 경 아니믄 새나 혜영은에 톡허영은에 이만썩 혜영 꼭꼭 꼽앙 경 헨.(메 세 개 떠서, 접시에 메 세 개 떠서, 거기 저 뭐 향가지나 그렇지 않으면 띠나 해서 톡해서 이만큼씩 해서 꼭꼭 꼿아서 그렇게 했어.)

112007 @ 상꼬지나 새, 어욱새마씨?(향가지나 띠, 억새요?)

112007 # 5 집 이는 새.(집 이는 띠.)

112007 @ 집 이는 새. 세 개를 하나만?(집 이는 띠. 세 개를 하나만?)

112007 # 5 싀 개에 다.(세 개에 다.)

112007 #6 적고지추룩게.(적꼬치처럼.)

112007 #5 똑똑 꿰영. 아멩 헤도 츰, 할망도 ᄌᆞ분으로 뭐 먹는 식으로 꼽는 거 ᄀᆞ타.(똑똑 꿰어서. 아무리 해도 참, 할머니도 젓가락으로 뭐 먹는 식으로 꽂는 거 같아.)

112007 #10 맞아.(맞아.)

112007 #5 경헌 거 닮아. 생각엔.(그렇게 한 거 같아. 생각엔.)

112008 @ 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112008 #5 데멩이 납닥헌덴 허멍 조허영 담앙 베개 멘들.(머리 납작하다고 하면서 조해서 담아서 베개 만들.)

112009 @ 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112009 #5 홍역에 예방은 어떵사 헤신지, 옛날은 이디 우두 놔낫어. 이디 영, 영 긁엉은에 우두 놔나신디, 이젠 주사 남주만은, 옛날은 우두 놘게.(홍역에 예방은 어떻게야 했는지, 옛날은 여기 우두 놨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긁어서 우두 놨었는데, 이젠 주사 나고 있지만, 옛날은 우두 놨어.)

112010 @ 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112010 #6 아기 난 때?(아기 난 때?)

112010 @ 예.(예.)

112010 #6 올레에게 웨우베 꽝 돌아메영, 그레, 남자 나민 고추 돌아메고 숫 돌아매고.(오래에 왼베 꼬아서 달아매서, 그래, 남자 나면 고추 달아매고 숯 달아매고.)

112010 #10 하하 우린 경은 안 헤보난.(하하 우린 그렇게는 안 해보니까.)

112010 #5 나도 경 안 헤봔.(나도 그렇게 안 해봤어.)

112010 @ 여자 나민?(여자 낳으면?)

112010 #6 여자 나민 고치 안 돌아메여. 숫만 돌아메여.(여자 낳으면 고추 안 달아매. 숯만 달아매.)

112010 #5 우린 안 헤나난.(우린 안 했었으니까.)

112010 @ 소나무 안 돌아멧수과? 소나무 소낭가지?(소나무 안 달아맸습니까? 소나무 소나무가지?)

112010 #5 그런 건 몰라.(그런 건 몰라.)

112010 #6 소나무? 그건 아니.(소나무? 그건 아니.)

112010 @ 여자는 숫만예? 여자는예? 뭐허지 말라 뭐허지 말라. 애기 나민 뭐 쑥에도 목욕시키고 엄마는, 쑥 목욕, 속, 속?(여자는 숯만요? 여자는요?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아기나면 뭐 쑥에도 목욕시키고 엄마는, 쑥 목욕, 쑥, 쑥?)

112010 #5 예. 속 솖앙, 솖앙은에, 아기도 목욕시키고, 어멍도 목욕허곡, 거 꼴앙 앚고 경 헤난. 옛날은.(예. 쑥 삶아서, 삶아서, 아기도 목욕시키고, 어머니도 목욕하고, 거 깔아서 앉고 그렇게 했어. 옛날은.)

112010 #10 고저소리도 허지 말렌 하고. 하하.(고저소리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하.)

112010 #5 응.(응.)

112010 @ 고저소리가 뭐꽈?(고저소리가 뭡니까?)

112010 #5 뭣엔 헛말 골아불민 숭.(뭐라고 헛말 말해버리면 흉.)

112010 #6 주책없는 소리 허지 말렌.(주책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112010 #5 주책엇이 고저소리 허지 말렌 허민, 그건 고저허민, 아기 줏이 줒추나, 아기 줏이 안 먹엉 ᄌᆞ들리나.(주책없이 고저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건 고저하면, 아기 젖이 졸아들거나, 아기 젖이 안 먹어서 걱정되거나.)

혼례

112011 @ 구식 결혼의 절차를 말씀혜 주십시오.(구식 결혼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112011 #5 구식 결혼이사게.(구식 결혼이야.)

112011 #10 곱게 무신 저 족두리 쓰곡 혜연 결혼헷주기. 신랑은 ᄆᆞᆯ 타곡.(곱게 무슨 저 족두리 쓰고 해서 결혼했지. 신랑은 말 타고.)

112011 #5 ᄆᆞᆯ 탕 풍등이 옷, 풍등이 씨곡 혜영.(말 타서 '풍등이' 옷, '풍등이' 쓰고 했어.)

112011 @ 구식 결혼 안하셧지예?(구식 결혼 안하셨지요?)

112011 #5 어? 우린 다 구식 결혼헤연. 장옷 입곡.(어? 우린 다 구식 결혼했어. 장옷 입고.)

112011 @ 정말마씨? 사진 그런 거 잇인 사람 엇지예?(정말요? 사진 그런 거 있는 사람 없지요?)

112011 #10 사진은 누가 찍고? 하하하.(사진은 누가 찍고? 하하하.)

112011 #6 시국에 우리 다 케와불언, 시국에 타불언. 다.(시국에 우리 다 태워버렸어, 시국에 타버렸어. 다.)

112011 #10 사진은 어디? 하하하.(사진은 어디? 하하하.)

112011 @ 족두리 쓰고, 다 중매고?(족두리 쓰고, 다 중매고?)

112011 #5 옛날사 중매결혼이주, 어디 저 연애결혼?(옛날이야 중매결혼이지, 어디 저 연애결혼?)

112011 @ 남자 집이서 다혜여마씨? 남자 집, 여자 집 다혜마씨?(남자 집에서 다 했어요? 남자 집, 여자 집 다해요?)

112011 #5 옛날은 새각시 집이 도새기도 잡앙 가져가곡, 남자 집이서.(옛날은 새색시 집에 돼지도 잡아서 가져가고, 남자 집에서.)

112011 #6 계란도 상 가졍가고.(계란도 사서 가져가고.)

112011 #5 계란이영 바닷궤기영 강 ᄋᆞ졍 가곡, 헷젠 헤도 우린 그런 거 받아본 적도, 헤 본디도 읏고.(계란이랑 바닷고기랑 가서 가져서 가고, 했다고 해도 우린

그런 거 받아본 적도, 해 본적도 없고.)

112011 @ 여자는 궤여, 또 뭐 가졍가곡, 요강이영.(여자는 궤다, 또 뭐 가져가고, 요강이랑.)

112011 #5 경데, 요강, 싀숫대양 그쟈 정대, 그쟈 그런 거 헹 가곡.(경대, 요강, 세숫대야 그저 경대, 그저 그런 거 해서 가고.)

112011 #6 엇인 사람은예. 찍방석도 헹 꼴앙 가는 사람도 잇수다.(없는 사람은요. 짚방석도 해서 깔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12012 @ 중매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마을에서 눈 맞앙 가곡 그런 일은 엇수과?(중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에서 눈 맞아서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112013 #10 엇어. 몰라. 경헌 사람도 실런지 뭐.(없어. 몰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는지 뭐.)

112013 #5 옛날에 저 완진이, 그때가 완진이 각시 풀 땐가? 어느 때 어떵 헤시냐허믄? 다숫이 제를 헹 살앗어. 경대 세숫대양 헹, 그거 헤주는 제를 헤신디, 모슬포 장더레 갈 때는 ᄒᆞ나씩 ᄑᆞ뜰ᄑᆞ뜰 헐 때 간 거라. 문딱 ᄂᆞ려강 그디 강 눈이 폭삭 오난 이젠 오젠허난 담이 어디신디 어디가 굴렁인지 뭐 질이 어딘지 혼합이라. 이젠 막 눈 묻언. 아이구 이젠 저 누게옌 허느니? 저 수광이옌 헌 사람은 볼목사람이라 고수광이옌 그 사람 각시도 흔디 가신디 그 사람 각신 오당 오멍 쉬엉만 가젠만 헤구나게. ᄉᆞ뭇 눈 한라산만이 오건디.(옛날에 저 완진이, 그때가 완진이 각시 팔 땐가? 어느 때 어떻게 했느냐하면? 다섯이 제를 해서 살았어. 경대, 세숫대야 해서, 그거 해주는 제를 했는데, 모슬포 장에 갈 때는 하나씩 ‘ᄑᆞ뜰ᄑᆞ뜰’ 할 때 간 거야. 모두 내려가서 거기 가서 눈이 폭삭 오니까 이젠 오려고 하니까 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가 굴렁인지 뭐 길이 어딘지 혼합이야. 이젠 막 눈 묻어서. 아이구 이젠 저 누게라고 하니? 저 수광이라고 한 사람은 보목사람이라 고수광이라고 그 사람 각시도 같이 갔는데 그 사람 각신 오다가 오면서 쉬어서만 가자고만 했구나. 사뭇 눈 한라산만이 오기에.)

112013 #10 쉬엇당 가민 죽어.(쉬었다가 가면 죽어.)

112013 #5 빙삭빙삭 웃이민 죽넨 헤고. 덮어 놓곡 걸으렌. 걸어야 허주. 우린 아멩 ᄀᆞᆯ앗자 담 에염에 우리. 담 에염이 어디 신 출도 모르곡, 그냥 가야헌덴.(방긋방긋 웃으면 죽는다고 했어. 덮어 놓고 걸으라고. 걸어야 하지. 우린 아무리 말해도 담 가에 우리. 담 가가 어디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야한다고.)

112013 @ 막편지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막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3 #5 막펜지사게 그 저 도세기 다리 흔 다리허곡, 쏠이나 흔 말 놓곡, 술이나 두어 뒈 놓고 허연 경 헨 갓주게 옛날에사.(‘막펜지’야 그 저 돼지 다리 한 다리하고, 쌀이나 한 말 놓고, 술이나 두어 되 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지 옛날에야.)

112013 @ 결혼 날짜 이렇게 얘기 허는 거?(결혼 날짜 이렇게 얘기 하는 거?)

112013 #5 결혼 헐 아무 날, 결혼이라 헤영 막펜지 가는 날.(결혼 할 아무 날, 결혼이라 해서 '막펜지' 가는 날.)

112014 @ 이바지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이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4 #10 이바진 그 뒈야지 잡아가고 무신 것덜 ᄀᆞ져가는 게 이바지.(이바진 그 돼지 잡아가고 무슨 것들 가져가는 게 이바지.)

112014 #6 뒈야지 혼 ᄆᆞ리 잡아가곡.(돼지 한 마리 잡아가고.)

112014 #5 아니, 도세기 혼 ᄆᆞ리 잡아가질 안 허곡 ᄃᆞᆺ다리 혼 다리 놓곡, 쏠 혼 말 허곡.(아니,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질 안하고 돼지다리 한 다리 놓고, 쌀 한 말 하고.)

112014 #6 아니, 받는 집은 경 받앗어.(아니, 받는 집은 그렇게 받았어.)

112014 #5 엿날 저 누게옌 허느니? 춘수아버지 풀 때, 조수물 낙천 풀멍, 도세기 헤갓젠 헹게.(옛날 저 누게라고 하니? 춘수아버지 팔 때, 조수물 낙천 팔면서, 돼지 해갔다고 하던데.)

112015 @ 혼수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5 #10 혼수는 옷 헤주는 거.(혼수는 옷 해주는 거.)

112015 #5 옷 헤주는 거.(옷 해주는 거.)

112015 @ 새각시 옷이나 이런 건 지네가 알앙?(새색시 옷이나 이런 건 자기네가 알아서?)

112015 #5 새시방 집이 가믄, 벗어 뒁 입는 건 새시방 칩이서 내놓지. 혼 불.(새신랑 집에 가면, 벗어 두고 입는 건 새신랑 집에서 내놓지. 한 벌.)

112016 @ 예장에 대헹 말씀혜 주십시오.(예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6 #10 예장 써가주게.(예장 써가지.)

112017 @ 가문잔치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가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7 #5 가문잔치옌 헌 건 ᄃᆞᆺ다리나 ᄒᆞ나 앗곡 잔치 넘어나민 쏠이나 혼 말 허곡, 술이나 두어 뒈 놓곡 헹 갓지 엿날은. 잔치헤나서.('가문잔치'라고 한 건 돼지 다리나 하나 가지고 잔치 넘어나면 살이나 한 말 하고, 술이나 두어 되 놓고 해서 갔지. 옛날은. 잔치했었어.)

112017 @ 아니, 가문잔치 언제 허는 것꽈?(아니, '가문잔치' 언제 하는 겁니까?)

112017 #10 뒷날.(뒷날.)

112017 #5 넘은 날, 뒷날.(넘은 날, 뒷날.)

112017 @ 뒷날 허민 사람덜 왕 부주도 허곡.(뒷날 하면 사람들 와서 부조도 하고.)

112017 #5 아니게, 이건 잔치 넘으면은 뒷날 사돈칩이 갈 때에 저 새시방 칩이서 새각시 칩이 갈 때 헹 가는 거 건. 우리 ᄀᆞᆫ는 건.(아니, 이건 잔치 넘으면 뒷날 사돈집에 갈 때에 저 새신랑 집에서 새색시 집에 갈 때 해서 가는 거 건. 우리 말

하는 건.)

112018 @ 아아, 우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서.(아아, 우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8 #10 무시 거?(무슨 거?)

112018 #6 우시 가는 거게?(우시 가는 거?)

112018 #5 새각시 펜이서 혼 사름. 새시방 펜이서 어멍 펜이서 혼 사름. 아방펜이서 혼 사름 허민 양 사돈 헤영은에 가곡 따시.(새색시 편에서 한 사람. 새신랑 편에서 어머니 편에서 한 사람. 아버지 편에서 한 사람 하면 양 사돈 해서 가고 다시.)

112018 #6 새각시 칩이서 오는 거 보멍, 새각시 칩이서 우시가 둘 오민, 이 신랑 칩이서도 둘 보내고 싯 오민 싯 올리고.(새색시 집에서 오는 거 보면서, 새색시 집에서 우시가 둘 오면, 이 신랑 집에서도 둘 보내고 셋 오면 셋 올리고.)

112019 @ 대방이나 중방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대방이나 중방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112019 #5 중방은게 들어오민 새시방 오민 그쟈 저 무싱 거 새시방 다른 사름 나가근에 악수허곡 그쟈 손잡으민 그쟈 들어오는 거난.(중방은 들어오면 새신랑 오면 그저 저 무슨 거 새신랑 다른 사람 나가서 악수하고 그저 손잡으면 그저 들어오는 거니까.)

112020 @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112020 #5 부조?(부조?)

112020 #6 옛날에?(옛날에?)

112020 #5 게 옛날이주.(그게 옛날이지.)

112020 #6 막 친헤영 사촌이나 뒈민 근쏠 혼 말 헤오곡, 경 안 ᄒᆞ민 보릿쏠 닷 뒈썩 헤난. 보릿쏠 닷 뒈 헤낫어.(막 친해서 사촌이나 되면 흰쌀 한 말 해오고, 그렇게 안 하면 보리쌀 닷 되씩 했어. 보릿쌀 닷 되 했어.)

112020 #10 보리쏠 두 뒈헤영.(보리쌀 두 되해서.)

112020 #6 게메. 그게 닷 뒈주게.(글쎄. 그게 닷 되지.)

112020 @ 두 뒈가 닷뒈?(두 되가 다섯 되?)

112020 #10 두 뒈가이 데싱 두 뒈가 닷 뒈라 소도로.(두 되가 되로 두 되가 닷 되야. 소도로.)

112020 @ 닷 뒈를 부조한다는 말이지예?(다섯 되를 부조한다는 말이지요?)

112020 #6 응. 동네사람은.(응. 동네사람은.)

112020 #10 두 뒈가 닷 뒈.(두 되가 다섯 되.)

112021 @ 두 뒈가 닷 뒈. 암창개[154]에 대헹 들어 봣수과?(두 되가 닷 되. '암창개'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154) '암창개'는 신랑이 외지에 나가 있어서 결혼 날짜에 돌아오지 못할 경우, 신부 혼자서 치르는 결혼을 말한다.

112021 #5 암창개 건 새시방 안 강 오는 거 암창개 건.(‘암창개’ 건 새신랑 안 가서 오는 거 ‘암창개’ 건.)

112021 @ 예? 새시방?(예? 새신랑?)

112021 #5 신랑 안 강 여자만 새시방 칩이 오는 것ᄀᆞ라 ‘암창개’.(신랑 안 가서 여자만 새신랑 집에 오는 것보고 ‘암창개’.)

112021 @ 여자만 새시방 칩이 와, 결혼허는 것꽈?(여자만 새신랑 집에 와, 결혼하는 겁니까?)

112021 #6 아, 저 신랑 아방이 죽으나 어멍이 죽으나 허면, 새각시 ᄃᆞᆯ레 가지 못헙네다. 게믄 우시덜만 강 그 새각시 모사오는 거가 ‘암창개.’(아, 저 신랑 아버지가 죽으나 어머니가 죽으나 하면, 새색시 데리러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시들만 가서 그 새색시 모셔오는 거가 ‘암창개.’)

112021 @ 아아, 그 여자만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아아, 그 여자만 그냥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112021 #6 우시덜만 강 보내영 강 ᄃᆞᆯ앙오는 거.(우시들만 가서 보내서 가서 데려오는 거.)

112021 @ 새시방이 안 강?(새신랑이 안 가서?)

112021 #6 집이 어멍이나 아방이 죽으믄 가지 못허는 법.(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죽으면 가지 못하는 법.)

112022 @ 아아. 사혼의 예가 있으면 말씀헤 주십서. 죽은 사람끼리 결혼허는 거 봐봣수과?(아아. 사혼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봐봤습니까?)

112022 #5 아, 저 무싱 거꼬? 죽은 혼ᄉᆞ.(아, 저 무슨 걸까? 죽은 혼사.)

112022 #6 죽은 혼ᄉᆞ.(죽은 혼사.)

112022 #5 아, 저 무싱 거 죽은 혼ᄉᆞ, 죽은 혼ᄉᆞᆫ게, 새각시나 죽으믄 새시방이 다시 저 집이서 다 죽은 사람끼리 다시 사돈끼리 다시 만나근에, ᄯᅳᆯ ᄃᆞ라 헤영 영 ᄒᆞ라. 정 ᄒᆞ라. 허믄 게믄 아무 날 택일 받앙 오쿠다. 헹 그쟈 말젠 이불 우알채 헹 가는 셍이랑게. 새각시 집이서 이불 우알채 헤 놓곡, 새시방네 집더레 귀신을 매끼믄 그디 왕 다 영장 메단 그레 강 ᄁᆞ딱 묻는 셍이란게.(아, 저 뭐 죽은 혼사, 죽은 혼사는, 새색시나 죽으면 새신랑이 다시 저 집에서 다 죽은 사람끼리 다시 사돈끼리 다시 만나서, 딸 달라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러면 아무 날 택일 받아서 오겠습니다. 해서 그저 나중엔 이불 위아래채 해서 가는 모양이던데. 새색시 집에서 이불 위아래채 해 놓고, 새신랑네 집에 귀신을 맡기면 거기 와서 다 영장 메다가 거기 가서 까딱 묻는 모양이던데.)

112022 @ 이불은 어떵?(이불은 어떻게?)

112022 #5 이불은게 새시방네 집이 ᄀᆞ졍가사 ᄉᆞ나인 죽어 비어도 그디 버금 사람이라도 더끄게덜.(이불은 새신랑네 집에 가져가야 사나이는 죽어 버려도 거기 다음 사람이라도 덮게들.)

112022 #10 또 그디 가면은 안 살믄 또.(또 거기 가면 안 살면 또.)

상례

112024 @ 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부르기는 어떻게 합니까?(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복부르기는 어떻게 합니까?)

112024 #3 아휴, 숨 안 쉬면 죽은 거지 뭐.(아휴, 숨 안 쉬면 죽은 거지 뭐.)

112024 #10 죽음?(죽음?)

112024 #6 죽음을 어떻게 확인허느냐고?(죽음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112024 @ 복부르기 어떻게 합니까?(복부르기 어떻게 합니까??)

112024 #3 복부르기?(복부르기?)

112024 @ 예(예.)

112024 #3 복부르는 건 뭐야?(복부르는 건 뭐야?)

112024 @ 지붕 우에 저고리 치마 영 죽은 사람 거 가졍강.(지붕 위에 저고리 치마 이렇게 죽은 사람 거 가져가서.)

112024 #3 아, 거 혼 부르는 거. 복부르기? 아, 혼 불러들이는 거. 지금도 허는데 잇는가?(아, 거 혼 부르는 거. 복부르기? 아, 혼 불러들이는 거. 지금도 하는데 있는가?)

112024 @ 옛날 거, 셍각난 거, 봐난 거. 혹시 봐난 거 잇으면 얘기혜 줍서.(옛날 거, 생각난 거, 봤었던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12024 #3 혼 부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4 @ 예.(예.)

112024 #3 응. 거 만약에 그게 이제 집에서 죽으면은.(응. 거 만약에 그게 이제 집에서 죽으면.)

112024 @ 예.(예.)

112024 #3 지붕 우에 가가지고 혼을 불르고, 드르에서 죽으면은 그것ᄀᆞ라 노정복사라 허는데.(지붕 위에 가가지고 혼을 부르고, 들에서 죽으면 그것보고 '노정복사'라 하는데.)

112024 @ 노정?(노정?)

112024 #3 복사.(복사.)

112024 @ 복사.(복사.)

112024 #3 예. 또 이 집 나가가지고 죽은 것ᄀᆞ라 노정복사라 허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 죽은 그 사람의 시체를 발견혜가지고 허면은 그 토롱이라고 잇지양? 그 토롱허는 데 가가지고 토롱허는 데서 혼 부르고.(예. 또 이 집 나가가지고 죽은 것보고 '노정복사'라 하는데 그거는 만약에 죽은 그 사람에 시체를 발견해가지고 하면 그 토롱이라고 있지요? 그 토롱하는 데 가가지고 토롱하는 데서 혼 부르고.)

112024 @ 아, 그 지붕 우에 갈 땐 뭘 갖고 강은에 부릅니까?(아, 그 지붕 위에 갈 땐 뭘 갖고 가서 부릅니까?)

112024 #3 적삼.(적삼.)

112024 @ 예?(예?)

112024 #3 적삼.(적삼.)

112024 @ 무사 그렇게 헴신고예?(왜 그렇게 하는가요?)

112024 #3 옛날 할아버지덜이 그 이제 영혼이 떠나니까 이제는 영혼 떠낫다. 그 영혼한티 알리는 거주. 게난 이제 혼정으로라도 이레 들어오라. 여기가 느 살단 디니까 혼정으로라도 여기 들어 왕 살라. 살단 디 버리지 말앙 뚠더레 가지 말앙 이레 들어오라는 그 신홀테주. 그게.(옛날 할아버지들이 그 이제 영혼이 떠나니까 이제는 영혼 떠났다. 영혼한테 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혼정으로라도 여기로 들어와라. 여기가 너 살던 데니까 혼정으로라도 여기 들어 와서 살아라. 살던 데 버리지 말아서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들어오라는 그 신호일 테지. 그게.)

112024 #10 혼 부르는 거?(혼 부르는 거?)

112024 #5 아, 혼 부르는 거? 혼 부르는 말이로구나. 거 사름 죽으민 올라 강 혼 부르는 거, 옷 ᄀᆞ정강 멧 술난 사름 보, 보, 허멍 허영.(아, 혼 부르는 거? 혼 부르는 말이로구나. 거 사람 죽으면 올라 가서 혼 부르는 거, 옷 가져가서 몇 살난 사람 보, 보, 하면서 해서.)

112024 #6 죽은 사람 우잇 옷 ᄒᆞ나 ᄋᆞ정 강, 겡 그걸로 혼 불러나민 또 그 옷을 그 관 우이 더끄는 거라.(죽은 사람 위에 옷 하나 가져 가서, 그래서 그걸로 혼 불러나면 또 그 옷을 그 관 위에 덮는 거야.)

112024 #5 관 우이 더껏당.(관 위에 덮었다가.)

112024 @ 죽었으니까?(죽었으니까?)

112024 #10 혼은 나가 불엇주기게 죽어가난.(혼은 나가버렸지 죽어가니까.)

112024 #6 게난 불렁 관 우이 더껑.(그러니까 불러서 관 위에 덮어서.)

112024 #5 경 헹 간 관 우이 더껑 강 저 영장밧디 강 산을 묻게 뒈엉 땅을 팡 묻게 뒈민, 그 바깟디 이 무싱 거옌 허느니, 헉이라도 ᄏᆞᆯ이 그 옷으로 다 씰엉 관을 씰어 뒁 그 우이 개판 더껑, 다시 그 우이 다시 멩경 더껑은에 묻는 거.(그렇게 해서 가서 관 위에 덮어서 가서 장지에 가서 산을 묻게 되어서 땅을 파서 묻게 되면, 그 바깥에 이 무슨 거라고 하니, 흙이라도 깨끗이 그 옷으로 다 쓸어서 관을 쓸어 둬서 그 그 위에 개판 덮어서, 다시 그 위에 다시 명경 덮어서 묻는 거.)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5 어떵사 허는 디사.(어떻게야 하는 지야.)

112026 #10 무시 거?(무슨 거?)

112026 @ 정시 불렁 막.(지관 불러서 막.)

112026 #10 아이고 엿날은 흔 일뤳썩, 흔 둘썩 막 허드라. 거 산 보레 뎅기는 것이.(아이고 옛날은 한 이레씩, 한 달씩 막 하더라. 거 산 보러 다니는 것이.)

112026 #5 옛날은 정시 ᄃᆞ랑 힘들어도 정시ᄃᆞᆯ앙 강 그쟈 ᄒᆞ루 강 그쟈 그레 강 그쟈 정시 뎅기는 게 얼마나 힘들엇어.(옛날은 지관 데려서 가서 힘들어도 지관 데

려 가서 그저 하루 가서 그저 거기에 가서 그저 지관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112028 @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8 #5 것사게, 베 헤영은에 사위 헹 옷 헹 입지곡, 뚤 헹 입지곡, 메누리 헹 입지곡, 아덜덜 헹 입지곡, 손지 방상 다 궨당덜 두건 헹 씌곡 경 허는 거주.(그거야, 베 해서 사위 해서 옷 해서 입히고, 딸 해서 입히고, 며느리 해서 입히고, 아들들 해서 입히고, 손자 방상 다 권당들 두건 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112028 #10 무사 경 다 적으멘?(왜 그렇게 다 적고 있니?)

112028 #11 잘도 하영 허크라.(잘도 많이 하겠네.)

11.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2 @ 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6 도깨비 걸령, 곱닥헌 여자가 앞이 걸어간, 이제랑 ᄀᆞ치 걸어가주 헤영 ᄀᆞ치 이젠 ᄀᆞ들ᄀᆞ들 걸어가난 막 조름에 좇아가난 물통더레 첨방 빠젼. 흔 발짝국만 가시민 그 사람도 빠질 거게.(도깨비 걸려서, 고운 여자가 앞에 걸어가서, 이제는 같이 걸어가지 해서 같이 이젠 천천히 걸어가니까 막 뒤에 쫓아 가니까 물통에 첨벙 빠졌어. 한 발자국만 갔으면 그 사람도 빠질 거.)

114002 #4 홀류는 거 아니꽈? 홀류완.(홀리는 거 아닙니까? 홀려서.)

114002 #6 도체비 홀련, 여자 곱닥헌 여자 바구리 옆둥에 톡 찌고 헨 흔들흔들.(도깨비 홀려서, 여자 고운 여자 바구니 옆에 톡 끼고 해서 한들한들.)

114002 #4 젊은 때 경 허는 거.(젊은 때 그렇게 하는 거.)

114002 #5 나 흔 번양, 인넹이 아시네 마ᄂᆞᆼ 싱그레 가신디, 막 볼아가난 인칙이 갓주기게. 간디 가노렌 허난 저 우이서 차가 오는디 아맹헤도 나를 헛개로 본 셍이라. 헛개로 봐싱ᄀᆞ라 그냥 차가 오단 멈춰 원 오질 안허는 거라. 아 저 사람은 날 헛개로 삼앙 경 헴구나 헨 이젠 확 돌아삿주게. 확 돌아사난 옷은 이딘 뭐 져부난 거멍허난에 헛개로 본 셍입데다. 게난 앞인 푸른 옷은 입엇주게. 푸른 옷 입어신디 뭐 지니까, 확 돌아사난 붸려보난 퍼렁헌 옷이구나 나가 돌아사난, 사람이로구나. 헌 걸 멀리서 알아 싱ᄀᆞ라 차 넘어가ᄀᆞᆺ때 저 사람 날 헛개로 봉.(나 한 번요. 인냉이 아우네 마늘 심으러 갔는데, 막 날좋아가니까 일찍이 갔지. 갔는데 가려고 하니까 저 위에서 차가 오는데 아무리 해도 나를 허깨비로 본 모양이야. 허깨비로 봤는지 그냥 차가 오다가 멈춰서 원 오질 안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날 허깨비로 삼아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젠 확 돌아섰지. 확 돌아 서니까 옷은 여긴 뭐 져버리니까 까마니까 허깨비로 본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앞엔 푸른 옷은 입었지. 푸른 옷 입었는데 뭐 지니까, 확 돌아서니까 봐 보니까 파랑한 옷이구나 내가 돌아서니

까, 사람이로구나 한 걸 멀리서 알았는지 차 넘어갈 때 저 사람 날 허깨비로 봐서.)

114002 #4 경 ᄒᆞ메.(그렇게 하지.)

114002 #5 날 헛개로 봔 저 사람 경 헷고나.(날 허깨비로 봐서 저 사람 그렇게 했구나.)

114002 #4 아이고, 옛날은 경 헨덜 원.(아이고, 옛날은 그렇게 했어들 원.)

114002 #5 경 허는 거 닮읍디다게.(그렇게 하는 거 같습디다.)

114002 #6 그 옛날 아니도게, 저 저 화북서 경 손을 막 들리난 화북서 대가리 어신 사람이라렌, 손을 막 들런 딱 막아사면 어쩔 수 엇어렌, 차 저레 가믄 저레 가고, 이레 오믄 이레 오곡 허난 찰 세우난 찻길에산디, 이젠 가는 걸 오는 걸 어느 집더레 가는지 붸려 보젠 ᄂᆞ련 가난, 그 집이 식게헴서렌.(그 옛날 아니도, 저 저 화북서 그렇게 손을 막 들리니깐 화북서 대가리 없는 사람이었다고, 손을 막 들어서 딱 막아서면 어쩔 수 없었다고, 차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오면 이리로 오고 하니까 찰 세우니까 찻길에인지, 이젠 가는 걸 오는 걸 어느 집으로 가는지 봐 보려고 내려서 가니까, 그 집에 제사하고 있더라고.)

114002 #5 게난 그 사람 제사난 가단에.(그러니까 그 사람 제사니까 가다가.)

114002 #6 경허난에 그디 할망이 식게헴서렌. 영, 영헌 사람 차탄 와신디, 경혼 사람 제사우꽈? 허난에 예게, 우리뚤 ᄉᆞ삼ᄉᆞ건에 죽언에.(그러니까 거기 할머니가 제사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 차타고 왔는데, 그렇게 한 사람 제사입니까? 하니까 예, 우리 딸 사삼사건에 죽어서.)

114002 #4 오래지 안핸?(오래지 않았어?)

114002 #6 대가리 그챠 가부난예, 오래지 안햇수게게, 식게헴수덴 허멍.(대가리 끊어 가버리니까요. 오래지 않았다고, 제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114002 #5 칠십년 혼 육십 멧 년 뒛주게.(칠십 년 한 육십 몇 년 됐지.)

114002 #6 경혠 막 고맙수덴 허멍 그 할망 저프게 헤렌, 시껑가난.(그렇게 해서 막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할머니 놀라게 하더라고, 실어가니까.)

114002 #5 옛날 오단 보난 가막창신 큰 불덩어리가 박박 난 우견 어중그랑헌ᄀᆞ라 가죽신을 벗엉 자당 보딘 팡 해영 그 하르방.(옛날 오다가 보니까 '가막창신' 큰 불덩어리가 박박 나서 우겨서 애매한지 가죽신을 벗어서 자다가 가까운 '팡' 해서 그 할아버지.)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과 전공	분야	참여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 · 총괄 표선면 성읍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김미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천읍 함덕리 성산읍 삼달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구좌읍 한동리 애월읍 고내리
허영선	제주대학교 강사	한국학(제주역사)	표선면 성읍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남원읍 수망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서귀포시 하원리
김성용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안덕면 대평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신도리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한경면 청수리
현혜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국어국문학	연구 보조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9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